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Household Religion




# 가정신앙

ㄱ ~ ㅅ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Household Religion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한국민속신앙사전 _ 가정신앙

**발행일** 2011년 12월 1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전화 02-3704-3230)

**총괄** 정명섭(민속연구과장)
**기획 · 진행** 김창일 이성곤 김태우
**편수원** 김혜경 변혜민 백민영 조선영
이유나(전 민속연구과 연구원)

**윤문 · 교열 · 교정** 제1차 사전편찬팀
제2차 한국어문기자협회
제3차 황치영(교정전문가)
**디자인 ·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090-01
**ISBN** 978-89-289-0005-3 94200
978-89-92128-58-2 94200(세트)



# 발간사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형의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보존가치가 뛰어난 무형유산을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하는 등 각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속신앙을 집대성한 〈한국민속신앙사전〉이 완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국립민속박물관은 2004년부터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인편 및 전자사전을 발간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 무속신앙편, 2010년에 마을신앙편을 발간하였고 올해 가정신앙편을 발간함으로써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일단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웹서비스를 통해 종이사전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동영상이나 사진, 음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생동감있는 인터넷백과사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문학사전〉, 〈일생의례사전〉, 〈민속예술사전〉, 〈의식주생활사전〉, 〈생업기술사전〉, 〈민속사회사전〉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명실공히 한국 민속 문화의 정수를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편찬사업의 대장정이 끝나는 시점에는 현세기까지의 한국 민속문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한국 민속의 총체적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정신앙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윤문 · 교열 · 교정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한국세시풍속사전〉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 11월에 '무속신앙편' 1·2권이 발간되었고 2010년 11월에 '마을신앙편' 1·2권이 발간되었으며 2011년 올해는〈한국민속신앙사전〉의 종결편인 '가정신앙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가정신앙편'은 표제어 248항목, 원고 5700여매, 사진 700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사진자료에는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자를 기입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정신앙편'은 가정신앙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민속신앙을 전공한 107명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수합된 원고는 사전편찬팀과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어문기자협회, 원로 교정 전문가에 의해 3차에 걸쳐 윤문·교열·교정을 진행했다. 또한 가정신앙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7명의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에 의해 최종 원고 감수가 이루어졌으며 감수위원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된 원고의 경우에는 필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민속신앙사전〉은 개별 표제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찬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방향은 표제어의 주제에 맞춰 기술하되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주변적인 사항도 함께 기술하여, 해당 표제어만으로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즉 내용의 분량과 범위를 계층화하지 않고 개별 표제어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무속신앙편'과 '마을신앙편'이 이러한 방향으로 편찬되었고, 이번에 발간되는 가정신앙편 역시 이러한 편찬방향을 따랐다. 즉, 가정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는데 제의, 신격, 신체, 제구, 제물, 자료, 용어로 나누어 7개 분야 총 248개의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사전의 전체 구성은 '무속신앙편'과 '마을신앙편'의 구성과 동일하다. 즉,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크게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를 병행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가정신앙편'의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독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령 제물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분야별 차례를 통해 제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제어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백과사전의 특징인 참조와 학습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필자란에는 일반적으로 필자 성명과 소속만을 표기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페이지를 기재하여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신앙편'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참조(cross reference) 표시를 하여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상호연관성이 있는 정보의 연계는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민속신앙분야는 관련 항목의 중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련표제어를 긴밀히 연관시키는 사전편집체계가 필요하다. 분야별 차례의 병기와 상호참조표시의 강화는 〈한국민속신앙사전〉의 전문백과사전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일러두기

###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신앙사전은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 가정신앙편으로 구성된다.

###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라 함은 『한국민속신앙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신앙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표제어 추출 후 중요도, 조사·연구 성과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3. 가정신앙은 가옥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신에 대한 신앙과 가정단위에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의 전반을 포함한다. 가정신앙의 특징상 신앙의 형태가 확연하게 구별되기보다는 무속, 불교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가정신앙의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4. 표제어는 제의, 신격, 신체, 제구, 제물, 자료, 용어 등 7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1) 제 의 : 지역에 따라 혹은 성격에 따라 달리 일컬어지는 제의 명칭은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는 것을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2) 신 격 : 가정신앙에서 모셔지는 신(神)으로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신격과 특정 지역에서 모셔지는 신격을 포괄하여 표제어를 선정했다.
3) 신 체 : 가정신앙에서 모셔지는 신격을 대상화한 형상물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4) 제 구 : 제의에 사용되는 도구 중 상징적 의미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5) 제 물 : 제의에 사용되는 중요한 구성물이나 상차림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6) 자 료 : 가정신앙과 관련되는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헌, 문서 등은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7) 용 어 :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가정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를 선별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표제어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구성은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의 끝부분에는 집필자별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가표제어 및 상호참조

1. 가표제어 :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어휘일 경우 대표형을 주표제어로 선정하고, 이외의 것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런 경우 가표제어를 표제어와 같은 배열상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된 표제어로 이동을 유도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가표제어 표시 : (표제어) 원고가 있는 표제어로 페이지 이동
2. 상호참조 : 내용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참조 표시 : (상호참조) 관련성이 있는 표제어 간의 상호 참조

###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국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0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하거나 유의어를 뜻풀이 할 때 표기하였다.
(2) 큰 따 옴 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 낫 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 표 「 」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 현판 등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 괄 호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 썼다.
(6) 소 괄 호 (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중 괄 호 〈 〉 : 민요, 무가, 설화 등을 지칭할 때 표기하였다.
(8) 줄 임 표 ……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9) 가 운 뎃 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표기하였다.
(10) 온 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11) 물 결 표 ~ : '내지'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와 생몰년 사이에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표기하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에 따랐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하였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단위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 등을 밝혔다.

**이칭** 가표제어와 그 외 방언 등의 이칭들을 모아서 표제어별 이칭표를 제시함으로써 이칭을 통해서도 주표제어와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자가 어떤 표제어를 집필했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목차** 기존에 발간되었던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과 이번에 발간되는 가정신앙편의 표제어를 통합하여 가다나 순으로 배열한 〈한국민간신앙사전〉 통합 목차를 제시함으로써 세 가지 사전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문위원 및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김동섭(제주도립미술관), 김지욱(경기문화재단), 김진순(코리아루트), 김효경(한남대학교), 서해숙(전남대학교), 유승훈(부산박물관), 임승범(문화재청), 황경순(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맡았다.
2. 감수위원은 제의 분야에 김명자(안동대학교)·이필영(한남대학교), 신격 분야에 나경수(전남대학교), 신체 분야에 김헌선(경기대학교), 제구 분야에 황루시(관동대학교), 제물 분야에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와 용어 분야에 서영대(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맡았다.

# 가나다 차례


## ㄱ

가을고사 22
개공제 25
개토제 27
객귀물리기 29
객귀밥 31
거리밥 34
거리제 34
건궁 36
걸립신 38
고깔 39
고사 40
고수레 45
고추 47
고팡신 48
곡물 48
곳간신 51
광대감 52
광청아기 52
구슬할망 57
구일차례 61
군웅 61
굴대장군 63
굴뚝신 63
굴레고사 65
굴부르기제 65
귀신가두기 69
귀신종이 72
귀신종이모시기 75
귀표고사 79
그물고사 80
금기 81
기자 83

## ㄴ

나락 88
나무고사 91
나이떡 91
낙인고사 92
넋들임 94
노구솥 97
논고사 97
논둑제 97
농사고사 98
농신제 101
눌굽지신 107

## ㄷ

단오고사 112
단잡기 115
담배고사 121
대감 121
대감단지 127
대감벙거지 128
대구심리 130
대주 131
덤장고사 132
도깨비 132
도깨비고사 134
도신 138
돗제 138
동국세시기 141
동지고사 144
동토 148
동토잡기 149
돼지코 151
된장 151
똥떡먹이기 154
뜬귀물리기 155

## ㅁ

마구간고사 158
마당신 159
마당제 160
마대장군 163
마중시루 163
맞고사 167
메밀묵 167
멩감제 168
모밥내가기 168
모탕고사 169
못자리고사 169
문간제 170
문신 171
문전제 175
문전철갈이 178
물대 179
미륵바위 180
미륵불 180
미역 182
밀떡 186

## ㅂ

바꾸보살 190
바위치성 190
밧칠성 192
방앗간신 196
방위가리기 197
밭고사 197
배고사 197
배서낭 201
배서낭함 204
배성주 205
백중고사 205
벗고사 205
볏짚 205
병경 208
보름고사 211
복대 216
복물뜨기 217

복숭아나무 217
복제 221
부루단지 221
부적 223
북어 227
불막이 230
불밝히기 230
비손 233


## ㅅ


사신 238
사신대감 239
산 240
산동이 243
산멕이 244
산바람막기 249
산소탈막기 250
산신멩감 250
산치성 251
살고사 252
삼신 254
삼신단지 257
삼신대 258
삼신모시기 261
삼신바가지 265
삼신받기 266
삼신밥 268
삼신짚 269
삼잡기 270
삼재 273
삼재부적 274
삼재풀이 276
삼짇고사 282
삼칠일 284
상달고사 287
상량문 287
상량제 292
상문풀기 294
새알뜨기 295
새옹 295
서낭신 297
서낭제 300
석전 · 기우 · 안택 304
선왕 307
선왕제 307
섬떡 307
성주 307
성주고사 313
성주매기 317
성줏단지 319
성줏대 320
세이레 322
세존 322
세존단지 323
소금 326
소삼신 327
소삼신모시기 328
손 331
솔가지 333
송경 336
솥 336
쇠코뚜레 341
수세 345
수양부모삼기 345
수지 345
숯 347
시루 347
시루떡 349
시매 351
신구간 352
신수보기 354
신줏단지 359
신충애기 362
실타래 362
쌀 365
쌈 367


## ㅇ


아이팔기 438
안칠성 440
안택 441
애기씨 451
액막이 451
야광귀 452
양밥 456
양씨아미 457
어부심 460
엄나무 463
업 464
업가리 466
업맞이 469
염전고사 472
영등 473
영등고사 477
영등까꾸리 484
예조 485
오곡밥 486
오방지신 489
오색천 493
옥녀각시 497
옥녀살 500
올개심니 500
올레대위 500
올레신 500
올벼심리 504
옹기가마고사 506
왕신 509
왕신단지 511
용단지 513
용단지모시기 516
용알뜨기 519
용왕 522
용왕제 526
우마신 530
우물제 531
웃줄할매 534
위목 535
유두고사 537

이월할매 540
인삼고사 540
인업 541
임신네 544
입택고사 545

ㅈ
자동차고사 552
잔밥먹이기 555
장독신 558
절미 561
정월고사 561
정월떡 561
정초차례 562
정화수 565
제미하기 567
제석 567
제석오가리 569
제석주머니 573
제석할망 577
제석할망고사 579
제웅 580
제웅버리기 583
조군영적지 586
조기심리 588
조상 591
조상단지 592
조상모시기 594
조상종이 598
조선 598
조선무속고 601
조선의귀신 603
조왕 605
조왕고사 611
조왕중발 616
좀도리 618
종이성주 619
주당풀이 623
주부 625
죽산이 626
중구차례 626
지붕신 627
지신 631
지신밟기 634
지신제 634
지앙 637
짐승뼈 637
집들이고사 642
짚신이바지 642
짚주저리 643

ㅊ
찰밥 650
참봉고사 650
천신 650
철륭 653
철륭제 657
체 659
춘첩 661
출어고사 668
측신 672
측신모시기 675
칠석고사 678
칠성 680
칠성고사 684
칠성단지 689

ㅋ
키 696

ㅌ
탈 698
택일 699
터밟기 703
터주 707
터주고사 711
터줏가리 716
토봉고사 717
토신제 718
통시각시 718

ㅍ
팥죽 719
풍신 719
풍신제 719

ㅎ
학질떼기 722
한지 723
해물리기 726
햇곡식갈기 726
허궁 729
허재비 729
헌식 729
호구신 729
호서낭 733
호식장 734
홍수맥이 735
화재막이 735
횡수막이 736

이칭 374
색인 378
필자 392
통합목차 398

# 분야별 차례



## 제의


가을고사 22
개공제 25
개토제 27
객귀물리기 29
거리제 34
고사 40
구일차례 61
굴레고사 65
굴부르기제 65
귀신가두기 69
귀신종이모시기 75
귀표고사 79
그물고사 80
나무고사 91
낙인고사 92
넋들임 94
논고사 97
논둑제 97
농사고사 98
농신제 101
단오고사 112
단잡기 115
담배고사 121
대구심리 130
덤장고사 132
도깨비고사 134
도신 138
돗제 138
동지고사 144
동토잡기 149
똥떡먹이기 154
뜬귀물리기 155
마구간고사 158
마당제 160
마중시루 163
맞고사 167
멩감제 168
모밥내가기 168
모탕고사 169
못자리고사 169
문간제 170
문전제 175
문전철갈이 178
바위치성 190
밭고사 197
배고사 197
백중고사 205
벗고사 205
병경 208
보름고사 211
복물뜨기 217
복제 221
불막이 230
불밝히기 230
산멕이 244
산바람막기 249
산소탈막기 250
산신멩감 250
산치성 251
살고사 252
삼신모시기 261
삼신받기 266
삼잡기 270
삼재풀이 276
삼짇고사 282
상달고사 287
상량제 292
상문풀기 294
새알뜨기 295
서낭제 300
선왕제 307
성주고사 313
성주매기 317
소삼신모시기 328
송경 336
수세 345
수양부모삼기 345
신충애기 362
아이팔기 438
안택 441
액막이 451
어부심 460
업맞이 469
염전고사 472
영등고사 477
올개심니 500
올레대위 500
올벼심리 504
옹기가마고사 506
용단지모시기 516
용알뜨기 519
용왕제 526
우물제 531
유두고사 537
인삼고사 540
입택고사 545
자동차고사 552
잔밥먹이기 555
정월고사 561
정초차례 562
제미하기 567
제석할망고사 579
제웅버리기 583
조기심리 588
조상모시기 594
조왕고사 611
주당풀이 623
중구차례 626
지신밟기 634








지신제 634
집들이고사 642
짚신이바지 642
참봉고사 650
천신 650
철륭제 657
출어고사 668
측신모시기 675
칠석고사 678
칠성고사 684
터밟기 703
터주고사 711
토봉고사 717
토신제 718
풍신제 719
학질떼기 722
해물리기 726
햇곡식갈기 726
호식장 734
홍수맥이 735
화재막이 735
횡수막이 736




## 신격


걸립신 38
고팡신 48
곳간신 51
광대감 52
광청아기 52
구슬할망 57
군웅 61
굴대장군 63
굴뚝신 63
눌굽지신 107
대감 121
도깨비 132
마당신 159
마대장군 163
문신 171
바꾸보살 190
밧칠성 192
방앗간신 196
배서낭 201
배성주 205
사신 238
사신대감 239
삼신 254
서낭신 297
선왕 307
성주 307
세존 322
소삼신 327
안칠성 440
애기씨 451
야광귀 452
양씨아미 457
업 464
영등 473
오방지신 489
올레신 500
왕신 509
용왕 522
우마신 530
웃줄할매 534
이월할매 540
인업 541
임신네 544
장독신 558
제석 567
제석할망 577
조상 591
조왕 605
죽산이 626
지붕신 627
지신 631
지앙 637
철륭 653
측신 672
칠성 680
터주 707
통시각시 718
풍신 719
호구신 729
호서낭 733




## 신체


곡물 48
귀신종이 72
나락 88
대감단지 127
대감벙거지 128
미륵바위 180
미륵불 180
볏짚 205
부루단지 221
산 240
산동이 243
삼신단지 257
삼신바가지 265
성줏단지 319
세존단지 323
신줏단지 359
업가리 466
왕신단지 511
용단지 513
제석오가리 569
제석주머니 573
조상단지 592
조상종이 598
조왕중발 616
종이성주 619
칠성단지 689
터줏가리 716
한지 723




## 제구


고깔 39
노구솥 97
돼지코 151
물대 179
배서낭함 204
복대 216
복숭아나무 217
부적 223
삼신대 258
삼신짚 269
삼재부적 274
상량문 287
새옹 295
성줏대 320
솔가지 333
솥 336
쇠코뚜레 341
숯 347
시루 347
시매 351
엄나무 463
영등까꾸리 484
오색천 493
위목 535
제웅 580
짐승뼈 637
짚주저리 643
체 659
춘첩 661




## 제물


키 696
허재비 729
객귀밥 31
거리밥 34
고추 47
나이떡 91
된장 151
메밀묵 167
미역 182
밀떡 186
북어 227
삼신밥 268
섬떡 307
소금 326
시루떡 349
실타래 362
쌀 365
쌈 367
오곡밥 486
정월떡 561
정화수 565
찰밥 650
팥죽 719




## 자료


동국세시기 141
석전 · 기우 · 안택 304
조군영적지 586
조선 598
조선무속고 601
조선의귀신 603


## 용어


건궁 36
고수레 45
금기 81
기자 83
대주 131
동토 148
방위가리기 197
비손 233
삼재 273
삼칠일 284
세이레 322
손 331
수지 345
신구간 352
신수보기 354
양밥 456
예조 485
옥녀각시 497
옥녀살 500
절미 561
좀도리 618
주부 625
탈 698
택일 699
허궁 729
헌식 729
이칭 374
색인 378
필자 392
통합목차 398




가을고사
개공제
개토제
객귀물리기
객귀밥
거리밥
거리제
건궁
걸립신
고깔
고사
고수레
고추
고팡신


ㄱ


곡물
곳간신
광대감
광청아기
구슬할망
구일차례
군웅
굴대장군
굴뚝신
굴레고사
굴부르기제
귀신가두기
귀신종이
귀신종이모시기
귀표고사
그물고사
금기
기자



**제의**
가을고사
개공제
개토제
객귀물리기
거리제
고사
구일차례
굴레고사
굴부르기제
귀신가두기
귀신종이모시기
귀표고사
그물고사

**신격**
걸립신
고팡신
곳간신
광대감
광청아기
구슬할망
군웅
굴대장군
굴뚝신

**신체**
곡물
귀신종이

**제구**
고깔

**제물**
객귀밥
거리밥
고추

**용어**
건궁
고수레
금기
기자




# 가을고사

상호참조 안택(441쪽)

**정의**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가신에게 지내는 고사.

**내용**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며, 일 년에 한 번 고사를 지낸다. 고사의 날짜는 만신이 잡아 주거나 책력을 보고 택일한다. 돼지날이나 말날이 좋다고 하여 이날 지내기도 한다. 돼지날보다 말날을 더 좋다고 여긴다. 마을에서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서는 마을고사 전에 집고사를 하기도 하고, 마을고사 후에 지내기도 한다.

마을에 출산이나 초상 등 부정이 들면 날을 연기한다. 보통 피부정은 일주일, 상문부정은 달을 미룬다. 때문에 초상이 나면 달을 걸러 동짓달에 고사를 지낸다. 동짓달에도 초상이 나면 정월로 날을 미룬다. 섣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만약 정월에도 부정이 들어 고사를 지내지 못하면 삼월 삼짇날 안으로 고사를 지낸다. 삼짇날이 지나면 뱀과 같이 긴 짐승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므로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날을 잡으면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또한 택일한 그날부터 집안의 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고사 날이 되면 집안의 안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을 정갈히 하여 시루를 찐다. 예전에는 백설기와 팥 시루를 집안에서 모시는 신령별로 별도로 쪘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팥 시루 하나만 찐다. 떡을 찔 때에도 부정이 들면 안 된다. 떡이 잘 쪄지지 않아 쌀가루가 묻어 나오면 좋지 않다고 여긴다. 떡을 찔 때에는 잘 익게 해달라고 손을 비비며 계속 절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상달고사를 '가을고사'라고도 한다. 가을고사는 10월 초승 무렵 말날[午日]에 주로 지낸다.

가을고사는 농사를 다 끝내고 대체로 10월에 좋은 날을 잡아 지낸다. 예전에는 3년에 한 번 굿을 하는 집도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간단하게 고사만 지낸다. 고사는 보통 말날이나 돼지날이 좋다고 하여 그날 많이 지낸다. 현재는 가족들의 일정에 맞추어 편한 날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가을 농사가 끝나면 처음 찧은 햅쌀은 대감항아리에 채워 넣는다. 가을고사를 지내는 날에는 집에서 모시고 있는 터줏가리나 업가리 안의 항아리에 새로 농사지은 햅쌀 또는 햇벼, 햇콩을 갈아 넣고 '지석주머니'[제석주머니]에도 햅쌀로 채워 넣는다. 그런 후 새 볏짚으로 터줏가리, 업가리를 만들어 세운다. 그런 다음 고사떡을 찌는데, 예전에는 고사 지내는 날 집 안에 팥 삶는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여 모시는 신령 수대로 집에서 팥 시루를 쪘다.

광명시 가학동에서는 고사 날이 정해지면 사흘 전부터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 앞에 황토를 뿌린다. 고사 날을 잡은 후 동네에서 출산을 한 집이 있거나 상이 나면 이를 부정으로 여기고 며칠을 미룬다. '산부정(아기 낳은 부정)'은 3일, '죽은부정(상을 당한 부정)'은 7일 정도 가린다. 지역에 따라 한 달을 가리기도 한다.

가을고사 때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제물은 팥 시루떡이다. 예전에는 시루떡을 집에서 직접 쪘지만 요즘에는 쌀을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쪄 온다. 쌀은 한 말 정도를 준비한다. 시루의 수는 집집마다 다르다. 시루떡을 찔 때는 맨 위 가운데다 쌀가루만 얹어서 조그맣게 백설기를 찐다. 시루를 찔 때 떡이 잘 익지 않으면 막대기로 시루 안을 쑤신 다음 정화수를 떠서 시루 안에다 두고 "떡이 잘 익게 해 달라."라고 비손한다.

각각의 신에게 올리기 위해 시루를 여러 개 준비한다. 두 시루를 찌는 집에서는 성주에 올리는 큰 시루 하나와 장독간에 올리는 작은 시루(세 켜) 하나를 준비한다. 시루떡이 쪄지면 가장 먼저 성주에게 올린다. 상은 안방 문을 열어둔 채 안방으로 향하게 놓는다. 상 위에 시루를 놓고 여기에 삶은 돼지고기, 술, 북어를 올린다. 북어는 대개 시루의 손잡이에 끼워 놓는다. 그런 다음 절을 하고 "가족들 모두 잘되게 해 달라.", "먼 길 다니는 자손들을 돌봐 달라."라고 비손한다. 이어서 장독간에 시루를 가져다 두고 비손한다. 이는 '장맛 좋아지라'고 놓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성주에 올린 큰 시루의 떡을 쏟아 나눠서 접시에 담아 각 방(안방, 건넌방), 부엌, 광, 대감독, 대문간, 외양간, 우물 등지에 가져다 둔다. 외양간에 둘 때는 "소 잘되게 해 달



**가을고사**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1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라."라고 비손한다. 곳곳에 갖다 둔 떡은 운감하고 난 뒤에 다시 들여서 먹는다.

강원도 고성군 거전읍에서는 시월상달에 '텃고사'를 지낸다. 텃고사는 지신제라고도 하며 일 년에 한 번 주로 시월상달에 좋은 날을 받아서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날받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날을 받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음력 9월 9일 중구날이나 삼월삼짇날에 텃고사를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날을 받아서 텃고사를 지낼 때에는 대주와 부인의 나이를 보고 생기를 맞춰서 날을 잡는다.

날을 받으면 일주일 전부터 집 앞에 금줄을 치고 부정을 가린다. 이렇게 해 두면 외부 사람들은 그 집 방문을 삼간다. 지금은 간소해져서 금줄을 치는 집이 없다. 제물은 집집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백설기, 과일, 삶은 북어, 탕, 오징어포, 무채나물, 쌀, 메를 준비한다. 메는 큰 그릇에 떠서 집안 식구들의 숟가락을 모두 꽂아 올린다. 이 가운데 백설기는 '정성떡'이라고 하여 꼭 석 되 서 홉의 양으로 찐다.

제물은 대청마루에 차린다. 마루가 없는 집에서는 안방에 상을 차려서 고사를 지낸다. 대부분은 대주가 직접 진행한다. 빌어 주는 이가 할 때에는 성주와 토주(터주)를 위하며 "집안이 편안하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축원문을 읽는다. 또 "가족의 월액시액을 다 막아 달라."라고 하면서 일 년 열두 달 드는 액을 모두 쳐들며 이를 막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에서는 추수를 끝내고 10월에 떡을 쪄서 고사를 지낸다. 이를 '집안고사'라고도 부른다. 일 년 열두 달 동안 집안이 평안하고 자손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안의 신령을 위한다. 집안고사를 9월에 지낸다면 음력 9월 9일 중구일을 길일로 여긴다. 상달인 10월은 특별히 길일을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초사흗날에 많이 지낸다. 간혹 사람이 죽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이 탔다고 하여 죽은부정은 사흘, 산부정은 이레를 각각 미루어 다시 택일한다. 또한 고사를 지낼 때는 부정한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황토를 대문 앞 양옆에 세 무더기씩 여섯 무더기를 피워 둔다.

이때 마련하는 시루떡은 '집안시루'라고 한다.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친 부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팥을 넣어 부정을 막는다. 팥은 으깨지 않은 통팥을 사용하며, 켜켜로 넣지 않고 시루 위에 흩뿌린다. 팥 시루(팥고물)보다 백설기를 찌는 것은 정성이 곱절로 들어간다. 칠성을 극진히 위하는 가정에서는 칠성시루를 별도로 찌기도 한다. 이때는 칠성시루도 팥 시루를 찐다. 예전에는 아이들도 떡을 좋아하고 이웃과도 넉넉히 나누어 먹기 위해 두세 말 쪘다. 그러나 지금은 떡을 좋아하는 아이도 많지 않고, 고사를 크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한 되 서 홉이나 석 되를 찐다.

밤 10시쯤이 되면 찐 떡을 가지고 뒤꼍 장독대의 당산으로 나간다. 바닥에는 벼이삭이 달린 부분이 동쪽을 향하도록 짚을 가지런히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당산에는 후토당산, 터주, 북두칠성이 함께 있지만 특별히 이들의 신체를 모셔 두지는 않는다. 이들 세 신령을 위해 떡을 한 시루만 쪄서 올리거나 각기 세 시루를 마련하여 올리기도 한다. 대주 밥그릇에 불밝이쌀을 담아 촛불을 놓고 시루떡과 청수를 올린 뒤 동·남·서·북 사방을 돌면서 각기 삼배를 한다. "일년 열두 달 과년 여섯 달 우리 ○서방네 집을 무탈하게 해 달라!"라고 비손한다. 특히 가장의 안녕을 위해 비손한다. 소지는 식구 수대로 한 장씩 올린다.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에서는 집안에 우환(憂患)이 있는 가정에서는 영신(무당)을 불러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수고비는 집안 형편에 따라 성의껏 마련하여 준다. 당산에서 소지까지 올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성주를 위한다. 성주에게 당산과 마찬가지로 대주 밥그릇에 불밝이쌀을 담아 촛불을 밝히고 상이나 신문지 위에 떡과 청수를 올린다. 성주에게는 절을 하지 않고 간단히 비손만 한다.

성주를 위하고 나서 방 안에서 떡을 떼어내 대문간, 중문간, 안방, 마루, 굴뚝 등지에 조금씩 가져다 둔다. 굴뚝에는 불이 나지 말라는 의미, 대문에는 드나들면서 복도 함께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각각 놓는다. 변소에 떡을 놓는 것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매우 다르다. 측신은 가장 무서운 귀신이므로 처음부터 위했다면 떡을 떼어 놓는다. 그러나 위하지 않았다면 굳이 위할 필요가 없으므로 떡을 놓지 않는다. 집 안 곳곳에 놓은 떡들을 나중에 모두 거두어들여 가족과 먹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준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집안고사가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서는 시월상달에 성주고사를 지낸다. 성주고사는 집안의 대주를 상징하는 성주를 위하는 제의이다. 그러나 이때 성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 삼신, 조왕, 용단지 등을 차례로 모신다. 고사 날이 정해지면 당일에 햇곡식으로 찧은 쌀로 떡을 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조기와 명태를 장만한다. 배추전, 무전, 고구마전을 부치고 밥과 물을 떠 놓은 상을 성주에게 먼저 놓은 다음 빌면서 절한다. 삼신과 조왕은 밥과 물(정화수), 용단지에는 밥과 술을 각각 떠 놓는다.

봉화군 명호면 양곡2리에서는 나락을 수확하는 10월 가운데 좋은 날을 택해 햇곡식으로 집안의 가신에게 제의를 행한다. 이를 '시월고사', '상달고사'라고 한다. 성주만 모시는 가정에서는 이를 '성주제사'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날을 받는 분에게 부탁하여 좋은 날을 받는다. 고사를 지낼 때는 단지의 쌀을 갈아준다. 삼신단지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삼신단지의 쌀도 햇곡식으로 간다. 안에 있던 쌀은 밥을 하거나 떡을 쪄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이 음식이 밖으로 나가면 불길한 것으로 여겼다.

떡은 팥 시루떡을 한다. 나물, 밥, 과일, 고기 등을 성줏단지 앞에 차려 놓고 가장이 먼저 절을 올린다. 그 뒤에 주부가 비손하면서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정성을 들인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황경순(黃慶順)

## 개공제(開工祭)

**정의** 집 짓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주관하는 대목이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상량신에게 올리는 의례.

**역사** 개공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매지권(買地卷, 죽은 사람이 묻힐 땅을 매입한 증서)의 내용에 "지신으로부터 묘지를 매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묘지나 건물의 터를 팔 때 지신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복거(卜居)조에는 개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역사를 시작하는 날 제사가 끝나면 목수들은 마름질한 들보 아래(뿌리 부분)에 톱을 늘어놓고 가신을 모신 뒤에 제례를 올린다. 그리고 붉은 종이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 써서 들보머리에 붙인다. 따로 황색종이에 강태공재차(姜太公在此, 강태공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며 강태공은 대목을 지칭함)라는 글귀를 붉은 글씨로 써서 처음 손질할 나무에 걸어 둔다. 이렇게 하면 잡귀가 붙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기록을 볼 때 조선시대에는 개공제가 일반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지역에 따라서는 '모탕고사', '개공고사', '밑고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탕은 나무나 돌을 다듬을 때 밑에 까는 바탕을 이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도끼질할 때 나무를 올려놓고 패거나 자를 때 받쳐 놓은 나무 받침도 모탕이라고 부른다. 곡식이나 궤짝 따위를 땅바닥에 쌓을 때 밑에 괴는 나무 또한 모탕이라고 부른다. 상량(머릿대 또는 종도리라고도 함)은 한옥 건물에서 지붕을 짤 때 최상부에 자리 잡는 목재이다. 구조역학적으로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목재의 하나이다. 상량신은 상량이라는 목재가 중요한 만큼 여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데 이 신을 일컫는 말이다. 상량신은 개공제 다음 단계에 지내는 건축의례인 상량제(상량고사)를 지낸 뒤 성주신으로 변한다. 주거 민속에서 성주신은 가정신앙의 가장 높은 신격이다.

집을 지을 때 행하는 주요 의례로는 개공제 외에도 텃신(토지신)에게 땅을 파고 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리는 개기제(텃고사), 기둥을 세울 때 지내는 입주고사(立柱告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목재인 상량을 올릴 때 지내는 상량제, 집을 다 지은 뒤 성주신을 비롯한 여러 가신(家神)에게 입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입택고사(집들이고사라고도 함) 등이 있다.

개공제는 여러 건축의례 가운데 개기제 다음에 지내는 의례이다. 개기제를 지냈다면 개공제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빠짐없이 지낸다. 제사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사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 의례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내

는 개기제를 지내고 나면 지관은 즉시 집의 좌향과 주춧돌을 놓을 좌향을 정한다. 이어서 기둥 세울 길일을 택일한다. 그 다음에 기공, 즉 공사 개시 날짜를 택일한다. 개공제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지낸다. 개공제를 지내기 전에는 집 짓는 일을 일절 하지 않는다.

개공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 한다. 첫째 목수와 석수들은 목재와 석재를 다듬을 장소, 즉 공사장을 준비한다. 둘째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작업대, 즉 '모탕'을 준비한다. 모탕은 개공제 때 제사상으로도 사용된다. 셋째 상량할 목재와 기둥으로 쓸 목재를 준비한다. 집주인은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준비한다.

공사장은 집 지을 대지에서 편리한 곳으로 정한다. 공사장에는 특별히 황색 닥종이에 붉은 글씨로 '姜太公在此'라는 글귀를 써 붙여 공사장임을 알리고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붙여 둔다. 기둥으로 사용할 목재는 대강 다듬어서 머리 부분[柱頭]에 붉은색 닥종이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는 글씨를 써서 붙이기도 한다. 제사 장소는 집터에 설치한다. 그 방법을 보면 서까래로 사용할 나무 두 개의 머리 부분을 묶어 양쪽에 다리발을 세우고, 양쪽 다리발 머리 부분에 가로로 서까래 나무를 걸친다. 가로로 세운 서까래 양쪽에 새끼줄을 묶어 늘어뜨리고 그 아래에 제사상 대신 '모탕'을 가져다 놓으면 제사 장소가 모두 준비된다. 모탕을 제사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개공제를 모탕고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제사 음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술과 돼지머리(또는 돼지수육), 명태, 과일(대추, 배, 사과, 감 등), 소금, 고춧가루 등을 준비한다.

제사 절차는 간단하다. 제사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탕 위에 음식과 상량할 목재(상량목), 공사 때 사용하는 대패, 자, 먹통, 먹칼, 자귀 등 주요 건축 연장을 올린다. 궁궐과 같은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장장이들이 풀무까지 모탕에 올렸다고 전해진다. 진설이 끝나면 먼저 제사를 주관(제주)하는 대목이 향을 피우고 상량신에게 술 한 잔을 올린 뒤 절을 한다. 그 다음 집터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때 "○○동네 ○○○집을 개공하였소!"라고 외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목수와 석수들이 제사 음식을 음복한다.

개공제 날짜를 미리 받아 놓았지만 사정에 의해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는 서까래로 사용할 나무 두 개의 머리 부분을 묶어 양쪽에 다리발을 세우고 양쪽 다리, 발, 머리 부분에 가로로 서까래 나무를 걸쳐 놓는 것으로 고사를 대신한다. 이조차도 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 곳 아무개가 아무 시에 개공하였소."라고 세 번 소리치는 것으로 개공제를 대신한다.

**특징** 일반적으로 제사 또는 고사를 지낼 때 고춧가루 사용을 금하지만 개공제에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공제의 고춧가루는 음식이 아니다. 소금과 함께 잡귀나 액을 물리치기 위해 진설하는 것이다. 고춧가루가 붉은 것이고 붉은 색은 민간에서 벽사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개공제는 다른 건축의례와 비교할 때 집 주인이 아니라 대목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다르다. 개공제를 대목이 주관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대목이 지낼 뿐이다. 개공제를 대목이 주관하는 이유는 이 의례가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집 짓는 공사를 주관하는 기술자의 우두머리는 대목이다. 개공제는 대목이 주제자(主祭者)가 되어 기술자들의 작업대인 모탕 위에 상량신과 연장을 모시고 목수와 석수 등 기술자들이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지역사례** 경북 예천지역에서는 개공제를 모탕고사라고 한다. 집주인은 음식만 준비하고 나머지 제사 준비와 주관은 대목이 한다. 제사상에는 돼지머리, 술, 명태, 실타래, 소금, 고춧가루를 올린다. 이 때 상량할 나무는 반드시 진설한다. 진설 뒤에 절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집터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린다. 이는 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잡귀를 몰아내어 공사를 하는 도중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남 남원지역에서는 급하게 집수리를 해야 할 때는 부정을 막기 위해 지붕마루에 기와 두 장을 어긋 팔(八)자 모양으로 세운 뒤 수리할 집의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고 공사를 시작한다. 이는 길한 날을 택일하여 개공제를 지내지 못한 채 급히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뜻을 전하고 액운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배를 만드는 목수들도 개공제를 지낸다. 이를 '밑고사'라고도 한다. 전북 해안지역에서는 배를 건조할 때 목수가 자, 먹통, 먹칼 등을 늘어놓고 소지(燒紙)를 올리면서 "이 배 모아서 재수 보고 목수들 사고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읊조린다고 한다.

**의의** 건축 의례는 집의 건축 과정을 통하여 가정신앙의 으뜸 신인 성주신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며 집을 거룩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식 절차이다. 즉 개기제(텃제)는 텃신(지신)에게 집터에 성주신을 세운다는 것을 알리는 의례이다. 상량제는 건축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재인 상량에 성주신을 불어넣는 의례이다. 입택고사는 가신 가운데 가장 으뜸인 성주신에게 집과 가족의 안녕 및 번영을 기원하는 축원의례이다.

이와 달리 개공제 또는 모탕고사는 비록 상량신(나중에 성주신으로 변함)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안전공사를 기원하는 데 있다. 한옥 공사는 수많은 연장을 만지면서 목수 일과 석수 일을 하며, 다듬은 돌과 목재를 짜 맞추는 위험한 일의 연속이다. 공사를 하다가 연장에 다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위험한 공사를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가 개공제이다. 개공제를 지낼 때 연장을 비롯하여 잡귀와 액을 막기 위해 소금과 고춧가루를 진설한 뒤 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가정신앙구조로 본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정영철, 건축 17, 대한건축학회, 1997), **공간과 문화**(이영진, 민속원, 2007), **주거의 의례공간에 관한 연구**(김계동 · 이영호, 한국주거학회지 7, 한국주거학회 2000),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사, 1992), **한국고건축단장**(신영훈, 동산문화사,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81).

**필자** **이영진(李榮鎭)**

## 개토제(開土祭)

**정의** 집을 짓거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처음 팔 때 토지신(土地神)에게 올리는 제의. 건물터를 조성할 때는 개기제(開基祭)라고도 한다.

**역사** 건물의 터나 묘지를 성화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의식은 인간이 삶과 죽음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할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정한 경계를 갖는 장소를 뜻하는 '터'에는 주관하는 토지신이 있다고 믿었다.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터줏신 · 터줏대감 · 후토신령 등은 선택된 장소인 터를 주관하는 수호신이다.

선택한 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호신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보호와 발복을 기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땅을 토지신의 소유로 보고, 사람이 빌리거나 매입하여 이용한다는 생각은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매지권(買地卷)에는 지신으로부터 묘지로 쓸 토지를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개토제나 개기제라는 제의명은 고려시대 문헌에서 발견된다. 여말 선초의 문인인 윤상(尹祥, 1373~1455)의 문집에는 인정문외 남행랑을 지을 때 사용한 개기제 축문이 실려 있다.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문집에서는 개토제의 축문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좋은 날을 받아 이곳에 무덤을 쓰려고 신령에게 고하니 잘 보살펴 달라는 것'으로, 오늘날에 사용하는 고유문과 유사하다.

물론 조선시대 문헌에는 개토제와 개기제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문헌 기록을 검토해 보면 '개기제'와 '개토제'를 수행하는 의식(흔히 '텃고사'라고 칭함)은 동일하지만 제의명은 용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묘터를 조성할 때 올리는 제의는 '개토제', 건물터를 조성할 때 올리는 제의는 '개기제'로 각각 기록된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고대 의례규범에 따라 형식화 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1년 기해에 따르면 태조의 장사 때 후토신(后土神)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천맥장군(阡陌將軍)과 유당혈신(幽堂穴神) 따위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비판하면서, 개토는 옛 제도에 의거하여 다만 후토(后土)의 신에게만 제사를 지내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후토제로 지낸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래되어 오던 민속신앙의 제의로부터 유교적 제의로 변화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내용** 개토제는 매장의식 가운데 첫 번째 절차에 해당한다. 선정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토지신에게 알리는 의식이다. 이후 묘광을 파고 시신을 안치한 후, 평토제를 지내고 봉분을 만들면 매장의식이 끝난다. 개토제는 묘의 영역을 표시하고 제상을 차리며, 축문을 읽고 술을 올리며 배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선시대 이전에 개토제가 어떠한 의식으로 행해졌는지 고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시행한 개토제의 형식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친과 대신이 돌아가서 예장할 때 제전을 예조와 의례상정소가 함께 의논하여 작성하였다. 개토제는 옛날 법제에 따라 변(籩), 두(豆), 보(簠), 궤(簋)를 배설하고 일헌삼전례(一獻三奠禮)로 거행한다. 그 찬품(饌品)은 변(籩)이 넷, 두(豆)가 넷, 보(簠)가 둘, 궤(簋)가 둘이다'……" 하였다. 여기서 변, 두, 궤는 모두 제수를 담는 제기의 이름을 말한다. 국가적인 장례에는 개토제의 의식과 절차가 규범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상례조에서는 영역(塋域, 묘)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고 하였다. 즉 묘자리의 네 모퉁이를 파고서 각각 표목을 세운 다음 먼 친척이나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후토, 즉 토지신에게 축문을 읽고 배례를 행하는 것이다. 사토제는 개토제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토제의 의식 절차나 제수 찬품은 신분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토지신을 배례의 대상으로 하여 제물을 차리고, 고유문을 지어 고사를 지낸 뒤 터에 술을 뿌리는 '텃고사'의 형식적 골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개기제에도 텃고사가 치러진다. 그 의식과 절차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상택지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전한다.

> 집터를 닦아서 집을 지을 때 주인은 반드시 지운(地運)과 연운(年運)을 가려야 한다. 좋은 날을 택하여 밤중에 술과 과일, 포와 식혜, 향과 촛불 등을 정성껏 갖추고 글을 지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집을 짓는다고 고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비로소 흙을 판다. 땅을 깊게 파서 겉흙을 걷어내고 반드시 생흙을 봐야만 파기를 그만둔다. 나무 뿌리나 머리털, 다른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모두 걷어 낸다. 만약 생흙 위에 흙의 성질이 부드러운 데가 있으면 그 밑에는 반드시 매장된 물건이 있다는 말이므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

**지역사례** 근대 이후 개토제의 의식은 축약, 간소화 하면서 지역과 개별 사례에 따라 약간씩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묏자리를 파기 전에 제상을 차리고 고유문을 낭독하고 술을 뿌리는 텃고사 의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대개 묘소의 왼편에 남향으로 제상을 놓고 고사자가 신위 앞에 북향하여 분향한 뒤 두 번 절하고, 술을 부어 놓고 개토고사를 읽은 뒤 또 두 번 절한다.

개기제는 지역에 따라 제물과 의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전남지역의 예를 들면 선택된 날에 의식을 치르기 전에 목욕재계한 뒤 제상을 준비한다. 집터 가운데 흙을 적당히 모아 놓고 주위에 왼새끼를 둘러친 뒤 백토를 정결하게 깔고 제상을 차린다. 술과 과일, 포, 식혜, 향, 촛불 등의 제물을 차리고 향을 피운 다음 "땅을 빌려주신 후토신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고유문을 낭독한다. 소지하고 음복하기 전에 집을 세울 자리에 술을 골고루 붓는다.

전남 거금도지역에서는 밥 한 그릇, 술 한 잔, 물고기(건어 또는 선어)를 제수로 사용한다. 건축주가 집터를 새로 마련하고, 땅을 파고 다져서 집을 짓게 되어 미안하다는 뜻을 지신에게 고한다. 또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기원한다. 지신에게 공양하는 제수의 일부를 집터 한 쪽에 한 자 반 정도로 파서 묻는다. 보통 공사의 안전을 위한 의식은 개공제(開工祭) 또는 모탕고사라고 하여 개토제와 별도로 지낸다. 그러나 거금도에서는 두 제의가 결합된 형식을 취한다.

고령지역에서는 묘를 만들기 위한 개토를 사흘 전부터 시작한다. 개토제는 땅을 파기 전에 지낸다. 제수로는 명태 한 마리, 돼지고기 한 접시, 술 한 잔, 사과와 배 한 개씩을 올린다. 이후 하관이 진행된다. 무덤이 다 만들어지면 평토제를 지낸다.

강원도 강릉이나 전남 여수지역과 같이 산신제와 개토제를 별개로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장지 근처의 바위나 개울가에서 술, 과일, 어포를 차려놓고 "오늘 이 산에 손님이 들어오니 산신께서는 손님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빌면서 산신제를 지낸다. 그 후 장지로 가서 명태를 막대기나 삽에 묶어 꽂아 세우고 그 주위에 술을 뿌리고는 개토제를 지낸다.

**의의** 개토제나 개기제는 땅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제의이다. 땅은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관념을 보여 준다. 이는 땅을 특별한 장소, 즉 신성한 장소로 축성하기 위한 의식이기도 하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거주할 장소가 토지신의 가호로 거룩해지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건축론**(김홍식, 한길사, 1987),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사, 1992),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8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 객귀물리기

**정의** 객귀(客鬼)가 침입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급박한 몸의 이상이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가정의 축귀(逐鬼) 의례. 외출했다가 귀가하고 나서 갑자기 발병(發病)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주부 또는 무당은 이를 객귀의 소행으로 여기고 바가지에 된장국밥을 마련하여 객귀를 풀어먹인 뒤 칼로 협박하며 내쫓는다.

**내용** **어의(語義)** '객귀물리기'는 글자 뜻 그대로 객귀를 물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기에 '손님' 또는 '나그네'라는 훈(訓)의 '객(客)' 자를 붙여 객귀라고 부른다.

객귀는 대부분 제사를 지내 줄 후손이 없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이거나, 비극적 죽음을 겪었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제대로 죽지 못한 망자(亡者)의 혼백(魂魄)이다. 이들은 정식의 조상(祖上)이 되지 못한 채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귀신이다. 그래서 정처 없이 허공에 떠도는 잡귀(雜鬼)란 뜻에서 우리말로는 '뜬귀(-鬼)', '뜬것'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원한이 마음속 깊이 사무쳐 있다. 분하고 답답한 억울함도 많다. 이승과 저승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가족 및 조상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외로움에 지쳐있어 심한 우울증도 보인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다. 오래전에 입은 옷도 낡을 대로 낡았다. 이들은 기회가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먹고 마실 것도 당장 절실하다. 이처럼 객귀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면 탈이 나서 갑자기 병을 앓게 된다. 이때 치유하려면 발병의 원인인 객귀를 물려야 한다.

객귀물리기(객귀물림, 객귀풀이)는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해(害)물리기', '뜬것 물리기(뜬귀 잡기)', '물림객바가지(물릉갯바가지, 물림게질)', '푸레박질', '한박물림(쪽박물림)' 등으로도 불린다.

**병세(病勢)** 외출 전에는 아무 일 없이 건강했는데 귀가한 뒤에 느닷없이 두통, 복통, 급체를 일으키거나 오한(惡寒)이 나고 심하게 감기 또는 몸살 기운을 느끼면 객귀에게 씌운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긴 병은 병원에 가도 알 수 없고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다. 침을 맞아도 효험이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거나, 다른 집안의 혼례 · 회갑례 · 상제례 등에 참석했거나, 특히 상가(喪家) 등 부정(不淨)한 곳에 다녀온 이후에 발병했다면 거의 객귀의 침입으로 간주한다.

객귀는 잔칫집, 상가 등을 항상 기웃거리거나 거리 노중(路中)을 떠돌기 때문에 그러한 시공간에 있는 사람은 자칫 객귀의 침입을 받기 쉽다. 초상집의 사례를 들면 부정이나 상문살(喪門煞)로 인한 급환(急患)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든 객귀들이 문상객(問喪客)에게 붙어서 발병한 것이다.

객귀의 접근은 집 안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집 바깥'이나 '마을 바깥'은 객귀로부터 항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객귀의 침입은 환자 자신의 잘못보다 일수(日數)나 재수가 사나워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병세 호전이나 완쾌를 위해서는 객귀를 물리치는 일이 중요하다.

객귀물리기는 병세가 급하면 발병과 동시에 지체 없이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차도가 없으면 한다. 또 발병 초기

에는 간단한 주술적 민간요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효험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객귀물리기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부엌의 조왕 앞에서 환자가 솥뚜껑을 거꾸로 들고 서 있게 하거나, 각성바지 집에서 얻어 온 볏짚을 아궁이에서 태우면서 그 연기를 환자에게 쐬게 하거나, 변소 처마에 물을 뿌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다가 병자에게 먹이는 등 뱅이(방법)를 해 보다가 병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객귀물리기를 한다.

**객귀물리기 준비** 예전에는 집안의 웬만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대개 객귀물리기를 할 수 있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어려서부터 종종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전문적으로 객귀를 물리고자 할 때는 '신(神)할머니'를 찾았다. 신할머니는 보통 사람들보다 신기(神氣)가 있어서 간단한 비손 등을 해주는 데 남다른 자질이나 재주가 있었다. 어떤 신할머니는 북과 꽹과리를 두들기면서 독경(讀經)을 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리'나 '영신'이라고 불렸다. 매우 급박한 병세에는 무당이나 법사(法師) 등이 초빙된다.

객귀물리기는 해거름, 즉 해질 무렵에 행한다. 객귀를 내쫓으려면 땅거미가 져서 어둑해져야 한다. 그러나 급한 병자인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한다.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서는 객귀물리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객귀의 침입 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쌀이나 좁쌀을 담은 바가지에 숟가락을 꽂아 놓고 주문(呪文)을 읊는다. 숟가락이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객귀에게 씌었다는 것이고, 곧바로 쓰러지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객귀물리기를 하려면 우선 부엌에 들어가 된장국을 준비한다. 된장국이 끓는 냄새는 유독 강하여 부엌 부근에 까지 퍼져 나가고, 살아있을 때 그 맛에 길들여진 객귀는 군침을 흘린다. 찬물이나 쌀뜨물, 심지어 구정물에 된장만을 풀어서 된장국을 마련하기도 한다. 여기에 '먹다 남은' 밥과 반찬, 특히 나물이나 시래기 등을 넣는다. 된장국에는 소금, 팥, 숯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객귀 구축(驅逐)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된장국밥(또는 죽)은 반드시 바가지에 담는다. 바가지는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용기이기에 객귀에게 먹일 음식을 담는 데 제격이다.

**객귀물리기 과정과 절차** 객귀를 물리는 사람은 환자의 방으로 된장국밥을 담은 바가지와 부엌용 식칼을 가지고 들어간다. 환자의 방 안에는 다른 음식이 일절 없어야 한다. 객귀가 먹을 것에 온갖 정신이 팔려서 객귀물림을 행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는 방 안에 눕히거나 앉힌다. 환자를 문지방에 걸쳐서 눕혀 놓거나 문지방을 베개 삼아 눕게도 한다. 문지방은 '방 안'과 '방 바깥'을 차단하며 연결하는 경계 지역(liminal zone)이기 때문이다. 경계 지역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활용된다. 객귀물리기의 효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지방이 선택된 것이다.

다음에는 식칼로 환자의 머리 둘레를 세 번 휘젓는다. 이때 "○○년 ○○월 ○○일 성주·조상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객구잡신을 물리는데 앉어서 못 먹었다서서 못 먹었다 말고 진 눔(진음식)은 먹고 마른 눔(마른음식)은 싸 가지고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썩 물러나야지 아니 물러나면 대칼로 목을 지어 한강에 떨어뜨리면 국내(국 냄새) 장내(장 냄새)도 못 맡는다!"라고 위협적인 주문(呪文)을 읊는다.

이러한 주문은 세 번, 일곱 번, 심지어 스물한 번을 반복하여 읊기도 한다. 또한 식칼로 병자의 머리카락을 세 번 뜯어서 바가지에 넣고, 병자로 하여금 침을 바가지에 세 번 뱉게 한다. 이는 머리카락과 침이 객귀가 침입한 병자의 혼백 또는 병자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귀물림을 행하는 사람은 환자의 방을 나서면서 방 안의 불을 끈다. 이때 방문을 "꽝!" 하고 세게 닫는다. 그러고는 부엌칼로 방문에 'X' 표시를 '힘차게' 그리고 '재빠르게' 서너 차례 긋고, 소금이나 콩·팥 등을 역시 세차게 여러 차례 뿌린다. 또한 방 안에서 나오면서 미리 놓아 둔 바가지를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깨뜨리거나 왼발로 마루를 세 번 구르되 한 번 구를 적마다 "헛세이! 헛세이!" 하고 외치기도 한다.

다음에는 마당에 서서 대문 쪽이나 대문 바깥의 길바닥에 부엌칼을 냅다 던진다. 칼을 던지면서도 "객귀가 붙어 있으면 아픈 상처 싹 걷어 가지고 이 밤이 가기 전에 저 해가 뜨기 전에 물러서라!"라는 등의 협박성 고함을 되풀이한다.

힘차게 던진 칼의 뾰족한 끝 부분이 방 안이나 집 안쪽으로 향하게 되면 객귀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칼끝이 바깥쪽을 향해 있으면 객귀가 미적거리지 않고 떠나간 것으로 판단한다. 칼끝이 집 안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객귀의 퇴출을 유도하고 강제하기 위하여 재차 칼을 던진다. 이러한 행위는 칼끝이 바깥쪽을 향할 때까지 반복된다.

칼을 던지는 횟수에 따라 객귀의 힘과 병세(病勢)의 정도를 가늠한다. 곧 여러 번 칼을 던지게 되면 객귀가 보통 놈이 아니며, 병을 쉽게 고치기 어렵겠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처음 한 번 던졌을 때 칼끝이 곧바로 바깥쪽을 향하면 병이 빨리 나을 것이라고 여긴다.

칼끝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 다시 환자에게 된장국이 담긴 바가지에 침을 세 번 뱉으라고 한 뒤 그것을 대문 밖으로 '휙!' 하고 힘차게 내던진다. 된장국을 흩뿌리는 일은 반드시 객귀가 나간 것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그런 뒤 대문 밖의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땅바닥에 힘을 잔뜩 주어 칼로 재빨리 'X' 표시를 그은 다음 두 개의 선(線)이 교차하는 십자의 한복판에 칼을 힘차게 내리꽂는다. 그러고는 칼자루 위에 바가지를 엎어 둔다. 이를 객귀의 무덤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때 왼발을 세 번 구르며 "헛파세!"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침을 세 번 뱉고 돌아서기도 한다. 돌아서고 나서는 때에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객귀가 다시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집 부근이 아닌 다소 멀리 떨어진 인적이 없는 삼거리 등지에서 객귀를 물렸다면 간 길로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다른 길을 이용하여 귀가한다. 객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칼과 바가지는 이튿날 아침, 그것도 식전에야 회수하여 집에 다시 들일 수 있다. 객귀물리기가 끝나면 환자는 부엌에 들렀다가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부엌은 불을 다루는 공간으로서 정화(淨化)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객귀를 물려준 사람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간다. 수고가 많았다든가 다시 보자는 등의 인사말조차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문헌** **한박물림攷**(홍재휴, 한국전통문화연구 3,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7),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이필영,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필자** **이필영(李弼泳)**

## 객귀밥

**정의** 개인이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또는 무속에서 굿의 맨 마지막에 객귀들을 위해 차려놓는 제물. 객귀는 객사하거나 횡사 또는 옥사해서 원한이 맺혀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 떠돌며 인간을 가해하는 잡신을 말한다. 객귀밥은 치밥(키밥), 물밥, 물귀밥, 물앞, 까치밥, 바가치밥(바가지밥), 뒷밥, 뒷전밥, 거리밥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를 차린 상은 객귀상, 뒷전상, 사자상, 손님상 등으로 불린다.

**역사** 일정한 의례를 할 때 객귀밥을 차려내는 풍속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射琴匣)조를 보면 신라 제21대 비처왕 10년에 왕의 목숨을 구해 준 까마귀를 위해 정월대보름날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는 오늘날 정월대보름에 차례를 지내고 대문 앞에 객귀밥을 차려 놓는 풍속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북 남원시 왕정동에서는 정월대보름을 쇠고 난 뒤 문 앞에 차려 놓는 것을 깐치밥(까치밥)이라고 한다. 또한 19세기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무당내력(巫黨來歷)』의 「뒷전」부분에서는 "치성이 끝나면 이름 없는 잡귀 일체를 풀어먹이여 안정하도록 한다. 연대는 고증할 수 없으나 전해 오는 습속이다."라고 하였다. 뒷전상을 그린 그림에는 떡 한 접시와 밥 세 그릇, 북어를 양 손에 들고 있는 무당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객귀밥을 차려 놓는 풍속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오늘날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형태** 객귀밥은 대체로 가정집에서 제사 또는 고사를 지낼 때나 무당을 데려와 안택을 할 때 차려진다. 객귀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키에 차리는 형태, 바가지에 놓는 형태, 사자상을 차리는 형태 등이 있다. 키에 차리는 형태에서는 키에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된장, 소금 등을 간단하게 차린다. 바가지에 밥을 물에 말아서 놓는 것을 '물밥'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차릴 때는 바가지에 소금, 밥, 고춧가루, 술, 동전을 넣고 물에 말아 놓는다. 고사에 올린 각종 떡과 과일, 국과 밥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넣어 말아 놓기도 한다. 이때 숟가락은 바가지에 여러 개 꽂아서 걸쳐 놓는다. 객귀밥을 '사자상'이라고 하여 안택을 할 때 따라온 객귀들을 위해 밥, 물, 떡, 쌀 등을 세 그릇씩 놓아두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신 세 켤레를 함께 놓기도 한다.

**내용** 객귀밥은 제사나 고사를 지낸 다음 차리는 경우와 무속에서 수부, 거리굿, 뒷전을 할 때 차리는 경우가 있다. 객귀를 물릴 때 차리기도 한다. 객귀밥을 차리는 방식 역시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일반 제사나 명절 때는 객귀밥을 차려서 대문이나 길거리에 내다 놓으면 그만이다. 안택을 할 때는 객귀밥에 식구들의 머리카락을 넣거나 침을 뱉게 한다. 그런 다음 칼을 던져 칼끝이 바깥을 향하면 객귀가 물러났다고 여긴다. 또한 식구 중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다음 몸이 아프게 되면 객귀가 들었다고 여겨서 객귀물리기를 한다. 이때도 객귀밥을 만들어 바가지에 넣고 칼로 아픈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 바가지에 넣고 침을 뱉게 한다. 칼을 던져 칼끝이 바깥을 향하면 객귀가 나간 것으로 본다.

객귀상은 마루나 대문 바깥에 놓아야 하며, 방안으로는 들이지 않는다. 객귀상에 놓은 제물은 먹지 않으며, 이웃들과 나누어 먹지도 않는다. 객귀를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 먹으면 신수가 사납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서 안택을 할 때 안방에서 고사를 마치고 나면 대문 바깥에 나가서 거리신들을 먹인다. 안택을 하면 얼어 죽은 사람, 나무에 맞아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얻어먹다 죽은 사람, 애 낳다 죽은 사람들이 객귀가 되어 따라온다고 한다. 이들이 와서 집안에 해를 끼치면 안 되므로 이들을 위해 제물 일부를 바가지에 담아 대문 밖에 놓고 경문을 왼다. 객귀를 내쫓는 축귀경을 읽은 뒤에 칼을 던져 칼끝이 바깥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다.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객귀들이 잘 먹고 물러났다는 의미가 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서는 안택을 할 때 별도로 객귀를 위한 객귀상을 마련한다. 치(키)에 짚을 깔고 밥, 물, 된장 각각 세 접시와 성주상에 올린 다른 제물을 조금씩 놓는다. 객귀상을 마루 한쪽 구석에 놓으며, 내전 후에 내전상과 함께 버린다. 논산시 광석면 항월3리에서는 안택을 할 때 객귀상을 차린다. 객귀상에는 떡, 과일, 돼지머리, 메밀묵, 밥, 국, 나물 등을 올린다. 밥은 큰 그릇에 퍼 놓으며, 숟가락도 많이 꽂는다. 귀신을 물리치는 데에는 메밀묵이 좋다고 하여 객귀상에 올린다. 이 객귀상은 객귀들이 먹고 조용히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방문 밖에 놓는다.



**거리제 제물**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당리, 2008.2.7
윤동환

부여군 부여읍 저석3리에서는 안택을 할 때 잡귀들을 위해 차리는 상을 '손님상'이라고 하여 대문 앞이나 마루에 차려둔다. 상 위에 짚을 깔고 밥 세 접시, 물 세 그릇을 놓아둔다. 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키에 담아 놓기도 한다. 이 상 위의 음식은 사람이 먹지 않고 내전을 할 때 물려서 버린다.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에서는 안택을 할 때 객귀를 물리치기 위해 '치밥(키밥)'을 마련해 올린다. 치(키)에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된장, 소금을 올려 마루 위에 놓는다. 안택이 끝나고 내전상을 물릴 때는 이 치밥을 바가지에 쏟아 대문 밖으로 내버린다. 간혹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신장을 잡을 때에는 별도로 마루 위에 객귀상을 크게 차려 놓는다. 이때도 밥, 국, 떡, 나물을 모두 세 접시씩 올린다. 대치면 시전리의 경우에는 객귀상을 두 개 마련한다. 하나는 집안에 돌아다니는 객귀들을 위한 것으로 밥, 탕국, 나물, 청수를 상에 받쳐 마루에 놓는다. 다른 하나는 집 밖의 객귀를 위한 것으로, 키에 떡과 청수를 올려 마당에 놓는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2리와 남산1리에서는 객귀물리기를 할 때 밥, 된장, 나물을 조금 넣고 끓여서 '객구밥'을 만들어 바가지에 담은 다음 칼로 아픈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가지에 넣고 침을 뱉게 한다. 칼을 던져 객귀가 나간 것을 확인한다. 객귀가 나갔으면 바가지에 든 객구밥은 골목에 던져 놓는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에서는 객귀물리기를 할 때 '물밥'을 만든다. 물밥은 바가지에 소금, 밥, 고춧가루, 술, 동전을 넣고 물에 만 것을 말한다. 객귀를 물리는 사람은 한 손에 물밥,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서 환자에게 물밥에 침을 세 번 뱉게 한 뒤 칼로 물밥을 찍어 객귀가 들린 사람의 몸과 그 주변에 주문을 읊으면서 뿌린다.

전북 남원시 왕정동에서는 객귀를 위해 차려 놓는 것을 '깐치밥(까치밥)' 또는 '물밥'이라고 한다. 깐치밥은 정월대보름을 쇠고 난 뒤 문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바가지에 밥과 나물, 그 외 장만한 반찬들을 한가득 담아서 내놓는다. 물밥은 일반 기제사를 지내고 난 뒤 조상들을 따라온 객귀들을 위해 차려놓는 것이다. 방법은 깐치밥과 같다. 깐치밥과 물밥 모두 바가지에 숟가락을 꽂아 놓지 않는다. 이 같은 깐치밥이나 물밥 외에도 방에 밥을 차려 놓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밥을 해서 제사상 밑에 숟가락을 많이 꽂아 놓는다. 이것은 조상신을 따라온 '허드새(도깨비)'들을 위해 차리는 것이다.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계상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귀신이 붙어 들어오면 객구가 들었다고 한다. 객구가 들면 '객구밥'을 해 놓는다. 한편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객구들을 위해 '물귀밥'을 차린다. 밥과 나물, 생선 등을 쪄서 물에 만 물귀밥을 문 밖에 짚을 깔고 그 위에 가만히 부어놓는다. 행안면 신기리 신월마을에서는 각 집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객귀를 위해 차려 놓은 것을 '물앞'이라고 한다. 이 물앞은 제사를 위해 장만한 밥을 조금씩 덜어 문 앞에 깨끗한 짚을 깔고 그 위에 부어놓는다. 이처럼 물앞은 제사 때만 하는 것이지만 어떤 집에서는 명절 때도 물앞을 차려 놓기도 한다.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에서는 객귀들을 위해 차리는 밥을 '거리밥'이라고 한다. 매년 명절, 특히 정월대보름이 되면 거리밥을 내놓는다. 거리밥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그날 장만한 밥과 나물을 바가지에 하나 가득 담아서 내놓은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물에 말아서 놓기도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냥 바가지에 담아 거리에 내놓는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에서는 객귀들을 위해 명절과 집안 제사 때 대문 밖에 놓는 밥을 '물에밥'이라고 한다.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서는 객귀를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을 '수구한다'고 한다. 수구를 할 때는 보통 마루 바로 옆 기둥에 차린다. 일반 제사 때나 명절 때 양푼에 밥을 하나 가득 떠서 넣고 숟가락을 여러 개 걸쳐 내놓는다. 밥과 나물 등은 그릇째 그냥 가져다 놓는다. 또한 기제사나 생일 때 객귀를 위해 주는 밥을 '바가치밥(바가지밥)'이라고 한다. 바가치밥은 바가지에 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담아 문 밖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부어놓는 것을 말한다. 보통 대문밖에 바가치밥을 놓으며 사람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거리에는 놓지 않고 후미진 곳에만 둔다. 바가치밥을 놓을 때는 "오늘 저녁 제사라고 불을 써놓고 있으니께 객구잡신이 댕기다가 뭐 좀 얻어먹으려고 새벽에 들어오니 잡수고 가시오."라고 기원한다. 객귀에게 바가치밥을 차려서 주는 것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일찍 죽어 굶고 다니는 귀신이 많았기 때문에 굶지 말고 그날만큼은 주워 먹고 다니라는 의미이다. 정월초하루나 추석에는 객귀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에서는 자손 없이 죽은 귀신이나 객사하여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객귀'라고 한다. 명절이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문밖에 '물애밥'을 해서 놓는다. 물애밥은 밥을 물에 말아서 대문 밖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부어놓은 것이다. 명절에는 밥과 함께 나물도 부어 놓는다. 객귀는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 사람에게 잘 붙는다. 객귀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배를 부르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물애밥을 해서 놓는 것이다. 또한 집안 식구가 병에 걸려서 쉽게 낫지 않으면 보통 점쟁이에게 물어보며 대부분 대문밖에 물애밥을 놓아두라고 한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두마을에서는 명절이나 제사가 돌아오면 그날 거리상을 차려 객귀들을 배불리 먹인다고 한다. 객귀를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을 뒷밥, 뒷전밥, 거리밥이라고 하며 흔히 '뒷밥 준다'고 한다. 뒷밥을 놓을 때는 그릇에 숟가락을 있는 대로 모두 다 걸쳐 놓고 마루나 문 뒤 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놓아두든가 하여 한 군데에만 놓으면 된다. 또한 새로 집을 지어서 나가려면 물밥(뒷밥)을 해 놓아야

별 탈이 없다고 한다.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율산마을에서는 제사 때 객귀들을 위해 안방 문 앞에 차리는 상을 '문전상'이라고 한다. 제사가 끝난면 문전상의 음식을 걷어다가 집 앞 삼거리에 갖다 놓는다. 이때는 삼거리 가운데에 짚을 깔고 음식을 놓아둔다. 해남군 산이면 송천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골목에 짚을 깔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놓은 것을 '물밥' 또는 '무레밥'이라고 한다. 이는 자손 없이 죽은 귀신이나 떠돌아다니는 객귀를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巫黨來歷**(서울대학교 규장각, 민속원, 2005),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김태우(金泰佑)

## 거리밥

표제어 객귀밥(31쪽)

## 거리제

**정의** 음력 정월 초사흘에서 열나흗날 사이에 집안 식구들의 제액과 무사안일(無事安逸)을 위하여 주부가 단독 혹은 무당을 대동하여 집 근처 큰길이나 삼거리에서 거리신을 위해 지내는 제사.

**내용** 매년 정초가 되면 한 해 동안 집안 식구들의 무사안일을 위하여 주부가 주관하여 삼거리에 나가서 거리제를 지낸다. 식구들이 한 해 동안 길을 다니면서 어떤 흉사도 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낸다.

섣달 또는 정초에 주부가 무당을 찾아가서 일 년 신수를 보아 가족 가운데 그 해 거리 운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액막이를 위해 거리제를 지낸다. 이 거리제는 마을의 하당제(下堂祭)로 치르는 거리제와 다르다. 즉 마을에서 상당신(上堂神)인 산신(山神)을 모신 다음에 마을 어귀에서 베푸는 장승제, 탑제, 둥구나무제 등 거리제와는 다르다. 가족을 위해 주부의 주도로 치러지는 거리제의 대상은 막연히 거리신으로 여겨지지만 간혹 '길대장군'이라 하여 구체적인 신령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거리제는 대체로 음력 정월 초사흗날부터 열나흗날 사이에 길일(吉日)을 정해 늦은 밤에 지낸다. 가능한 한 인적이 없는 시간을 택한다. 정초에 무당을 불러서 안택을 할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거리제를 지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초사흗날 또는 열나흗날에 제를 모신다.

거리제를 지내는 장소는 마을 어귀나 그 근처, 길거리 등지이다. 특히 외길이 아닌 삼거리를 제장(祭場)으로 삼는다. 여러 갈래의 길이 만나는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집안 식구들이 주로 잘 다니는 거리를 선택한다.

거리제장에는 열십(十)자 모양으로 짚을 깔아 놓고 그 위에 간단히 제물을 차린다. 제물로는 주로 백설기나 팥 시루떡, 삼색실과, 과일, 명태 등을 차린다. 동전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요왕(용왕)을 모셔야 할 경우에는 요왕제를 별도로 지낸 후에 따로 마련된 거리제 제물로 제를 올린다.

제주(祭主)는 가정주부가 되지만 때로 경쟁이[經客]나 간단한 비손 또는 푸닥거리를 할 수 있는 신할머니 등 무당이 초빙되기도 한다.

제장에서 제물 진설을 마치면 경쟁이나 신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주부는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빈다. 경쟁이나 신할머니는 간단한 경문이나 축원을 더 해주고 곧바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는 길대장군 몫으로 먼저 올리고 나서 식구들 몫으로 한 장씩 올려준다. 거리제를 마칠 때가 되면 식칼을 거리 바깥으로 던져본다. 칼끝이 바깥으로 향해야 제사가 제대로 지내졌다는 의미이므로 바깥으로 향할 때까지 던진다.



거리제 제물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2000
국립민속박물관

제사를 마치면 차려 놓은 제물은 그대로 두고 온다. 특히 북어는 대가리를 잘라서 길에 던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신수가 안 좋은 식구가 입은 옷의 동정을 떼어서 태우거나 허수아비 또는 통명태를 가지고 갔다가 대수대명(代數代命)으로 땅에 파묻고 돌아오기도 한다. 거리제에 쓰인 제물은 절대로 식구들이 먹지 않는다. 이때 쓰인 그릇도 대문 밖에 두었다가 이튿날 가지고 들어온다.

**지역사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서는 정초에 신수를 보아 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 정월대보름날 거리에 나가 거리맥이(거리제)를 한다. 거리맥이에는 생나물 세 접시, 술 석 잔을 차려 놓는다. 이때 '길의 길대장군, 거리의 거릿대감'을 불러서 신수가 나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읊으며 아무 사고가 없기를 축원한다.

거진읍 오정리에서는 영등달인 2월에 따로 날을 잡아서 거리제를 지낸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마을 공동으로 도깨비를 위하는 거리제를 지냈다. 도깨비가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여 제물로 개고기를 장만하여 올렸다. 그러다가 6·25전쟁 이후부터 마을 공동으로 지내던 거리제는 소멸하였다. 그 대신 집집마다 메, 어물, 나물, 탕 등을 장만하여 상을 차려 나와서 거리제를 지냈다고 한다.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에서는 정초에 신수를 보아 그해 운이 나쁘다고 하면, 정월대보름 이전에 거리제를 지낸다. 가을에 텃고사를 지내고 나서 식구 가운데 액운이 있는 사람의 액을 풀어 주기 위해서도 지낸다. 거리제를 지내는 시간은 밤이 깊어 길에 사람이 다니지 않을 무렵이다. 이때 삼거리에 나가서 떡과 과일을 차려 놓고 식구들의 무탈을 기원한다. 거리제에 차린 제물은 먹지 않고 길거리에 그대로 두고 돌아온다. 집안에 따라 신수가 나쁜 식구가 있으면 정초에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사거리에 묻는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1리 소라실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가운데 적당한 날을 정해 식구들을 위한 거리제를 지낸다. 대개는 열나흗날 지낸다. 마을에 초상이나 출산이 발생하였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거리제를 지내지 않는다. 정초에 식구들의 신수를 보아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더욱 특별한 거리제를 지내준다. 제물로는 잡곡밥 세 접시, 나물 세 접시, 동전 세 개 또는 다섯 개 등을 마련한다.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식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로 나간다. 세 갈림에 이르면 그곳에 짚을 열십자로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그 앞에서 사방에 세 번씩 절을 한다. 제물은 그대로 쏟아 두고 동전도 그대로 두고 돌아온다. 그릇은 엎어 놓는다. 돌아올 때는 짚에 불을 붙이고 침을 세 번 뱉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다. 거리제 제물을 주워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여 이를 가져가기도 한다. 반대로 재수가 없다며 꺼리는 사람도 있다. 충남지역에서도 집안에 따라 거리제를 지낼 때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의 속옷을 입히고 그 사람의 나이 수대로 동전을 넣어 두었다가 거리제가 끝나면 이를 태운다. 대수대명을 위해 통명태를 가져다가 제가 끝나면 묻고 돌아오기도 한다.

부여군 부여읍 저석3리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세 갈림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정초에 운수를 보아 운이 좋지 않은 식구가 있으면 특별히 정성껏 지낸다. 제를 지내려면 시루떡, 명태, 삼색실과, 나물, 돈 등을 마련하며, 별도로 짚 한 단을 가지고 가서 고사 지내는 장소 옆에 불을 놓는다. 먼저 거리노중님 소지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으로 식구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모두 올리면 바가지에 된장, 콩, 물을 섞고 제물도 조금씩 떼어 넣는다. 그런 다음 바가지 안의 제물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못다 먹었다는 말 말고 거룩하게 다



거리제 제물
경남 거제시 남부면 수산마을, 2000, 국립민속박물관

먹어라!"라고 외친다. 축원이 끝나면 바가지 안의 내용물을 휙 내버린다.

**참고문헌** 음력 정월의 세시의례와 가정주부-초하루 · 정초 · 열나흗날 · 보름의 분화된 시간을 중심으로(김효경, 샤머니즘연구 5, 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충남지역의 가정신앙의 유형과 성격**(이필영, 샤머니즘연구 1, 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임승범(林承範)



## 건궁

정의 신체가 없이 모셔지는 가신.

내용 건궁은 '허궁'이라고도 하며 궁자를 빼고 '건 성주', '건 조왕' 등처럼 '건'자만 쓰기도 한다. 신체 없이 모시는 가신을 건궁이라 하지만 이 용어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다만 '건'은 마르다는 의미에서 비약하여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궁'의 '허'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고, '궁'은 궁전이란 말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판소리 〈수궁가(水宮歌)〉에서 수궁은 물속에 있다는 상상의 용궁을 일컬으며, 여기서 용궁은 곧 물속의 궁전을 뜻한다. 궁전은 왕이 거처하는 집, 곧 궁궐을 뜻한다. 건궁은 비록 신체는 없으나 신을 섬기는 자리, 곧 신의 '궁전'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신의 자리를 신격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가신을 모실 때 '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가신을 우대하여 말하는 호칭이지만 가신의 자리를 뜻하기도 한다.

건궁이라는 용어는 주로 경북 안동과 영주 등지에서 사용한다. 가신은 모두 신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문에 있다는 문신(門神)이나 마당에 있다는 마당신, 외양간에 존재한다는 우마신, 방앗간의 방앗간신, 변소의 측신, 우물의 정신(井神) 등은 처음부터 신체가 없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건궁인 것이다.

본래 신체가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없어져도 이를 그대로 섬길 경우 건궁에 섬기는 가신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예를 들어 성주의 신체가 있었다가 없어졌지만 전처럼 섬길 경우 '건궁 성주'로 모신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건궁이란 용어는 대체로 중심이 되는 가신에게 붙여진다. 이를테면 정신(井神)이나 측신은 애초에 건궁이지만 '건궁 정신(井神)' 또는 '건궁 측신(廁神)'이라 하지는 않는다. 설령 정신이나 측신에게 간단히 의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건궁이란 용어를 붙이지 않는 것이다.

건궁 성주, 건궁 용단지, 건궁 조왕 등 보편적이며 중심이 되는 가신에게 붙여진다. 그러나 원래 신체가 있던 터주신이라든가 업신에 대해서는 신체가 없다 하여 건궁 터주, 건궁 업신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건궁 터주나 건궁 업신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경북 안동지역의 경우 터주신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업신은 대체로 용단지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용단지 신앙은 안동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다. 성주 역시 보편적으로 모시지만 가옥 형태가 달라지면서 신체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가옥을 개량하면서 성주 신체가 천장 속으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집을 지으면서 마루와 천장이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 성주 신체를 없애거나 새 천장 안쪽에 신체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용단지를 본의 아니게 깨뜨렸을 때 다시 용단지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건궁으로 섬기기도 한다.

성주의 경우 비록 신체는 없지만, 애초 성주의 자리인 대청의 상량을 성주라 하여 음력 시월에 고사를 지낼 때 성주 자리에서 빈다. 제물은 상량 밑, 곧 성주 자리를 상징하는 자리에 차린다. 건궁 용단지 역시 용단지를 모시던 부엌이나 고방 등 그 자리에서 의례를 행한다.

용단지를 집중적으로 모시는 안동지역에서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용단지를 가지고 가는 가정도 있다. 부엌 형태가 달라졌으므로 싱크대 위의 찬장에 용단지를 모셔둔다.

오늘날에는 가신의 신체가 사라진 경우가 흔해 건궁 성주나 건궁 조왕은 많다. 특히 조왕의 신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원인은 부엌의 개량과 직결된다. 가끔 싱크대 위에 조왕중발을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며, 대개는 건궁으로 모신다. 또 부엌을 개조하지 않은 재래식 부엌이라 하더라도 조왕의 신체인 조왕중발을 모시지 않고 애초부터 건궁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고사를 지낼 때는 주요 가신들에게 제물을 놓고 의례를 행한다. 안동이나 영주 등지에서는 조왕에게 빌 때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린다. 또는 솥에다 밥을 지은 후 솥뚜껑을 열어젖히고 밥 위에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아 놓은 다음 "어진 조왕님요"라는 말부터 시작하며 의례를 행한다.

영주지역에서는 성주와 조왕을 함께 모셔 '성주 조왕'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다. 주택 개량에 따라 마루와 부엌이 한 공간으로 된 가정에서는 성주를 부엌에 모시는 경우가 있다. 이들 가정에서는 원래 부엌에 자리하고 있는 조왕과 함께 여겨 '성주 조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성주와 조왕의 신체가 없는 '건 성주', '건 조왕'이 보편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건궁이라는 말 대신 '건' 자만을 쓰기도 한다. 또 애초부터 성주 자리가 마루 상량 쪽이 아니라 가옥 형태상 부엌의 큰 솥이 걸려 있는 벽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왕은 신체가 없지만 솥이 걸린 벽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와 조왕이 함께 인식되어 '성주 조왕'이라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건궁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건궁 성주'로 섬기는 경기도 남양주와 여주의 사례를 보면, 성주는 집안의 으뜸신으로 알려져 있는 가신이다. 성주 자리는 집의 중심인 대청의 대들보가 있는 곳이며, 집의 구조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신체는 없지만 그대로 성주를 섬긴다. 성주의 자리를 '성주'라고도 한다.

성주가 마루에 반자를 걸어놓아서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10월에 성주 자리에 제물을 차리고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다.

남양주의 한 사례 중에는 집에 불이 나서 성주의 신체가 없어지고 지금은 성주의 자리만 있는 '건궁 성주'이다. 대들보가 있는 중심부를 성주 자리로 상정(想定)하고 섬긴다. 예전에는 고사를 지낼 때 성주에게도 떡을 시루째 올렸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접시에 떡을 담아 올린다.

이처럼 성주의 신체는 없지만 '건궁'으로 섬긴다. 성주의 자리는 마루에 있는 대들보, 또는 안방과 툇마루 사이의 상기둥 등이다. 이 때문에 대들보를 비롯한 이들 자리를 성주라고 한다. 대들보가 집의 중심을 잡아주듯이 성주 역시 집의 대들보처럼 그 집안을 지켜준다. 여주지역에서는 성주라는 말 대신 '대청마루'라는 표현도 쓴다.

고사를 지낼 때는 대개 콩 시루떡과 팥 시루떡을 찐다. 콩 시루떡은 터주에 올리며, 반면에 팥 시루떡은 마루에 올린다. 여기서 마루는 성주를 일컫는다. 가정에 따라서는 성주에게도 터주와 마찬가지로 시루째 올린다. 예전에는 한지에다 실을 매달아 대들보에 붙였지만 가옥을 신축하면서 성주를 없앴다고 한다. 주요 가신들 가운데서도 부엌신인 조왕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희박해졌다. 조왕은 "예전에는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테면 건궁 조왕마저 기억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경북 안동지역의 한 사례를 보면 조왕의 신체는 사기종지로 된 '조왕중발'이 보편적이었다. 이 종지에 아침마다 정화수를 갈아주며 치성을 드렸다. 다만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찰밥(오곡밥)을 지으면 정지(부엌)의 소두방(솥뚜껑)을 젖혀 놓고 그 위에 찰밥을 한 상 차려 올려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왕을 섬기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경기도 여주지역에서는 조왕을 주왕이라고도 한다. 조왕은 신체가 없는 건궁 조왕이며, 고사를 지낼 때 접시에 떡을 담아 정화수와 함께 올린다. 이때에는 팥 시루떡과 콩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서 접시에 함께 담는다. 요즘은 부뚜막이 없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위나 싱크대 위 높은 곳에 떡을 놓는다. 부뚜막이 있는 가정에서는 고사를 지낼 부뚜막 중앙에 제물을 놓고 치성을 드린다.

안동지역에서 용단지는 성주, 특히 조왕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궁이 적은 편이다. 대개는 용단지의 신체를 봉안한다. 다만 어떤 사정으로 없어졌을 경우 다시 봉안하거나 건궁 용단지로 섬긴다. 혹시나 용단지를 비롯한 모든 가신의 신체를 없애고 신앙 자체를 단절한 경우에는 건궁이란 말도 쓰지 않게 된다.

**참고문헌** 가정신앙 이렇게 변화하면서 전승된다(김명자, 실천민속학회,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편하는가, 집문당, 2001), **까치구멍집 많고 도둑없는 목현마을**(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02),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

게 변하는가(실천민속학회, 집문당, 2001), **안동지역의 용단지**(김명자, 문화재 26, 문화재관리국, 1989),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김명자, 민속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명자(金明子)

## 걸립신(乞粒神)

**정의** 흔히 잘 얻어먹지 못하는 문간귀신으로 여기며 집안으로의 왕래를 활발하게 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일부 지역에서는 재복신 또는 농사신으로 여긴다.

**내용** 본래 목적이 분명한 일을 대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전곡이나 물품을 얻으러 다니는 것을 '걸립'이라고 한다. 이 걸립 문화는 공공성, 공익성, 대동성을 본질로 한다. 걸립을 통한 많은 재원 확보와 최대한의 동참을 희구하는 마음이 신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신격이 바로 신으로서의 '걸립'이다. 걸립신은 무교(巫敎)의 신격으로 존재한다.

걸립(신)은 걸립대감, 걸립마누라, 걸립성주로도 불린다.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는 남걸립 · 여걸립 · 걸립할아바이 · 걸립할마이, 본향걸립 · 도당걸립 · 상산걸립 · 제당걸립, 성주걸립 · 지신걸립 · 업양걸립 · 주저리걸립 · 정전걸립, 몸주걸립(대주) · 직신걸립(계주), 농사걸립 · 상업걸립, 제장걸립 · 대신걸립 · 외길걸립 · 불릴걸립, 시주걸립 · 화주걸립, 왕래걸립 · 문안걸립 · 전갈걸립, 선 걸립 · 앉은 걸립 · 억많은 걸립 · 수많은 걸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걸립신은 주로 대감님으로 나타난다. "글립으루넌 다 대감이며"라는 경기무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걸립신을 재복(財福)을 관장하는 대감님으로 좌정시킨다는 특성을 보인다.

걸립신을 대감으로 좌정시켜 노는 걸립대감놀이는 돈을 벌어들이고 모든 재물을 집 안으로 들여 달라고 축원하는 굿이다. 걸립대감은 '흘러다니는 동서남북 재산을 다 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걸립신은 돈을 벌어들이고 재물을 몰아오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걸립은 떵떵거리며 져들이고, 여걸립은 똬리 받쳐 여들여서"라는 경기무가를 통해서도 그 역할과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서 전곡이나 물품을 모으는 걸립 문화의 속성에서 걸립대감으로의 신격화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황해도굿에서는 걸립신을 걸립대감의 뜻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하위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걸립대감이 신격화되어 나타나는 모습과 권능을 보면 생산 토대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경기도의 농경지역에서는 농사가 잘되라고 걸립신을 위한다. 농사는 걸립대감이 나서서 짓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농사가 잘되게 해 주는 것을 걸립대감의 임무로 여기는 것이다. 걸립대감은 풍농을 통해 그 집안이 부자 · 장자가 되게 해 주고 농사를 잘되게 해 주는 것이 결국 걸립의 목적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으러 다니는 걸립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 즉 자체의 농사가 잘되도록 살펴주는 능력까지 발휘하도록 인식의 지평이 확장 · 심화된 셈이다.

이 경우 걸립신은 농사짓는 땅을 관장하는 지신(地神)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쌍걸립을 모시기도 한다. 쌍걸립은 걸립신과 지신을 함께 대접하는 것이다. 걸립신은 영감이 되고 지신은 마누라가 된다. 쌍걸립을 놀게 되면 무당 두 명이 각각 걸립신(영감)과 지신(마누라) 역할을 맡은 다음에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타령을 한다.

농경신으로서의 걸립대감은 그 집안의 앞 · 뒤 노적 쌓기, 즉 부를 쌓는 농사이기 때문에 '업농사, 복농사'로 표현된다. 따라서 가정집 재수굿에서는 가신(家神)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업, 터주, 수문장 등 가신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특히 성주나 지신과 밀접하다. 쌍걸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년(쌍년)에 성주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아예 가신 자체로 모셔지기도 한다.



**걸립신**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2010.1.16
윤동환

그러나 걸립신은 보편적으로 섬겨지는 가신이 아니다. 가신으로서의 걸립신은 지역적으로 경기 중부 지역에서 집중 조사되며, 단골무당이 와서 집안 고사를 담당해 줄 경우에 모셔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평상시에도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우환이 있을 때 걸립신을 풀어먹인다.

신체는 없다. 집의 대문 주변 기둥을 일컫기도 하고, 신체를 모실 경우 성주를 모신 마루의 맞은편 바깥쪽에 모시기도 한다. 형태는 북어대가리를 새끼줄에 꿰어 마루 바깥쪽 벽에 걸고 한지 두 권을 통째로 걸어 둔 것이다. 무당집에서는 흔히 현관문 위의 벽에 하얀 천으로 북어를 묶어놓는다. 대개 걸립신을 잘 얻어먹지 못하는 문간귀신으로 여겨 별도의 제물을 바치며 대접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람들의 왕래를 활발하게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립신 본래의 권능은 '왕래걸립, 문안걸립, 전갈걸립에 가가호수, 인물적간 하던 걸립에, 호수적간 하던 걸립'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이런 속성이 마을굿을 바탕으로 이뤄지던 대동 걸립문화와 만나면 본향걸립, 도당걸립, 상산걸립으로 신격화된다. 농사짓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만나면 가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농경신으로서의 능력까지 부가되어 있다. 가정집의 재수굿 현장에서는 부부금실과 부자 · 장자가 되게 도와줄 몸주걸립(대주), 직신걸립(계주)으로 나타난다. 무당의 신사에서는 잘 불려주는 데 기여할 제장걸립, 대신걸립, 외길걸립, 불릴걸립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참고문헌** **걸립신**(김창호,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서울 새남굿 신가집**(서울새남굿보존회, 문덕사, 1996),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한국 무속의 신관에 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산촌민속 2**(김명자 · 김태곤 · 이상언, 교문사, 1995).

**필자** 박흥주(朴興柱)

## 고깔

**정의** 한지를 접어서 만든,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 삼신과 세존의 신체이기도 하며, 집례자가 머리에 쓰기도 한다. 가정신의 신체인 단지 위에 씌우기도 한다.

**내용** 가정에서 고깔을 씌운 신줏단지를 볼 수 있다. 신줏단지는 한지로 봉하거나 고깔을 씌우거나 한지를 덮어 둔다. 특히 조상단지, 시줏단지, 세존단지는 고깔을 씌운다. 고깔은 가신을 모시는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 씌우기도 하지만 무속인이 씌우는 경우가 많다. 무속인이 고깔을 씌울 때는 먼저 한지로 단지 입구를 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속인이 고깔을 씌우는 까닭은 모시는 신이 고깔을 쓰기 원하기 때문이다. '먼지가 앉지 말라는 것'이라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

**지역사례** 경남 거제시의 조군석 법사(남, 1964년생)는 안방 시렁 위에 조상신인 '부리단지'를 모신다. 단지 안에 쌀을 넣고 참종이를 덮은 후 왼새끼를 꼬아서 묶어 둔다. 그리고 그 위에 고깔을 씌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가정에서는 직접 한지로 만든 고깔을 세존단지에 씌워 두었다. 단지 옆에는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양초를 담아 두고, 그 옆에 향을 두었다. 그러나 양초나 향에 불을 피우는 일은 없다. 집안에 제사, 잔치, 초상이 있거나 가족의 생일이 돌아오면 반드시 세존단지 앞에 나물과 밥을 차려 놓는다. 단지 안에는 쌀이 들어 있다. 가을에 편안한 날을 잡아 몸을 깨끗이 하고 햅쌀로 갈아 준다. 단지 안에 들어 있던 쌀은 식구끼리 밥을 해서 먹고 이날 고깔도 새로 만들어 씌운다.

하동지역에서는 조상을 '시줏단지'라고 한다. 주먹보다 조금 큰 단지에 쌀을 넣고 한지로 봉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큰방 높은 곳에 놓아 둔다.

함안군 군북면의 조시재 씨 댁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방, 즉 안방의 옷장 위(무당이 정해 준 자리)에 조상신(조상단지)을 모시고 있다. 조시재 씨는 2004년쯤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굿을 했다. 그때 무속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라고 해서 조상단지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단지는 높이 25㎝, 직경 30㎝ 정도의 크기이다. 뚜껑은 없다. 하얀 한지로 단지를 덮고 실로 묶었다. 그 위에는 오색실을 놓고 고깔을 씌웠으며, 고깔 위에는 실타래를 감아 놓았다. 이는 모두 무속인이 가르쳐 준 방법을 따른 것이다. 단지 안에는 일만 원짜리 지폐도 들어 있다. 거기에 햅쌀도 넣어 둔다. 가을마다 쌀을 갈아 넣으며 묵은쌀로는 밥을 해서 가족끼리 먹는다. 이때 특별한 고사는 지내지 않고 절만 올린다. 조시재 씨는 이 조상단지를 모시게 된 이후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한다.

경북지역에서도 조상단지에 고깔을 씌운 사례가 발견된다. 고령군 덕곡면의 강필희 씨 댁에서도 조상단지를 모시고 있다. 단지의 조상은 '윗대 할매'라고 한다. 옛날부터 모셔 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할매인지는 모른다. 단지에는 쌀을 채우고 고깔을 씌웠다. 이전에는 고깔 없이 한지로만 단지의 입구를 봉하였지만 2000년도에 덕곡면 본리리 승암에 사는 보살이 와서 고깔을 씌워 주었다. 단지 안의 쌀은 가을에 햇곡식을 찧으면 햅쌀로 갈아 준다.

구미시 선산읍의 오정수 보살은 성줏단지에 고깔을 씌운 신위를 모시고 있다. 성줏단지는 1998년에 현재의 집을 지어 이사하고 모셨다. 당시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단지를 고르게 하여 쌀을 부은 후 대를 잡게 했더니 남편이 "내가 몇 대 할아버지다. 내가 성주로 온다."라고 하여 고깔을 씌울 건지 물어보니 씌워 달라고 했다고 한다. 신체는 단지에 쌀을 넣고 고깔을 씌운 형태이다. 현재 성줏단지는 집 거실 한쪽 구석에 모셔 두었다. 9월 그믐에 단지 안의 묵은쌀을 꺼내고 햅쌀을 새로 넣는다. 그러고 나서 10월 7일까지 매일 비손한다.

성주군 벽진면 수촌2리의 한 가정은 보살의 권유로 조상단지를 모시고 있다. 이 가정의 조상단지는 어른들이 사용하던 놋그릇에 쌀을 채운 형태인데 보살이 일러 준 대로 한 것이다. 단지를 '조상님'이라고 부른다. 쌀은 작은아들 생일 때 갈아 준다. 아들 생일에 쌀을 갈면 조상님이 그 아들을 도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풀리고 좋아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단지 안에는 남편과 작은아들의 이름을 넣어 두었지만 남편이 죽은 후로는 작은아들만 위해 주고 있다. 작은아들의 생일이 10월이어서 단지 안의 쌀을 갈기에 알맞은 시기라고 한다. 보살이 시키는 대로 큰아들을 제외하고 작은아들만 위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안의 묵은쌀은 식구끼리만 먹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햅쌀로 밥을 해서 올리지는 않는다. 아침에 쌀만 갈아 주고 묵은쌀로 밥을 해 먹을 뿐이다. 조상단지에는 실타래가 감겨 있다. 아들의 명이 길어지라는 뜻에서 걸어 놓는 것이다. 고깔은 몇 년에 걸쳐 새로 접으며, 모시는 사람이 직접 접어서 걸쳐 놓는다.

전북지역에서는 독경을 할 때 주관하는 점쟁이가 고깔을 머리에 쓰기도 한다. 김제지역에서는 정월에 탈이 없이 한 해를 잘 지내기를 기원하며 점쟁이를 불러 독경을 한다. 독경은 정월에 해야 일 년 열두 달 재수가 있고 몸이 건강하다고 여긴다. 독경은 매년 하지 않는다. 그해 대주나 아들의 신수를 보고 신수가 사나워 불길한 경우에만 한다. 이런 이유로 이를 '신수맥이'라고 한다. 독경하는 날이 되면 낮에 경을 읽는 사람과 점쟁이가 와서 직접 가져온 종이를 경을 읽을 장소에 걸어 두거나 독경에 쓰일 꽃 등을 만들고 자신이 머리에 쓸 고깔도 만든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황경순(黃慶順)

## 고사(告祀)

**정의** 집안의 성주, 터주, 제석, 삼신, 조왕 등의 가신(家神)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형태** 고사는 여러 가신에 대한 종합적 제의(祭儀)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시월이라 상달이라고 하여 무당을 데려다가 성조신을 맞아 떡과 과일을 놓고 안택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최남선은 '고수레, 고사, 굿'을 같은 어원으로 보아서 작은 의례를 '고수레'라고 하고 고사는 굿의 규모는 아닌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의례라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 '안택(安宅)', '안택고사(安宅告祀)', '기도(祈禱)', '기도제(祈禱祭)', '도신제(禱神祭)', '시루고사', '사주(祀主)대접'이라고 한다.

**내용** 고사를 지낼 때는 좋은 날을 가려서 대문에 금색(禁索,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바깥에서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한다. 집안사람도 금색을 친 뒤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물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시루떡과 술을 준비한다. 시루떡은 켜가 있는 시루떡과 켜가 없는 백설기를 만든다. 백설기는 안방에 있는 산신(産神)인 삼신에게 바치는 떡이다. 제사는 주부가 제물을 차린 뒤에 배례(拜禮)하고 손을 모아 비손을 하거나 축원을 하면서 기원한다. 중요한 가신인 터주, 성주, 삼신, 조왕 등에 제물을 차리고 배례와 축원을 한다. 이 밖에 칠성, 측신, 마당신, 문신 등에게는 제물만 놓아둔다. 고사를 지낼 때 마을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축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물만 바치기도 한다. 이러한 고사는 중부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며,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거나 주부가 아닌 주인 남자가 행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 지역에서는 시월은 상달이라 하여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에 감사하는 고사를 지낸다. 시기는 무오날[戊午日]이 가장 좋다고 한다. 무오날에 고사를 지내면 굿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무오날이 없을 때에는 10월 초 또는 하순에 지내기도 한다. 10월 스무날은 손돌이 죽은 날이라고 하여 이날 집고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터주고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는 말날이나 돼지날에 고사를 지낸다. 말은 항상 잘 뛰고 씩씩해서 좋고 돼지는 부자가 된다고 하여 이날을 길일로 택한다. 이때 집안신을 모신 성주항아리와 안방 제석항아리에는 쌀을 갈아 넣고, 뒤곁의 터줏가리에는 벼를 새로 갈아 넣은 다음 고사떡을 놓고 빈다. 고사떡은 집의 중심이 되는 상량의 상량시루인 성주시루, 삼신에게 올리는 제석시루, 터주의 터주시루 등 세 개의 시루를 쪄서 올린다. 성주시루는 삼신에게 올리는 흰쌀과 팥, 수수를 켜켜이 넣고 찐 시루이다. 제석시루는 백설기로 작은 시루에 찐다. 또한 떡을 한 조각씩 그릇에 담아 부엌의 조왕, 외양간, 대문의 수문장, 우물의 용왕 등 집안신이 있는 곳곳에 놓는다. 떡과 함께 막걸리를 부어 놓고 할머니나 안주인이 손을 비비면서 풍농(豊農)과 집안의 무고(無故), 재수(財數) 등을 기원한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는 10월에 올리는 안택고사를 '가을시루', 섣달그믐에 올리는 고사를 '시루고사'라고 한다. 가을시루는 시월상달이라고 해서 부녀자들이 시루떡을 장만하여 '시루정성'을 올리는 것이다.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장만하여 "햇곡식을 수확해서 사람이 먼저 먹기가 조심스러워 조상님, 성주님께 먼저 햇곡식을 올렸으니 많이 운감하시고 집안이 잘되게 해 달라."라는 내용의 치성을 드린다. 시루고사는 섣달그믐날 저녁 무렵 집안의 평안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지낸다. 고사에 올리는 제물은 시루, 머리가 있는 생선(조기, 숭어), 나물, 약주 등이다. 고사를 지내는 장소는 성주님이 계신 마루이다. 성주를 모신 곳에 쌀뒤주를 놓아둔다. 여기에서 조상님과 성주님을 위한 고사를 지낸다.

강원도 강릉지역의 안택고사는 기도제, 성주제, 사주대접이라고도 한다. 토지신에게는 오곡(五穀)이 풍등(豊登)하고 육축(六畜)이 번성할 것을 기원한다. 성주에게는 가옥과 토목의 건조 및 가족의 안녕을 빈다. 조왕에게는 화재가 나지 않게 잘 보우(保佑)해 달라고 축원을 한다. 성주에는 메, 정화수, 나물, 주과포, 어육, 백설기를 올린다. 토지신에게는 메, 국, 주과포, 어육이나 황계(黃鷄)를 쓴다. 조왕에게는 메, 국, 주과

**안택고사**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1996, 코리아루트



1. 안택고사 전 금줄치기



2. 황토뿌리기



3. 황토뿌리기



4. 황토뿌리기



5. 안택고사 전 부정치기



6. 성주고사



7. 부엌에 모셔둔 '산' 앞에 고사지내기



8. 삼신모시기



9. 조왕모시기



10. 칠성고사



11. 칠성고사 후 헌식



12. 굴뚝 뒤 말명단지 앞에서 고사지내기



13. 헌식

포, 어육을 올린다. 이때 시루떡은 쓰지 않는다. 고사의 말미에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부르면서 소지를 올린다. 고사를 위해 금줄을 쳐 놓으면 가족 구성원은 죽은 짐승이나 화재 등을 보아서는 안 된다. 상가(喪家) 출입도 금한다.

평창군 용평면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 이전에 택일하여 가내의 일 년 무사와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성주, 조왕 등을 위하는 안택제를 올린다. 보통 가주(家主)가 직접 지내며 때로 무당이나 보살을 불러서 지내기도 한다. 안택 날을 받으면 대문간에 왼새끼를 꼬아 창호지를 군데군데 꽂고 숯이나 솔가지를 꽂은 금줄을 치며, 황토를 가져다 듬성듬성 뿌려 놓아 부정한 잡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금줄은 안택이 끝나면 걷어서 불에 태운다. 안방에서 먼저 고사를 지낸 뒤 부엌이나 장독대로 이동하여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 소지를 올린다. 외양간에서는 소를 위해 군웅신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안택이 끝나면 창호지를 실과 함께 걸어서 조왕(부엌)에 걸어둔다. 안택은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다.

영호남지역에서는 흔히 고사를 도신 또는 도신제라 부른다. 경남 창원지역에서는 10월 추수 뒤 집집마다 떡과 나물을 차리고 집안의 평안을 빈다. 이를 '비손(제미, 도신)' 이라고 한다. 함양지역에서는 안택고사를 위해 무당을 불러서 정초에 행한다. 무당은 날짜를 정하거나 토정비결을 이용하기도 한다. 안택은 먼저 부엌에서 시작한다. 이를 조왕택(竈王宅)이라 한다. 조왕경(竈王經)을 읽는 것으로 안택이 시작된다. 그다음 안방으로 옮겨서 한다. 이것을 안택이라 하고 안택경(安宅經)을 읽는다고 한다. 제물은 떡, 과일 등을 사용한다. 어물은 올리지 않는다. 제물은 부엌에서 지낸 것을 그대로 안방으로 옮겨 사용한다고 한다. 고사가 끝나면 제물은 집주인과 무당이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사 때 집집마다 시루떡을 한다. 안방에 삼신제왕을 모시고 외양간, 사랑, 머슴방, 나락가리, 쌀뒤주, 장광(장독대) 등 곳곳에 음식을 조금씩 차려 놓는다. 10월의 첫 오(午)자가 들어가는 말날이나 주인의 생기복덕이 맞는 날에 안주인이 비손하면서 마음속으로 간단하게 축원한다.

**정월대보름고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터주고사



성주고사

**의의** 고사는 원칙적으로 지연(地緣)적인 집터의 가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가정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사는 정월에 지내기도 하지만 가을 추수 뒤에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하나의 우주로 인식하고 교섭하고자 한 우리 조상들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신앙 제의이다. 오늘날 아파트나 양옥집의 건축 구조는 우리의 이러한 가신의 좌정 공간이나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강원도의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의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의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영동지역의 가신설화와 주술가고**(김선풍, 관동어문학 1, 관동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78),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8), **평창군의 민간신앙**(김선풍 · 장정룡 · 김경남, 평창군, 2003), **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1).

**필자** 김경남(金京南)



## 고수레

**정의**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허공에 던지면서 "고수레"라고 외치는 민간신앙 행위.

**유래** 고수레는 그 사람의 주변에 화복(禍福)을 주는 신을 존경하고 신이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고려시대 문헌에서 '고수레'로 추측할 만한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말 문신이며 성리학자인 목은 이색(牧隱 李穡)은 죽계 안씨 삼형제의 등과를 축하하는 서문(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書, 『목은문고(牧隱文藁)』 권8)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음식 만드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사람인 쌍씨(雙氏)와 왕씨(王氏)를 생각하여 음식을 들 때 반드시 제사를 한다. 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 근본을 잊는다면, 어찌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겠는가
> 雙氏王氏者 蓋飮食必祭 始爲者之法也 人苟得志忘基本 獨何心哉.

이것은 음식을 만들어준 조상을 잊지 않고 존경한다는 말이니, 오늘날 고수레와 다름없다. 고수레로 제사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준 쌍씨와 왕씨를 존경하는 신으로 본 것이다.

최영년(崔永年)이 지은 『해동죽지(海東竹枝)』 상(上)편 '고시래'를 보면 "야사에 이르기를, 단군 때 고시씨가 농사를 가르쳐준 은공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농부가 들에서 밥을 먹을 때 한 술 떼어 던지며 고시래라고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高矢來 野史云 檀君時 有高矢氏 闢草萊拓里 以敎稼穡 至今 田民餉于田間 先以一匙飯 先號高矢來 而祭之)"는 내용이 나온다.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수록된 이정보(李鼎輔)의 사설시조에도 고수레가 나온다.

> 물 우흿 沙工과 물 아릿 沙工놈들이 三四月 田稅大同 실어나갈 제,
> 一千石 싯논 大重船을 자귀다혀 쑤며ᄂᆡ여, 三色實果 머리 ᄀᆞ즌 것 ᄀᆞᆺ초아 피리 巫鼓를 둥둥치며 五江 城隍之神 세 손 곳초아 告祀ᄒᆞᆯ 제, 全羅道 慶尙道라 蔚山바다 羅州바다 七山바다 휘도라셔 安興목 孫乭목 江華썩 감도라들 제, 平盤에 물 담드시 萬頃蒼波를 가는 덧 도라오게 고스레 고스레 所望 알게 ᄒᆞ오쇼셔.
> 이어라 저어라 ᄇᆡ 띄여라 志菊蔥 南無阿彌陀佛

이 사설시조에서 "고스레 고스레 所望알게 ᄒᆞ오쇼셔"를 보면 고수레는 오래전부터 신을 섬기면서 축원할 때 쓴 말임을 알 수 있다. 음식을 떼어 던지며 하는 고수레는 아니지만, 뱃사람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주언(呪言)으로 고스레(고수레)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고수레는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고수레를 함으로써 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대동 곡식을 무사히 운반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고수레 유래 설화에서 고수레는 농사가 풍년이 들고 농사에 재난이 없으며 사람에게 앙화가 없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21개 지역에 관한 36편의 고수레 설화가 실려 있다. 그 설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살림이 어려운 고씨가 논두렁에서 굶어죽자, 사람들이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에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음식을 모아 추모했다.
② 풍수대가인 도선이 어머니 고씨가 죽자 만경들에 묻었는데, "고시네, 잘 받아먹으시오" 하고 사람들이 고수레를 하니 풍년이 들었다. 이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고수레가 퍼졌다. 이는 발복(發福)한 곳에 고씨를 묻었다는 풍수설화에 속한다.
③ 만경들에 묻힌 도선 어머니 고씨가 제사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고수레를 하였더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왔다. 농사가 잘되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전국적으로 고수레를 하게 되었다.
④ 황해도 연안에서는 얻어먹다가 죽은 고수레에게 사람들이 "이 음식을 받아먹고 탈을 내지 말고 잘 물러가라"는 의미에서 '퇴(退)고수레'라고 한다.
⑤ 고씨 성의 사공이 승객에게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하자 천민인 사공이 무엄하다며 사람들이 고씨를 죽였다. 억울하게 죽은 고씨가 배에 화를 부를까봐 고수레를 하며 위로하고 무사하기를 빌었다.
⑥ 아주 후덕한 부자 고씨가 소작인들에게 인심을 쓰자,

소작인이 "고씨가 더욱 부자 되게 해주시오, 고수레"하고 축원을 하였다. 이것은 경주 최부자네가 잘살도록 그 집 소작인이 "최부자 더욱 부자 되시오 고수" 한 것과 같다.

이 설화에서 주인공은 도선이 제사를 드리게 한 어머니 고씨, 가난하여 굶어죽은 고씨, 억울하게 죽은 사공 고씨 등 모두 고씨(高氏)이다. 이는 고수레와, 고씨에 대한 예의나 제사라는 고씨레(高氏禮)와 같다고 본 민간어원설에 해당하는데 불쌍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배려하고 동정하는 아름다운 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래담이 됨직하다.

**내용** 고수레는 기원하는 사람, 기원 대상자인 신격, 음식, 기원 내용이 담긴 고수레 하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신이 '고수레'이기도 하고 이전에 살던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 고씨이기도 하다. 고수레나 고씨는 사람에게 화와 복을 주는 신일 수도 있고, 그 음식을 먹은 주변의 생물이나 무생물일 수도 있다. 신앙의 대상인 신체(神體)는 명확하지 않으나 들에서 음식을 든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기원 대상자가 신이라면 농업을 시작하여 먹고살게 해 준 은인이 죽어 된 신이라고 본다. 한편 이 고수레는 사람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고수레 신은 사람이 섬기면 복을 주고 풍년이 되게 하며 재앙을 막아준다. 이와 반대로 섬기지 않거나 경시하고 무시하면 해를 끼칠 수 있다.

기원과 고사를 받는 신, 이밖에도 고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기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수레를 하는 사람이 "산신이 여기에 있다. 여기 있는 개미가 내가 던져 준 밥을 고맙게 알고 먹는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기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나 확신같은 것이다.

고수레의 제수는 따로 크게 차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음식이다. 사람이 먹기 전에 맨 처음 든 첫 술의 음식, 곧 숫음식이다. 신을 위하는 마음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이 첫 음식은 먼저 신의 몫이지 사람의 몫은 아니다."라고 해서 깨끗하고 성스러운 음식이라고 하여 숫음식이라고도 한다. 숫음식을 먼저 신에게 바치는 것은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과 상을 함께 할 때 손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들고 나서 손아랫사람은 나중에 먹는 것과 같은 공경하는 마음이다.

공경하는 고수레라고 할 때 "고수레!"라고 외치며 음식을 던지는 일은 불경한 것 같으나, 빨리 간편하게 첫 술을 주변에 있는 신에게 올리려면 멀리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경으로 볼 수 없고, 공경으로 보아야 한다.

고수레를 할 때 반드시 확신에 찬 큰 소리로 "고수레!" 라고 외친다.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표현이다. 이 말은 존경하는 고수레 신을 부르는 호칭이며 환기(喚起)이다. 또한 신을 위하는 기원자의 간절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사를 받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을 확신한다는 강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 기원과 제사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고수레라는 신은 자기를 이렇게 힘차게 불러 주어야 좋아한다. 고수레를 할 때 말이 없거나 작은 목소리로 한다면 고수레 신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고수레는 음식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바치는 의식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처럼 음식을 들 수 있는 대상, 즉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감정상 희로애락이 있으며, 영향면에서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있는 인격체로 본다.

경북 경주시 원대리의 이장희(1977년생) 씨가 고수레할 때 하는 말을 풀이하면 "여기서 지금 사람만 먹겠느냐? 귀신도 먹고 새도 먹고 풀도 먹어라. 고수레!" 이다.

**의의** 고수레에는 대자연과 함께 살자는 생명 의식이 담겨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함께 살자."라는 공동체 생명의 존중 의식[生命意識]이 있다. 고수레 밥은 살아있는 동물인 날짐승, 길짐승, 들짐승, 산짐승, 개미 같은 곤충 등이 다 먹는다. 그 동물은 사실 사람이 밥을 먹는 현장에서는 이웃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밥을 먹는 옆에 있는 초목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 있는 이웃이다. 그렇게 보면 초목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예의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무생물, 사물도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한 주인이므로 섬겨야 하는 대상이다. 사람은 손님이므로 신은 물론 주인인 동식물과 무생물에게도 함께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의고, 이런 의미에서 고수레는 성숙한 도리가 된다.



정월떡을 장독대 주변에 뿌리는 모습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3리, 2007.1
김효경

사실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물, 사물의 하나이다. 대자연 가운데서 홀로 먹기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고수레는 "같은 자연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사람의 제안이다.

고수레는 사람끼리 음식을 나누는 나눔 의식이다. 고수레는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도 음식을 나누어주는 행위이다. 당연히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이나, 찾아온 손님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준다. 고수레는 욕심을 더는 덤 의식이다. 사실 야외에서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서 집안보다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서 나쁜 일을 당한다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집 밖에서는 매사 조심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용도 버리며, 사람 아닌 것들에 대해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안전에는 '조심조심이 제일'이요, 성공에는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이라는 말 그대로이다. 조심과 안전과 튼튼은 "욕심을 덜어낸다, 겸손하다, 양보한다, 약간 손해 본다, 상대를 위한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고수레는 단시간에 어디서나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신앙행위이자, 대자연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찮은 동식물이나 무생물까지도 인격체로 대하는 생명 존중의 마음이다. 더불어 조상을 추원보본(追遠報本) 하고, 남에게 베푸는 나눔 정신과 자기를 지키는 덤 정신이 깃든 인간미 있는 좋은 풍속이다. 또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아독존(唯我獨尊)이나 독선(獨善), 이기주의와 교만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지우는 정신이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靑丘永言, **고수레**(성기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고시래-海東竹枝 기사**(韓國漢字語辭典 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3), **고시레 설화**(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6), **고시레 설화의 성격고찰**(박종오, 호남문화연구 2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1), **민속문화와 자연친화적 성격과 속신의 생태학적 교육기능**(임재해, 비교민속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요지, 비교민속학회, 2001), **朝鮮文化叢話**(홍기문, 정음사, 1946), **촌스러운 것에 대한 그리움**(김종태, 새벽, 1997),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열, 일조각, 1976), **한국민간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한국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최래옥(崔來沃)



## 고추

**정의** 아들이 출생하거나 환자가 발생할 때 부정을 씻기 위해 사용한 벽사물.

**역사**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고추, 딸이면 솔잎을 거는 이유에 대한 사례를 모았다. 고추를 거는 것은 사내아이가 장차 쓰라린 고생을 견뎌내고 입신출세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고, 솔잎은 말라 땅에 떨어져도 두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남편에게 강한 정조를 지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식물의 생김새에서 고추는 남자의 성기, 솔잎은 양쪽 다리가 있고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 여자의 생식기를 각각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현지 주민의 사례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고추는 붉은색과 매운 맛을 띠고, 솔잎은 잎의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귀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고추는 하나의 몸으로 되어있어 양성, 솔잎은 둘로 되어 있어 음성을 각각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열린 문만 보면 닫기를 좋아하는 귀신을 초(椒)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 고추처럼 생겼다고 한다. 이 때문

에 문을 닫아 사악한 것들의 침입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금줄에 고추를 달았다고 전한다. 한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때라고 한다.

**내용** 고추가 벽사물로 쓰이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화수에 고추와 숯을 담가 부정을 쓸어 내는 의식을 하거나 아이의 출생 금줄이나 첫 나들이 때 등에 고추를 매달아 둔다. 부정을 제거할 때 고추나 고춧대를 태우기도 했다. 고추의 독하고 매운 맛이 음귀를 쫓아내고 강한 붉은색이 잡귀를 몰아낸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아들이 출생하면 금줄에 고추를 거는 습속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보인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평북 지역에서는 대문 위에 고추 세 개와 환자의 상의 옷고름을 걸어 두었다. 경남지역에서는 고추 열 개를 실로 꿰매어 문 입구에 걸어두었다. 충남 부여지역에서는 환자가 생기거나 집안에 동티가 나면 고추를 태워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티로 인하여 병이 생긴 것으로 보고 굿이나 고사를 지냈다. 집안에 동티가 나면 매운 고추를 태워도 매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신발에 고추를 비롯한 왕겨, 된장, 소금, 쌀 등을 조금씩 넣고 마당에 나가 불을 사른다. 그러면 동티가 풀리고 환자의 병이 낫는다고 한다. 근래 경남 어촌지역에서도 고추를 걸어둔 민가가 보인다.

우리나라 어촌에서 배고사를 지낼 때나 부정을 쓸어내리는 '부정씻이'를 할 때 고춧가루를 뿌리며,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정화수에 고추와 숯을 담근다. 불이나 태양을 상징하는 고추의 붉은색이 부정을 정화하고 매운 맛과 불에 탈 때의 독한 냄새가 부정을 쓸어낸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된장음식에는 반드시 고추를 넣는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귀신이 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로 귀신의 근접을 막는다고 한다. 또한 된장을 만드는 집에서는 대문에 고추를 꿴 금줄을 쳐두기도 한다. 이것 역시 벽사의 의미가 있다.

**의의** 고추의 붉은색과 매운 맛은 사람들이 잡귀를 쫓는 벽사물로 고추를 이용하게 하였고, 고추의 생김새 때문에 사내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구실도 한 것이다. 또한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가정신앙의 구조와 성격-충남지역을 중심으로**(이필영,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2000),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노성환 역, 민음사, 1995), **한국민속학**(최인학, 새문사, 1988),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정연학(鄭然鶴)**

## 고팡신

표제어 안칠성(440쪽)

## 곡물(穀物)

**정의** 가정신앙의 맥락에서 다종다양하게 활용되는 벼, 보리, 밀, 조, 콩, 팥, 기장, 수수, 옥수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 쓰임새는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산육의례를 비롯한 일생의례나 농경세시에서 곡물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일생의례나 농경세시, 가신제에서 곡물을 초월적 존재에게 공물로 바치는 경우이다. 셋째, 곡물을 초월적 존재의 신체나 신령 그 자체로 모시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에서 앞의 두 경우는 마지막의 곡령(穀靈) 신앙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곡물종자의 제사에 초점을 맞춰 다뤄진다.

**내용** 예나 지금이나 농경민들에게 풍년이 곧 행복의 원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그것은 경험적, 합리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작물의 양호한 재배 관리와 함께 생산기술을 뛰어넘은 초월적 존재에 의존함으로써 비로소 기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생명의 유지와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식량을 얻게 된다. 농경은 바로 이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곡물의 재생산 체계이다. 초월적 존재에의 의존을 구상화한 농경의례 역시 '파종 - (이앙) - 성장 - 수확 - 파종'이라는 일련의 순환체계를 반영한다. 이런 까닭에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농경의례는 곡물의 생산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봄의 씨뿌리기 이후부터 가을의 갈무리 사이에 행하는 신앙 행사와 가을의 갈무리부터 이듬해 봄의 파종 사이에 행하는 신앙 행사이다. 이를 벼의 일생에서 보면 전자는 벼가 작물화한 단계의 제의, 후자는 벼가 종자화한 단계의 제의로 구분된다.

이 양자의 배후에는 매우 다양한 호칭의 신령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벼의 무사한 발아와 성장 기원 및 재해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자 속에는 농신을 비롯한 용신, 수신, 산신 등이 등장한다. 풍작에 대한 감사와 이듬해의 예축(豫祝)을 위한 후자의 경우에도 '성줏단지', '조상당세기', '삼신바가지', '터줏가리' 등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허다하게 등장한다. 이 가운데에서 통상 가신이라 불리는 후자의 신격들은 각각 가옥신, 조령(祖靈), 산육신(産育神), 택지신과 같은 기능신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갈무리가 끝난 다음 길일을 잡아 여성들이 전유하는 집안의 특정 공간에서 이들을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게다가 수확제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이 가신제에서는 전년에 '○○단지, ○○상자, ○○바가지, ○○가리' 등에 안치한 묵은 곡식을 이제 막 거둬들인 햇곡으로 교체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곡령의 신체와 제장(祭場) 변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일찍이 김택규는 한국의 가정 단위 곡령신앙의 대상을 ①노적(露積) 계열, ②단지 · 상자 · 바가지 계열, ③지폐(紙幣) 계열로 유형화하고 이들의 선후관계를 '① - ② - ③'으로 상정했다. 즉 옥외의 벼이삭이나 볏가리 자체가 곡령의 신체로 숭앙받던 것이 옥내로 들어와 터줏가리와 같은 초사형(草祠型)으로 발전했다. 나아가 이것이 '○○바가지'나 '씻부게'의 형태로 바뀌고 다시 '신단지'나 '신당세기'로 변형되었으며, 극도로 형식화하여 지폐 형식이 되었다고 추론한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 남근우는 노적 관행이 적어도 원삼국시대 이전에는 출현하지 않았음을 들어 곡령신체의 선후 관계를 '① - ②'로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택규의 상정과는 반대로 '○○단지, ○○상자, ○○바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옥내의 곡령 제사가 옥외의 노적을 대상으로 한 곡령 제사보다 앞선다고 본다. 그리고 김택규가 말하는 초사형의 신체, 곧 터줏가리나 업왕가리 등과 같은 '○○가리'는 이 양자의 결합형태이다. 이러한 상정이 타당하다면 김택규가 주장한 옥외로부터 옥내로의 제장 변천설 역시 재검토의 여지가 남는다.

과거의 도작농경민들에게는 양호한 벼 종자를 선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그들의 죽살이(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몹시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씨받기부터 이듬해 봄의 씨뿌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씻나락(볍씨)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지 기술적 차원에서 종자의 안전을 기약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곡령이 지니고 있는 풍양의 힘을 재생, 부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농경민들에게는 벼가 종자화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가 그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니라 씻나락을 봉사하여 그 풍양성(豊穰性)을 확보해야만 하는 성스러운 시간이었다. 이 기간에 수확의례, 축원의례 등과 같은 농경세시가 집중적으로 행해진다는 점, 이들과 연동한 가신제의 대부분이 벼를 비롯한 곡물종자의 제사에 중점이 놓인다는 점 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곡령의 제의공간으로서 옥내 제장이 먼저인지 옥외 제장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농경민들은 '성스러운 농한기'에 옥내와 옥외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나 수확에 대한 감사와 이듬해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곡령의 노고를 기렸으며, 그 곡물종자에 내재된 풍양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앙행사를 치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적 관행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농경민들은 수확 작업을 전후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옥외에서 곡령 제사를 행했을 것이며, 노적관행이 출현되고 나서도 그들은 갈무리 작업이 끝난 뒤에 옥내의 안방 등에 곡물종자를 넣은 단지 등을 안치하고 겨우내 이것을 봉사해 왔을 것이다. 이처럼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는 제의의 시간, 그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옥외 제사와 옥내 제사를 상정했을 때 상기한 제장의 변천 문제와 신체의 선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됐을 것이다.

옥내의 가신제를 대상으로 곡령 제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당세기, ○○바가지, ○○가리 등에 대한 종합적 ·

정기적인 제사를 흔히 '고사' 또는 '안택'이라고 부른다. 종합적 제사는 성주신을 비롯한 조상신, 삼신, 조왕신, 터주신 등과 같은 옥내의 기능신들을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봉사한다는 뜻이다. 물론 종합적 제사의 대상 신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집안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즉 고사나 안택에서 어떠한 가신들을 봉사할 것인지 그 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에 개개 가신을 봉사할 경우 어느 신령을 먼저 모시고 나중에 모시는지 절차상의 선후 관계 역시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성주신을 가장 먼저 봉사하고 나서 조상신과 터주신을 모신다든지 조왕신이나 터주신을 먼저 봉사하고 난 다음 성주신이나 조상신을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정기적 제사는 앞에서 말한 종합적인 가신제를 일 년에 한 번 특정한 날을 잡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특정한 날 역시 지역과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곡물의 갈무리를 전후로 한 음력 시월 중의 길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시고사', '상달고사', '가을고사', '가을안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성주신을 비롯한 여러 가신의 종합적, 정기적인 제사에서는 새로 거둬들인 햇곡을 전년에 안치한 묵은 곡식과 교체하는 게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문제는 '고사'나 '안택'에서 봉안된 곡물들이 그 이후에도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제일 역시 지역과 집안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곡물을 안치한 '○○단지, ○○상자, ○○바가지' 등은 일 년 내내 항구적으로 봉사되는 것인지 일 년 중의 어느 특정 기간에만 봉사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들을 보면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봉사 시기는 앞에서 말한 대로 지역과 집안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동지나 설날, 대보름, 단오, 유두, 추석과 같은 명절에 이들을 위한다든지 가족의 생일이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올린다든지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이들을 모시는 경우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가신들의 신체로 단지, 상자, 바가지 등의 용기 안에 쌀을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단지, ○○상자, ○○바가지' 등을 일 년 내내 봉사한 다음 이듬해의 고사나 안택 때 그 쌀을 꺼내 떡이나 메를 지어 가족끼리만 먹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일 년 내내 봉사와 기원의 대상이 된 그 쌀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따르며, 이와 관련한 속신이 수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후자의 경우, 즉 곡물을 안치한 '○○단지, ○○상자, ○○바가지' 등을 일 년 중의 어느 특정 기간에만 봉사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경북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에서는 가을고사 때 밤새 성주섬 위에 불을 밝혀둔다. '성주섬'은 성주종이 밑에 두는 큰 소쿠리이다. 이를 '성주부구'라고도 한다. 가을 추수 때 가장 먼저 짝거리(큰 소쿠리)나 가마니에 나락을 가득히 넣어 성주 밑에 두고 2월에 이를 내어 찧어서 밥을 짓고 나무새[나물]를 갖추어 빈다. 한편으로는 항아리에다 그 나락을 나누어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씻나락으로 쓴다. 보리농사 때는 다시 섬 안에 보리를 넣어 둔다고 한다. 경북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에서는 안방 한 쪽에 시렁을 치고 그 위에 직경 7~8㎝의 밑바닥이 얇은 다갈색 단지를 안치한다. 이를 '신줏단지'라고 부른다. 이 신줏단지 이외에 몸채 대청마루에 있는 쌀뒤주 옆에 다른 단지를 모시고 있다. 추석 아침 일찍 주부가 논에 나가 한 말 정도의 벼를 베어다 나락을 훑어서 그 단지 안에 안치한다. 이 단지 속의 나락이 이듬해 씻나락이 되는 것이다. 주부는 집안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에 금줄을 치고 몸을 정결히 한 다음 나락을 안치한다. 그러고 나서 공물을 바치고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이듬해의 풍작을 기원한다. 이 단지에 깃들인 신령을 '성주' 또는 '시주'라고 부른다. 이처럼 씻나락을 봉안하는 관행은 1977년 조사 당시 2, 3년 전까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두 사례에서는 벼 종자의 봉사가 가을에서 이듬해 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봉사의 대상이 되는 곡물이 쌀이 아닌 나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 나락이 이듬해 볍씨로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을 보면 이듬해 종자로 사용할 씨를 대상으로 가을의 채종(採種)부터 이듬해 봄의 파종 사이에 이를 봉사하는 위의 사례들이 가신제의 본디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씨의 계승의례가 원의(原義)를 잃어감에 따라 봉사 대상은 종자용의 씻나락에서 단순한 나락, 더 나아가 나락에서 쌀로 바뀌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봉사 대상이 씻나락에서 나락, 쌀로 바뀜에 따라 봉사 시기 역시 원래 가을부터 이듬해 봄 사이의 농한기에 국한되던 게 일 년 내내 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가신제에는 곡물종자의 봉사와 관련한 금기와 속신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를테면 봉사자 자신에게 요구되는 재계(齋戒)의 엄격함과 이를 파괴하는 행위의 금지, 봉사의 대상이 될 곡물의 선택과 채취 · 운반 및 이를 안치할 단지 · 상자 · 바가지 등 용기에 얽힌 금기나 속신, '○○단지, ○○상자, ○○바가지' 등의 제장에 대한 금기와 속신, 이들 가신을 동요시키거나 그 영험의 발현을 억제 · 말살시키는 언동의 금기 등과 같은 전승이 적지 않다. 이 모든 전승이 봉사자 자신 및 제사 대상의 청정 유지와 관련한 사항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곡물종자 그 자체를 '깨끗이' 보존 · 관리하는 것과 봉사자이자 경작자인 인간이 청정하다는 것은 곡령의 영험을 발현시켜 풍양성을 확보 ·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된다.

가신제에 따르는 곡물종자의 출타(出他) 금기, 예를 들어 '○○단지, ○○상자, ○○바가지' 안에 안치한 곡물은 '절대 집안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든지 '떡이나 메를 지어 반드시 집안 식구끼리만 먹는다'와 같은 전승 역시 씨의 계승 관념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택규의 "'성조신=곡신=가택신'이 조령과 거의 동격시되고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여기에는 인간 내지 '씨족의 생명의 영속'과 '곡물의 생명의 영속'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김택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며느리를 맞이할 때 새로운 삼신단지를 며느리 방에 봉안한다든지 성주신과 호주를 동일시하는 전승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씨'와 곡물의 '씨' 사이의 유추를 인정하는 농경민들의 사고는 우리나라 민속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곡물을 안치한 '○○단지' 등을 가리켜 '조상하나씨', '큰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곡물종자를 안치한 '부루독', '부루동이', '부리섬' 등의 '부루(리)'가 가계나 혈통의 뜻으로도 사용된다든지 새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한 혼인의례나 산육의례에 보이는 곡물의 주술적인 사용이라든지, 무엇보다 '씨'라는 말이 곡물종자의 의미와 함께 인간의 혈통이나 자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농경민들 사이에서는 풍작의 원천으로서의 '씨'와 이를 계승하는 주체로서의 '씨'가 같은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농경민들은 곡물의 발아부터 성장 · 결실에 이르기까지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내포한 영적 존재로서 곡령을 봉사하고, 그 영험어린 '씨'의 분여(分與)를 통해 풍양의 힘을 공유함으로써 집안이나 일족의 풍작과 행복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가신제에 따르는 곡물종자의 출타 금기 전승은 이러한 곡령의 일탈로 인한 풍양력의 소실 방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풍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씨'를 집안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곡령의 풍양 기능을 분산, 약화시켜 흉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쇠락한 다른 집안의 곡령들에게 부활의 계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곡령숭배사상**(남근우,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한국농경세시의 연구—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민간신앙에서의 성주신에 대하여**(변덕진, 효성여자대학교논문집 9, 효성여자대학교, 1968), **韓國の祖先壺**について(竹田旦, 民俗學の進展と課題, 國書刊行會, 1990).

**필자** **남근우(南根祐)**



## 곳간신

상호참조 안칠성(440쪽)

**정의** 집안의 곳간을 지키는 신. 고방신, 도장신, 도장지신이라고도 한다. 재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업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내용** 곳간은 쌀을 비롯한 집안의 재물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많은 재산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곳간신에 대한 의례로 발현된다. 의례는 크게 치르지 않지만 간혹 신체를 모시거나 제물을 올리는 등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신체는 보통 '독'의 형태로 존재한다. 독에는 쌀을 넣어둔다. 하지만 신체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곳간신을 위하는 의례는 주로 정월이나 가을고사 때 행한다. 이때는 찰밥, 떡 등의 제물을 올리고 일 년

내내 쌀독을 비롯한 집안의 재물이 풍성하기를 비손한다.

지역사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지역에서는 곳간에 쌀을 담은 독을 모신다. 이를 '업독'이라고 한다. 이 쌀은 가족들이 여름내 양식으로 썼다고 한다.

경남 의령군지역에서는 곳간신과 업을 동일시하는 사례가 보인다. 음력 시월에 곡식을 추수하여 곳간에 보관하면서 술, 떡, 나물 등 제물을 차려 놓고 곳간신에게 "업장군님네요, 이 음슥 잡수시고 천석만석 부라 주고, 만석천석 부라 주이소." 하며 비손한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찰밥을 김에 싸서 곳간에 두거나 쌀독 등에 넣어 두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는 곳간신에게 쌀이 불어나는 등의 복을 많이 내려달라는 의미이다.

충청도지역에서는 곳간에 떡을 올려 신을 위하고, 일 년 동안 독이 비지 않게 해 달라고 비손한다. 특히 정월떡이나 가을떡을 해서 집안의 성주, 조상신 등에게 시루째 올린 뒤 일정량의 떡을 떼어서 곳간에 놓는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명진(李明珍)**

## 광대감

표제어 곳간신(51쪽)

## 광청아기

정의 제주도에서 집안에 내려오는 조상신의 일종. 심방들에 따라 '광청할망'이라고도 불린다. 제주도에는 조상신에 아기, 아미, 할망 등을 덧붙여서 이르는 전통이 있다. 이에 따라 광청아기, 광청할망 등으로 병칭된다. 제주도에서 조상은 아주 각별한 개념이다. 특정 집안에서 섬기는 일정한 조상의 신이다. 이 신들은 혈연적으로 연계되지만 '내게 태운 조상'이란 관념으로 특정하게 강신하여 조상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청아기는 허정승이라는 인물이 살던 고장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동김녕리의 '송칩'에서 섬기는 조상으로, 제주도와 육지가 관계를 맺은 이래로 교유관계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청아기 내력은 일련의 신화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제주도만의 고유성을 지닌다. 육지와 제주도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에 두 지역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역사 광청아기는 구비역사의 산물이다. 집안의 역사를 말해주는 조상신본풀이 또는 조상본풀이라고 하는 점, 제주도의 고유한 사제자인 심방에 의해서 전승된다는 점에서 구비역사의 성격을 완연하게 지닌다. 실제 구연 당사자인 집안의 인물과 사제자의 공동 전승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성을 지닌다. 이는 철저한 구전의 전통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집안 내적 전승이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면모가 있다. 내세우기 부끄러운 면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비의적(祕儀的)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역사는 비공개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내적 전승과 함께 외적 전승도 겸한다. 집안의 단골심방은 내적 전승을 일련의 의례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행한다. 외적 전승으로 공개됨으로써 집안의 내적 역사가 집안 밖의 외적 역사로 전환되는 성격을 일정 부분 갖는다. 의례가 소중한 것은 이러한 면모 때문이다.

현재까지 심방에 의해 공개된 광청아기의 조상신본풀이는 모두 세 편이다. 제주도의 큰 심방이라고 불리던 심방 가운데 대표적인 세 심방에 의해 구연된 것이 채록되었다. 심방은 제주도의 일정 구역에서 단골들을 대상으로 본주의 내력인 집안의 조상을 모셔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심방마다 자신의 고유한 단골조상의 내력을 전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본풀이를 기억으로 전승한다.

제주도의 심방들이 전승하는 역사적 전승 사례는 모두 조사할 수 없지만 현재의 전승 경과에 의하면 세 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사인 심방본, 이중춘 심방본, 양창보 심방본이다. 심방들의 각편이나 세부적인 국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사 골격이 공통의 전승에 입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사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승 경로에서 안사인 심방본과 이중춘 심방본이 송동지 집안 전승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양창보 심방본만이 한동지 집안의 조상신본풀이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씨 집안과 송씨 집안의 역사적 전승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사인 심방본 〈광청아기본풀이〉에서는 송동지와 광청아기씨의 결연 부분이 다른 각편보다 확장되어 장황하게 묘사되고 있다. 송동지 영감의 막내딸에게 실린 광청아기씨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셋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의례를 진행시켰다는 점은 이 각편에만 드러나는 특징이다. 이것은 광청아기씨가 큰굿, 철갈이, 삼멩일 기제사로 제향되고 있는 점과 연결되어 주목된다.

더욱 중요한 면모는 이 본풀이의 역사적 성격을 증명해 주는 소중한 전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 본풀이의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문헌 속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찬녕(贊寧)이 지은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수록된 〈의상전(義湘傳)〉이다. 여기서 핵심 서사와 일정하게 서로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광청아기의 내용은 역사적인 소급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는 국제적인 전승 경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전승, 한국의 전승, 일본의 전승 경로가 두루 확인된다. 제주도의 전승본인 〈광청아기본풀이〉의 역사적인 중요성 또한 이로써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의상과 선묘[義湘與善妙]〉 설화로 알려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본풀이와의 상관성을 말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의상(義湘)이 나이 스물이 되자 당나라 땅에 교종(敎宗)이 은성(殷盛)하다는 것을 듣고서 원효법사(元曉法師)와 함께 유학 가고자 하였다. 배를 타고 가려 하였으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비바람에 젖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토방으로 된 무덤[土龕]에 몸을 깃들였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이 고분(古墳)의 해골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날도 날이 궂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무덤으로 통하는 벽돌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다. 밤이 깊지도 않았으나 귀물(鬼物)이 있어서 괴이함을 자아냈다. 원효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앞날에 토감이라고 하는 곳에 잘 때에는 편안하였는데, 오늘 밤에는 귀신이 사는 집에 의탁하여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감실(龕室)과 무덤이 둘이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겠다. 또한 삼계(三界)는 유심(唯心)이고 만법(萬法)은 유식(唯識)이니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별도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바랑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의상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하였다.
>
> 총장(總章) 2년에 상선(商船)에 의지하여 당나라의 등주 해안에 이르렀다. 일행과 떨어져서 신앙심이 깊은 선비의 집에 이르렀는데, 선비는 의상의 얼굴과 모색이 빼어남을 보고 문하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였다. 이 집에 소녀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복색에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으니 이 소녀가 곧 선묘(善妙)였다. 눈썹을 교묘하게 하여 꾀려고 하자 "의상의 마음은 돌을 움직일 수 없음과 같다."라고 하였다. 소녀가 갑자기 도심(道心)이 발하여 대원(大願, 부처가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맹세하며 말하기를, "생생세세(生生世世)토록 명을 의상화상과 함께 하겠노라. 대승불교를 익히고 배워서 대사를 성취하는 데 제자는 단월(檀越)이 되어서 자뢰(資賴)와 인연(因緣)을 공급하겠노라."라고 하였다.
>
> 의상은 이에 지름길을 달려 장안의 종남산(終南山)의 지엄(智儼) 삼장소로 갔다. 화엄경(華嚴經)을 종합적으로 익혔는데 법을 전하고 중생을 깨우쳐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문등 옛 단월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상선을 타고 떠나게 되었다.
>
> 선묘는 미리 의상에게 줄 법복과 여러 집물을 가득 채운 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해안으로 이를 옮겨서 운반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의상을 태운 상선이 멀리 가자 선묘는 곡하며 "나는 본래 참다운 마음으로 법사를 공양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이 옷을 담은 상자가 뛰어서 앞에 가는 배에 이르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고는 옷이 담긴 바구니를 던졌는데, 사나운 바람이 불어 이것이 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고는 "나는 바라건대 이 몸이 화(化)하여 대룡(大龍)이 되어서 선박의 날개가 되어서 전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니 형신이 대룡으로 화하였다. 화살처럼 빠르게 교정

하고 또한 뛰어서 완연한 모습으로 배 밑바닥을 받치어서 의상이 편안하게 신라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의상은 신라 땅에 들어온 뒤에 산천을 편력(遍歷)하였다. 또 묵묵히 생각을 자아내되 대화엄의 가르침은 복선의 땅이 아니고서는 흥성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선묘용(龍)이 항상 따르며 지키고 있는데 의상의 생각을 알고서 이에 대신(大神)으로 나타나서 허공 중에 변화하여 큰 돌이 되었다. 의상이 드디어 절로 들어가서 부연하여 경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 절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였다.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는 사람이 많았다.

〈의상과 선묘〉 설화를 내용에 입각하여 〈광청아기본풀이〉와 견주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의상과 송동지, 선묘와 광청아기, 핵심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다. 남성 주인공은 외진 곳 또는 특정한 문명의 주변부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반면에 여성 주인공은 문명의 중심부이거나 육지부에 속하는 인물이다. 서로 거리가 멀고 바다를 무대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연인 관계로 맺어지면서 깊은 교유를 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게 된다. 바다를 통해 되돌아오는 남성 주인공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부활하는 특성도 있다. 여성의 죽음과 변신이 바다 경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점도 역시 남다른 사연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을 도와서 남성의 입신양명에 일조하는 것의 결말 역시 긴요한 특징이다.

이 이야기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생성된 특징이 있다. 동일한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향산관음대비보살전(香山觀音大悲菩薩傳)〉, 한국에서는 〈의상선묘설화(義湘善妙說話)〉, 일본에서는 〈도성사연기설화(道成寺緣起說話)〉 형태로 전개된다. 뚜렷한 서사적 공통점은 여성이 자신을 희생하여 남성을 구하고, 용이나 관음보살로 변하는 등 용신신앙과 관음신앙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 여성이 용이나 뱀으로 변화할 때 매개가 되는 것이 바다에 버려진 상자라는 모티브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상자와 변신 모티브가 이야기의 역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본풀이의 역사성은 구전과 문전의 형태들이 결합함으로써 전승되는 것이 기본적 면모를 이룬다. 구전되는 이야기가 전통적인 신앙에 기초한 집안과 무당 집단의 산물이라면 이것이 중세문명권의 불교적 전승과 같은 문헌전승이나 외래의 신앙전통과 결합함으로써 역사적 성격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풀이의 역사적 성격은 매우 긴요한 구실을 한다. 본풀이의 역사적 성격은 미시적인 전승과 함께 거시적 신앙의 전승이 합처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내용** 〈광청아기본풀이〉는 여러 각편이 있지만 중심적인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김녕 송댁(宋宅)의 송동지 영감 송선주가 사또의 명을 받고 서울로 진상을 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청고을 허정승 댁에 유숙을 하였다. 저녁을 먹은 후 모두 잠이 들었는데도 송동지 영감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보니 이상하게 문 밖 사랑방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송동지 영감이 사랑방을 바라보니 어여쁜 아기씨가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 송동지 영감이 되돌아가려는데 아기씨가 창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길 청했다.

송동지 영감이 아기씨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아기씨가 술상을 차려 내왔다. 아기씨가 송동지 영감에게 술을 권하며, 본래 자신은 허정승의 따님이며 광청고을 안 궁녀(宮女)의 몸으로 장차 부모의 명대로 혼인을 해야 할 몸인데 그 전에 색시놀이를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술에 취한 송동지 영감은 그저 아기씨가 하라는 대로 대답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몸이 변색되어 있었다. 송동지 영감은 연분홍저고리에 대홍대단 연분홍치마, 족두리를 하고, 아기씨는 갓양태 넓은 갓에 백도포를 둘러 입고 있었다. 송동지 영감과 아기씨가 서로의 신원과 원정을 풀었다.

송동지 영감이 두 번째 서울 진상을 하러 가서도 광청고을 허정승 댁에 유숙하러 갔다. 그리고 밤이 되자마자 광청아기 사랑방으로 달려가 보니, 옥 같던 아기씨의 얼굴은 임신을 하여 검게 변해 있고 배는 큰 항아리처럼 불러 있었다.

아기씨는 초이경이 되도록 송동지 영감 도포자락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였다. 송동지 영감은 아기씨가 도포자락을 잠시 놓은 틈을 타서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 포구에 내려와 배 밑에 숨어 앉았다.

아기씨는 아버님 손에 죽을 생각을 하니, 차라리 송동지 영감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기씨가 흰 비단 홑저고리에 대홍대단 홑단치마를 둘러 입고 대바구니를 옆에 차고,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로 내려왔다. 송동지 영감의 배를 찾아가서 이물사공에게 송동지 영감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발판다리를 놓아줄 것을 청하였다. 아기씨가 발판에 올라서자, 이물사공이 갑자기 발판다리를 안으로 잡아당겨서 아기씨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송동지 영감 눈에 아기씨가 발판을 밟아 오르다가 물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이상하게 여겼다.

송동지 영감의 배가 동김녕 포구에 들어섰다. 송동지 영감 말째 딸아기가 송동지 영감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난데없이 "나는 광청고을 광청아기 궁녀로다 어야디야 실강깃소리 긴바다 긴소리로 어서 놀자."라며 부모형제 간도 몰라보고, 동김녕 물결로 달려들려고 한다. 송동지 영감이 자신의 말째 딸에게 광청아기의 혼령이 실렸음을 알아채고, 청춘의 원혼이나 풀어주자며 신의성방(심방)을 부른다.

심방을 불러다 용왕국으로부터 광청아기의 초혼 이혼 삼혼을 건져내어 송동지 영감 셋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 축지방(祝紙榜)을 올리고, 원성귀제맞이로 일천간장을 풀었더니, 송동지 영감 댁이 삽시에 거부가 되었다. 축지방을 올렸던 송동지 영감 셋째 아들은 서울에서 무과급제하고 광청아기 혼령으로 만대유전(萬代流傳)을 시킨다.

동김녕 송댁에 광청아기 광청일월을 만대유전시키는 이 신은 사당클굿에 열두 석, 중당클굿에 여섯 석, 앉은제에 삼 석으로 놀리는 조상이고, 철갈이로 대바구니 안에 물명주 강명주 열두 물색을 차려 상고방으로 위하여 삼명일 기제사 때 모신다. 자손들에게 좋은 벼슬과 재물, 복을 주는 조상이다.

이 본풀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섬에서 온 남성과 육지에 거처하는 여성 사이의 애정에 기초하고 있다. 둘이서 함께 색시놀이를 하는 것이 애정담의 핵심이다. 여성의 애정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만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로 한 밤을 지내는 남녀의 만남과 애정이 긴요한 구실을 한다. 둘 사이의 사랑이 첫 번째 만남에서는 원만하게 성취되었으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불행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 각편에 따라 이 과정에 파탄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지만 대체로 아기를 잉태하였거나 불행한 모습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면모이다. 여성은 두 번째 만남에서 죽었거나 기다리는 마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원정과 원혼에 기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둘째 광청아기는 송동지 영감을 따라나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광청아기의 몸에 맞게 옷을 만들어서 옷감을 넣은 상자의 형태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자는 단순한 옷상자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선묘가 마련한 의상의 법복을 담은 옷상자도 동일한 면모이다. 광청아기의 죽음이 여러 형태로 암시되어 있는데 옷을 마련하는 것이나 배에 오르다가 사공이 발판을 당겨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면모로 말미암아 이 옷상자는 말명상자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속신앙의 전통에서 죽은 이의 옷을 상자에 담아두고 조상으로 섬기는 전통이 있다. 이것은 그러한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말명상자가 일으키는 사단 또한 긴요한 구실을 한다. 죽은 여성의 옷이나 갖가지 노리개 등을 담아놓은 말명상자의 이동은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석탈해신화〉, 〈삼승할망본풀이〉, 〈궤눼깃또본풀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정착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공의 생래적 조건을 결정하는 신화적 속성이다. 상자에 담겨 버림을 받는 주인공은 신화적 설정에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신격으로 좌정하게 된다. 말명상자는 이동하여 새로운 곳에 가서 자리하고 이 말명상자를 맞이하는 쪽에서는 일련의 사단을 겪는다. 이질적인 신앙의 신이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명상자의 등장에 의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동지 영감의 막내딸이 겪는 고난은 이러한 말명상자의 신앙적 영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말명상자를 매개로 하는 신앙적 안정화 작업이다. 태운조상에 대한 집안의 제례를 정착화함으로써 말명상자의 신앙은 완성된다. 집안의 조상으로 전례화함으로써 굿, 제사, 명절 등에서 이 조상을 섬기면서 삽시간에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말명상자로 담겨온 조상이 혈족적으로 깊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상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일련의 신앙적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말명상자의 주인공이 조

상으로 섬겨지게 되는 결말을 갖추고 있다. 또 제주도의 가신으로 조상이 실현되는 과정이 첨가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조상신앙의 본풀이가 자리하게 된 것은 이 본풀이의 신앙적 근거를 형성하는 조상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특징** 제주도에서는 아주 독자적인 신앙으로 조상신앙이 있다. 이 본풀이는 조상신앙의 특정한 사례를 보여주는 점에서 긴요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이 본풀이의 주인공을 매개로 하는 조상신앙의 전개 양상을 특징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세 가지 조상 개념이 범주적으로 분류되고 적용될 수 있다.

첫째 혈족적인 관념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조상이 있다. 원칙적으로 혈족은 집안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 있는 개념이다. 조상신앙의 직접적 대상인 이 조상은 여러 의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제사와 명절이 이러한 신앙의 근간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조상이 되어 후손의 기림을 받는 관념이 이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조상신앙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형태이다.

둘째 '태운조상'의 조상이다. 혈족과 일정한 관련이 있지만 대체로 이와 무관하게 섬기게 되는 독특한 조상 관념이다. 이 조상신은 특정한 인물을 매개로 하여 조상으로 대우받으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섬겨지는 대상이 된다. 강신을 통해 조상으로 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조상 관념이다. 이 조상을 매개로 하는 신앙이 조상신본풀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제주도의 조상신앙적 관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증이다.

셋째 '거느리는 조상'이다. 두 번째 관념과 겹치는 면모가 있지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심방들의 역사 속에서 거느려지는 대상이 바로 이 조상이다. 심방이었다가 사라진 존재에 대한 내력이 있는 조상이다. 이 조상은 집안의 범위를 벗어나 무당의 사회적 집단 속에서 거느려지는 조상이다. 이 조상을 가장 선명하게 집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의적 특성을 통해 구현된다. 이것이 바로 '신메움'이나 '공시풀이'와 같은 절차 속에서 나타난다.

세 가지 조상은 서로 무관한 듯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세 범주의 조상은 굿이라는 의례에서 복합적으로 만날 수 있다. 간단한 의례에서는 개별화되지만 일정한 규모의 굿에서 세 가지 조상은 서로 깊이 얽혀 있으며, 서로 차별화되거나 복합화되면서 일정한 신앙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제주도의 조상신앙이다. 조상신본풀이의 광청아기 역시 이러한 전통 속에서 우러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사례** 광청아기의 지역적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이에 근접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조상신앙 가운데 하나인 말명신앙이다. 조상으로 섬겨지던 존재 가운데 굿을 매개로 일련의 원한을 품은 존재가 바로 말명이다. 말명의 신앙적 실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서울무속이나 황해도 무속으로, 여기서는 각양각색의 신들이 대상적으로 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처럼 일반인들이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에서는 특정한 노릇을 하던 굿판의 무당이나 굿판 주변에서 종사하던 인물이 말명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

서울굿에서 말명이 섬겨지는 과정을 보면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에서 섬기는 절차와 매우 흡사하다. 본향바래기, 가망헤치기, 말명놀리기, 대신말명놀리기, 조상놀리기 등의 절차를 보면 이러한 체계가 의미하는 바가 다소 선명해진다. 본향은 인간의 뿌리가 있는 곳이다. 굿하는 장소는 그와 멀리 있거나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면서 신을 청하게 된다. 가망헤치기는 이 본향의 원래 조상과 만나는 초청 과정이다. 말명놀리기는 조상의 윗대 가운데 먼저 존재한 이들을 말한다. 대신말명은 매개 작용을 하는 무당 집단을 말한다. 다음으로 선대의 조상을 말한다. 아득한 조상에서 말명으로, 다시 조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이들 가운데 말명은 하나의 섬김 대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명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광청아기와 같은 제주도의 사례가 원형적이고 고형적으로 남아 있는 사례이다.

**의의** 〈광청아기본풀이〉는 제주도의 남성과 육지의 여성이 기본적인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은 제주도 마을신의 내력을 말하는 당신본풀이의 그것과 같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제주도의 남성이 육지로 가서 그곳의 여성과 만나는 이야기가 근간을 이루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의 근본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본풀이는 그러한 만남을 전제로 하여 둘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청아기본풀이〉는 사실을 넘어서 신앙적 차원의 시원성(始原性)을 보여준다. 이 본풀이를 통해 우리의 조상신앙이 원형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 수 있다. 조상신앙의 독자적 면모를 보기 위해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례와 무관하지 않다. 조상신앙과 무속신앙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도 이 본풀이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

〈광청아기본풀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내력이 아주 오래 된 이야기이다.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동아시아의 광포성을 지니고 역사적인 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조상신본풀이가 오래되었음을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조상신본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록 단일한 본풀이의 사례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이 본풀이의 구조, 분포, 역사 등을 미루어보면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는 분명히 의의가 있는 자료이다. 구비전승의 자료가 문헌전승의 전통과 이어지는 사례에 주목하면서 자료를 연결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만 이 본풀이는 그 의미와 의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茶香室叢鈔 卷13(俞樾), 宋高僧傳(贊寧), 義湘與善妙(閔泳珪, 四川講壇, 우반, 1994), **庄王女**(이두현, 한국민속학논고, 학연사, 1984),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보고사, 2006).

**필자** 김헌선(金憲宣)

## 구슬할망

**정의** 다산과 생산의 주역이 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조상신 가운데 하나. 외지에서 들어와 성공한 육지 여성이 조상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조상신은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역사**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 〈구슬할망본풀이〉는 나주 김씨 집안의 외편(外便)으로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이다. 본풀이의 주인공 김동지와 구슬할망이 혈연적인 조상이면서 무속의례의 대상이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곡장사를 간 제주도 남성과 육지부 여성의 결연은 조상신본풀이의 남녀 결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화소이다. 결연 이후 여성이 제주도에 어떤 형태로 오느냐에 따라 조상신본풀이 성격에 차이가 난다. 〈구슬할망본풀이〉에서는 육지부의 여성이 온전하게 제주도에 정착하여 집안을 일으켜 의례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김동지와 구슬할망은 혈연적인 조상이면서도 무속의례의 대상이 되고, 유교적인 의례와 무속의례에서 모두 모셔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는 주로 군웅맘판이라는 특정한 맞이의 제차에서 구현되는 특징이 있다. 이 본풀이를 구연하는 의례적 속성에 역사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군웅맘판〉에서 맞이의 원래신격, 군농일월, 조상일월, 석살림, 서우젯소리 등을 하게 된다. 이 체계적인 유대 속에서 일련의 본풀이적 연계성을 맺게 된다. 이는 육지와 섬 간의 연락과 소통이 이 본풀이의 체계 속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의가 바로 제주도의 역사적 성격을 명료하게 한다. 〈구슬할망본풀이〉의 핵심은 남성이 여성을 품에 숨겨서 데리고 온 것이다. 이것은 〈거타지설화(居陀知說話)〉, 〈작제건설화(作帝建說話)〉, 〈군웅본풀이〉 등에서 거듭 보이는 특성이다.

이들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의 역사를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작제건설화〉이다. 이 신화적 골격을 거듭 반복하여 현현하고 있는 것이 〈군농일월〉과 〈조상신본〉이기 때문이다. 이 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구슬할망본풀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는 일련의 서사적 골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제건설화〉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 당(唐) 숙종황제가 황자(皇子)로 있을 때 산천을 편유(遍遊)하다가 드디어 송악군(松嶽郡)에 이르러 곡령(鵠嶺)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땅은 반드시 도읍

이 되리라."라고 하니 종자가 아뢰되 "이곳은 팔진선(八眞仙)이 사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아갑 양자동에 이르러 보육의 집에 기숙할 제 두 딸을 보고 기뻐하며 옷 터진 곳을 꿰매 주기를 청하였다. 보육은 곧 장녀로 하여금 명에 응하게 하였더니 문턱을 넘다가 코에 피가 흘러 나오므로 진의를 대신으로 하여 드디어 천침(薦枕)하게 되었다. 그 달 동안 머무르다가 임신하였음을 깨닫고 작별할 때 활과 화살을 주며 아들을 낳거든 이것을 주라고 하였다. 과연 아들을 낳으니 작제건(作帝建)이라 하였다. 작제건이 어려서 총명하여 지혜롭고 용맹이 있었다. 성장함에 이르러 재주는 육예를 겸하였으며 서(書)와 사(射)에 더욱 절묘하였다. 나이 16세가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 준 궁시(弓矢)를 주었다. 작제건이 크게 기뻐하여 이를 쏘니 백발백중인지라 세상 사람들이 신궁(神弓)이라 일렀다. 이에 아버지를 찾아 뵈옵고자 상선을 타고 항행하다가 구름과 안개가 끼어 배가 3일 동안을 나아가지 못하였다. 배 안의 사람이 점을 쳐 보고 말하기를 "마땅히 고려 사람을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지라 작제건이 궁시를 잡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바윗돌이 있어 그 위에 섰더니 안개가 개고 순풍이 불어 배는 나는 듯이 가버렸다.

이윽고 한 늙은이가 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서해용왕인데 늙은 여우가 치성광여래상(熾盛光如來像)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패라(貝螺, 조개와 소라)를 불고 북을 치며 풍악을 잡히고 와서 이 바위에 앉아 옹종경(臃腫經)을 읽으면 나의 머리가 심히 아파집니다. 듣자하니 낭군은 활을 잘 쏜다니 원컨대 나의 재해를 물리쳐 주오." 하는지라 작제건이 이를 허락하였다.

때가 됨에 공중에서 풍악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쪽으로부터 오는 자가 있기에 작제건이 화살을 겨누어 쏘니 활시위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것은 과연 늙은 여우였다. 늙은이가 크게 기뻐하여 궁으로 맞아들이고 맏딸 저민의(翥旻義)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작제건이 칠선을 타고 칠보와 돈을 싣고 바다를 건너 순식간에 언덕에 이르니 곧 창릉굴 앞 강변이었다. 백주의 정조 류상희 등이 그를 위하여 영안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 영안성을 왕래하면서 산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용녀가 일찍이 송악의 새집 침실의 창 밖에다 우물을 파고 우물 속으로 해서 서해용궁에 오갔는데 평소에 작제건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내가 용궁에 돌아갈 때는 삼가 엿보지를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여 왔다. 작제건이 몰래 이를 엿보다 용녀가 돌아와 노하여 말하기를 "부부의 도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귀한 것이어늘 이제 이미 약속을 어겼으니 나는 이곳에 살 수 없나이다." 하고 드디어 소녀와 함께 다시 용이 되어 우물에 들어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제건은 만년에는 속리산 장갑사(長岬寺)에 살면서 항상 석전(釋典, 불교경전)을 읽다가 죽었다.

제주도의 역사를 규정하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 나름의 신앙사가 규명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제주도의 역사가 육지부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며 역사적 국면으로 기록되는 것은 제주도를 다루는 탐라총관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생적인 신앙의 역사가 육지의 역사와 만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제주도와 육지의 관련은 중요한 격변이었다.

제주도의 신앙사에서 제주도와 육지의 만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조상신본풀이이다. 굿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의례를 통해 이 역사를 어떤 곳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의 위치가 바로 제주도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이례적인 대목이다.

맞이의 〈군웅맘판〉이라는 굿 절차에서 본풀이, 그 가운데서도 조상신본풀이가 자리매김 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군웅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석살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신앙사에서 각별한 장치이다.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신화인 〈군웅본풀이〉가 『고려사세계(高麗史世系)』에 등장하는 〈작제건설화〉의 반복이고, 이러한 해양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신화는 제주도의 신앙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구전과 문헌의 전승이 서로 별개의 것임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는 이러한 전통의 개작이나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 〈구슬할망본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촌 큰물머리에 살던 김동지 영감은 본래 김씨 사공이라고 불렸다. 김씨 사공은 버섯, 우무, 청각, 미역, 오징어 등 제주의 특산물을 진상하러 서울로 갔다. 김씨 사공이 진상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서대문 밖에 이르렀다. 밤인데다 인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
> 김사공이 소리 나는 곳에 가 보니 어떤 처녀 아기씨가 울고 있었다. 아기씨가 자신은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인데 부모에게 버려져서 갈 곳이 없는 처지임을 말하고 김사공에게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을 간청했다.
>
> 김사공이 베도포 자락에 아기씨를 감춰 제주도로 들어와서는 아기씨를 상다락에 두고 기른다. 아기씨가 열여덟 살이 되니 갑갑증이 나서 남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에 대해 물었다. 김사공이 머슴이 소 몰고 쟁기를 지고 밭농사 하는 것이라고 답해주었다. 이번에는 북창문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물으니 김사공이 해녀의 숨비질(해녀가 물속으로 잠수하는 행위 또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급히 숨을 내쉬는 일) 소리라고 알려줬다. 아기씨가 김사공에게 망사리(해녀기구), 테왁(바가지), 비창(전복 · 소라 등을 떼어 일구는 도구), 물적삼, 물속곳을 마련해 주면 자신도 해녀 노릇을 해보겠다고 한다. 김사공이 물질할 기구를 마련해 주니 아기씨가 해녀 노릇을 하는데 상해녀가 되었다. 아기씨가 대전복도 일천 근, 소전복도 일천 근을 얻고 대전복 속에서는 은진주, 금진주가 나왔다.
>
> 허정승 따님아기가 김사공에게 백년가약 맺기를 청하고 두 사람이 백년 의례를 맺는다. 허정승 따님아기가 김사공에게 임금에게 진주 진상할 것을 청하여서 김사공이 서울로 진상간다. 김사공은 임금에게 진주 진상을 한 덕분에 동지 벼슬을 받았다. 상시관에서는 허정승 따님아기에게 구슬 단 저고리, 구슬 단 치마, 붉은 구슬, 노랑 구슬, 흰 구슬, 파란 구슬, 칠색 구슬을 내놓고 참실로 구슬을 꿰어 은비녀, 금비녀, 금반지, 은반지, 놋반지, 귀이개를 내렸다.
>
> 김동지와 허정승 따님아기가 딸 아홉을 두었는데 허정승 따님아기는 구슬할망이 되었다. 구슬할망은 딸 아홉 형제로 줄을 뻗어 삼명일, 기일제사 때 고방상, 큰굿에는 열두 석, 작은굿에는 여섯 석, 앉은 제는 세 석, 해 넘어 철갈이에는 풍악으로 진상을 받는다. 딸 아홉 형제를 아홉 마을에 혼인시켜 외손 줄이 뻗어서 동좌면을 차지하던 조상이다.

〈구슬할망본풀이〉의 주인공인 김사공이 도포 자락에 여성을 숨겨서 데려온다는 것은 육지와 제주도의 설정을 넘어서기 위한 장치이다. 대상을 은밀하게 감추어 오는 전통적인 화소는 〈거타지설화〉나 〈작제건설화〉에서 나타난다. 여성 주인공을 감추고 와야 이질적인 저항감을 다른 인물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 김사공이 여성 주인공을 데려다가 관원의 처벌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둔 것은 당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숨어 있는 여성 주인공이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있지만 제주도의 여성들이 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는 것은 독특한 설정이다. 시각적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청각적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례적인 일을 이루게 된다. 여성이 다락에 숨어서 여러 가지 제주도적인 상황에 눈을 뜬다. 밧 볼리는 것(밭 밟는 것)과 숨비소리를 듣는 것은 장차 그러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정을 예고한다.

신화나 설화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모티브보다 사실적 측면에 치우쳐서 김사공과 허정승 따님아기가 결연하는 것도 〈구슬할망본풀이〉의 특징이다. 동일한 설정 속에서도 비극적인 결말보다 남녀의 혼인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결말에 의한 자손의 번창과 집안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광청아기본풀이〉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요소이다. 〈구슬할망본풀이〉는 육지 여성의 제주도 입도 성공담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본풀이는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구슬할망본풀이〉에서 밤에 울고 있는 처녀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신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맞이 과정에서 앞머리에 등장하는 일은 신의 소명에 있다. 신의 소리를 듣고서 사람이 감응하는 것은 고대신화나 맞이 의례에서 흔하게 등장한다. 버림받은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맞이할 노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맞이 노래가 나와 있지 않다. 신맞이 노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맞이 노래가 없다. 〈광청아기본풀이〉에서는 신맞이 노래로 '살강깃소리'와 '진바당진소리'가 있다. 바다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넋을 건지는 데 이 소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버림받은 존재의 발견에 이어서 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행위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신맞이는 특정한 존재를 감추어서 자신의 신체로 맞이하는 것이다. 김사공이 허정승 따님아기를 도포에 감추어서 오는 것도 맞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육지부와 제주도 간의 격

차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단순화할 일은 아니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해서 신을 모셔오는 맞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모셔가는 전례를 생각하면 이러한 맞이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허정승 따님아기가 다락에 모셔진 것도 맞이굿의 색다른 절차이다. 다락에 모셔진 제석 항아리나 제석바가지의 전통을 생각하면 이러한 좌정 경위가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니다. 가신신앙의 전통에 입각해서 보면 좌정한 신을 한 곳에 모셔놓고 그 신을 모시는 절차가 긴요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감실에 신체를 두는 전통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허정승 따님아기를 일깨우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밧 볼리는 소리'와 '숨비질 소리'이다. 신맞이 과정에서 신맞이 노래 없이 자신의 정체만을 드러내 놓는 과정과 이것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대응되도록 했다. 허정승 따님아기는 두 차례에 걸친 출현과 좌정의 대응 양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원한을 품고 죽은 존재를 일깨우는 소리와 다른 행복한 맞이 노래이다.

게다가 허정승 따님아기와 김동지의 결연 과정도 신들의 혼인이라는 전통 속에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허정승 따님아기가 집안에 커다란 생명력을 거듭 제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조개 안에 갇힌 진주를 캐는 것과 집안에 아홉 딸을 둔 것은 신맞이의 결과에서 생산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개 안의 진주라는 설정은 다산성과 풍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을 발견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켜서 좌정하게 하고 그 신을 새롭게 초청해서 후손이 이어졌다는 설정은 신맞이의 전형적 형식으로 이해된다. 맞이굿의 전통과 견주어 〈구슬할망본풀이〉는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고대신화와 궤를 함께 한다. 맞이굿과 같은 형식은 신화적 특성을 해명할 수 있는 요긴한 사례이다. 이러한 전통이 재발견되어 조상신본풀이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증명하고 있다.

**특징** 이 본풀이는 제주도의 남성과 육지의 여성이 화합하면서 제주도의 삶을 육지의 삶과 연계하는 역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육지와 섬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던 고려시대에 제주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는 본풀이로 평가된다.

외지의 여성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많은 자손과 부를 구현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구슬할망이 조상으로 섬겨지게 된 것은 일을 잘하고 많은 자손을 널리 퍼뜨린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을 일구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존재가 조상으로 섬겨지면서 많은 기림을 받는 것이다.

구슬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다. 물질을 잘해서 그것으로부터 나온 보석으로 삶을 가멸게 하였다는 뜻을 지닌다. 구슬은 생명을 번식하는 수단이 되고 다산성을 상징한다. 신화학적 의미로 볼 때 구슬은 이런 상징성을 지니며, 대상을 풍요롭게 하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이 점에서 구슬은 제주도의 특별한 조상에 관한 내력이 된다.

**지역사례** 외지에서 들어온 특정한 신이 가신(家神)으로 섬겨지면서 재(財)와 부(富)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러한 신들을 육지에서는 흔히 업대감이나 도깨비대감으로 부른다. 업이나 도깨비는 재와 부를 약속하는 신격이다. 사람이 일구는 재산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것을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이나 도깨비의 장난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조상신이 특정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이 신들이 생명과 재물과 부를 동시에 주어 번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업이나 도깨비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 점에서 이 본풀이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의의** 〈구슬할망본풀이〉는 제주도의 남성과 육지의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러한 설정은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제주도의 마을신 내력을 말하는 당신본풀이의 그것과도 상통한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제주도의 남성이 육지로 가서 여성과 만나는 이야기가 근간을 이룬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의 근본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을 전제로 하여 둘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된 〈구슬할망본풀이〉는 육지 여성이 제주도 적응에 성공하는 행복한 결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구슬할망본풀이〉는 조상신앙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사례이다. 이는 사실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차원의 시원성(始原性)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본풀이는 우리의 조상신앙이 원형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사례이다. 조상신앙의 독자적 면모를 보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를 알아야 한다. 조상신앙과 무속신앙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이 본풀이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

〈구슬할망본풀이〉는 역사적으로 내력이 아주 오래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군웅맘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제주도가 우리 역사에 편입된 흔적을 이 자료로 방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사세계』의 작제건 이야기이다.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두 이야기가 특정한 맞이의 의례 속에서 거듭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면서 과거 역사의 반복을 현시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遺事,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보고사, 2006).

**필자** 김헌선(金憲宣)

## 구일차례

표제어 중구차례(626쪽)

## 군웅(軍雄)

상호참조 소삼신(327쪽)

**정의** 집안의 외양간에 모시는, 우마를 담당하는 신. 소삼신이라고도 한다. 주로 강원도 영동에서 모셔진다. 군웅, 쇠구영신, 산, 소귀신, 쇠군웅, 쇠머리영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내용** 강원도지역의 가정신앙에서 군웅은 소를 관장하는 신이다. 보통 외양간에 한지를 접어서 모시거나 부엌의 벽에다 삼베조각을 달아서 모신다. 군웅은 대부분 소가 있는 외양간에 모시며, 소가 탈이 나거나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 이 앞에서 빈다고 한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아기를 낳으려 할 때 삼신 앞에서 비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신은 소의 삼신일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소가 중요한 재산이고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웅을 모신다. 집 안에 고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군웅 앞에 올렸다가 먹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가 탈이 난다고 여기는 것이다.

군웅은 지역에 따라 '산'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 두 신격이 동일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대부분 지역에서 소를 위한 신으로 조사되어 동일한 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과 군웅을 함께 모시며, 그중에 군웅만 소를 위해 모시는 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쇠구영신', '소귀신', '쇠군웅', '쇠머리영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이 지역 군웅을 소의 삼신으로 보는 경우가 흔하다.

군웅의 신체는 마구간 옆이나 가옥의 정면 벽에다 대못을 박고 한지를 접어서 꽂아 모신다. 그리고 집 안에 육고기나 특별한 음식, 색다른 천이 들어오면 조금 떼어내 그곳에다 걸어둔다. 삼베를 짜면 수지천을 조금 베어서 걸어놓기도 한다. 신체는 봄에 산멕이 하러 갈 때 가져가서 산에다 모셔놓고 집 안에는 새로 접어서 모신다.

평소에 소가 병이 나거나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그 앞에다 물을 떠 놓고 빌었다. 안택을 지낼 때는 메만 따로 뜨고 제물은 성주상 그대로 쓰기도 한다. 소지는 대주 소지와 소 소지를 올린다. 강원도지역의 군웅축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남산부주 대한민국 강원도자는 이십육관
> 시는 잡았다 삼척시에 면은 잡아서 근덕면에
> 동네는 다리실에 여기는 불기산이 올시다
> 오늘 산멕이 정성 들일 적에
> 이 명당안 군웅님네를 모시자……
> 우마육축 불과주시던 군웅아 장사를 모시자
> 구이머리에 터를 닦고 산탈에 짓을 닦고
> 산세머리에 돗을 달고 우각뿔이야 자각뿔이야
> 굵은 돌은 넘겨딛고 잔돌은 쓸어내고
> 자취마다 도와주시던 군웅아 장사……

이처럼 우마가 병이 났을 때는 복자(卜者)가 군웅 앞에서 북을 치며 산령경을 읽는 의례를 행하는 지역

도 있어 군웅과 '산'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집안의 가신으로 모시는 '산'은 산멕이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집 안에서는 '산'과 '군웅'의 기능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산멕이에서는 산신과 군웅이 절차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기도 한다. 즉 먼저 산신에게 빌고 조상축원을 한 다음 소를 위해 군웅에게 빈다. 가정신앙에서의 군웅축원은 보통 산신경 또는 산령경을 많이 읽는다. 여기서는 동해안별신굿의 군웅사설과 흡사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군웅은 소의 삼신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조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리 민속에서 꿈에 소가 보이면 조상이 보였다고 한다. 즉 호랑이는 산신, 말은 서낭으로 각각 상징되듯이 소는 조상으로 상징된다. 제주도지역에서 군웅은 씨조신(氏祖神)이라고 한다. 이는 조상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문중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강원도 삼척지역의 산멕이와도 연관된다.

군웅이 조상이나 특정 성씨와 관련 있다고 믿는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원도 강릉시 부연동의 백씨 집안에서 모시는 군웅은 성씨와 관련하여 백마군웅이라고 한다. 서울굿과 경기도굿의 무가에는 홍씨군웅, 이씨군웅이라는 사설이 나온다. 이 사설에서는 대감거리에서 벼슬한 조상을 군웅대감, 군웅청배를 조상청배라고도 하여 군웅의 신격이 조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군웅은 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신(家神)이면서 조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집안에서 모시는 군웅이 시집가는 딸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사례에서는 군웅의 신격이 집 안에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도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사례** 함경도지역에서는 군웅신을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환란이 생기기 때문에 성주신보다 더 위한다고 한다. 이 지방에서는 마부신(馬夫神) 또는 군웅이라고 부르면서 일 년에 한 번 날을 받아 안택을 지낼 때 소가 있는 외양간에서도 제를 지낸다.

경기도 안성지역에서는 마구간에서 말을 지켜주는 신을 '우마살대장군', 경남 밀양지역에서는 '마대장군'이라고 한다. 경기도 포천지역에서는 시월상달에 고사를 지낼 때 외양간에 시루떡과 함께 북어 한 마리를 차려놓고 소의 건강을 기원한다. 경기도 양주와 강

**군웅**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2011.7.16 김도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코리아루트

원도 삼척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돌을 외양간 도리에 걸어 놓고 '소삼신'으로 섬긴다. 강원도 정선지역에서는 소의 해산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삼신을 섬긴다. 정선과 고성지역에서는 소삼신을 '구능장군'이라고 부르며, 고성에서는 외양간 도리에 잡아맨 백지를 신체로 받든다.

강원도의 지역사례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에서는 쇠군웅신을 모신다. 소의 머리맡에 '천자대국님'이라고 쓴 한지를 걸어서 신체로 삼는다. 소가 아플 때나 정초에 안택을 지낼 때 이곳에 와서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천자대국님'을 청하고 빈다. 회룡리에서는 군웅을 모신다. 소가 있는 머리 쪽에 한지 한 장과 명태 한 마리를 실로 매서 걸어 둔다. 소가 병이 나서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군웅이 탈이 났다고 하여 메 한 그릇, 나물 한 접시를 차려놓고 "군웅님, 미련한 인간이 몰랐으니 달게 받아 잡숫고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에서는 소를 새로 들여왔을 때 간단하게 빌고, 소가 병이 나면 정화수를 떠놓고 낫게 해달라고 빈다. 현북면 장리에서는 헝겊을 마구간에 모신다. 남의 집에서 좋은 음식이나 육고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쇠군웅님께 보이기 위해 구유 앞에 올려놓았다가 먹는다.

태백시 동점동의 군웅을 모시는 집에서는 부엌에 베 조각과 명태 한 마리를 실에 묶어 매달아놓는다. 특히 산멕이를 하는 집에서 주로 군웅을 모신다. '군웅장군'이라고도 부르는 군웅은 소를 관장하는 신이다. 소도 사람과 같아서 탈이 잘 난다. 이는 소가 죽어서 된 귀신이 해코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집 안에서 키우는 소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군웅을 모시는 것이다.

강원도지역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주거 구조가 특이하다. 외양간이 집 내부로 들어와서 부엌과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군웅을 부엌에다 모시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여물통 머리에 삼베 조각을 매달아 군웅으로 모시며, 안택을 할 때마다 베 조각을 새로 교체한다. 또 군웅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 안에 고기가 들어오면 먼저 그 앞에 놓고 빌고 나서 먹는다.

고성군 거진읍 오정리에서는 소귀신을 모신다. 그러나 모든 집에서 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소귀신이 있다고 하는 집에서만 모신다. 소귀신은 한지를 접어서 실에 매달아 외양간의 구유 위쪽에 걸어둔다. 소귀신은 특별히 날을 정해 위하지는 않지만 텃고사를 지낼 때는 문어 한 마리를 바친다. 소귀신은 소가 잘되게 하려면 송아지가 빨리 자라게 한다. 그러나 사람의 대접이 소홀하면 소를 안 되게 하려고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한다고 믿는다.

토성면 아야진리에서는 '쇠구신'이라 하여 외양간에 걸어둔다. 이는 '쇠군웅'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쇠구신이 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이 때문에 쇠구신을 모시는 집에서 시집간 딸은 시집에 가서도 굿을 하여 쇠구신을 잘 모셔야 한다. 시집을 간 뒤에 잘 모시지 않으면 시집 식구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쇠구신을 모시는 집의 딸은 며느리로 삼기를 꺼린다.

인제지역에서는 외양간 기둥에다 천을 가져다 걸어놓는 것으로 모신다. 천이 신체는 아니다. '쇠머리영산'에게 올리는 제물이라고 한다.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에서는 정월 초하룻날 안택을 한다. 먼저 성주와 조왕에 지낸 뒤 마구간에 왼새끼를 꼬아서 모셔놓은 수리산군웅장군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지낸다. 이때는 가족들 소지와 함께 소 소지도 올려준다. 소를 잘 지켜 달라고 군웅에게 빌고, 산멕이에서도 수리산군웅장군님에게 소 잘되고 농사 잘되게 해 달라고 빈다.

영등날인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떡을 해서 군웅에게 비손을 하는 지역도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정신앙과 독경의례**(김진순,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최인학 외, 민속원, 1998), **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문화재관리국, 1987), **삼척민속지 1~7**(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8),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강원도 속초 · 양양교육청 관광교육자료실**(tour.kwsyed.go.kr.).

**필자** **김진순(金鎭順)**



## 굴대장군

표제어 굴뚝신(63쪽)

## 굴뚝신

**정의** 굴뚝을 관장하는 신. 굴대장군, 굴뚝장군, 구대장군님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굴뚝에는 굴대장군이 있다. 연기를 타고 열흘에 한 번 하늘로 올라가 그 집안이 잘못한 것을 하늘에 고한다. 집안 고사 때 굴뚝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집안의 무사 안녕을 빈다.

**지역사례** 굴뚝신은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다. 사람들은 이 신이 굴뚝을 지켜준다고 믿어 안택고사 때 굴뚝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집안의 무사 안녕을 빈다. 굴대장군이 연기를 타고 열흘에 한 번 하늘에 올라가

기 때문에 보통 그날은 손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굴대장군이 있는 굴뚝은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경기도지역에서는 민간 도교신앙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신은 연기를 타고 열흘에 한 번 하늘에 올라가서 그 집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 고한다고 믿는다. 몸속에 살면서 60일마다 하늘에 올라가 상제에게 죄를 보고하여 사람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도교의 삼시충(三尸蟲) 개념과 흡사하다.

충남 청양군 이순례 만신은 굴뚝장군이 집 뒤의 굴뚝에 있는 신령으로서 화재수액(火災水厄)을 관장하는 신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서는 굴뚝을 관장하는 신을 굴뚝장군이라고 부른다. 굴뚝을 잘못 고치면 탈이 날 수 있다. 그런 경우 곧장 굴뚝장군에게 빌어야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동짓날에는 굴뚝 앞에도 팥죽을 뿌려서 액을 막는다.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오색1리)에서는 굴대장군을 모신다. 굴뚝을 새로 쌓으면 '굴대장군이 탈난다.' 라고 하여 바가지에 음식을 해서 갖다 놓는다. 또 특별한 음식을 하면 바가지에 담아 잠시 놓았다가 먹는다.

영월군 남면 북쌍1리 아랫들골마을에서도 굴뚝에는 굴대장군이 있다고 믿는다. 아궁이에 불을 때어 난방하던 시절에는 고래를 놓고 개자리를 깊이 파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잘못하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막히기도 하는 등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했다. 주민인 안씨는 굴대장군을 따로 위하지는 않지만 굴대장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난방이 잘되어 결국 가족이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철원군의 이씨 만신은 굴뚝장군은 굴뚝을 관장하는 신이라며 과거에 무당이 굿을 할 때 잠시 놀아주었다고 한다.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서도 굴뚝에 굴뚝장군이 있다고 한다. 굴뚝을 고치기 위해 건드렸다가 동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굴뚝장군을 잘못 건드려서 그렇다고 한다. 따라서 굴뚝을 고치기 위해서는 날을 보아 운이 맞아야 한다. 혹시 잘못 건드려 탈이 난 경우에는 복자(卜者)를 불러 굴뚝에 막걸리를 붓고 빌어야 한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2리 약산마을에서는 굴뚝에 굴대장군이 있다고 하여 고사를 지낼 때면 떡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굴뚝 밑에 두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섬말마을에서도 굴뚝에 굴대장군이 있다고 한다. 주민 유씨에 따르면 굴대장군은 연기를 타고 열흘에 한 번 하늘에 올라가서 그 집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 고한다. 굴대장군 외에 조왕도 열흘에 한 번 하늘에 올라간다. 조왕은 부뚜막에서 시작하여 아궁이로 들어가 고래를 타고 굴뚝을 통해 하늘로 올라간다. 열흘날에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그날은 손이 없다고 한다. 열흘날에 올라간 조왕은 초하룻날에 다시 내려온다. 이때는 '용왕줄'을 타고 우물로 내려와서 초이튿날에 대문간, 사흗날에는 울타리로 간다. 그다음 성주로 갔다가 다시 아궁이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처럼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인간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굿을 할 때 굴대장군, 우물 용왕신을 청하여 위한다고 한다.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도 굴뚝에 좌정하고 있는 신을 굴뚝장군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가을에 고사떡을 하면 굴뚝에도 떼어 두고 위했지만 지금은 가옥구조가 바뀌어 굴뚝이 없기 때문에 위하지 않는다.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에서도 굴대장군은 굴뚝에 좌정한 신으로 모신다. 그러나 특별한 신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을에 떡을 할 때면 떡을 떼어 두는 정도로만 위했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 큰산뒤(산디)마을에서도 굴뚝에는 굴대장군이 있어서 굴뚝을 지킨다고 한다. 따로 위하지는 않는다. 고사를 지낼 때 편안하게 해달라고 비손하면서 떡을 접시에 담아 놓는다.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윗말이 친정인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학질을 앓으면 부친이 굴뚝에 가서 '구대장군님'을 찾으며 학질을 낫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 밖에 굴뚝과 관련된 신앙 사례가 있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2리 정옥출 씨의 경우 터주를 굴뚝에다 모시면서 지붕 위 굴뚝 밑에 마구설기를 놓아둔다. 터주는 신체가 없이 제물로 떡만 올린다. 떡은 마구설기를 한다. 마구설기는 떡가루와 콩을 섞어 찐 팥을 넣어 만든다. 터주는 가정신 중 성주와 삼신에 이은 세 번째 신이기 때문에 시월상달에 성주와 삼신을 모시고 나서 떡을 놓아둔다.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지마을에서는 집의 뒤란을 철륭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집의 뒤쪽에 굴뚝이 높이 솟아 있었다. 그곳을 철륭이라고 하기도 한다. 철륭에 별도로 제상을 차리거나 비손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영광군 군남면 백양리의 종교 직능자 문암댁에 따르면 굴뚝에도 굴뚝각시가 있다고 한다. 옛 어른들의 말에 "굴뚝각시에게 물이라도 한 번 부어 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태백시지(태백시, 1998), **한국 가신의 분류**(문정옥, 한국민속학 15, 한국민속학회, 1982),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김지욱(金志昱)

## 굴레고사

표제어 자동차고사(552쪽)

## 굴부르기제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서 정월대보름날 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

**역사** 굴부르기제는 개인적으로 지내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기도 한다. 굴부르기제는 정월대보름날 밤 만조 때 부녀자들이 포구에 모여 제사상을 차려놓고 비손하던 것이었다. 독경하는 사람이 앉아서 북이나 양판을 두드리며 경을 읽으면 참석자들은 앉아서 빌었다. 굴부르기제는 2~3년 중단되기도 했다. 1983년 간척지 공사를 하기 위해 물막이 공사를 마친 뒤 간월도의 개펄이 엉망이어서 굴을 부르는 비손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손할 때 앉아서 경을 읽던 남자 어른이 죽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손 형태였던 굴부르기제는 지방문화제의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민속놀이 공연의 형태로 바뀌었다. 1987년 처음 개최된 서산문화제에는 인지면 야당리의 '볏가릿대 놀이'가 농민축제의 대표, 안면읍 황도의 '붕기풍어제'가 어민축제의 대표로 각각 참가하였다. 그러나 1989년 1월 1일자 행정 개편으로 서산군이 서산시, 태안군과 서산군으로 분리되면서 황도가 태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산군에서는 서산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굴부르기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각색하였다. 이후 1995년 1월1일 서산군이 시(市)로 통합되면서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이분화 되었다.

굴부르기제가 서산문화제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의의 명칭은 군왕(群王)이 덧붙여진 '굴부르기 군왕제'로 바뀌었다. 황도의 붕기풍어제라는 명칭에서 붕기는 본래 '벌떼처럼 일어나라'라는 뜻의 봉기(蜂起)라는 한자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본떠 '무리 군(群)'자를 붙여 많은 굴이 붙어 오라고 서산군에서 붙였다. 군왕을 용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보통 굴부르기제라고 부른다.

간월도 주민들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서산문화제에 참가하여 굴부르기제를 시연(試演)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연하고 있다. 문화제에 참가한 이후로는 문화제에 나가서 공연하는 굴부르기제와 똑같은 내용으로 정월대보름날 간월도에서 굴부르기제를 지낸다.

**내용** 간월도리 주민들은 1990년 12월에 건립된 '간월도 어리굴젓 기념탑' 앞에서 매년 정월대보름날 낮의 만조 때에 굴부르기제를 지낸다. 1995년 2월 14일 정월대보름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거행된 굴부르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후 2시 30분쯤 부녀자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어리굴젓 공장 앞에 모여 제를 지내는 기념탑 광장까지 행진한다. 주민들은 현 공장 장소가 과거에도 어리굴젓을 담던 곳이었고, 정월 초이튿날 밤 12시에 당제(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 어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굴부르기제의 제물도 당제 때 사용한 것을 그대로 쓴다고 한다. 남자의 제의(당제)와 여자의 제의(굴부르기제)를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당제에서는 고기를 제물로 쓰지 않지만 굴부르기제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지낸다.

행렬은 '굴부르기 군왕제'라고 쓰인 깃발을 든 두 남자가 앞장을 선다. 그 뒤로 제물을 실은 지게를 진 남자 한 사람과 제물을 머리에 인 부녀자 한 사람, 풍물패인 남자 세 사람이 따른다. 그리고 제관인 부녀자

**굴부르기제**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995.2.14, 유철인







두 사람을 앞세우고, 부녀자들이 굴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두 손을 사용하여 춤을 추면서 따라온다.

제(祭)는 만조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추어 기념탑 앞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제의는 밤의 만조 때 행해졌으나, 공연행사처럼 지내게 된 굴부르기제는 낮의 만조 때 진행한다. 먼저 제관이 "석화야, 석화야, 석화야." 하고 세 번 소리친 후, 축문을 읊는다. 그다음에 다시 "석화야"를 세 번 소리치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그러는 동안 제사상 앞에서 원을 그리고 앉아 있던 부녀자들은 앉은 채로 빈다.

축문을 읽는 것은 과거의 제의에서나 현재의 굴부르기제에서나 모두 중요하다. "올해에도 정산물, 바디기, 몽대, 굼섬, 드르니, 저드래, 한바위, 수애, 어설, 남댕이, 도툼마루 밖에 있는 석화까지 모두 간월도로 모이게 하여 대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원한다. 간월도 주변에 있는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안가 마을과 섬들을 열거하면서 간월도 쪽으로만 굴이 모이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다.

굴을 부른 다음에는 굴을 딸 때 사용하는 바람막이 거적을 쓴 몇 명의 부녀자들이 제장 가운데에서 굴 따는 작업을 춤 동작으로 보이면서 굴 따는 노래를 부른다. 이들이 굴을 까는 작업을 시작하면 원을 그리고 있던 다른 부녀자들도 이고 온 바구니 안에서 굴을 꺼내까기 시작한다. 부녀자들이 관중에게 생굴을 나누어 주는 동안 본부석에 앉아 있는 유지들이 제사상 앞에 부조금을 놓고 절을 하는 것으로 굴부르기제는 오후 3시 30분쯤 끝난다.

부녀자들의 행진부터 시작하여 1시간여 만에 굴부르기제가 끝나면 부녀자들은 춤을 추면서 논다.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굴부르기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동안 지성도 들이고 놀기도 한 행사였다. 굴부르기제가 여성들에게 하나의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굴부르기제는 이제 관광명물로 자리잡았다. 방송기자와 사진작가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굴부르기제는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민속으로 관광객에게 다가오고, 간월도 주민들에게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을 남자들은 풍물을 치거나 깃발을 들거나 제물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주로 관객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굴부르기제는 과거 비손 형태로 고사를 지낸 것처럼 부녀자가 중심이다. 제관도 부녀자 두 명이 맡는다. 그러나 굴양식장의 관리나 어리굴젓의 생산을 어촌계가 주도하게 됨에 따라 굴부르기제 행사에 남자인 어촌계장이 관여하게 되었다. 마을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굴부르기제 보존회의 회장도 남자인 이장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굴부르기제는 부녀회가 행사를 주도하더라도 부녀회, 어촌계, 굴부르기제 보존회 등 마을 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내는 셈이다.

**지역사례** 굴부르기제와 유사한 제의로는 조개를 부르는 제의와 '짬고사'가 있다. 조개를 부르는 제의는 안면도의 서남쪽인 충남 태안군 고남면 서쪽 일부에서 조개를 많이 채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제의로 마을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짬고사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2리에서 미역이 많이 생산되게 해 달라고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지내던 제의이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3구인 양지뜸마을의 '조개부르는제'는 조개 채취를 담당하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치러진다. 장산포 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낮에 물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인 오후 1시쯤 조개를 부른다. 매년 대보름이 되면 부녀회에서는 시장에 나가 돼지머리, 포, 삼색실과, 술을 사고 방앗간에서 떡을 찐다. 밥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제물은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장만한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쌀이나 보리쌀을 거두어 경비로 썼지만 2001년부터는 마을기금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물이 준비되면 마을 여자들이 모두 장산포 해수욕장으로 나간다. 진설이 끝나면 여자들은 물가를 따라 서로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서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남성이 제관과 축을 읽는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주로 할머니가 제사를 주관한다. 제관이 잔을 올려 절하고 축을 읽은 다음 소지를 올린 뒤 물가에 늘어서 있는 부녀자들을 보고 "조개 부르라"라고 크게 소리치면 여자들이 큰소리로 "조개야" 하고 외치고 남자들은 신나게 풍물을 친다. 조개 부르는 소리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난다. 조개부르는제에서 남자들은 떡시루를 지게에 실어 날라 주거나 풍장을 치는 등 보조 역할만 한다.

고남면 고남4리 조개부리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열나흗날에 '조개부르기제'를 지낸다. 남자들이 제관 역할을 하는 고남4리의 조개부르기제는 서산의 굴부르기제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관광객도 많이 참여한다.

고남면 고남리 옷점[衣店]마을에서는 섣달그믐날 자정에 당제를 지내기 이전 썰물 때 갯벌에서 당주 일행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이 조개나 해태[김]를 부르는 '홍합제'를 지낸다. 밥 세 그릇, 삼색실과와 술을 차려 놓고 제관이 "○○○ 조개요, 조개 오너라."라고 다른 지방의 조개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이 "우~우~"하며 조개가 몰려드는 소리를 낸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관이 해태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은 해태가 몰려드는 소리를 낸다. 이곳에서 말하는 조개는 '반지락(바지락)'이지만 홍합제라고 부른다. 당제가 끊어지면서 지금은 홍합제도 지내지 않는다.

짬고사는 예전에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던 동해안 지역 마을에서 지냈다. 이곳에서는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의 자생지가 되는 수중의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을 '짬'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의 문서에 곽전(藿田)으로 표기된 미역짬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자신의 짬에서 미역이 많이 생산되게 해 달라며 할머니들은 짬고사를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지냈다.

울진군 울진읍 온양2리의 짬은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한 구역당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이 배치되었다. 짬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의논해 정월 열나흗날 밤 11시나 12시에 자기 구역 바위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밥을 올린 다음 "미역이 많이 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짬고사를 지낸다. 술을 붓고 난 뒤 제물은 물에다 던지고 내려온다. 그러나 자연산 미역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지금은 짬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의의** 간월도 주민들은 비손 형태로 한 과거의 고사에 비해 현재의 굴부르기제를 선호하고 있다. 과거의 비손은 용왕님께 비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잘 다듬어졌고, 체계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비손 형태로 고사를 지낼 때에는 부녀자들만 참석해서 빌었지만 지금은 어리굴젓이 간월도의 주 소득원으로 남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제를 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굴부르기제가 행사용으로 각색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타의적인 참여로 행해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굴부르기제는 간월도에서 나는 굴이 여전히 진짜 간월도 굴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간척

조개부르기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마을, 2006.2.12, 박종익



1. 조개몰기



2. 조개몰기



3. 풍어제 지내기



4. 풍어제 제물



5. 헌식



사업으로 굴밭의 면적도 줄어들었고, 자연산인 토굴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양식한 석화굴이 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굴부르기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굴부르기제와 검은여제**(유철인, 인류학과 지방의 역사, 아카넷, 2004),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한국세시풍속 2**(김명자, 민속원, 2007).

**필자** **유철인(庾喆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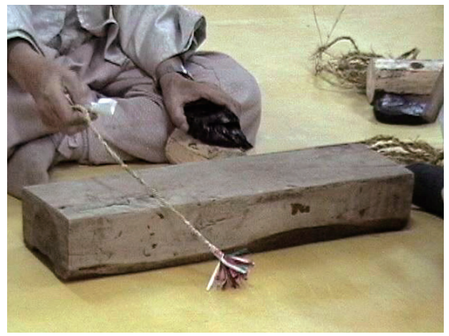
## 귀신가두기

**정의** 병자에게 침입한 악귀를 잡아 가둠으로써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집안에서 행하는 앉은굿의 일종. '귀신잡이', '송경', '독경' 등으로 불린다. 이 굿은 경쟁이가 경을 읽어 신장대잡이에게 신을 내리게 하여 악귀를 잡아오면, 삿대잡이가 그 악귀를 귀신통에 가둠으로써 끝난다. 경쟁이는 '경자', '경객', '경바치', '송경자', '점쟁이', '복술', '복재', '판수', '술객', '맹인', '판수'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주로 남자였고 장님도 있었다. 신장대잡이나 삿대잡이도 대부분 남자였다.

**역사**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잡아 가두어 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 제1 도화녀(桃花女)와 비형랑(鼻荊郎)조에는 비형(鼻荊)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불러 잡아 죽여 귀신들이 비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도망을 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권5 「신주(神呪)」 제6 밀본최사(密本摧邪)조에는 밀본(密本)이라는 법사가 경을 읽어, 귀신을 잡아 가두게 하는 신을 불러 병을 유발하게 한 귀신을 잡아 가둔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는 황철(黃轍)이라는 술사가 귀신을 잡아 상자 속에 넣었더니 귀신이 신음을 내면서 펄쩍펄쩍 뛰기에 상자를 돌에 묶어 강에 버렸더니 귀신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비형·밀본·황철 등은 신을 불러들여 귀신을 잡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귀신을 잡아 가두어 병을 치료하는 굿의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이의 시조가 소동파라는 설화가 구전되기도 한다.

> 소동파가 대국에서 벼슬을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에 도깨비들이 사는 강남 해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 사람들이 귀양을 가면 도깨비에게 맞아 죽었다. 소동파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하얀 늙은이가 책 두 권을 떨어뜨려 주었다. 그 책 이름은 〈옥추(玉樞)〉와 〈옥갑(玉甲)〉이었다. 소동파가 그 섬에 도착해 심심해서 누워 있으면 도깨비들이 와서 씨름을 하자고 했다. 소동파는 매번 씨름에 져서 도깨비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그러던 중 〈옥추〉와 〈옥갑〉을 읽었다. 그 뒤로 도깨비들이 오지 않았다. 그러는 도중에 도깨비 우두머리가 허공 중에 나타나 소동파를 부르면서 "네가 퇴(退)를 빼고 읽었으면 나까지 머리가 터져 죽었을 텐데 퇴를 달아 놓고 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다. 소동파는 〈옥초〉와 〈옥갑〉을 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그 책들을 계속 베껴 귀신을 잡는 데 활용했다. 그러므로 소동파가 제1대 경쟁이다.



**삿대와 귀신통**
강원도 횡성군
2002.2.20
박관수

**내용** 귀신가두기는 병자 집안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마을에 의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병이 나면 경쟁이에게 의지하기 십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병의 원인을 묻고 치료 방법을 구했다. 이러한 수요 때문에 과거에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가두기
강원도 횡성군, 2002.2.20, 박관수

송경을 권하는 경쟁이도 있었다. 경쟁이는 단시, 육효 등의 점을 봐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간단한 처방을 일러주거나 귀신잡이라는 앉은굿을 하기를 권한다. 병자의 집에서는 대체로 그 권유를 따른다.

경쟁이는 손 없는 날을 잡아 병자의 집에 간다. 깨끗하게 입은 평상복 차림으로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북을 들고 병자의 집에 가서 경당을 차린다. 북 이외에 가지고 다니는 무구는 없다. 경당은 주로 안방에 차린다. 상 위에는 촛불, 청수, 향불, 쌀 한 사발을 기본적으로 진설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백설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 과실을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의 품값을 올려놓기도 한다. 상 위에 올려놓은 쌀이나 돈은 경쟁이의 수고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굿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일, 21일 등 오랫동안 경을 읽기도 한다.

상을 마련한 뒤에는 창호지로 '위목'을 만든다. 창호지를 가로 15㎝, 세로 120㎝ 정도로 잘라 그 위에 천존, 장군, 신장 등의 이름을 쓴다. 그런 다음 위목을 제상 뒷벽에 옆으로 길게 건다. 천존의 위목을 가장 높게 걸고, 그 다음에 장군, 신장 등의 위목을 건다. 간혹 산령의 위목을 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천장에 오방위장군, 신장 등의 위목을 붙이기도 한다. 오랫동안 경을 읽을 경우 방 밖의 처마 밑에 위목을 둘러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신의 위목을 써 놓고 경을 읽으며 북을 두드리면서 정성을 들이면 특정 신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위목을 타고 경당에 내려온다고 한다. 대개 경쟁이들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모시지만 그들이 사는 인근 큰산의 산령을 모시기도 한다. 경을 다 읽은 다음에는 위목을 태워야함이 원칙이다. 위목들이 경당에 오는 온갖 잡귀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번 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미리 써 놓은 위목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앉은굿에서는 여러 신이 굿을 하는 사람에게 빙의하지 않고, 위목을 타고 내려와 병을 일으킨 악귀들을 제압한다. 경쟁이는 단지 정성을 드려 여러 신이 경당에 내리기만을 축원할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무녀들이 주도하는 선굿에서 여러 신들이 굿하는 사람 몸에 빙의되어 여러 행위를 하는 것과 대조된다.

위목을 쓴 다음에는 그 위에 철망을 만들어 건다. 철망은 창호지를 오려 만든다. 이는 귀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철망은 송경을 파한 뒤에 귀신통과 함께 땅에 묻는다.

송경을 하기 직전에 북을 천장에 매단다. 북의 위아래에 끈을 달아 위에 달린 끈은 천장에 고정시키고 아래에 달린 끈은 경쟁이의 오금에 건다. 그런 다음 방석 등에 걸터앉아 북을 비스듬하게 눕힐 수 있도록 좌정한다. 이때 북 위에는 엽전을 여러 개 끈에 꿰어 매달아 놓든지 숟가락을 세 개 정도 매달아 놓는다. 귀신잡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엽전이나 숟가락을 북가죽 위에 올려놓고 북을 세게 친다. 경쟁이들에 따르면 귀신들은 이 쇳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한다.

송경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축원을 한다. 축원을 한 다음 '조왕경', '천수경', '명당경', '태을경', '백살경', '철망경', '옥추' 등 다양한 경문을 송경한다. 경쟁이들은 경문에 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다고 믿고, 이러한 경문을 정성 들여 읽으면 여러 신을 경당에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경문들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의 오탈자라도 있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경문서를 소중하게 간직한다. 이 때문에 다른 경쟁이의 문서를 필사하여 자신의 문서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스승으로 모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문서들은 필사를 거치는 동안 오탈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경쟁이들 가운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송경 때 사용하는 엽전
강원도 횡성군
2002.2.20
박관수

귀신잡이를 하기 전까지 경쟁이들은 북을 가만가만히 두드리며 송경만 한다. 혼자 경을 읽을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읽고 30분 가량 쉰다. 두 사람이 교대로 경을 읽기도 한다. 보통 하루 정도 경을 읽어 '도가 찬' 다음 이튿날 귀신잡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귀신잡이는 야간에 한다. 이때 신장대잡이와 삿대잡이를 경당에 부른다. 마을 사람들도 병자 집에 모여든다. 신장대잡이는 '대잡이'라고 불린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대가 내리기 때문이다. 신장대잡이 중 귀신을 잘 잡아오는 사람을 '명대'라고 한다. 이들도 경쟁이와 마찬가지로 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삿대잡이도 마을 사람이 담당한다. 마을 사람 가운데 남자들은 굿의 여러 행위를 돕고, 여자들은 밤참 마련을 돕는다.

경당에 신이 하강하면 귀신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쟁이는 다듬잇돌 위에 신장대를 올려놓고 신을 좌정하게 한다. 신장대잡이가 다듬잇돌 위에 있는 신장대를 조용히 잡고 있으면 경당에 내린 신이 신장대잡이에게 내린다. 신은 어깨를 통해 팔에 내리고, 그런 다음 신장대로 옮겨가 대가 흔들리게 된다. 이때 경쟁이는 천존, 장군, 신장 등 순서로 여러 신의 이름을 호칭하면서 어느 신이 경당에 하강했는지를 묻는 '조목'을 한다. 특정 신이 내렸을 경우 그 신을 호명할 때 신장대가 반응한다. 그때 신장대잡이는 신장대를 다듬잇돌에 내리친다. 이렇게 경당에 내린 신을 확인한 다음에는 어느 귀신이 병자에게 침입했는지를 물어 확인한다.

경당에 내린 신과 귀신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 경쟁이는 신장대잡이에게 귀신을 잡아 오라고 명한다. 이때는 북도 빠르고 세게 친다. 명을 받은 신장대잡이는 신장대를 들고 방 안에 있는 귀신을 잡든가 방 밖으로 나가 귀신을 잡는다. 바깥으로 나갈 경우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대잡이 뒤를 따라가면서 불을 밝혀 준다. 대잡이가 귀신이 숨어 있는 바위나 나무를 때리면 퍼런 불이 번쩍 일기도 한다. 그러면 숨어 있는 귀신이 신장대에 잡힌다. 능력이 있는 대잡이는 먼 곳에 있는 귀신을 잡기 위해 '망대를 놓기'도 한다. 집안에서 망대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신장대에 실린 신이 귀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귀신을 잡아 와 신장대에 실리게 한다.

신장대잡이가 신장대로 귀신을 잡아 방 안에 들어오면 잡혀 온 귀신이 삿대잡이의 삿대에 실리게 된다. 그러면 삿대는 빳빳해져서 요동을 치게 된다. 이때 삿대를 쥐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창호지를 돌돌 말아 만든 '납합'이라는 귀신알을 쥔다. 그런 다음 기다란 삿대를 납합을 쥐고 있는 손바닥으로 감아 훑으면서 뽑으면 삿대에 실린 귀신이 납합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납합이 손바닥에서 펄쩍펄쩍 뛴다. 납합은 얼마간 뛰다가 소나무통에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단지나 병으로 된 귀신통으로 들어간다. 납합이 귀신통으로 들어갈 때 송경을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사귀야 들어가라."라는 등의 소리를 외쳐댄다.

납합이 귀신통에 들어가면 삿대잡이는 재와 진흙을 섞어 만든 '잿떡'으로 그 구멍을 막는다. 그런 다음 두 가닥으로 꼬아 만든 왼새끼로 귀신통을 돌돌 감는다. 여러 귀신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여러 귀신을 잡아 가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귀신통이 필요하다. 귀신통은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묻는다. 신장대잡이는 신장대를 들고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감시하며 따라간다. 그런 다음 마을 사람들은 밤참을 나누어 먹는다.

귀신잡이가 끝나면 경쟁이는 경당에 온 신이 그들이 거처하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경을 읽는다. 송신이 끝나면 외부의 신이나 귀신들로 인하여 난동이 된, 성조신, 조왕신, 삼신 등과 같은 집안신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택을 한다.

귀신잡이를 하는 앉은굿은 50여 년 전부터 전승이 단절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선굿에 비해 앉은굿

이 더 많이 행해졌다. 지금은 앉은굿이 거의 전승되지 않고 선굿만이 전승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경쟁이들도 앉은굿을 하지 않고 무녀들과 함께 선굿을 한다.

**참고문헌** **강원도 송경 연구**(박관수, 민속원, 2006), **경책 문화와 역사-한국의 무경**(구중회, 민속원, 2009), **맹격고**(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2, 태학사, 1981), **무경고**(이규창, 전라민속논고, 집문당, 1994), **서울지역 맹인 독경의 역사와 그 특징**(손태도, 역사민속학 2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조선무속의 연구-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충북의 무가 · 무경**(이창식 · 안상경,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연구소, 2002), **충청도 무가**(김영진, 형설출판사, 1982),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필자** **박관수(朴官洙)**

## 귀신종이

참조참조 귀신종이모시기(75쪽), 조상(591쪽)

**정의** 동해안과 경상남도 해안지역의 어촌마을에서 부계직계 혈통 조상 가운데 기제사를 모시는 조령을 봉안하기 위해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접어 만든 신체.

**역사** 귀신종이의 연원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귀신종이는 유교 사당문화의 민속적 변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적 전승양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동옥저의 조령숭배 신앙에서 연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지(三國志)』「위지 동이전」 동옥저조에 "그들의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 큰 나무로 곽(槨)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길이나 된다. (중략) 여기에 나무로 산 사람의 모양을 새겨 꽂아서 이 나무의 수효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한다.(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中略-刻木如生形 隨死者位數)"라고 하였다. 동옥저에서 죽은 자의 형상을 나무에 새겨 묘에 봉안했다는 목각인형은 죽은 이를 추념하기 위한 상징물을 넘어 조령이 현실계를 떠나서도 후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개성적 조령의 신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귀신종이는 동옥저의 목각인형 신체의 후대적 변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옛 동옥저지역인 함남 동해안지역에 전승되던 귀신동이나 귀신단지는 신체의 형태와 봉안장소가 귀신종이와 상이하지만 신체의 성격은 맥을 함께한다. 귀신동이와 귀신단지의 경우 개성적 조령의 신체로 조령을 상징하는 옷, 천, 곡물 등을 넣어 고방의 시렁 위에 봉안하고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무당을 청해 안택굿을 한다. 함남 동해안지역의 귀신동이는 유교적 제례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의 우리 고유 조령숭배 신앙의 전통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령숭배 신앙의 전통성은 현재 동해안 일대 어촌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과 울산시 울주군 해안지역의 귀신당세기 신앙이 그러하다. 귀신당세기에 모신 조령의 신체는 귀신동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한지를 접은 조령의 신체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고방이 아닌 안방에 모신다. 조령의 신체를 당세기에 넣어 모시는 현상은 경북 포항시 해안지역을 기점으로 변화되어 한지를 접어 만든 조령의 신체인 귀신종이를 당세기에 넣어 모시지 않고 시렁 위에 그냥 얹어 모시는 가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경북 경주시 해안지역에 이르러 안방의 벽면에 붙이는 형태로 다시 변모하기 시작하여 부산시 기장군 해안지역과 경남 거제·통영 해안지역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귀신동이, 귀신당세기, 귀신종이 전승경로를 감안할 때 귀신종이는 동옥저의 개성적 조령 신체인 목각인형의 후대적 계승인 귀신동이의 지역적 변형태로 이후 유교식 제례가 유입되어 민간에 널리 퍼져 모시는 과정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대수(代數)에 따라 봉안 수가 제한되고 조상의 신위가 기입되는 형태로 변모해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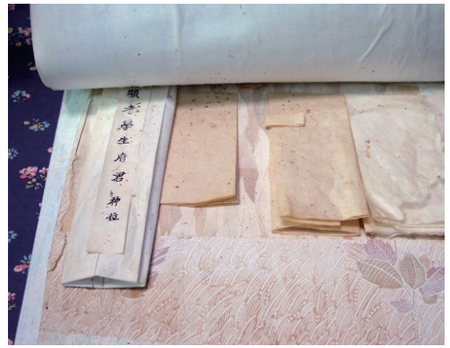
**귀신토방구리와 세존단지**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2003.2.27
황경숙

**형태** 귀신종이는 큰 한지를 자르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겹쳐 접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 가로는 좁고 세로는 긴 직사각형으로 자른 한지를 여러 겹(주로 5겹) 겹쳐 놓기도 한다. 귀신종이는 기제사를 모시는 선대 조령의 신체로 가정에 따라 고비합사(考妣合祀)하거나 고비(考妣)별로 모신다. 귀신종이를 모실 때에는 마주보아 왼쪽부터 선대 조령 순으로 모시며, 신체 크기는 모두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귀신종이를 안방 벽면에 붙여 놓는 경우 한지로 만든 띠를 귀신종이 상단부분에 붙여서 고정시키고 귀신종이가 여럿일 경우 한 띠로 고정시킨다. 가정에 따라 귀신종이 안에 조상의 신위를 써 두는 곳이 있기도 하며, 귀신종이를 붙인 벽면 위에 따로 신위를 쓴 종이를 붙여 놓는 곳도 있다. 거제 · 통영지역의 경우는 신체의 크기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고, 귀신종이 왼쪽 윗부분에 작은 띠를 붙이거나 앞면에 조상의 신위를 써 두어 모시는 조령의 신체를 세대별 · 고비별로 구별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경우 귀신종이를 봉안할 때 종이로 덮개를 만들어 귀신종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식한다.



**조상과 세존단지**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1리, 2002.8.20
황경숙

**내용** 조령을 상징하는 귀신종이는 지역에 따라 당세기에 넣어 안방의 시렁이나 선반 위에 모시기도 하고 안방의 북쪽이나 서쪽 벽면 위쪽에 붙여 모시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귀신종이를 조상당세기 · 귀신당세기 · 구신토방구리 등, 후자의 경우 조상 · 조상종이 · 거장 등으로 달리 칭하기도 한다. 귀신종이는 부산시 기장군 일대 어촌마을에서 주로 통용되는 명칭이다.



**거장**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2002.8.24, 황경숙

각 가정의 귀신종이는 조상의 사후에 만들어 봉안하며, 봉안기간은 기제사를 모시는 동안으로 제한된다. 귀신종이 신체는 그 집 대주가 직접 만든다. 봉안시기는 장례나 삼우제를 기점으로 사흘 뒤나 이후 길일을 택해 모시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첫 기제사 때 모시거나 3년 탈상 후 모시기도 한다. 귀신종이는 장손을 중심으로 계승되며,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될 경우 그 집 대주가 직접 거두어 조상의 묘에 가서 태우거나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현전하는 귀신종이는 봉안기간을 고려할 때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근자에는 조상의 영정사진이 귀신종이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일대 해안지역에서는 귀신종이를 대나무나 갈대로 만든 당세기에 넣어 안방 벽면에 부착된 시렁이나 선반 위에 얹어 봉안한다. 귀신종이를 당세기에 넣어 봉안하기에 이들 지역에서는 귀신종이로 대표되는 조령의 신체를 달리 조상고리, 토방고리, 귀신토방구리, 조상당세기, 조상토방구리, 귀신당세기, 구신당세기 등으로 칭한다. 귀신종이를 봉안한 당세기는 그 자체로 신성시된다. 귀신종이를 봉안할 당세기를 장만할 때에는 장에 가는 도중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당세기는 흠집이 없는 것으로 사되 첫눈에 든 것을 택하여 절대 흥정하거나 값을 깎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귀신종이를



귀신종이와 시줏단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002.5.25, 황경숙



귀신종이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2002.7.23, 황경숙

봉안한 당세기는 함부로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 손을 댈 수 없어 부득이 당세기에 손을 댈 일이 생기면 한 번에 낫으로 찍어서 옮기거나 뚜껑을 열어야 한다고 한다. 조상당세기를 모시는 가정 가운데에서는 흰 광목으로 조상당세기를 덮어 두기도 한다. 조상당세기를 덮어두는 흰 광목천은 매년 정초에 새것으로 갈아 놓는 것이 관례이다. 이 경우 집안에 초상이 나거나 마을에 초상이 나면 그해는 덮개를 새로 갈지 않고 해를 넘긴다 한다.

귀신종이를 당세기에 넣어 봉안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조령의 신체인 한지 외에 후손들의 무병장수와 가정의 재복을 기원하기 위해 쌀, 명주실, 삼오라기, 곡물, 면화뭉치, 문서 등을 함께 봉안하기도 한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의 경우 장기간 외출하였거나 객지로 나가있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조상신께 돈을 올린 뒤 예를 갖추고 부정을 가시도록 한다. 이렇게 놓아둔 돈은 모아두었다가 다가오는 기제사 때 제수를 장만하는데 보탠다고 한다.

귀신종이는 선대 조령을 한 당세기 안에 함께 모시는 경우와 각기 나누어 모시는 경우가 있다. 선대별로 귀신종이를 각 당세기에 넣어 모실 경우 왼쪽부터 웃어른을 차례로 모신다. 귀신종이를 당세기에 넣어 봉안하는 형태는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이르면 당세기는 사라지고 귀신종이만을 시렁에 얹어 봉안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장기면지역의 경우 귀신종이는 시렁에 얹어 봉안하기 용이하도록 당세기에 봉안할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신체의 크기가 시렁의 옆면 폭과 일치하도록 크고 두께 역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도 흔들림 없도록 두꺼운 형태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경주시를 기점으로 울산시 울주군과 부산시 기장군에 전승되고 있는 귀신종이는 여러 겹으로 접은 직사각형의 한지를 안방 벽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변모한다. 신체의 크기와 두께는 시렁에 얹어 봉안하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현상을 보인다. 제작방식도 다양하다. 가정에 따라 한지를 자르지 않고 여러 겹으로 접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미리 직사각형으로 자른 한지를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로 만들기도 한다. 귀신종이는 주로 안방 북쪽 벽면에 부착한다. 부착할 때 역시 한지를 단면으로 자르거나 접어 사용한다. 경주지역의 경우 귀신종이 중앙부에 두 줄로 한지 띠를 만들어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울산과 부산지역의 경우 상단부에 한 줄로 띠를 만들어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귀신종이가 여러 개인 때는 한지를 접어 만든 띠로 귀신종이 상단부에 가로로 붙여 한 개의 띠로 함께 고정시킨다.

거제 · 통영지역에서는 귀신종이를 달리 거장 또는 거상이라 칭한다. 귀신종이의 지역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 거장의 어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이 지역의 경우 귀신종이를 안방 벽면 윗부분에 부착하지만 여느 지역과 달리 신체의 형태가 모시는 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하여 신체별 크기가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에는 신위를 써 두기도 하고 어떤 신체에는 상단부에 직사각형의 한지로 부분 띠를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대체로 이러한 표식은 선대 조령들의 세대별 · 성별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종이 덮개를 만들어 상단부에 고정시켜 봉안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귀신종이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매년 기일과 명절에 유교식 제의를 정례적으로 베풀고 있다. 이 밖에 집안에 길흉사가 있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 그 집 대주나 주부가 정화수를 떠 놓거나 간단한 제물을 진설한 뒤 안과태평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비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三國志, **동남해안지방의 전통적 조상숭배신앙 연구**(황경숙, 한국문학논총 32, 한국문학회, 2002), **동해안지역의 귀신동이 · 귀신당세기 · 귀신종이 신앙 연구**(황경숙, 한국민족문화 2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77).

**필자** 황경숙(黃京淑)

## 귀신종이모시기

상호참조 귀신종이(72쪽), 조상(591쪽)

**정의** 각 가정에서 부계 직계 혈통 가운데 기제사를 모시는 조령의 신체인 귀신종이를 안방에 봉안하여 위하는 의례. 현재 경상도 동남해안지역의 어촌마을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역사** 귀신종이모시기의 연원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전무하다. 현전하는 귀신종이모시기는 대상 신격이 부계 혈통 중심으로 기제사를 모시는 조령으로 제한된다는 점, 상속체계가 장손을 중심으로 계승된다는 점, 관련 주의례가 유교식 제례방식의 기제사와 명절 차례라는 점 등에서 유교식 제례와 맥을 함께 한다. 그러나 조령을 가신으로 여겨 귀신종이와 함께 복을 기원하면서 삼오라기, 무명실, 돈, 집문서 등을 함께 봉안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 경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경우 그 집 대주나 주부가 비손하며 안과태평과 복록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민간신앙의 조령숭배와 맥을 함께한다.

유교에서 조상신은 후손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외경의 대상이 아니라 여재(如在)하는 신으로 추모와 경모의 대상이다. 『예기(禮記)』의 「제통편(祭統編)」에서는 "부모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생시에 하던 봉양을 미루어 행하고 생시에 못다한 효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祭者所以追養繼孝也)"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귀신종이모시기는 유교식 제례를 넘어 안과태평과 후손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가신으로 숭상되기도 한다.

귀신종이모시기가 유교식 제례문화의 민속적 변형인지 민간신앙의 유교적 변형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유교의 제례문화가 유입되어 민간에까지 널리 퍼지게 된 시기는 고려시대 말엽이다. 『고려사(高麗史)』 63 지권 제17 예5 대부사서인제례조(大夫士庶人祭禮條)와 『고려사』 117 열전 권30 정몽주조에 보면 공양왕 3년 6월 기사일(己巳日)에 가묘(家廟)를 세우고 조상에게 제사 올리는 가묘에 관한 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들 역시 부모로 제한되지만 조상 제례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 명종 때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면서 서민층에서도 3대, 4대에 이르는 조상을 모셔 제례를 올리기도 하였다. 귀신종이모시기가 유교식 제례의 민속적 변형이라면 귀신종이모시기 문화는 유교 제례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고려시대 말엽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신종이모시기는 경상도에서도 동남해안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귀신종이모시기가 특정 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귀신종이모시기는 유교의 제례문화 유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남해안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 전승된 토착적 조상숭배의 전통에 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에 "양서에 고구려에서 주거지의 왼쪽에 큰 집을 두어 귀신을 섬겼다 하였다.(梁書云 高句麗於所居之左 立大屋祭鬼神)"라고 하였다. 이는 유교 제례문화가 유입되기 이전 우리나라에 조령을 가신으로 섬긴 토착적 조령숭배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 동옥저조에 "그들의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 큰 나무로 곽(槨)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길이나 된다. (중략) 여기에 나무로 산 사람의 모양을 새겨 꽂아서 이 나무의 수효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한다. 쌀을 넣어둔 질그릇을 곽

끝에 달아 두는 것 역시 그 나라 풍속이다.(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中略- 刻木如生形 隨死者位數 又有瓦鼈竈 置米其中 編懸之於槨戶邊)"라고 하였다. 죽은 자의 형상을 나무에 새겨 묘에 봉안했다는 목각인형은 죽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을 넘어 조령이 현실계를 떠나서도 후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개성적 조령의 빙의물로 기능하고, 쌀을 넣어둔 질그릇 역시 조령에게 바쳐진 곡물을 넘어 추상적 조령의 신체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늘날 함남 해안지역과 경상도 해안지역에서 개성적 조령의 신체인 귀신종이와 추상적 조령의 신체인 시준단지가 짝을 이루며 전승되는 사실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현전하는 귀신종이모시기는 옛 동옥저에 속한 함경도 동해안지역의 전통적 조상모시기가 해안선을 따라 전승된 민속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종이모시기는 원래 종가에서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종가에서 모시지 않게 되면서 종가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모시는 조상에 한해 따로 귀신종이를 봉안하여 제례를 베풀고 있다. 귀신종이모시기의 대상 신격은 가정마다 상이하다. 가정에 따라 2대조, 3대조, 4대조를 모시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3대조를 모시는 경우가 많다.

귀신종이모시기는 시준단지모시기와 더불어 경상도 동남해안지역 어촌마을에서만 전승된다. 1990년 이전에는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에서도 귀신종이모시기를 행하는 가정이 몇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전승의 맥이 끊겨 현재 귀신종이를 모시는 가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내용** 귀신종이모시기는 조상이 돌아가신 뒤 조령이 깃든 신체를 집 안에 모시는 봉안의례에서 출발한다. 귀신종이는 주로 기제사를 베푸는 안방의 시렁 위에 얹거나 안방의 북쪽 또는 서쪽 벽면에 부착한다. 봉안의례의 시기와 방식은 가정마다 상이하다. 귀신종이를 봉안하는 시점은 장례 후 3일, 삼우제 후 3일, 사후 100일, 첫 기일(忌日) 등이 일반적이다. 봉안의례는 그 집 대주가 주관한다. 의례 방식은 기제사와 비슷하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헌작 횟수와 절 횟수가 상이하며 봉안 시점 역시 헌작 이전, 헌작 이후 등으로 다르다. 어떤 가정에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귀신종이를 봉안한 다음 제의를 베푼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제의를 베푼 뒤 귀신종이를 봉안하기도 한다. 제의를 베풀 때 유교식 제례와 달리 열두 차례 술과 절을 올리기도 한다.

귀신종이를 모신 이후에는 매년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유교식으로 지낸다. 제사를 모실 때에는 지방을 따로 써 붙인다. 유교식 제례 외에 귀신종이를 모신 가정에서는 평소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새 식구를 맞이할 때 귀신종이에 먼저 고하며, 재물이 생기거나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을 경우 먼저 귀신종이에 바쳐 재수있기를 기원한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아픈 이가 생기면 정화수, 술, 과일 등을 진설하고 그 집 대주나 주부가 비손하면서 안과태평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귀신종이를 더 이상 모시기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손 없는 날에 제물을 차려 유교식으로 제의를 치른 후 그 집 대주가 깨끗한 곳에 가서 태운다.

**지역사례**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마을과 기성리에서는 조령의 신체인 귀신종이를 당세기에 넣은 뒤 안방의 북쪽 벽면에 시렁이나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봉안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를 '귀신토방구리', '조상토방구리'라고 칭한다. 사동마을에서는 귀신토방구리를 사후 3년이 되는 해에 길일을 택해 봉안한다. 귀신토방구리 안에는 귀신종이만 넣거나 귀신종이와 더불어 흰 광목천이나 명주실을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예전에는 조상신을 각기 다른 토방구리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근자에는 내외를 합사하여 모시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한 번 모셔진 토방구리는 절대 열어볼 수 없다. 금기를 어기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속신으로 인해 선대로 물려받은 귀신토방구리에는 어떠한 신체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기성마을에서는 주로 귀신토방구리를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길일을 택해 봉안한다. 귀신종이를 모실 토방구리는 부정이 타지 않도록 장만할 때 첫눈에 들고 흠집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때 절대로 흥정하지 않는다. 귀신토방구리를 모실 때에는 기제사와 동일한 제물로 제상을 차린 뒤 조상신이 좌정할 것을 청하는 뜻으로 술과 절을 올린다. 귀신토방구리는 평소 흰 광목으로 덮어둔다. 덮개는 매년 정초에 깨끗한 날을 잡아 새것으로 갈아 놓는다. 한 번 모신 귀신토방구리는 새로 갈지 않고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면 손 없는 날을 잡아 그 집 대주가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지낼 때에는 귀신토방구리 앞에 제사상을 차려서 제의를 베푼다. 지방은 따로 써 붙인다. 이 마을에서는 외지에 나간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면 귀신토방구리에 그 사실을 먼저 고한다. 이를 통해 외지에서 묻어 왔을지도 모를 부정이 가시게 된다고 여긴다. 이때 약간의 돈을 귀신토방구리 위에 바친다. 이렇게 바쳐진 돈은 다가오는 기일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제수 장만에 보태어 쓴다. 집안에 목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먼저 귀신토방구리에 바친 뒤 꺼내어 쓴다. 이렇게 하면 재수가 좋다고 한다. 이외에 좋은 음식이 들어오거나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을 경우 먼저 귀신토방구리 앞에 진설한 뒤 먹는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그 집 대주나 주부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하기도 한다.

울진군 후포면 후포1리에서는 조령의 신체를 당세기에 봉안한다. 이를 '구신토방구리', '귀신당세기'라고 칭한다. 구신토방구리는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 년 안이나 일 년 뒤에 길일을 택해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에 따라서는 조상이 돌아가신 뒤 삼 년째 되는 해에 길일을 택해 모시기도 한다. 구신토방구리 안에는 조령의 신체인 한지 외에 속옷이나 천을 넣어 두기도 한다. 천을 넣을 때에는 적어도 옷을 지을 수 있는 크기라 하여 석 자 석 치를 넣는다. 집안에 혼사가 있는 경우에는 혼서를 받아온 천을 한 자 한 치로 잘라서 다음 혼사가 있을 때까지 넣어 두거나 덮어 둔다. 조령을 봉안할 토방구리를 장만하거나 제물을 장만할 때에는 먼저 목욕재계하고 몸가짐을 정갈하게 한다. 토방구리를 구입할 때에는 부정이 타지 않도록 타인과 대화를 꺼리며, 첫눈에 든 것을 택하여 흥정하지 않고 구입한다. 구신토방구리는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토방구리를 옮길 때에는 낫으로 한 번만에 찍어 옮긴다.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지낼 때에는 구신토방구리 앞에 제사상을 차린다. 이때 지방은 따로 써 붙인다. 이 밖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좋은 음식 또는 재물이 생기면 먼저 고하고 복을 기원한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과 노물리에서는 조상의 신체인 한지를 흰 광목과 함께 당세기에 넣어 봉안한다. 이를 '귀신당세기', '조상당세기'라고 칭한다. 귀신당세기는 가정에 따라 장례 후 바로 모시며, 사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모시기도 한다. 모실 때에는 대부분 유교식 제의를 행한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밥 한 그릇만 올려 고한 뒤 약식으로 모시기도 한다. 귀신당세기는 기제사를 지내는 동안만 모신다.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면 그 집 대주가 날을 잡아 깨끗한 곳에 가서 태운다. 가정에 따라 재복을 기원하면서 귀신당세기 안에 집문서, 땅문서, 돈 등을 넣어 두기도 한다. 이때 "할배 할매 차지하소."라고 고한다. 노름하는 사람의 경우 재수를 기원하며 판돈을 먼저 귀신당세기에 넣어 두었다가 쓰기도 한다. 기제사나 명절 차례 때에는 귀신당세기 앞에 제사상을 차려 놓고 지낸다. 이때 지방을 따로 써 붙인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아픈 가족이 생기면 밥과 정화수를 올린 뒤 "김씨할머니네요, 집안 편코(편안하고) 아이들 잘 되게 해 주이소."라고 이령수하면서 비손한다.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에서는 한지를 접어 만든 조령의 신체를 당세기에 봉안한다. 이를 '구신당세기'라고 칭한다. 이 마을에서는 주로 3대를 모시는 경우가 많다. 구신당세기는 조상이 돌아가신 지 100일째 되는 날에 모신다. 신체를 만들고 모시는 일은 그 집 대주가 주관한다. 구신당세기는 흰 천이나 한지로 만든 덮개를 덮어 안방 선반 위에 모신다. 덮개는 매년 새것으로 갈아 놓는다. 교체는 대개 정초에 길일을 택해 행한다. 이 마을에서는 기제사와 명절 차례 외에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약간의 제물을 바친 뒤 "이씨할매요, 김씨할매요, 오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니 많이 잡수시고 재수 있게 해 주이소."라고 이령수한다.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 먼저 구신당세기께 예를 갖춘다. 구신당세기를 없앨 때에는 먼저 술을 올리고 "조상님네요! 이씨할매요! 김씨할매요! 이제 좋은 데로 가시소."라고 고한 뒤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1리 횡계마을에서는 귀신종이를 달리 '조상'이라고도 칭하면서 안방 벽면에 부착된 시렁 위에 왼쪽부터 나란히 선대 조상 순으로 펼쳐 봉안한다. 귀신종이는 시준단지와 함께 봉안하는 것이 관례이다. 시준단지는 귀신종이를 봉안한 시렁 위에 함께 봉안한다. 귀신종이는 돌아가신 선대 조상의 첫 기제사 때 그 집 대주가 봉안한다. 한 번 봉안한 귀신종이는 기제사를 베푸는 동안에만 모신다. 신체는 더러워지거나 훼손되어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기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되면 귀신종이를 조상의 묘로 모셔가서 태우거나 부정이 없는 정갈한 곳

으로 모셔가서 태운다. 귀신종이에 대한 제의는 정례적인 기제사 외에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그 집안 대주가 비손하며 행하기도 한다.

경주시 양남면 하서4리 진리마을에서는 귀신종이를 '조상'이라고 칭한다. 이 마을에서는 가정에 따라 조상종이를 옷 또는 천과 함께 당세기에 넣어 안방 장롱 위나 장롱 안에 모신다. 그러나 조상종이를 당세기에 넣지 않고 안방의 북쪽이나 서쪽 벽면 상단에 붙이기도 한다. 조상종이를 벽면에 붙일 때에는 한지로 만든 띠를 중앙부에 두 줄 붙여 고정시킨다.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지낼 때에는 조상종이 앞에 제사상을 차려서 유교식으로 지낸다. 지방은 따로 쓰지 않는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주부가 정화수를 떠 놓고 비손하면서 안과태평을 기원한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에서는 귀신종이를 달리 '구신종이'라고 칭한다. 귀신종이는 시준단지 옆에 봉안한다. 시주단지는 안방의 시렁이나 장롱 위에 얹고 귀신종이는 시주단지 옆 벽면에 나란히 붙인다. 이 마을에서는 귀신종이를 3대까지 모시는 경우가 많다. 귀신종이를 붙일 때에는 왼쪽에 할아버지, 오른쪽에 할머니를 모신다. 귀신종이는 매년 섣달그믐날에 각 가정의 주부가 새것으로 교체한다. 교체된 신체는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기제사를 지낼 때에는 귀신종이 앞에 제물을 진설한다. 지방은 따로 써 붙인다. 기제사 외에 가정에 길흉사가 있으면 먼저 귀신종이에 고하기도 하며, 비손하면서 복을 기원하기도 한다.

울주군 온산읍 오산마을에서는 귀신종이를 '조상종이'라고도 칭한다. 이 마을에서는 조상종이를 주로 3대까지 모신다. 조상의 신체는 한지를 직사각형 형태로 접어서 안방의 서쪽 벽면이나 북쪽 벽면에 한지로 만든 띠로 고정시켜 부착한다. 조상종이는 장례를 치른 후 손 없는 날을 받아 모신다. 조상종이를 봉안할 때에는 먼저 봉안할 장소 앞에 제상을 차린 뒤 그 집 대주가 조상종이를 조상님이 좌정할 것을 고하며 벽면에 붙인 뒤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조상종이는 고비(考妣) 합사하여 모신다. 한 번 봉안된 조상종이는 이후 절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다. 기제사는 귀신종이 앞에서 지낸다. 이 때 지방은 따로 쓴다. 기제사 외에 집안에 새 식구를 맞이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였을 때는 먼저 조상종이 앞에 먼저 고하고 예를 갖춘다. 또한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에는 조상종이 앞에 정화수와 간단한 제물을 진설한 뒤 주부가 비손한다. 조상종이는 장손에게 대물림하여 더 이상 조상종이를 모시지 않게 되면 그 집 대주가 조상종이를 떼어내어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안방 벽면에 귀신종이를 봉안하고 있다. 귀신종이의 형태나 봉안하는 방식은 가정마다 상이하다. 어떤 가정에서는 귀신종이를 봉안한 벽면 위에 신위를 쓴 종이를 따로 붙여둔다. 어떤 가정에서는 띠를 만들지 않고 각기 풀로 벽면에 붙여 부착해 놓는다. 귀신종이를 봉안하는 시기는 주로 장례를 치른 뒤 3일째 되는 날이다. 귀신종이를 제작하거나 봉안하는 의례는 그 집 대주가 직접 주관한다. 귀신종이를 봉안할 때에는 먼저 귀신종이를 봉안할 장소 앞에 기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을 진설한 뒤 유교식으로 제를 올린다. 가정에 따라서는 열두 차례 술과 절을 올리기도 한다. 귀신종이가 낡거나 더러워지면 그해 정월 초하루나 섣달그믐날을 택해 새것으로 교체한다. 교체할 때에는 달리 제의를 베풀지 않고 교체 사실을 먼저 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교체된 귀신종이는 그 집 대주가 깨끗한 곳에 가서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염원을 아뢴 뒤 태운다. 귀신종이를 모시는 동안 이사를 갈 경우에는 벽면에 부착된 귀신종이를 잘 거두어 깨끗한 상자에 모신 다음 대주가 조상신께 "조상님네요! 여기는 강입니다. 여기는 산모퉁이입니다. 여기는 도랑입니다. 조상님 건너갑시다."라고 하며 이사 경로를 일일이 고하면서 모신다. 귀신종이모시기는 기제사와 명절 차례 외에도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먼저 고하여 복을 빌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한다. 귀신종이를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집 대주가 마지막 기제사 후 귀신종이를 떼어내어 손 없고 맑은 곳에서 태운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역시 많은 가정에서 현재까지 귀신종이를 모시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귀신종이를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3년 탈상 후 길일을 잡아 봉안하였다고 한다. 귀신종이를 봉안할 때에는 기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올린다. 그런 다음 그 집 대주가 직접 만든 귀신종이를 선대 귀신종이와 나란히 안방 벽면에 부착한다. 귀신종이는 한지를 직사각형태로 접는다. 귀신종이 안쪽에는 신위를 써 두기도 한다. 한 번 봉안한 귀신종이는 그대로 둔다. 가정에 따라 귀신종이가 낡아 더러워지면 섣달그믐날에 새것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교체한 귀신종이는 조상의 묘에 가서 태우거나 손 없는 방향을 가려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이 마을에서는 기제사나 명절 차례 외에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과일과 술 등으로 간단히 제물을 마련하여 진설한 뒤 고할 뿐 달리 비손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경남 거제시 옥포2동 조사마을에서는 귀신종이를 달리 '거장'이라고 칭한다. 거장은 부산시 기장군 해안지역 일대에서 전승되는 귀신종이와 형태나 성격이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 가정에서 모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체의 크기와 두께가 각기 다르다. 신체별로 신위를 쓰는 위치도 달라 신체 앞면에 쓰기도 하며 신체 안쪽에 쓰기도 한다. 거제와 통영지역의 거장은 부산시 기장군지역의 귀신종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의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으며 거장 전체를 가리는 덮개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지낼 때 거장 앞에 제사상을 차려 유교식으로 모신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그 집 주부가 정화수를 떠놓고 안과태평과 재수대통을 비손하면서 기원한다. 거장을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면 그 집 대주가 거장을 떼어낸 뒤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志, **동남해안지방의 전통적 조상숭배신앙 연구**(황경숙, 한국문학논총 32, 한국문학회, 2002), **동해안지역의 귀신동이 · 귀신당세기 · 귀신종이 신앙 연구**(황경숙, 한국민족문화 2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77).

**필자** 황경숙(黃京淑)

## 귀표고사

상호참조 낙인고사(92쪽)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자신의 마소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유주가 음력 10월쯤에 마소의 귀에 표시를 하면서 지내는 고사.

**내용** 귀표고사는 '귀표코ᄉᆞ', '귀페코ᄉᆞ', '귀페코ᄉᆞ'라고 부른다. 고사라는 말을 생략하여 'ᄆᆞ쉬귀페'라고도 한다. 달리 '방등코ᄉᆞ'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방등'은 마소를 들에 놓는다는 뜻이라지만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소의 귀에 표시를 하는 이유는 해당 마소의 소유주를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귀표의 모양은 소유주마다 다르다. 귀를 특정한 모양으로 째거나 도려내었다고 한다.

한편 귀표를 할 때는 낙인(烙印)도 함께 이루어진다. 쇠로 특정한 형태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고 이를 불에 달구어 마소의 엉덩이 등 특정 부위와 위치에 찍는다. 이를 두고 '낙인 지른다.'라고 한다. 낙인은 마소를 줄로 잡아 걸고 눕혀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장정 여럿이 모여 함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치렀다. 마소에 대한 특별 표시는 대개 마을이나 가문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 번 그 모양이 정해지면 쉽게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대개 마소를 가두어서 기르기보다 산과 들에 놓아서 길렀다. 개인만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기르지 않고 공동으로 방목하여 기르다 보니 자신의 마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소유주마다 일정한 모양의 표시를 함으로써 서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툼을 방지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었다. 특히 마소를 잃었을 때 그 표시를 알리고 수소문하여 찾는 데 유용하였다.

귀표와 낙인의 대상은 보통 한두 살 된 마소이다. 이때쯤 되면 어린 마소들은 들판에서 뛰어 놀 수 있게 된다. 어미 곁을 떠나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이들 어린 마소에게는 소유주를 나타내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귀표고사를 지내는 시기는 대개 음력 10월이지만 마을에 따라 음력 2~3월에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상사일(上巳日)을 택한다고 한다. 행하는 장소로 택한 밭은 '귀피왓'이라고 부르며,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고사는 마소의 주인들이 귀피왓에 모인 가운데 제물을 차려서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유교식으로 간단히 이루어진다. 제물은 '산듸돌레떡(밭벼로 둥그렇게 만든 떡)'과 '조오메기떡(좁쌀로 만든 오메기떡)' 등을 준비하여 간단히 올리는 편이다. 마소가 많은 집안이나 마소를 직접 관리하는 '테우리'는 제물을

더 준비하여 고사를 지낸다. 귀표를 할 때 귀의 한 부분을 도려낸다. 도려낸 부위는 구워서 고사의 제물로 쓴다. 귀표고사는 자신의 마소임을 나타내는 의식인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농사짓는 밭을 주의하라는 경계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귀표고사가 끝나면 마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한다.

제주도지역에서 마소를 산과 들에 놓아기르는 것은 매우 오래된 풍속이다. 17세기 기록인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도 마소를 들에 놓아 길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마소를 방목하여 기른 사정을 생각하면 마소의 소유주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 귀표고사 역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귀표고사는 현재 사라졌다. 과거처럼 집집마다 마소를 기르는 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른다 해도 공동으로 방목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귀표와 낙인은 한라산 자락에 공동으로 방목하는 사정 때문에 마소의 소유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으로 방목하는 일이 없어짐으로써 자연히 그 의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사례** 제주도 대부분 마을에서 귀표고사를 행하였다. 몇 가지 지역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 영평동에서는 음력 2월쯤에 낙인을 찍었다. 강씨는 '태(太)'자, 오씨는 '십(十)'자, 김씨는 '중(中)'자였다고 한다. 조천읍 대흘1리에서는 보통 마소를 40~50마리 길렀다고 한다. 낙인고사를 지낼 때에는 제물을 차려서 마소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구좌읍 김녕리에서는 매해 음력 10월 갑자일(甲子日)을 택해서 가문별로 마소의 낙인을 찍고 귀도 함께 잘랐다. 이때 마소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송당리에서는 음력 3월에 귀표와 낙인을 하였다. 겨울 동안 '쉐막(외양간)'에서 지내던 마소를 목장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마소의 안녕과 풍등을 비는 고사를 먼저 지낸다. 제물은 메, 떡, 채소, 과일, 고소리술 등이다. 이때 테우리 몫의 메로 큰 양푼 하나를 준비하여 수저를 3~5개 올려놓는다고 한다. 고사는 절을 하고 잡식하여 음복하는 것으로 간단하다. 절은 마소의 주인만 한다. 송당리에서는 '범(凡), 을(乙), ㅋ, ㄷ, ㄴ, ㄱ' 등의 낙인이 있었다. 고씨 집안에서는 '범(凡)', 홍씨 집안에서는 '을(乙)', 광산 김씨 집안에서는 'ㄷ'자를 각각 새겼다고 한다.

서귀포시 하원동에서는 음력 10월 상사일(上巳日)에 마소에게 귀표를 하였다. 대포동에서도 음력 10월에 귀표와 낙인을 하였다. 남원읍 수망리에서는 좋은 날을 보아서 귀표고사를 한 뒤 마소에 낙인을 찍었다. 표선면 표선리에서는 음력 10월 갑자일(甲子日)을 택해 가문별로 마소의 낙인을 찍고 귀도 잘랐다. 이때 마소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낙인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표선면 성읍2리 구렁팟마을에서는 음력 10월에 방목이 끝나고 마소를 밭에 모아 '바령(마소를 밭에 가두어 놓고 분뇨를 받아 밭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바령팟'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귀표와 낙인을 하였다.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음력 10월에 그해에 태어난 마소를 목장에 모아 놓고 엉덩이에 성씨별로 귀표와 낙인을 하였다. 이때 소는 귀에, 말은 코에 각각 표시한다고 한다. 송아지나 망아지의 귀와 코의 살점을 조금 떼어내어 이것을 구워서 잡식할 때 올렸다. 성산읍 신풍리에서는 음력 9월 자일(子日)을 택해 마소를 가꾸는 접꾼이 바령팟에 모여 낙인을 찍었다고 한다. 낙인을 찍은 뒤에 백중제를 지낼 때와 같이 고사를 지냈다. 오씨 집안은 '고' 또는 '고(古)'자로 낙인을 찍고, 귀표로 귀를 'ㄱ'자로 쨌다고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 민속-세시풍속**(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97),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제주의 민속 1**(제주도, 1993),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강소전(姜昭全)**

## 그물고사

상호참조 도깨비고사(134쪽)

**정의** 그물을 설치하고 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고 비는 개인 고사.

**내용** 그물고사는 보통 그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한 후에 행하는 고사 형태이다. 전라도지역에서는 '덤장고사'라고도 한다. 고정 그물은 돌살이나 죽방렴 등과 유사한 어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물은 내륙의 강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서해안과 같이 갯벌이 발달한 바닷가에 설치되었다. 남해의 경우 남해도로 건너가는 창선교 주위에 나무와 그물로 설치한 죽방렴을 볼 수 있다. 이곳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주로 멸치잡이에 사용한다. 이처럼 고정된 그물을 설치한 주민들에 의해 전승된다. 제주도에서는 그물고사를 '구물코스'라고 하며, 어로를 생업으로 삼은 집안에서 주로 모신다. 제의는 일시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어장굿'이나 '멜굿'이라고도 한다. 어촌에서 무의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육지의 그물고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전라도지역에서는 덤장고사로 표시된다. 이때의 신격으로는 주로 도깨비가 좌정한다. 덤장고사에서 "물 위에 참봉, 물 아래 참봉, 이것 먹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사."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때의 참봉은 바로 도깨비를 말한다. 도깨비에게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고정된 그물로 고기가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깨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한 유래담이 전남 신안지역에서 채록됐다. 그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전남 무안의 한 개펄 고랑에 그물을 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가 있었다. 하루는 고기가 통 잡히지 않자 이상한 일이라 여기고 그물 주위에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뽕뽕" 하면서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다가오기에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다. 자세히 보니 불빛만 사라지고 도망가는 기색은 볼 수 없었다. 이 어부는 도깨비라고 생각하고는 이튿날 낮에 메밀로 죽을 쑤어 그물을 설치한 주위에 뿌렸다. 그 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으며 매달 서무날과 열무날에 간단한 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덤장고사 또는 그물고사와 관련해 도깨비를 신앙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도깨비가 개펄에 살면서 물고기를 몰아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뽕뽕" 하는 물 빠지는 소리를 도깨비가 걸어 다니는 소리라고 한다. 이 소리는 썰물에 개펄이 드러나는 서해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도깨비에 대한 믿음은 고사를 지내는 어부들이 설치한 그물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정 그물이라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배를 타고 다니면 어군을 따라 쫓아갈 수 있지만 이들 그물은 개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고기를 몰아주어야 많은 어획이 가능하다. 이런 존재로 도깨비를 믿어 온 것이다.

도깨비를 믿는다는 점에서 고사를 지낼 때 제물은 매우 간단하다.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이나 메밀범벅을 올린다. 메밀이 없으면 호박범벅을 쓰기도 한다. 술은 막걸리가 일반적이다. 고사상을 차리고 어부가 절을 한 다음 제물을 바가지에 모두 담아 개펄에 뿌린다. 이때의 비손 내용이 바로 "물 아래 참봉, 물 위의 참봉"이다. 지역에 따라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그물이 있는 곳까지 몰고 가서 고사를 드리기도 한다. 이때는 절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내고향 해제고을**(해제면지발간위원회, 1988), **도깨비를 둘러싼 민간신앙과 설화**(김종대, 인디북, 2004),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김종대(金宗大)**

## 금기(禁忌)

**정의** 가정신앙에서 제의를 지낼 때 행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나 마음가짐.

**내용** 의례는 신앙 대상 신에게 개인이 희망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원하는 행위로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에 대한 다양한 금기가 따른다. 집에 고사 지낼 날이 정해지면 집안 청소를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조심한다. 제물을 마련할 때, 특히 시루떡을 찔 때의 금기는 매우 엄하다. 신체를 갈아줄 때는 불에 태우거나 물에 흘려보내야 한다거나, 터주나 업항아리 등 신체에 담아둔 곡식은 집 밖으로 내가지 않는다는 등의 금기가 있다. 이러한 금기는 가정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앙심의 깊이에 따라 실천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배고사를 지내기 전 선주부부는 부부관계를 금하고 머리나 손톱을 깎지 않는다. 뱃머리에 여자가 보이면 출어를 늦추었고 출어 직전에는 여자와 말도 하지 않는다. 배가 바다로 나갈 때에는 휘파람 소리를 내지 않고 손도 흔들지 않는다. 휘파람을 불면 액귀가 따라붙고 손을 흔들면 고기떼를 쫓으며, 이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삼신은 깨끗한 신으로 상정되어 비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 제사상에는 어류를 올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삼칠일 동안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만들면 아이의 얼굴에 해를 입히는 등 삼신이 표시를 낸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등할매에게 올린 음식은 함부로 버리거나 먹지 않는다.

터주는 집터를 관장하는 가신(家神)으로 그 가정의 재수, 특히 재물의 운수를 관장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신에게 굿이나 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터주를 모신다. 터주에게 올리는 의례로는 터주굿과 터주고사가 있다. 부녀자들은 평소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정화수나 메를 지어 올리고 간단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터주고사를 지낼 때는 무속인, 승려 또는 식자층의 마을 어른에게 택일을 의뢰하여 치른다. 고사 당일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서 집 안으로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를 지킨다.

상달고사는 음력 시월 중 길일을 택해 지낸다. 특히 말날인 오일(午日)을 좋은 날로 여긴다. 이날에는 팥 시루떡을 하여 성주를 비롯한 집안의 신들에 올리며 가내의 평안과 건강과 풍요를 빈다. 또 팥 시루떡을 마구간에 차려 놓고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빈다. 시월의 오일 가운데에서도 무오일(戊午日)을 상마일(上馬日)로 친다. 이는 무(戊)와 무(茂)의 발음이 같아 무성함을 기대한 것에서 기인한다. 반면에 병오일(丙午日)은 병(丙)과 병(病)의 발음이 같아 꺼린다. 전통사회에서 말은 소와 더불어 농사와 같은 생업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식구와 같이 귀한 존재였다. 반드시 말날이 아니더라도 길일을 택하여 햇곡식으로 술, 시루떡, 과일을 장만하고 성주신을 비롯한 가택신에게 올려 복을 빈다.

주부가 직접 고사를 지낼 경우 다른 제의 때와 마찬가지로 집 앞에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려서 부정을 막고, 주부는 목욕재계하여 매사를 정결하게 한다. 무당과 같은 전문 사제자가 굿을 할 경우 역시 부정을 막기 위한 금기가 따른다. 시월 고사를 지낼 때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성줏단지, 터줏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 같은 신줏단지의 곡물을 햇곡식으로 갈아 넣기도 한다. 묵은 곡식으로는 밥을 짓거나 떡을 하여 집안 식구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이 담긴 음식이라고 여겨서 복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내보냈다가 행여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례** 서울시 송파지역에서는 음력 시월 중에 '말날'과 '돼지날'을 길일로 여기고 이때 고사를 지낸다. 택일이 되면 가정에서는 대문 앞에 금줄을 매어 부정을 막고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가을떡을 찔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시루 위에 백지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한 대접의 쌀가루를 붓는다. 이 쌀가루로 찐 떡을 손님떡이라고 한다. 이는 남에게 주지 않고 식구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떡을 다 찌면 부엌에서 시루의 뚜껑을 열어, 시루 양쪽에 북어를 한 마리씩 꽂은 뒤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치성을 드린다. 다음에는 떡을 조금씩 떼어 성주, 터주, 칠성 등 집안의 신들에게 놓는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하리마을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가을떡을 해서 집안을 위한다. 한 해 농사가 잘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떡은 보름 정도 수확이 빠른 올벼(오려)로 장만한다. 대개 시루떡을 찌며, 쌀 한 말이면 다섯 켜 정도를 올린다. 켜를 올릴 때에는 짝을 맞추지 않고 홀수 층으로만 올린다. 가을시루와 터주시루는 따로 찐다. 떡을 찔 때 소변을 보고 들어오거나 임신한 여자가 들어오면 떡이 선다. 시신을 보거나 개를 잡은 것을 보고 부엌에 들어가도 역시 떡이 선다. 한번 선 떡은 아무리 불을 때도 익지 않기 때문에 선 떡은 나중에 보자기로 싸서 익혀 먹는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이천의 민간신앙**(홍순석, 민속원, 2003),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필자** **김지옥(金志昱)**





## 기자(祈子)

상호참조 미륵바위(180쪽), 미륵불(180쪽)

**정의** 자식이 없는 부녀자가 자식을 낳기 위해 벌이는 여러 형태의 행위. 넓은 의미로는 자식을 얻기 위해 치르는 모든 의례를 말함.

**내용** '기자신앙' 또는 '기자행위'라고 하는 기자의례는 자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조선시대에 널리 행해졌다. 특히 민간에서는 자식들 중에서도 아들을 얻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행위를 널리 행하였다. 유교적 관념 속에서 가계(家系)를 잇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행위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나는 '시조탄생'에 관한 기록으로 볼 때, 이미 고대사회에서 널리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군신화〉를 살펴보면 "웅녀(熊女)가 그와 결혼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가서 아이를 잉태하고자 정성을 다해 빌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웅녀가 신단수에 치성을 드림으로써 단군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기자치성(祈子致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신단수 아래에서 치성을 드렸다는 사실은 신수(神樹)에 깃든 정령(精靈)의 힘을 빌려 아이를 낳고자 한 행위로, 수목숭배(樹木崇拜) 사상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기자의례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큰 나무에 아들 낳기를 비는 기자행위로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포 유달산 입구 갓바위 아래에 있는 '성기숭배나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금와왕(金蛙王) 탄생설화〉에서도 기자의례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북부여 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후사(後嗣)를 구하고자 산천에 제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런데 왕이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자,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그 곳을 들춰보니 금색 개구리 모양[金色蛙形]의 어린 아이가 있어 데려가 키웠다. 바로 그가 동부여의 2대왕인 금와왕이다." 이 설화에서 볼 때 해부루 왕은 산천에 제사함으로써 금와왕을 얻는다. 이는 곧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기자의례 가운데 산 · 하천 · 기암괴석 · 기자암 · 기자석 등에 치성을 드리는 기자행위와 연결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기자의례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유사』「가락국기(駕洛國記)」〈김수로왕(金首露王) 탄생신화〉에도 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지봉(龜旨峰)에 오른 구간(九干)들이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자 수로왕이 탄생했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기자행위로 이러한 행위 역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풍속이다. 이처럼 무당의 힘을 빌려 자식을 얻고자 했던 흔적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진천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인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 및 삼신당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행렬이 일년 내내 이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고대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출생담에서도 기자의례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춘향전〉에서 "월매가 춘향을 얻기 위해 지리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 놓고 산신에게 빌었다."라는 것이나, 〈심청전〉에서 "곽씨부인이 석불미륵과 태상노군 후토부인에게 정성껏 빌어 심청을 얻었다."라는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 기자의례들이다. 이외에도 영웅소설인 〈유충렬전〉에



**기자치성암**
경남 밀양시 무안면 고사동, 2004.9.3
배도식

서, "유심 부부가 삼칠일 목욕재계를 한 다음,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남악산(南岳山, 지리산)에 들어가 형산 산신에게 빌어 충렬을 얻었다."라는 기록 역시 기자의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 속에 전승되는 기자의례는 지역, 또는 자식을 얻고자 하는 주체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승되고 있다. 즉 빌거나 굿을 하는 '치성행위(致誠行爲)',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식음행위(食飮行爲)', 주술적인 물건[呪物]이나 주술적인 힘[呪力]을 이용하는 '주술행위', 좋은 일과 선심을 많이 쓰는 '공덕행위(功德行爲)', 남녀 성기(性器) 모양의 돌이나 바위, 그리고 나무에다 잉태나 출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의행위(模擬行爲)'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초월적인 존재나 영험한 자연 대상물에 빌거나 굿을 하는 '치성의례'이다. 대개 기원 대상은 산신 · 용왕신 · 칠성 · 삼신 · 부처 · 미륵 등과 같은 자연신이나 도교신, 그리고 불교신들이다. 이외에도 일반에서는 암석 · 나무 · 동굴 등과 같은 자연물들을 널리 섬긴다. 대개 아들 낳기를 비는 장소는 집 밖일 경우에는 산이나 바위 · 나무 · 절 · 산신당 · 삼신당 · 칠성당 · 용왕당 등이며, 집 안일 경우에는 마루나 뒤꼍 · 부엌 · 윗방 등이다. 치성의례 방법으로는 대개 제물을 진설해 놓고 비손을 하거나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치성을 드리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주로 정월대보름날, 삼월삼짇날, 오월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시월상달 등 절기나 명절과 관련하여 치성이 이루어진다. 기자치성을 드릴 때는 대개 남들이 모르게 빌어야 효험이 있다 하여 보통 밤이나 새벽시간을 택한다. 이러한 치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산에 가서 3일, 7일, 21일, 100일 기도 등을 드린다. ②절이나 산신각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③집 안에서 성주, 칠성, 조왕, 터주 또는 삼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④샘이나 거목, 거암(선바위) 등을 대상으로 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자암이나 기자석으로는 서울 인왕산 중턱에 있는 '선바위'와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의 '공알바위', 전라도 지리산의 '선바위', 제주도 용담 냇가의 '석불' 등이 대표적이다. ⑤성황당이나 해변에 나가 용왕님께 빈다. ⑥정월 인일(寅日)에 부산 금정산 위 선바위에 가서 굿을 한다. ⑦칠석날 부산 봉래산 밑 당산나무에 가서 빈다.

둘째 유형은 특정한 음식이나 약물을 마시는 '식음행위'이다. 남성을 상징하는 생식기나 물건 또는 아들과 관련된 열매와 음식 등을 먹음으로써 그 기(氣)를 받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누런 장닭의 불알을 생으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②남의 삼신상에 올려놓은 쌀을 훔쳐다 밥을 지어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③남의 집 금줄에 매단 고추를 훔쳐서 달여 먹는다. ④설날에 낳은 달걀을 삶아 먹는다. ⑤황소의 불알이나 살을 삶아 먹는다. ⑥줄다리기를 한 뒤 그 줄을 달여 먹는다. ⑦수평아리가 될 달걀을 매월 달 수대로 삶아 먹는다. ⑧산모에게 첫 국밥을 해주고, 그 산모와 함께 첫 국밥을 먹는다. ⑨한 개나 두 개만 열린 홍도 또는 석류를 따 먹거나 동쪽으로 뻗은 뽕나무 가지의 오디를 따 먹는다. ⑩석불이나 미륵불의 코를 갈아 그 가루를 먹는다. ⑪금줄에 끼워 둔 미역을 먹는다. ⑫아기 잘 낳는 집의 행주나 주걱을 몰래 가져와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이때 행주는 잘 간직해 두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물가에 가 태운다.

셋째 유형은 특정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주술행위'이다. 여기서 특정한 물건은 대개 남성을 상징하거나 생산을 상징하는 주술적인 물건을 말한다. 사례로는 ①다산한 여인의 월경대를 훔쳐와 몸에 두른다. ②아기 낳은 집 대문에 걸어 놓은 금줄을 몰래 훔쳐와 자기 집에 모셔둔다. ③다산한 여인이 출산할 때 입었던 치마를 얻어다 입는다. ④작은 도끼를 베개 속에 넣고 잔다. ⑤상여 나갈 때 공포 조각을 훔쳐다 속옷에 달고 다닌다. ⑥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베개 속 또는 문 위에 붙인다. ⑦기자도끼를 여자 허리에 차고 다닌다. ⑧친정어머니가 준 은장도를 치마 끝에 달고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턱 밑에 석 달간 묻어두었다가 꺼내 허리에 차고 다닌다. ⑨아들을 많이 낳은 집의 부엌칼을 훔쳐다가 작은 도끼를 만들어 여자가 베개 밑에 놓고 자거나 속옷에 차고 다닌다. ⑩아들 3형제를 둔 집의 수저를 훔쳐다가 부인의 베개 밑에 몰래 감추어 둔다. ⑪붉은 고추나 알밤 또는 은행을 주머니에 넣어 치마 속에 차고 다니거나 남편 베개 속에 몰래 숨겨둔다. ⑫호랑이 발톱이나 수탉의 생식기를 지니고 다닌다. ⑬신부가 신행을 갈 때, 시댁 동네에서 아들을 낳은 집 금줄을 몰래 떼어다가 가마 앞에 걸어 둔다. ⑭임신할 때까지 옷 속에 구슬을 간직한다.

넷째 유형은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공덕을 베풀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공덕행위'가 있다. 이 유형은 인과응보(因果應報)에 따라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적 관념에서 나온 습속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정월대보름날 밤에 남편이 징검다리를 놓아 다른 사람이 편히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한다. ②칠월칠석에 마을 공동우물을 푸는 선행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③부부가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④허물어진 길을 잘 닦고 마을 길을 쓸어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 ⑤시주승이 오면 정성껏 시주를 한다.

마지막 유형은 남녀 성기 모양의 돌이나 나무에다 잉태 및 출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의행위'가 있다. 흔히 좆바위 · 자지바위 · 아들바위 등으로 불리는 남근석(男根石)이나, 공알바위 · 보지바위 · 붙임바위 등으로 불리는 여근석(女根石), 그리고 남근 또는 여근 형국에서 행해지는 풍수상의 암석숭배(巖石崇拜)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모의행위는 성교를 상징하는 유사한 것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보다 적극적인 주술행위로 보통 치성행위와 더불어 행해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밤에 몰래 남근석에 가서 음부를 비벼대며 기도한다. ②기자석 앞에 실 한쪽을 매 놓고, 다른 한쪽은 부인의 하복부에 둘러매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기를 하복부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올 때까지 며칠을 두고 계속한다. ③어멈바위라고 하는 평편한 바위 표면을 애돌[子石]로 갈아 오목하게 파놓고, 그 애돌을 붙여둔다. 또는 한밤중에 이 붙임바위를 찾아와 어멈바위를 갈면서 아들 낳기를 빈다. ④두 나무 가지가 엉켜 한 나무처럼 된 연리지목(連理枝木)이나, 사람의 다리 모양처럼 생긴 Y자형 나뭇가지가 있는 근처에서 부부가 동침한다. ⑤Y자형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넣는다. ⑥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속옷을 입고 산실(産室) 아랫목에 앉아 아기 낳는 흉내를 내며 하룻밤을 지낸다. ⑦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해안가 바위산 왼쪽에 있는 암굴에서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에 음부(淫部)를 쬐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석양 무렵에 이곳에 와서 치마를 걷어 올린다. ⑧여근석에 돌을 돌리면서 비벼 돌을 붙인다. ⑨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해신당에 있는 해랑이란 처녀에게 바친 나무로 깎아 만든 남근에게 빈다. ⑩전북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팔왕마을에 있는 남근석에 부녀자가 가서 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부산지방의 산전속**(김승찬 · 허영순, 황제의학 1–2, 제한동의학술원, 1976), **성, 숭배와 금기의 문화**(이종철 외, 대원사, 1997), **조선시대 기자의례 연구**(오출세, 동악어문논집, 동악어문학회, 1980), **조선시대 산속연구**(이경복, 한국민속학 11, 한국민속학회, 1979), **한국민속논고**(임동권, 선명문화사, 1971), **한국민속대관 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 민속신앙의 탐구**(이종철, 민속원, 200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여속**(장덕순, 배영사, 1969),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남아존중사상**(차재호 외, 행동과학연구소, 1975), **한국의 성신앙**(김종대, 인디북, 2004).

**필자** **이관호(李官浩)**

**제의**
나무고사
낙인고사
넋들임
논고사
논둑제
농사고사
농신제

**신격**
눌굽지신

**신체**
나락

**제구**
노구솥

**제물**
나이떡



ㄴ

나락
나무고사
나이떡
낙인고사
넋들임
노구솥
논고사
논둑제
농사고사
농신제
눌굽지신

# 나락

**정의** 가정신앙에서 신체로 봉안되는 도정(搗精)하지 않은 볍씨 상태의 겉곡. 나락이 가정신의 다양한 신체로 섬겨지는 것은 대표적인 곡령(穀靈)신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락이 가정신앙의 신체로 봉안된 예는 주로 경기도 이남의 도작문화권(稻作文化圈)지역에서 널리 확인된다. 전라도지역 철륭오가리, 경상도지역 꺼칠용단지, 경기도 · 충청도 · 강원도지역의 터줏단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역사** 나락이 가정신앙에서 신체로 봉안되는 것은 각종 곡식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곡령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곡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물학적인 생명을 담보해주는 식량의 근본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종자(種子)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증식하고 삶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재물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곡식 가운데에서 볍씨인 나락이 농가에서 신체로 널리 봉안하는 것은 분명 벼농사의 일반화 과정과도 관련이 깊다. 17, 18세기 삼남지방으로 수도(水稻)재배가 확대되어 일반화된 것은 나락 관련 신앙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나락을 신체로 모시는 철륭이나 용단지 같은 가정신앙이 주로 삼남지방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벼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볍씨인 나락을 신앙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벼가 다른 곡종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질이 우수하며, 보관성이 높아 문화적으로도 선호된 점 또한 나락 중시 관념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나락에 대한 신앙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와 배경 속에서 나락은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시대 불복장물(佛腹藏物)의 오곡(五穀) 가운데 쌀이 포함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가정신앙에서 나락 이외에 도정한 알곡인 쌀을 봉안하는 사례들 역시 종교문화적인 맥락과 배경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봉안물의 초기 형태는 볍씨 상태였다가 점차 알곡인 쌀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형태** 나락은 낟알 그 자체로 신앙하기보다 단지나 항아리 등에 담아서 그 전체를 하나의 신앙 대상물로 삼는다. 그러면서 나락의 명칭은 드러내지 않고 철륭이나 용단지 등으로 부른다. 가정신앙의 대상신에는 조상단지나 삼신바가지와 같이 단지류나 바가지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단지나 바가지들이 신체가 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대상은 단지나 바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 봉안하고 있는 곡식과 같은 내용물이다. 단지나 바가지는 봉안물을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신앙인들이 신격을 지칭할 때 조상단지, 삼신바가지 등으로 부르기 때문에 단지나 바가지가 신체인 것처럼 오인된 것이다. 이는 겉으로 들어난 형태가 단지나 바가지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앙행위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지나 바가지 등 그릇 자체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신앙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햇곡식을 수확하였을 때 기존의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바꾸고 묵은 곡식은 식구들끼리 밥을 해먹는다고 하는 것 등의 신앙행위는 그 초점이 바로 그릇 안의 내용물에 맞추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가지나 단지 같은 용기 그 자체가 신앙적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그 안에 봉안된 곡식이 신앙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곡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겨서 어디에 안치되는지에 따라 신격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나락을 가정신앙으로 봉안하는 형태는 볍씨 상태의 나락을 단지나 항아리와 같은 옹기에 담아 뚜껑을 봉한 다음 뒤꼍이나 장독대 등에 봉안하면서 철륭(또는 철룡)이나 용단지라고 칭하면서 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옥외의 뒤뜰이나 장독대 또는 고방이나 뒤꼍 처마 밑 같은 곳에 보관하는 항아리나 단지이며, 그 안에는 도정을 하지 않은 나락을 넣어 봉안한 형태로 신앙된다. 신앙형태로 보면 전라도지역의 철륭오가리, 경상도지역의 옥외 꺼칠용단지가 나락을 신체로 위하는 대표적인 가정신앙에 해당한다. 간혹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의 터줏단지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일반적인 형태인 조상단지, 신줏단지, 성줏단지, 삼신단지 등에도 알곡식인 쌀 대신 겉곡식인 나락을 신체로 하여 옥내에 모신 사례도 많이 확인된다. 이런 점을 볼 때 벼를 중심으로 하는 곡령신앙은 가정신앙의 주요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체인 나락을 봉안하는 옹기단지는 지역과 크기에 따라 독, 항아리, 오가리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나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선2리 2005.12.16 코리아루트

**내용** 나락을 신체로 봉안하는 대표적인 가정신앙으로는 주로 옥외에 신체가 있는 전라도지역의 철륭, 경상도지역의 꺼칠용단지, 충청도나 경기도 등지의 터줏단지 등이 있다. 이들 신앙은 햇곡식을 추수하면 처음 수확한 수지나락을 철륭오가리나 용단지 또는 터줏단지 등에 봉안한 묵은 나락과 교체하고, 묵은 나락은 찧어서 식구들끼리만 밥을 해먹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나락뿐만 아니라 쌀을 신체로 하는 각종 단지류 신앙도 모두 이와 같은 구조이다.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교체하는 의례는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고사를 통해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등과 같은 명절에도 각종 시절음식을 차려 의례를 올리고 풍농을 비롯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나락을 신체로 봉안하지만 신의 기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전라도의 철륭은 주로 뒤꼍에 모시지만 터주와는 구별되어 별도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라도 가정신앙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철륭이다. 주로 집터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긴 하지만 특히 산 밑에 집터를 잡았거나 집터가 센 곳, 집 뒤에 큰 나무나 바위가 있는 집에서 주로 철륭을 모신다. 철륭의 성격은 지신(地神)과 유사하지만 가정에 따라 장광(장독대)과 동일하게 여기기도 한다. 경상도 꺼칠용단지는 옥내에 모시는 쌀용단지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농사의 신이자 재물 및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터줏단지는 자구적 의미 그대로 집터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나락이라는 동일한 신체를 모심에도 신앙의 내용이 각기 다른 것은 나락이 지니는 곡령의 의미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이라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풍농의 기능, 재물과 재복의 기능, 용과 관련한 농사신으로의 기능,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로서의 기능, 지신으로서의 기능 등은 민간신앙이 갖는 미분화된 성격으로 규정하기보다 복합적이고도 중층적인 다기능을 갖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할 여지가 더 크다.

**특징** 나락을 신체로 위하는 경우는 그 신체가 주로 옥외에 봉안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벼의 껍질을 탈각하지 않는 볍씨 상태로 단지류에 넣어 모시는 것이다. 이는 도정한 쌀보다 나락 상태가 옥외의 환경조건에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정한 쌀은 장마철이 지나면 바구니에 벌레가 생기는 등 피해가 크지만 껍질을 탈각하지 않은 볍씨 상태의 나락은 해를 넘겨도 벌레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거의 없다. 따라서 나락의 생명성이 도정을 한 쌀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로 옥외의 신격들로 나락이 이용되고 있다. 실내에 모시는 조상단지, 신줏단지, 성줏단지, 삼신단지 등도 간혹 나락을 넣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는 원래 겉곡인 나락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도정기술이 발달하고 봉헌물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쌀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례**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도의 철륭오가리, 경상도의 꺼칠용단지, 충청도의 터줏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청단마을에서는 철륭이라고 하여 큰 오가리(단지)를 장광(장독대)에 모시고 이를 '철륭오가리'라고 부르며 위한다. 장독대에서 오가리를 놓는 자리는 깨끗하게 따로 마련하고 오가리 안에는 그해 수확한 첫 나락을 넣어둔다. 뚜껑을 덮은 오가리 주위는 새끼줄로 둘러 막아두고 설, 대보름, 추석에 밥을 해서 철륭오가리 앞에 차리고 철륭공을 드린다. 나락은 매년 새로 갈아 넣는다. 이때 오가리에 있던 기존의 나락은 찧어서 밥을 해 먹는다. 하

지만 이 쌀로 떡을 해 먹지는 않는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철륭오가리의 쌀이 밖으로 나와 흩어져 있다고 한다. 철륭오가리는 장독대 대신 집 뒤꼍에 모시기도 한다. 명절 이외에 철륭공을 별도로 드릴 때는 정화수를 떠다가 접시에 받쳐놓는다. 자손이 없고 매사가 잘 풀리지 않는 집에서 철륭을 특별히 모시기도 한다. 이때는 점쟁이에게 문복(問卜)해서 철륭공을 드리라고 하면 철륭오가리를 마련한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사방굴마을에서는 장광에 터줏가리를 만들어 씌워 모신다. 이렇게 한 것을 '터줏단지' 또는 '터줏대감'이라고 부른다. 터주는 집안의 터를 관리하는 신령으로, 단지 안에는 나락을 넣고 짚으로 터줏가리를 만들어 씌운다. 터줏단지에는 보통 3~5되 분량의 벼를 넣어둔다. 이 벼는 칠월칠석 때 꺼내어 찧어다가 묵은쌀과 섞어 터주에 바친다. 단지는 가을에 타작할 때까지 비워두었다가 햇벼로 갈아 넣는다. 나락을 교체한 뒤에는 터줏가리를 새로 엮어 씌우고 헌 것은 태워 없앤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목현마을에서는 두 개의 단지에 하나는 쌀을 넣고 다른 하나에는 나락을 넣어둔다. 쌀을 넣은 것은 쌀용, 나락을 넣은 것은 꺼칠용이라고 하여 모신다. 쌀용은 집 안에다 모시기 때문에 달리 '안용'이라고도 하며, 부인으로 의인화되어 여성으로 인식한다. 대신 꺼칠용은 뒤꼍이나 굴뚝 아래 등 바깥에 모셔지며, 달리 '터용'이라고도 한다. 꺼칠용은 남편 또는 영감으로 의인화되며, 남성으로 인식된다. 쌀용은 매년 수지 쌀, 꺼칠용은 수지 나락을 각각 갈아 넣는다. 용단지에 제를 지낼 때는 쌀용에 먼저 음식을 올린 뒤에 꺼칠용에게 올린다. 용단지를 모시는 것은 윗대에서부터 전승된 것이기도 하고 현몽이나 점괘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쌀용은 초여름 모내기철에 한 그릇 정도만 남기고 꺼내어 식구끼리 밥을 해 먹기도 한다. 그러나 꺼칠용은 햇곡식을 수확하여 새로 갈 때까지 꺼내지 않는다.

이들 사례는 각기 다른 성격의 기능을 하는 가정신앙이지만 신체는 모두 나락을 봉안한 것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 나락은 해마다 추수 후에 수지 나락으로 교체하며, 교체한 묵은 곡식은 찧어서 집안 식구끼리만 밥을 해먹는 관습이 있다.

**의의** 나락을 넣어 모신 가신의 신체들은 새해 햇곡이 수확될 때까지 보존되었다가 교체된다. 이는 곡물을 성장케 하고 집안 재물의 바탕이 되는 곡물정령의 대표를 보존함으로써 증산(增産)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신앙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락은 씨앗으로서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볍씨 보존은 농업기술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종자의 보존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지 나락은 결실 상태가 특히 좋은 것이다. 이것들을 신체로 봉안하여 소비하지 않고 모신다는 것은 우성종자의 보존을 신앙의 형태로 유지하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비상식량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는 경제적 의미 또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체에 해당하는 봉안된 나락은 신곡(新穀)이 수확되면 교체된다. 이는 가신에게 신곡을 바치는 천신(薦新)의 행위임과 동시에 곡령의 확대재생산을 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곡(舊穀)이 신곡으로 교체됨으로써 곡령의 증식이 보장되는 것은 집안의 번영이나 세대의 확대재생산과 동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곡은 반드시 집안 식구끼리 먹는 관습이 강하다. 이는 곡령이 지니고 있는 신령스러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으로써 복록을 잘 갈무리하고자 한 의도로 여겨진다.

나락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곡령관념과 가정신앙은 다양한 방식의 농경의례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수확 이후에서부터 이듬해의 농사가 시작될 때까지 곡물종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곡령재생의례가 가정신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곡령관념을 드러내는 비교종교학적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곡식에 대한 신성관념과 의례의 의미-농가의 가신 신체로 인식된 곡식을 중심으로**(배영동, 농업사연구 8, 한국농업사학회, 2009), **노적관행론**(남근우, 민속학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1994), **안동지역의 용단지**(김명자, 문화재 26, 문화재관리국, 1993), **오곡 개념의 변천과 중시의 문화적 배경**(배영동,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황금가지**(프레이저, 장병길 역, 삼성출판사, 1990).

**필자** **김재호(金在浩)**





## 나무고사

**정의** 마을 공동체 신앙의 대상인 신목(神木), 동구나무 등 외에 가정신앙의 대상인 특정나무를 신체로 위하는 제의.

**내용** 마을신앙과 달리 가정신앙의 대상이 되는 나무는 각 가정의 개인적인 유래나 사연이 있어서 신앙 대상물이 된 경우이다. 제의는 가정제의와 같이 주부가 주관한다. 주로 봄, 가을에 가정제의를 지낼 때 함께 지낸다. 특별한 경우 나무를 중심으로 제의를 행하기도 한다.

마을 공동으로 위하는 나무인 신목, 동구나무 등은 마을 공동제의 뒤에 개인이 별도로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3리 봉남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집 뒤뜰에 있는 오래된(200년 이상 됨) 참순나무를 '위하는 나무'로 삼고 있다. 집고사를 지낼 때 다른 가신과 함께 위한다. 정월과 시월 고사에는 시루떡으로 제물을 올린다. 칠석에는 다른 가신에게는 밀떡(밀가루 부침개)을 둥글게 부쳐 석 장씩 접시에 담아 올리지만 이 나무에게는 특별히 돼지머리를 제물로 올린다.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은행나무는 1982년 10월 8일 시흥시보호수로 지정됐다.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25m, 가슴높이의 둘레는 3m, 수관직경은 15m이다. 보호 면적은 15㎡이다. 둘레에는 낮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 지역 출신의 강원삼이라는 사람이 외지에서 캐다가 식재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무 옆에서 술장사를 하던 이가 해마다 나무에 고사를 지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너더리마을에서는 마을 회화나무에 고사를 지냈다. 농경사회 시절 너더리마을 주민들이 당산나무인 회화나무에게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내기 위해 정월대보름날 제사를 올렸다. 고사가 끝난 후 마을 주민들은 쌍용거줄다리기 놀이를 하며 화합을 다졌다. 쌍용거줄다리기 놀이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사라졌다가 1980년에 성남문화원에서 복원·재현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사 비용은 집마다 쌀을 갹출하여 충당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쌍용줄다리기보존회가 성남시에서 보조를 받고 마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걷었다. 제물은 마을 남자들이 마련하였다. 제사의 중요한 제물로는 돼지머리를 준비하였다. 가난하던 시절에도 마을에서 가장 좋은 돼지를 잡아 제물로 올렸다. 1980년대 이후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까지 모두 시장에서 구입하였다. 마을 안에 있는 수령 500여 년의 회화나무를 신목(神木)으로 모셨다. 회화나무는 높이 12m, 가슴 높이의 둘레 4.4m, 수관(樹冠) 너비 15m이다. 중심가지가 곧게 올라가다가 원줄기 아래로부터 2.3m 부위에서 갈라지기 시작하여 위로 뻗어 있다. 중간 부분에 가지와 잎이 적어 멀리서 보면 2층 구조로 보이기도 한다.

제의 절차는 마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를 제관으로 골라 선출하였다. 제관으로 뽑힌 이는 당분간 집밖에 나가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였다.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안쪽 길에 쌍룡(雙龍)의 용두를 맞대어 놓고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회화나무 앞에서 제를 올렸다. 축문을 읽고 소지한 뒤 고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술과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부정을 타거나 나쁜 일이 있는 이들은 고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경기도의 마을신당과 제당**(김지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논곡동은행나무**(디지털 성남문화대전, Seongnam.grandculture.net).

**필자** **김지욱(金志昱)**

## 나이떡

표제어 섬떡(307쪽)

# 낙인고사(烙印告祀)

참조항목 귀표고사(79쪽)

**정의** 소나 말의 엉덩이에 개인이나 마을의 소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낙인을 찍는 날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지내는 고사. 제주도지역에서는 봄이 되면 한라산에 마소를 풀어 놓아 기르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집에서 기르는 목축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방목(放牧)'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는 한라산에 방목하는 마소를 거둘 때 마소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였다.

**유래** 제주도는 한라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해변으로 이어져 산허리인 중산간지대는 광활한 목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반농·반목축의 경제생활을 하였다. 이 지역은 예부터 마소를 방목하기에 적합한 목초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사에도 호양우돈(好養牛豚)하였다고 했다. 『영주지(瀛洲誌)』에 실려있는 탐라국 건국시조 신화인 삼성신화에도 식파오곡차목구독(植播五穀且牧駒犢)하여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는 목축이 오래전부터 제주인의 주요 생업이 되어 왔음을 증거한다.

1276년(충렬왕 2) 7월에 초토사(招討司)를 군민총관부(軍民摠管府)라 고치고 탐라치[塔剌赤]를 다루가치로 삼아 보내었다. 그리고 말 160마리를 몰고 와서 수산평(首山坪, 지금의 성산읍 수산리)에 방목하였다. 이것이 목마장의 시초였다고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목장은 조선시대에는 전국 53곳에 국영목장을 설치하고 점차 제도화하였다.

1429년(세종 11)에 제주 출신 고득종(高得宗)의 건의에 따라 목마장을 한라산 산록으로 옮기어 축장(築場, 잣성)하게 되었다. 이때 목마장을 10소장(所場)으로 나누었다. 1소장에서 6소장까지는 제주목, 7·8소장은 대정현, 9·10소장은 정의현에 각각 속하였다. 목장관리 총책임자는 제주목사이다. 제주판관, 정의현감은 감목관직을 겸임하였다. 감목관 밑에는 목장관리 책임자로 마감(馬監)과 우감(牛監)이 있었다. 그 밑으로는 군두(群頭)·군부(群副), 맨 밑에는 우마 사육을 직접 담당하는 테우리[牧者]가 각각 있었다. 군두는 테우리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로 임명하였다. 50마리를 둔마(屯馬) 단위로 하여 두 명의 테우리가 사육을 책임졌다. 각 둔마의 구별은 천자문 글자를 낙인(烙印)으로 사용하였다. 제주목에서는 38자, 정의현에서는 17자, 대정현에서는 3자를 각각 사용하였다. "마둔은 매우 많아 천지현황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둔의 이름을 삼았다."라는 제주풍토기의 기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국영목장에서는 암말 100마리와 수말 15마리를 하나의 생산조직으로 하여 여러 자목장으로 세분화하였다. 자목장별로 가축에게 천지현황 등 천자문으로 낙인하여 마소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분실을 예방한 것이다.

민가의 마소들도 우마적에 올려 사사로이 도축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했다. 이때도 관에서는 낙인을 하여 기록 관리하였다. 또한 목야지에서 방목 위주로 가축을 키우다 보면 가축들은 풀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번식기 또는 발정기에는 짝을 찾아 다른 목장까지 침범하거나 먼 곳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자기 마소를 찾고 소유를 분명히 하는 방법으로 낙인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내용** **테우리와 방목** '테우리'는 목자 또는 목동의 제주어이다. 테우리는 마소를 관리하는 일 이외에 조밭을 밟는 일과 '바령팟'을 만드는 일 등을 하였다. 단오를 넘기고 보리를 거두어들인 밭을 갈아엎고 조씨를 뿌린다. 이때 씨앗이 땅에 잘 심어지라고 말떼를 밭에 몰아넣어 씨를 뿌린 밭을 밟게 되는데 이를 '조밭 밟기'라 한다. 말떼를 잘 부리는 노련한 테우리일수록 좁은 밭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밟도록 말떼를 몰 수 있다. 테우리는 말떼를 부리는 한 방법으로 구성지게 소리를 한다. 이를 '밧 볼리는 소리(밭 밟는 소리)'라고 한다. 말을 몰아가며 노래하는 과정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띤다. 보리 경작이 잘되게 하려고 밤에 마소떼를 밭 안에 몰아넣어 그 분뇨를 받아 거름이 되게 하였다. 이를 '바령한다[糞田之道]'라고 하고, 이런 밭을 '바령팟'이라 하였다.

**곶몰·곶쉐[野馬野牛]** 테우리의 기량은 마소를 잘 몰고 다루는 것과 함께 풀어놓아 기르는 마소를 밧줄로 걸어 묶어 잡아들이는 특수한 기량도 있어야 한다. 이런 기량의 소유자만이 곶몰·곶쉐를 다루는 종년방목을 말한다. 음력 10월 상사일(上巳日)에는 소에 귀표[耳標]를 한다. 이때가 되면 소 임자(둔주)들은 새 곡식으로 '산듸돌레떡(밭벼로 둥그렇게 만든 떡)'나 '조오매기떡(좁쌀로 만든 떡)'을 만들어 제물을 차려 놓고 제를 지낸다. 이를 '귀표ᄀᆞ사'라고 한다. '귀표ᄀᆞ사'는 '방둥ᄀᆞ사'라고도 한다. 이 고사에는 '우마를 지금부터 간수하니 곡식밭을 주의하라'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 '귀표를 한다는 것'은 금승 송아지의 귀 한 부분을 도려내고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도려낸 귀 한 부분은 구워서 '귀표ᄀᆞ사'의 제물로 쓴다. 송아지 엉덩이에 찍는 글자는 마을 단위로 새긴다. 마을에서는 집안마다 달리하여 구분한다. 이는 산에 우마를 놓아 'ᄆᆞ쉬를 ᄀᆞ꾼다(우마를 방목한다)'하더라도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귀표'를 한 번 낙인으로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부득이한 일로 새 낙인으로 갈아야 할 경우에는 장인(匠人, 낙인을 만드는 사람)에게 삯으로 반드시 무명 한 필을 주어야 만들어 준다고 한다. 옛날에는 낙인 만드는 일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서 새 낙인을 만들려면 관가에 원문을 첨부해 청원했고 낙점(승낙)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낙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귀표ᄀᆞ사(방둥ᄀᆞ사)'가 끝나면, 마소가 곡식밭에 들어가 남의 곡식을 먹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낙인은 짚신에 썩은 오줌을 묻혀서 닦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낙인을 찍는 부위는 대부분 대퇴부이다. 간혹 귀에 할 때도 있다. 표의 형은 각양각색이지만 자연촌 단위로 되어있다. 그 마을 안의 동성집단, 특히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기동(水基洞)의 포인(勹印), 대흘리 하늘촌의 복인(卜印), 교래리 대인(大印)은 우마가 통통하게 살찌도록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동성집단의 표는 마을의 표와 함께 예를 들어 '대(大)', '인(卩)'처럼 차용된다. 말에는 대체로 귀를 자르는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로는 표를 차용하기도 한다.

새로 태어난 새끼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일은 엉덩이에 낙인을 찍거나 귀표를 해 놓는 방법을 택하였다. 낙인은 무쇠로 자기의 성이나 정해진 약자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불에 달구어서 짐승의 네 발을 묶고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를 지진다. 한 예로 성산읍 고성리





낙인
제주교육박물관
2005.12.16
문무병

**낙인(烙印)과 귀표고사** 낙인은 불에 달구어 물건에 찍는 쇠도장이나 구리도장이다. 방목 가축에다 낙인을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대가축인 소나 말의 개체 표시를 하기 위해 몸의 어느 부위에 표시기로 찍는다. 말에는 엉덩이의 바깥쪽에, 소에는 뿔 또는 발굽에 생산지·생산자·등록번호 등을 불에 달궈 낙인으로 찍는다. 소의 몸통에 찍지 않는 것은 가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낙인은 보통 망아지나 송아지 때인 '금승[今生, 한살]'에 실시하였다. 이는 비교적 보정하기가 쉽고 조기에 하는 것이 가축 분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장인들이 쇠로 글자 또는 특정 표시를 새기면 불에 달구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지졌다. 이 표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게 된다. 보통 엉덩이 대퇴부에 많이 했다. 귀나 다른 신체 부위에 하는 경우도 있었다.

'ᄆᆞ쉬귀패[馬牛耳標]'는 마소의 귀에 표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소와 말의 대량 사육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사람 손이 덜 드는 자연방목을 강구하였다. 이것이 '곶몰·곶쉐'이다. 일 년 내내 우마를 산에 놓아 방목하는 것을 종년방목, 산에 올린 소를 '산몰·산쉐' 또는 '곶몰·곶쉐'라고 하였다.

의 경우 '을(乙)'자, 이 마을 홍씨 집안에선 '토(土)'자, 오씨 집에선 '복(卜)'자 낙인을 찍었다.

귀를 자르거나 표시하고 숫자가 새겨진 니켈로 귀표하는 방법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다. 니켈 방법에서는 귀를 'V'자나 'W'자로 잘라내었으며, 보통 10월 첫 자일(子日)에 제를 지낸 다음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낙인찍는 작업은 비단 새끼에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곶ᄆᆞᆯ·곶쉐'뿐만 아니라 한라산이나 목장에 풀어 놓기 위해 다 자란 소들까지도 낙인을 찍었다.

지역사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는 낙인으로 'ㄱ'자를 많이 사용했다. 그다음은 '우(又)'자를 사용하였다. 지금도 그 낙인을 쓴다. 마을목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와 하도리의 소를 구분하려면 낙인이 있어야 하였다. 봄에 소를 풀어 목장에 놓으려면 낙인을 해야 한다. 몇 개월이 지나면 송아지가 자라기 때문에 각자의 소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소의 색깔은 일년에 네 번 바뀌기 때문에 낙인을 해 놓지 않으면 자신의 소를 알아볼 수가 없다. 낙인은 양력 5월에 한다. 낙인을 지질 때 간단하게 술과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는 성씨마다 낙인 표시가 다르다. 양씨는 '품(品)'자, 김씨는 '읍(邑)'자, 오씨는 '본(本)'자, 고씨는 '凹'자를 썼다. 이곳에서는 낙인하는 것을 '낙인 지르기', '낙인 놓기', '낙인 주기'라 한다. 귀표를 함에 있어서도 집안마다 다르다. 양씨는 머리카락 끝을 잘랐다. 오씨는 귀를 위아래 두 개로 잘랐다. 그리고 김씨는 귀 끝을 두 개로 쨌다.

성산읍 고성리에서는 10월 첫 자일(子日)에 제를 지내고 귀에다 표를 한다. 방목을 하기 때문에 고성리 우마를 구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고성리는 그때 '사(巳)'자 낙인을 찍었고, 홍씨 댁에선 '토(土)'자, 오씨 댁에선 '복(卜)'자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귀에는 'V'자나 'W'식으로 잘라내었다.

영덩이에 낙인찍는 날은 10월 들어서 첫 쥐날[子日]에 한다. 우적(牛籍)과 같은 것이다. '사(巳)'자가 찍힌 고성리의 소가 다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서는 고성리로 소를 돌려보냈다. 제주시 봉개동에서는 여름에 마소를 산에다 부리는 집에서 산으로 가기 전에 밭벼밭을 밟을 때 마소를 몰고 가서 낙인을 하였다. 말 100여 마리를 밭에 몰아다 놓고 큰 말도 다 눕혀서 낙인을 한다. 100마리가 넘는 말에 낙인을 하고 난 뒤 술과 하얀 쌀밥을 올려 제를 올렸다.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에 있는 홍씨 집안에서는 '사(巳)'자를 썼다. 낙인을 찍는 것도 기술이다. 소를 눌러서 발을 묶은 다음 낙인을 찍는다. 말은 눕혀서 꼬리를 잡고 낙인을 찍는다. 낙인을 할 때 불을 달궈 너무 지지면 살이 타고 위험하기 때문에 낙인찍을 곳에 살짝 대어 가죽만 타게 한다. 낙인고사는 간단히 하지만 시루떡도 장만하고 귀표하면서 자른 고기도 구워 먹는다.

귀표하고 낙인할 때 귀 자르는 방법도 마을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귀를 자른 것은 제주시 소, 왼쪽 귀를 자른 것은 남군 소라는 식으로 구분하였다.

낙인은 보통 소를 방목하기 위해 산에 올리는 봄에 하지만 가을에 하는 사람도 있다. 가을에 찍은 낙인은 선명하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봄에 한 낙인은 잘 보이지 않아 가을에 다시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瀛洲誌**, **耽羅志**, **濟州風土記**, **남국의 민속-제주도 무속**(진성기, 교학사, 1975), **제주도지 7**(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의 마을**(오성찬 외, 반석출판사, 2002), **제주의 민속 2**(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8), **한국민속대사전 1**(민속문화사, 1991).

**필자** 문무병(文武秉)

## 넋들임

정의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 넋이 나갔다고 판단하고 빠져나간 넋을 찾아 원래의 신체에 다시 들여 넣어 치료하는 제주도지역의 치병의례.

내용 넋들임은 넋을 들인다는 말이다. 사람은 신체와 넋을 모두 갖추어야 온전하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깜짝 놀랐을 때는 신체에 있는 넋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병을 얻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이탈한 넋을 찾아 다시 원래의 신체에 들여놓아야 병을 치료하고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다. 넋들



넋들임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08.10.26, 강소전

임은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빠져나간 넋을 불러들여 회복시키는 치병의례이다.

넋이 신체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대개 사고를 당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해당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넘어졌을 때,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범상치 않은 무언가에 맞닥뜨렸을 때 넋이 나간다. 또 바다에 빠졌거나 큰불에 놀랐을 때,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당하였을 때도 넋이 빠져나갔다고 여긴다.

넋이 나가면 사람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식욕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깜짝깜짝 놀라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심신이 나빠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여 틀림없이 넋이 나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넋들임을 할 생각에 이른다.

넋들임은 넋이 나간 일을 당하고 난 뒤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장소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다에서 넋이 나가면 그 바다에 찾아가 넋을 들이고, 자동차 사고라면 당시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찾는다. 하지만 해당 현장을 찾는 일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라면 그 근처나 당사자의 집에서 한다. 시간이 오래 흘러 언제 어디서 넋이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집이나 마을의 본향당 등에서 넋들임을 하기도 한다.

넋이 나가는 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열다섯 이전의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 아이들은 아직 넋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하면 쉽게 빠져나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수차례 넋들임을 하게 된다.

넋들임은 대개 심방이 행하는 무속의례이다. 다만 의례를 누가 진행하며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넋들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일반인, 산파 역할을 하는 삼싱할망, 심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어린아

이를 대동하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응급처치와 같은 것이다. 아이가 갑자기 놀랐을 때 어머니가 순발력 있게 그 즉시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부르며 넋이 들라고 말한다. 그런 뒤에 물을 떠 와서 아이에게 세 모금을 먹이고, 손에 물을 적셔 아이의 정수리를 몇 번 가볍게 두드려 준다.

삼싱할망이나 심방은 전문적인 기능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삼싱할망은 출산과 육아에 특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이로, 보통 한 마을에 함께 살면서 동네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조력과 비념을 해 준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가정에서는 삼싱할망에게 넋들임을 하여 줄 것을 청한다. 이에 삼싱할망은 간단한 비념 형식의 넋들임을 해 준다.

심방은 무속의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로, 심방 역시 한 마을에 살면서 마을 주민들의 넋들임을 하게 된다. 심방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비념이나 굿의 형식을 택하여 넋들임을 한다. 삼싱할망이 대개 어린아이를 상대로 간단한 비념을 하는 것이라면 심방은 그보다 넓은 대상을 두고 무속의례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의례를 집행하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넋이 나가는 일이 생기면 일단 가정에서 응급으로 한 뒤에 상황을 보아 가며 심방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다.

심방이 넋들임을 진행하는 규모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비념으로 하는 경우와 굿의 형식을 갖추어 제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후자는 환자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행해진다.

비념 형식의 넋들임은 평복 차림의 심방 한 명이 '말명(사설)'만으로 진행한다. 무악기의 연주와 춤이 없이 기원하는 무가만으로 이루어진다. 제물도 쌀 한 그릇, 물 한 그릇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여기에 환자의 상의(上衣) 한 벌을 준비한다. 원칙적으로는 넋이 나간 장소에 찾아가서 한다. 처음에는 넋들임을 하는 연유를 말한다. 그러고는 환자의 상의를 손에 들고 넋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고, 그 상의를 환자의 머리 정수리에 가져다 대고 "어마 넉들라. 호오—." 하며 숨을 불어넣어 넋을 들이는 행동을 세 번 한다. 이어 환자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이때마다 환자는 "예." 하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에 심방은 환자에게 물(넋물)을 세 모금 먹이면서 기원한다. 이때 '넉새ᄃᆞ림'을 해서 넋이 나갔을 때 혹시 따라붙은 부정을 없애 준다. 마지막에 쌀을 이용하여 제비점을 보아 운수를 판단하여 준다.

굿 형식으로 하는 넋들임은 환자의 상태가 비념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된다. 넋이 나간 상태가 심각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겹쳐 있어 더욱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다. 비념으로 할 때보다 제장과 제물 차림이 더 커지게 된다. 심방도 4~5명이 필요하며, 무악기가 연주됨으로써 시간도 자연히 오래 걸린다. 제차는 초감제를 먼저 한다. 초감제는 '베포도업침-날과 국섬김-연유닦음-군문열림-새ᄃᆞ림-오리정신청궤'의 순서로 이어진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연유로 인해 굿을 하는지 알리고 신들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신들을 대접하고 기원하는 '추물공연'을 한다. 그 뒤에 본격적인 넋들임이 이어진다. 향로, 물그릇, 환자의 상의를 이용하여 환자의 머리 위로 돌리며 세 번에 걸쳐 넋을 들이는 행동을 한다. 넋은 환자의 머리 정수리로 들여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심방은 환자의 정수리로 숨을 불어넣는 행동을 한다. 이어서 '넉새ᄃᆞ림'을 한다. 여기에 잡귀들을 쫓는 '잡귀풀이'를 추가한다. 마지막에는 '도진'을 하여 신들을 돌려보낸다. 굿 형식의 넋들임 역시 비념으로 하는 넋들임과 내용은 같지만 제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징** 제주도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여 크게 놀라면 반드시 넋들임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특히 태어나서 15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 시기에는 불안정하여 넋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 각별히 신경을 썼다. 성인이 되어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면 반드시 넋들임은 하고 넘어간다. 넋들임은 한 개인과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제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보편적인 의례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강정식 · 강소전 · 송정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강소전(姜昭全)**



## 노구솥

표제어 새옹(295쪽)

## 논고사

표제어 농사고사(98쪽)

## 논둑제

상호참조 농사고사(98쪽), 농신제(101쪽)

**정의** 유월유두 무렵에 구렁이 또는 뱀 등 짐승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강둑이나 논둑이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내는 고사.

**내용** 유월유두에는 벼가 어느 정도 자란 시기이므로 쥐, 들짐승, 뱀, 해충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를 지역에 따라 '논둑제', '둑직이제', '용신제', '유두고사'라고도 부른다.

황해도 연백지역에서는 구렁이를 둑직이라고 불렀다. 둑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도깨비나 구렁이가 해코지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잘 달래주어야 한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주로 이를 '용신제', '용제', '논꼬'라고 부른다. 유두에 지내는 고사이기 때문에 '유두고사'라고 한다. 제일(祭日)은 유두 때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경남지역에서는 칠석이나 백중에 지내기도 한다. 경북 경주지역에서는 초복에 많이 지낸다. 중복 이전에는 하지 않는다. 충남 태안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 무렵에 '둑제'를 지내기도 한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논 주인집의 남자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집 머슴이 제를 지내기도 한다. 제장(祭場)은 평소 논둑이 잘 무너지는 곳 또는 논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된다. 제물은 주인집 주부가 주로 밀떡, 과일 등을 직접 장만한다. 그러나 진설은 제를 주관하는 남자가 직접 제물을 지고 논둑에 와서 한다. 특히 경상도지역에서는 제장에 나무 막대기를 세워 놓고 그 위에 밀떡을 꽂아놓는다. 밀개떡을 기름에 부쳐서 기름 냄새가 멀리 퍼져야 농사를 잘 된다고 여긴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주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용신님네! 우리 농사지어 놓은 것 짐승들이 못 뜯어 먹게 하고, 뱀이 논둑에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면서 절을 한다. 논둑제를 지낸 제물은 그곳에서 모두 나누어 먹는다.

한편 경북 경주지역에서는 복날에 용제를 지낸다. 보통 중복 이전에 지낸다. 용제는 못, 논, 참외밭에서 지낸다. 참외밭에는 국수를 가져다 두기도 한다. 이는 참외줄기가 국수처럼 길게 뻗으라는 의미이다.

**지역사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에서는 잘 무너지는 논두렁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이를 논두렁고사 또는 도깨비고사라고 부른다. 고사 시루로는 찰떡 시루를 장만한다. 논둑이 찰떡처럼 질기고 단단해져서 무너지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런 뜻에서 이 시루를 '논시루' 또는 '논두렁시루'라고도 부른다.

주부는 시루에 콩과 팥을 넣고 찹쌀로 찰떡을 한 켜 쪄서 시루째 술과 함께 남편에게 내준다. 남편은 이것을 지게에 지고 자기 논에 가지고 가서 시루 안에 술을 한 잔 붓는다. 이 시루를 자주 무너지는 논두렁 부근에 가져다 놓고 "논두렁 터지지 말고 일 년 열두 달 다 잘되게 해 달라!"라고 기원하면서 절을 한다. 가지고 간 떡은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먹고 와야 한다. 논두렁 시루를 내보낸 주부는 '볏섬'을 만든다고 하여 송편을 크게 만들어 벼가마 위에 얹어 두고 "천석만 주세요, 만석만 주세요."라고 축원한다.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에서는 과거에 유두나 칠석, 백중에 '논꼬'를 하였다. 논꼬는 '논고사'라고도 부른다. 이는 논두렁이 무너지지 말고 비도 잘 내려서 농사가 잘되라는 의미이다. 논고사는 아침 일찍 남자들이 제물을 지게에 지고 논에 가서 지낸다. 모를 심어 놓은 수통 입구(논에 물이 들어오는 입구)에 지릅대(겨릅대)를 가져다가 물꼬에 꽂아 놓고 송편이나 밀떡을 켜켜이 꽂는다. 그리고 "농사 잘 되게 해 주시오!"라고 빈다. 논꼬를 할 때 올려놓은 떡은 꼴 베는 사람이 주로 먹었다.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에서는 유두날 낮에 남자들이 자신의 논에 물이 내려오는 곳에 가서 밀개떡을 막대기에 꽂아 놓고 온다. 이를 '용신제', '논고시'라고도

한다. 용신제는 그해 심은 나락에 잡스러운 동물들이 침범하는 것과 뱀이 다니면서 논두렁에 구멍을 뚫고 다니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의미로 지내는 것이다. 용신제를 잘 지내지 않으면 논의 물이 술술 빠진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물꼬에 음식을 차려 놓고 "용신님네, 올해도 탈 없이 농사가 잘되게 해 주십사." 라고 세 번 들먹이면서 절을 한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그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는 용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들먹였다가는 되레 탈이 난다고 여긴다. 용신제에 올리는 제물은 집집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밀개떡, 명태, 술 등이다. 주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머슴들을 시켜서 용신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 농사고사(農事告祀)

상호참조 논둑제(97쪽), 농신제(101쪽)

**정의** 농가에서 풍농을 위해 비는 고사 형식의 간략한 제의나 비손. 농사고사는 풍농을 기원하는 다양한 고사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에는 농신제(農神祭), 논고사, 보제(洑祭), 용제(龍祭), 상달고사, 보름고사, 농사밥먹기, 농사밥먹이기 등이 포함된다. 명칭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역사** 농사가 풍년 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다. 특히 적절한 비, 기온, 바람 등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농사의 기후 조건은 인력으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부터 종교주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농사고사는 농사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농사의 필요성과 풍농의 기대가 클수록 농사고사에 대한 의존도 크고 농사고사의 전승도 더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시대 후기에 수도(水稻)재배기술이 발달함과 더불어 벼농사가 일반화되면서 벼를 재배하는 논에서 풍농을 기원하는 논고사를 지낸다거나, 모심기를 비롯한 벼의 재배와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 물꼬를 틀 때 수신(水神)인 용(龍)에게 제를 올리는 의례행위 등은 모두 농업사와 농사고사의 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민간에 전승되던 다양한 방식과 종류의 농사고사는 현대의 영농 과학화나 기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 미신으로 치부되어 전승이 단절되고 사라져서 농사고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 등을 제대로 논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궁중과 민간의 내농작(內農作),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민간의 각종 고사, 작물의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행하던 고사, 추수 후의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던 천신(薦新) 의례나 수확의례 등은 모두 풍농의 기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사고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농사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수확 이후까지 다양한 방식의 농사고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형태** 고사(告祀)는 제의의 주체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특정 신령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제의양식은 간결하다는 데 있다. 농사고사 역시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고사로서 간단한 제물과 간략한 절차의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농사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농사준비기, 작물성장기, 수확 후에 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사준비기에 행하는 농사고사로는 정월대보름 시기에 행하는 각종 내농작과 모의농경의례, 다양한 가신(家神)에게 드리는 고사들을 넓은 범주에서 포함할 수 있다. 작물성장기에 행하는 농사고사로는 볍씨를 뿌려 못자리를 만들고 난 후 볍씨가 잘 발아되기를 뜻에서 찰떡을 못자리 논머리에 갖다 두거나 이웃 간에 나누어 먹기, 모내기 하는 날 모가 잘 자라기를 비손하기, 유월 유두고사를 비롯하여 물을 대는 보(洑)머리에서 지내는 보제(洑祭) 또는 용제,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논고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확 후에 지내는 농사고사로는 첫 수확한 벼를 찧어서 조상들께 고하고 음덕에 감사하는 올벼심리를 비롯하여 시월 상달고사 등을 들 수 있다. 수확 후의 농사고사는 주로 천신의례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농사고사의 대상신에 따라 분류하면 불특정의 절대신이나 천신(天神) 또는 가신,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 또는 용신(龍神), 돌아가신 선조들인 조상신 등이 있다. 불특정의 절대신이나 천신을 비롯한 가신을 대상신으로 하는 농사고사에는 정초에 행하는 다양한 고사나 수확 후 시월상달에 행하는 고사들이 이에 속한다. 물을 관장하는 수신이나 용신을 대상 신으로 하는 농사고사에는 논고사나 용제 등 벼농사와 관련한 고사들이 있다. 조상신을 대상 신으로 하는 것에는 올벼심리가 대표적이다.

셋째 농사고사를 지내는 장소에 따라서는 집 안에서 행하는 고사와 농사행위가 이루어지는 논 또는 들의 경작지에서 직접 행하는 고사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농사준비기와 수확 이후에 행하는 농사고사들은 집안에서 행하며, 농사철이나 작물성장기에 행하는 것들은 경작지나 해당 장소에서 곧바로 지낸다.

이밖에도 농사고사를 지내는 제의 주체에 따라 남성 중심의 고사와 여성 중심의 고사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제의방식에 따라 제사 방식, 비손 방식, 간략한 헌식(獻食)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내용** 농사고사는 대체로 제의시기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 바로 농사 시기와 관련된다. 정초를 비롯한 농사준비기에는 한 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양상이 다소 추상적이다. 이에 따라 기후의 우순풍조를 비는 형식이나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농점(農占)의 양상이 강하다. 이에 반해 농사철에 임박하여 지내는 것, 농사 준비를 일정 부분 마친 상태에서 지내는 것, 작물성장기에 행하는 농사고사들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다. 농사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 또는 대상신이 명확하다. 수확 후에 지내는 것은 다시 추상적으로 바뀐다. 이는 한 해 농사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농사고사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한 농사철에 행하는 것을 대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김택규가 발표한 경북 안동지역의 용제를 살펴보면 농신은 '용왕님', 제사 장소이자 신이 강림하는 강신처는 논 가운데에 세운 버들가지이다. 이 버들가지에는 몇 가지 폐속(幣束)을 달았다고 한다. 같은 경북지역이지만 칠곡에서는 송편을 해서 물꼬에 진설한 뒤 제사한다. 경주에서는 모 심을 논에 떡을 해서 뿌린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경남 산청에서는 논 가운데에 삼대[麻幹] 세 가닥을 교차시켜 세워서 그 위에 떡을 바치고 삿갓과 도롱이를 걸쳐놓은 다음에 제를 지낸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솔가지 세 가닥을 묶어 삼발이를 만들어 논에 세우고 그 위에 그릇을 받쳐서 떡을 올리기도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떡, 술, 생선, 나물 등을 제물로 하여 논이나 논두렁에 바쳤다. 주인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삿갓과 도롱이를 쓰고 재앙이 들지 않기를 빌었다. 제를 마치면 떡 두서너 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음복한 예도 흔했다고 한다. 날씨가 맑은 상태라 하더라도 고사를 올릴 때 반드시 삿갓과 도롱이를 쓰는 것은 논농사에 비가 풍부하기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제는 농신제의 일종이다. 호남지역에서는 용신제(龍神祭)라고도 하며, 주로 수도 재배지역인 충청도 이남 지역에서 많이 전승되던 농사고사이다.

**특징** 농사고사는 구체적인 제사 형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는 농사고사의 전승이 다양한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해 약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못자리를 마련한 뒤에 찰떡을 준비하여 지내던 논고사는 못자리 하는 날 찰떡을 해 먹는 풍습 정도로 변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습마저도 사라졌다. 농사시기에 이루어지는 제사 형식을 띤 농사고사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특정 농사와 관련하여 고유 음식을 해 먹는 풍습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못자리에는 찰떡, 모심기에는 필모떡, 용제에는 송편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특정 신에게 풍농을 비는 고사인 만큼 대상신에 대한 헌식의 절차가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제사보다는 음식 나누어 먹기와 헌식 등의 풍습만 남아 있는 형태로 전승이 변화한 사례가 많다. 셋째 삿갓 쓰고 도롱이 입기, 논에 떡을 던지거나 대를 만들어 걸어 두는 등 유감 주술적 차원의 풍농 기원 행위가 많이 행해진다. 이는 인간이 갖는 기술과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범주의 기원에 해당한다. 넷째 농사의 주요한 과정상의 단계를 매듭짓는 성격이 강하다. 이는 농사시기와 농사고사의 관련성을 살필 때 명확

해진다. 다섯째 정해진 제의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별 또는 제의주체별로 제의 양상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특정 농사일을 무사히 마쳤다는 농사시필(農事始畢)의 의미와 풍농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 고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의 자체를 대외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행하는 데서 비롯한다.

**지역사례** 농사고사의 방식이나 양상을 지역별로 유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오늘날 농사고사의 전승이 대부분 단절되고, 농사고사 자체가 농가 단위별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고된 지역사례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없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사례는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 행한 농사고사에 해당한다. 제의 시기는 눈이 녹고 농사일을 시작할 무렵인 음력 이월 그믐에서 삼월 초승 무렵이다. 제의 장소는 경작지인 논이나 밭이다. 이곳에서는 밭갈이를 하기 전인 봄철에 농사고사를 올린다. 논이나 밭에 나가 직접 메를 지어 올려서 치성을 드린다. 이러한 농사고사는 모든 집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제의 방식은 논이나 밭에 메밀가루, 쌀, 소두방(솥뚜껑)을 가지고 가서 메밀가루로 지짐이(부침개)를 부치고, 쌀로 메를 지어 올린다. 그리고 깨끗한 샘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일 년 농사 잘 되게 해 달라."라고 정성을 들인다. 소두방은 불을 때서 지짐이를 부치는 야외용 프라이팬이었다. 준비한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 뒤에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 주변에 던져 놓는다. 나머지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식구들이 먹는다. 이 사례는 명확한 대상신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물을 조금씩 떼어 던지는 것으로 헌식을 대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떡과 밥 세 그릇을 준비하여 논에서 구렁이를 위해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정월대보름날에 '농사밥'이라고 하여 콩, 팥, 찹쌀을 넣은 잡곡밥을 하여 성주 앞에 차리는 경우도 있다.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농사시루'라고 하여 시루떡을 쪄서 집안의 가신들에게 올리면서 한 해 풍년 들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에서는 화전(火田)지역의 사례로서 파종작업을 마친 뒤에 농사고사를 지낸다. 화전을 일구어 골을 타서 씨를 뿌린 다음 택일하여 제사를 지낸다. 택일은 '문복(問卜)쟁이'에게 가서 한다. 제물로는 메, 포, 술을 사용한다. 고사를 올릴 때는 비손도 함께 한다. "산신령님, 착실히 희망하고 모년생(某年生)이 금 메 정성 세 메를 올리오니 이 곡식이 많고 대풍년이 되도록 축수합니다."라고 기원한다. 이는 밭농사지역의 파종의례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산신을 대상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는 논농사지역의 사례로서 농사의 주요한 단계에서 행하는 고사들이 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못자리를 한 날에는 찰밥을 해서 먹는다. 이는 모가 잘 서라는 바람에서이다. 이후 모내기를 끝내고 필모떡을 해서 먹는다. 이유는 모내기를 잘 마쳤다는 것이며, 모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초복에는 '용지(용제)'를 올린다. 용지는 벼가 잘 자란 논 한복판에서 지낸다. 제사는 버드나무를 꺾어 그 위에 배추나 미나리로 채소전을 부쳐 꽂아 두고 지낸다. 이때의 버드나무를 '용지대'라고 한다. 제사를 지낸 뒤 음식은 일꾼의 몫으로 그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다. 시월상달에는 팥 시루떡을 해서 성주고사를 지낸다. 이때 성주 옷을 갈아입히며, 햇곡식이 나면 용단지 안의 쌀을 바꾼다. 용단지에 넣는 쌀은 가장 먼저 찧은 것으로 한다. 이것은 가신들에 대한 천신의 의미이다.

**의의** 농사고사는 농사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농경문화의 전통이다. 고사라는 의식을 통해 전통사회가 지니는 농업 기술적 한계를 종교 주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농사가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해 다른 세시의례나 풍속과도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농경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전통적 신앙이나 종교 관념들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참고문헌** **예천군지**(예천군, 200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재호(金在浩)**



## 농신제(農神祭)

상호참조 논둑제(97쪽), 농사고사(98쪽), 유두고사(537쪽)

**정의**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고사. 음력 4월부터 못자리를 내거나 모내기를 한 뒤 또는 유두 · 삼복 · 칠석을 전후하여 농업용 물의 안정적인 공급, 각종 병충해를 비롯해 새나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떡 등 여러 제수(祭需)를 준비하여 지낸다.

**내용** 한 해 농사의 풍년을 희구하는 농신제는 모시는 신령과 제사 장소를 달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다. 농신제는 지역이나 절기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나 목적 또한 다양하다.

음력 4월 중에 못자리를 만들거나 모내기를 할 때 농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제사를 철원 · 영양 · 예천 · 보령 · 청양 · 옥천 · 합천 등 지역에서 지냈다. 이들 제사의 명칭은 못자리고사, 농사고사, 용지(용제), 용신제, 모밥내가기이다. 이들 명칭은 다양하나 논에 심은 모가 잘 자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낸 제사이다.

6월에는 유두, 초복, 중복이 있다. 이때는 농한기이자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때 농신제는 농작물 관리와 풍농에 대한 희구를 담아 지낸다. 이와 관련한 제사 명칭은 용신제, 농신제, 밭제, 유두지(유두제), 유두고사, 용지(용제), 농사고사, 논고사, 논꼬, 논

**농신제(복제)**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반천리, 1999, 코리아루트



농신제 제물 준비



대 꽂기



농신제 제물과 대



재배

**농신제(복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1996, 코리아루트



1. 농신제 제물 준비



2. 농신제 제물 진설



3. 대나무에 한지를 묶어 만든 대



4. 헌식



6. 밭에 세워진 대



5. 농신제 지낼 밭에 대 꽂기



7. 헌식



꼬시, 제석할망제, 논멕이기, 삼복고사, 복제, 복제사, 참외제, 참외심리, 오이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7월에는 칠석날을 전후하여 농신제를 지낸다. 이와 관련한 제사는 칠성기도, 칠석고사, 칠성고사, 용지(용제), 농신제, 용신제 등이다.

이들 제사 명칭과 제의 내용을 보면 함경도와 강원도 산간, 제주도지역에서는 밭제의 비중이 높았다. 영남과 호남지방에서는 비록 명칭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충청도와 경기도지역에서는 참외밭제를 지내는 곳이 비교적 많다.

음력 4월은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전후하여 제사를 지내는 사례들이 있다. 모내기를 하기 전에 마을 서낭님이나 집안 성주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여 모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거나, 못둑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를 강원도 철원지역에서는 못자리고사, 충청도 보령 · 청양지역에서는 모밥내가기, 경북 영양지역에서는 농사고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많은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마친 뒤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논둑이나 논의 물꼬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를 경북 예천지역에서는 용지(용제), 충북 옥천지역에서는 못자리고사, 경남 합천지역에서는 용신제라고 한다. 벼농사의 풍흉은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을 관장하는 용신을 위하고, 제사 장소 또한 논의 물꼬에서 지내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음력 6월은 긴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농작물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하면서 보리나 밀 등 밭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이다. 유두와 초복 · 중복이 이어지는 이때 마지막 모내기를 하거나 김매기를 한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 각종 작물이 잘 자란다. 참외나 오이, 수박 등 여름 과일이나 밭작물이 결실을 맺는 때이기도 하다. 충남지역에서는 흔히 초복에는 벼가 한 마디, 중복에는 두 마디, 말복에는 세 마디가 각각 나온다고 한다. 이는 초복, 중복, 말복의 더위를 거칠 때마다 벼가 그만큼 빨리 성장한다는 말이다. 유두 즈음에는 벼에는 도열병이 생기며, 이화명나방이 극성을 부리고, 논에 물을 대고 빼는 일을 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병이나 해충을 구축하고, 새해 들어 처음 수확하기 시작한 참외나 오이가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기 위해 유두나 삼복을 전후하여 많은 지역에서 농신제를 지낸다.

이때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벼멸구 등 해충 때문에 나락 농사의 피해가 많고 도열병 등에 걸려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 유둣날 논가에서 부침개를 부쳐서 기름 냄새를 피우게 되면 해충의 피해가 줄어든다고 한다. 벼가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으면 병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를 유두제, 유두고사, 농신제, 논고사라고 한다. 또한 논이나 밭에서 자라는 작물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각종 짐승이나 새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짐승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사를 지낸다. 이를 유두고사, 용신제(논고시)라고 한다. 그리고 벼농사에서는 충분한 물과 물 조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논둑이 터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지역도 있다. 이를 유두고사, 유두제, 논고사, 논꼬, 논꼬시, 용신제, 농신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농신제는 명칭을 달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차적인 목적이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해충을 막고, 논둑이 터지지 말고, 짐승이나 새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는 제사이다.

참외나 오이가 익기 시작하면 처음에 수확한 것을 제물로 삼아 참외제나 오이제를 지낸다. 이 제사에는 첫 수확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참외나 오이가 떨어지거나 곯지 않고 잘 익게 해 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지역에서 6월에 조를 파종한 뒤 마소[馬牛]로 밭을 밟을 때 준비해 간 음식을 제물로 차려 놓고 농경신인 제석할망에게 제석할망제를 지낸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진(秦) 덕공(德公) 2년에 비로소 삼복 제사를 지냈다. 이때 성안 4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蟲災)를 막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날을 기해 가정 단위로 농신제를 지내는 사례가 많다.

함경도지역에서는 밭제, 강원도지역 정선에서 삼복고사와 삼척에서 밭제사를 지냄으로써 각종 병충해와 짐승들에 의한 피해를 막아 풍농을 기원한다.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논멕이기'라 하여 마을에 따라 초복이나 삼복 중 하루 또는 초복, 중복, 말복 모두 논이나 밭에 가 나뭇가지에 흰 문종이로 깃발을 단 다음 기름내를 풍기면서 부쳐낸 전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농신제**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2002.7.11, 코리아루트



1. 농신제 제물 준비



2. 농신제 제물



3. 대 만들기



4. 대 만들기

풍농을 기원했다. 경상도지역에서도 복날에 용제, 복제, 복제사라 하여 논에 제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낸다. 경북지역에서는 초복과 말복에 참외 농사를 위해 참외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7월 백중이나 칠석에도 새나 쥐 같은 동물들이 논에 들어가지 말고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이를 경남지역에서는 농신제, 용신제, 칠성고사라고 한다. 함경도와 강원도지역에서는 밭에서 음식을 차려 놓고 풍농을 기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칠성기도, 칠석고사, 칠성의례라고 한다.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시기에 지내는 농신제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모를 내거나 밭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풍농을 기원하는 농신제를 지내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6~7월의 좋은 기후 여건에 의해 작물이 잘 자라면서 닥치는 각종 병과 해충방지, 물 문제해결, 각종 짐승이 여물어가는 수확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방지 등을 기원하고 참외를 비롯하여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농신제를 지내는 것이다. 농신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논이나 밭에 직접 가서 지낸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모를 내거나 밭농사를 시작할 때 마을 서낭이나 집안 성주 또는 세존에게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다.

농신제는 농사와 관련된 신령들을 주로 모신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이나 집안을 관장하는 신령에게 먼저 고한 뒤 하위 제차로 실제적 기능을 한다고 여기는 신령들을 위한다. 즉 마을을 관장하는 서낭님에게 치성을 드리거나 집안을 관장하는 성주 또는 세준을 모시는 가정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신제는 제물을 준비하여 논이나 밭에 직접 나가서 지낸다. 이때 모시는 신령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농씨, 농신, 용신, 제석할망, 전조(田祖), 칠성신 등이다. 특히 용신제, 용지, 용제 등은 용왕을 잘 모셔서 가뭄을 막고 논둑을 잘 보전해 달라는 염원을 담아 지낸다.

지금은 농약의 확대 보급, 화학 비료의 사용, 안정된 물 공급 등으로 농신제를 지낼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농신제를 지냈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농신제**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2002.7.11, 코리아루트



5. 제의장소로 이동



6. 대 꽂기



7. 재배



8. 헌식

**지역사례** 충북 영동지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농신제를 소유한 논이나 밭 중에서 가장 큰 곳에 가서 지낸다. 이를 경남지역에서는 '제사 받는 논', 전남지역에서는 '유두배미'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경북 예천군 유천면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논마다 한 그릇씩 준비한 제물을 가져다 두어 풍농을 기원하는 사례도 있다.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을 놓아 두는 구체적인 장소는 일반적으로 논의 물꼬 등 논의 물이 드나드는 곳이거나, 논둑이나 밭둑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준비한 제물을 헌식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서는 초복날 '용지(용제)'라 하여 용제사를 지낸다. 이때 벼가 가장 잘 자란 논 한 복판에 버드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배추와 미나리 부침개를 꽂아 둔다. 일부 지역에서는 떡을 꽂아두는 곳도 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도동마을의 용신제, 충북 영동 용산면의 유두고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동례마을의 논꼬(논고사) 등 사례를 보면 저릅대(겨릅대, 삼껍질 벗긴 속 대)를 가져다가 밀떡, 송편, 찰떡 등을 꽂거나 저릅대를 세 갈래로 바지랑대(작수바리)를 만들어 그 위에 걸어 놓는다.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선장마을에서는 농신제를 지낼 때 밀떡 · 송편 · 찰떡 등을 꼬챙이에 꽂아 논두렁에 두고 "신농씨요, 신농씨요, 우짜든동 올해 농사 잘되게 해 주이소."라고 하며 빈다. 이렇게 놓아 둔 떡은 짐승들이 와서 먹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배고프면 가져가서 먹는다. 농신제를 지낼 때는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는다. 경북 상주지역에서는 용지(용제)를 지낼 때 밭이나 논둑에 도롱이를 깔아 놓고 제수를 그 위에 진설한다. 도롱이나 삿갓은 모두 비와 관련된 것으로,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많이 오기를 원하는 바람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다. 삼으로 지릅(거릅 또는 저릅)을 묶어서 세워 놓고 고수레하듯이 그 위에 가지고 간 음식을 모두 꽂아 놓는다. 물꼬에 개떡이나 송편 등을 다양한 형태로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논두렁이 무너지지 말기를 위함이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이에 비해 논두렁에 가서 직접 전을 부치거나 준비한 부침개를 뿌리는 등의 의례를 행하는 사례가 있다. "유두에 기름 냄새를 풍겨 병충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이 전한다. 농약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는 한여름 복더위에 논에 생긴 각종 병충을 없애는 특효약 가운데 하나가 기름이었기 때문이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서는 유둣날에 밀전병을 부쳐서 이를 논두렁에 가져다 놓고 농사가 잘되라고 빈다. 집에서 밀전병을 미리 부쳐서 가기도 하지만 논가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기 위해 그곳에서 직접 부치기도 한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신기마을에서는 유둣날에 논고사를 지낼 때 안주인이 미리 준비해둔 떡과 부침개 등을 가지고 논에 도착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저릅대를 물꼬에 꽂은 다음 그 위에 떡을 꽂아 놓고 용신께 인사를 드린다. 그런 다음 떡과 부침개를 물에 담근다. 이때 기름이 퍼져 나가는데 이 기름이 많이 퍼져 나갈수록 그해에는 운이 좋다고 여긴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자치암마을에서는 복날에 복제사를 지낸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초복 즈음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밭과 논에 가서 복제사를 지낸다. 이때 복숭아나무나 싸리나무 가지를 꺾어서 논이나 밭에 세우고 끝에 한지를 맨다. 이를 '복깃대'라고 한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토지신을 모셔서 풍농을 기원한다. 예전에는 백설기를 찌고 부침개(밀가루나 감자가루 이용)를 부쳐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진설하여 풍농을 기원하는 비손을 하였다. 지금은 부침개만 준비하여 밭이나 논두렁에서 비손한다. 이와 같은 의례는 대부분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고 짐승이나 새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종교적 염원을 표출한 것이다.

농신제를 주재하는 이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장이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의 용지(용제),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상예곡마을에서의 못자리고사, 경북 상주의 용지(용제), 충북 영동군 유두고사,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의 용신제를 보면 많은 수확을 기원하며 주인이 음식준비를 하지만 집안에서 부리는 상머슴이나 일꾼을 시켜 논이나 밭에 제물을 가져가 농신제를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함경도 북청지역에서 지내는 밭제에서는 주부들이 초복, 중복, 말복에 팥을 넣은 팥찰밥을 해서 고사를 지낸다.

농신제 제물은 각 지역과 가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풍농을 이루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기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준비하는 음식이나 처리 형태를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부침개나 밀전병 등 기름 냄새를 풍겨 각종 병충이 들지 말 것을 기원하는 유형이 있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밭제사를 지낼 때 세준단지의 벼로 제물을 장만하고, 밭에 가서 "웃줄 세준님네 농사 잘되게 해 달라."라고 빈다. 이때 시루로 제수를 찌지 않을 경우에는 노치(노티)를 굽거나 감자로 적을 한다. 이는 기름 냄새를 풍겨 벌레가 들끓지 말라는 뜻이 있고, 쥐가 벼를 쏠지 않게 하기 위해 양밥으로 하는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에서는 농사고사를 지낼 때 논이나 밭에 메밀가루, 쌀, 소두방(솥뚜껑)을 가지고 가서 메밀가루로 부침개를 부친다. 부침개는 소두방을 뒤집어서 얇게 팬 나무로 불을 때서 부치며, 쌀로 메를 지어 올리고 깨끗한 샘물도 한 그릇 떠다 놓고 "일 년 농사 잘되게 해 달라."라고 정성을 들인다. 충남 보령지역에서는 벼멸구가 생기면 프라이팬을 논으로 가져가서 기름칠을 한다. 논둑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으면 기름 냄새 때문에 벼멸구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유둣날 논의 물꼬에 가서 부침개를 부치면 논에 벌레가 없어진다고 하여 들기름으로 부침개를 부쳐 물꼬에 놓고 고사를 지낸 뒤 나눠 먹었다. 부침개를 뜯어 논 사방에 던지는 곳도 있었다.

둘째 송편이나 밀개떡 등을 준비하여 논둑이나 밭둑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곧장 논이나 밭에 던져 짐승들에게 먹임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하려 한 사례가 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도동마을에서 용신제를 지낼 때 개떡을 찐 다음 온 들에 던져서 짐승들이 먹게 하였다. 전북에서는 농신제를 지낼 때 떡을 떼어내  논에 헌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농신에 제사를 지내면 농사가 잘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논의 물꼬에 송편이나 제물을 두거나 논에 저릅대를 꽂아서 그 위에 떡을 올려놓음으로써 가뭄을 막아 수확물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사례도 많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서는 용지(용제)를 지낼 때 송편을 장만하고, 가지가 많이 달린 나무를 준비하여 일꾼이 송편을 나무에 꽂아 두어 풍농을 기원하였다. 끼니를 채우기도 힘들던 당시에 일꾼이나 어린이들이 용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논에 들어가 떡을 빼 먹었다고 한다. 경남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에서는 용신제를 지낼 때 저릅대 세 개를 가져다가 물꼬에 꽂고 그 위에 밀떡을 올려놓고 비손한다. 비손을 하고 나서는 물꼬에 떡을 던지기도 한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3리 상포마을에서도 용신제를 지낼 때 밀떡을 만들어 논가 물꼬에 저릅대를 꽂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는다. 용신제를 지낼 때에는 아이들이 떡을 빼먹으려고 제를 지내는 사람을 쫓아다녔다고 한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는 유두고사를 지낼 때 송편이나 보리개떡 또는 쑥떡을 빚어서 논의 물꼬마다 놓는다. 밭에도 역시 이를 가져다 놓고 풍농을 기원했다고 한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에서는 용신제를 지낼 때 집에서 밀떡을 만들어 논으로 가져가서 물이 들어오는 물꼬 밑에 짚을 펴 놓고 그 위에 밀떡을 놓은 뒤 풍농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서는 용지(용제)를 지낼 때 일꾼은 송편을 나무에 꽂아 논 가운데에 꽂아 놓았다고 한다.

참외나 오이를 처음 심거나 익기 시작하면 많은 수확을 기원하며 간단한 제수를 준비하여 참외제나 오이제를 지낸다.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상동마을에서 물외밭을 가진 사람들이 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외를 심어놓은 다음 밥을 해놓고 물외심리를 하였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황1리에서는 참외밭에 국수를 갖다 두었다. 이는 참외줄기가 국수처럼 길게 뻗으라는 의미에서였다고 한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마을에서도 참외제를 지낸다. 참외가 익기 시작하면 처음에 수확한 것을 제물로 삼아 참외제를 지낸다. 참외가 익어 딸 무렵이 되면 참외가 골지 않고 잘 익게 해 달라고 비손한다.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가라티마을에서는 오이를 재배하는 가정에서 처음 오이를 따면 오이제를 지낸다.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면 오이가 모두 떨어진다. 닭은 발로 휘젓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어서 오이를 떨어뜨린다고 여긴다. 오이를 수확하기 직전에 남자들은 대낮에 밭에 나가 고사를 지낸다. 오이뿐만 아니라 수박이나 참외도 첫 수확물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고사를 지내고 먹는다.

**참고문헌**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6),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도 · 평안남북도 · 함경남북도**(문화재관리국, 1980~1981),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4~2006),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농경문화**(국립민속박물관, 2000),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현지조사자료**(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2006년 8월).

**필자** **김도헌(金道賢)**

## 눌굽지신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보리농사와 관련해 섬기는 농사신. 노적장(露積場)에 위치한다.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보리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보리의 농경세시는 제주인들에게 생활의 중심이었다. 눌굽지신은 보리농사와 관련된 농경신의 하나였다. 이 신은 장마철에 수확하는 보리를 장맛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리눌과 관련이 있다. 가옥 안에 임시로 쌓아 올린 '눌(가리)'의 바닥을 제주도 사람들은 '눌굽'이라고 하였다. 이곳에 노적장의 신이 좌정해 있다고 관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집안에서 굿을 하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음식을 차릴 때에는 별도로 눌굽지신을 대접하여 위하여 왔다.

**내용** 제주도 사람들은 대부분 화산회토(火山灰土)로 덮인 밭을 개간하여 일구면서 자급자족하는 영농체계를 이루며 살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영농에 관한 경험을 큰 지식으로 여기면서 보리, 조, 감자, 유채, 콩 등의 잡곡을 재배하였다. 특히 보리는 한 해 전 가을철에 밭갈이를 하고 돗거름(돼지거름)을 내어 씨를 묻어 다진 다음 발아되도록 숙성시키고 밭으로 옮겨 조금씩 뜯어 파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주요 작



보리눌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2007.7, 김동섭

물이었다.

돗거름은 예전에 제주도지역에서 초가 내부에 마련된 돼지가 사육되는 '돗통'에서 만들어지는 거름을 이른다. 이 거름은 보리씨에 섞어서 한꺼번에 밭에 뿌리는 것이 특징이다. 돗거름은 일 년 내내 돗통 속에서 돼지의 오물, 생활하수 등과 섞이면서 언제나 습한 가운데 다져지고 발효 부패의 과정이 반복된 끝에 만들어진다. 보통 음력 10월 보리 파종 때가 되면 이것을 마당에 꺼내어 넓게 펼친 다음 그 위에 보리씨를 골고루 뿌린다.

이러한 보리는 6월 초순쯤 수확한다. 6월 초에서 말까지 이루어지는 쌀보리는 맥주맥보다 수확 시기가 조금 빠른 편이다. 이때 수확한 보리는 젖은 상태여서 금방 탈곡할 수 없었고 건조를 시켜야 했다. 이때 활용한 것이 '보리눌'이다. 우선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둥근 원형으로 바닥에 둘러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넓은 나뭇가지 등을 깔고 보리를 쌓아 올린다. 보릿단은 알곡이 붙은 쪽보다 둥치 쪽이 조금 더 굵다. 이것들이 안쪽으로 오도록 쌓아야만 중앙이 높고 가장자리가 낮은 원통형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이영숙(여, 1968년생) 씨에 따르면 보릿짚을 두세 겹 깔고 160㎝ 높이가 되도록 '보리눌'을 만들었다고 한다. 밭이 많은 집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두세 개 만들어 세워서 말렸다가 한가할 때 마당질을 하였다.

안덕면 사계리의 김성곤(남, 1964년생) 씨에 따르면 우선 마당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굵은 돌로 둥글게 '굽도리'를 둘러 놓는다. 다른 눌과는 달리 알곡을 쌓게 되는 '보리눌'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섶이 많은 나뭇가지를 깔고 보리단을 높이 쌓았다고 한다. 식량이 부족한 철이었기 때문에 보리눌은 오래 두지 않았다. 보통 보름 정도 두었다가 마당질을 하였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의 김성방(남, 1959년생) 씨에 따르면 둥글납작한 돌들을 모아 직경 2m 정도 크기의 원형으로 '눌굽'을 우선 놓는다. 그 위에 알곡의 보리가 닿지 않도록 섶이 많은 나뭇가지를 덮은 다음 알곡이 붙은 보릿단을 그 위에 키 높이만큼 쌓아 올려 '눌'을 만든다. 눌 위에는 새로 만든 '주저리'를 덮어 태풍과 함께 불어오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을 다하는 집에서는 보리를 탈곡하는 마당질을 할 때 '눌굽'에 술과 안주로 코시(고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 집안의 농사와 축산에서 풍등(豊登)과 번성을 기원하는 제의의 한 가지로 '코시'라고 불리는 의례를 살필 수 있다. '반코시'와 'ᄎᆞ코시'로 구분되어 행제되었다. 'ᄎᆞ코시'는 집안의 조상신 중에서 벼슬아치로 있었던 선령이 있으면 이를 일월신이라 하여 하룻밤 하루 동안의 시간을 두고 행제하는 의례이다. 반코시는 일월 조상신이 없는 집안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지내는 고사이다.

제의를 지낼 때 제상은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해 꾸민다. 상당에는 견우성별, 삼태육성, 물배포, 국배포, 도업시, 제임신 등 높은 위격의 신을 배열한다. 하당에는 상세경 염제신농씨, 중세경 문국성, 하세경 ᄌᆞ청비, 세경장남 정이엇인 정수남 등 세경땅의 귀신들에 맞는 위격으로 자리를 배열하고 신을 모신다. 고팡(고방), 조왕(부엌), 마두(외양간), 눌굽(주저리의 굽자리)에도 각각 그곳 신위(神位)의 몫으로 설반을 하였다.

**참고문헌** **남국의 민속**(진성기, 교학사, 1980), **여성농업인의 삶과 전통**(김동섭 외, 여성농업인중앙회, 2005), **제주도 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 민속문화 이해**(김동섭, 거마문화사, 2010), **제주 유식마을제의 전승양상**(김동섭, 제주도, 2009), **제주전래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김동섭(金東燮)**



# ㄷ


단오고사
단잡기
담배고사
대감
대감단지
대감벙거지
대구심리
대주
덤장고사
도깨비
도깨비고사
도신
돗제
동국세시기
동지고사
동토
동토잡기
돼지코
된장
똥떡먹이기
뜬귀물리기



**제의**
단오고사
단잡기
담배고사
대구심리
덤장고사
도깨비고사
도신
돗제
동지고사
동토잡기
똥떡먹이기
뜬귀물리기

**신격**
대감
도깨비

**신체**
대감단지
대감벙거지

**재구**
돼지코

**제물**
된장

**자료**
동국세시기

**용어**
대주
동토




# 단오고사(端午告祀)

**정의** 단옷날에 건강과 풍요와 제액(除厄)을 기원하며 올리는 가정의례.

**역사** 중국의 단오는 초나라 굴원을 제향하는 풍속에서 유래한다고 전한다. 한국에서의 단오는 중국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삼국지(三國志)』「위서 동이전」에는 5월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에 하늘에 제향한 풍속이 나온다. 가장 양기가 성한 날에 무더위 또한 성하기 때문에 이날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위와 함께 찾아올 온갖 잡병을 예방하고 액을 물리침과 더불어 농사의 풍요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경잡기(東京雜記)』를 보면 "단옷날 부적을 만드는데 부적에 쓰기를 '오월 오일은 천중절이다. 위로 하늘이 내신 녹을 얻고 아래로 땅이 준 복을 받으며 치우(蚩尤)신의 동두(銅頭)와 철액(鐵額)과 적구(赤口)와 적설(赤舌)로 404가지 병을 일시에 소멸하니 율령을 내린 듯 서둘러라.' 정조 을묘년(1795) 이후로 이것을 불경인 은중게(恩重偈)로 바꾸었는데 나무삼만다 모다니 엄 아이나 사바하오."라고 하였다. 『해동죽지(海東竹枝)』 명절풍속조에도 병을 없애는 단오부적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옛 풍속에 단옷날 정오에 이 부적을 들보 위에 붙이면 한 해의 온갖 병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학대사의 비법"이라고 하였다.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단오부채를 만들어 돌리기도 하였다. 단옷날에 임금이 신하에게 옥추단(玉椎丹)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고, 내의원에서는 제호탕(醍醐湯)을 만들어 바치기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풍속은 단옷날이 질병 및 이의 예방과 관련 있는 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단옷날에 액을 물리치기 위해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든 애호(艾虎)를 돌렸다. 여성들은 궁궁이를 머리에 꽂거나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여 새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단옷날에 가지를 쳐내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는 풍속, 새로 수확한 앵두를 천신하는 풍속, 새로 수확한 보리를 쪄서 만든 밥을 꿀물에 넣어 만든 보리수단을 천신한 풍속 등은 농사의 풍요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건강, 풍요, 제액을 소망하기 위한 주술적 방안이지만 단옷날 아침에 제의를 행함으로써 신령에게 소망하는 바를 고하기도 하였다. 단체로 행하는 제의는 단오제란 공동체 제의로 나타나고, 개인별로 행하는 제의는 차례(또는 다례, 차사, 체사 등으로 불림)와 고사로 나타난다. 차례(단오차례)는 조상신에게 제향하는 것이고 고사(단오고사)는 일반적인 신령에게 제향하는 것이다.

**내용** 단오고사는 집안에서 행하는 안택과 같은 형태가 있고, 산에 가서 하는 산멕이가 있다. 집에서 하는 경우는 경기도지역에서 발견된다. 쑥이나 취나물을 뜯어 떡을 만들어 제향하거나 빈대떡을 부쳐서 제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인제와 속초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오고사가 있었다. 집 밖에서 하는 단오고사는 산멕이 형태로 나타난다. 강원도 강릉, 삼척, 정선, 동해 등 지역의 산간마을에서 많이 행해졌다.

산멕이는 보통 사월쯤에 많이 하지만 집집마다 선호하는 날이 달라 오월 단옷날에 제향하게 되면 단오고사가 된다. 내용상으로는 산을 먹이는 풍속이므로 산멕이라 하지만, 단옷날에 제향하기 때문에 단오고사라고 칭하는 것이다. 부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에 제향한다. 보통 산을 먹이는 장소가 마을 인근의 산자락이므로 동이 터오기 전에 산에 오르기 시작한다. 제향의 주체는 대체로 여성이다. 이른 새벽에 산에 오르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산에 올라간다. 그러나 고사는 제각각 한다. 제향의 장소는 마을 인근의 야산이거나 깊은 산속일 수도 있다. 냇가 근처의 나무나 바위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 냇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차려서 가지고 간 제물을 주로 나무 밑에 제향한 뒤 가져간 새끼를 실타래와 함께 나무에 묶어 놓고 내려온다. 집으로 돌아오면 새로 꼬아 놓은 새끼를 부엌에 걸고 간단히 비손한다. 제물은 집집마다 다르다. 정선지역에서는 신체(神體)로 동우(동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오늘날 단오고사로 조사·보고된 예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몇몇 보이지만 여타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단오고사는 점차 사라져 가는 풍속이다.





**단오고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2008.6.8, 국립민속박물관


조상 수대로 수저 꽂기


단오고사 상차림


헌식

강원도에서는 강릉, 삼척, 정선, 인제, 동해, 속초 등 지역에서 발견된다. 경기도는 양주, 양평 등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효개울마을에서는 단옷날에 빈자떡(빈대떡)을 해 놓고 집안의 여러 가정신(성주, 터주, 측신, 조왕 등)을 위한 다음 식구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 양평군 단월면 덕수2리에서는 단옷날에 쑥처럼 생긴 떡취를 뜯어다가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먹는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에서는 취나물을 뜯어서 취떡을 빚어 단오고사에 올린다.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에서는 단오 하루 전에 미리 뜯어 놓은 취나물을 삶아 건진 뒤 차좁쌀가루에 섞어 취떡을 빚는다. 이때의 곡식은 지난해 시월상달에 대왕단지 또는 제주단지 안에 넣어둔 것을 꺼낸 것이다. 뒤뜰 장독대 옆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취떡을 시루에 쪄서 시루째 올려놓고 집안의 안녕과 오곡의 풍년을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갈잎에 취떡을 싸서 먼저 광에 모신 대왕단지 위에 매달아 놓고 이후에 집 주위의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갈잎에 싼 취떡을 끼워 놓았다가 꺼내 먹는다.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풍촌마을에서는 '산동우(산동이)'를 이용한다. 작은 단지만한 크기의 산동우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집 뒤뜰 처마 아래쪽 바닥에 놓아 둔다. 이 안에는 그해 수확물 가운데 수지로 나온 벼나 차조를 넣어 둔다. 단오가 되면 산동우에 들어 있는 곡물을 찧어서 취떡을 하거나 메를 지어 산치성을 드리러 산으로 간다. 이 마을에서는 산치성과 산멕이를 구별한다. 산치성은 단옷날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멕이는 이날에 한다. 마을 뒤에는 봉우리가 세 개 있다. 삼봉 가운데 맨 오른쪽 봉우리는 마을의 삼척 김씨 집안, 가운데 봉우리는 마을의 강릉 유씨 집안에서 즐겨 갔다. 산멕이는 혼자 가기 어렵기 때문에 몇 명이 함께 간다. 삼척 김씨 집안에서는 여성이 주로 가지만 강릉 유씨 집안에서는 부부가 갔다. 생용(작은 솥)과 쌀을 갖고 가 현지에서 직접 메를 지어 올리다가 번거로워 나중에는 집에서 지어 갖고 갔다. 이때쯤이면 취나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떡을 하거나 산동우에 있던 차조로 떡을 하기도 하였다. 진설은 매년 가는 큰 나무 아래에 하였다. 정성을 들인 나무를 무심코 베면 반드시 뒤탈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모두 베어져 그 나무들을 볼 수 없다.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에서도 오월 단옷날에 고사를 지낸다. 산멕이를 하는 방식과 집 뒤뜰에 모셔 놓은 단지에 고사를 지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산멕이를 하는 방식은 풍촌마을과 비슷하다. 집 뒤뜰에는 메밀을 넣은 동이(단지)가 모셔져 있다. 단지 뚜껑을 덮은 다음 중간에 종이를 끼운 왼새끼줄로 테두리를 동여매어 놓았다. 오월단오가 되면 이 단지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다. 서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처럼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동네

서낭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이때 서낭당에 백지 종이를 접어 하나를 걸어 놓고 메 한 그릇과 물 한 그릇을 올리는 식으로 간단히 할 수도 있다.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서는 마을 인근 솔밭에 있는 산당에서 산멕이를 한다. 단옷날 낮에 혼자 가거나 둘이 간다. 산당 근처에는 소나무가 있다. 먼저 여기에 종이를 매어 놓고 시작한다. 제물로는 밥 한 그릇, 떡(절편, 취떡), 포, 적, 만두 등을 장만한다. 육고기, 어물 등 비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두2리에서는 육고기와 술도 장만하였다. 이처럼 제물장만은 집안마다 다르다. 도계읍 전두2리에서는 일가친척이 함께 대덕산으로 가서 산멕이를 하였다. 이때 제물 장만은 한 집에서 도맡아 하기도 하지만 여러 집이 제각각 하기도 하였다. 큰 소나무에다 실을 한 타래 묶어 놓고 삼베조각을 걸어 놓는다. 이 삼베조각(지금은 옥양목)을 찢으면서 한 갈래마다 윗대 조상부터 한 분씩 빌어주고 난 뒤 나무 위에다 찢어진 삼베조각을 걸어 놓는다. 산멕이는 조상에게 비는 성격이 강하였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빌어준다. 특히 소를 많이 위하였다.

**단오고사(산멕이)** 강원도 강릉시, 1994, 국립민속박물관


산멕이


산멕이 제물


산멕이줄 걸기


산멕이줄


산멕이줄

삼척시 원덕면 기곡리 김녕 김씨 집안은 같은 집안끼리 산멕이를 가는 경우가 많다. 산멕이를 갈 때는 한지 한 장과 실 한 타래를 가지고 가서 소나무에 매어 놓고 제향한다. 일가이므로 한 나무에다가 모두 실과 한지를 매어 놓는다. 가는 곳은 동산메기이다. 그곳에는 산당과 삼신당이 함께 있다. 실과 한지는 산당에만 맨다. 산당에 올리는 제물은 메 한 그릇, 채소 한 그릇, 술 한 잔, 어물, 돼지고기 등이다. 떡, 과일, 고기 등은 쓰지 않는다. 삼신당에는 메 한 그릇과 채소 한 접시, 술 한 잔을 부어 놓는다. 단옷날 식전에 메를 지어서 산에 올라가 진설을 마친 다음 절을 하고 축원 한 뒤 제향한 메를 아침 삼아 먹고는 객귀를 먹인다고 하여 제물을 조금씩 뜯어 내 던지고 나서 내려온다. 소지는 올리지 않았다.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서는 마을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뒷산으로 산멕이를 간다. 부엌에 쳐 놓은 금줄을 걷어내어 산에 가 나무에 쳐놓고 가지고 간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마을 인근 바다에서 난 생선, 술, 메, 나물 등으로 간단하게 장만한다. 진설이 끝나면 절을 하면서 축원한다. 이후 제물을 조금씩 작은 그릇에 담아 던지면서 "산신님! 산신님! 많이 잡수시고 그저 가내 무사 바랍니다."라고 중얼거린다. 동이 트기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서워 가기 어렵다. 서너 명이 한 조를 이뤄 함께 간다. 그러나 산멕이는 제각각 한다. 제향의 주체는 여성이다. 산멕이를 마치고 집에 오면 곧장 부엌으로 가서 새로 금줄을 쳐 놓는다. 이 금줄은 이듬해 단오고사를 지내기 전까지 부엌에 매달아 둔다. 부엌에 금줄을 새로 치고 난 뒤 간단하게 제물을 차려 놓고 제향한다.

**참고문헌** **東京雜記**, **東國歲時記**, **강릉단오민속여행**(장정룡, 두산, 1998), **경기민속지 3**(경기도박물관, 2000), **삼척민속지 1~7**(삼척문화원, 1999~2002),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85),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세시풍속 1 · 2**(국립민속박물관, 1997~1998).

**필자** **이한길(李漢吉)**





## 단잡기

**정의** 단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주술적 · 민간 의료적 성격의 의례. 단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몸속에 있는 수두균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대상포진(帶狀疱疹)을 가리키는 지역어이다. 단에 대한 치료 양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의례적 단잡기는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과 공주시, 청양군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역사** 주술성을 지닌 민속의례인 단잡기를 낳은 것은 단(丹)이라 불리는 질병이다. 단은 높은 열과 통증을 동반하며, 피부에도 여러 증상을 나타낸다. 단에 대한 기록 가운데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때 편찬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이다. 『향약구급방』의 중권(中卷)에는 단이 단독(丹毒)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 이미 단이 질병의 한 항목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병명이 단독으로 불리거나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1610년(광해군 2)에 간행된 『동의보감(東醫寶鑑)』에도 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동의보감에는 민간에서 피부에 잘게 부풀어오르는 붉은 돌기라는 의미의 적류(赤瘤)로 부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처방법으로 약재를 달여 먹거나 가루로 내어 물에 개어 바르는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산림경제(山林經濟)』,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도 단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들 기록에는 단독(丹毒) 또는 풍단(風丹)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단독이란 표현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내용** 단은 서양의학의 병리학적에서 대상포진에 해당한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수두를 일으키기도 하는 수두 · 대상포진 바이러스(VZV, varicella zoster virus)에 의한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수두에 감염된 지 수년 또는 수십년 뒤에 세포막을 깨고 나와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해

해당 신경에 근접한 피부에 바이러스성 감염을 일으킨다. 수두바이러스가 어떻게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상포진은 질병명은 벨트 또는 띠라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에서 기원한다. 몸통에 생긴 띠 모양의 피부질환을 의미하며 동양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의 발생이 간화(肝火), 습열(濕熱), 기체어혈(氣滯瘀血), 비허(脾虛)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원방(巢元方)이 쓴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에서 사용한 '증대창(甑帶瘡)'이 최초의 명칭이다. 이후 사창(蛇瘡), 지주창(蜘蛛瘡), 사과창(蛇窠瘡), 사곶창(蛇串瘡), 화대창(火帶瘡), 화곶창(火串瘡), 전요단(纏腰丹), 전요화단(纏腰火丹)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들 명칭의 의미가 오늘날 대상포진의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대상포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를 막론하고 단에 대한 민간치료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방에서는 침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섭생을 잘하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치료법은 없는 편이다. 이는 단이 면역 약화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휴식과 섭생을 통해 면역을 증강시킴으로써 증세를 호전시키는 양방의 치료법과 동일한 맥락이다.

다만 단에 걸렸을 때 통증을 가라앉히거나 개선하는 약재들은 주로 생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자재 또는 동식물이다. 식물로는 콩, 황금뿌리, 치자, 느릅나무껍질, 쪽잎, 쇠비름, 제비꽃, 달개비 등이 있다. 속썩은풀(황금) 뿌리, 치자(산치자)를 각각 갈거나 보드랍게 가루를 내어 물에 개어서 단독이 생긴 부위에 바른다. 이러한 식물들은 균을 억누르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단의 치료에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렁이와 미꾸라지이다. 미꾸라지나 지렁이를 짓찧어 환부에 붙여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힌다. 사례에 따라서는 새우젓을 바르는 경우도 있다.

대개 단의 발생은 단귀로 불리는 귀신의 소행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단이 발생할 경우 동티[動土]에 의해 탈이 난 것과 구분하기 위해 미꾸라지를 붙여 보거나 계란 흰자를 풀어 발라서 확인해 본다. 단은 일반 피부병과 달리 고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단의 증상을 판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단을 치료하기 위한 의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충청도지역에서는 피부병의 원인이 단이라고 확신하면 법사 같은 종교사제자를 부르거나 단을 잘 잡는다고 이름난 사람에게 단을 잡아 줄 것을 부탁한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된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의 단잡기에서는 단을 잡는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부른다. 당상관이란 호칭은 악한 기운이나 잡귀잡신에 의해 발생한 단을 내쫓아내기 위한 권력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을 잡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에서는 단을 잡을 줄 아는 주민들이 모여서 단잡기를 한다.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마을에서는 단잡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단을 잡기도 한다.

종교사제자인 법사에 의한 단잡기는 단굿이라고 불린다. 충남 · 대전지역의 단굿은 일반 병굿의 절차와 유사하다. 독경의 절차를 마치면 성줏대와 신장대를 가려 신장에게 단 귀신을 잡아 오라고 명령한다. 명을 받은 검무신장은 단 귀신을 잡으러 간다. 대잡이는 환자가 누워 있는 방 안이나 집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이 일러주는 곳에 가서 단 귀신을 잡아와서 꾸짖은 뒤 단지에 잡아 가둔다. 단지 안에는 종이에 싼 오곡밥을 세 덩어리 내지 다섯 덩어리를 넣어 단 귀신에게 먹인다. 단을 잡으면 단지의 뚜껑을 빨리 덮는다. 그리고 미리 밀가루에 매운 재, 고춧가루, 소금 등을 넣고 반죽한 것을 단지와 뚜껑 사이에 바르고 굿당에 걸어둔다. 용수철망을 내려서 단지에 씌운 뒤 왼새끼줄로 단지를 묶는다. 매우 독한 단 귀신인 경우 한 차례의 굿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흘 또는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

단을 잡아넣은 단지는 손 없는 방향이나 삼거리에 묻는다. 이때 죄인을 호송하는 것처럼 신장대를 잡은 대잡이가 선두로 하여 그 뒤에 단지를 든 사람이 서고, 칼춤을 추는 검무신장이 뒤따른다. 단지를 땅에 묻고 나서 짚을 태운다.

단잡기 전문가인 당상관 등이 주도하는 민간에서의 단잡기는 법사의 단굿과 차이를 보인다. 단잡기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승되고 있는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에서는 단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단잡기 전문가인 당상관에게 맨 먼저 알린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오곡걸립을 한다. 오곡걸립이 끝나면 단에 걸린 사람의 집에서는 모아진 곡식으로 오곡밥을 지어 놓는다. 이를 '단밥'이라고 한다. 또 당상관의 지시에 따라 열두 가지의 단 이름을 쓴 단기(丹旗)를 만들어 세운다. 단기는 한 발 정도 길이의 가는 대나무나 신우대를 이용해 만든다. 단 이름을 쓴 종이를 깃대에 달고 이 깃대를 굴뚝에 세워 둔다. 단기는 서른여섯 개를 만든다. 열두 개의 단을 사흘 동안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를 굴뚝에 세워 두는 이유는 굴뚝이 연기가 나가는 곳으로서 부정한 기운이 없는 곳으로 여겨지는 민속적 관념 때문이다. 단잡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엌이다. 당상관은 부엌에 앉아 절구통을 뒤집어 놓는다. 사령(司令)도 부엌에서 대기한다. 이때 항아리와 항아리 뚜껑도 준비한다. 이는 잡은 단귀들을 가두는 장치로 활용된다.

단을 잡을 준비가 끝나면 당상관은 부뚜막에 걸터앉아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쥐고 솥뚜껑이나 절구통을 두드리면서 전령에게 단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다. 당상관의 명령을 들은 사령들은 당상관의 명령을 복창한다. 명령을 전해 들은 사령들은 단기를 세워 놓은 굴뚝으로 가서 명령받은 단기를 뽑아 당상관에게 가져간다.

사령이 단기를 가져와 절구통이나 솥뚜껑 위에 올려놓으면 당상관은 칼이나 복숭아나무 가지로 단기를 때리면서 "네 이놈 두목광솔단 들어 보아라. 이 댁 ○○○씨 가문 건명대주[乾命大主, 여성인 경우는 坤命大主] ○○생에 침범한 단을 모조리 걷어 가지고 한시바삐 당나라로 속거천리하여라.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장도칼로 목을 베어 한강에 처넣으리라. 어명이다." 하고 호통을 친다. 이 때 당상관의 호통소리는 이웃마을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위엄이 있다.

단을 잡아들이는 과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여러 단 가운데 가장 먼저 잡아들이는 것은 청단이며, 맨 마지막으로는 두목광솔단을 잡아들인다. 두목광솔단은 여러 단귀의 두목 역할을 하는 단귀로 여겨진다. 이 단귀를 잡아들여야 비로소 단귀들을 전부 잡아들이는 것이다. 단에 걸렸을 때는 증세의 번지는 속도가 '밥상 받을 때 다르고 밥상 물릴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며, 어떤 단이 걸렸는지 콕 집어 알아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열두 가지의 단을 다 잡아들여야 효험을 볼 수 있다.

당상관 앞으로 잡아들인 단귀에게는 오곡밥을 먹인다. 이때 '먹인다'는 표현의 실제적인 양상은 단기에 오곡밥을 싸는 것이다. 오곡밥을 먹인 단귀는 미리 준비해둔 항아리에 담는다. 잡귀잡신이나 부정한 기운으로 인식되는 단귀에게 오곡밥을 먹이는 것은 민속 신앙적 관념에서 신령을 대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동일하다. 즉 굿과 같은 의례에서 신령들은 거리마다 초대되어 음식, 춤, 노래 등으로 대접받은 뒤 돌려보내진다. 또 뒷전에서는 하찮은 귀신인 잡귀잡신들을 대접해 보낸다. 단잡기에서는 잡은 단귀들을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로 때려서 위협을 하지만, 결국에는 오곡밥을 먹여 보내고 있어, 귀신이나 잡귀를 대접하고 먹여 보내는 민속신앙적 관념과 동일한 맥락이다.

잡은 단귀는 마지막 처리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세상과 확실하게 격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마을 사람들은 오곡밥을 대접하고 항아리에 가둔다. 단귀들을 뚜껑을 덮어 새끼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단귀가 든 항아리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며, 그 위에 불을 피워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단잡기가 끝나면 단귀들을 묻은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고 한바탕 놀이를 벌이고 나서 또 오곡밥을 나누어 먹는다.

**특징** 단잡기의 특성은 개인이 걸린 피부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개인 차원이 아닌 마을 공동의 대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은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나 잡귀잡신이 들어와 단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이 발생하면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문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례로 승화된다.

공동체의 대응방식은 단을 잡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당상관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무속의 의례자인 법사에게 일정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과 달리 당상관에게는 단을 잡아 준 것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식은 동토잡기와 같은 의례들이 개인적 차원에 머문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풍물패를 동반한 놀이적 요소가 풍부하며, 단잡기를 위해 거두어들인 오곡으로 밥을 지어 단잡기를 한 뒤에 함께 나누어 먹는 등 마을공동체를 아우르는 성격이 아주 두드러진다.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 단잡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단잡기**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2008.8.7, 오문선




1. 단잡기를 위해 모인 내지리 사람들



2. 단잡기 준비



3. 풍물패



4. 단귀들을 먹일 오곡밥



5. 단귀들을 상징하는 단기



6. 오곡걸립



7. 당상관이 사령에게 단을 잡아오라고 호령하기



8. 잡아들인 단귀에게 오곡밥 먹이기



9. 잡아들인 단귀에게 곤장치기



10. 항아리에 단귀 가두기



11. 항아리에 단귀 가두기



12. 단귀 가둔 항아리 묻기



13. 단을 잡은 후 액막이 타령 부르기



14. 단을 잡은 후 흥겨운 한마당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의 단잡기 의례에는 부여지역의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단잡기에서는 잡아들인 각각의 열두 단에 단밥을 먹여 한시바삐 제 나라인 당나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친다. 이는 단귀들이 당나라에서 건너온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이 백제의 후예인 부여지역민들에게 스며들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단잡기의 의례적 과정과 내용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단을 치료하기 위해 단잡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졌다. 내지리의 경우 1995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계기로 원형적인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당상관이라 불리는 단잡기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벌이던 민간 의료적 의례가 대규모의 경연장에서 공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놀이적 성격과 공연성을 가미한 구성과 과정이 추가되어 재구성 되었기 때문이다.

| 단잡기 원형 | 민속놀이 경연대회 (1995년) | 현 공개행사 |
|---|---|---|
| 당상관에게 알리기 | 법사의 단굿 | 우물굿 |
| 오곡걸립 | 오곡걸립 | 오곡걸립굿, 소리꾼 사설덕담 |
| 단잡기 | 단잡기 | 단잡기 |
| 땅에 묻고 풍물놀이 | 땅굿놀이 | 화형식 |
| | 액막이 놀이 | 기쁨의 장면 |

부여 내지리 단잡기의 구성 내용 변화

1995년 당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때 시연된 단굿이나 현재 칠월칠석날 행해지는 공개행사의 우물굿, 액막이타령 등은 기존의 단잡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볼거리와 구성미를 위해 추가된 절차들이다.

이를 계기로 단이라 불리는 피부병에 걸린 마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하던 소규모의 주술적 성격의 의례는 일종의 공연 형식으로 자리 잡아 전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례적 성격보다는 축제적 성격이 더 많이 가미되고, 넓은 공연장에서 시연되는 특성상 단잡기를 더욱 시각화하는 것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지역사례** 단잡기는 전국적으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전승되는 곳은 충남 일대이다.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장재울에서도 환자의 피부병이 단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단을 잡는 의례가 펼쳐진다. 이 마을의 단잡기는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날을 잡아 환자의 집으로 가서 오곡밥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동도지(東桃枝)를 준비하여 굴뚝에 늘어놓고 각 단의 명칭을 종이에 써서 준비해 둔다. 대장이 부엌에 들어가 "ㅇㅇ단을 잡아 오너라" 하고 명령한다. 대장의 명령에 사령은 "예이" 하고 큰소리로 대답하고 해당되는 단을 부엌으로 잡아 온다. 부엌 한 복판에 놓인 절구통에 단이름을 쓴 종이를 놓고 동도지로 열두 번을 때린다. 이런 방식으로 열두 단을 잡고 나서 시궁창에 모두 내다 버린다. 단을 위협하고 몰아낸 다음에는 잡곡밥을 먹으며 흥겹게 논다. 이처럼 사흘동안 반복하면 단은 치유된다고 믿는다.

단잡기는 부여군의 인근인 청양군의 여러 마을에서도 확인된다. 청양군 운곡면 운곡리에서도 예부터 집안에 부정이 있거나 잡귀의 침범으로 단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을에 단에 걸린 사람이 생기면 모든 주민이 합심하여 병을 몰아냈다. 운곡리의 단잡기는 발생과 대응방식, 단잡기의 과정이 부여 내지리의 단잡기와 거의 유사하다.

공주시 탄천면 소라실의 단잡기는 단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단잡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지역의 사례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後集, 山林經濟,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개인의 피부병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치병의례–충남 부여의 단(丹)잡기를 중심으로**(이필영, 민속학연구 7, 국립민속박물관, 2000), **대상포진에 대한 동서의학적 비교고찰**(황문제 · 박령준 · 최병문, 대한의료기공학회지 4–2, 대한의료기공학회, 2000), **대상포진 환자의 통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이재녕 · 윤녕훈 · 박석돈, 대한피부과학학회지 44, 대한피부과학회, 2006), **동의보감**(동의과학연구소 역, 2007), **동토잡이 의례의 한 양상–구리시 동창마을 도투마리 경 읽기를 중심으로**(허용호, 민족문화연구 3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무형문화재 활성화방안**(부여군청, 2008), **부여지방 단(丹)잡기–부여군 은산면 내지마을의 단잡기를 중심으로**(오문선, 충청문화연구 5, 충청문화연구회, 1997), **소라실장승제**(공주문화원, 1988), **향약구급방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신영일 · 박찬국, 대한원전의사학회지 5, 대한의학원전학회, 1991).

**필자** 오문선(吳文仙)



## 담배고사

**정의** 담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담배를 찔 때와 출하하는 날에 지내는 고사.

**내용** 담배는 17세기 무렵에 중국 또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다. 담배고사는 생업과 관련된 일종의 수확제이다. 충북과 경북 산간지역의 담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담배 고사를 지냈다.

담배는 여름에 수확하고 쪄 두었다가 9월 이전에 출하한다. 담배 농가에서는 담배를 찔 때와 출하할 때 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팥 시루떡, 술, 청수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장만한다. 담배를 수확하는 7월이 되면 주부는 고사를 지낼 날을 잡는다. 그리고 목욕재계를 하고 제물을 장만한다. 고사를 지내기 위해 집안의 가장도 목욕재계를 하고 제를 준비한다.

담배를 찔 때 담배 색이 잘 나오기를 빌며 고사를 지낸다. 이 때 제물을 가마 앞에 진설하고 그 앞에서 가장이 두 번 절한다. 그러고 나서 사방에 술을 조금씩 뿌린 다음 가마에 불을 땐다. 담배를 출하하는 날 새벽에도 고사를 지낸다. 제물을 담 벽 앞에 차린 뒤 출하한 담배가 좋은 값을 받도록 기원한다. 이때도 제물 앞에 절을 두 번 하고 나서 주위에 술을 뿌린 뒤에 담배를 출하한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서는 과거에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다. 과거에는 7월에 담배를 찔 때와 9월에 출하할 때 각각 고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지금은 담배 농사를 짓는 가정이 거의 없어서 고사도 지내지 않는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1리에서도 담배를 찔 때 가마 터에 술 한 잔을 붓고 나서 담배가 잘 쪄지게 해 달라고 고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 대감(大監)

상호참조 대감단지(127쪽), 대감벙거지(128쪽), 사신대감(239쪽)

**정의** 가정신앙에서 모셔지는 신앙대상의 하나. 대부분 벙거지를 신체(神體)로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대감을 가정신앙의 주신으로 모시는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 일대를 제외하고는 없다.

대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대청에 모셔지는 가정신앙의 신령으로,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대감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집안 곳곳에 모셔진 대감이다. 대개 다른 이름을 붙여 별상대감, 성줏대감, 사신대감 등으로 부른다. 이때는 각각 별상, 성주, 사신을 높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대감은 대청에 모셔진 가정신앙 신령의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벙거지를 모시는 여러 대감신령을 의미하기도 한다.

**형태** 대감의 형태는 다양하다. 현재까지 강화도지역에서 확인된 대감의 종류는 ①대감, ②성주대감 · 별상대감, ③광대감, ④벼슬대감 · 보물대감 · 몸주대감 · 식신대감 · 걸립대감 · 천신대감 · 터줏대감, ⑤목신대감, ⑥사신대감 등이 있다.

먼저 ①대감이 가장 기본적인 대감의 형태이다. 이 대감은 주로 대청에 모신다. 신체는 벙거지이다. 다른 곳에 있는 대감은 앞에 그 대감을 설명하는 호칭을 붙였지만 대청에 있는 대감만큼은 그냥 대감이라 불러 다른 곳에 있는 대감과 구별한다.

다음으로 ②성주대감과 별상대감은 가정신앙의



대감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2010.7.22, 홍태한



광대감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2리, 2010.1.10, 홍태한



식신대감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2010.1.10, 홍태한



마루에 모셔진 대감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2010.1.10, 홍태한



터줏대감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2리, 2010.1.10, 홍태한

여러 신령에게 대감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경우이다. 별상은 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몇몇 마을에서는 별상대감이라고 부른다. 별상대감이라는 명칭에서 대감이 범박하게 모든 신령을 가리키는 호칭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성주를 성줏대감으로 부르는 것도 동일하다. 터줏대감은 신체가 터줏가리여서 대청에 모시는 대감과 구별된다. 강화군 교동면이나 하점면에서는 터줏가리와 동일한 형체를 따로 모시면서 천신대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③광대감은 신체가 벙거지이면서 강화의 여러 마을에 두루 나타난다. 교동, 하점, 삼산, 화도, 서도 등 간척지가 발달하고 논농사가 주업인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벙거지를 광 벽면 상단에 걸어놓고 그 하단에 곡식을 담은 진둥독을 놓기도 했다. 재물과의 상관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④벼슬대감 등의 경우도 신체가 모두 벙거지인 대감이다. 마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모두 벙거지를 한지로 싸서 집안 곳곳에 봉안되고 있으며, 재물을 관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거에 벼슬한 조상을 모시는 것이 벼슬대감이다. 쾌자를 이들 대감과 함께 봉안하는 사례도 있다.

다음으로 ⑤목신대감은 서도면 볼음도리에서 확인된 사례이다. 이 섬마을에서는 은행나무를 목신대감이라고 불렀다. 이 집은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벙거지 형태로 집 안에 따로 모시면서도 마을의 지킴이로 여기는 은행나무를 목신대감이라고 불렀다. 신체가 벙거지가 아니어서 전혀 성격이 다른 대감신으로 보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은행나무를 대감으로 모신다는 데에서 대감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⑥사신대감은 앞의 대감들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친정에서 데려온 가정신앙으로서 가정주부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 가정의 평안과 관련이 있어 대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강화도지역의 대감은 대청에 있는 ①대감과 대청이 아닌 집안 곳곳에 있는 ③, ④, ⑤대감으로 존재한다. ②의 경우는 일반 신령에 대감을 붙여 부르는 것으로, 재물과 관련이 있는 대감과 성격이 다르다. ⑥의 경우는 대감이라는 명칭이 확장되어 사용된 사례로 보인다. 무당굿의 〈대감거리〉와도 상통한다. 〈대감거리〉에서도 여러 대감이 연이어 들어와 재가집에 복과 명을 주기 때문이다.



김첨지대감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2리, 2010.7.29 홍태한



목신대감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2리, 2010.7.29 홍태한

강화도지역에는 주로 벙거지가 신체인 대감이 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두 재물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곳곳에 대감 신체가 봉안되고 있어서 대감의 위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대청에 있는 대감은 다른 말을 붙이지 않고 오로지 대감으로만 호칭하고 있어 대감 중에서는 상위신이다. 강화도의 여러 집에서도 대청에 있는 대감과 집 안의 곳곳에 있는 대감들의 위상을 구분하고 있다.

내용 강화도 전역에 조사된 대감의 양상을 종합하면 대감의 정체가 몇 가지로 규명된다. 먼저 재물을 관장하는 신령을 대감이라고 부른다. 대청에 봉안되어 있는 대감은 안방에 봉안된 칠성 및 별상, 집 마루 중앙 기둥에 봉안된 성주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 이는 칠성, 별상, 대감, 성주가 가정신앙 의례에서 주로 치성을 드리는 대상물이기 때문이다. 대감이 강화도지역 가정신앙의 주요한 신령임이 드러난다. 성주가 집의 대표로서 집안을 모두 관장하는 신령이라면 칠성은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령이다. 별상이 집안의 액을 막고 집안을 수호해주는 기능이 강하다면 대감은 재물을 관장한다. 이 네 신령은 상보적 기능을 한다.

| 신령 이름 | 기능 | 봉안 위치 |
|---|---|---|
| 칠성 |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 | 안방 |
| 별상 | 집안의 액을 막음 | |
| 성주 | 집의 모든 복을 관장 | 대청(마루) |
| 대감 | 재물을 관장 | |

안방은 은밀한 곳으로 가정의 내부를 대표한다. 대청은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 외부를 지향한다. 안방에 봉안된 신령과 대청에 봉안된 신령은 봉안 장소처럼 성격도 다르다. 물론 안방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청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은 외부인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봉안 위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칠성과 별상, 성주와 대감이 각각 한 축을 이룬다.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칠성은 안방에 봉안되어 있듯 가정 내부의 수호 기능이 강하다. 강화도지역의 별상이 대개 전염병으로 죽은 처녀신임을 고려하면 안방이라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내부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성주는 대청에 있으면서 집의 모든 복을 관장한다. 특히 성주는 집안의 대주를 상징한다. '성주가 산란하면 대주가 흔들린다.'라는 말에서 성주와 대주의 관련성이 보인다. 대청에 성주와 대감이 함께 있음으로 하여 대감의 가정 외부지향 성격이 나타난다. 재물은 가정 내부에서 얻을 수 없고 가정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재물을 관



**별상**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2010.1.16, 윤동환



**별상과 대감**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010.1.10, 윤동환



**천신대감**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2010.1.10, 윤동환

장하는 신령이기 때문에 대감은 대청에 봉안할 수 있다. 안방이 가정주부의 공간이라면 대청은 대주의 공간이다. 이에 따라 성주와 함께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대청에 모신다. 이처럼 대감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 봉안된 신령인 것이다.

대감의 재물과 관련성은 대감의 명칭을 두루 사용하게 한다. 집안 곳곳에 있으면서 재물과 복을 관장하는 신령이라면 대감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광대감이 한 예이다. 광대감은 글자 그대로 광에 있는 대감이다. 광은 한 집안에 소용되는 여러 재물을 쌓아두는 곳으로, 대감의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가정신앙은 공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를 떠난 가정신앙은 존재하기 어렵다. 대청에 봉안된 대감은 대청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칠성, 별상, 성주와 위상이 대등하다. 이에 따라 광에 있는 재물을 관장하는 별도의 신령으로 광대감이 존재한다.

집 뒤꼍에 주로 봉안된 터주를 터줏대감이라고 부르는 것도 동일하다. 터주는 터줏가리로 형상화된다. 터줏가리는 짚으로 만든다. 짚은 농경문화의 상징이자 곡식과 재물의 상징이다. 강화도의 몇몇 지역에 터줏가리 속에 벙거지를 넣기도 하여 터주가 터를 지키는 가정신이면서도 재물과 관련이 있는 대감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터주 옆에 또 다른 터줏가리를 봉안하고 이를 천신대감이라고 부르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터주 옆에 봉안돼 동일한 모양의 업주를 교동도의 몇몇 가정에서는 업주대감이라고 칭했다. 이 역시 업이 지니고 있는 재물의 의미를 강조한 결과이다.

동일한 의미로 벼슬대감, 몸주대감, 보물대감, 번양대감도 설명된다. 과거에 벼슬을 한 적이 있는 조상을 모신 벼슬대감 역시 집안의 재물을 늘리기 위하여 모신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명한 것이 보물대감이다. 모두 벙거지를 신체로 모시고 있어서 대감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여러 대감 중 특이한 성격의 대감으로 '사신대감'이 있다. 강화도지역의 가정신앙에서 좀처럼 신체를 볼 수 없는 신령이 사신대감이다. 교동도의 만신 주정자는 사신대감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신대감은 여자의 친정에서 따라온 것이다. 이를 잘 모시지 않으면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사신대감 옆에는 사신대감의 부인 아기씨가 따로 있어 함께 모신다. 그래서 교동의 주부들은 사신대감의 신체를 외부인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이 증언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둘 있다. 하나는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불화를 막기 위해 모시는 것이 사신대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외부인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신앙에 대해 조사할 때 성주, 터주, 별상마누라 등 다양한 가정신앙의 신체는 잘 보여주면서도 막상 사신대감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교동면 고구리에서 만난 전숙제 씨는 성주, 별상마누라 등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면서 사신대감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전씨는 "시어머니가 모시던 신령은 별상마누라이고 내가 모시는 신령은 사신대감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에게 있어 시댁에서 모시던 신령과 친정에서 모시던 신령이 구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신대감은 시댁의 가정신앙과 구분되는 친정 계통의 가정신앙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구분은 신앙의례에서도 보인다. 사신대감을 모시는 이들은 날을 잡아 고사를 올릴 때 시댁의 가정신앙 신령들에게는 음식을 바치고 예를 올리지만 친정에서 따라온 가정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음식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특징** 강화도지역에서 대감은 재물을 관장하는 가정신앙의 대상이다. 가정신앙이 특정 공간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재물을 관장하는 다양한 신령에게는 대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한다. 이는 가정신앙의 목적이 가정의 평안 추구이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재물의 획득임을 나타낸다. 재물은 한 가정의 존재 기반이 되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강조되었다. 물론 이러한 재물은 물적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지위, 평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사신대감은 고정된 곳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보인다. 가정주부에게 있어 여러 지역은 남편의 이동에 대한 생각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사신대감은 남편의 이동 공간과 관련이 있으며, 남편의 바람기를 관장하는 신령으로 보인다. 즉 친정에서 시집가는 딸이 평안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낸 신령으로 간주한다. 혼인한 여성에게는 재물만큼 소중한 것이 가정주부로서의 자존감이다. 그러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봉안하는 것이 사신대감이다. 이는 대감이 지닌 성격으로 인해 가능하다. 대감이 재물을 의미하면서 집안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신령이기 때문에 사신대감이라는 명칭이 가능했다.

**지역사례** 지금까지 간행된 가정신앙 관련 저작을 검토할 때 대감이라는 명칭은 경상도와 경기도에 주로 보인다. 경상도에는 터줏대감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이는 지신을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대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경기도 일원에서는 경기 서부지역인 강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다. 강화도에 분포한 대감은 지역적으로 다소 편차가 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 대감, 터주 | 광대감 | 업대감 | 기타 대감 |
|---|---|---|---|---|
| 교동면 | ○ | ○ | ○ | 목신, 사신, 식신, 살륭, 천신, 몸주 |
| 양사면 | ○ | × | ○ | 벼슬, 천신, 주, 걸립 |
| 하점면 | ○ | ○ | ○ | 천신 |
| 내가면 | ○ | × | ○ | 천, 살륭, 번양, 걸립, 몸주 |
| 삼산면 | ○ | ○ | ○ | × |
| 서도면 | ○ | ○ | ○ | 목신, 김첨지 |
| 화도면 | ○ | ○ | ○ | 벼슬 |
| 양도면 | ○ | ○ | ○ | × |
| 길상면 | ○ | ○ | ○ | 도깨비 |
| 불은면 | ○ | × | ○ | 벼슬 |
| 선원면 | ○ | × | × | 벼슬, 보물, 몸주 |
| 강화읍 | ○ | ○ | × | × |
| 송해면 | ○ | × | × | 몸주 |

**의의** 가정신앙의 제의 절차와 무당굿의 절차는 상통한 점이 많다. 한편 대감신이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가정신앙과 무당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동안 가정신앙의 주체로는 가정주부가 주로 거론되었다. 실제로 강화도 가정신앙의 주체는 그 집의 가정주부였고, 의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정주부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정작 가정신앙의 신체에 대해 접근하려 하면 자신의 집에 의례를 지내러 오는 무당이 시켜서 모시고 있지 상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흐렸다. 이것은 강화의 가정신앙을 가정주부와 무당이 함께 전승해왔다는 의미이다. 가정별로 가정주부가 가정신앙을 봉안하고 정기적으로 의례를 거행하지만 의례의 진행과 가정신앙 신체의 봉안, 교환, 폐기는 모두 무당이 주관한다.

무속과 가정신앙이 상호 소통하고 있음은 가정신앙의 신령과 굿판의 신령 존재 양상이 일치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강화도지역에서 가정신앙에 봉안된 신령으로 안방의 칠성과 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칠성의 신체는 백색 천으로 일곱 자 일곱 치를 봉안한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칠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는 천의 길이가 상징적으로 일곱 자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일곱 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정신앙에서 칠성과 별상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대청에 봉안된 성주는 신체 형태가 다양하지만 성주라는 이름의 가정신앙은 역시 하나이다. 그러나 대감은 대청의 대감과 함께 집안 곳곳에 봉안된 대감 등 다수로 존재한다.

가정신앙에 존재하는 신령의 숫자는 굿거리에 등장하는 신령의 숫자와 상통한다. 경기도 서부와 강화도지역에서 연행되는 각각의 굿거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가정신앙 | 무당굿 |
|---|---|
| 성주 | 성주거리(부속거리 없음) |
| 칠성 | 불사거리 중 칠성공수 |
| 별상 | 별상거리(부속거리 없음) |
| 대감 | 대감거리<br>· 전안대감<br>· 조상대감<br>· 양반대감<br>· 텃대감<br>· 걸립대감<br>· 도깨비대감 |

가정신앙 성주에 대응하는 〈성주거리〉는 부속 거리가 없이 성주만 청배한다. 칠성에 대응하는 것은 〈불사거리〉 중의 칠성공수이다. 〈불사거리〉는 여러 신령이 연이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칠성공수는 한 차례만 구송된다. 별상에 대응되는 〈별상거리〉도 부속 거리가 없이 별상만을 청배한다.

대감을 청배하는 〈대감거리〉는 양반대감, 텃대감 등 다양한 대감을 놀린다. 지노귀굿에서는 하직대감과 몸주대감까지 청배하여 놀린다. 대감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지만 성격이 조금씩 다른 다양한 대감이 들어와 노는 것이다. 양반대감은 강화도지역 가정신앙에 존재하는 벼슬대감과 성격이 상통한다. 조상 중에 벼슬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놀리는 대감이다. 재물대감, 텃대감은 모두 강화도지역 가정신앙의 대감 성격인 재물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신령이다.

가정신앙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대감처럼 무당굿에도 다양한 대감이 존재한다. 가정신앙의 신령 체계와 무당굿의 신령 체계는 상통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강화도지역의 가정신앙은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전승 주체로서 가정주부, 의례 담당 주체로서 무당이 각각 존재한다. 무당굿과 가정신앙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그 연결점의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감이다.

대감신의 존재는 집에서 연행되는 무당굿에도 영향을 주어 〈무감서기〉에 재가집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한다. 〈무감서기〉는 재가집을 비롯하여 굿판에 참가한 일반인들이 무복을 걸치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이 〈무감서기〉는 반드시 〈대감거리〉가 연행되고 나서 진행된다. 1970~1980년대에는 굿을 하는 시간보다 무감을 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굿판에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감을 서기 위해서였다. 음악을 맡은 악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단한 거리였겠지만 무감을 서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별비를 쓰기도 하여 악사들이 거부하지는 않았다.

〈무감서기〉에 참가함으로써 굿을 의뢰한 목적이 달성되고, 굿판에 참가한 이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무감서기〉가 〈대감거리〉 다음에 곧장 연행된다는 것은 재가집들이 〈대감거리〉가 낯선 거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재가집들은 자신의 집 곳곳에 모셔진 대감신을 통해 대감의 존재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감거리〉 다음에 연행되는 〈무감서기〉에 적극 참여한다.



**참고문헌** **강화군 교동도 가정신앙 전승의 다양성**(홍태한, 도서문화 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강화도 가정신앙 대감의 성격 연구**(홍태한, 도서문화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강화의 가정신앙 1 · 2**(강화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2011), **친정에서 따라온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남도민속학연구 20, 남도민속학회, 2010).

**필자** **홍태한(洪泰漢)**

## 대감단지

상호참조 대감(121쪽)

**정의** 집안에 재복이 깃들고 흥성하기를 기원하는 대상인 대감신의 신체로 인식되는 단지.

**형태** 대감단지는 단지형의 신체가 단독으로 봉안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외에 별도의 신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감단지 외에 대감옷과 대감벙거지 등이 함께 봉안되는 형태도 나타난다.

대감단지는 간혹 집의 외부공간이나 안방구석, 마루, 부엌 등에 봉안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주로 곡물을 보관하는 장소인 광에 봉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감신은 종종 광대감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 가정에 여러 개의 광이 있을 경우 광마다 대감단지를 봉안하는 양상도 보인다.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사례에서는 집 안 두 곳의 광에 대감단지가 따로 봉안되어 있는데, 각각 천신대감과 보물대감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감단지를 두지 않는 것은 별도의 신체가 없더라도 대감신이 좌정해 있다고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곡식을 주로 보관하는 광은 별다른 신체가 없어도 대감신이 좌정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한편 경기도 강화, 김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감벙거지, 대감옷 등으로 불리는 대감신의 신체가 나타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신체들이 대감단지와 함께 봉안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2리의 사례에서는 대감단지의 위쪽 벽에 못을 박고 그 위에 대감단지, 대감옷, 대감벙거지를 올려놓음으로써 함께 봉안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양지편마을에서도 대감단지 옆에 대감옷을 한지에 싸서 보관하기도 한다.

대감단지와 더불어 봉안된 대감옷과 대감벙거지는 무속의례 시 대감거리 절차에서 무(巫)가 꺼내어 입고 다시 넣어둔다. 이러한 양상은 대감신의 봉안이 무속의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감단지가 봉안되는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속의례이다. 안택굿이나 치병굿을 하면서 무당이 여러 가신(家神)의 좌정을 권유하는데 대감단지 역시 이 과정에서 봉안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더 나아가 대감단지를 없애거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도 무당의 공수에 따르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무속의례를 통해 대감신을 천도시켜 대감단지를 없애기도 한다.

대감단지 안에는 돈이나 위패 등을 넣기도 하지만 주로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벼나 쌀을 넣어 채워 둔다. 대감단지 안에 두는 쌀의 분량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대감단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운양동, 2006.7.22, 서종원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2010.7.22, 윤동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감신이 집안의 부와 복을 불러다주는 신령으로서의 상징성을 띠고 있어서 대감단지 안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벼나 쌀을 담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감단지는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대감단지에 들어갈 곡식의 분량과 곡식의 모양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북 군산시 신풍동 사례에서는 대감단지에 쌀 한 되 서 홉을 넣으며 1년에 한 번 햅쌀이 나면 갈아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만을 골라 넣는 양상도 보이는데, 온전한 모양을 갖춘 곡식만을 골라 제물로 올림으로써 대감신을 모시는 지극한 정성을 담는 것이다.

**내용** 대감단지에 대한 의례는 일반적으로 가정신앙 차원에서 대감신을 비롯한 집안의 여러 가신들이 정기적으로 모셔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감단지가 무속의례를 통해 봉안되었을 경우, 무속의례 시 대감거리 절차에서 모셔지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 행해지는 대감단지에 대한 의례는 가정의 가장인 대주가 참여하는 사례도 있으나 주로 주부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감단지에 차리는 제물은 팥 시루떡, 과일, 막걸리 등 간소한 형태이고 절을 하며 집안의 무고와 번성 등을 기원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의례는 정월, 칠월칠석, 시월상달의 가을고사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때 성주나 제석, 칠성, 터주 등의 다음에 대감을 모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양상으로, 대감신이 성주나 제석, 칠석, 터주보다는 낮고 기타의 신령보다는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감단지에 넣어둔 곡식은 대개 일정한 날을 정해 꺼냈다.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오월단오 등 일정한 절일(節日)을 택해 꺼내 먹고, 햇곡식이 나면 가장 먼저 대감단지의 곡식을 새 것으로 갈아 주었다.

사례에 따라서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는 굿을 할 때와 같이 특정한 의례에만 곡식을 꺼내어 사용하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만 햅쌀을 갈아주는 양상도 보인다. 오산시 금암동의 경우에는 가을에 농사지은 햅쌀을 대감단지에 넣고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꺼내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는 대감단지에 넣어 둔 쌀을 쓸 일이 생기면 한 번에 충분한 양을 퍼서 다른 곳에 담아두고 조금씩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밖에도 대감단지의 쌀은 꺼내지 않고 두었다가 가능한 한 7~8월경이 되어서야 꺼내어 먹고 햇곡식을 갈아 주는 양상도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대감단지에 든 곡식은 가급적 꺼내 먹지 않거나 햅쌀의 추수 시기까지 그대로 두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감단지에 넣은 벼나 쌀은 퍼내어 집 밖으로 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않고 식구끼리만 먹었다. 간혹 벼나 쌀로 값을 치르게 되어도 대감단지의 것은 손대지 않았다.

대감단지 안의 곡식을 꺼내어 이용하는 경우, 우선 떡이나 밥을 지어 물과 함께 대감단지 앞에 진설해 대감신에 대한 예를 표한다. 대감단지에서 곡식을 꺼내어 먹는 경우 부정을 가리고 식구끼리 먹는 양상이 일반적이다.

현재 대감단지를 봉안하는 풍습은 크게 줄었다. 농사가 줄면서 대감단지를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감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감단지 안에 곡식을 넣어두지 않는 변화의 모습도 보인다.

**참고문헌** **강화의 가정신앙**(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경기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김미영 외, 국사편찬위원회, 2010), **성남시의 가정신앙과 마을신앙**(성남문화원, 2000), **이천의 민간신앙**(홍순석, 민속원, 200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가정신앙-상·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오문선(吳文仙)**

## 대감벙거지

상호참조 대감(121쪽)

**정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에서 가정신앙의 하나로 모시는 대감신의 신체.

**형태** 벙거지는 전립, 병립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궁중이나 관청의 하급관리들이 쓰던 모자이다. 돼지털을 다져서 별다른 장식 없이 만들었다. 모자 부분은 등글게 되어 있고, 꼭대기에 정자를 단다. 이 벙거지를 강화도 일원에서는 대감의 신체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벙거지를 흰 종이나 한지로 싸서 대청에 살강을 매고 올려둔다. 그러나 몇몇 가정에서는 한지로 싼 벙거지를 상자나 궤에 담아 대청 가구 위에 올려두기도 한다.



대감벙거지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2010.1.10, 홍태한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2리, 2010.7.31, 홍태한

**내용** 벙거지를 대감의 신체로 간주하므로 대감벙거지라고 부른다. 대감은 강화도에서 가장 흔한 가정신앙의 대상이다. 이 대감은 안방에 봉안된 경우 대감, 광에 있으면 광대감, 집 밖에 있으면 터줏대감이라고 각각 일컫는다. 결국 대감은 집안 곳곳에 있는 여러 신령의 총체인 셈이다. 대감신의 신체로 대부분 벙거지를 모신다. 짚으로 엮은 터줏대감의 경우에도 터줏가리 안에 벙거지를 넣는 사례가 많아 역시 대감벙거지에 포함된다.

날을 잡아 고사를 올릴 때 대감을 위한 치성을 드리게 되면 대감벙거지가 봉안된 앞에 상을 차리고 제차를 진행한다. 대감벙거지를 싼 종이가 오래되어 낡아지면 고사를 드리기 전에 종이를 새로 준비해 벙거지를 다시 봉안하기도 한다. 고사를 드리는 도중 무당이 대감벙거지를 꺼내 간단하게 놀리고 나서 다시 봉안하기도 한다.

대감의 신체로 벙거지가 주로 봉안되는 것은 무속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굿판에서 벙거지가 신령의 모자로 등장하는 거리는 대개 신장거리, 대감거리처럼 사람들에게 복을 직접 주는 신령이 나오는 거리이다.

서울, 경기굿에서는 다양한 무복과 무구가 사용된다. 신령의 위상을 나타내는 모자로는 갓과 벙거지가 있다. 갓은 상산, 산신 등 격이 높은 신령이 주로 사용한다. 벙거지는 상산이나 산신보다 격이 조금 낮은 신령인 별상, 신장, 대감 등이 주로 쓴다. 〈산거리〉와 〈불사거리〉에 벙거지를 쓴 신령이 등장하면 이를 산신신장, 산신대감, 불사신장, 불사대감이라 칭한다.

대안주거리에도 갓을 쓴 신령과 벙거지를 쓴 신령이 구분된다. 갓을 쓴 상산이 먼저 들어와 공수를 준 다음에 별상, 신장, 대감이 연이어 들어와 공수를 준다. 이때는 모두 벙거지를 쓴다. 벙거지를 쓰면서 시작되는 굿거리는 없다. 갓을 쓴 신령이 굿거리를 시작한 뒤에야 벙거지를 쓴 신령이 연이어 들어와 굿을 진행한다. 이러한 벙거지를 쓴 신령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첫째 신령이 홍이 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음악인 '타령'을 부른다. 굿판에서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노랫가락'과 '타령'이 있다. 노랫가락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노래로서 신령이 굿판에 강림해 인간들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내용이다. 반면에 타령은 무당이 직접 자기 몸에 신령을 실은 후 명과 복을 나눠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노랫가락이 기원의 노래라고 한다면 타령은 축복의 노래이다. 신장과 대감은 모두 이 타령을 불러서 인간들에게 직접 복을 나눠준다.

둘째 복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 신장은 신장기를 휘둘러 사방의 복을 모아 굿판에 온 이들에게

나눠주는 시늉을 하고, 대감은 우족이나 시루 등을 들고 역시 복을 나눠주는 시늉을 한다.

셋째 여느 신령들과 달리 신장과 대감은 직접 인간과 소통한다. 장군신은 위엄이 높고 무서운 신령이어서 인간에게 공수를 주기는 하지만 직접 가까이 와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필요한 말들을 자상하게 일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장과 대감은 직접 인간에게 다가가 접촉하면서 복을 주는 시늉을 한다. 직접 복을 주는 시늉을 하지 않는 별상은 사실을 세워 신의 영검을 확인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복을 직접 주는 신령의 상징으로 벙거지가 존재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강화도의 대감 신체인 벙거지이다. 벙거지는 대개 가정신앙의례를 주관하는 무당이 구입해 준다. 집에 모신 것이 낡게 되면 만물상에서 다시 사다가 모시기도 한다.

벙거지와 관련하여 특이한 진술이 있다.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흘러 서해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 이 때문에 홍수가 나면 육지의 여러 물건이 떠내려 왔으며, 그 가운데 벙거지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벙거지를 신령의 신체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진술은 벙거지의 신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인다. 서울, 경기 일원 굿에서 벙거지가 중요한 무복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무당내력(巫黨來歷)』에도 이미 벙거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대감벙거지가 발견되는 지역으로는 강화도가 대표적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는 거의 없다. 강화도에서도 특히 도서지역인 교동도에 다양하게 남아있다. 강화도의 남부지역인 화도면이나 양도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옥구조의 변화와 전승집단의 의식 변화로 가정신앙이 소멸하면서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벙거지가 빠른 속도로 소멸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강화도 북부지역인 양사면의 북성리, 하점면의 창후리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의** 가정신앙과 무속의 관련성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신령을 상징하는 신체로 벙거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정신앙과 무속의 상관성을 도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부분의 집에서 벙거지를 봉안할 때 무당의 조언을 듣는 사례가 많아 무속과 가정신앙의 관련성 도출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화군 교동도 가정신앙 전승의 다양성**(홍태한, 도서문화 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강화도 가정신앙 대감의 성격 연구**(홍태한, 도서문화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0), **강화의 가정신앙 1 · 2**(강화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필자** **홍태한(洪泰漢)**

## 대구심리

상호참조 천신(650쪽)

**정의** 경상도와 전라도지역에서 처음 어획한 대구로 국을 끓여 가정신에게 먼저 바치는 제의.

**역사** 대구(大口)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는 어류로서 국가 관청에 바쳐지거나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졌다. 여말 선초의 문신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경상도 관찰사 이공원(李公原)으로부터 햇대구를 받고 감사의 시를 썼다. 이처럼 대구는 귀한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지는 것으로 보아 식생활의 귀중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 경상도의 남해안과 함경도의 동해안지역에서 대구가 많이 잡혔다.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에는 경상도의 창원, 거제, 진해, 고성, 사천, 고성 등의 토산품으로 대구가 기록되어 있다. 함경도의 함흥과 영흥 등에서도 대구는 주요 토산품이라고 실려 있다.

대구를 잡아서 많은 이득을 올리게 되자 궁방과 관청에서는 대구의 어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1676년(숙종 2)에 영의정 허적(許積)의 제안으로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이 빼앗은 거제도 옥포진의 대구 어장을 다시 통영(統營)에 돌려주게 되었다. 경상도 감영(監營)은 식탁에 오르는 중요한 자원인 대구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였다. 1712년(숙종 38)에는 영남의 해안가 백성들이 감영에 공물로 바치는 1천 마리의 대구를 비롯한 해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도 있었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는 "이 생선이 동해에서 만 나고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문헌에 전하지 못하여 중국 사람이 진미라 하였다. 북도 명천의 건대구가 유명하다."라고 하였다. 명천은 함북의 동해안에 접한 지역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함경도에서는 대구가 많이 잡혀 사재감(司宰監)에 백대구어(白大口魚)를 진상하였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나는 대구가 중국인들이 진미라 할 정도로 중국에까지 대구의 명성이 퍼진 것이다.

**내용** 대구로 국을 끓이면 비린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즐겨 먹었다. 대구는 어체가 커서 한 번 국을 끓이면 많은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을 주는 물고기이다. 말린 대구는 탕이나 찜을 해서 먹는다. 알, 내장, 아가미는 젓갈로 담가 먹었다. 이처럼 버릴 것이 없는 대구는 매우 귀한 물고기로 인식되었다.

경남 거제도와 진해지역에서는 처음 나는 대구로 국을 끓여서 조상신께 먼저 올린 다음에 식구들끼리 나눠 먹었다. 이를 '대구 천신(薦新)'이라고 하였다. 합천지역에서는 대구를 사오면 먼저 가신(家神)에게 대구심리를 올리고 나서 먹었다. 대굿국과 찬을 장만하여 부엌에서 먼저 조왕신과 성주신을 위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조상을 위하였다. 이처럼 조상에게 먼저 대구심리를 하지 않으면 대구를 먹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구심리는 보통 음력 섣달에 한다. 대구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잡히는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진해만을 끼고 있는 거제, 창원 등지에서 대구심리가 전승돼 행해졌다. 우리나라의 진해만은 대구가 가장 많이 잡히는 어장이어서 경남지역에 대구가 많이 유통되었다. 대구는 한류를 따라 남해로 들어와 진해만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잡은 대구가 가장 크고 맛이 있다. 현재는 거제의 외포항이 대구를 많이 잡아 들어오는 항구이다.

**지역사례** 대구심리는 거제시와 창원시 등 경남에서 많이 하는 제의이지만 보성군, 여수시 등 남해안과 접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도 행하였다. 보성에서는 처음 잡은 대구를 올려 조상에게 감사를 드렸다. 여수지역에서는 어부들이 대구를 처음 잡아서 먼저 조상 앞에 차려 두고 대구심리를 한 뒤에 식구들과 국을 끓여 먹었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備邊司謄錄**,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集**,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유승훈(柳承勳)**

## 대주(大主)

상호참조 주부(625쪽)

**정의** 민속에서 무당이 굿하는 집이나 단골로 다니는 집의 바깥주인을 이르는 말.

**내용**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집의 남자주인, 즉 남편을 이르는 말로 사용한다. 때로는 호주(戶主)를 뜻하기도 한다. 이때는 법률상 의미보다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 즉 호두(戶頭)와 통하는 의미로 한 가정을 도맡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자로 표기할 때 일반적인 글자는 큰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대주(大主)이며, 학자에 따라서 가장(家長)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대주(垈主)로 쓰기도 한다. 대주를 성주와 연관시켜 큰 기둥이라는 의미에서 대주(大柱)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다. 무속에서 대주는 한집안의 안주인인 기주(祈主)와 짝을 이루어 표현된다. 기주는 글자 그대로 돈을 들여 굿을 하며 소원을 비는 주인, 즉 제의를 의뢰한 사람으로 대부분 한집안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여성이다.

대주가 언급되는 경우는 대개 성주신과 관련된다. 성주신에 대한 제의가 으레 "성주는 대주를 믿고 대주는 성주를 믿는다."라는 말로 시작될 만큼 대주와 성주의 관계는 밀접하다. 전국적으로 '대주와 성주가 한가지'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성주는 주인을 위해 모신다는 말도 있다. 가옥을 주관하는 성주는 집을 보살피는 중심 신격으로서 주택의 중심에 있게 된다. 이는 상량식에 올라가는 대들보가 집을 떠받쳐 가옥의 틀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통 기둥으로 표현되는 대들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에 비유된다. 가옥과 기둥의 관계는 한 가정(집)과 그 집 가장(대주)의 관계와 같다. 이러한 비유는

성주와 그 집의 가장을 동격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부장제 하에서 집을 지탱하는 중심은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가신 제의에 비해 성주에 대한 의례는 대주가 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량식이나 성주받이굿에서 대주가 참여하는 비율은 다른 가신 제의에 대주가 참여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성주받이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해서 새로이 성주를 맞아들이게 되는 무속적 의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집이 있는 사람만이 성주를 모실 수 있다. 그리고 한 집에 두 성주는 있을 수 없으며, 가장이 바뀌면 성주도 달라져야 한다. 성주를 표상하는 대주가 죽으면 기존의 성주는 집을 나가고 새로운 대주에 따른 새 성주를 모셔야 한다. 이에 따라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기존의 성주 신체는 태워서 없애고, 새 주인의 운수를 보아 성주받이를 통해 성주를 새로 맨다. 새로운 가장이 한 집의 운과 질서를 좌우하게 되듯이 새로운 성주가 새로워진 가족 간의 관계와 질서, 안녕을 보살피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남부지역의 가신신앙 연구**(안혜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 이광규 · 장주근, 일조각, 1991),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안혜경(安惠敬)**

## 덤장고사

표제어 그물고사(80쪽)

## 도깨비

상호참조 도깨비고사(134쪽), 메밀묵(167쪽)

**정의** 비상한 힘과 괴상한 재주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험상궂은 짓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신. 도깨비는 마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마을 공동체의 당신(堂神)으로 모셔지는 대상이다. 또한 병을 일으키는 역신(疫神)으로서 쫓겨나가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영역에서는 부(富)의 신, 풍어(豊漁)의 신, 가업수호신(家業守護神), 대장신[冶匠神]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식된다.

**내용** 도깨비는 빗자루, 부지깽이, 키, 절굿공이, 체와 같이 사람들이 늘 사용하다가 버린 손때 묻은 물건들이 변하여 생성된다고 한다. 사람의 혈액이 묻은 것, 특히 여성의 월경(月經) 피가 묻은 것이 흔히 도깨비로 변신한다. 때로 동물의 정령, 초목의 정령, 기물(器物)의 파편이 도깨비가 되는 수도 있다.

도깨비는 주로 어둡고 습기가 많은 음산한 곳에 나타난다. 숲속 외딴 곳, 외딴집, 물가, 후미진 집 안이나 동네 어귀 등지에서 도깨비가 등장한다. 도깨비가 활동하는 시간은 어두운 밤이다. 궂은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대낮인데도 나타난다.

도깨비는 장난기 가득한 심술로 인간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한다. 씨름을 좋아해 사람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오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타나 남성을 홀리기도 한다. 노래와 춤을 즐기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를 탐하는 습성을 보이기도 한다. 어리석음도 도깨비가 지닌 속성 중 하나이다. 사람에게 돈을 꾸어 가고는 계속해서 갚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도깨비는 신통력이 있어서 하룻밤 사이에 연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기도 한다. 논에 돌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가 하면 다시 그 돌을 다 치워서 개똥과 쇠똥을 가득 쌓아 놓는 등 자유자재로 조화를 부린다. 이러한 신통력으로 도깨비는 인간에게 재물과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풍작(豊作)과 풍어를 이루고, 많은 재화를 얻으며 산해진미를 마음껏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깨비의 다양한 속성에 걸맞게 그 형상 역시 변화무쌍하고 각양각색이다. 도깨비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귀문와(鬼紋瓦)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 나라와 시대에 따라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존재로서의 무서움과 위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머리에 달린 뿔, 크게 부라린 눈, 유달리 큰 입, 날카롭고 긴 이빨, 털이 나 있는 몸체와 긴 손발톱 등이 귀문와에 표현되어 있다.

문헌에 기록된 도깨비는 독각귀(獨脚鬼)라 하여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키가 매우 커서 상반신이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거인의 모습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허리에서부터 윗부분은 보이지 않고 하반신만 보이는 귀물(鬼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키가 너무 커서 옷을 해 입을 수가 없고 허리 아래는 백지를 둘러 치마로 삼았다. 발은 마르고 새까만 것이 옻칠한 것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구술 전승되는 이야기 속에서 도깨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요란한 소리, 불빛 등으로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미녀, 노옹(老翁), 노구(老軀), 농부 등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깨비는 보통 남성으로 나타나지만 때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타나 남성을 홀리기도 한다.

전라도 어촌의 도깨비를 모시는 제의에서는 도깨비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진생영감 또는 허생원으로 불리는 도깨비 신체(神體)는 짚으로 만들어진다. 아랫도리에 커다란 남근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을 하고 있다.

도깨비는 사납고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두려운 존재이자 공포의 대상이 된다. 심술과 장난이 심해 경박스러우면서도 허술하고 어리석은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변화무쌍한 신통력을 보이지만 어딘지 허술하고 번잡스러운 신이다. 또한 도깨비는 인간에게 도움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친근한 존재이다. 가정신앙의 영역에서는 도깨비의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기를 기원하는 제의를 거행하곤 한다.

**지역사례** 도깨비는 지방에 따라 도째비, 도짜비(전라도), 도까비(경상도), 도채비(제주도 및 남해 도서지역) 등으로 불린다. 신은 신이되 좀 번잡스러운 신이라는 속성에 걸맞게 영감, 생원, 서방 등 허름한 존칭이 붙기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서방, 김영감, 진생원 등과 같이 성까지 부여받기도 한다. 이는 한층 인간과 친숙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깨비가 마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당신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도채비당에서 모셔지는 도깨비가 대표적이다. 이와는 달리 도깨비가 사람을 괴롭히고 병을 옮기는 잡귀 또는 악신으로 여겨져 이를 달래어 몰아내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영감놀이에 등장하는 영감이 대표적이다. 당신의 경우 당굿이라는 마을신앙적 제의가 행해진다. 역신인 경우에서는 치병굿이라는 무속신앙적 제의가 행해진다. 한편 도깨비는 가정신앙의 영역에서 모셔지기도 한다. 비교적 간단한 고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도깨비고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깨비고사는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집안에서 신앙 대상으로 도깨비를 모시는 도깨비고사를 하는 것이다. 도깨비고사는 지역에 따라 참봉고사, 덤장고사, 진새고사, 그물코ᄉᆞ 등으로 불린다.

충남지역에서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도깨비고사가 이루어졌다. 북쪽으로는 당진군 송악읍에서부터 태안군 안면도로 이어지는 연안선을 따라 제의가 이루어졌다. 당진군 송악읍 한진1리에서는 참봉고사라 부른다. 첫 출항을 할 때 호박과 메밀 등으로 만든 메밀범벅을 다섯 개 정도 준비하여 고기를 잡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나가 고사를 지낸다. 메밀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물 위의 참봉, 물 아래 참봉, 고기 많이 잡고 풍어를 이루게 해 주십사."라는 축원을 한다.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에서도 도깨비고사를 지냈다. 살[漁箭]을 갯벌에 매고 나서 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고 메밀범벅을 뿌리면서 축원을 했다.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서도 참봉제라고 부르는 도깨비고사를 지냈다. 살을 맬 때 거행되었다. 호박이나 수수로 범벅을 만들어 '물 위 참봉 물 아래 참봉' 등의 축원을 하면서 살 주변에 다 뿌린다. 이러한 고사는 도깨비가 뱃일을 도와준다고 믿었음을 뜻한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서는 도채비고사라고 부르는 제의를 행했다. 살을 매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기 위해 도채비고사를 지냈다. 도채비를 김서방이라고 부르면서 "물 아래 김서방, 물 위의 박서방, 고기 많이 모아서 우리 살에 넣어 주시오."라는 내용으로 축원을 했다.

전남의 도깨비고사는 신안군, 무안군, 완도군, 여수시 등지에서 지내고 있다. 개펄에 덤장을 설치해 놓고 고기를 잡는 무안군 해제면 일대의 어민들은 도깨비가 고기를 많이 몰아다 준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덤장고사, 대발고사, 도깨비고사, 개맥이고사 등으로 불리는 도깨비를 모시는 제의를 행한다. 고사는 어장

의 주인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고사를 지내는 장소는 어장이 설치된 곳에서 가까운 해안가이다. 제의 일시는 매달 물이 새로 드는 서무날(12 · 27일)과 열무날(4 · 19일)의 만조 때 초저녁이다. 고사 장소에 도착해서 먼저 짚으로 간단한 도깨비집을 만든 다음 제물을 진설하여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는 것으로 제의는 끝이 난다. 메밀(피고물)은 반드시 올려야 하는 제물이다. 축원은 "물 건너 김서방 ○○○의 어장 재수 많이 봐 주시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수시 소라면 일대에서도 진새고사 또는 진생원고사라고 부르는 도깨비고사를 지낸다. 정월대보름날 당산제가 끝난 저녁 무렵에 치르는 배고사 때 고사가 곁들여진다. 고사는 물때에 맞춰 남자 혼자서 덤장 자리로 배를 타고 간 뒤 배의 앞 칸에 고사상을 차려 놓고 비는 것이다. 제물은 덤장에서 잡은 고기와 메, 과일, 나물 등이다. 때때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고사는 먼저 배의 서낭에게 제사를 올리고 나서 진새님에게도 고사를 한다. 이어서 헌식을 한다. 진새님을 위해 메밀묵을 몇 섬씩 준비해서 바다에 뿌린다. 메밀을 뿌리면서 "진새님 진새님 오늘 좋은 날을 골라 시장에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갖고 진새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많이 잡숫고 저 넘자바다 괴기떼를 몰아갖고 우리 덤장으로 몰아 줍소."라고 축원한다.

순천지역에서도 도채비 진생원을 위한 고사가 행해졌다. 3월 스물셋째날 바닷가 선착장 부근에서 제물을 진설하여 고사를 지낸다. "동쪽의 진생원님, 서쪽의 진생원님, 나물과 밥을 차렸으니 우리 어장에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축원하면서 어장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 도채비 진생원에게 비손을 한 뒤에 고사가 끝나면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던진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도깨비를 모시는 제의를 그물코스라 부른다. 어로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집안에서 모셨다. 일정한 제의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때, 즉 매월 초와 보름에 지낸다. 그물코스는 어장굿 또는 멜굿(멸치굿)이라고도 불렀다. 멸치를 도채비 즉 영감신이 몰아준다는 믿음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물코스를 지낼 때는 아무도 없는 새벽 일찍 혼자 마을의 당에 올라가서 제물을 진설하여 고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도깨비고사는 바다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가정신앙 형태이다. 이 밖에 대장간을 하는 집에서 도깨비를 모시기도 한다. 뜨거운 불을 이용하여 쇳물을 녹이는 등 언제나 위험이 동반되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격으로 도깨비를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문무병, 탐라문화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문화대사전-상**(김용덕, 창솔, 2004), **한국민속의 세계 9-민간신앙 · 기타신앙**(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해안지방 도깨비신앙의 전승양상에 대한 고찰**(김종대,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필자** **허용호(許龍鎬)**

## 도깨비고사

상호참조 그물고사(80쪽), 도깨비(132쪽), 메밀묵(167쪽)

**정의** 부신(富神), 화신(火神), 역신(疫神)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잡귀에 속하는 신인 도깨비를 위하거나 퇴치하기 위해 가정에서 올리는 굿이나 고사.

**내용** 도깨비는 한자로 이매(魑魅) · 망량(魍魎), 한자 차기로는 독갑(獨甲), 독각귀(獨脚鬼)라고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서낭을 도깨비신으로 여겨서 영감, 참봉, 야채 등으로 부른다. 도깨비는 재복과 풍어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 위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집안에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기도 하며, 솥뚜껑을 솥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장난도 쳐 집안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여 꺼리는 대상이기도 하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이 있는 어촌 가정에서는 멸치나 갈치를 몰아주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는 잡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풍어와 조업의 안전을 위해 도깨비에게 축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도깨비를 역질을 가져오는 역신으로 인식하여 여자에게 도깨비가 지폈다고 여겨지면 영감놀이를 하여 퇴치한다.

도깨비는 뚜렷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풍요신적 · 가업수호신적 속성과 변덕 및 심술을 부리는 화재신적 · 역질신적 속성을 지닌 이중적 성격의 남성신으로 인식한다. 도깨비는 특히 호색적인 면이 있어서 여성을 좋아한다고 한다. 즐겨 먹는 음식은 메밀묵 · 수수범벅 · 수수팥떡이라 여기고 풍어와 재복을 끌어들이기를 기원할 때 이들 제물을 장만하여 위한다. 집 안에 도깨비단이나 도깨비업을 모시기도 한다. 도깨비가 말 피(특히 흰말의 피)나 월경이 묻은 속곳 등 붉은 색깔을 두려워하고 기피한다 하여 동짓날에는 팥죽을 쒀서 집 주위에 뿌려 잡귀와 도깨비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방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샛불마을에서는 선주가 한 달에 한두 번 날을 잡아 배서낭고사와 출어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풍어와 사업 번창, 선원의 무사평온을 기원하기 위해 지낸다. 고사 끝에 산물이라고 하여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바가지에 담아서 바다에 던진다. 이때 "물 안에 참봉, 물 위 참봉, 진 걸로 마른 걸로 많이 먹고 멀리 가십사."라고 한다. 참봉은 도깨비를 지칭한다. 도깨비는 고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처지라 별도로 떼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에서는 섣달그믐날에 배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마치면 제물을 조금씩 걷어서 바가지에 담아 바다에 던지면서 "아랫 참봉, 웃 참봉 받아 잡수시라."라고 한다. 또 이 마을에서는 참봉고사와 그물고사를 지낸다. 참봉고사는 아무 달이고 초사흗날이나 초여드렛날에 지낸다. 제를 지낼 때는 제물로 팥 시루떡과 함께 찹쌀이나 메밀범벅 스물한 개, 큰 생선 몇 마리, 삼색실과, 북어를 장만하여 그물이나 배 위에 놓고 비손 한 뒤 모두 바다에 던진다. 바닷가에 사는 참봉에게 빌 때는 "물 위 참봉, 물 아래 참봉"을 찾는다. 그물고사는 그물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하게 될 때 고기가 잘 걸리게 해 달라고 지낸다. 뱃일을 나가기 전에 제물로 흰 시루 · 명태포 · 삼색실과 · 술을 장만해 갯가에 짚을 깔고 차린다. 고사를 지낼 때 '물 아래 참봉'과 '물 위에 참봉'을 불러서 막걸리를 뿌려 대접한다. 바다에 나가게 되면 그물고사나 참봉고사를 지내기 전 용왕부터 위한다. 먼저 흰 시루를 쪄서 용왕을 위한 뒤에 팥 시루나 범벅으로 참봉을 위한다. 물 위의 참봉은 물 위에서 고기를 받아주고 물 아래 참봉은 고기를 그물에 많이 몰아다 준다고 한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월 서무날(3물)에 물때를 맞추어 새벽 무렵 들물이 되면 메밀범벅을 장만해 바닷가에 가서 참봉고사를 지낸다. 이 때 "물 위에 참봉, 물 아래 참봉"이라 부르면서 범벅을 바닷가에 뿌리고 돌아온다.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는 어장터에서 덤장고사를 지낸다. 덤장고사는 주로 섣달그믐날에 많이 지낸다. 서무날에도 지내는 가정이 있다. 덤장 주인이 제물로 떡과 술을 비롯하여 조기 · 명태 · 제숙 · 범벅을 장만하여 중서낭 · 남서낭 · 여서낭을 위해 세 몫으로 나누어 어장터에 차리고 재배를 하면서 "비늘 크고 꼬리 크고 머리 큰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해 주십시오. 물 묻은 박쪽에 깨 들러붙듯이 많이 잡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원한다. 그런 다음 범벅을 제외한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아서 사방에 던진 뒤 집으로 돌아온다.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선정마을에서는 현재도 배가 있는 집에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배고사를 지낸다. 이 가운데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배고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 배고사를 지낼 때 올리는 제물은 떡 · 나물 · 해어 · 과일 · 밤 등이다. 이 가운데 떡으로는 메밀범벅을 만든다. 쌀가루에 메밀가루를 섞어 풀을 쑤듯이 되게 쑨 다음 조금씩 떼어서 콩고물을 묻히면 메밀범벅이 된다. 도채비(도깨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올리는 메밀범벅은 배고사를 지내고 나면 바다에 던진다.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화포마을에서는 3월이 되면 어부들이 바다로 조업을 하러 나간다. 이때 어부들은 풍어와 더불어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도채비 진생원에게 고사를 지낸다. 도채비 진생원에게 고사를 지내는 날은 3월 23일이다. 이날은 도채비 진생원에게 바칠 밥과 나물 등 제물을 장만하여 바닷가 선착장 부근에 상을 차려서 진설한다. 제의 준비가 끝나면 "동쪽의 진생원님, 서쪽의 진생원님, 진생원님 밥과 나물을 차려 놓았으니 우리 어장에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어장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 고사가 끝나면 상 위에 진설된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바다에 던진다. 현재 마을에서는 도채비 진

생원에게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된 지 몇 해가 되었다고 한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두마을에서는 보통 배가 있는 사람이 도깨비고사를 지낸다. 고사에서는 메밀묵만 장만하여 도깨비에게 먹으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돈도 가져다 놓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축원한다. 멸치를 잡는 배도 도깨비가 멸치를 몰아오게 해 달라고 멸치 대가리를 배에 걸어 놓고 도깨비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완도군 금일읍 궁항리에 사는 김안례 씨 댁에서는 시아버지 때부터 도깨비를 모셔왔다. 뒤뜰 한쪽에 돌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모셔놓고 맨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조상상보다 먼저 올린다. 집안 재산이 도깨비의 도움으로 모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는 도채비귀신을 잘 모시면 멸치나 갈치를 몰아 주어서 만선을 이루게 하고 잘못 모시면 고기들을 몰아가 흉어가 되게 한다고 여겼다. 고기잡이를 나갈 때 먼저 대죽(수수)범벅을 만들어 배에 싣고 나가서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빌었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도채비귀신을 주로 뱃일하는 사람들의 집과 성냥간(대장간) 하는 집에서 모셨다고 한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죽동마을의 도깨비터에 집을 지어 사는 가정이 있다. 도깨비를 별도로 위하지 않지만 안택을 할 때 메밀묵을 쑤어서 뿌려 주면 괜찮다고 한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에서는 도채비 집터인 경우 도채비고사를 지낸다. 도채비고사를 지낼 때는 메밀을 갈아 메밀묵을 쒀서 고물을 묻힌 다음 어두워지면 철륭(뒤란)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잘 넘어가도록 해 줍소서. 철륭지신님네, 잡신이 들어오지 않게 해 줍소서." 또는 "새롭도신네, 재수 운수 주십시오, 나쁜 것은 쫓아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읊조리면서 메밀묵을 뿌린다. 새롭도신은 보통 대문을 말하며 새롭도신을 잘 섬겨야 그 집안의 재수가 좋다고 한다. 대문으로 궂은 것 할 것 없이 모두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와 순성면 옥호리에서는 집터가 세면 도깨비가 출현하여 불을 지르는 등 해코지를 한다 하여 참봉고사를 지낸다. 터가 센 곳이나 논둑 또는 덤벙 옆에 짚을 세 갈래로 깔고 그 위에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하여 밀가루에 콩과 팥, 또는 호박범벅에 콩가루를 묻혀서 스물한 덩어리를 제물로 진설한다. 그 앞에서 "물아래 참봉, 김참봉"이라 불러가며 집안에 아무 탈이 없기를 비손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리 내동마을의 권구순(여, 1941년생) 씨 댁에는 뒤란에 벼와 돈을 넣은 단지를 짚가리로 덮은 독갑대감가리가 있다. 이 댁의 독갑대감은 옛날 시할머니가 살아 있을 때 집에 화재가 나서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음력 10월 상달고사를 전후하여 짚가리를 새것으로 바꾸고 시루떡을 쪄서 올렸지만 요즘에는 접시에 담아 올린다.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김순자(여, 1958년생) 씨 댁에서는 도깨비업을 모신다. 업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한다. 집안의 업이 사람의 눈에 띄거나 집안에서 나가면 그 집안의 재물이 차차 줄어들어 결국 망하게 된다고 여긴다. 김순자 씨가 결혼 직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도깨비가 창문에 나타나는 꿈을 꾼 뒤 그를 업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새집을 짓고 살고 있어도 도깨비를 업으로 삼던 옛 집터를 버리지 않고 있다. 도깨비업의 짚가리는 다른 신의 짚가리보다 크며 짚가리 안에는 벙거지가 들어 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하옹마을에서는 도깨비가 간혹 나타나 해를 끼칠 때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나면 괜찮아지곤 했다. 동네 어른들은 도깨비가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면 가래를 거꾸로 세워놓고 거울을 달아 놓으라고 전한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대룡리의 김학임(여, 1928년생) 씨 댁에서는 섣달그믐날 저녁에 복을 주는 도깨비를 집 안에 불러들이기 위해 메밀을 볶아서 마당에 뿌린다.

한편 섣달그믐밤이나 정월 초사흘 밤에 산에 올라가 도깨비불을 보고 고기잡이의 풍흉을 점친다. 남해안 도서지역에서는 섣달그믐 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도에서는 정월 초사흘 밤에 산망(山望)을 한다. 산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아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해역에 덤장이나 어장을 설치하여 어로작업을 하면 풍어가 된다고 예측한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1리 평촌마을에서는 도깨비가 사람을 괴롭히면 고사를 지내 도깨비를 위해 주었다. 조응연(남, 1944년생) 씨에 따르면 자신이 젊었을 때 이 마을의 네 집에 도깨비가 밤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혔다고 한다. 솥뚜껑을 솥에 넣어서 꺼내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고 난 뒤로 도깨비의 장난이 없어졌지만 그 집에서는 일 년에 한 번은 꼭 굿을 했다고 한다.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에서는 도깨비가 불을 질러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큰 솥의 뚜껑을 작은 솥에 넣는 등 장난을 쳤다고 한다. 사람을 괴롭히면 주부가 고사를 하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해서 도깨비를 위한다. 무당이 굿을 할 때는 수수팥떡, 술, 나물 등을 간단히 차려서 장구 · 북 · 꽹과리 등을 치며 도깨비를 위한다. 주부가 고사를 지낼 때는 수수팥떡을 준비하여 빈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의 한 집에서는 도깨비의 장난인지 화재가 빈번해서 대문 앞에 엄나무를 걸어 두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비손 잘하는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삶은 돼지고기 한 근 · 밥 · 나물을 제물로 진설하고 비손하니 도깨비로 인한 탈이 없어졌다고 한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오정리에서는 집에 귀신단지라고 불리는 단지를 모셨다. 여기 모시는 귀신은 '개귀신' 또는 '도깨비귀신'이라고 한다. 가족 가운데 누가 앓게 되어 점을 보아 "그런 귀신이 나서 앓기 때문에 단지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면 모신다. 단지는 작고 동그란 것으로 장만하여 놓고 집 뒤란의 으슥한 곳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싸서 놓는다. 집에서 옷을 해 입으려면 천을 조금 잘라서 개어 단지에 먼저 넣어 두고 나서 해 입는다. 나중에 단지에 넣은 천이 많아서 넘치면 오래된 것부터 태운다.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미학실마을에 사는 유정호(여, 1933년생) 씨 말에 따르면 도깨비 터에 살고자 하면 도깨비단지를 모셔야 한다고 한다. 도깨비단지는 장독대에 짚주저리를 쐬워서 놓는다. 단지 안에는 나락을 넣어 두며,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갈아준다. 가을떡을 할 때는 떡을 떼어 놓아야 한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두마을에서는 돌림병이 돌 때 메밀을 갈아 메밀묵을 쑨 다음 고물을 묻혀 버무려 집안 곳곳에 던지면서 도깨비고사를 지낸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신월마을에서는 집안 가족 가운데 병자가 생겨 병이 낫지 않고 오래가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다. 이를 도깨비고사라고 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여자가 도채비에 쐬어서 생긴 병이라 생각되면 치병의례로 심방을 불러 영감놀이를 한다. 심방과 가면을 쓴 도채비의 형들을 불러들여서 병을 들게 한 도채비를 찾아내어 환자에게서 떼어내 짚으로 만든 작은 배에다 병을 들게 한 도채비와 제물을 실어서 바다에 띄워 보낸다.

경기도 안산시, 전북 김제시 · 익산시 · 정읍시, 전남 담양군 · 여수시 · 구례군 일부마을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때를 맞추어 차려 놓고 집 안에 팥죽물을 뿌린다. 도깨비나 잡귀잡신이 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액막이와 함께 집안의 도깨비나 잡귀잡신을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원래는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피를 뿌려야 하지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피와 똑같은 색깔인 팥죽을 쒀서 그 웃물을 뿌린다고 한다.

**의의** 도깨비는 지방에 따라 도채비, 참봉, 개비대감, 진생원 등으로 지칭되는 잡귀류이다. 도깨비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해변의 갯벌에서는 멸치 따위를 몰아주는 풍어신적 성격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산촌에서는 재복, 화재, 역질을 가져오는 신격으로 인식하여 위하거나 좇는 의례를 베풀었다. 요즘은 어로법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도깨비에 대한 어떠한 의례도 베풀지 않는다. 도깨비의 이중적 성격은 곧 인간의 이중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교훈적 민담으로나마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 한국 문화의 무형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 이렇게 변화하면서 전승된다**(김명자,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문당, 2001), **강화 가정신앙 연구**(김명자 외, 민속원, 2011), **강화의 가정신앙 1 · 2**(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김승찬 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도깨비를 둘러싼 민간신앙과 설화**(김종대, 인디북, 2004), **민담과 신앙을 통해본 도깨비의 세계**(김종대, 국학자료원, 1997), **제주도 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75), **해안지방 도깨비신앙의 전승양상에 대한 고찰**(김종대,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필자** **김승찬(金承璨)**

# 도신

표제어 가을고사(22쪽)

## 돗제

**정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결혼잔치 때 돼지를 잡은 뒤 마을의 육식신에게 바치는 가정의례.

**내용** 돗제의 시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을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중학교 남쪽 언덕에 위치한 궤내깃굴은 궤내깃당과 관련이 있다. 이곳은 철기시대 유물과 함께 멧돼지 머리뼈가 많이 출토되어 제사유적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공물을 통한 의례가 마을의 생성과 함께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돗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날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3년, 5년마다 지내는 집에서도 책관(동네에서 사주를 받아 대소사를 택일해 주는 사람)과 협의해야 한다. 이때 굿하는 집 식구들의 사주를 받아서 가장 좋은 날을 택한다. 이날을 '생기복덕(生氣福德) 맞는 날'이라고 한다. 원래 돗제는 조용한 밤에 지냈다고 한다. 낮에는 일도 해야 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낮에 제물을 준비하여 밤에 심방을 불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의를 치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돗제**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2002.12.28, 강권용





3일 전부터 대문에 왼새끼로 꼰 금줄을 걸어 굿을 할 때까지 부정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굿이 시작되면 궤내기신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심방이 들어서면서 금줄을 치웠다. 제물은 밖을 향해 초석(草席) 위에 바로 진설하였다. 이는 궤내기또가 밖에서 들어온다는 관념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풀이에서 일문전으로 모신다는 사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루에 차려진 제물을 바깥쪽 왼쪽부터 살펴보면 첫째 줄에는 돌레떡(도래떡) 일곱 개를 쌓은 접시 다섯 개가 놓였다. 둘째 줄에는 고사리, 삶은 계란 세 개, 콩나물, 옥돔, 고사리, 삶은 계란 세 개, 콩나물이다. 셋째 줄에는 배 다섯 개, 음료수 다섯 잔(감주 대용), 감귤 다섯 개, 음료수 다섯 잔, 사과 다섯 개가 차려졌다. 넷째 줄에는 향로, 배 다섯 개, 술잔 세 개, 감귤 세 개, 사과 네 개가 나란히 했다. 다섯째 줄에는 좌우로 촛대 두 개, 오른쪽으로 밥공기에 담긴 쌀 두 개, 양푼에 담긴 쌀 두 개 등이다. 그리고 안칠성을 위해 차롱(대바구니)에 돌레떡, 사과, 배, 감귤, 콩나물, 고사리, 옥돔, 계란을 넣어 두었다.

먼저 양쪽에 있는 촛대에 불을 밝히고 백지를 오려서 지전을 만든다. 안주인이 하얀 면을 가져다 주면 심방이 직접 부부 및 자식들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을 적는다. 이는 굿을 할 때 누가 굿을 하고 있는지 신에게 고하며, 굿 끝부분의 '산받아 분부사룀'에서 가족들의 운수를 점칠 때 사용된다. 그리고 굿이 끝나면 액막이를 위해 태운다.

심방은 신들을 굿판으로 불러모으는 제차인 '초감제'를 시작하기 위해 무구인 삼명두(신칼, 요령, 산판을 일컫는 말. 무조신의 신체) 가운데 요령과 산판을 꺼내 놓았다. 삼명두는 신칼까지를 포함한 것인데 돗제에서는 신칼은 볼 수 없었다. '초감제'가 끝난 뒤 돼지고기의 기름기가 마룻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을 깐다.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았지만 지금은 정육점에서 돗제용 돼지를 따로 준비해서 한 마리를 부위별로 삶아 배달해 준다.

부위별로 돼지고기를 비닐에서 꺼내 놓으면 먼저 돼지머리 정수리를 날카로운 나대(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로 내리쳐서 구멍을 낸다. 돼지 골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궤내깃당에서 분리된 돼지 두개골 유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접시 아홉 개에다 부위별로 한 점씩 빠짐없이 배분한다. 이렇게 아홉 개의 접시에 담긴 고기는 먼저 진설된 제물의 맨 앞에 올린다. 돼지를 삶은 국물에, 바다에서 캔 모자반을 넣고 쌀을 넣어 끓인 몸죽을 함께 올린다. 고기 이외에 죽까지 올리는 행위에는 궤내기또에게 돼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신에게 올린다는 관념이 강하다. 가끔 굿을 하다가 심방이 궤내기또가 노했다면서 돼지를 삶은 부엌에 가보면 돼지고기가 몇 점 솥 언저리에 있어서 황급히 올렸다는 일화도 있다. 죽을 끓이면 많은 이웃과 음식을 공유할 수도 있다.

돼지고기가 올려지면 심방은 다시 굿을 하기 시작한다. 그 중심에는 〈궤내기또본풀이〉가 있다. 신의 어머니인 백주또와 아버지인 소천국 간의 결합과 육식갈등, 궤내기또의 탄생, 불효, 석곽(石槨)에 담긴 채 바다로의 내쫓김, 용왕 딸과의 결혼, 천자국 백모래 밭에서의 전쟁 승리, 제주로의 귀환, 부모의 도망, 김녕리 좌정이 박진감 있게 불려진다. 본풀이가 끝나면 가족들의 운세를 점치고 점괘를 받게 된다. 먼저 올린 양푼의 쌀을 몇 개 집어 잡힌 숫자로 점을 친 뒤 산판을 던져 그 모양에 따라 점괘를 보았다.

점괘가 끝나면 주인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써 있는 면 및 지전을 들고 밖으로 나가 액막이를 위해 태운다. 심방은 주신(主神)을 따라온 많은 군졸과 잡귀를 위해 준비한 음식 및 술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 사설을 읊는다. 그러고는 술을 뿌리고 음식을 대문 밖의 비닐에 쏟은 다음 들어온다. 들어와서 간단히 마지막 의식을 행하면 굿이 끝난다.

**지역사례** 제주시 구좌읍은 10여 개의 행정리로 이뤄져있다. 김녕리를 제외하고도 네 개 마을에서 대다수의 주민이 돗제를 행한다. 이 마을의 본향당본풀이에는 돼지 공양을 나타내는 사설이 있다. 돗제가 오래전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각 마을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녕 궤내깃당본풀이**

"뭣을 먹음냈가?"

"나는 장수가 되난, 황밧갈쇠 먹음네다."

황밧갈쇠를 불러다 놓고 오름산이 봉산이 서져구리 기마구리 갈감제 좌돗백이 우돗백이 쌀이 쌀석 불러 주는 실

명질을 불러다 놓았구나. 어서 황밧갈쇠를 받지나네 그디서 곧는 말이 부잿집이사 황밧갈쇠 받처도 좋수다만은 어디 가난헌 집이 ᄌᆞ슨은 어떵 황밧갈쇠 받집네까? 그때에 곧는 말덜이 가믄족발이 한족발이 자릿ᄃᆞ새기 지들팡 아래 돋도구리 놓앙 아침, 점심, 저녁 물주고 수금주엉 황밧갈쇠만이 크건덜랑 창지만 똑 꾀내어덩 상받지가 어덩겐 허난 이서 기영헙서 (후략)

**월정 본향당본풀이**

단골들이 ᄀᆞᆨᄀᆞᆸᄒᆞ연 문점을 ᄒᆞ난,
"웃칫 서당할망의 조애우다"
"어떵민 좁네까?"
"돗젯법을 설립홉서."
"상반을 두개에 애깃적신 일곱 반 동펜 시왕머들 적시도 ᄒᆞᆫ반, 올래 시년하지 적시도 ᄒᆞᆫ반, 시년성방 적시도 ᄒᆞᆫ반, 열두반 설반을 받아먹읍센"ᄒᆞ여두고 (후략)

**행원 남당본풀이**

기영허연 남당지관한집안티가 베이고 ᄀᆞᄌᆞ찌 좌정ᄒᆞ쿠렌 ᄒᆞ니, 남당한집이
돗국물에 수면을 먹어나시니까 나는 그럼 임식아이 먹으니 나광ᄀᆞᄌᆞ찌 ᄒᆞᆫ어께 실렁 좌정해서 가는 선도 ᄎᆞ지ᄒᆞ고 오는 선도 ᄎᆞ지ᄒᆞ고 (후략)

**평대 본향당본풀이**

애기가 ᄒᆞ나 둘 낳는 것이 만 일곱을 낳난, 일곱 애기 설고 배고 낳젠 ᄒᆞ난 일이굽번, 잔칫칩이 놀레 갔단, 도새기괴길 얻어먹언 오라시난 (중략)
이바지코ᄉᆞ, 잔치코ᄉᆞ, 들민 든봉잔 돗제 받는 한집이우다.

**세화 본향당본풀이**

호건 대잔치 ᄒᆞᆯ 때 설에 ᄌᆞ소주 탕 올리고 열두 신 빼를 세여 올리고 내여 안칩을 세어 올려서 열두 빼에 열두 설반을 ᄒᆞ고 억만명 대병 군ᄉᆞ라.
신의 나신 열두 반을 놓고 대잔치 ᄒᆞᆯ 때 받아서 백주님께로 돌아갈 땐 ᄒᆞᆫ죽 쑤어 목가시고 신가시고 청감쥐로는 목욕을 ᄒᆞ고 (후략)

다섯 마을의 본풀이 가운데 돗제와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신들이 돼지고기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김녕리 궤내기ᄄᆞ나 세화리 금상장수같이 원래 육식신이 마을로 좌정하여 돼지고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월정리 서당할망, 평대리 수데기 서당할망처럼 아기를 가진 뒤 영양보충을 위해 돼지고기를 먹은 일화나 행원리의 중이ᄄᆞ처럼 잔칫집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나서 각 마을신으로 좌정하여 돼지고기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 특징 / 마을명 | 제명 | 신명 | 제일 | 제물 | 제의적 특징 |
|---|---|---|---|---|---|
| 김녕리 | 돗제 | 궤내기ᄄᆞ (男神) | 3년, 5년을 주기로 하며 생기 맞는 날을 선택한다. | 돼지, 과일,돌레떡, 술, 나물 | · 몸죽을 끓여 올림<br>· 9개 쟁반에 공평하게 나눔<br>· 과거에는 털과 생피도 올림 |
| 월정리 | 돗제 | 서당할망 (女神) | 〃 | 〃 | · 혼례 돼지 잡는 날 문전고사로 하거나 며칠 전 생기 맞는 날에 고사 형식으로 하기도 함<br>· 미식신인 태호ᄄᆞ에게 제를 올리고 돗제를 함<br>· 털과 피를 올림 |
| 행원리 | 돗제 | 중이ᄄᆞ (男神) | 〃 | 〃 | · 몸죽을 끓여 올림<br>· 7개 쟁반에 공평하게 나눔 |
| 평대리 | 돗제 | 수데깃 서당할망 | 〃 | 〃 | · 혼례 신행(新行) 가기 전 아침에 잔치고사로 하거나 큰굿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돼지를 준비하여 돗제를 하기도 함<br>· 국물을 사발에 올림 |
| 세화리 | 돗제 | 금상장수 (男神) | 〃 | 〃 | · 혼례 돼지 잡는 날 문전고사로 하거나 큰굿을 하고 나서 미식신인 천자ᄄᆞ와 백주ᄄᆞ를 보낸 뒤 돗제를 하기도 함<br>· 팥죽을 올림 |

구좌읍 일대 돗제 현황



다음으로 화소들을 보면 궤내기ᄄᆞ를 제외한 다른 신들은 미식(米食)과 육식(肉食)의 갈등구조에서 미식신에게 패하여 낮은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궤내기ᄄᆞ의 부모신이 이런 형태를 보이지만 궤내기ᄄᆞ는 강력한 육식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비교된다.

마지막으로는 행원리 중이ᄄᆞ를 제외하고 송당본풀이의 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즉 송당본풀이가 이들 본풀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다섯 마을의 돗제를 도식화하였다. 이 지역 외 몇몇 마을에서도 돗제를 하지만 마을주민 대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다.

다섯 마을의 돗제를 보면 돗제를 행하는 제일, 제물, 제의 과정은 거의 같다. 그러나 마을의 본풀이에 따른 신명이 다르다. 김녕리, 평대리에서는 돗제만을 단독으로 행한다. 그러나 월정리, 세화리에서는 결혼식과 관련하여 행하기도 하고 큰굿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행하기도 한다. 결혼식과 관련성을 갖는 것은 현재 제주도지역의 결혼식에서 돼지를 잡는 풍속과 무관하지 않다. 신앙민의 대소사(大小事)에 돼지를 잡아 쓰면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 즉 돼지를 즐겨먹는 신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큰굿이 끝나는 부분에 돼지를 올리는 것은 본향신을 위하는 제차인 본향ᄃᆞ리에서 미식신과 육식신의 대립관계를 염려, 미식신을 먼저 위하고 육식신인 이들을 위해 돼지를 준비한 후 돗제를 행하고 있다. 모든 신을 위해 굿을 하는 가운데 육식을 올리는 게 번거롭다고 하여 이 신들에게 제의를 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좌읍의 다섯 마을에서 해마다 돗제가 열리고 송당, 덕천, 동복 등 인근 마을에서도 이들 다섯 마을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돗제를 지내고 있어 구좌읍 전 지역에서 돗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녕리 궤내기동굴 유적**(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당신본풀이**(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4), **제주도 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5), **제주의 민속 4**(제주도, 1996).

**필자** **강권용(康權用)**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의** 조선시대 정조 ·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洪錫謨)가 정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시풍속을 월별로 서술한 세시풍속지.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음력 정월부터 12월까지 윤월을 포함한 세시풍속을 기록하였다. 정월은 원일(元日), 입춘(立春), 인일(人日), 상해일(上亥日) · 상자일(上子日), 묘일(卯日) · 사일(巳日), 보름날(上元), 월내 등 7항목이다. 2월은 초하루[朔日]와 월내로 2개 항목이며 3월은 삼짇날(三日), 청명(淸明), 한식(寒食), 월내로 4개 항목이다. 4월은 초파일(初八日)과 월내로 2개 항목이며 5월도 단오(端午)와 월내로 2개 항목이다. 6월은 유두(流頭), 삼복(三伏), 월내로 3개 항목이며 7월은 칠석(七夕), 중원(中元), 월내로 3개 항목이다. 8월은 추석(秋夕)과 월내로 2개 항목이며 9월은 중양절[九日]로 1개 항목이다. 10월은 오일(午日)과 월내로 2개 항목이며 11월은 동지(冬至)와 월내로 2개 항목이다. 12월은 납일[臘], 섣달그믐날 밤[除夕], 월내로 3개 항목이며 윤달[閏月]은 1개 항목이다. 모두 23개 항목으로 월내까지 포함하면 34개 항목이다. 그 중 정월은 7개 항목으로 가장 많은 세시풍속을 언급하였고 다음은 3월로 4개 항목이다.

명절의 월일을 살펴보면 1월 1일, 1월 7일, 1월 15일, 2월 1일, 3월 3일, 4월 8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9일 등 기수일(奇數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마다 대부분 중국의 세시풍속 관련 문헌과 시를 인용했다. 그 수량은 약 56종으로 저자와 내용을 밝혔다. 그 외 중국의 전통풍속 및 속언 등을 들었다. 한국 문헌의 인용은 약 9종에 불과하며 지역의 세시풍속을 소개할 때는 특히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두루 인용하였다.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한국 전역의 세시풍속을 소개하였고 계층은 왕실 · 경사대부에서 서민(농촌 · 산촌 · 어촌)까지 망라한다. 세시풍속의 내용은 월별로 보면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에서 다룬 세시풍속은 약 300여 조이며 주제별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농사**는 23개 조이며 정월이 15조로 가장 많다. 주로 그해 농사의 시작과 풍흉을 점친다. 정월엔 윷점, 보리뿌리점, 기곡제(祈穀祭), 쥐 태우는 불[燻鼠火], 벼 낟가리[禾積], 과일나무 시집보내기[嫁樹], 나무그림자점, 달빛점, 용알건지기[撈龍卵], 달불이[月滋], 횃불싸움[炬戰], 줄다리기[絙河戲], 수레싸움[車戰], 칡으로 하는 줄다리기[葛戰]가 있다. 2월 1일은 노비일로 농사를 시작하고 6일에 삼성점(參星占)을 치며, 20일엔 비가 오거나 흐려도 그해 풍년이 든다. 청명에는 봄갈이를 시작하고, 한식에는 채마전(菜麻田)에 파종을 시작한다. 단오에 대추나무를 시집보내고, 5월 10일은 태종의 제삿날로 태종우(太宗雨)가 내려 가뭄을 해소한다.

**신앙[祭祀 · 祭神]**은 37개 조이며 정월이 14조로 가장 많다. 유가의 예제에 따라 조상과 신에게 제사하고 기복하는데, 민간신앙과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한다. 정월에 차례, 세배, 문안비, 청참(聽讖), 오행점, 윷점, 안택고사(安宅告祀), 토정비결, 동제(洞祭)를 거행한다. 2월 1일 영등제(靈燈祭), 초신제(招神祭, 然燈)를 올린다. 3월 3일에는 용왕당 · 삼신당에서 기자(祈子)하며, 한식에 절사(節祀, 설날 · 한식 · 단오 · 추석 명절에 술 · 과일 · 포 · 젓 · 떡 · 면 · 탕 · 부침개 등 음식을 바쳐서 제사함)하고 봉분개수 · 사초 · 식목한다. 4월 초파일에는 등불을 켜는 등석(燈夕 : 燃燈會 · 觀燈)으로 호기(呼旗, 어린아이들이 종이를 잘라 깃발처럼 장대에 매달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면서 쌀과 포목을 얻어 그날 비용으로 씀)와 웅산신당제(熊山神堂祭)를 거행하며 중원절에 우란분회(盂蘭盆會 : 目連尊者故事)와 조상제를 올린다. 추석에는 성묘하고 조상제를 지내며, 10월 오일[上午 · 戊午日]에는 말의 건강을 위해 제신(祭神, 馬禱故事)하고 성주신을 맞이해 안택고사(生氣福德)를 지낸다. 납일(臘日)에는 조상제를 지내며 제석에는 묵은세배(舊歲拜), 윷점, 풍어제를 거행한다. 윤달에는 여자들이 사찰에서 탑돌이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기양(祈禳)**은 28개 조이며 정월이 18조로 가장 많다. 벽사진경(辟邪進慶)을 주제로 재액 · 귀신 · 역질(災厄 · 鬼神 · 疫疾) 등에 대한 액풀이와 액막이를 한다. 특히 어린아이의 질병에 대한 내용이 많다. 정월 원일 세화(歲畫, 門排), 삼재(三災)에 세 마리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이고, 덕담(德談), 빗접 머리카락 태우기〔燒髮〕, 나희(儺戲, 花盤)를 행한다. 입춘에 춘첩자(春帖子) · 춘련(春聯, 春祝)을 걸고 『은중경(恩重經)』 진언(眞言)과 문신(門神)인 신도(神荼) · 울루(鬱壘)를 써 붙인다. 상묘일에는 새로 뽑은 무명실(兎絲)을 몸에 찬다. 보름날 아이들이 제웅치기놀이[打芻戲]를 하고, 겨울부터 나무 조롱박[木葫蘆, 靑 · 紅 · 黃色] 세 개를 몸에 차고 다니다가 보름 전날 밤 몰래 길에다 버린다. 그 외 부럼깨물기[嚼癮, 固齒之方], 귀밝이술[牖聾酒], 연날리기, 안택경, 다리밟기[踏橋]를 행한다. 단오에는 익모초(益母草) · 진득찰[豨薟]을 뜯어서 볕에 말려 약으로 쓰며, 창포물로 목욕하고 단오부적을 만든다. 6월 유두일에는 유두연(流頭宴)을 열고 계음(禊飮, 東流頭沐浴)하며, 유두면(流頭麵)을 몸에 차거나 문설주에 걸어둔다. 동지에는 팥죽을 문에 뿌려 축귀(逐鬼)하고, 납일에는 어린아이에게 참새를 먹여 천연두를 예방한다. 제석에는 나희[靑壇]로 제액[除厄]한다.

**금기**는 16개 조이며 정월이 11조로 가장 많다. 특히 정초에는 여자들의 외출을 금하며 상묘일에는 남의 식구와 나무로 만든 그릇을 들이지 않는다. 상사일에는 이발하지 않아 뱀을 예방한다. 정월 자(子) · 진(辰) · 오(午) · 해(亥)일과 상현 · 하현일에 근신하고 8일은 패일(敗日)로 남자들의 외출을 금한다. 5 · 14 · 23일은 임금의 소용일(所用日)인 3패일이므로 근신한다. 2월 1일에서 15일이나 20일까지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고, 월내 행사로 배를 타지 않는다. 3월엔 회색 뱀[遮歸神]을 죽이지 않고, 5월엔 신일(辛日)을 피해 장을 담근다. 10월 병오(丙午)일은 병(病)과 음이 같으므로 피하고 무오(戊午)일을 가장 길하게 여긴다.

**속신 · 속담**은 17개 조이며 정월이 9조로 가장 많다. 주로 건강과 재물을 기원한다. 보름날 새벽에 종각 네거리의 흙을 몰래 파와 집 네 귀퉁이나 부뚜막에 바른다. 이는 재물을 구함이다. 매서(賣暑) · 매곤(賣困)과 시전(市廛)은 모충일(毛蟲日), 특히 인일(寅日)에 열면 상업이 번창한다. 10월 20일 뱃사공은 손석풍(孫石風, 손돌전설)을 경계하고, 납일에 온 눈의 녹은 물을 약으로 쓰며 제석에 수세(守歲)한다. 윤달은 부정이나 액이 없는 달로 혼례(婚禮)를 치르거나 수의(壽衣)를 짓는 등 매사에 거리낌이 없다.

**의복 · 장식(粧飾)**은 8개 조로 『동국세시기』에서 가장 적게 언급된 부분이다. 원일에 설빔[歲粧]을 입고, 상해일에는 여자들이 콩가루로 세수하면 얼굴이 하얘진다. 4월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백반으로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인다. 5월에는 남녀가 창포탕(菖蒲湯)으로 세수하고 단오장(端午粧)을 입어 제액한다. 7월 칠석에는 햇볕에 책과 옷을 말린다.

**시절음식**은 74개 조로 『동국세시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으며, 3월이 16조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정월로 11조이다. 각 명절을 대표하는 시절음식으로서 다양하고 풍성하다. 우선 제사에 올린 후 가족친지가 함께 먹으며 재액을 예방하고 몸을 보양한다.

『동국세시기』의 주요 내용은 그해 농사의 시작과 풍흉을 점치고, 유가의 예제(禮制)와 민간신앙(民間信仰)을 바탕으로 조상과 신에게 제사하며 기복(祈福)하는데, 특히 불교적 성격이 강하다. 재액에 대한 액풀이 · 액막이는 특히 역질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금기는 정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자의 출입을 꺼린다. 속신 · 속담은 대부분 재물과 건강에 대한 기원이다. 의복 · 장식은 주로 어린아이 및 여성과 관련 있으며 미용과 제액을 목적으로 한다. 시절음식은 제사에 올린 후 가족친지가 함께 모여 즐기면서 먹으며, 몸을 보양하고 재액을 예방 · 퇴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세시기』의 저자 홍석모는 조선 후기 명문가 풍산 홍씨(豊山 洪氏)로 어릴 때부터 영민하였고 1815년(순조 15) 음사(蔭仕)로 벼슬길에 올랐다. 저작시기는 이자유(李子有)의 서문이 1849년(헌종 15) 9월 13일에 씌어진 것으로 보아 1849년경으로 추정된다. 『동국세시기』 판본은 현재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1911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발간의 연활자본(鉛活字本)이다. 순조 때 완성된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와 정조 때 완성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를 합편(合編)한 것이다. 이 중 『동국세시기』는 헌종 때로 제일 나중에 쓰여졌으며 내용이 가장 세밀하고 분량도 많다. 다른 하나는 필사본으로 원사본(原寫本)인 홍석모의 증손 홍승경(洪承敬)의 기증본으로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1책 42장이며 크기는 31×20.5㎝이다. 광문회본은 원사본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오 · 탈자가 발견된다.

『동국세시기』는 매달의 풍속을 왕실, 양반, 서민의 순서로 정월부터 12월까지 윤달을 포함하여 1년간의 행사를 기술하였고, 매달 끝 부분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풍속은 월내(月內)라는 항목을 두어 다루었다.

『동국세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지승람(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의 약칭)을 자주 인용하였다. 『여지승람』은 조선조 성종의 명을 받들어 노사신(盧思愼) 등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본떠 조선 각 도의 지리 · 풍속 및 그 밖의 특기할 만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동국세시기』에서 인용한 『여지승람』은 1530년(중종 25) 증보(增補)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전 55권)이다. 둘째 특히 『경도잡지』 제2권 세시편을 모태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책의 체재가 유사하며 『경도잡지』의 오류가 『동국세시기』에 그대로 전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을 포함해 각 지방의 풍속을 골고루 소개했다. 넷째 시절음식, 유희, 점풍(占風) 및 주술적 풍속에 대한 기술이 풍부하다. 다섯째 성주 · 문신 · 우마신(牛馬神) 등 가정신을 포함하여 입춘축, 안택고사, 부적, 액풀이, 액막이 등을 기술한 가정신앙의 보고(寶庫)이다. 여섯째 중국의 다양한 세시 관련 전적, 특히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일곱째 우리나라 세시풍속 연구의 중요한 기본문헌으로 활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국세시기』는 『동국여지승람』을 자주 인용한 바 1530년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양서(兩書) 편찬시기의 간격이 무려 300년을 넘으므로 이 기간에 벌어진 풍속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 이미 사라진 풍속도 등장하고 있어 이를 무심코 인용하다 보면 당대의 풍속으로 여기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자주 인용한 중국 최초의 세시기인 『형초세시기』와 비교해 보면 형식에 있어 모두 음력 정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윤월을 포함하여 세시풍속

을 기록하였다. 명절의 명칭과 행사 및 성격도 대동소이함을 보인다. 기수를 중시하고 해[歲]를 시작하는 정월의 행사가 가장 풍성한 것도 일치한다. 『형초세시기』는 항목마다 중국 고금의 민속 관련 문헌 90여 권을 들어 인용하였다. 『동국세시기』 역시 『형초세시기』를 포함해 50여 권의 중국민속 관련 문헌과 시, 전통풍속과 속언 등을 인용하였는데 상당 부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다는 비평을 면치 못한다. 즉 모화사상에 젖어 우리 민속의 기원을 억지로 중국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연원을 찾아 그 변화 발전과정을 탐구한 것은 학자로서 매우 성실한 자세라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동국세시기와 형초세시기의 세시풍속 비교**(상기숙, 동방학,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7), **동국세시기의 기술태도와 특징-경도잡지, 열양세시기와의 비교를 통하여**(장장식, 한국의 민속과 문화,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역주 동국세시기**(과학원 고전연구실, 한국문화사, 1999), **조선대세시기 3**(정승모 해제, 국립민속박물관, 2007), **조선세시기**(홍석모 외, 이석호 역, 동문선, 1991), **한국민속대관 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형초세시기**(宗懍, 상기숙 역, 집문당, 1996).

**필자** **상기숙(尙基淑)**

## 동지고사(冬至告祀)

상호참조 팥죽(719쪽)

**정의** 동짓달(음력11월) 저녁에 각 가정에서 주로 주부가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목적으로 집안 곳곳에 팥죽을 뿌리고 가신(家神)에게 팥죽을 올리는 세시 의례적 고사. 지방에 따라서는 팥죽제, 동지차례(冬至茶禮), 동지맞이라고도 한다.

**역사** 24절기의 맨 처음은 입춘이며 동지는 22번째에 해당한다. 동짓날은 태양이 남회귀선(南回歸線)인 적도의 남쪽 23.5도, 즉 동지선(冬至線)에 이르는 때이다. 이 날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하지로부터 차츰 짧아진 낮의 길이가 이날에 이르러서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 옛날 사람들은 이를 태양의 부활로 여겨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 "일양(一陽)이 생(生)하도다" 한 것처럼 하나의 명절로 삼았다. 동지를 아세(亞歲)라 한다든지 고대의 역법에서 설날로 삼았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후한(後漢) 때 최식(崔寔)의 〈사민월령(四民月令)〉에도 이날 조상에 대한 제사는 물론 존장(尊長), 군사(軍師), 기로(耆老) 등에 대하여 정월에 모시듯이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周)나라에서는 중동(仲冬), 즉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정했다. 또 『송서(宋書)』에 따르면 동지에도 원일(元日)과 같이 조하(朝賀), 향사(享祀)의 의식을 한다고 하였다. 당(唐)나라의 선명력(宣明曆)에서도 갑자삭야반동지(甲子朔夜半冬至)를 역(曆)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잡고 있다. 『역경(易經)』에서 동지를 태양의 운행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보고 부괘(復卦)를 11월에 배치한 것도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동짓달을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란 뜻으로 자월(子月)이라 하고, 동짓달 열나흗날 밤을 섣달그믐날 밤처럼 제석(除夕)이라 한 것도 동지를 설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에 따르면 당(唐)의 선명력은 이미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고려에서도 이를 이어 쓰다가 1309년(충선왕 원년)에 원(元)의 수시력(授時曆)으로 바꾸어 씀으로써 폐지되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인식했음을 짐작케 하는 풍습들이 보인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이듬해의 달력을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임금은 이 역서(曆書)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새(御璽)를 찍어 모든 관원[百官]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역서는 장정(裝幀)한 색깔에 따라 황장력(黃裝曆), 청장력(靑裝曆), 백장력(白裝曆)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황장력을 제일로 쳤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각 관아에서도 동지 전에 미리 준비해 둔 종이를 관상감에 주어 역서를 찍도록 부탁하고 이를 고향 친지 및 이웃들과 나누어 사용했다고 한다. 이처럼 궁중에서는 설과 동지를 연중 가장 으뜸 되는 축일로 여겼다. 이날에는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다. 내의원(內醫院)에서는 관계(官桂), 후추, 설탕, 꿀 등을 쇠가죽과 섞어 삶아서



**동지팥죽뿌리기**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2001, 코리아루트





기름에 엉기도록 만든 전약(煎藥)을 임금께 진상하고 나누어 먹었다.

민간에서도 동지 무렵에 제주도지역에서는 귤과 감자, 평안도 · 함경도에서는 청어를 각각 진상하는 등 이날을 명일로 여겼다. 이 날 팥죽을 끓여 사당의 조상은 물론 집안 곳곳의 가신에게도 바친 뒤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설날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 한 살을 먹은 것으로 치는 풍습처럼 이날 동지팥죽을 쑤어 먹음으로써 나이 한 살을 먹은 것으로 치는 풍습도 여기에서 온 유습으로 해석된다. 이날 팥죽을 먹는 것은 팥의 붉은색이 액을 막고 잡귀를 없애 준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국세시기』에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인용하여 '공공씨(共工氏)의 재주 없는 자식이 팥을 두려워했는데 동짓날에 죽어서 역귀(疫鬼)가 되었으므로 팥죽을 쑤어 물리친다'라고 하였다.

**내용** 동지고사는 매년 11월 동짓날 정해진 시에 지낸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한다.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지만 애동지에는 쑤어 먹지 않는다.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애동지 때는 팥죽 대신 팥떡을 해 먹기도 한다.

동지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수는 팥죽이다. 팥죽은 먼저 팥을 큰 솥에다 넣고 한참 동안 고아서 퍼질 때쯤 쌀을 넣고 끓이다가 새알심을 넣고 다시 쑨다. 이렇게 쑨 팥죽은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먼저 사당에 바쳐 차례를 지낸다. 그러고 나서 성주, 조왕, 삼신, 용단지 등 가신들의 거처인 방 · 마루 · 광 등 집안의 곳곳에 한 그릇씩 떠다 놓고 대문이나 벽에다 팥죽을 뿌린 다음 먹는다.

가신에게 팥죽을 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가정의 주부가 하지만 사당에서 동지차례를 지내는 것은 집안의 남자들이 한다. 사당에서는 팥죽 외에 과일 등 다른 제수도 함께 차려서 설과 추석 때처럼 강신(降神), 독축(讀祝), 재배(再拜) 등 순으로 차례를 지낸다. 불교 신도들은 이날 절에 가서 동지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동네의 고목에도 뿌리고, 팥죽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 국물을 떠서 곳곳에 뿌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잡귀의 범접을 막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역사례** 오늘날 동지팥죽을 쑤어서 사당이나 조상에게 바치고 집안의 곳곳에 뿌리는 등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가정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도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가정이 있다. 적어도 동지팥죽을 쑤어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풍속은 전국적으로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서지마을에서는 팥죽을 쑤어서 먼저 사당의 조상님들께 바친다. 그 후 바가지에 팥죽을 담아 대문과 문짝에 뿌린다. "잡귀잡신을 물려라. 조씨 터전에 잡귀잡신을 물려라."라고 외치면서 집의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여 뿌린다고 한다.

태백시 구문소동 동점마을에서는 동지팥죽을 쑤어서 먹으면 그해에 드는 살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 그러나 초승에 드는 애기동지 때는 쑤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무시하고 팥죽을 쑤어 먹으면 아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 절대 팥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 액을 막지 못한 집이기 때문에 아예 팥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팥죽이 끓을 때 팥죽 물을 조금 떠서 마당에 뿌리는 것을 예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잡귀가 들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절에 가서 팥죽을 쑤어 기도를 한 뒤에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아이가 탈이 나서 고생을 한 해에는 동지에 팥죽을 쑤어 집의 네 기둥에다 뿌린다. 이사를 갔을 때에도 네 기둥에다 팥죽을 뿌린다. 또한 집 주위의 사방을 돌면서 메밀을 뿌려 놓기도 한다. 집안에 우환이 들었을 때도 메밀을 뿌린다. 그러나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간 해에는 팥죽이나 메밀을 뿌리지 않는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에서는 초순에 드는 애기동지 때는 팥죽을 쑤지 않고 하순에 들 때만 쑤어 먹는다. 팥죽을 쑬 때 팥죽물이 한창 끓게 되면 그것을

**동지고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동지팥죽



동지팥죽 뿌리기



바가지에 퍼 담아 들고 다니면서 솔잎에 묻히거나 숟가락으로 떠서 집안 곳곳에 뿌린다. 이를 뱅이(예방)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붉은색을 싫어하는 귀신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후 사당에 팥죽, 적, 과일 등을 놓고 간단하게 차례를 올린다. 동지차례는 설과 추석 때처럼 집안의 남자들이 모여 독축, 재배 순으로 드린다. 사당이 없으면 안방의 윗목에 팥죽 상을 차려두어 조상신이 흠향(歆饗)토록 하고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다.

청원군 북이면 장재1리 배나무골에서도 초순에 드는 애동지 때는 팥죽 대신 팥떡을 해 먹고 하순에 드는 노동지에만 팥죽을 쑤어 먹는다. 동지팥죽을 쑤면 성주, 터주 등에는 놓지 않고 안방에만 한 그릇 떠다 놓는다. 팥떡을 하는 애동지 때도 안방에다 떡을 놓고 조상에게 고한다. 이는 조상님께 바치는 의미라고 한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서는 동짓날 새벽에 찹쌀가루로 새알심 수제비를 빚은 다음 팥을 삶아 걸러낸 팥물을 끓여서 팥죽을 만든다. 팥죽물이 끓으면 주부나 대주가 먼저 한 바가지를 퍼서 솔잎으로 적셔 집안 곳곳에 골고루 뿌린다. 이렇게 하면 팥죽물이 뜨겁기 때문에 귀신이 겁을 내어 물러간다고 한다.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한 뒤 주부가 삼신, 지앙, 터주 등의 앞에 팥죽 한 양푼씩을 떠다 놓고 "동지라 팥죽을 끓였으니 많이 잡숩고, 집안에 탈 없고 재수 있게 해 주이소." 하고 비손을 한다. 동지가 초순에 드는 애기동지에는 팥죽을 쑤지 않고 중순에 드는 중동지와 하순에 드는 노동지 때만 팥죽을 쑨다. 근래에도 이런 풍습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가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동지고사도 올린다. 그러나 핵가족으로 인해 팥죽을 쑤어도 먹을 사람이 적은 가정에서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나서 팥죽을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쑬 때 한창 끓으면 이를 퍼서 집안 곳곳에 뿌려 잡귀를 막는다. 그런 다음 성주, 조왕, 지석 등 모시는 가신들 앞에 바친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새알심을 크게 만들어 아궁이의 불 속에 넣은 뒤 꺼내서 보고 새알심의 한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아들, 갈라지면 딸이라고 여기는 새알심 점을 치기도 한다.

영주시 순흥면 배점2리에서는 동지팥죽을 집안의 동서남북에 뿌린 뒤 안방, 마당, 외양간, 뒷간 등은 물론 대문과 골목에도 뿌린다. 동지팥죽을 쑤지 않은 집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동지팥죽을 얻어먹으면 좋다는 속신이 있어 여러 집의 팥죽을 얻어먹기도 한다. 그래서 팥죽을 아홉 그릇이나 얻어먹고 문지방을 넘다가 배가 터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팥죽을 쑤어서 먹을 때는 어른들만 나누어 먹고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풍습도 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팥죽을 쑤지 않고 절에 가서 얻어먹고 오기도 한다. 동지가 11월 초열흘 이전에 드는 애동지 때에는 팥 시루떡을 해 먹는다.

부산시 일대에서는 때에 맞추어 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을 솔잎에 적셔서 집안 곳곳에 뿌림으로써 잡귀를 쫓는다. 이때의 순서는 부엌, 앞마루의 사방 귀퉁이, 방문 앞의 벽, 대문, 변소, 외양간 순으로 한다. 초상이 나서 아직 탈상을 하지 않은 집에서는 팥죽을 쑤지 않는다. 이 금기를 어기고 팥죽을 쑤면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의 경우 망인의 혼령이 구천을 떠돈다고 하고, 기장군 내리에서는 마을에 줄초상이 난다는 속신이 있다. 금정구 금성동에서는 팥죽을 쑨 다음 먼저 웃물을 떠서 조왕에게 바친 뒤 집안 곳곳에 뿌려서 잡귀를 쫓는다. 동지가 초승에 드는 애기동지 때는 팥죽 대신 팥 시루떡이나 팥밥을 해 먹는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차려 놓고 집안 곳곳에 뿌린다. 도깨비가 말피를 무서워해서 색깔이 비슷한 팥죽을 뿌림으로써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동지가 초승에 드는 애동지 때는 팥떡을 해서 집안 곳곳에 뿌리고, 하순에 드는 노동지 때에는 팥죽을 쑤어 뿌린다. 팥죽을 동지에 맞춰 쑤어서 뿌리면 '일 년 독경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 오향마을에서는 예전에 설보다 동지를 더 큰 명절로 여겼다. 동지팥죽을 쑬 때 새알심을 넣는다. 이때 잡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가지로 웃국물만 떠서 집안의 곳곳은 물론 집터에도 골고루 뿌린다. 그런 다음 가장 먼저 선영에 상을 차리면서 팥죽과 함께 묵은 나물 무침, 지진 두부 등도 올린다. 예전에는 동지가 큰 명절이었기에 일반 제사와 마찬가지로 상을 잘 차렸다고 한다.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에는 팥죽 대신 팥 시루떡을 해 먹는다. 요즘은 동지팥죽을 거의 쑤지 않는다. 쑤더라도 그냥 먹기 위해서이지 신을 섬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입석마을에서는 동지에 팥죽을 쑤면 제사 지내는 조상의 수대로 팥죽을 떠 놓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앙과 조왕에는 떠 놓지 않는다. 물론 이는 모든 가정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 따라 지앙과 성주 앞에 한 그릇씩 떠 놓기도 한다. 이때 물 두 보시기도 함께 떠 놓다. 이처럼 팥죽을 조상이나 가신 앞에 떠 놓은 뒤 집 주변에다 팥죽을 뿌려서 잡귀를 막는다.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적거마을에서는 팥죽을 쑤어 가족들이 먹기 전에 먼저 열두 그릇을 떠서 안방의 윗목에다 상을 차리고 정화수와 함께 올린다. 이후에 양푼에다 팥죽을 퍼서 집 주변에 뿌린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잡귀가 못 들어온다고 한다. 안방에 떠 놓은 팥죽으로 월점(月占)을 치기도 한다. 먼저 정월부터 섣달까지에 해당하는 팥죽 열두 그릇을 떠 놓은 다음 각각 팥죽이 식은 모양을 보고 월점을 치는 것이다. 즉 팥죽에 금이 많이 나 있으면 그 달은 가뭄, 곱게 옷을 입은 상태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宋書**, **易經**, **洌陽歲時記**, **增補文獻備考**,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조선상식**(최남선, 동명사, 1948),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대관 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1**(민족문화사, 1991),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한국의 책력-하**(이은성, 전파과학사, 1978).

**필자** **류종목(柳鍾穆)**

## 동토(動土)

상호참조 동토잡기(149쪽), 탈(698쪽)

**정의** 흙이나 나무 또는 쇠 등 물건을 잘못 만져서 생기는 탈.

**내용** 민간에서는 함부로 물건을 만지면 탈이 난다는 믿음이 전해진다. 조심해야 할 날짜나 방위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물건을 만지거나 다루면 탈이 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동토 또는 동티라고 한다. 동토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흙이나 나무 또는 쇠를 잘못 다루거나 만졌을 때 나기 쉽다. 그러나 살림살이를 옮기거나 집을 수리하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장독을 잘못 다루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왔을 때 걸리기도 한다. 동티가 나면 몸이 아프다.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눈이 멀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증세를 보이는데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다. 동토에 걸린 환자를 주술적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민간의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개 마을에는 동티를 푸는 사람이 있다. 환자가 생긴 집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동티가 난 곳에 가서 일정한 풀이를 한다. 환자를 앞에 두고 낫이나 망치로 도끼를 두드리면서 동토경을 스물한 번 왼다. 또 심하면 점쟁이나 법사를 불러서 간단히 제상을 마련하고 동토경을 읊는 경우도 있다. 나무를 잘못 베어서 그랬다면 나무 벤 곳에 가서 소금과 쑥을 베어낸 부분에 끼우고 동토경을 읊어 풀어야 한다. 이를 '동토잡기' 또는 '동정잽이'라고 한다.



목살동토경을 읽고 낫 두 개로 목살 방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하리, 1996.4.18
이인화

**참고문헌** **동티**(김진영, 답게, 2005),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이필영, 샤머니즘 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나경수(羅景洙)**



## 동토잡기

상호참조 동토(148쪽)

**정의** 집안에서 흙, 쇠, 나무 등을 잘못 다룸으로써 야기되는 각종의 탈을 푸는 제의. 집안의 살림살이 위치를 손 있는 방향으로 바꾸든지, 어떤 물건을 새로 들이든지, 부엌이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수리 · 보수하든지 운이 나쁘면 동토가 난다. 외부에서 물건을 들이거나 나무를 베거나 못질을 해도 탈이 난다. 집안에 부정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도 동토가 나기도 하는데, 이를 '인동토'라고 부른다. 동토는 일종의 살이 끼는 것이다. 증세가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발음의 편의로 '동티'라고도 한다.

**내용**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가 까닭 없이 아프면 동토가 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동토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궁이 또는 대문 바깥에서 고추를 태워 보는 것이다. 보통 때처럼 매운 냄새가 나면 동토가 나지 않은 것이고, 매운 냄새가 전혀 없으면 동토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충남 예산지역에서는 접시에 쌀을 조금 깔고 다듬잇방망이 끝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세워본다. 동토가 났으면 방망이가 선다. 방망이를 막대로 '톡톡' 쳐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면 동토가 심하게 난 것이다.

경남지역에서는 동토가 난 것을 두고 '손 걸렸다'라고도 부른다. 동토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가지에 쌀 또는 팥을 담아서 좌우로 흔들다가 동토가 난 곳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본다. 동토가 난 것이 맞으면 바가지가 그곳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탈이 난 곳이 확인되면 왼새끼 줄로 동토난 곳을 묶고 부적을 붙여둔다.

경북지역에서는 동토를 '달음탈'이라고 부른다. 동토 여부를 확인기 위해서는 바가지에 사금파리와 콩을 담아서 동토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 곳을 흔들며 다닌다. 동토가 난 것이라면 바가지 안의 사금파리와 콩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동토가 난 곳이 확인되면 그 위에 소금을 놓고 쑥을 올려 불을 붙인다. 이때 부적도 함께 태운다. 또 각성바지 세 집의 구정물을 받아서 붓는다. 집안 마당에 약쑥으로 불을 지펴 놓기도 한다. 모두 일곱 번 피워야 달음탈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동토가 난 곳이라고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여기에 구정물을 끼얹고 복재를 불러다가 동토를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복재는 동토가 난 곳 앞에 앉아서 축사경을 읽는다. 동토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대를 잡아서 귀신을 잡기도 한다. 또는 동토가 났다고 여겨지는 곳을 복숭아나무 가지로 친다. 소금이나 팥을 뿌리기도 한다.

호남지역에서는 동토가 난 곳에 도끼, 망치질을 하여 쇳소리를 내면서 동토경을 읽어 이를 잡는 사례가 많다.

충남지역에서는 동토가 나면 구정물을 끓여서 동토가 난 곳에 부은 다음 왼발을 세 번 구르고 침을 세 번 뱉으며 진언한다. 동토가 난 곳을 왼새끼 줄로 묶어 놓기도 한다. 소금이나 팥을 뿌리기도 한다. 가장 흔한 방법은 동토경을 읽으면서 복숭아나무 가지로 동토가 난 곳을 친다. 이렇게 스물한 번 또는 마흔아홉 번 반복하면 동토가 잡힌다고 여긴다. 특히 흙을 잘못 다뤄서 동토가 나는 것을 예방하려면 일해야 하는 곳의 흙을 조금 떼어다가 변소에 가져다 놓는다. 동토가 심하게 나서 쉽게 잡혀지지 않으면 이웃에서 문병 온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동토를 잡는다. 그들에게 각각 복숭아나무 가지를 쥐어주고 동토가 난 곳을 쳐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경을 읽는 법사는 동토태세경 또는 광본태세경을 왼다. 이를 이 지역에서는 '태세치기'라고 부른다.

**지역사례** 경기도 일대에서는 동토를 '동법'이라고 부른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동토 잡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법은 부엌에서 잡는다. 아궁이에다 솥을 올려놓고 그 안에 물을 한 사발 부은 다음 그릇을 엎어 둔다. 한 사람은 불을 지피며 다른 사람은 식칼을 들고 솥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왼다. "나무 다뤄 목신 동법이냐? 흙을 달아 토신 동법이냐? 목신 동법이면 쏙 들어가라!"라고 하면 목신 동법이 들었을 경우 사발 속으로 물이 '쏙' 들어간다. 이와 같은 식으로 동법이 잡힐 때까지 계속한다. 사발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동법이 잡힌 것이다. 그러면 사발 속에 들어간 물을 퍼서 바가지에 담고, 여기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타서 동법이 난 곳에 가져다가 끼얹는다. 그런 다음 고추나 고추씨를 태워본다. 동법이 아니면 매운 냄새가 나지만 동

법이 맞으면 구수한 냄새가 난다.

광명지역에서는 동법을 잡기 위해 각성바지 세 명이 도투마리경을 읽기도 하고, 쇠스랑을 가지고 동법을 잡기도 한다. 시흥시 계수동 건지정마을에서는 나무를 잘못 다루어 난 동법이라면 독경을 하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넉가래를 양쪽으로 붙들어 매어 도투마리 모양을 만든 다음 복숭아나무 가지로 이것을 치면서 하루 저녁 내내 경을 읽는다. 세 사람이 동원될 수 없으면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경을 읽는다. 포천시 영중면 거사1리에서는 작은 돌을 주워서 유리병 안에 넣고 동법이 난 곳에서 흔들면서 주문을 왼다. 동법이라면 돌이 뭉쳐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된장으로 유리병 입구를 막고 그 병을 내다버린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산에서 위하는 나무(절 받는 나무)를 잘못 베면 동토가 난다고 여긴다.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서는 동토가 난 곳을 왼새끼 줄로 엄나무와 함께 묶어 둔다. 그리고 복재를 불러다가 동토를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속초시 도문면 상도문리에서는 동토가 난 곳에 팥죽을 뿌린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서는 동토가 난 곳에 땅을 파서 후추알 또는 복숭아씨 아홉 개를 묻는다. 그런 다음 "ㅇㅇㅇ가 이만저만해서 동토에 걸렸으니 아픈 걸 낫게 해 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소금을 넣고 발로 덮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토가 난 곳에 땅을 파서 계란, 고춧가루, 후추, 복숭아씨를 모두 묻고 빌기도 한다. 양구군 남면 구암리에서는 동토를 예방하기 위해 한자로 '왕명(王命)'이라고 써놓는다. 이는 곧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귀신이나 잡귀도 탈을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역에 따라 그냥 '왕(王)'자를 써 놓기도 한다. 또 나무를 벨 때 "어명이오!"라고 외치면 동토 예방이 된다고 한다. 방산면지역에서는 동토가 나면 쑥, 고추, 소금을 집의 네 귀퉁이에 두고 불을 피우거나 동토가 난 곳에서 빈다. 이때 "동토야, 동토야, 동토야." 하고 세 번 외치면서 소금을 뿌리고 발로 세 번 밟는다.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서는 동토가 나는 방향의 양쪽에 쇠꼬챙이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땅속 깊숙이 박아 놓는다. 이때 후춧가루나 고춧가루, 막걸리를 함께 뿌리면 귀신이 침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서는 나무를 자른 단면에 무쇠를 꽂고 쇠똥을 끼얹은 뒤 그 위에 소금가마를 뒤집어씌운다.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각성바지 세 명이 각각 쇠스랑을 잡고 아궁이의 재를 긁으면서 '동토 잡자'를 세 번 반복해서 말한다. 각성바지는 시어머니, 딸, 며느리로 구성한다.

충북 보은군 수한면에서는 동토가 나면 각성바지 세 집에서 구정물을 얻어 끓인 뒤 이를 동토가 난 곳에 끼얹는다.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서는 나무를 벨 때 동토 예방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베어야 할 나무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실로 묶고 "목신님! 목신님! 목신님!"이라고 세 번 부른다. 그러고는 자답(自答)으로 "네! 네! 네!"라고 한다. 그다음에 "며칠날 나무를 베려고 하니 목신님이 산나무로 가십시오!"라고 빈다. 이렇게 해도 탈이 나면 벤 나무를 왼새끼 줄로 묶고 각성바지 세 집의 구정물을 얻어다가 끓인 뒤 소금과 고춧가루를 섞어서 나무에 뿌린다.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에서는 '木'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고 왼새끼로 묶어둔다. 앉은굿을 하는 법사들은 옥추경 제6편에 나오는 토황장 또는 동토경을 읽어서 잡는다. 옥추경의 토황장을 스물한 번 외우면 동토가 잡힌다고 여긴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동토잡기를 '동정잽이'라고 부른다. 동정잽이는 주로 부엌에서 진행한다. 먼저 솥에 밥을 해서 주걱으로 열십자를 그은 뒤 주걱을 꽂고 솥뚜껑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을 떠 놓고 그 앞에 서서 도끼와 자귀로 치면서 동정잽이 경을 읽는다. 이 밖에도 사람을 멍석에 말아 놓고 송장을 치르는 시늉을 한다. 이는 주당맥이와 같다.

전남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에서는 동정(동토)이 나면 그곳을 왼새끼 줄로 두른다. 그 앞에는 고추와 쑥을 섞은 고춧불을 피운다. 그런 다음 소금을 뿌리고 그 앞에 도끼를 놓은 뒤 이를 작은 망치로 두드리면서 동토경을 읽는다. 집 안에 못을 잘못 박아서 동정이 나면 식구 가운데 눈이 아픈 사람이 생긴다. 그럼 얼른 못을 빼야 낫는다.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에서는 부엌에서 쇳소리를 내면서 동토경을 읽은 후에 환자를 대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런 다음 머리 위에 바가지를 씌우고 그 위에 칼로 열십자를 긋는다. 그러고 나서 칼을 이내 대문 바깥으로 던진다. 이때 칼은 칼끝이 집 바깥쪽으로 향할 때까지 던진다.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에서는 동토가 나면 각성바지 세 가정의 구정물을 한 사발씩 얻어서 동토난 곳에 뿌린다. 그리고 복숭아나무 가지로 두드리며 진언을 한다. 법사를 불러서 사흘 동안 동토경을 읽기도 한다.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에서는 동토가 나면 초저녁부터 식구 가운데 아픈 사람이 발생한다. 이때는 논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박아 놓은 말뚝인 '방천 막대기'를 빼다가 거꾸로 세운다. 여기에 산에서 베어온 귀신풀을 왼새끼로 막대기 윗부분에 감아놓는다. 저녁이 되면 그 방천 막대기를 성주께 가져다 세우고 그 앞에서 동토잡이를 한다. "오늘이 ㅇ달, ㅇ일이니 사람은 눈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미련한 인간이니까 방천나리께서 집안 모두 둘러보아서 독 다룬 동토라든가 나무 다룬 동토라든가 흙 다룬 동토라든가 무색 동토라든가 모든 동토일랑 방천나리께서 꼭 거두어 가서 이곳을 지켜 달라!"라고 한다. 그리고 "방천나리!"를 세 번 외친 뒤 마지막에 방천 막대기에 소금을 끼얹고 다리를 세 번 구른다. 그 뒤 방에서 나오면서 다시 소금을 끼얹는다. 이런 방법을 사흘 저녁으로 계속한다. 나흘째 새벽이 되면 아무도 보지 않게 방천 막대기를 손이 없는 곳에 버리고 뒤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동토가 나간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임승범(林承範)

## 돼지코

**정의** 경상북도 안동지역에서 침을 흘리지 않을 시기가 되어도 여전히 침을 흘리는 아이의 목에 부적처럼 거는 실제 돼지의 코.

**내용**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침을 흘리는 아이의 목에 돼지코를 잘라 걸어 주면 침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여 '양밥(일종의 주술)'으로 아이에게 걸었다. 보통 아기 때는 침을 많이 흘린다. 그런데 두세 살이 되도록 계속 침을 많이 흘리면 돼지나발(돼지코)을 아이의 목에 걸어 준다. 그렇게 하면 침 흘리는 것을 멈춘다고 믿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잡식성인 돼지가 먹이를 먹을 때 침을 많이 흘리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돼지 코끝은 연골판으로 되어 있다. 형태는 돼지코의 앞부분을 잘라 말린 것으로 원형이며, 두 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단단하다. 일정 기간 걸고 다니다가 침 흘리기를 멈추면 버린다.

**참고문헌** 안동민속자료지(안동군청, 1981),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 된장

**정의** 콩을 삶아서 띄운 메주와 소금물을 옹기 독에 넣어 장기간 숙성시킨 다음에 우러난 간장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를 계속 숙성시켜 만든 발효식품으로서, '객귀(客鬼) 물리기'와 '동티잡이', '액막이' 등 측신의 노여움을 푸는 주술적인 의례 등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저장음식.

**역사** 된장은 콩의 원산지인 고구려에서 발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된장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신문왕이 혼인할 때(683년 2월) 납채품(納采品) 가운데 '장시(醬豉)'가 보인다. 장시는 된장에 해당하며 필수적인 부식이자 기본적인 일상 부식이면서 또한 의례용 물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982년(성종 원년)에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문과 1049년(문종 3) 개성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휼하는 데 된장을 배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된장은 일반인이 평소에 먹은 음식이고,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하게 먹던 음식임을 뜻한다.

조선시대에도 된장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쓰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된장이 수없이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된장은 하사품, 구휼품, 야인(野人)들의 요구품이자 지급품, 귀화인과 유민(流民)의 정착 지원물품, 군사들의 기본 부식 등

으로 쓰였다. 이로 보아 된장은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먹은 부식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여러 조리서에는 된장의 종류와 담그는 법이 등장한다. 『산림경제(山林經濟)』 권2 치선(治膳)조에는 여러 종류의 장 담그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신앙적 측면에서 거론할 만한 것은 장 담그는 데 길일(吉日)과 꺼리는 날이 있다는 기록이다. "장 담그는 길일은 정묘일(丁卯日)이니 신일(辛日)은 꺼린다. 정월 우수(雨水)와 시월 입동(立冬)에 장을 담근다. 수일(水日)에 장을 담그면 가시[蛆]가 생긴다. 삼복 안 황도일(黃道日)에 콩을 담가 황도일에 쪄서 섞으면 벌레가 없다. 아낙네가 보는 것을 꺼린다. 삼복 중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해돋기 전과 해 진 뒤에 장을 담그면 파리가 안 꾄다. 그믐날 담 아래에서 얼굴을 북으로 돌리고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장을 담그면 벌레가 안 꾄다. 초오(草烏, 바곳 뿌리) 6~7개를 4푼쯤 잘라서 독에 드리우면 가시가 저절로 죽고 다시는 영영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정하게 음양사상이나 주술성을 깔고 있다. 이는 그만큼 된장을 담그는 데 정성을 들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9세기 정학유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삼월령과 유월령에는 된장을 잘 담가서 맛을 잃지 않도록 살피고 정하게 관리하라고 하였다. 『산림경제』나 〈농가월령가〉의 기록은 된장이 얼마나 소중한 부식이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내용 한번 담근 된장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먹어야 하는 대표적인 부식이어서 된장이 정상적으로 잘 숙성되도록 하는 의례나 금기(禁忌)가 필요하였다. 가장 먼저 필요로 한 주술적 내용은 된장 담그는 날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된장은 대개 정월대보름부터 삼월삼짇날까지의 기간에 어떤 날을 정해서 담그는 것이 선호되었다. 전통적으로 일진에 말날, 돼지날, 닭날 등과 같은 덩치가 크고 털이 있는 동물의 날인 유모일(有毛日)이 선호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말은 된장이 '맑아져라'는 뜻, 닭은 된장이 '달아져라'는 뜻, 돼지는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에서 된장이 '꿀처럼 달아라'는 뜻을 담은 언어적 유감주술이다. 그러나 된장 담그는 날을 택일할 때는 '언제 담근 장맛이 좋다'라는 개인의 경험이 중요했다. 어떤 사람은 된장을 용날이나 삼짇날에 담가야 가장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에 담그면 맛이 있다는 뭔가의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된장이 기온, 바람, 습도 등과 같은 자연조건에 반응하여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람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힘이 작용하여 맛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된장
국립민속박물관

택일된 날에 된장을 담그고 난 뒤에는 항아리에 금줄을 두른다. 왼새끼에 숯, 한지 쪽, 붉은 고추를 꽂아서 장독 주둥이에 감아두었다. 그리고 불씨가 살아있는 숯을 장독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붉은 고추와 대추도 함께 넣었다. 버선본을 장독의 배 부근에 거꾸로 붙여두기도 했다. 거꾸로 붙이는 것은 장독 주둥이로 들어가는 불순한 요소와 잡된 벌레 등으로 인한 부정(不淨)을 발로 짓밟겠다는 강력한 주술적 의미이다. 한편 긍정적인 염원을 표시하여 장맛이 좋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명재 윤증(明齋 尹拯) 고택에서 장독에 버선본을 거꾸로 붙이고 장이 꿀처럼 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꿀독'이라고 외쳤다는 것이 그 예이다.

된장독에 친 금줄에서 왼새끼와 흰색 한지는 장을 신성시한다는 의미이고, 붉은 것은 부정을 물리치는 힘, 숯은 정화력을 각각 상징한다. 된장 맛을 결정하는 데는 일정하게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장독에 금줄을 둘러서 초자연적인 힘 가운데 부정적인 힘을 물리치려고 했다. 담근 된장이 어느 정도 숙성되어 된장에서 간장을 분리하면 금줄을 걷어 낸다. 한편 된장을 담글 때 한지를 입에 물고 진행하는 금기(禁忌)와 같은 것이 있다. 이는 침이 튀는 것을 막아서 된장을 탈 없이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된장 맛은 담그고 관리하는 솜씨에 따라서 집집마다 달랐다. 이로 인해 한 집의 된장 맛을 그 집의 여타 일까지 연관지어(확대해서) 보려는 태도와 인식이 형성되고 전승되어 왔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장맛도 좋아진다.", "되는 집안에는 장맛도 달다.", "장 맛 보고 딸 준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긴다."라는 언표들이 그것이다. 이들 표현은 기본적으로 장맛을 가지고 그 집의 가풍, 인심, 흥망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가치관의 발로이다.

된장을 담글 때 주부들은 향후 탈 없이 잘 익도록 신앙과도 같은 정성을 쏟았다. 이러한 된장과 더불어 장에 대한 주부들의 정성과 염원은 장독대를 집안의 성역으로 여기고 장과 장독을 관장하는 신을 받들어 모시는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 호남지방의 '철륭' 또는 '철륭 할마이'와 중·남부지방의 '칠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영남지방에서는 '이월 할매'라고 하는 여성 신격이 장독대로 내려와서 머물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신앙은 좁게는 장·장독과 관련되지만 넓게는 주부들이 담당하는 가족의 생명보전에 관한 주요 가사활동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된다.

한편 된장 그 자체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던 '객귀물리기', '뜬귀신물리기', '해물리기', '푸레박질' 거리제, 소삼신 의례, '동토잡이', '액막이', 측신의 노여움을 푸는 주술적인 의례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객귀물리기 의례에는 된장이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객귀물리기는 저승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귀신(객귀)을 물리치는 의례이다. 지역에 따라서 '객구 물리기', '뜬귀신 물리기', '잔밥 먹이기', '물밥 천신'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남의 집 음식을 먹고 이유 없이 아플 때 객귀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객귀물리기를 했다.

지역사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2리 마을에서는 남의 집 음식을 얻어먹은 가족이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고 속이 매스꺼우면 객구가 들린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전승되는 몇 가지 방법으로 객구가 들린 것으로 진단되면 그날 반드시 캄캄한 저녁에 '객구밥'을 준비하여 객귀(객구)물리기를 한다. 솥에 물을 부어서 된장을 풀어 넣고 밥과 김치, 나물을 조금 넣고 고춧가루를 풀어 죽이나 국처럼 끓인다. 이것을 바가지에 담아서 식칼과 함께 들고 누워있는 환자 방에 들어가 칼로 바가지를 치기도 하면서 객구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쐐! 쐐! 객구야 들어봐라, 김가 귀신아, 권가 귀신아, 최가 귀신아! 저 건너 ㅇㅇ부잣집에 가서 얻어먹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한 바가지 거룩하게 차려줄 테니 먹고 썩 물러가거라" 하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방안에서 식칼을 휘두른다. 이어서 환자에게 생콩 세 알을 씹어 바가지에 뱉으라 하고 식칼로 바가지에 담긴 객구밥물을 찍어서 환자 입에 흘려 넣는다. 식칼로 환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듯이 세 번 훑어 넣고는 환자에게 객구바가지에 침을 세 번 뱉게 한다. 그런 뒤에 환자가 누워 있는 방의 문고리에 가서 바가지에 담긴 국물을 식칼로 찍어서 문고리를 씻어 넣고는 마당쪽 방문을 확 열어젖히고 식칼을 마당으로 집어던진다. 이때 식칼이 대문쪽으로 향하면 객구가 나갔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식칼을 방안으로 들고 와서 또 한번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객구야, 썩 물러가라!"라고 외친 다음 마당으로 식칼 던지기를 한다. 식칼 던지기는 대문쪽으로 칼끝이 향할 때까지 한다. 대문 쪽으로 칼끝이 향하면 대문 밖에 나가 객구밥을 확 뿌려서 쏟아버리고는 식칼로 열십자를 긋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엎어 둔다. 이튿날 아침 일찍 나가서 식칼과 바가지를 들고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객구가 물러갔다고 여겼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월영등날에도 된장찌개를 끓여서 한 상을 차려 영등할머니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구미시 고아읍 원호1리에서는 음력 이월초하룻날 영등할마이가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면 영등할마이를 대접한다. 이때 밥, 청어, 된장찌개, 구운 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등과 함께 정지에 차린다.

전국적으로 거리제에서도 된장이 사용되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3리 서원마을의 거리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세 갈림길에서 지낸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면 정성을 들이는 사람으로 도로변이 붐빈다. 제를 지내려면 삼색실과, 명태, 나물, 돈, 시루 등

을 마련하고 별도로 짚 한 단 정도를 가지고 가서 고사를 지내는 곳 옆에 불을 피워 놓는다. 먼저 노중님네 소지를 올리고, 이어 식구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모두 올린 뒤 바가지에 된장, 콩, 물을 섞고 제물도 조금씩 떼어 넣는다. 바가지 안의 제물을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못다 먹었다는 말 말고 거룩하게 다 먹어라."라고 한다. 고사 축원이 끝나면 바가지에 담긴 것을 거리에 내버린다.

집안에 물건을 잘못 들이거나 흙일을 해서 나는 탈을 동토(動土)라 한다. 동토잡이를 할 때에도 된장이 널리 사용되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마을에서는 매운 고추를 태워서 매운 냄새가 나면 동토가 나지 않은 것이고, 매운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토가 난 것으로 믿었다. 동토가 난 것으로 진단되면 각성바지 세 집을 찾아가서 구정물(쌀뜨물)을 얻어온다. 거기에 된장,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팔팔 끓여서 이것을 동토가 난 곳에 붓고 두드려가면서 주문을 외면 동토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마을마다 주문을 잘 외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막연한 액막이 주술에도 된장이 사용되었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 갑동마을의 액막이는 운수가 나쁜 사람에게 액땜을 했다. 방법은 그 사람을 눕히고 소금과 된장, 세 가지 잡곡을 머리 위에서 세 번 돌린 뒤 그것을 여러 갈래의 길에 가져가서 버린다.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고내마을 종교직능자의 경우 측신에게 잘못하여 몸이 아파서 문점을 하러 왔다. 그때 '맥이' 방법으로 변소에 도끼를 놓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놓은 후 밥 세 접시와 고춧가루, 소금, 된장, 쑥 등을 넣은 접시 세 개를 따로 마련하여 낫 궁둥이로 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떼었다.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에서는 새집을 지어서 하는 성주풀이에도 된장이 사용되었다. 성주굿은 집을 지어서 이사를 들어갔거나 살다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하게 된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성주를 모시게 된 경우 성주를 모시면 모두 평안해진다고 한다. 성주굿을 할 때 도시락, 된장, 미역, 소금 등을 싸서 챙겨놓은 다음 성주풀이를 할 때 그것을 문 밖에 내어 놓는다.

그런가하면 어미소가 새끼를 괴롭히면 소삼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소삼신을 달래는 주술적 의례를 할 때도 된장이 사용되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 3리 서원마을에서는 어미 소가 새끼소에게 젖을 주지 않고 발로 차기도 하면 외양간 앞에 밥, 미역국, 된장을 놓고 함지박에 물을 담아 그 안에 바가지를 엎어놓은 다음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경문을 읽었다.

이처럼 다양한 민간의례에 된장이 사용된 까닭은 된장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식용된 기본적이고 평범한 부식이라는 데 있다. 제주도의 성주를 제외하면 객귀, 액운, 동토, 영등, 측신, 소삼신, 거리신 등은 모두 잡귀잡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례, 또는 이들을 추방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의례에서는 평범한 부식인 된장을 이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금줄의 의미와 기능**(배영동, 비교민속학 5, 비교민속학회, 1989), **대두 재배의 기원론과 한반도**(최덕경, 중국사연구 31, 중국사학회, 2004), **되는 집안은 장맛도 달다**(김명자, 열린문화, 1994), **된장 문화의 변법 자강-발효음식**(주강현, 중등우리교육 82, 우리교육, 1996), **된장을 통해 본 민족음식의 전통과 변화**(배영동, 한국민속학 35, 한국민속학회, 2002),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음식풍속**(주영하, 고구려연구 17, 고구려연구회, 2004), **우리문화가 온 길**(김광언, 민속원, 1998), **전통 장류의 변천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윤덕인, 관대논문집 28, 관동대학교, 2000), **전통적 된장 담그기의 전승지식과 전승양상**(안일국,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풍속가사집-한양가 · 농가월령가**(이석래, 신구문화사, 1974).

**필자** 배영동(裵永東)

## 똥떡먹이기

상호참조 측신(672쪽)

**정의** 변소에 빠진 사람의 나쁜 액을 막기 위해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행위.

**내용** 과거의 재래식 변소는 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다. 한편 변소에 빠지면 동티가 나거나 주당살을 맞아 죽는다는 설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변소에 빠진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를 똥떡먹이기라고 한다. 이 떡은 변소 귀신을 위해 만든다. 송편만한 크기에 동그랗게 100여 개 정도 만들어서 변소에 빠진 아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었다. 이때 아이는 "똥떡, 똥떡" 하고 외치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비로소 동티에서 벗어난다고 믿었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똥떡을 좁쌀로 보통 떡과 달리 동글동글하게 똥처럼 만든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이건욱(李健昱)

## 뜬귀물리기

표제어 객귀물리기(29쪽)

**제의**
마구간고사
마당제
마중시루
맞고사
멩감제
모밥내가기
모탕고사
못자리고사
문간제
문전제
문전철갈이

**신격**
마당신
마대장군
문신

**신체**
미륵바위
미륵불

**제구**
물대

**제물**
메밀묵
미역
밀떡

마구간고사
마당신
마당제
마대장군
마중시루
맞고사
메밀묵
멩감제
모밥내가기
모탕고사
못자리고사
문간제
문신
문전제
문전철갈이
물대
미륵바위
미륵불
미역
밀떡



## 마구간고사(馬廐間告祀)

상호참조 우마신(530쪽)

**정의** 시월 말날[戌午日]에 마구간에 키우는 마소[馬牛]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는 고사. '마제(馬祭)'라고도 한다. 예부터 마소를 소중하게 여겨 팥떡 등을 해서 마구간 앞에 놓고 마소의 무병과 건강을 비는 풍속이다. 마구간의 신을 마보신, 우마장군, 우마대마, 마부대감, 마대장군 등으로도 부른다. 신체는 없다.

**역사** 마구간고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마구간고사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록이 전한다.

『세시풍요(歲時風謠)』에 "말날을 시월 중에 만나는 것이 좋으니 집집마다 떡 찌는 것이 설날과 같다. 가련한 닭, 돼지 기르지 않는 자도 오히려 돈 많고 지체 높은 집의 말 고사 풍속을 따라간다.(午日欣逢亥月中 家家蒸餠歲時同 可憐未畜鷄豚者 猶襲高門馬禱風)"라는 구절이 있다.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는 마제(馬祭) 때 부르던 〈군마대왕(軍馬大王)〉이 전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조선 태종 초까지 관 주도의 말고사를 무격(巫覡)이 행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의 첫 말날(午日)에 증병도신(甑甁禱神)이라 하여 시루떡을 쪄서 일년 내내 무사태안을 비는 고사를 지냈고, 시월에 집집마다 무당을 데려다 성조신(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빌어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음력 시월 오일(午日)을 말날이라 하며, 팥으로 시루떡을 쪄서 외양간에 갖다 놓고 신에게 기도하여 말의 건강을 빈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 마구간은 과거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소를 사육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도난의 방지는 물론, 가족처럼 여겨 살림채 안에 마구를 두고 관리하였다. 마구간고사는 대개 시월 안택, 가을고사를 지낼 때 함께 지낸다. 마구간 앞에 팥 시루떡과 제물을 놓고 신에게 빈다. 이때는 마소가 건강하게 자라고 도둑이 들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빌었다.

정월의 첫 말날을 상오일(上午日)이라 하여 마구간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사료를 살펴보면 시월 오일(午日)에 주로 마구간고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시월 오일(午日) 중에서도 무오일(戊午日)을 좋은 날로 여긴다. 이는 '무(戊)'와 '무(茂)'가 음이 같아 무성(茂盛)을 기대한 데서 기인한다. 가을고사의 날로도 시월 말날을 많이 택일한다. 이날을 가장 길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병오일(丙午日)에는 절대 고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는 '병(丙)'과 '병(病)'이 같은 음이어서 마소가 병든다고 여긴 까닭이다.

시월에 마구간고사를 지내는 것은 세시풍속적인 형태이지만 마소가 앓을 때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마소가 앓으면 정화수를 떠 놓고 비손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기도 했다. 무당을 부를 때는 무당이 일러주는 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무당은 신칼을 휘두르면서 잡귀를 쫓아낸다. 또 마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는 마구간에 금줄을 치고 정화수를 올린다. 그리고 마구간의 신에게 무사하게 해산할 수 있기를 빌고, 새끼들이 잘 자라서 이후에도 계속 번창할 수 있기를 비손한다.

**지역사례** 마구간고사는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마구간 앞에서 팥떡 등의 제물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거나 토주단지의 곡물을 새 곡물로 갈고 비는 것이 보편적이다.

함경도지역에서는 마부신을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환란이 생기기 때문에 성주신보다 더 위한다고 한다. 마부신을 일명 군웅신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마소의 삼신(三神)이라고도 한다. 일 년에 한 번 날을 받아 안택을 할 때 마구간에서도 고사를 올린다.

경기도지역에서는 팥죽을 쑤어 그릇에 담아 터주와 조왕 앞이나 마구간에 놓고 빈다. 특히 인천시 강화군 지역에는 '우마걸립'이라는 의례가 행해진다. 종이(창호지)를 조그맣게 잘라서 걸어둔다. 이때의 종이를 '걸립'이라고 한다. 부천지역은 소가 앓으면 '쇠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만신을 불러서 굿을 행하고 풀어낸다. 이때는 신칼을 던져서 귀신이 나갔는지 확인하고, 팥떡을 해서 제를 지낸 뒤 소에게 먹인다.

경상도지역에서는 마구간고사를 정례적으로 지내기보다 주로 마소가 아프거나 새끼를 낳을 때 마구간에서 간단하게 비손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時用鄕樂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풍속-상(문화재관리국, 1970).

**필자** 이명진(李明珍)

## 마당신

상호참조 마당제(160쪽)

**정의** 집 안의 마당에 있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액살을 막아주는 신. 우리의 주거 마당에는 여러 가신(家神)이 존재한다. '마당신'이라는 고유영역으로 불리는 가신은 대개 안마당에 있다고 생각하며, 뒷마당 등지에는 평소 섬기는 다양한 신이 자리하고 있다. 마당신은 신체가 없는 건궁이다.

**내용** 마당신은 광의와 협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의로는 그 집안 마당에 있는 모든 가신을 포함하며, 협의로는 안마당에 있다는 '마당신'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마당신을 말하려면 우선 주거에서 마당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마당은 주거 내의 외부공간을 말하며, 위치나 형태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살림채 앞에 있는 앞마당, 살림채 뒤에 있는 뒷마당 또는 뒤란, 살림채 안에 있는 안마당 또는 뜰이 있다.

부유층의 주거에는 사랑채 앞에 사랑마당이 있고, 행랑채로 둘러싸인 행랑마당도 있다. 서민층의 주거에서는 살림채를 중심으로 앞과 뒤, 대문 밖의 마당이 구별될 뿐이다.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기도 한다. 즉 분산형 주거에서는 살림채 앞을 안마당이라고 하지만 집중형 주거에서는 바깥마당이라고 한다. 이는 분산형 주거의 영역이 담장과 대문으로 확장되어 있는 반면에 집중형 주거는 살림채 자체가 주거 영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공간은 아니지만 집중형 주거의 살림채 안에서 안마루 앞에 있는 흙바닥의 공간을 봉당이라고 한다. 이곳은 마당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마당은 살림채 앞의 외부공간을 지칭한다. 어떤 마당이든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당신은 서민층의 소박한 주거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마당신이다. 따라서 마당신은 대체로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공간인 마당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문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당신이 대문신처럼 액살을 막는다고 여긴다.

마당 가운데서도 뒤란이라고 불리는 뒷마당에는 터주, 업신, 철륭, 천룡, 용단지, 칠성 등 가신이 있다. 이들 신은 마당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들 각 신은 비록 마당에 자리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마당신에 대한 의례는 특별히 없다. 고사를 지낼 때 대문 앞쪽 마당에 '고수레'를 하듯 떡과 같은 제물을 가볍게 던져놓는다. 밖에서 별식이 오면 역시 '고수레'라고 하면서 마당에 음식을 조금 던져 예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마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저 마당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사 때 떡을 조금 던져놓는 정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처럼 마당신에 대한 인식이 워낙 희박하여 마당신의 개념과 범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집은 애초 움집의 단일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공간으로 분화되었다. 공간과 건물이 기능에 따라 분화하는 가운데 각 공간이나 건물은 기능이나 상징성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고 의미에 따라 위치, 규모, 형태 등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의 건물과 공간은 단일 건물의 단일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분화됨으로써 여러 건물이나 여러 공간으로 분리되었다. 가신이 집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역시 기능 분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가신에 비해 존재 인식이 대단히 희박한 마당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주거 공간의 다양화, 그에 따른 기능의 다양화 등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적인 것 이외에 개별적인 공간과 신관념이 생길 수도 있었다.

**지역사례** 강원도 치악산의 산간마을에서는 마당신을 중시하는 편이다. 마당신은 신체 없이 집 안마당에 자리한다고 믿는다. 이곳 주민들은 안마당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대로 '앞마당'이라고 한다.

안마당은 대문과 직접 관계가 있다. 집안의 불길

한 일이나 잡귀도 일단 마당을 거쳐 대문을 통해 나간다. 반면에 좋은 일도 대문에 들어선 다음 다시 마당을 거쳐야 한다.

고사를 지낼 때 떡시루와 정화수를 대문 안쪽에 올리고 "토왕토정 다 대문 밖으로 나가라." 하면서 비손을 한다. '토왕토정'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마당에 들어온 여러 가지 부정(不淨)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곧 모든 부정이 대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떠 올린 정화수는 던지듯 쏟아 버린다. 그렇다고 마당신에게만 별도로 의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고사를 지낼 때 성주를 비롯한 여러 가신에게 빌면서 그때 마당신에 대한 의례도 한 과정으로 행하는 것이다.

마당은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걸인이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밥 한 술이라도 주어서 보낸다.

집 뒷마당에 있는 터주가 그 집의 지신(地神)으로서 집터 전체를 관장하는 신인 반면에 마당신은 마당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점에서 지신과 구별된다. 때로는 마당신이 집의 터를 보살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마당신이 대문을 중심으로 자리한다고 했지만 대문 중심의 가신으로 '걸립'이 있다. 치악산 일대 마을에서는 걸립의 자리로 집의 대문 주변 기둥을 가리킨다. 걸립 역시 집안을 보살펴 준다고 믿어 고사 때 함께 빌어준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의 산간 마을에서도 걸립은 대문 주변 기둥자리를 일컫는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간단히 빈다. 걸립은 대개 대문 가까이 마당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당신 또는 대문신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구분해서 마당, 대문, 걸립 등 가신들에게 고사떡을 조금씩 놓으며 집안의 평안을 빈다.

**참고문헌**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김명자, 비교민속학 32, 비교민속학회, 2006),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의 산촌민속 1 · 2**(김태곤 · 김명자 외, 교문사, 1995).

**필자** **김명자(金明子)**

## 마당제

상호참조 마당신(159쪽)

**정의** 마당에서 베풀어지는 다양한 가정신앙 제의. 여느 가정신앙의 신령과 달리 마당에는 특정한 신령이 임재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신령을 위해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부정한 것을 풀어내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마당은 단순히 제의적 공간의 차원을 넘어 천신(天神)의 하강처이며, 건축구조물에서 벗어나 밖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내용** 전통가옥에서 마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채를 기준으로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구분된다. 뒷마당에는 그 집의 터를 관장하는 터주, 철륭, 당산 등의 신령이 모셔져 있다. 반면에 앞마당에는 특별한 신체를 봉안하지 않는다. 땅의 신인 '지신'이 있다고만 믿는다. 경남 거창지역에서는 마대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당에는 마대장군 이외에 삽짝의 수문장군, 뒤란 굴뚝의 굴뚝장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신도 함께 치성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이곳에서는 지신을 지신할머니, 지신할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마당의 신령을 특별한 신체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특별한 제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음력 정월 초순에 마당에서 지신을 밟는 제의를 베푼다. 지신밟기, 마당밟이, 매구치기 등의 명칭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마당이 중요한 신앙 공간임을 말해준다.

마당은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어서 집 안에서 베풀어지는 제의의 주요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혼례식, 회갑잔치 등의 의례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와는 별개로 마당에서 특정한 신령을 위하거나 특별한 제의행위를 한다. 이 신령은 지신이 아니다. 뒷마당에 모신 칠성을 위해 정성을 들일 때는 앞마당에서 베푼다. 마을의 주신인 산신을 맞아 집 안에서 치성을 드릴 때는 안마당에 상을 놓고 산신맞이를 한다. 마당은 집 안에 임재하지 않은 천신 계열의 특별한 신령을 모시는 열린 공간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열린 공간은 아니다. 건축구조물, 마당, 울타리와 대문의 영역에서 보면 마당은 건축구조물과 울타리 사이의 중간공간이다. 집 안과 마당은 엄연하게 분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당에서 집안에 발생한 부정한 일을 해결하는 다양한 주술 제의가 베풀어진다. 망자의 저승천도굿, 객귀물리기, 주당풀이, 상문살풀기, 동토잡기, 학질떼기, 삼눈잡기 등을 모두 마당에서 치른다. 방문을 열고 선 공간은 집 바깥이 아니지만 건물 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당제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982, 국립민속박물관

마당은 대문 밖의 공간으로 나가는 중간공간이지만 어찌 보면 집 안과 다른 밖의 공간이다. 천도굿을 할 때에 안방의 굿청에서 베를 마당까지 늘이고 그곳에 저승문을 만들어서 천도를 유도한다. 객귀 들린 환자는 방 안에 두고 그의 머리카락 일부를 들고 마당에 나와 칼을 던져 보아 객귀가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주당이나 학질이 걸린 환자를 마당에 놓고 맥이를 하기도 한다.

마당은 집 건물 바깥이므로 밖으로 관념한다. 대문 밖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바깥 공간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마당에 간혹 도깨비가 머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집터의 기운이 세다고 하여 도깨비를 위해 메밀묵을 뿌리기도 한다. 도깨비는 그곳의 특별한 기운일 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도깨비는 마당에 생활할 뿐 집 안으로 침입하지 않는다.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초대받은 신령이나 귀신과 함께 온 초대받지 못한 귀신은 마당에서 접대를 받는다. 자식이 없이 죽은 조상이 있으면 그를 위해 마당 한쪽에 음식을 조금씩 놓아 두기도 한다. 이처럼 마당은 바깥의 존재가 들어와 머물 수도 있는 공간으로서 집 안과 다른 개방적인 곳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마당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며, 특별한 예를 통해 대접한다.

**지역사례** 전국적으로 정월대보름 이전에 풍장을 치면서 각 가정을 돈다. 이를 지신밟기(마당밟이)라고 한다. 이때 가장 먼저 그 집의 지신을 달래 주어야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마당에서 한바탕 풍장을 친다. 그런 뒤에야 부엌으로 가서 조왕굿을 친다. 전남 담양지역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지신을 달랜다.

마당의 신령에게는 특별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간단하게 치성을 드린다. 경남 거창지역에서는 10월에 상달고사를 지낸 뒤 토지신을 위해 술을 마당에 뿌리기도 한다. 앞마당에 있는 '지신할머니'와 '지신할아버지'를 위해 고사를 지낼 때에는 팥떡 두 접시, 막걸리 두 잔, 청수 한 잔, 북어 한 마리를 올린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시월상달에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집집마다 가을고사를 지낸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가장 먼저 산신을 위한 산시루를 찐 다음 시루 안에 물 한 주발을 올려서 마당에 놓는다. 그 앞에서 절을 세 번 하고 난 뒤 치운다. 그런 다음 안시루를 쪄서 집안의 성주를 위한다. 마당에서 산신을 맞이해야만 집안의 신령을 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지역에서는 칠성을 위해 마당에서 정성을 들인다. 칠성은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무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음력으로 매월 초이렛날, 열이렛날, 스무이렛날과 칠월칠석날에 집안 마당 한가운데에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는 것으로 모신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의 한 가정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마당제를 지낸다. 집안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정성은 들이지 않고 마당제만을 지낸다. 흰무리떡 한 시루, 채떡 한 시루, 청수, 과일 등을 마련하여 마당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놓는다. 청수는 기도 드리는 그릇에 별도로 떠 올린다. 불은 종지에 들기름을 담고 새벽심지를 만들어 밝혀서 시루 안에 놓는다. 시루를 마당에 놓고 먼저  사방을 향해 절을 한다. 절은 여러 번 하면 좋지만 보통 서너 번만 한다. 그런 다음 먼저 마당의 터주지신을 위해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집안 식구들의 소지를 한 장씩 올린다. 대주, 아들, 딸의 순서로 한다.

전남 화순지역에서는 집터가 세기 때문에 정월대보름과 추석 등 명절에 바가지에 밥을 담아 마당 구석구석에 던져 놓는다. 진도지역에서는 집터가 세고 크면 터주신을 위해 밥을 해서 마당에 뿌린다. 정월대보름에는 찐밥을 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조금씩 놓아둔다.

신안지역에서는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걸판을 마련해 둔다. 바구니나 양푼 등에 차례음식으로 마련한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대문 안쪽 마당에 놓아둔다. 자식 없이 죽은 귀신이나 차례를 받아 먹지 못해 따라온 조상의 친구들이 잡수도록 놓아 둔 것이라고 한다. 이 음식은 동네 청년들이 거두어 가서 먹는다.

부산시 기장지역에서는 남의 혼사에 가서 부정을 탄 홍진손님을 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 팥떡을 쪄서 시루째 마당에 내놓은 뒤 짚으로 말을 만든다. 팥 시루떡을 넣은 오쟁이를 말에 실은 뒤에 "말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말을 끌고 마당을 한 바퀴 돈 다음 대문 밖으로 말을 몰아낸다. 몰아낸 말은 마을 구석진 곳에 그대로 둔다. 말을 마당에서 한 바퀴 돌게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부정을 모두 몰아내기 위함이다.

경기도 광명지역에서는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무당을 불러와 '자리걷이'를 한다. 고인이 저승에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 달라고 기원하며, 남아 있는 자손들에게 못다 한 말을 다하고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로 안방이나 마루에서 한다. 마당에는 키에다 벼를 담고 찔레나무를 휘어서 '가시대문' 하나를 만들어 둔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주인이 창호지 사이에다 돈을 끼우기도 한다. 고인의 혼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자리걷이를 할 때 무당은 "가시문으로 들어온다. 가시문으로 나간다."고 한다.

**의의** 마당은 집안과 바깥을 경계 짓는 지역이다. 마당은 집의 건축물과 그 바깥을 구분 지으면서 동시에 집안과 집 밖을 나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향 때문에 마당은 집안의 신령과 관련한 일을 베풀기도 하고 부정한 존재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늘로 열려 있는 집 안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칠성이나 산신을 집 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제의가 베풀어진다. 집 안과 대문 밖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베풀지 못하는 가족을 위한 액막이를 행한다.

마당은 건물 밖이기는 하지만 대문 밖은 아니다. 이곳에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잡귀잡신, 초대받지 못한 귀신, 도깨비 등이 생활한다. 이들이 수시로 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이지만 정성스레 위하지는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집 안에서 발생하면 모두 이들의 조화로 간주한다. 명절에 잡곡밥이나 쌀밥, 찐밥 등을 올리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들은 집 안의 여러 신령과 더불어 집 안의 화평을 위해 무시될 수 없는 대상임을 잘 보여준다. 마당제는 집 안과 집 밖의 점이지대로서의 역할이 고스란히 내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효경(金孝慶)**



## 마대장군

표제어 우마신(530쪽)

## 마중시루

**정의** 산신제를 지내는 날 산신을 마중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산제당을 향해 올리는 떡시루. 맞시루, 마짐시루, 마주시루, 마중제, 고사시루, 마짐고사, 맞고사 등으로도 불린다. 마중시루는 산제시루에 대응하는 떡시루를 지칭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집집마다 시루를 올리면서 기원하는 다양한 종교적의례를 포함한다.

**역사** 마중시루의 어원은 '맞다', '마중', '마주', '마짐', '맞' 등이 시루와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명사이다. 마중시루에는 '맞이하다', '맞아들이다', '마중하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마주 올리다' 또는 '마중하여 올리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중시루는 ①산제당에 좌정한 산신을 '맞이하여(마중하여) 올리는 시루', ②산신에게 바치는 산제시루와 '마주 올리는 시루'란 뜻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산신제를 지내는 날 마을을 대표하는 제관은 산제당에서 정성을 들이고 제의에 참석할 수 없는 주민들은 집안에서 떡시루를 마주 올리며 산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치르는 셈이다.

마중시루의 역사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마을의 구성원들이 산신을 맞이하는 의례 속에는 제사를 매개로 한 인간과 신의 오랜 교섭의 원리가 녹아 있다. 고구려에서는 10월에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고 나라의 동쪽에서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제사하였다. 이를 동맹(東盟)이라고 했다. 이처럼 성대하게 신을 맞이하여 제사하는 관행은 조선시대 고을 단위로 전승된 읍치제의(邑治祭儀)의 근간이기도 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조선 초기 읍치제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이 전한다. 경북 군위에는 김유신을 모신 삼장군당(三將軍堂)이 있다. 매년 단옷날이 되면 현의 우두머리 관리는 고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역기(驛騎)에 깃발·북을 달고 신을 맞이하여 거리를 누빈 뒤에 제사했다. 또 충북 보은지역에는 속리산 산마루에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가 있다. 그 신이 매년 10월 인일(寅日)에 내려오면 산중의 사람들이 풍류를 베풀고 신을 맞아다가 제사했다. 신은 45일을 머물다가 돌아갔다. 경남 웅천(현 창원)지역의 웅산신당(熊山神堂)에서도 주민들이 매년 4월과 10월에 산에서 신을 맞이하여 내려와 쇠북을 치면서 잡희(雜戲)를 벌였다. 원근에서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제사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된 청안(현 충북 괴산)지역의 국사제(國師祭)는 3월 초에 관아의 우두머리 관리[首吏]가 읍민들을 거느리고 장압산에서 국사신을 맞이하는 성대한 제의였다. 읍내로 와서는 무당들이 각 관청을 돌면서 떠들썩하게 굿을 벌이고 제사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다시 돌려보냈다. 청안의 국사제는 인근마을의 동제로 수용되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국사제를 지내는 날 각 가정에서는 국사신을 맞이하는 마중시루를 올린다.

이와 같이 고대사회 이래 신을 마중하여 제사하는 전통은 '당맞이'를 핵심으로 하는 서해안 도서지역의 당제(堂祭)에 폭넓게 남아 있다. 또한 '별신(別神)'과 '서낭신'을 맞아다가 치제하는 은산별신제나 강릉단오제, 동해안 별신굿 등에도 두로 용해되어 있다. 마중시루는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신을 맞이하는 오랜 '산신맞이'의 유습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마중시루는 충청도 산간마을에서 음력 정월과 시월상달에 전승되는 산신제에 종종 수반되는 의례이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마짐고사' 또는 '맞고사'라 하여 산신제를 지내는 날 시루를 올리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충청도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약화된 모습이다. 호남지역에서는 당산제 날 집안의 고사를 지낸다. 이곳에서는 마중시루란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의를 파한 뒤에 개별적으로 고사를 올린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중시루를 올리는 주체는 여성이다. 제물은 백설기(또는 팥 시루떡)와 정화수, 불밝이쌀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제물은 일절 올리지 않는다. 제의는 산제당에 올릴 메와 떡이 다 되어 제물이 진설되면 마을별



마중시루를 알리는 제관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2003.11.12, 강성복

로 고유한 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제관이 마을을 향해 "마중시루 떼시오" 하고 세 번을 외치거나 징을 세 번 울리거나 횃불을 놓아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에 따라 집집마다 장독대나 마당 한복판에 열십자로 짚을 깔고 시루째 안치한다. 산신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방에 절을 하며 치성을 드린다. 가정에 따라서는 재배 후에 가족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소지를 올리거나 시루를 안방으로 옮겨 성주신을 위하기도 한다. 또는 마중시루 외에 주인시루(성주시루)와 터주시루를 따로 준비하여 집안의 곳곳에 좌정한 가신을 치제한다.

**지역사례** 가가례(家家禮)란 말처럼 마중시루를 올리는 절차는 가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충남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에서는 산제를 지내는 날에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삽짝 양쪽에 황토 세 무더기씩을 놓는다. 집안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마중시루를 올릴 수 없다. 부녀자는 미리 목욕을 하고 옷도 단정하게 갈아입는다. 밤 12시 무렵이 되어 산제당에서 "떡을 떼시오."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안주인은 미리 백설기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마당으로 나간다. 산제당이 잘 보이는 곳에 열십자로 짚을 깔고 그 위에 떡시루를 안치한 다음 동서남북 사방으로 절을 한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한다.

음력 시월에 산신제를 지내는 연기군 동면 하룡마을에서는 산제당에 제물 진설이 끝나면 마을을 향해 "상세[享祀]하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른다. 이 신호를 듣고 각 가정에서는 산제당이 훤히 보이는 마당 한복판에 열십자로 짚을 깔고 백설기와 정화수를 올려놓는다. 산신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서남북에 절을 하는 등 치성을 드린다. 마중시루는 백설기로 한 되 서 홉을 준비한다.

2년마다 시월에 칠성제와 산신제를 지내는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서는 칠성제를 마친 제관이 산제당으로 내려와서 신호를 보내면 마중시루를 떼어 장독대에다 먼저 갖다 놓는다. 시루 한복판에 불백기(불밝이쌀)를 안치한 다음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고 사방으로 절을 한다. 이는 자손이 잘되고 집안이 무탈하게 해 달라는 뜻이다. 그리고 대주의 소지부터 차례로 가족의 소지를 올리며 축원을 한다. 마치면 성주를 모신 안방으로 떡시루를 옮겨서 동일한 절차로 가정의 무병제액을 기원한다. 마중시루는 시루떡으로 석 되 서 홉 또는 한 되 서 홉을 준비한다. 이때 시루떡을 잘못 찌면 오히려 집안이 해를 입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영성마을에서는 시월 초에 산신제를 모실 때 집안의 당산(장광)에 마짐시루와 주인시루 두 개를 올린다. 당일 저녁 산제당에 진설할 떡시루가 익으면 제관 세 사람은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제당으로 향한다. 이때 주당(主堂)이 "마짐시루 올리시오."라고 소리를 질러 주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각 가정에서는 일제히 당산에 바칠 '마짐시루'와 '주인시루'를 아궁이에 올린다. 산신제에 맞춰 마중시루를 올리고, 이어서 집안을 돌보아 주는 터주신과 성주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때 마짐시루는 산신을 공양하는 시루이기 때문에 당산의 가장 높은 곳에 안치한다. 그 밑에는 성주를 위한 주인시루를 놓는다. 그 절차는 먼저 마짐시루에 절을 올린 뒤 주인시루에 치성을 드린다. 주인시루는 가정의 소원성취와 자손의 번창을 축원하기 위함이다. 백 배를 드려야 집안을 굽어살핀다고 한다. 당산에서 치성을 마치면 다시 안방으로 주인시루를 옮겨서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고 고사를 지낸다. 이어서 주인시루의 떡을 떼어 대문, 측간, 광, 뒤주, 쌀독 등에 놓는다. 이 떡은 이웃에 골고루 나누어 주지만 마짐시루는 덮어 놓았다가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마중시루의 전통은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소멸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누대를 이어온 산신제가 미신타파운동과 함께 중단되거나 이후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신에 대한 믿음이 쇠퇴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신제가 전승되는 마을에서도 마중시루를 거행하는 가정은 매우 드물다. 설령 마중시루를 올린다고 해도 개별적인 가정신앙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특징** 마중시루는 상당의례(上堂儀禮)인 산신제와의 상관성이 긴밀하다. 실제 장승, 솟대, 탑, 신목, 선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당의례(下堂儀禮)에서 마중시루를 올리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까닭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산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관장하는 지고의 신이고 아울러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이나 '산제길일(山祭吉日)'과 같이 특정한 날에 내려오는 신격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산신은 하당에 좌정한 신앙 대상처럼 평소 마을 어귀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강림(降臨)을 청배하여 맞이하는 최고의 마을신으로 숭배를 받는 것이다.

물론 산신제와 무관하게 마중시루를 올리는 특이한 사례도 있다.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서는 국사제에 마중시루를 올린다. 이는 국사제란 명칭과 별개로 국사신이 산신과 동일한 신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에서 국사신이 국사산신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또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정월대보름 새벽에 장승제를 지낼 때 징소리와 함께 장광(장독대)에서 마중시루를 올린다. 이례적으로 동구 밖에서 베풀어지는 하당의례에 마중시루가 수반되는 셈이다. 이는 장승제의 대상 신인 오방신장(五方神將)이 산신의 신격을 대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중시루의 중요한 특징은 시루를 올리는 시점이다. 이것은 마중시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신제를 공식으로 끝낸 뒤에 올리는 각 가정의 산제'로 마중시루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동시에 마중시루를 올린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중시루가 전승되는 50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80%에 이르는 마을에서 산신제의 시작과 동시에 시루를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의례의 '동시성'은 맞시루, 마주시루, 마중시루의 어원 속에 이미 갈무리되어 있다. 즉 마중시루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산신을 마중하여 산신제와 마주 올리는 '맞정성'인 셈이다.

산신제와 함께하는 마중시루의 동시성은 충청도 지역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돌삼골에서는 시월 초하룻날에 산신제를 지낸다. 제관이 산신제를 거행하기 전에 마중시루를 떼라고 소리를 지르면 집집마다 떡시루를 장광에다 놓고 치성을 드린다. 산신제와 동시에 올리는 마중시루를 '맞



마중시루 소지올리기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디마을
1996.10.3(음)
강성복



화덕에 안치한 마중시루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토끼울마을, 1998.1.14(음), 강성복

정성' 드린다고 한다. 연기군 동면 용호리에서도 제물을 진설한 뒤 제관 일행이 신호를 보낸다. 신호와 함께 마을에서는 산신제의 시작과 동시에 떡시루를 마당으로 옮기고 마중시루를 올린다.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에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제단 좌우에 세워 놓은 싸리나무홰 꼭대기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산신제를 시작한다. 이와 때를 맞추어 심부름하는 '거정꾼'이 징을 울려 산신제가 시작됨을 마을에 알린다. 각 가정에서는 징소리를 듣고 산신제와 동시에 마중시루를 떼어내 장독대에 놓고 치성을 드린다.

산신을 맞이하는 집안의 고사를 마중제로 표현하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1리의 사례는 마중시루의 의미가 한층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기에 앞서 제관이 횃불을 밝혀서 마을을 향해 몇 바퀴 원을 그린다. 횃불은 주민들에게 보내는 신호이다. 이 불빛을 보고 집집마다 시루를 안치하고 산제당을 향해 마중제를 지낸다. 여기에서 마중제는 '산신을 마중하여 산신제와 동시에 올리는 제사'란 의미이다. 이와 동일한 예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에서는 정월 열 나흗날 산신제를 지낸다. 여성들은 시간에 맞추어 당산(장독대)에 떡시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산신당 제물의 진설이 완료되어 징을 크게 울리면 이 신호에 따라 각자 소지를 올리는 등 치성을 드린다. 이를 '맞시루'라고 한다. 여기에서 맞시루는 '산제당의 산제시루에 대응하여 마주 올리는 시루'란 뜻이다.

이처럼 산제시루와 마중시루를 함께 거행하는 맞정성의 의미는 설령 산신제 후에 시루를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 마중시루는 산신제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제관과 축관이 소지축원을 드리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동소지가 시작될 때 "동소지요!"라고 세 번을 외쳐서 마중시루의 시기를 알려주는 논산시 양촌면 도평3리의 산신제, 산제당에서 소지불이 환하게 타오를 때 맞시루를 올리는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산신제 등은 좋은 사례이다.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에서도 소지를 올리기 전에 유사 세 명이 마을을 향해 "마중시루 올리세요."라고 외치면 산제당과 마을의 중간쯤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의의** 마중시루는 산신제의 대동성(大同性)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의례이다. 흔히 유교식 절차로 진행되는 산신제는 풍물을 울리지 않고 제관, 축관 등만 참여하는 정숙형 제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엄숙한 제례의식 속에는 마중시루를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산신을 맞이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녹아 있다. 마중시루는 단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촐한 산제가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는 제관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산신을 맞이하여 '맞정성'을 드리는 적극적인 대동의례이다. 산신제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징을 쳐서 신호를 보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마중시루에는 집안을 돌보아 주는 터주, 성주 등 가신(家神)에 대한 축원의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 이는 추수를 마친 뒤에 전승되는 상달의 산신제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달의 산신제는 택일로 날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에서는 산제일이 매우 길한 날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집집마다 햅쌀로 마중시루와 고사시루를 마련하여 농사의 풍년과 가정의 무탈을 살펴준 터주나 성주신에게 감사의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마중시루는 산신제가 지닌 대동성과 가신제(家神祭)로서의 개별성이 동시에 녹아든 '거룩한 예배'의 표상이었다. 마중시루는 산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흠향(歆饗)의 대상이 떡시루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례이기도 하다.

**마중시루**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2003.1.3(음), 강성복



산신제 후 마중시루를 알리는 횃불



산제시루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계룡시 향한리(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민속원, 2010), **산신제에 수반되는 '마짐시루'의 의미와 성격**(강성복, 어문연구 61, 어문연구학회, 2009),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청양 정산동 화제**(강성복, 민속원, 2010), **충청민속문화론**(강성복, 민속원, 2005),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강성복(姜成福)

**마중시루** 전북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2002.1.14(음), 강성복



당산제 후 마당에 올린 떡시루



당산제 후 성주와 조상신에게 차린 제물

## 맞고사

표제어 마중시루(163쪽)

## 메밀묵

상호참조 도깨비(132쪽), 도깨비고사(134쪽)

**정의** 충청남도 지역에서 안택을 할 때 도깨비 터에 올리는 메밀로 만든 묵.

**역사** 메밀은 한반도 자생 작물이다. 이것의 알맹이로 묵을 쑤어 먹은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메밀묵과 관련된 고대 문헌이나 고고학적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역사 이래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선후기 문헌에 녹두묵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메밀묵은 매우 일상적인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약용(丁若鏞)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메밀의 한자어는 교맥(蕎麥)이며 조선에서는 '모밀'이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일제강점기 때 잡지 『별건곤(別乾坤)』에서는 '메물묵'이라고 적었다.

**형태** 『별건곤』에서는 "한주발 그득하게 갓다놋는데 첨경보면 국수장국인가하고 속기가 쉽다. 그것은 무엇보담 묵이 국수발과 갓치 가늘은 까닭이다. 비비기는 대개는 고기장국에 비벼서 먹는데"라고 적었다. 사각형의 도토리묵과 달리 메밀묵은 국수처럼 길게 썰어서 큰 밥그릇에 담고 여기에 쇠고기 삶은 국물을 부은 다음에 양념을 쳐서 비벼 먹는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제물로 사용할 경우 덩어리째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내용 메밀의 알맹이를 갈아 만든 앙금을 풀처럼 쑤어 식혀서 굳힌 음식이다. 일제강점기 때 충청도지역에서는 메밀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이 있었을 정도로 지역음식으로 여겨졌다. 그만큼 메밀묵을 많이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신앙에서도 도깨비를 달래는 음식으로 메밀묵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메밀묵 덩어리는 돌처럼 기운을 눌러 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산업화와 주택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풍속은 사라졌다.

지역사례 예전에 시골이나 산골에서는 도깨비가 잘 나오는 집이나 장소를 도깨비터라고 불렀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는 안택고사를 지낼 때 집안에 도깨비터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반드시 메밀묵을 올렸다고 한다. 집을 지을 때도 집터의 기운이 셀 것 같으면 울안의 네 귀퉁이에 메밀묵을 갖다 놓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사용하는 메밀묵은 메밀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雅言覺非, 충청도명물 진천메물묵**(박찬희, 별건곤 24, 1929),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주영하(周永河)

## 멩감제

표제어 문전철갈이(178쪽)

## 모밥내가기

상호참조 못자리고사(169쪽)

정의 첫 모내기를 하는 날 집안에 좌정한 성주, 터주, 조왕 등의 가신(家神)에게 밥과 청수를 올리는 제의.

내용 모내기를 하는 첫날 일꾼들을 대접할 밥을 들로 내가기 전에 미리 성주신을 위해 한 상을 올린다. 집안의 대사인 만큼 먼저 집안의 최고 신령인 성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이때 성주상에 국과 나물도 함께 올렸다가 모밥을 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먹는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에서는 첫 모를 낼 때 모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으로 밥을 내가기 전에 먼저 성주에게 밥과 청수를 바친다. 안방 윗목의 성주 밑에 상을 놓고 밥과 청수를 한 그릇씩 올리는데 특별한 치성은 드리지 않는다.

첫 모내기가 이루어질 때 가신을 위하는 제의는 지역마다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여 준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서는 첫 번째 모내기를 하는 날 성주는 물론 터주, 광 등 각각 밥을 올린다. 가신들에게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한 뒤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는 그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제의이다.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에서는 모내기철에 밥을 내가려면 먼저 성주께 밥과 청수 한 그릇씩을 올린다. 이렇게 해야 모가 잘 자란다고 한다.

모내기철에는 부엌에 좌정한 조왕신을 위하기도 한다.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에서는 첫 모내기를 하는 날 조왕에게 밥과 물을 한 그릇씩 갖다 놓는다. 모를 내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불을 관장하는 조왕신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사람이 먹기 전에 집안을 돌보아 주는 신령이 먼저 흠향하라고 떠 놓는데 조왕에게 바친 밥은 논에 다녀와서 가족들이 먹거나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모내기를 하는 날 터줏단지에 넣어두었던 쌀을 꺼내어 일꾼들의 모밥을 내가는 사례도 있다.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에서는 예전에 모를 심을 때 터줏단지에 봉안해둔 쌀로 밥을 지었다. 집안에 따라서는 칠석날 터줏단지를 비워서 백설기나 밥을 짓기도 했지만, 대개는 춘궁기인 모내기철에 밥을 지어 터주신의 몫으로 먼저 한 그릇을 떠놓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보릿고개를 넘기 어려웠던 시절에 터줏단지의 쌀은 모내기를 하는 일꾼들을 대접하는 식량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모밥내가기와 유사한 농경제의로 '못자리고사'가 있다. 이는 4월 초파일 무렵에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는 날 집 안의 곳곳에 좌정한 가신을 위하는 고사를 말한다. 당일 농가에서는 팥 시루떡과 술 등을 준비하여 성주, 칠성, 대감 등에게 풍농을 축원한다. 이때 준비하는 떡을 '못자리떡'이라고 부른다. 대주는 술과 음식을 가지고 못자리로 나가 논의 네 귀퉁이에 놓고 고사를 드린다. 고사를 마치면 술을 따라서 논에 붓거나 떡을 떼어내 던진다. 못자리고사는 한 해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신을 위하고 논으로 나가 고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일꾼들을 잘 대접하고,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렵던 시절에 이웃과 떡을 나누어 먹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의의 쌀은 오곡 가운데 가장 귀한 곡물이다. 이에 따라 모내기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논농사의 시작인 볍씨를 뿌릴 때 조촐하게 떡과 음식을 마련하여 못자리고사를 지냈다. 또 어린 모가 자라나서 이앙할 시기가 되면 첫 모내기를 하는 날에 집안을 돌보아 주는 신령들을 위해 풍농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렸다.

**참고문헌** **진악산 기슭에 꽃피운 천년의 터전**(이해준 · 강성복, 금산문화원,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강성복(姜成福)

## 모탕고사

표제어 개공제(25쪽)

## 못자리고사

상호참조 모밥내가기(168쪽)

정의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음력 3월쯤에 못자리를 만들거나 못자리를 낸 뒤에 풍년 기원과 새나 개구리 같은 조수(鳥獸)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내는 가정의례. 다른 명칭으로 '볍씨고사'라고도 한다.

내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음력 3월(절기상 곡우, 양력 4월 20일쯤)에 한 해 벼농사의 시작인 못자리를 만들면서 짐승들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한편 풍년을 빌기 위해 가정에서 지내는 고사이다. 이를 못자리고사, 볍씨고사, 고사라고 부른다. 고사떡은 볍씨를 담글 때 남겨둔 것을 찧어 팥 시루떡으로 만들고 집안 식구들끼리만 나눠 먹었다.

못자리는 볍씨를 담그는 것부터 정성을 기울인다. 볍씨를 담은 가마니는 솔가지로 덮어둔다. 밖에서 부정한 일을 당했거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집 앞에 와서 불을 놓아 악귀를 몰아낸 다음에 집 안에 들어온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볍씨를 보지 않는다. 해안가에서는 조수가 들어오는 여드렛날이나 아흐렛날에 볍씨를 담그지 않는다. 이날 담그는 볍씨로 못자리를 하면 조수의 힘에 의해 모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락(볍씨)을 담가 놓으며, 초상집에는 문상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성 들여 키운 볍씨를 못자리에 뿌릴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을 쏟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여 못자리하는 논의 머리 쪽에 놓고 고사를 드린다. 이때 고사는 대주(大主)가 주관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못자리하는 날 점심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뜬 '첫밥'을 논두렁 위에 올려두고 일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이 밥은 반드시 그 논의 주인이 먹는다. 첫밥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성인 것이다. 못자리를 한 뒤에 새가 볍씨를 쪼아 먹거나 개구리 같은 동물이 볍씨를 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뿌린 볍씨가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밥이나 떡을 준비하지 않고, 못자리를 만든 날 저녁에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가 고수레를 하듯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논가에 던지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개구리 같은 동물들이 모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자리를 온전히 보존한다고 한다. 한편 모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못자리를 하는 날 반드시 찰밥을 해 먹기도 한다. 찰밥은 메밥과 달리 찰기가 있어서 모가 잘 서고 농사도 풍성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지역에서는 논에 볍씨를 뿌린 뒤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떡을 해서 못자리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지 않고 못자리를 내면 구렁이가 나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

포통진두레놀이에도 못자리고사가 재현되고 있다. 이 민속놀이는 한 해의 농사 과정인 볍씨 뿌리기, 논갈이, 서래질, 못자리고사, 모찌기, 모내기, 새참 먹기, 물꼬 싸움, 두레싸움, 김매기, 벼 베기, 탈곡하기, 섬 쌓기, 풍년고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놀이화하여 재현하고 있다. 볍씨 뿌리기에서는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하여 못자리를 만들어서 소고놀이로 볍씨 뿌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리고 한 해 농사에 풍년을 기원하는 못자리고사를 지낸다. 이것은 한 해 농사의 시작으로, 못자리의 입종이 잘되어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의 민속예술**(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경기민속지 3**(경기도박물관, 2000),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의 두레 1**(주강현, 집문당, 1997).

**필자** **이인화(李仁和)**

## 문간제(門間祭)

상호참조 문신(171쪽)

**정의** 문을 지키는 문신(門神)에게 행해지는 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문신을 붙이는 풍습을 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대문에 문신을 붙이는 풍습이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용재총화(慵齋叢話)』·『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처용(處容), 직일장군(直日神將), 울지공(尉遲恭), 진숙보(秦叔寶), 귀두(鬼頭), 종규(鍾馗), 각귀(角鬼), 위정공(魏鄭公) 등이 문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처용(處容)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신은 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인들이 처용의 그림을 벽사의 의미로 문에 붙였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이 성현(成俔)의 『용재총화』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의 풍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도교의 유입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문신으로서의 위용보다는 주술적 성향이 강조된 부적으로 간주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3 잡지 제1 제사조에는 "성문(城門)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중국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는 주(周)나라 때부터 여름 제사 음식으로 개고기가 쓰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사기(史記)』의 「12제후연표(12諸侯年表)」와 「진본기(秦本紀)」에도 충해(蟲害)를 방지하기 위해 진(秦)나라에서는 복날에 개를 잡아 읍문(邑門)에 걸어 놓고 제사 지냈음을 적고 있다. 한나라 때 응소(應邵)의 『풍속통의(風俗通儀)』에는 그믐날에 닭을 죽여 문호(門戶) 제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문 제사의 제물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나 닭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짓날에 붉은 팥죽을 문짝에 뿌려서 액운을 제거하는 풍속이 있다. 중국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도 "정월대보름날 문에 제사를 지낸다. 먼저 버들가지를 문에 꽂은 뒤 팥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끼얹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적고 있다. 동짓날에 팥죽을 문에 뿌리는 것은 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도 있다.

**내용** 문신은 대문으로 들어가는 잡귀나 부정을 막는 문에 깃든 신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그림이나 글로 묘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 구전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육지의 대문에 해당하는 정살과 정주목에 있는 신을 '남선비'라 부른다. 경기·충청도지역에서는 대문을 지키는 신을 '남해대장군'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대문이 흔히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장군이라는 호칭은 문신이 무관(武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무속에서 무당들은 출입문의 신을 '수문(守門)대감'이라고 한다. 과거 문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문신을 그림이나 글로 붙인 사례가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민간에서 대문신은 실제 형상이 없는 '건궁'으로 섬기고 있는 셈이다.

**지역사례** 우리나라에서는 굿을 할 때 문굿을 한다. 시월상달에 가신(家神)들에게 제를 지낼 때도 대문을 활짝 열고 문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천신의 의미로 문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충청도지역에서는 문간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문간제'라 한다.

충북 청양지역에서는 동지 제사 때도 깨끗한 짚 위에 시루떡을 올리고 대문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이때 '장군'이라는 호칭을 들면서 가내 평안을 기원한다. 이것을 보면 무장(武將)을 문신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이천지역에서는 대문이 남향이기 때문에 방위를 따서 '남방장군'이라는 호칭으로 문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 별도의 제물은 진설하지 않는다.

문간제를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정월 초에 날을 받아 지내기도 한다. 이때 집 앞에 금줄을 치며, 손 없는 날에 황토를 퍼다 놓고 부정을 가린다. 고사일 저녁에 문을 열어 놓고 밥, 나물, 과일, 시루를 문간에 바친다. 이밖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터가 도깨비터인 경우에도 문간제를 지낸다.

**참고문헌**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조선무속고**(이능화, 백록, 197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서울**(문화재관리국, 197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정연학(鄭然鶴)**

## 문신(門神)

상호참조 문간제(170쪽), 올레신(500쪽)

**정의** 대문에 존재하는 신. 대문으로 들락거릴 수 있는 잡귀나 부정 등 액살(厄煞)을 막아주거나 복을 들여오는 구실을 한다. 문간신, 문전신, 수문신, 문장군, 문간대감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사찰에는 절을 지키기 위하여 동서남북의 사천왕(四天王)을 만들어 좌우에 세운 문이 있다. 사천왕은 사찰의 문신인 셈이다. 사천왕이 사찰의 문을 지켜주듯 가신(家神)으로서 문신은 집의 대문을 통해 들고나는 액살을 막아주고 때로는 복을 들여온다. 상징하는 신체(神體)는 없는 건궁이다.

중국에는 문신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이 있고 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구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풍부한 곳은 제주도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문신을 문전신이라고 한다. 큰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인 '올레' 입구에 굵은 나무를 걸쳐 놓고 이를 '정살' 또는 '정낭'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살을 가로 꿰어 걸치게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세운 '정주목'이 있다. 육지의 대문에 해당하는 정살과 정주목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여긴다. 이 신이 문전신이다. 사실 정살과 정주목의 실질적인 기능은 가축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밭에도 정살과 정주목이 있다.

집의 정살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하여 문전신을 정살지신이라고도 한다. 이들 신을 '테세' 또는 '죽산이'라고 일컫는 마을도 있다.

문전신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한다. 특히 제주도지역에서는 문전신을 '남선비'라 하여 구체적인 이름까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에 나온다.

〈문전본풀이〉는 제주도의 무당굿에서 심방(무당)이 노래하는 문신의 신화, 또는 그 신화를 노래하고 문신에게 기원하는 제차(祭次)를 일컫는다. 제주도의 집안에서 하는 굿에는 반드시 〈문전본풀이〉가 들어간다. 이는 문신의 내력담일 뿐만 아니라 조왕, 측간신, 주목지신, 오방토신 등의 내력담이기도 하다. 이들 신 중 문신이 으뜸 신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문전본풀이〉라고 붙여진 것이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는 문신을 지칭하는 '가택신'으로 수문신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민가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문신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문헌에 보이는 문신과 관련돼 있다. 조선시대 때 대궐 문의 좌우 문짝에 붙이는 문배(門排)를 비롯하여 궁전 문에 붙이는 세화(歲畫), 문설주에 귀신의 머리를 그려 붙이는 이야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림의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처용상(處容像)도 나오지만 대부분 중국의 도교적인 성격을 지닌 장군상, 선녀도, 신장(神將) 등 인물상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원래 세화는 조선시대 때 서화(書畫)를 관장한 도화서(圖畫署)에서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바치거나 서로 선물을 하는 것으로, 신년을 축하하는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의 주제는 수성선녀(壽星仙女)와 직일신장(直日神將) 등으로 나타난다.

문배는 사귀(邪鬼)나 전염병 등을 막기 위해 문

문신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리 마전마을, 2003.11.16, 서해숙



전북 완주군 봉동읍, 2004.6.29, 서해숙

에 붙이는 신상(神像)이다. 중국의 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 신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서 신상은 때로 실존인물인 경우도 있다. 홍석모가 소개한 세화와 문배는 오늘날 중국의 대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무장(武將)은 대부분 대문에 붙이고 문관(文官)이나 도교적 인물은 집 안의 문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문신은 처용(處容)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제2의 처용랑과 망해사조에는 신라인들이 처용 그림을 벽사(辟邪)의 의미로 문에 붙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이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있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의 풍속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도교의 유입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문신으로서의 위용보다 주술적 성향이 강조된 부적으로 간주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재총화』,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의 기록에 따르면 처용은 직일신장, 울지공(尉遲恭), 진숙보(秦叔寶), 귀두(鬼頭), 종규(鍾馗), 각귀(角鬼), 위정공(魏鄭公) 등과 함께 문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처용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은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이들 중국의 문신 풍속이 고려시대 중엽 예종 때 도교와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도교적인 문신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집에도 있다.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집(勉菴集)』에는 제석날 대문 가운데에 '신도 울루(神荼 鬱壘)'의 네 글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당시 문신에 대해 시(詩)로 표현한 것도 있다.

조수삼(趙秀三)의 『세시기(歲時記)』에도 대문 안팎에 다른 문신의 그림을 붙였다고 적고 있다. 대문 밖에는 갑옷을 입은 무사가 마주 보게 붙인다. 한 명은 철로 만든 복두(幞頭)를 쓰고 금비늘이 달린 갑옷 차림에 대쪽처럼 생긴 금간(金簡)을 든 당나라 장군 진숙보(秦叔寶)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 명은 구리로 만든 투구를 쓰고 금비늘이 달린 갑옷 차림에 도끼를 든 울지공이라고 묘사한다. 대문 안에는 마주 보고 있는 재상(宰相) 그림이 붙는다. 모두 검은색 복두를 쓰고 다홍색 포(袍)를 입고서 각각 꽃을 꽂은 이들 재상은 위징(魏徵)과 저수량(楮遂良)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가에는 문신의 특별한 명칭이나 형상에 대한 언술이 흔하지 않다. 그냥 문에는 신이 깃들여 있어서 그 집안의 액을 막고 복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정도이다.

경기도와 충청도지역에서는 대문을 지키는 신을 '남해대장군'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대문이 흔히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장군이라는 호칭에서 문신이 무관(武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한다. 문신을 무관으로 상정한 것은 중국의 영향에다 사찰의 수문신격인 사천왕과 관련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무속신앙에서는 출입문의 신을 수문(守門)대감이라 하고 전북 진안지역에서는 문신을 문간대감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신에게 대감이나 장군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터주신을 터줏대감 또는 텃대감, 업신을 업대감, 방앗간에 있는 신을 방앗간대감, 집의 굴뚝에 있는 신을 굴대장군이라고 한다.

모든 문에는 신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 특별한 의례 없이 집안 고사를 지내고 나서 떡을 조금 떼어내 대문 난간에 놓아두는 정도로 위한다. 또한 동짓날 팥죽을 쑤면 대문에 조금 뿌려둔다. 팥죽은 벽사의 의미도 있어 액을 막기 위해 대문에 뿌리는 것이다. 이는 모든 액이 문을 통해 들고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신은 신체가 없어 건궁으로 위한다. 그 대신 입춘축이나 세화 등 글씨 또는 그림 형태로 대문에 붙여져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 입춘축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가장 보편적으로 쓴다. 그러나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와 같이 복을 부르는 내용도 있다. 또는 '용(龍)'자나 '호(虎)'자를 써 붙여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집 안에 사귀(邪鬼)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조선시대에는 정초를 전후하여 도교적인 장군 그림을 그리거나 장군 이름을 써서 붙이기도 했지만 점차 축소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잡귀의 집안 침입을 막기 위해 엄나무를 걸어두는 모습은 요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엑스(X)자로 엮어 대문 위쪽, 지붕 처마, 문지방 위 등지에 매단다. 엄나무를 액막이로 쓰는 까닭은 예리한 가시로 잡귀를 퇴치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잡귀가 들어오다가 엄나무에 찔려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엄나무는 껍질을 약재로도 쓰는 약용식물이어서 농촌에서는 엄나무를 집에서 직접 기르기도 한다.



문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2007.12.30, 서종원



문신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010.6.11
배도식

중국에서는 문호(門戶)에 닭의 그림을 그려 붙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림이 아니라 닭을 잡아 직접 문에 매달았다고 한다. 닭피에 벽사의 힘이 있다고 믿고 닭피를 문에 바르다가 나중에는 죽은 닭을 매달았다는 설도 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존재로, 닭 울음소리로 아침과 저녁으로 문이 개폐(開閉)되어 재난을 막는 것과 관련이 된다. 또한 닭은 만물 질서의 원천인 동방(東方)의 동물이며 만물이 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문에 닭을 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문의 벽사를 막는 것은 닭뿐만 아니라 개도 해당되어 개를 잡아 매달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후대에 이르러 삼재막이로 매 그림을 문 안쪽에 붙이고, 길상을 위해 닭 그림도 문 안쪽에 붙였다. 나무로 조각한 닭을 문 안쪽에 걸어두기도 했다.

문신을 각별히 모시는 경우도 있다. 집안에서 하는 굿에 반드시 〈문전본풀이〉가 들어갈 만큼 유달리 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는 제주도지역에서는 새집으로 이사하면 문전제를 지내기도 한다. 심방에

따르면 문전제는 제사와 같아서 제사 형식으로 지낸다고 한다. 또 예전에는 이사할 때 남편은 도끼를 들고 가고 아내는 솥과 요강 새것에 쌀을 넣어서 갔다고 한다. 이 쌀로 밥을 지어 가장 먼저 문전에 올렸다. "오늘부터 제가 이 집 주인이 되었으니까 문전지신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빈다. 남편이 도끼를 들고 간 것은 혹시나 가는 길에 사악한 것이 방해하면 치겠다는 위협의 의미이다. 새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여자가 그 뒤를 따른다.

제주도와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모든 문에는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의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는다. 전북 부안군의 한 법사에 따르면 가끔 사람들이 아프다고 불러서 가 보면 그 집에 들어서기 전에 문간에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문에 귀신이 들려있으면 문의 공이가 귀신의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풀어주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례**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어영마을에서는 기제사를 지낼 때 문전제와 할망상을 차려 모시기도 한다. 문전제를 먼저 지내고 본제를 지내며, 어린아이들이 잘 크게 해 달라고 방에 할망상을 모신다. 기제사는 제물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 초저녁에 진설해 놓고 나서 친척들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지낸다.

여러 형제가 본제의 제관으로 참석하더라도 문전제만은 제의를 준비하는 사람인 집주인이 맡아 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장손에게만 제사를 맡겨 큰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 자손들이 골고루 기제사와 문전제를 맡는다.

본제를 다 지내면 안사람이 중심이 되어 할망상을 차리고, 제사에 온 여러 혼령을 대접하기 위해 잡식을 행한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물을 나누어 먹고 대바구니에 담아 나누어 주기도 한다.

또한 문전제는 신랑이 혼례를 치를 때, 신부 집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조상과 문전에 혼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내기도 한다. 형식은 명절 제사의 절차와 같다. 혼인을 위해 택일을 하면 신랑이 나가는 시간을 보고서 차례 지낼 준비를 하면서 문전제부터 먼저 지낸다. 차례를 지낼 때는 문전제에 올린 음식을 차린다.

옛날에는 혼례를 '7일 잔치'라고 하여 사흘 전에 그릇과 천막 등 물자를 준비하고 가옥을 청소하며, 이틀 전에 두부를 준비하고, 하루 전날에 돼지를 잡아서 '가문잔치'를 치른다. 그리고 잔칫날에는 신랑과 상객(上客)이 모두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 신랑 집에서 잔치를 치른다. 혼례를 치른 다음날은 사돈 10명이 신랑, 신부, 신랑 부친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간다. 이틀 뒤에는 신부 부친이 신랑 집 안사돈과 인사하기 위해 신랑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설거지와 청소, 빌린 것을 돌려주는 등 바쁜 일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금마을에서는 정월 초순 안으로 날을 받아 문간고사를 지낸다. 문간고사를 지내기 전에 집 앞에 금줄을 치며, 손 없는 날 황토를 뿌려 부정을 가린다. 고사일 저녁에 문을 열어놓고 밥, 나물, 과일, 떡시루를 문간에 올린다. 밥은 큰 그릇에 담아서 놓는다. 여기에 식구들의 숟가락을 빙 둘러서 꽂아놓는다. 또 쌀 한 말 정도를 펴서 촛불을 밝힌 다음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절을 한다. 궂은 사람은 사흘 동안 기도를 하기도 한다.

**문신** 경북 안동시 도산면 상계리, 2006.7.11, 황헌만










문간에서 절이 끝나면 올린 제물은 그대로 방 안의 성주에게 다시 차려 올린다. 그리고 상에 막걸리 한 사발을 놓고, 그 밑에는 막걸리 서너 말을 큰 대접에 담는다. 문간 성주에게도 똑같이 차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절을 한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방 안의 뒷문에는 성주가 있고 한가운데에는 조상이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절을 마치면 문간신에게 소지를 올린다. 이때 소지가 잘 오르면 좋지만 안 오르고 방바닥에 떨어지면 좋지 않다고 한다.

이 밖에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죽동마을에서는 문신을 문간신이라고 하면서 굿을 할 때 제를 지낸다. 문간에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고 촛불을 밝혀서 집안에 재물을 불려 달라고 기원한다.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서는 문신이 있는 문에 상을 차려서, 공을 들이지는 않지만 제사가 끝나면 문 밖에 물밥과 말래밥을 차려놓는다. 이때 상을 놓지는 않고 바닥에 깨끗한 짚을 깔아서 그 위에 장만한 음식을 조금씩 부어 놓는다. 어떤 집에서는 짚 위가 아니라 바가지에 담아서 놓기도 한다. 제사를 지낼 때 이외에 정월에 문 앞에 물밥을 차려놓는 사람도 있다. 장수지역에서는 '무샘물'이라 하여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 때 조상, 성주에게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 대문 앞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놓아두기도 한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강화의 가정신앙** 1 · 2(강화도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산촌민속** 1(김태곤 · 김명자 외, 교문사, 1995).

**필자** 김명자(金明子)

## 문전제(門前祭)

**정의** 집안의 수호신인 문전신을 위한 제의.

**역사** 제주도지역(우도,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등 주변 섬에서는 문전제를 지낸다. 추자도에서는 제사 문전제는 지내지 않는다)에서 집안에 따라 지내는 문전제는 유교, 불교, 무교에 따라 의례가 조금씩 다르다.

문전제 유래는 현용준의 〈남선비(문전본풀이)〉에 있듯이 무속적 의례로 전승되고 있다.

> 문전[門神]의 할아버지는 해만국, 할머니는 달만국, 아버지는 남선비, 어머니는 여산부인이며, 일문전(一門前)은 똑똑하고 영리한 녹디생이다. 남선비와 여산부인은 일곱 아들을 두어서 먹고살기 위하여 무곡(貿穀)장사를 하려고 남선비는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갔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있는데 간악해서 남선비의 돈을 긁어낼 계책을 세웠다. 작은부인의 악행으로 본부인은 죽고, 아들들의 목숨도 위태로웠다. 막내아들 녹디생이의 지혜로 모두 응징한다. 그 결과, 남선비는 겁결에 올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어서 주목지신(柱木之神, 정낭을 걸치게 올래 양쪽에 세워 놓은 기둥) · 정살지신(정낭의 신으로 정낭을 정살이라 함)이 되었다. 계모는 벽을 뜯고 그 구멍으로 변소로 도망쳐서 쉰댓 자 머리로 목매어 죽으니 변소신인 측도부인(厠道婦人)이 되었다.
>
>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의 흙을 모아서 시루를 만들었다. 여섯 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먹으로 찍으니 여섯 구멍이 터지고 녹디생이는 화를 발칵 내며 발뒤꿈치로 한번 찍으니 가운데 큰 구멍이 생겼다. 그때 낸 법으로 시루구멍이 일곱 개이다.
>
> 그 때 이후로 오늘날도 명절 · 기일제사 때에 문전제를 지내고, 그 제사의 제물을 조금씩 떠서 지붕 위에 뿌리고, 그 제물을 조금씩 떠서 어머니이신 조왕(竈王)에게 올린다. 또한 조왕과 측도부인은 처첩 관계여서 부엌과 변소는 멀수록 좋으며,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막대기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않다는 말이 생겼다.

**내용** 제주도지역에서는 지금도 문전제를 지낸다. 이들 문전제는 의례마다 조금씩 다르다. 즉 새해를 맞이해 정월에 지내는 문전제(문전철갈이, 벨롱젱이 : 문전고사, 올레코시), 마을제(포제)를 지낼 때 지내는 문전제(문전고사), 결혼식날 새벽에 신랑과 신부집에서 지내는 잔치문전제, 제사 때 지내는 문전제, 집안에 따라 가족들에게 중요한 일(시험, 입대 등)이 있을 때 지내는 문전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지내는 문전제 등이 있다. 이들 의례는 집안의 수호신인 문전신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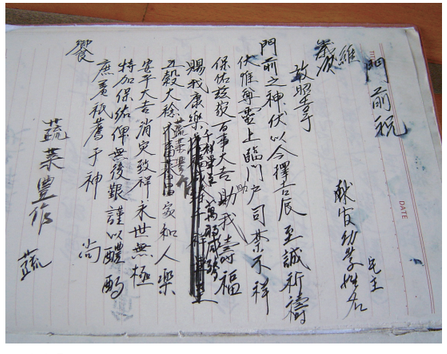
것이다. 제사 때 지내는 문전제는 요즘은 생략하기도 한다.

문전제는 정기적·비정기적 의례로 행해진다. 기제사나 명절에는 문전제를 지내고나서 조상신에게 제를 지낸다. 불교신자는 스님을 모셔서 불공을 드린다. 무속식으로는 무당을 청해 경을 읽으면서 굿을 하기도 한다.

문전제를 유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전철갈이** 제주 사람들은 "문전 모른 공사(公私)가 없다."라고 하면서 집안의 어른이라고 믿는 문전신(門前神)을 위한 제의를 지낸다. 일 년 동안 집안에 변고 없이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상신에게 기원한다는 의미로 매년 정월에 문전제를 지낸다. 정월과 3월은 상달이라고 여겨서 정월에 문전제를 지내지 못한 가정에서는 3월에 지낸다. 2월은 영등달이라고 하여 의례를 행하지 않는다. 2월에 문전제를 지내야 하는 집안은 제물을 준비할 때 '영등할망' 몫으로 '영등메'를 마련한다.

문전제를 지내려면 먼저 조왕제를 지내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집안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문전제(문전철갈이)는 정월에 지낸다. 이때 지내지 못하면 음력 7월이나 8월에도 지낸다. 정월에 지내는 문전제는 '올레대위'라 한다. 이때에는 심방을 청해서 지낸다. 즉 토신제를 지내는 집에서는 문전제도 지낸다. 정초에 날을 보아 길일(吉日)을 택해 심방을 모셔놓고 철갈이 의례를 행한다. 제의 대상은 조상이다. 즉 가신(家神)들에게 비념하고 잡귀들을 대접하여 액막이를 한다. 문전철갈이는 집이나 집 근처 깨끗한 곳에 가서 지낸다. 제물은 당제물과 같으며, 심방이 주관한다.



**문전제 축문**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06.8.7, 문순덕

**마을제** 마을제(포제)가 끝난 다음 산신, 칠성, 문전, 고사(코ᄉᆞ)를 한 번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정결한 곳에서 산신제를 먼저 드린 다음, 집에 와서 칠성·문전고사를 지낸다. 마을제를 지낸 뒤에 마을 사람들 각자가 1년 운수를 좋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전 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조왕제와 칠성제도 겸한다. 심방을 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 일원이 대신하기도 한다.

제일(祭日)은 1월과 3월 사이에 15세 이상인 가족과 남편, 부인의 생기에 맞게 택일하여 수탉의 머리를 잘라 문 앞(올레)에 던지며 액막이를 한다. 제물은 수탉 한 마리이다. 심방은 수탉을 들고 외양간(쉐막), 광(고팡), 부엌, 문 앞 길(올레) 등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는다. 수탉을 죽인 뒤 문 앞길에 닭의 피를 뿌리고 나서 닭의 머리는 묻는다. 닭의 내장을 전부 꺼낸 뒤 간은 개가 파먹지 못하도록 묻은 다음 큰 돌로 덮는다. 몸통은 던져 버린다. 심방은 그 집의 신위마다 접시에 참기름을 넣고 불을 밝힌다. 옛날에는 동백기름이나 참기름을 특별한 정성을 쏟을 때 사용하였다.

**조상제사** 문전은 집의 입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로 마루에서 현관 쪽으로 제상을 차린다. 제물로는 메, 갱, 실과(유자, 사과, 배, 대추, 비자 등 다섯 가지), 생선, 채소, 제주, 떡 등을 올린다. 메와 갱은 문전과 조왕에게 한 그릇씩 올린다. 문전과 조왕의 제상은 따로 준비한다. 제물은 같다. 제주(祭酒)는 집안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감주를 올리다가 요즘은 소주나 주스도 올린다. 생선은 주로 조기나 옥돔을 구워서 올린다. 채소도 문전과 조왕에게 하나씩 올린다. 이때 고사리만 한 접시에 올리거나 다른 채소와 섞어서 올린다.

문전제는 제방에서 제사를 지내기 바로 전에 지낸다. 제상을 차릴 때 문전상은 별도로 준비해서 제방에 놔둔다. 제를 지낼 시간이 되면 제관은 문전상을 들고 제방에서 마루로 나온다. 현관 앞에서 제를 지내며, 걸명(제물을 골고루 뜯어 놓은 것)은 조왕신에게 올린다. 문전제가 끝나면 바로 제사를 지낸다.





**문전상** 제주도 제주시 연동, 2011.5.12, 문순덕





문전제를 지내는 시간은 주로 조용한 밤중으로, 자시(23시~1시)인 황도시를 택한다. 제를 지낸 뒤에는 걸명을 한다. 그런데 제사 때 걸명을 하지 않으면서 문전제를 지낼 때도 걸명을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 처음에는 걸명을 하지 않는 대신 제상에 있는 모든 제물그릇을 조금씩 움직여서 조상신에게 드리는 시늉을 하였다. 최근에는 수저만 올려놓았다가 내려놓고 절을 하면 끝난다. 문전제가 끝나면 숭늉에 걸명을 만들어서 조왕에게 올린다. 이 걸명은 지붕 위에 뿌리거나 올레에 뿌린다. 문전제 음식은 가족들이 음복한다.

이 의례는 망인이 기일에 데려온 벗이나 쫓아오는 잡귀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지내는 것이다.

**잔치** 육례나 사례에는 '친영'이 있다. 조선시대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앞서 사당에 가서 예를 드린 것이 제주도지역에서는 문전제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지금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치르면서 음식점에서 피로연을 할 경우에도 집에서 문전제를 지낸다. 주로 결혼식날 새벽에 조상차례를 지내고 나서 문전제를 지낸 뒤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다. 즉 잔칫날 새벽에 잔치멩질(조상멩질)을 하고 문전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향, 쌀, 물, 돼지머리, 술과 잔치음식으로 준비한 것을 전부 올린다. 문전제는 조상에게 신고하는 의례에 해당한다. 신랑은 도복(큰옷)을 입고 제를 지낸 다음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날 큰옷(명주로 만듦)을 입지 못하면 죽어서도 입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입는 풍속이 있다. 큰옷은 흰색으로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가 죽으면 호상옷(수의)으로 사용한다.

잔치멩질(잔치명절)은 집안 식구들만 모여서 조상들에게 집안 자손이 결혼식을 한다고 알리는 의례이다. 잔치멩질을 지낸 뒤 신랑이 집을 떠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문전제를 지낸다. 신랑 집에서는 결혼식날 아침에 신랑이 제관이 되어서 도복을 입고 절을 세 번 하면서 문전제를 지내고 음복한 뒤 신부 집으로 출발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마루에 문전상을 차려서 잔치음식을 제물로 올린 뒤에 홍세함을 받아서 놓는다. 예장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고 문전상도 치운다. 그런 다음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처럼 문전제를 지내지 않고 홍세함을 문전상에 놓는다.

신부 집에서는 예장을 받으려면 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전제로 대체하기도 한다. 즉 신랑이 들어올 때 홍세함을 올려놓는 상으로 대신하고 예장상을 준비한다. 이 의례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신부 집 문전상에는 음식, 향, 술잔을 올리고 예장을 받는다. 예장을 읽어 보고 합격하면 문전상을 치우고 신랑을 청한다.

잔칫날 문전제 제의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

다. 그러나 주로 결혼식날 0시가 지난 시간에 조상께 먼저 차례를 지낸다. 명절 때 제상을 차리듯이 그 수만큼 메를 올리고 잔치음식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이때 신랑신부 부친이 제관이 된다. 혼례 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액막이가 아니다. 조상신을 먼저 청해 대접하고 자손의 경사를 알린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걸명을 하지 않는다.

**입주** 입주할 때 택일 하면 먼저 문전제를 지낸다. 이는 "이 집에 제가 들어 왔습니다. 문전지신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를 지낸다. 문전상에 세 번 절하고 잔을 올리고 또 세 번 절하고 잡식을 만든 뒤에 세 번 절하면 마친다. 입주 문전제를 지낼 때 걸명을 만들어서 조왕에 갖다 놓으면 조왕제가 된다.

이사할 때 솥과 요강에 쌀을 넣어서 간 다음 이 쌀로 밥을 지어서 맨 먼저 문전에게 올렸다. 입주하는 시간이 정해지면 그때 솥을 먼저 가져와서 밥을 하여 문전제를 지낸다. 그 밥은 가족끼리 나누어 먹어야 이사한 것이 된다.

**출타, 시험, 입대 등**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자녀가 입학시험을 볼 때, 아들이 입대할 때, 중요한 일로 가족이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간단히 문전제를 지낸다. 정성을 들이는 집안에서는 도외(제주도 밖)로 나가기만 해도 문전제를 지낸다.

문전상에는 메, 국, 과일, 술, 떡 등 제물을 간단하게 올리고 당사자가 제관이 되어 세 번 절을 하고 나서 음복한다. 이때 소지를 태운 다음 재를 물에 타서 올레에 뿌리기도 한다.

문전제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것은 조상께 무사히 잘 다녀오겠다는 신고이기도 하고, 조상들이 잘 보살펴 달라는 기원이기도 하다. 문전제는 당사자가 제관이 되고 음복하며, 조상신에게 보살펴 주고 좋은 결과를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지낸다. 지금도 이 의례는 가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의의** 문전제는 가정신앙 의례에 속하며, 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정월에 집안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비념의식이다. 또한 집안의 통과의례에 따라 해당 의례 진행에 앞서 문전제를 지내면서 가신에게 신고하는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지역에서는 제사, 명절, 잔치, 입주, 출타 등 새로운 의례로 전이될 때마다 가신을 위한 문전제를 지냄으로써 집안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제사 때 행해지던 문전제는 요즘은 가정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섬사람들의 음식연구**(문순덕, 학고방, 2010), **제주도 세시풍속**(문무병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신화**(현용준, 서문문고, 1976),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문순덕(文舜德)**

## 문전철갈이

상호참조 밧칠성(192쪽)

**정의** 제주도지역의 각 가정에서 음력 정월 초순에 집안의 가신(家神)에게 한 해의 액운을 막고 복을 비는 의례.

**내용** 제주도에서 지역에 따라 '벨롱갱이'라고도 하는 문전철갈이는 '문전'과 '철갈이'가 결합된 단어이다. 문전은 가신이며, 집이란 공간성을 의미한다. 철갈이는 계절의 바뀌는 시간성을 말한다. 즉 문전철갈이는 집이란 공간에서 집을 지켜 주는 가신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을 구하는 가정의례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다만 집안 수호신과 관련된 〈문전본풀이〉, 재물과 관련된 〈칠성본풀이〉와 관계가 있다.

음력 정월 초순에 길일을 택한 뒤 심방을 청하여 들인다. 심방은 큰굿 때의 탁상 차림과 같이 차린다. 탁상 밑에 농신(農神)인 세경상, 왼쪽에 문신(門神)의 문전상, 탁상 앞에 무조신(巫祖神)의 공싯상을 차린다. 부엌에 조왕상, 고팡(庫房)에 안칠성상, 뒷문 곁에 밧칠성상을 차린다. 액막이는 맨 나중에 한다. 이때도 액막이상을 차린다.

심방은 평복 차림에 멩두와 장구만 쓰고 제를 집행한다. 조왕제를 할 때에는 솥에 메밥을 지은 뒤 뚜껑을 열어서 '무남제'라고 하여 향 가지를 메밥에 꽂은 뒤 그 앞에 앉아 축원을 한다. 이어서 제상의 신들에게 그해의 행운을 빈다. 액막이는 나중에 한다. 액막이를 할 때에는 〈사만이본풀이〉를 노래하고 그 내용을 근거 삼아 액을 막는다. 이 때 붉은 수탉의 모가지를 비틀어 던져서 사람 목숨을 대신하여 액을 막는다.

철갈이에서는 밧칠성에게 축원 하면서 칠성눌을 새로 덮는 것이 특색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밧칠성의 칠성눌에 부(富)를 상징하는 칠성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칠성신은 뱀신이기도 하다. 칠성눌은 밑에 기왓장을 깔고 그 위에 오곡 씨를 놓아 다시 기왓장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빗물이 들지 않도록 주저리를 덮은 것이다. 이 오곡 씨를 새로 갈고 주저리를 새것으로 갈아 덮는 것을 '벨롱갱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강권용(康權用)**

## 물대

상호참조 영등고사(477쪽)

**정의** 음력 이월에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바가지를 받칠 수 있도록 대나무의 한쪽 끝을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기구.

**형태** 물대는 직경 3~4㎝, 길이 1.2~1.5m의 대나무로 만든다. 한쪽 끝은 바가지를 올릴 수 있게 깔때기 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를 여덟 가닥으로 쪼개어 둥글게 모양을 잡은 뒤 미리 만들어 놓은 고리 모양의 나뭇가지를 대나무에 고정시킨다. 이때 주로 칡덩굴로 단단하게 묶는다. 대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부녀자가 만든다. 해마다 만들지는 않고 지난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한다. 낡아 못쓰게 되면 새로 제작한다. 최근에는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집이 점점 사라지면서 물대도 사라져 가고 있으며, 새로 만드는 사람도 거의 없다.



물대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993.2.6 배도식



물대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리, 2006.1.25, 박용식

**내용** 정월 그믐이 되면 이월 영등할머니를 모실 준비를 한다. 정월 그믐날 저녁에 할머니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정을 막기 위해 산에서 고운 황토를 구해 대문 양쪽에 놓고 물대를 준비한다. 할머니를 모시는 바가지를 부뚜막에 놓지 않고 물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이다.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대나무 한쪽 끝에 그릇이 안전하게 놓이도록 짚으로 똬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물그릇을 올린다.

물대에는 오색 비단이나 작은 한복을 걸어 놓기도 한다. 오색 비단을 걸어 놓으면 눈병이 낫는다고 하며, 옷을 걸어 두면 아이들 재주가 좋아진다고 한다. 물대는 부엌 바닥에 짚을 깔아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그 위에 세워 둔다.

물대의 물은 새벽마다 갈아 놓는다. 자주 갈면 좋다고 하여 자주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물대는 영등할머

니를 모시는 이월 열아흐렛날까지 세워 둔다. 이월 스무날에 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초아흐렛날과 열나흗날 저녁에는 물대 아래에 상을 차린다. 초아흐렛날에는 바람을 데리고 올라가고 열나흗날에는 비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에는 떡, 팥밥, 고기, 나물 등을 놓고 치성을 드린다. 소지를 태우는 것으로 제사를 마친다. 이때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도 잘 지내기를 빈다. 소지를 태우고 나면 물대에 감아 둔 옷과 오색 비단도 함께 태운다. 물대는 이듬해에 쓰기 위해 보관한다.

**참고문헌** **현지조사자료**(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 2006년 1월 25일).

**필자** 박용식(朴容植)

## 미륵바위

상호참조 기자(83쪽), 바위치성(190쪽)

**정의** 자연석 또는 남근 모양의 바위를 인공으로 만들어 자식 낳기를 기원하며 섬기는 기자석(祈子石) 성격의 바위.

**내용** 미륵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미륵님, 미륵불, 선돌 등으로도 불린다. 또한 그 형태를 본떠서 남근석, 성기바위, 좆바위, 자지바위 등 남성기를 가리키는 명칭이 붙기도 한다. 이 밖에 삐죽바위, 장군바위, 칠성바위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린다.

미륵은 성기숭배 의식을 반영한 신앙의 한 형태이자 남성기 모양을 한 바위가 그 형태상의 유사성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유감주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을제사(동제)의 대상이 될 때에는 바위에 금줄을 매고 고깔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미륵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기자석의 기능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남성기 모양의 미륵바위에 기원하여 자식 낳기를 바라는 대상이 된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남아선호사상이 깊이 자리 잡으면서 특히 남아의 출산을 기원하는 성격으로 섬겨지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성격을 지닌다. 성기 모양의 바위가 지닌 생산성이 곧 마을의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어지며, 더 나아가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는 마을신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 것이다.

**지역사례** 미륵에 대한 신앙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보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도의 가평이나 김포, 경남 거제·남해·창녕, 전남 순천·영광·진도·함평, 전북 김제·순창, 충남 예산·천안·홍성 등지에서는 미륵 또는 미륵바위 등의 명칭으로 신앙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서문당하르방이나 경북 안동의 자지방구, 대구의 건들바위, 대전의 삐죽바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명칭을 달리한 채 동일한 성격의 신앙이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식을 기원하는 개인적 의례시에는 특별한 제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월 초나 정월대보름이 제일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참고문헌** **한국민간신앙으로 본 성기신앙–한국의 민속과 성**(장장식, 비교민속학회, 1997),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성숭배 문화**(이종철, 민속원, 2003),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국립광주박물관, 1984).

**필자** 권태효(權泰孝)

## 미륵불(彌勒佛)

상호참조 기자(83쪽)

**정의** 미륵의 영험을 믿고 기원하는 미륵제의 신체로 위하는 제의 대상물.

**내용** 마을공동제의나 무속에서 무당들이 신단에 모신 미륵불 외에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신앙되는 미륵불은 가정신앙의 의례 대상으로 구분된다. 가정에서 위하는 미륵불의 형태는 돌, 바위, 금속, 목재 등으로 미륵불을 조각한 불상이거나 미륵불의 형태를 한 자연석, 바위 등의 사례가 있다. 제의는 봄, 가을에 행하는 가정고사 때 함께 위하기도 하고 불교의식과 유사하게 정월초하루, 대보름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 위하게 된 이유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조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마을공동의 미륵제가 있는 경우 이 마을 공동제를 먼저 지낸 뒤에 개인치성을 올린다. 이러한 양상은 마을신앙, 가정신앙, 개인신앙이 상호 분리되지 않은 심성임을 알게 한다.

**지역사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구암마을에는 미륵이 하나 있다. 이 미륵이 비를 맞아 훼손되자 1970년대에 미륵당을 조그맣게 지었다. 한때 미륵제를 그만두었으나 마을에 우환이 생겨서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제의는 정월 열나흗날 밤 8, 9시경에 지낸다. 미륵제를 지내기 위해서 낮에는 미륵당을 청소하고 초, 청수, 백무리떡(백설기)을 준비한다. 저녁이 되면 제물을 진설하고 미륵제를 지내며, 제의가 끝나면 집집마다 소지를 올리고는 마친다. 이후 밤 11시경이 되면 개인 치성을 드리러 간다. 이는 동네에서 미륵을 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가를 못 간 아들이 있으면 결혼을 시켜달라고 빌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륵에게 임신 치성을 드린다. 이때는 청수와 백무리떡만 가지고 가서 치성을 드린다. 마을 주민들은 '미륵님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믿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아랫대리에서도 미륵바위 치성의례가 있다.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가면 미륵바위에 가서 치성을 드리라고 하였다. 무당이 방법을 일러주면 그대로 주부가 행한다. 제물은 시루떡, 무나물 세 접시, 술 한 병을 올린다. 집에서 치성에 올릴 술을 만들 때에는 사람의 입에 대지 않은 것을 미리 떠서두었다. 미륵바위에서는 외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나 무당들이 와서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미륵바위가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험하다고 느낀 탓인지 어떤 사람들은 미륵바위를 자기 집에 가져다가 두기도 했다. 그 뒤 집주인이 별안간 화를 입어서 주민들이 미륵바위를 되찾아 제자리에 둔 적도 있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2리 약산마을 뒤쪽 산에는 돌미륵을 모신 당(미륵당)이 있으며, 그곳에 모신 미륵을 위하는 가정이 있다. 주민들은 돌미륵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한다. 당초 마을에 살던 만신이 3대

미륵불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2009.5, 박종익





돌미륵
충남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2009.6, 박종익

은 도둑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자 만신이 무쟁이(일반인)에게 대를 잡게 하여 미륵을 찾은 적이 있다. 대가 흔들리면서 버스를 타고 강화도 전등사 인근까지 가서 훔친 사람을 찾아 미륵을 되찾아오기도 하였다. 약산마을에서는 미륵에 대하여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현재는 4집에서 꾸준히 미륵에 대한 치성을 드리고 있다.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마을에는 예부터 영험성이 깃들어 있는 돌미륵이 있었다. 미륵이라고 불리는 큰 돌 위에 둥그런 작은 돌을 올려놓은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이곳에 기자치성을 드리고 미륵의 머리를 들었다 놓으면 아기를 갖는다는 말이 전한다. 이러한 돌미륵의 영험함으로 인해 마을에서는 매년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지금은 마을에 사람이 적어서 이장 혼자 당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지욱(金志昱)**

째(유씨 할머니-강씨 할머니-서씨 할머니) 미륵을 모시며 당을 지켰다. 서씨 할머니가 세상을 뜬 뒤에는 그의 신딸이 당을 위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자, 치병 등을 위하여 치성을 드리면서 가족이 편안하고 잘되게 해주기를 기원하며 정월 초사흗날과 백중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린다. 미륵을 모신 집은 당초 한 칸짜리 오두막이었으나 1998년에 새로 두 칸짜리 집을 지어서 미륵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새로 집을 지은 것은 마을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미륵님께 빌어 병이 완쾌되자 희사한 것이라고 한다. 미륵당 안에는 돌미륵뿐만 아니라 무신도에 그려진 여러 신령을 모시고 있다. 또한 그동안 당을 지키던 만신 세 사람도 '대신할머니'로 모셔지고 있다. 돌미륵은 높이 약 50㎝ 크기이다. 예전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의 돌이었으나 점차 자라나 지금의 크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 미륵의 가운데에 띠가 있다. 주민들은 이것이 관대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덕분인지 약산마을과 인근에서 관으로 진출한 인물이 많이 났다고 해석하였다.

미륵의 영험함이 인근 지역에도 소문이 나서 한번

## 미역

정의 가정신앙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거나 삼신고사를 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제물. 감곽(甘藿) 또는 해채(海菜)라고도 한다.

역사 미역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해안가를 중심으로 섭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 전래 이후 살생금지 사상과 함께 육류 섭취 금지와 맞물려 미역의 수요는 증가되었다. 육류가 배제된 식품을 소선(素膳)이라고 한다. 소선은 해초, 곡류, 채소가 중심 재료가 되어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 불교 정진(精進) 음식의 하나이다.

백제 무령왕(501~523 재위) 때 교류가 빈번한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 나라 무제는 재위 10년(511)에 술과 육류를 금하는 법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517년 국가의 모든 제사에 동물을 죽여 바치는 것 또한 못하게 하였다. 이때 우란분재를 백과(百果)와 채소를 재료로 하여 거행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침류왕(384~385 재위) 이후 왕실의 비호 아래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해 있던 백제 왕실에서 양나라의 문물을 모범으로 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초를 포함한 채소와 백과를 사용한 우란분재를 받아들여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실한 기록은 없다. 백제가 살생을 금지한 시기는 599년(법왕 원년)이다.

예치주의(禮治主義)를 표방하여 유교를 국교로 채택한 조선왕조에서도 여전히 고려왕조의 불교음식 문화가 남아있었다. 선혜청(宣惠廳, 대동미와 대동목 등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 선조 41년에 처음으로 두었다가 고종 31년에 폐지되었음)에서 소선을 맡아보는 관아인 의영고(義盈庫, 기름 · 꿀 · 황랍 · 후추 등의 소물(素物)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고종 19년에 폐지됨. 고려시대에도 기름 · 꿀 · 과일 등을 맡아보던 관아였음)에 지급하는 공물(貢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쌀 | 상곽(常藿) |
| 황밀 | 조곽(早藿) |
| 작설차 | 분곽(粉藿) |
| 석이버섯 | 감태(甘苔) |
| 참기름 | 황각(黃角) |
| 들기름 | 김 |

총 12종에서 6종이 해채류이다. 이 가운데 3종이 미역이다. 고려왕조에 이어 조선왕조에 걸쳐서 근 1000년 동안 소물을 담당한 의영고에서 취급하던 식자재를 통하여 미역 섭취의 면면한 역사를 가늠케 한다.

품질이 보통 미역인 상곽, 일찍이 따서 말린 미역인 조곽, 품질이 좋은 미역인 분곽은 산모의 식이요법을 위한 식재료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에서 중궁전의 유모상궁[阿只尙宮]에게 보낸 식재료는 중미(中米, 쌀) · 포태(泡太, 두부 만드는 콩) · 황대두 · 깨 · 대구 · 준치 · 조기 · 비웃 · 건숭어 · 새우젓 · 밴댕이젓 · 소금 · 간장 · 감장 · 참기름 · 식초 · 상곽 · 분곽 · 조곽 · 황각 · 김 · 다시마였다. 왕세자나 왕자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먹는 식자재에 미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궁궐에서도 아이 양육에 미역은 빠질 수 없는 식자재였음을 나타내 준다.

미역이 왕실에서조차 산모의 식이재료로 고대 때부터 채택된 이유는 번열(煩熱, 몸에 열이 몹시 나고 가슴속이 답답하며 괴로운 증세)을 내리고 결기(結氣, 뭉친 것)를 다스리며 수도(水道, 소변 배설)에 좋다고 하는 미역에 대한 양생관(養生觀)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 미역이 젖이 뭉쳐지지 않게 하면서 소변 배설을 도움으로써 산모의 젖은 잘 나오고 붓기는 빠지는 식품이 된다. 미역은 분명히 산모에게 좋은 식품이다.

일반 민중의 가정신앙에서는 미역국으로 만들어 삼신께 올리는 것이 현재에도 행하여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집안에 임신부가 있으면 달이 차오면 쌀, 미역, 기저귀를 장만하여 놓고 기다렸다가 출산과 어린아이 씻기기가 끝나면 곧바로 흰밥과 미역국을 낸다. 먼저 방의 서남쪽 구석을 정갈하게 하고 상위에 흰밥과 미역국을 세 그릇씩 차려 삼신(三神, 탄생의 신)께 제사를 드린다.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 21일째 되는 날, 100일째 되는 날에도 이와 같이 삼신께 제사를 드렸다.

태가 '삼'이 되기 때문에 태신(胎神)을 '삼신'이라 하기도 하고 산신(産神), 제석신(帝釋神), 용신(龍神)이라고도 한다. 환인(桓因), 환웅(桓雄), 왕검(王儉)을 삼신이라고도 한다. 사람의 생명을 장악하는 신이어서 호신(護神)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삼신관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습합된 양상이 민심으로 표출된 것이다. 조선총독부 시절 경성과 오산의 열두 거리 무속제의에서 등장하는 제석거리의 청배(請拜) 사설을 보면 습합 현상이 잘 드러난다.

삼신제석(三神帝釋)님 본을 풀면
삼신산(三神山)과 새미산[須彌山, 수미산]이 본이로소이다.
삼신산(三神山) 불사약(不死藥)을 여기저기 다더젓든이
.....
제석님의 아버지는 해수뜰 해수선배(海水先輩, 선비는 유생(儒生))
제석님의 어머니는 용궁뜰 용녀부인(龍女夫人)

삼신신앙이 지닌 불교, 도교, 유교와의 습합 현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제석이 살고 있으면서 불사약이 존재하는 산은 역시 불사약이 있는 삼신산과 동격이다. 이는 불로장수를 최상의 목표로 한 도교의 양생관과도 통한다. 삼신이자 제석의 아버지는 해수의 유학자이고 어머니는 용녀부인으로 삼신은 용신 및 공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설정된 신이다.

따라서 신성한 삼신산에 거주하는 삼신께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신성하면서도 영험한 행위이다. 공물은 제석 및 용왕과도 통하는 깨끗한 소선(素膳)이어야 한다. 이들 소선 재료는 앞에서 언급한 쌀, 황밀, 작설차, 석이버섯, 참기름, 들기름, 상곽, 조곽, 분곽, 감태, 황각, 김 등임은 물론이다.

**지역사례** 1924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발간된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미역을 중심으로 한 제물이 삼신제에서 어떻게 차려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경북 김천지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삼신제를 지낸다. 산기가 있으면 곧 산모의 어머니가 주제(主祭)가 되어 백반과 미역국을 차린 밥상을 산실(産室) 벽으로 향하여 차리고 무사히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출산하고 나면 산부(産婦)에게 이 제사 음식을 음복하게 한다. 출산 7일째 되는 날에 아이를 해산할 때 입은 옷 하나를 흰 종이에 싸서 이것을 신체로 삼아 산실 선반 위에 모셔놓고 매일 백반을 올린다. 21일째 되는 날에는 산모의 어머니와 산모가 제주(祭主)가 되어 백반, 미역국, 과일을 차려서 제사한다.

경남 마산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일곱 번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다. 문에 새끼줄을 늘어뜨린다. 산실에 칼, 실, 볏짚묶음을 놓고 이것에 백반, 미역국, 차(茶) 등을 차려 제사한다.

충남 천안지역에서는 작은 항아리에 쌀을 담아 그 위에 흰 베를 씌워 삼신항아리라고 한다. 이것을 안방 모퉁이 선반 위에 모신다. 삼신항아리는 아이를 키우는 신이다. 임신을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할 때 등에 이 신에게 백반, 미역국, 떡을 차려 올림으로써 산모 및 아이의 안전과 태어난 아이가 재난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한다.

강원도 울진지역(현재 경북 울진)에서 각 가정의 주부는 대바구니 안에 쌀, 실, 종이 등 3종을 넣고 이것을 산신(産神)이라고 하면서 모신다. 자식을 출산할 때마다 이 3종은 계속 첨가해 넣는다. 출산의 무사함과 아이의 장수를 기도한다.

1924년 전후 삼신제와 그 제물을 살펴본 결과 육류를 전혀 넣지 않고 간장과 소금으로만 맛을 낸 미역국과 백반은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인 제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행하여진 삼신제의 뿌리는 조선시대 여인의 사속관념(嗣續觀念)이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교의 종법숭중(宗法崇重) 제도는 대를 잇고자 하는 사속관념을 낳았다. 딸보다 아들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여자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七去)의 악(惡)으로 여겼다.

결혼한 여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고, 또 태어난 아이는 대를 잇기 위하여 무사히 성장하여 무병장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명산에 기도하거나 부처님께 공양드리거나 삼신께 소원을 비는 행위로 연결되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로 삼신제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전국적으로 그 모습이 남아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발간한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각지의 잔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신할머니는 아기의 점지와 출산, 아이의 무병장수에 관여하는 신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째, 14일째, 21일째, 백일, 돌이 되는 날, 미역국 세 그릇과 백반 세 공기를 차려 아기 머리맡에 놓아 삼신께 올린다. 지역에 따라서는 백반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을 놓기도 한다. 삼신상에 차린 백반과 미역국은 아기의 수명장수와 산모의 건강회복을 기원한 후 산모가 먹는다.

인천시 강화지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젖이 잘 나오고 아기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백반과 미역국을 차려서 아기 머리맡에 놓고 아기를 낳은 자리에서 삼신할머니께 빈다. 아기를 낳을 때 난산하면 아기를 받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삼신께 기도한다.

충북 단양지역에서는 집안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 후 3일 만에 백반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정화수 한 그릇을 상에 차려 삼신에게 빈 다음 산모에게 먹인다.

보은지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 7일까지 짚을 깔고 백반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정화수 한 그릇을 차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안방의 아랫목 또는 윗목에 모신 삼신할머니께 빈다. 이것을 산모가 먹는다. 아기가 열 살이 될 때까지 생일날에 백반과 미역국을 차려 빈다.

충남 공주지역에서는 삼신이 계시는 윗목에 백반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정화수 한 그릇을 짚을 깔고 차려 출산 후 7일째 되는 날에 빈다. 아이의 백일과 돌 때에는 백반, 미역국, 정화수 이외에도 수수팥떡과 백설기를 추가로 차려 올린다. 아이가 아플 때도 삼신께 치성을 드린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일주일 동안 미역국을 먹인다. 그 기간 동안 아이 아버지가 개고기를 먹는 등의 부정이 타면 아이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울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을 풀어내기 위하여 삼신께 미역국과 백반을 올리며 잘못을 빈다. 삼신께 올리는 미역국에는 멸치도 넣지 않고 최대한 비리지 않게 끓인다. 제사에 올린 미역국과 백반은 산모가 먼저 먹는다. 백일과 돌 때 올렸던 수수팥떡과 백설기는 아이에게 먼저 먹인다. 산모가 먹는 미역은 출산 전에 미리 구입해 두는데, 이것을 산각이라 부른다. 산각을 구입할 때는 접거나 자르지 않고 장에서 파는 긴 미역 그대로 가져와 다락에 잘 보관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용왕삼신이라 하여 대를 잡고 물의 용왕에게 가서 삼신을 받는다.

경북 고령지역에서 아기를 낳으면 손 없는 방향에 쌀, 미역, 물을 놓고 삼신반을 차린다. 7일째 되는 날 걷어다 백반과 미역국을 만든다. 만든 백반과 미역국은 먼저 삼신 앞에 놓고 '젖 많고 아기 잘 크게 해 달라'고 빈 다음 산모가 먹는다. 아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14일째, 21일째에도 하고 딸일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만 해주기도 한다.

경남 거창지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쌀, 미역, 타래실, 물을 삼신반에 차려 삼신께 빈다. 7일째 되는 날 삼신반에 놓았던 쌀과 미역으로 백반과 미역국을 만들어 산모가 먹는다. 14일째, 21일째 되는 날에도 이와 같이 한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는 혼인 후에도 태기가 없거나 아들 낳기를 바라는 부인은 깊은 산속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실이나 종이를 넣은 바가지에 삼신을 받아 안방에 모셔서 임신할 것을 기원한다. 산모가 난산을 하면 삼신 앞에 미역 한 올과 물을 가져다 놓고 빈다. 아기가 태어나면 7일째, 14일째, 21일째 되는 날, 백일, 돌에 삼신 앞에 백반 한 그릇 · 미역국 한 그릇 · 물 한 그릇을 차린 밥상을 놓고 삼신에게 빈다.

제주도에서는 아기가 태어난지 사흘째 되는 날 궤짝 위에, 바구니에 담은 백반 한 그릇, 미역채 한 그릇, 실, 돈, 쌀 한 사발을 놓고 할망상을 차린다. 산모의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도 차린다.

전북 고창지역에서는 삼신을 지앙이라고 부른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면 아이 낳는 방 윗목에 배석(拜席)을 깔고 그 위에 지푸라기, 쌀, 미역, 정화수를 차리고 그 앞에서 산모의 순산을 빈다. 출산하면 상에 올린 쌀과 미역으로 백반과 미역국을 끓여 지앙에게 올린 다음 산모가 이 음식을 음복한다. 7일째, 14일째, 21일째, 28일째, 35일째, 42일째, 49일째 되는 날에도 이와 같이 차려 모신다. 지푸라기는 갈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전남 강진지역에서는 전북지역과 마찬가지로 삼신을 지앙이라 한다. 산기(産氣)가 보이면 산실(産室) 윗목에 짚을 깔고 위에 미역 한 줄기를 걸쳐 놓은 쌀을 가득 담은 지앙동이와 정화수 한 그릇을 차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앙동이의 쌀과 미역으로 백반과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먹인다. 이렇게 7일째, 21일째, 28일째, 35일째, 42일째, 49일째 되는 날에도 그대로 한다.

이상 전국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삼신신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역국과 백반은 공통적인 공물로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석, 용왕, 환인, 환웅, 왕검과도 통한 삼신관은 점차 퇴색되었다. 다만 산신(産神)적 성격의 산신할머니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역국과 백반 세 그릇씩을 올리던 것이 모두 한 그릇씩으로 고정되고 있다.

도교의 양생관과 불교의 소선적 성격에서 출발한 불로장수 음식인 미역국은 생명을 관장하는 삼신에게 먼저 바친 다음 삼신이 먹고 남긴 것을 산모가 먹는다. 그러면 삼신이 복(福)을 내려 산모와 산모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불로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萬機要覽, 三國史記, 석전 · 기우 · 안택(井坂圭一良, 國書刊行会, 1924), 식생활(김상보, 백제의 생활과 문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 · 秋葉隆 ·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조선여속고(이능화, 翰南書林, 1927),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김상보(金尙寶)

# 밀떡

정의 유두날이나 칠월칠석날 밀로 만들어 올리는 떡.

내용 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게 지진 떡에 소를 넣어 반달모양으로 지진 것이다. 칠월칠석무렵에 밀의 수확을 끝내고 만들어 먹었다. 지역에 따라 밀떡, 밀전병, 밀부침개로 불리기도 한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칠월칠석에 칠성을 위한 고사 때 제물로 드리던 떡이다. 칠석고사에는 제석주머니를 헐어 쌀밥을 짓고 밀떡을 올린다. 이날 밀떡(밀가루부침개)을 둥글게 부쳐 세 장씩 접시에 담아 곳곳에 놓는다. 특히 위하는 나무에는 정월과 시월 고사 때 떡만 가져다 놓고 칠석에는 돼지머리를 제물로 마련하여 나무에만 고사를 지낸다. 주로 칠석에는 집에서 먼저 밥을 새로 짓고 밀떡을 부쳐 집안고사를 올리고 나서 절에 간다.

경북 구미지역에서는 유두에 먹는 밀가루에 술을 넣어 떡을 만든다. 밀떡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체에 친 밀가루에 술을 붓고 물로 반죽하여 발효시킨 뒤 솥에 쪄서 만든다. 시루떡처럼 넓적하고 둥글게 만든다. 반죽할 때 팥이나 콩을 섞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유두에 밀떡을 만들어 먹거나 용제, 유두제사에 제수로 사용하였다.

유월유두(流頭, 음력 6월 15일)는 일 년 가운데 가장 더운 절기이다. 이날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지만 곡식이 익어간다는 뿌듯함 때문에 정성으로 밀떡을 해놓고 빌었다. 밀떡은 숙성된 밀가루 반죽을 보자기에 깔고 강낭콩을 예쁘게 수놓아 쪄서 칼로 잘라 만든다. 부푼 모양이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워 차려놓고 보면 흐뭇했다. 달타령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오월에 뜨는 저 달은 단오 그네 뛰는 달/ 유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 밀떡 먹는 달"이라고 하여 유두날 해먹은 '밀떡(밀가루를 꿀물이나 설탕물에 반죽하여 익히지 않은 떡)'을 '유두밀떡'이라고도 하였다. 이때 찰떡이나 밀떡을 해 논이나 밭에 가서 한 덩이씩 놓고 농사가 잘되기를 빌기도 했다. 옛 어른들이 얼마나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잘 알게 해주는 풍습이다.

한편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새로 들어온 어린 궁녀들에게 밀떡을 물리고 "쥐 부리 글려" 하는 풍습이 있었다. 섣달그믐날 낮에는 귀신을 쫓는 나례(儺禮)와 처용놀이를 하고 밤에는 어딘가 숨어 있는 악귀들을 몰아내기 위해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해 들어온 어린 궁녀들에게 밀떡을 물린 다음 그 위에 수건을 접어 양쪽에 삼실로 끈을 달아 마스크처럼 귀에 걸게 하고 어둠이 내리면 대궐 뜰에 길게 한 줄로 세웠다. 그러면 수십 명의 젊은 내시들이 긴 바지랑대 끝에 횃불을 붙이고 궁녀들에게 다가와 입을 지지는 시늉을 하면서 "쥐 부리 글려. 쥐 부리 지져."라고 위협했다. 그러면 어린 궁녀들은 겁에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데 이것을 먼발치에서 왕비 이하 궁녀들이 구경했다고 한다. 새로 입궁한 어린 궁녀들에게 말조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이며 궁녀들 사이에 숨어들었을지도 모르는 잡귀를 몰아내고자 하는 주술적 행사였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구미시지**(구미문화원, 2000), **궁궐의 꽃 궁녀**(신명호, 2005, 시공사),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1987, 일지사),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6), **디지털구미문화대전**(gumi.grandculture.net).

**필자** **이인화(李仁和)**



바꾸보살
바위치성
밧칠성
방앗간신
방위가리기
밭고사
배고사
배서낭
배서낭함
배성주
백중고사

# ㅂ

벗고사
볏짚
병경
보름고사
복대
복물뜨기
복숭아나무
복제
부루단지
부적
북어
불막이
불밝히기
비손

**제의**
바위치성
밭고사
배고사
백중고사
벗고사
병경
보름고사
복물뜨기
복제
불막이
불밝히기

**신격**
바꾸보살
밧칠성
방앗간신
배서낭
배성주

**신체**
볏짚
부루단지

**제구**
배서낭함
복대
복숭아나무
부적

**제물**
북어

**용어**
방위가리기
비손

## 바꾸보살

**정의** 충청남도 황도 일대의 밀양 박씨(密陽 朴氏) 가족사에서 비극적 생애와 죽음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한 비구니(比丘尼)의 혼신(魂神). 후손들은 이승에서 떠도는 비운(悲運)의 혼신을 집안에 봉안하고 지극정성으로 위함으로써, 그녀를 조상으로 승격 · 유지시키는 한편 그녀의 원혼으로 인하여 야기될지 모르는 집안의 불행을 막아서 가내평안(家內平安)을 이루고자 한다.

**내용**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에 거주하는 일부의 밀양 박씨 집안에서는 특별한 조상신으로 '바꾸보살'을 위한다. 바꾸보살은 보살할머니 또는 쪽박할머니라고도 불린다. 바꾸보살의 생몰연대는 정확히 모른다. 그녀는 시집도 가지 않고 비구니가 되었으며 무슨 이유인지 천광사(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전해 온다. 바꾸보살이란 호칭도 당연히 천광사와 비구니에서 유래한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박씨 후손 중에 남자는 누구나 바꾸보살을 모셔야 한다. 안면도의 박씨들도 마찬가지이다. 딸들은 시집갈 때 바꾸보살을 모시고 가기도 한다. 신체(神體)는 대나무나 짚으로 짠 동고리에 여자 한복 한 벌, 쌀 한 되, 돈 약간을 넣은 것이다. 이 동고리는 치성을 드릴 때만 열어보고 평소에는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 함부로 접촉하면 탈이 난다. 바꾸보살을 모신 방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그 방을 쓰게 되면 바꾸보살을 봉안한 방향으로는 머리나 발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이 방에서는 누워서도 안 된다.

가을걷이를 하면 묵은 쌀을 덜어내고 햅쌀로 갈아 넣는다. 이때 동고리 안의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꺼내어 태우고 새 옷을 장만하여 넣어준다. 집안의 부녀자는 바꾸보살 신체 아래에 백지(白紙)를 깔고 정성껏 마련한 제물로 상을 차린다. 이 제물은 식구만 먹어야 한다. 동고리의 묵은 쌀로 지은 밥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밥풀 하나 남겨서도 안 된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별식(別食)을 했을 때에도 반드시 먼저 바꾸보살에게 올린다. 음력 정월과 팔월 추석 등 각종 명절에도 그녀에게 제물을 마련하여 정성껏 위한다.

**참고문헌** **도서지-중**(이필영 외,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이필영, 샤머니즘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필자** **이필영(李弼泳)**

## 바위치성

상호참조 미륵바위(180쪽)

**정의** 바위를 신격으로 삼아 주로 자식 등을 기원하는 의례.

**내용** 바위가 지닌 생생력(生生力)을 바탕으로 바위를 신격화 한다. 즉 바위는 견고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는 점에서 영구성과 항구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된다. 특히 바위는 단순한 고체가 아니라, 강인한 생산력을 지닌 존재로 믿어 왔다.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쌀바위 전설은 바위의 탁월한 생산력을 잘 보여 준다.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에서는 바위의 정령이 있다고 하여 암석을 신앙대상으로 삼는 풍속이 조선 전역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례로는 기자 목적을 위해 치성을 드리는 바위인 산아당, 남녀를 맺게 하는 영력을 지닌 상사암,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석불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조사된 내용을 보더라도 바위에 치성을 드리는 사례로 남근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을신앙의 수호신격으로 남근석이나 여근석이 자리 잡은 지역도 있다. 이들 바위는 크게 마을신앙의 신체인 경우와 개인치성의 신체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바위치성
전남 담양군 월산면
회룡마을
황헌만

먼저 남근석이 마을신앙의 신체로 자리 잡은 경우로 좋은 예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의 남근석이다. 이 돌은 원래 옛 도로 옆에 세워져 있다가 새 도로가 나면서 밭에 묻혔다고 한다. 그 후 마을에 줄초상이 나는 불상사가 생겨 이 돌을 다시 세우고 마을제사를 올렸다. 새마을운동 이후에 동제를 금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죽었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이 정월대보름날로 제삿날을 정해 동제를 지내 왔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 남근석은 마을 수호신적인 존재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 준다.

여근석을 신체로 삼은 마을도 있다. 바로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의 공알바위이다. 원래는 남서낭도 있었다. 새마을운동 때 파괴되고 이것만 남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공알바위란 명칭이 상스럽다고 하여 용왕바위, 또는 용암이라고 부른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정월 초이튿날 자정에 삼색실과와 포를 제물로 장만해서 동제를 지내고 있다.

특정 바위가 마을제의의 신체로 모셔지는 경우와 달리 개인치성의 신체는 주로 기자신앙(祈子信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병의 치료나 기복신앙의 믿음으로 모셔진다. 남근석 형상을 한 바위에 대한 치성은 전국적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남근석이 기자신앙의 신체로 모셔지는 이유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도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산력이 뛰어난 바위로 인식한 결과이다. 남근석에 대한 치성 방식은 고사(告祀)뿐만 아니라 남근석에 손을 대고 빙빙 돌거나 껴안는 등 다양한 모의 성행위이다. 현재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남근석은 눕혀져 있기 때문에 바위 위에 올라타고 마치 성행위를 연상하는 행위를 통해 임신하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남근석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불치병에 걸린 사람





**바위치성**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998, 코리아루트





바위치성
충남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들이 치성을 드리는 바위도 있다. 경기도 가평의 용추계곡에 있는 미륵바위이다. 이 바위는 전체가 남근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남근의 형상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바위는 관리하는 보살이 따로 있어 암 등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백일치성 등을 올리기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朝鮮の鬼神**(村山智順,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한국의 성신앙**(김종대, 인디북, 2004), **한국의 성숭배문화**(이종철, 민속원, 2003).

**필자** **김종대(金宗大)**

## 밧칠성

상호참조 문전철갈이(178쪽), 안칠성(440쪽)

**정의** 제주도 토산 출신 사람들이 위하는, 집안의 부를 지켜주는 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했던 제주도 사람들은 일만 팔천이나 되는 신들을 모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뱀을 신(神)으로 숭배하는 풍습을 지켜 왔다. 특히 1521년(중종 16) 김정(金淨)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몹시 숭배하여 심방이 많았다. 사람에게 재앙과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제물을 올리고 소리 지르고 조롱하면서 두렵게 위협한다. 명절이나 삭망(朔望), 이렛날에는 짐승을 희생으로 음사(淫祠)를 위하였는데, 300여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더욱이 "풍속에 몹시 뱀[蛇]을 꺼리고 이를 신이라 여겨 받들면서 위하는데, 뱀을 보면 주문을 외우고 술로 위하며 신성한 신으로 여겨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유래** 사신(蛇神)인 칠성의 내력담이 신화로 전해져 불리고 있다. 이를 〈칠성본풀이〉라고 한다. 〈칠성본풀이〉는 신화의 명칭인 동시에 칠성신에게 기원하는 제차(祭次)의 명칭이기도 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성의 아버지는 장나라 장설룡이고 어머니는 송나라 송설룡이다. 옛날옛적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이 천하거부여서 생활은 유복했으나 한 가지 걱정은 쉰 살이 가깝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부부는 동관음사(東觀音寺)에 가 석 달 열흘 백일 동안 자식 낳기를 빌었다. 불공을 마치는 날 스님은 보시가 백 근이 못 차 딸자식을 점지하신다고 일러 주었다. 과연 태기가 있어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 아기씨가 일곱 살이 되는 해였다. 아버지 장설룡은 천하공사, 어머니 송설룡은 지하공사 벼슬살이를 가게 되었다. 부모는 딸자식이 걱정이었다. 아들자식 같으면 데리고 가서 벼룻물이나 떠 놓도록 하지만 딸자식이 되어서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가기로 했다. 아기씨를 방 안에 놓고 사방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러고는 느진덕정하님을 불러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잘 키우고 있으면 벼슬살이 끝마치고 와서 종 문서를 돌려주겠다고 당부했다.

부부는 벼슬살이를 떠났다. 느진덕정하님은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아기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레째 되는 날 느진덕정하님이 구멍으로 밥을 주려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기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느진덕정하님은 그날부터 동서 순력 연사흘을 찾아 헤매었다. 그러나 아기씨 소문은 요만큼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상전에게 편지를 띄웠다. 사실 그때 아기씨는 부모님이 그리워 뒤를 쫓아가려고 구멍으로 살짝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길은 끝이 없고 지쳐서 아기씨는 죽을 지경이었다. 마침 스님 셋이 아기씨 곁을 지나게 되었다. 스님들은 아기씨가 자신들 법당에 와서 불공 드려 탄생한 아기씨임을 알고 아기씨를 돌돌 싸서 장나라로 내려왔다.

이럴 즈음 장설룡 대감 부부는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동서로 순력하며 아기씨를 찾아봐도 찾지 못하고 허허탄식을 하고 있었다. 이때 스님이 아기씨를 데리고 다니며 희롱하다가 문 밖의 노둣돌 밑에 숨겨놓고 장설룡 대감 부부를 찾아갔다. 장설룡 대감은 아기씨가 어디쯤 있는지 점부터 쳐 보라고 다가들었다. 이에 스님이 말했다.

"예, 아기씨는 부르면 들릴 듯 외치면 알 듯한 곳에 있을 듯합니다. 노둣돌 밑에나 보옵소서."

이 말에 화가 난 대감은 야단치며 중을 잡아들이려 하는데, 스님은 술법을 써서 천릿길을 뛰어가 버렸다. 노둣돌 밑을 헤쳐 보니 과연 아기씨가 있었다. 얼굴엔 기미가 거멓게 끼었고, 몸은 마치 뱀처럼 아롱다롱, 배를 보니 심상치 않게 불룩해져 있는 것이다. 임신 중임이 첫눈에 드러나는 것이다. 장설룡 대감 부부는 크게 화를 내며 며칠을 의논한 끝에 아기씨를 무쇠석함에 담아서 동해바다에 띄워버리기로 했다.

무쇠석함은 이리저리 떠돌다 함덕리 서무오름 밑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그나마 보던 중 제일 올라갈 만한 곳이었다. 무쇠석함은 서무오름 밑의 썩은 개로 올라갔다. 그때는 함덕리(咸德里)와 신흥리(新興里)를 합쳐 열네 가호에 일곱 잠수(潛嫂)가 살던 때였다. 어느 날 일곱 잠수는 테왁에 물망사리를 어깨에 메고, 바다에 들려고 하여 썩은 개에 왔다가 이 무쇠석함을 발견했다.

일곱 잠수는 서로 그것을 갖겠다고 다투었다. 이것을 본 함덕리의 송첨지 영감은 그리 싸우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나누어 가지고 무쇠석함이나 자신에게 주라고 했다. 그래서 송첨지 영감이 무쇠석함을 세 번을 메어치니 저절로 뚜껑이 열렸다. 그 안을 보니 허는 맬록, 눈은 팰롱, 몸뚱이가 아롱다롱한 뱀 여덟 마리가 누워 있었다. 임신한 아기씨가 뱀 일곱 마리를 낳고 뱀으로 환생한 것이다. 이것이 칠성이다.

이들은 재수 없다 하면서 이것을 이리저리 헤쳐 버렸다. 그날부터 일곱 잠수와 송첨지 영감은 몸이 아파 드러눕고 사경을 헤맸다. 하도 답답하고 괴로워 점을 치러 갔더니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신을 박대한 죄목이 되니 그 신을 청하여 굿을 하라.'는 점괘가 나왔다. 일곱 잠수와 송첨지 영감이 심방을 불러다 큰굿을 했더니 신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동서로 재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 일곱 잠수와 송첨지 영감은 서무오름 앞에 칠성당을 만들고 이 신을 계속

밧칠성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07.2, 김동섭



위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도 너도나도 모여들어 위하니 함덕마을이 삽시에 부촌이 되었다.

칠성들은 무쇠석함에 담겨 와 여기서 이만큼 얻어먹으니 좋았다. 그러나 이 함덕 마을도 한도가 있어 오래 있을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아무래도 제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칠성들은 함덕 마을을 떠나 성으로 향하였다. 성 안으로 들어와 산지(山地) 금산물 가에서 한숨 쉬고 있는데 이때 칠성골 송대장 부인이 아침 물을 길으러 왔다가 물 어귀에 누워 있는 뱀을 발견했다. 미심쩍게 생각하며 입구에 치마를 벗어 두고 물을 길으러 들어갔다. 물을 긷고 나와 보니 치맛자락에 뱀들이 들어가 누워 있었다.

"나에게 내려진 조상님이거든 어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송대장 부인은 뱀을 치맛자락에 싸서 고방에 갖다 모셨다. 그 뒤로 송대장 집은 부자가 되었다. 칠성이 제주성 안에 들어와 맨 처음에 송대장 집에 좌정했기 때문에 그 골목을 '칠성골'이라고 부른다.

하루는 이 칠성들이 동산에 가서 누워 있는데 어떤 관원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누추하고 더럽다며 침을 뱉었다. 그날부터 이 관원은 입 안이 헐어 터지고 온몸이 아파 꼭 죽게 되었다. 무녀를 불러 점을 쳐 보았더니 '외국에서 들어온 신을 보고 입으로 속절없는 소리를 한 죄목이니 굿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관원은 그날로 제물을 차리고 굿을 시작하여 칠성을 잘 위했다. 칠성들은 잘 얻어먹고 배가 불렀다. 그래서 그 동산을 '배부른 동산'으로 이름 짓게 되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다니며 얻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헤어지기로 했다. 큰딸은 추수할머니, 둘째 딸은 이방과 형방 차지, 셋째 딸은 옥지기, 넷째 딸은 과원할머니, 다섯째 딸은 창고지기, 여섯째 딸은 광청할머니로 각각 들어갔다. 그리고 일곱째 막내딸이 말했다.

"어머님, 저는 집 후원 귤나무 밑에 주저리 덮고 그 밑에 청기와 흑기와 속으로 부군칠성이 되어 들어가서 구시월이 되면 귤을 진상 받겠습니다. 어머님, 우리 일곱 자매를 낳아 기르려고 하니 가슴인들 답답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시원한 귤을 받아 올리거든 답답한 어머님 가슴이나 시원섭섭히 가라앉히십시오."

일곱째 딸은 집 뒤 억대 부군칠성으로 들어서 밧칠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곡식을 지키는 고팡의 안칠성으로 들어서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지켜 주는 신이 되었다.



울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07.2
김동섭

내용 큰굿 때 집안의 각처를 관장하고 수호하는 신에게 기원하는 제차(祭次)로 각도비념을 하게 된다. 이때 집안의 신들을 위한다. 신들 가운데 '밧칠성'은 집 뒤에 모셔진다. 집안의 부(富)를 수호하는 신도 위한다.

여드렛당은 그 제일이 매 8일(8일, 18일, 28일)인 데서 명명됐다. 이 당들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여드렛당'이 확대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토산당'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당은 사신을 모시는 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당신은 단골의 딸에서 딸로 나오며, 이 신을 숭앙하다가 중단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널리 이야기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 집안에 장가들기를 꺼린다. 모른 채 장가든 경우 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앓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셔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신앙인이 많아지면 공동 제당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여드렛당은 거의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 당신들은 본향당신이나 칠일당신처럼 계보를 설명하는 데가 없이 토산 팔일당신의 분파라고 이야기한다. 제의는 매달 8일에 소규모의 축원 무의를 하고, 6월 8일에 당굿으로 크게 하는 데가 많다.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주 영산 금성산에 일 년에 한 번 처녀를 제물로 받는 신이 있었다. 이 고을에 목사가 부임하면 해마다 파직이 되어 다들 목사로 가길 꺼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원하여 부임하였다. 부임 도중 금성산 앞을 지나려니 통인이 이 산엔 신령이 있으니 곧 하마하셔야 하며, 그대로 지나치면 말이 발을 전다고 하였다. 이에 목사는 그 신을 보기 위하여 무녀를 불러 굿을 치게 했다. 굿을 치니 웬 처녀가 나타났다. 목사가 참된 신령을 보이라고 야단을 치자 이번엔 한 아가리는 하늘에 붙고 한 아가리는 땅에 붙은 대망(이무기)이 나타났다. 목사는 여의주를 물지 않았으니 신이 아니라 하여 포수를 시켜 쏘아 죽이고 이를 불살랐다.

그러자 뱀은 바둑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로 날아갔다. 때마침 제주에서는 강씨형방, 한씨이방, 오씨형방 세 사람이 서울에 진상을 갔다가 이 바둑돌을 주웠다. 바둑돌을 줍자 진상도 수월히 잘되고 보답도 많이 받았다. 그들은 배를 타고 돌아올 때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여 바둑돌을 던져 버렸더니 갑자기 태풍이 일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다. 문점 후 서낭굿을 하니 순풍이 불었다. 그렇게 오다 보니 어느 샌가 바둑돌이 뱃장 밑에 와 있었다.

배가 제주도의 성산읍 온평리에 닿자 바둑돌은 여인으로 변하였다. 그는 곧 온평리 본향당신인 맹호부인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맹호부인은 모든 마을에 신이 있고 토산리가 하나 비었으니 거기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맹호부인의 사신 문씨영감의 안내를 받아 하토산리로 내려가 좌정했다. 하루는 계집종을 데리고 삼만오리소에 빨래를 하러 갔더니 마침 앞바다를 지나다 파선당하여 표착한 왜놈이 이 부인을 발견하고 쫓아오므로 도망가 묵은각단밭에 숨었다가 발각이 되어 윤간을 당하고 죽었다.

시체는 토산리 신산마루에 묻었는데 얼마 후 가시리 강당장집 외딸아기가 유월 방아를 찧다가 하품을 하며 광증(狂症)을 일으켜 죽게 됐다. 문점을 하니 토산당 신의 탓이라 하므로 큰굿을 차려 하니 병자가 "나를 위한 굿이면 궷문을 열어 명주를 풀어보라."라고 했다. 명주 속에 말라붙은 뱀이 있었다. 이 명주를 풀어 헤쳐 굿을 하니 따님이 파릇파릇 살아났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신을 위하게 되었고, 이 신이 주는 재해에는 명주로 다리를 삼아 굿을 한다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사일(巳日)을 '배염(뱀)날', 뱀을 달리 '진 것'이라고도 말한다. '배염이 꿈에 보이민 임신혼다.'는 말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뱀에 대한 관념이 좋지도 궂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속에서는 뱀날에는 '사불원행(巳不遠行)'이라 해서 '먼 길을 떠나지 않는 날'로 이해하고 있다. 또 '출행파일'이라고도 하여 '무엇을 하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라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뱀을 '칠성배염'이라고 해 귀신으로 위하고, 때려잡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신령으로 여긴다. 기후가 온화한 제주도지역의 풍토에서 뱀이 많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칠성배염'이니 '칠성한집'이라 하여 모시는가 하면 '칠성눌'이니 '뒷할망'이라고 하여 뱀신으로 위하기도 한다. 혹시라도 뱀에게 위협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집 안 아이가 아프거나 어른이 죽게 되는 등 반드시 흉사가 생긴다. 이런 때 그 집에서는 심방을 청해서 굿을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지역사례 밧칠성은 보통 대대(代代)로 이어져 오면서 신앙했던 것으로 이를 모시는 집은 별도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밧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안칠성과 달리 바깥에 모신다. 김영옥(여, 1933년생)에 의하면 주젱이(주저리)를 덮었다가 그것을 갈아 덮는데 정초에 택일하여 별도로 행했었다고 한다. 제주시 아라동에서도 밧칠성을 모시는 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제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오영종(남, 1931년생)씨에 의하면 위하는 집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철갈이를 하면서 택일하여 심방을 불러 별도로 위하였다. 이때 주저리 안의 기왓장과 오곡도 교체하고 주저리도 새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제주시 삼양 지역에서는 경우 밧칠성은 남군 토산에서 모시는 것이라고 해서 '뱀굿'이라고도 하는데, 강춘생(여, 1928년생)에 의하면 이를 모시는 집이 삼양에도 3집 가량 있었다고 한다. 이 신은 잘 위하여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 주지만, 잘못 모실 경우 더욱 큰 해(害)를 가져다준다고 해서 선뜻 모시기를 어려워했다고 했다.

서귀포 해안 마을인 보목에서도 밧칠성은 신앙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집안 뒤쪽 깨끗한 곳에 돌 하나

를 놓고, 그 바깥에 주젱이로 덮어 '눌'을 만들어 세웠다. 비가 와도 세지 않도록 고깔같이 만들어 덮은 형태였다. 이용식(남, 1924년생)에 의하면 보목에서도 15호 정도의 집안에서 이렇게 밧칠성을 모시고 신앙하였다고 한다. 주젱이는 1년 한 번 철갈이라고 해서 갈아 덮어 주었는데, 밧칠성을 잘 위하면 부자로 살지만, 잘 위하지 않으면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 현지 조사된 오조리의 경우 철갈이는 일명 문전철갈이 또는 벨롱갱이, 문전버들개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대개 정월에 심방을 빌어서 행하게 되는데, 문전(門前) 신을 주신(主神)으로 삼아 신년의 가내 안녕(安寧)을 빌고 이어서 조왕, 안칠성, 밧칠성 등 가내(家內)에 좌정하고 있는 여러 신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날 집 뒤에 밧칠성을 모셔놓은 집안에서는 칠성눌을 갈아 덮기도 했다고 한다. 칠성눌은 집 뒤 공지에 주젱이를 덮어 놓은 것인데 이 안에는 기와 2장이 겹쳐 있고 그 안에는 조, 콩, 팥, 옥수수 등 잡곡과 소라껍질이 들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기와 대신 항아리로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철갈이 때는 밧칠성에 의례를 하고 그 기와 속에 잡곡(雜穀)과 소라껍질을 갈아 넣고 주젱이를 새 것으로 갈아 덮는 것으로, 집안이나 가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어류 곧 명태, 생선 따위를 많이 올렸다고 한다. 1973년 현지조사한 기록을 보아도 우도에서도 철갈이를 문절철갈이 또는 벨롱갱이라 하고 문절비들래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오조리에서와는 달리 우도에서는 철갈이를 정월 15일에 심방을 불러서 행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남국의 민속**(진성기, 교학사, 1980), **여성농업인의 삶과 전통**(김동섭 외, 여성농업인중앙회, 2005),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민속문화이해**(김동섭, 거마문화사, 2010), **제주유식마을제의 전승양상**(김동섭, 제주도, 2009), **제주전래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제주풍토록**(김정, 홍정표 역, 탐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김동섭(金東燮)**

## 방앗간신

정의 곡식을 탈곡하는 방앗간에 있는 신. 가정고사 때 마지막 순서로 제물을 올리는 가정신앙의 대상신이다. 방아지신이라고도 한다.

내용 방앗간신의 거처는 방앗간이다. 방앗간은 탈곡하는 방아시설이 있는 공간이다. 방아는 정착형 농업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아는 물레방아나 연자방아 등이 있지만 주거 내부에 설치되는 것도 있다. 이 방아는 주로 디딜방아였다. 디딜방아는 어느 정도 풍부한 곡물을 소유할 수 있는 계층에서나 설치할 수 있었다. 서민 계층에서는 주로 절구가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방앗간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설치한 것으로 인식된다. 먹을 것과 관련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방앗간 또한 식량을 다루는 장소로 중요시하였다. 방앗간을 통하여 풍부한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을 기원하는 내용은 〈지신밟기 노래〉에서도 보인다.

> 여루 방아야 이방아 누방아고
> 강태공이 조작방아 덩덩쿵 찍어라
> 날 천석이라 찍어라 팔만석이나 찍어라
> 여루여루이 지신아 자손만대로 찍어라
> 수수만대로 찍어라 여루여루야 지신아

방앗간은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관으로부터 '좌향'을 보아야 하며, 좋은 날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방아를 설치할 때도 집 주위의 지형을 보고 방아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대목들은 방아 찧는 모습이 복을 찧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아를 설치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의 권신인 최충헌(崔忠憲)의 옆집에 궁중에 약을 조달하는 관서가 있었다. 이곳에서 밤낮으로 약을 찧는 소리가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지맥을 끊는다고 하여 최충헌이 그 관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고 한다. 즉 방아질은 지동(地動)을 일으키고 이 지동은 지맥을 끊기 때문에 주변에 방앗간이 있으면 가세(家勢)가 일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박씨 댁의 경우 대문간에 이어 방앗간이 있다. 방앗간신에 대한 독자적인 제의는 없으며 가을고사 때 마지막 순서로 제물을 올린다. 팥시루떡, 술, 무나물을 새로 차려 방앗간에 올린다. 한번은 가을고사 지낼 때 잊고 방앗간에 떡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가 머리를 질끈 동여맨 세 귀신이 꿈에 나타나 떡을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는 매년 빼놓지 않고 방앗간에도 떡을 놓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사, 1992),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지욱(金志昱)**

## 방위가리기

상호참조 오방지신(489쪽)

정의 삼살방(三煞方)이나 대장군방(大將軍方) 등 흉신(凶神)이 머무는 방위를 가려 어떤 일을 삼가는 속신행위.

내용 삼살방은 세살(歲煞), 겁살(劫煞), 재살(災煞) 등 불길한 살이 낀 세 방위를 말한다. 이들 방위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심지어 화장실을 고치더라도 불길한 살이 동하여 액운을 당한다고 한다. 예컨대 세살은 천살(天煞)이라고도 하며, 이 방위를 범하면 자손 또는 가축이 해를 입거나 수해나 냉해로 농사를 망친다고 여긴다. 겁살은 대살(大煞)이라고도 하며, 이 방위를 범하면 재산을 탕진하거나 칼부림이 난다고 한다. 재살은 수옥살(囚獄煞)이라고도 하며, 이 방위를 범하면 관재구설 또는 송사에 휘말리거나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 한편 삼불복(三不伏)이라고 해서 삼살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장군방은 팔장신(八將神)이 관장하고 있는 여덟 방위를 말한다. 여기서 팔장신은 태세(太歲), 대장군(大將軍), 태음(太陰), 세형(歲刑), 세파(歲破), 세살(歲煞), 황번(黃幡), 표미(豹尾) 등으로 원래 음양가(陰陽家)의 신들이다. 태세는 목성의 다른 이름으로 간지(干支)의 방향에 따라 순행하는데, 그 방위에서는 길사(吉事)를 하면 복을 받지만 나무를 베면 액운을 맞는다고 한다. 대장군 방위에서는 만사를 삼가야 한다. 태음 방위에서는 혼인이나 출산을 삼가야 한다. 세형 방위에서는 창업을 삼가야 한다고 한다. 세파는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 방위에서는 배를 타거나 이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세살 방위에서는 어떤 사람과도 교유를 삼가야 한다. 황번 방위에서는 흙을 다루는 일을 삼가야 한다. 표미 방위는 그 방위로 장가드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삼살방은 뱀·닭·소의 해에는 정동쪽, 돼지·토끼·양의 해에는 정서쪽, 원숭이·쥐·용의 해에는 정남쪽, 호랑이·말·개의 해에는 정북쪽에 1년간 머문다고 한다. 그리고 대장군방은 뱀·말·양의 해에는 정동쪽, 돼지·쥐·소의 해에는 정서쪽, 원숭이·닭·개의 해에는 정남쪽, 범·토끼·용의 해에는 정북쪽에 3년간 머문다고 한다. 삼살방의 위력이 대장군방보다 더욱 세다고 한다.

**참고문헌** **신살 격국 총정리-그림으로 배우는 사주통변술**(김춘기, 백산출판사, 2002),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 택일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김만태, 정신문화연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필자** **안상경(安相敬)**

## 밭고사

표제어 농신제(101쪽)

## 배고사

상호참조 배서낭(201쪽), 배서낭함(204쪽), 출어고사(668쪽)

정의 뱃사람과 배의 안전, 순조로운 뱃길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배서낭, 어신·수신에게 축원하는 제의.

**내용** 배고사는 배를 가진 선주가 개인적으로 배서낭에게 지내기도 하고 제의와 마을제의인 풍어제나 당제의 일부로 행해지기도 한다. 개인 배고사는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샀을 때 하는 제의이다. 마을 풍어제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별신굿, 서해안 용왕굿과 배연신굿 등이 있다.

배고사는 섣달그믐날, 설,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추석 등 명절에 지낸다. 그리고 배내림 날, 당산제를 지낼 때, 출어할 때, 흉어가 계속될 때, 선주가 부정이 끼어 우환이 있을 때 지내는 고사와 물때에 맞춰 지내는 고사가 있다.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 고사가 가장 성대하다. 물때에 맞추어 지내는 고사는 서무날(음력 매월 12일 · 27일)과 너무날(13일 · 28일)이 일반적이다. 출어 때 지내는 고사는 열무날, 서무날 밀물이 들어와 조류가 어느 정도 잔잔해졌을 때 거행된다. 명절고사는 상원 · 추석 등 세시에 지내는 고사이다. 모든 고사 가운데 상원의 고사가 가장 성대하다. 배내리기 고사는 배를 사거나 새로 건조하여 진수할 때 지내는 고사이다.

배고사는 선주가 주관한다. 선주에게 부정이 끼었을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원이 대신한다. 고기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거나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무당을 데려와서 지내기도 한다. 제주는 가정에 상(喪)이나 출산이 없고 온갖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제물로는 조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 출어 때 첫 어획에서 잡힌 크고 귀한 것을 선택하여 배에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둔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비늘이 없는 갈치, 장어, 홍어, 가자미 등은 절대로 제물로 올리지 않는다. 갈치, 장어는 몸체가 길어 뱀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기피한다. 제상은 배서낭 앞에 고물, 이물 순으로 차린다. 그 뒤 제주가 상마다 술을 한 잔씩 붓고 재배하는 간단한 절차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각 상에 놓인 음식에서 일부를 떼어내 바가지에 넣고, 고루 섞은 다음 바다에 뿌리면서 용왕에게 헌식을 한다. 이때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두의 기원을 행한다.

**지역사례** 배고사는 마을제의(풍어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배고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도 어촌마을의 배고사는 섣달그믐부터 팔월 보름까지 다양하다. 무엇보다 섣달그믐날에 하는 '묵은고사'가 특징이다. 이 배고사는 한 해 동안 어업을 무사히 마쳤으니 새해에도 잘되게 해 달라는 기원고사이다. 일반적인 배고사는 첫 출어를 할 때, 그물을 던질 때,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 특별히 크고 좋은 고기를 잡았을 때, 만선(滿船)을 했을 때 등 조업 중에 거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낸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출어를 하기 전에 치르는 배고사가 가장 중요

**배고사** 충남 보령군 오천면 외연도, 2011.3.19, 강성복



제물 차리기



풍어고사



배고사를 위해 오폭기와 풍어기를 꽂은 어선





**배고사** 전남 영광군 법성포, 2010.4.8(음), 국립민속박물관


1


2


3


4


5



6

하며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 밖에도 배를 새로 건조해 왔을 때나 흉어(凶漁) 또는 풍어(豊漁)가 들 때 배고사를 지낸다.

조기잡이가 활발하던 어촌마을인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서는 가정마다 날을 받아 배고사를 지냈다. 고사 당일 아침에 대문 앞 양쪽으로 황토를 한 무더기씩 놓는다. 떡을 찔 안부인만이 정갈한 마음으로 머리목욕을 하였다. 안주인은 직접 쌀 한 말 정도를 집에서 빻아서 팥을 넣고 시루에 켜켜이 떡을 쪘다. 선원들은 이날 소를 한 마리 잡아 배 위에서 직접 삶거나 굽고, 밥과 조기도 찌는 등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였다. 고사를 지내기 전에 배마다 '붕기'를 꽂아 풍어를 기원하였다. 붕기는 일 년에 한 번 첫 출항 할 때만 꽂았다. 준비가 끝나면 배 위의 일곱 군데[선장실, 기관방, 이물방장(배의 머리부분), 배 가운데 네 군데]에 떡, 삶은 쇠고기, 구운 쇠고기, 찐조기, 삼색실과를 나누어 놓았다. 선장은 일곱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술을 한 잔씩 부어 올리고 절을 세 번씩 하였다. 이때 술은 선주 집에서 담근 것을 사용했다. 이어 '배서낭'을 새로 모셨다. 마지막으로 고사 지낸 떡을 바다에 3~4회 던지면서 "구시네!"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조기 좀 많이 잡게 해 주십사' 하고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벌금마을에는 칠산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풍선배가 많았다. 중선이라 불린 이 배는 5~6톤 규모에 7~8명이 탈 수 있었다. 선주는 섣달이 되면 자신의 배에서 일할 선원들과 계약해 고기잡이를 준비하면서 섣달그믐날에 선원들과 함께 배고사를 모셨다. 선주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와 서낭, 이물, 도무(배 꽁무니), 마장(배 한가운데)에 차린다. 마장에만 서너 그릇을 차리고 나머지는 한 그릇을 차렸다. 먼저 서낭에 대한 고사가 이루어졌다. 선원들은 흩어져 각각 술을 따르고 절을 하였다. 고사가 모두 끝나면 다음에는 퇴송을 했다. 이때 나물, 밥 등을 한꺼번에 말아 바다에 뿌리면서 "요왕님네 퇴 고시레"라고 외치며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고 빌었다. 설날 새벽에는 섣달그믐날처럼 '떡국고사'라고 하여 설 차례를 지내기 전 밤 1~2시에 다시 배고사를 지냈다. 이때 메 대신 떡국을 차렸다. 첫 출어고사는 정월 20일쯤 바다에 배를 띄워 놓고 지냈다.

전남 목포시 서산동에서는 진수고사, 명절고사, 출어고사 등을 지냈다. 진수고사는 배내리기를 할 때 한 번 지내지만 나머지 배고사는 각각 시기가 되면 그때 그때 지냈다. 안강망 유진호 선장 박씨는 명절고사로 섣달그믐과 추석에 고사를 지냈다. 섣달그믐날에는 선창, 추석에는 조업 중이어서 바다에서 명절고사를 각각 지냈다. 고사는 물이 가득 들어오는 만조에 지냈다. 이는 물이 가득 불어난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적인 믿음 때문이다. 상을 차리는 곳은 본당, 기관실, 이물, 한판, 노라, 고물 등 일곱 군데이다. 본당은 조타실(선장실)에 모셔진 배서낭을 말한다. 한판은 배의 가운데 부분, 노라는 줄을 감는 기계이다. 이물과 고물은 각각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다. 고사를 지내는 절차는 일반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술을 따르고 재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고사를 지낸 다음 옆 배에 있는 선원이나 선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음복을 하였다. 고사상에 차린 돼지머리고기를 안주로 삼아 소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조도가 고향인 박씨는 출항하여 어장으로 가는 도중에 선산이 바라다 보이는 바다에서 출어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새해 첫 출어고사는 고향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이때 선주는 어장에 나가지 않아도 배고사까지는 동행하였다.

강원도 속초지역에서는 배고사를 '배성주제'라고 한다. 배를 집으로 여겨 선주가 개인적으로 배성주신을 집안의 성주신과 같이 봉안한 것이다. 청호동에서 배성주에게 치성을 올리는 경우는 배를 새로 만들었을 때,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 첫 출어 때, 첫 수확 때, 흉어나 풍어 때, 매년 정초 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으로 다양하다. 제의는 개인 고사 형태로 진행된다.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 고축을 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배성주의 신체로는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길지형(吉紙形)이라고 부른다. 다른 지역에서는 길지형 외에도 무신체형, 지방형, 뱃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함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청호동에서는 길지형이 많으며, 뱃기형도 더러 있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간단하게 차려 놓고 절을 하면서 축원한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지내는 배고사는 기제사와 동일하지만 육고기를 쓰지 않는다. 또 과일 가운데 배는 놓지 않는다. 선장장 앞 갑판에 진설하여 서낭에게 제를 지낸다. 제의는 '진설', '헌작', '재배', '이령수', '헌식' 순으로 한다. 거리밥은 막걸리와 섞어 바닷가에 뿌린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배를 새로 지었을 때나 출어 때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배의 수호신이자 '선왕'인 '연신'을 맞는 배고사(선왕굿)를 한다. 이때 집을 지을 때 하는 성주풀이와 마찬가지로 잘 만드는 신령한 목수인 '강태공뱃목수'를 청하는 굿놀이로 '강태공배목시' 놀이를 한다. 배 앞에 돼지머리와 수수떡으로 선왕상을 차려 놓고 심방은 선왕기를 들고 배목수를 불러놓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닻줄을 잘라 선목에 든 액을 막고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한국의 해양문화**(해양수산부, 경인문화사, 2002).

**필자** **김준(金準)**





## 배서낭

상호참조 배고사(197쪽), 배서낭함(204쪽)

**정의** 어로 안전, 선원들의 평안, 풍어를 관장하는 신. 배에서 모시는 서낭이란 뜻에서 배서낭이라고 부른다. 지역에 따라 선왕(제주도), 배선영(전남), 배성주(강원도), 배당(전남 영광), 본당(전남 목포), 당그릇(충남 홍성) 등 이칭도 있지만 대개 배서낭이라고 한다. 배에서 모시는 신(왕, 선영, 성주) 또는 배에서 모시는 당이란 뜻에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 어민과 항해자들은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조업하고 항해의 안전을 빌기 위해 바다의 신과 배의 신령을 모셔왔다. 세세한 사항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배에 서낭을 모시는 것은 오래되고 보편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1771년에 제주도 사람 장한철이 일본 류큐까지 표류한 뒤 남긴 『표해록(漂海錄)』에는 신에게 고사 지내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취사부(炊事夫)가 밥을 지어 북을 두드리며 바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며 푸닥거리하고 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눠 먹이어 식사가 끝났다."라는 기록에서 취사부, 즉 화장이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식사 전에 바다의 신에게 먼저 고했음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항해의 안전을 위해 신을 각별하게 위하고 경배해 온 전통을 볼 수 있다.

**내용** 배서낭은 성별로 볼 때 여서낭과 남서낭으로 구분된다. 남서낭보다 여서낭인 경우가 많다. 여서낭은 처녀서낭, 각시서낭, 할머니서낭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비해 남서낭은 세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배서낭의 성은 대개 배를 구입할 때 선주(船主)나 가족들이 꾸는 꿈에 따라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물어서 모시게 된다. 여자 서낭은 비녀, 치마저고리, 꽃신, 반짇고리, 실, 삼색(오색)천, 화장품, 거울, 빗 등 여자들의 일상용품을 상자에 담아 모신다. 남자 서낭은 남자 신발, 남자 한복을 함에 담아 놓거나 아예 신체(神體)를 마련하지 않기도 한다.

모시는 신격에 따라 조상서낭, 애기서낭, 성주서낭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리고 신체의 의미에 따라 명태서낭, 밤[栗]서낭, 돌서낭 등을 모신다. 명태서낭은 십 리 깊은 물에서 노는 대어신(大魚神)이다. 바다의 모든 것을 귀로 듣고, 눈이 커서 천리를 보며 입이 커서 재수와 부귀영화를 불러들인다고 한다. 밤서낭은 생식과 다산의 의미를, 돌서낭은 돌이 지닌 항구불변성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각각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체에 따른 배서낭의 사례는 많지 않다.

배서낭은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깨끗한 곳에 모신다. 주로 선장실이나 기관실의 한쪽 벽에 모신다. 서낭은 배가 클수록 더욱 귀하게 여긴다. 큰 배에 어군탐지기가 설치되고 기계화돼 배서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소형 배에 비해 배서낭을 모시는 사례가 더 많다. 먼 거리를 항해하고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면서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서낭의 존재를 더욱 각별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큰 배의 선주 가족들이 절에 가서 별도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이를 '용왕 위한다.'라고 한다.

배서낭은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여서 경우에 따라 선원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 어민들은 흔히 배서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출항하지 않고 배서낭이 길흉의 전조를 미리 알

려 대처하도록 유도한다고 여긴다. 사고나 파선의 위험이 있을 때, 흉어나 만선의 조짐, 가정의 우환이 있을 때에도 알려준다고 한다. 어민들에 따르면 쥐 울음소리는 배 사고가 날 불길한 징조, 뱀 우는 소리는 배가 파손되고 고기를 못 잡을 징조, 새 우는 소리나 물 흐리는 소리 또는 바람 소리는 일기가 불순하고 태풍이 불며 파도가 크게 일어날 징조라고 한다. 또 숨 넘어가는 소리, 뭔가 무너지는 소리는 가정에 우환이 있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한다. 부드럽고 가락이 있는 옥구슬 구르는 소리는 만선의 길보라고 여긴다. 이와 같이 배서낭 우는 소리가 나면 선원들은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 소리가 심해지면 소금이나 쌀을 뿌린다고 한다. 잠결에까지 쥐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출어를 하지 않고 근신한다고 한다. 어민들은 배서낭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인지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배서낭을 잘 모셔야 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때 먼저 대접하고 난 다음에 선원들이 식사를 한다. 명절에는 배고사를 올리면서 정성을 들인다고 한다.

**특징** 배서낭 봉안과 그에 대한 의례는 갖가지 위험이 상존하는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련된 종교적, 문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배서낭을 모시고 의례를 행하는 것은 어민들이 자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어민들은 불시에 배의 안전과 인명을 해치려는 자연의 위협을 '배서낭이 우는' 현장으로 인지하며, 이러한 경험을 하면 조업을 중단한다. 또 비정상적이거나 부정하다고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사물들을 우연히 만나면 긴급히 회피함으로써 다가올 자연재해를 피하고자 한다. 이처럼 바다라는 특별한 생태환경에 적응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지해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풍어를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태도도 담겨 있다.

배서낭의 성별을 정할 때 선주나 가족의 꿈에 따르는 경우가 많듯 배서낭은 꿈과 관련이 많다. 선원들의 꿈에 여자가 나타나면 좋지 않다고 한다. 목포시의 선원들에 따르면 꿈에 여자가 많이 보이면 "서낭이 꿈에 뵌다."라면서 꿈에 나오는 여자가 서낭이긴 하지만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바다에서 젊은 여자가 꿈에 보이면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해석한다. 선원 중에 누군가가 이런 꿈을 꾸면 바로 발설하지 않고 그날이 무사히 지나가고 난 다음 선장에게 알린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가 배에서 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흉몽이라고 해석한다. 출항 전에 이런 꿈을 꾸면 출어를 포기해야 하며, 어로 중에 이런 꿈을 꿨으면 조심해서 귀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꿈에 나타난 서낭의 메시지가 안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 사후 대책을 마련한다. 귀항 후 배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배서낭을 교체하기도 한다. 꿈을 통해 배서낭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생각에 배서낭이 배를 보호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의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서는 배의 침실에 '당그릇'이라는 상자를 만들어 보관한다. 상자 안에는 마치 여자가 시집갈 때 갖고 가는 것처럼 여자의 치마저고리 안감 한 벌, 빗, 화장품 일체, 바느질 용구 등을 넣어둔다. 내용물은 매년 정월대보름날 당고사를 지내기 전에 장만해 갈아준다. 기존의 내용물은 모두 태워 없앤다. 당그릇에 여자의 물품을 넣어두는 이유는 마을 제당인 수룡당의 당신(堂神)이 여서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그릇 옆에는 길지를 보관한다. 길지는 당고사와 배고사를 지내고 나서 교체한다.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서는 배서낭을 '배성주'라고 부른다. 집안의 성주신과 같이 배를 집으로 여겨서 성주신을 봉안한 것이다. 배성주의 신체는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 지방, 뱃기, 서낭단지, 서낭상자 등을 모시기도 한다. 아예 신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배성주의 신체는 남녀로 구분한다. 성별 구분에는 무당에 의한 결정, 선주의 현몽에 따른 결정, 마을 성황신의 성별을 따르는 경우, 배를 만든 목수가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당이 선주의 생기를 보고 정한다. 무녀들이 배에서 굿을 하면서 만나는 신의 모습을 보고 성별을 정한다. 또한 선주의 꿈에 나타난 것을 보고 정한다. 남자 성주는 한지만 매달고 여자 성주는 삼색천을 건다. 속초지역의 경우 여자 성주가 많은 편이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에서는 예전부터 '멍텅구리배'를 이용해 새우를 잡았다.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는 무동력선이어서 멍텅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멍텅구리배에서도 다른 배와 마찬가지로 배서낭을 모셨다. 배서낭은 그 배의 수호신이다. 나무상자에 서낭의 성별에 따라 신체를 달리해 선장실(사공실) 벽에 모신다. 배서낭이 남자면 양말, 흰수건을 신체로 삼는다. 처녀인 경우에는 삼색실, 바늘, 분 등을 넣는다. 배서낭 이외에도 애기서낭, 할아버지서낭, 할머니서낭 등이 있다. 신체는 선주나 그 가족의 꿈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배서낭은 출어 기간에는 배에 모시고 귀향하면 다시 집으로 모셔온다.

목포지역에서는 배서낭을 '본당'이라고도 부른다. 본당은 선장실 안에 모신다. 유진호의 본당은 선장실 오른쪽 벽에 걸려 있다. 32㎝×45㎝ 크기로 된 감실 모양이다. 본당 안에는 오색천, 오색실, 흰 종이가 들어 있다. 오색천을 흰 종이로 접어 싸서 걸고 거기에 오색실이 함께 매달린 모양이다. 선주는 이 신체를 '당걸이'라고 부른다. 이 본당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모신 것이다.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에서는 배서낭 모신 곳을 '당'(당거리)이라고 한다. 자성호에는 선장실 오른쪽 출입구 위에 당이 있다. 바늘을 꽂은 청·적·황 삼색 옷감을 벽에 걸어놓은 형태로 돼 있다. 삼색의 옷감은 배서낭이 입고 있는 옷, 바늘은 배서낭의 용품(用品)이라고 한다. 자성호의 배서낭은 여신으로, 이 지역에서는 배서낭의 신격 결정 과정이 특이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선주의 꿈에 의거해 신격의 성별을 결정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리는 점쟁이가 결정한다. 이들은 선주가 배를 사거나 건조할 때 선주의 집에서 자면서 꿈을 꾼다. 신격의 성이 이들의 꿈에 여자가 보이면 여서낭, 남자가 보이면 남서낭으로 결정된다. 정월 초에 삼색 옷감을 갈아 주면서 메를 진설한다. 이 밖에 선주의 꿈에 나타난 배서낭의 옷이 더러워지면 언제라도 갈아준다. 배서낭은 배를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불운을 예고하기도 한다. 조업 전이나 도중에 선주 또는 부인의 꿈에 배서낭이 나타나면 불길하다고 여긴다.

신안군 비금면 비금도의 어민들은 배서낭이 배를 보호해주고 풍어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여기며, 마을 당신과 같은 역할을 배에서는 배서낭이 한다고 믿는다. 금영호의 배서낭은 작은 상자 안에 봉안되어 선장실 출입구 옆벽에 걸려 있다. 이 상자 안에는 삼색 형겊, 삼색실, 바늘이 들어 있다. 서낭의 신격이 여신이어서 이런 신체를 모신다. 배서낭의 성별은 선주의 꿈으로 결정된다. 선주의 꿈에 여자가 보이면 여신으로 결정된다. 일단 배에 서낭을 모시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음식을 먹든 먼저 배서낭 앞에 바쳤다가 먹는다. 작업을 하다가 민어 등 귀한 생선을 잡았을 때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고 반드시 배서낭에게 먼저 바쳐야 한다고 여긴다. 한편 선원 중 누군가가 '서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출항하지 않는다.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나는 등 위험이 뒤따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신안군 신의면 주민들은 어업 의존도가 높아서 배서낭을 각별하게 모신다. 배를 건조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선주가 꾼 꿈에 의거해 여서낭인지 남서낭인지를 결정해서 모신다. 대부분 여신을 모신다. 남신을 모신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여서낭을 모실 경우 삼색 또는 오색의 옷감과 같은 색상의 실, 바늘, 화장품 등 여성용품을 상자에 넣어 선장실 벽에 걸어놓는다. 이 물건은 배서낭의 신체, 때로는 배서낭이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한다. 물품을 담은 상자는 '당', '당거리'라고 한다. 선원들은 배서낭을 모시고 난 뒤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업 중 아침과 저녁에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을 당거리 앞에 진설하여 배서낭에게 먼저 바치고 그 음식을 선주나 선장이 물려 와야 선원들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배에 여자를 승선시키지 않던 관습도 배서낭과 관련된다. 여자가 승선하면 같은 여성인 배서낭이 질투를 하여 배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조업을 망치고 인명사고까지 일으킨다고 여긴 것이다.

제주도지역에서 배서낭은 영감, 참봉, 야채 등으로 불리는 도깨비신이다. 이 도깨비가 배에 올랐을 때 '배옥서낭(배에 오른 서낭)'이라 하여 선신(船神)으로 모셔진다. 또 이 신이 오르게 되는 배의 등급에 따라 상선(上船)에 오르면 상서낭, 중선에 오르면 중서낭, 하선에 오르면 하서낭이 된다고 한다. 도깨비신은 배뿐만 아니라 지상계의 모든 것에 대하여 길흉의 조화를 부리기도 하며, 자유자재로 경우와 형편에 따라 모습과 역할을 바꾼다고 한다. 배서낭으로 일컬어지는 도깨비신은 수수떡에 수수밥을 좋아하며, 잘 먹으면 잘 먹은 대가로 이롭게 해주지만 못 얻어먹었을 때에는 앙심으로 사람을 해친다고 한다. 심방에 따라서는 이 배서낭이 용왕국의 제3공주이며,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신이라고도 말한다. 이 때문에 배에 여자가 오르면

서낭신의 질투 대상이 되어 그 배가 불길하게 된다고 여긴다. 배서낭은 대개 선장실에 모셔진다. 신체는 일반적으로 백지, 빨강 · 노랑 · 파랑의 삼색천, 실꾸러미 등이다. 간혹 큰 배에서 위패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배서낭 앞에는 술 석 잔을 올려둔다.

**참고문헌**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신안군의 문화유적**(목포대학교 박물관, 1987), **어촌민속지–경기도 · 충남**(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통한선과 어로민속**(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97), **한국의 해양문화–동해해역 · 서남해역 · 서해해역 · 제주해역**(해양수산부, 2002).

**필자** **이경엽(李京燁)**

## 배서낭함

상호참조 배고사(197쪽), 배서낭(201쪽)

정의 배를 새로 짓거나 구입했을 때 배의 안전, 뱃사람의 무사, 만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삼색 옷감, 가위, 바늘, 참빗, 삼색실(오색실), 명태 등 배서낭의 신체(神體)를 넣은 함.

내용 배서낭은 여서낭, 남서낭, 조상서낭, 애기서낭, 성주서낭, 명태서낭, 밤서낭, 돌서낭, 개서낭, 소서낭, 용서낭, 뱀서낭, 쥐서낭, 징서낭, 부적서낭, 조리서낭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 상징물인 불상이나 염주 또는 십자가를 배서낭의 신체로 모시기도 한다. 배서낭은 대부분 여신이다. 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이 여신인 것과 상통한다. 충남 · 전라 · 경상 · 제주 등 지역에서는 배서낭을 모시고 강원도지역에서는 배를 집과 같이 여겨 배성주를 모신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배서낭을 모시지 않고 있다.

배서낭은 삼색 옷감, 삼색실, 빗, 삼색실로 묶은 한지, 여성용 화장도구, 명태, 한지 등을 신체로 모시는데 이를 함에 넣어 주로 기관실에 모신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여서낭을 의미하며, 신체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지를 접어서 걸어 두는 것은 배서낭의 옷으로 모시는 것이다. 한지로 북어를 묶어 모시기도 한다. 서해안에서는 기폭에 '위 상(上)'자를 쓴 서낭기로 신체를 대신하기도 한다. 신체는 별신굿을 하거나 배고사를 모실 때마다 새것으로 바꾼다.

배서낭은 배의 사고를 막아 주고, 선원들의 생명을 지켜 주며, 만선 풍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배 금기를 통해 선원들에게 규범을 알려 주고 바다 생물 포획을 허락하며, 선원들의 감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귀한 생선을 잡으면 배서낭에게 먼저 바친다. 배서낭 우는 소리를 들으면 출어를 중단한다.

배서낭을 잘 모시지 않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그물이 꼬이거나 기계고장이 일어나고 배가 손상된다고 믿는다. 영험한 배서낭은 소리를 내어 태풍이나 길흉 등 전조를 알려 주어 대비하게 하기도 한다.

충청도지역에서는 해마다 처음 출항할 때 선장실의 잠자는 곳 윗부분에 지난 해 모신 묵은 배서낭을 떼어내고 새로 배서낭을 모신다. 배서낭의 신체는 나무함에 치마저고리 한 벌, 크림, 분, 바늘, 빗을 넣어둔 것이다. 그 앞에 다섯 장의 길지를 걸어 둔다. 배서낭은 '오당'에 모신 '각씨서낭'이라고 한다. 이처럼 서낭을 모시는 것은 '일 년 동안 고기가 잘 잡히고 불안한 일이 없게 서낭님이 보살펴 달라'는 의미이다. 묵은 길지는 그 자리에서 불태우고, 묵은 배서낭은 집으로 가져가서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사용한다.

지역사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벌금마을에서는 풍선(風船) 시절의 칠산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풍선(중선)의 선원실에 배서낭을 모셨다. 나무로 작은 감실을 짜서 그 안에 삼색실을 담아 벽에 걸었다. 끼니때가 되면 먼저 서낭 앞에 음식을 차려 놓은 다음 그것을 내려서 먹었다. 서낭의 신격이나 관련 관념 등은 밝혀진 게 없다. 서낭은 여자 서낭도 있고 남자 서낭도 있다.

전남 목포시의 안강망배 한일호는 선장실 출입구 오른쪽에 작은 배서낭함을 기와집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안에 빨간색, 녹색, 노란색 한지를 넣어 두었다. 선주 김씨는 이를 '각시서낭'이라고 불렀다. 약 10년 전에 지은 지 4년 된 중고 배를 구입하던 날 꿈속에서 여자를 보았기 때문에 각시서낭으로 모셨다. 매년 배서낭을 바꾸지는 않는다. 배고사를 지낼 때는 이물, 배서낭, 기관실에 음식을 차려 놓고 선주가 절을 한다.

이 밖에 배서낭을 모실 때 함에 넣지 않는 사례도 있다. 동해 쪽에 위치한 강원도 속초지역에서는 배서낭으로 배성주를 모신다. 배성주의 신체로는 한지를 건다. 이미 달아 놓은 신체는 불태운다. 배에는 배성주기와 만선기를 싣는다. 배성주기는 상단을 청색, 하단을 흰색 천으로 각각 만든다. 배성주의 신체는 남녀로 구분한다. 성별 구분은 선주의 생기를 맞추어 무당이 정한다. 무녀들은 배에서 굿을 하면 신의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신체의 성별을 정한다고 말한다. 또한 선주의 꿈에 배성주가 나타나면 알게 된다. 남자 성주는 한지만 매달고 여자 성주는 삼색천을 건다. 이 지역은 여자 성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배성주제는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울 때나 초하룻날, 보름날에 따로 지낸다. 이때 고기와 메를 바치고 향과 초를 피워서 빈다. 배성주에게는 첫날 첫 낚시로 잡은 생선을 바치고, 배에서 밥하는 사람인 '화장(주방장)'이 밥 한 술을 떠서 "용왕님 잡수십시오."라고 빌면서 바다에 던진다.

**참고문헌**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한국의 해양문화**(해양수산부, 2002).

**필자** **김준(金準)**

## 배성주

표제어 배서낭(201쪽)

## 백중고사

정의 백중날에 성주나 조상을 위해 제물을 장만하여 올리는 고사.

내용 백중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며,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로서 이날 호미씻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세시풍속이 행해진다. 가정을 단위로 하며 고사나 천신 또는 차례를 지내는 곳이 많다.

집안에서는 보리를 빻아 개떡을 쪄서 성주상에 올리고 가족이나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상께 차례상을 차려 올리기도 한다. 차례상에는 다른 제물과 더불어 새로 난 참외나 오이 등을 올린다. 이는 천신(薦新)의 의미이다.

불교에서는 이날을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 하여 4대 명절의 하나로 꼽는다. 돌아가신 조상과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올린다. 불교를 믿는 신도들은 이날 절에 가서 조상의 천도를 위해 기도한다.

**참고문헌** **세시풍속–총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나경수(羅景洙)**

## 벗고사

표제어 염전고사(472쪽)

## 볏짚

정의 벼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

역사 한국에서 언제부터 볏짚 사용이 일반화되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볏짚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밑동베기'라는 수확법의 보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밑동베기는 벼 포기와 지면이 맞닿는 곳의 바로 윗부분, 즉 밑동을 잘라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낫과 같은 예리한 수확 도구가 필요한다. 원삼국시대까지는 돌칼이나 손칼[鐵刀子] 등으로 이삭의 모가지 관절 밑을 따내는 '이삭따기'가 일반적이었다. 밑동베기는 볏짚의 이용에 필요한 정도로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당시 볏짚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민속지적 맥락에서는 터주신앙과의 관련이 특히 눈에 띈다. 그리고 출산의례와 볏짚의 농밀한 관련 역시 주목을 요한다.

내용 터주신 제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부근의 민가에서는 뒷마당의 한 구석이나 장독대 옆에 높이 2~3척의 짚주저리[藁蔽]에 금줄을 달아 택지신을 모신다. 때로는 짚주저리의 상부에 갓 모양의 지붕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 이를 '터줏가리' 또는 '대감주석'이라고 부른다. 이 터줏가리 속에는 햇곡식을 넣은 단지가 안치되어 있다. 가을고사 때 이 신단지의 곡물을 교환하고 새 짚으로 터줏가리를 갈아 씌운다. 또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의 터줏단지는 빈 시루에 쌀을 담은 사발을 넣고 그 위에 짚으로 지붕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도록 덮어놓는다.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은 것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서는 '유두저리', 음성군 폐벌리에서는 '유두지'라고 부른다. 전북 임실군 덕치면 두지리 신기마을에서는 예전에 가을일이 끝나면 음력 시월 중 날을 잡아 가을고사를 행했다. 그해에 거둬들인 나락 가운데 가장 잘 익은 것을 미리 석 되 정도 준비하여 마루방 안쪽 시렁에 모셔둔 성줏단지에 든 곡물과 교체한다. 즉 전년의 가을고사 때 넣어둔 구곡(舊穀)을 꺼내고 신곡(新穀)을 넣어 백지로 뚜껑을 씌운 다음 그 위에 금줄을 쳐서 시렁에 안치한다. 그리고 햇곡식으로 밥을 지어 이 성줏단지 밑에 올린 다음에 풍작을 감사드리고 더불어 가내태평을 기원한다. 그 다음 뒤뜰 장독대 옆에 모신 터줏단지 안의 곡물을 교체하고, 눈비를 피하기 위해 단지 상부에 씌워둔 원추형의 '주제비(주저리)'를 새 짚으로 갈아 씌운다. 이 주제비는 가을고사용으로 쓰일 신곡을 떨어내고 남은 짚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전년에 씌운 주제비는 행사 후에 태워없애고 단지에서 꺼낸 구곡으로 밥을 지어 가족끼리 나눠 먹는다.

또 제주도의 사례에서 밧칠성은 어미뱀이며 안칠성은 그 일곱째의 막내딸뱀이라고 한다. 밧칠성의 '칠성눌'은 밑에 암키와를 젖혀놓고 그 위에 수키와를 엎어놓은 다음 그 두 기왓장 사이에 조, 콩, 팥, 메밀, 산도(山稻, 밭벼) 등 오곡의 씨를 한줌씩 종이에 싸서 상곡(上穀)은 맨 위에 놓고 연 1회 손을 봐서 교체하는 것이라 한다. 그 씨는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썩는다. 그리고 명절 제사 때면 문전신, 조왕, 안칠성, 밧칠성에게 메를 올린다. 문전신은 집안일을 다 알아야 하는 신이기 때문에 문전제를 먼저 간단히 한 뒤 본제사를 하고나서 조왕, 안칠성, 밧칠성에게 제물을 차린다. 이것은 일반 조상제 때도 마찬가지로 행해진다. 철갈이 때에는 별도로 모든 가신에게 본풀이를 올리며 제사를 지낸다.

이들 터주신 제사는 수확제의 일종으로 행해진다. 그 대상 신격인 터주신은 지역에 따라 터주지신, 터줏대감, 터줏대장, 토주신, 김첨지, 터줏단지, 귀신단지, 용단지, 청룡단지, 철륭단지, 철륭, 신단지, 뒤꼍각시, 뒷할망, 밧칠성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제일(祭日) 역시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확작업과 그 직후 노적 만들기가 끝난 뒤에 길일을 잡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제장으로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뒷마당의 한 구석이나 장독대 옆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터주신제의 제사 대상은 곡물종자를 안치한 기와, 사발, 단지, 항아리 등이다(이하 터줏단지로 통칭함). 그 안에 들어 있는 작년의 구곡과 이제 막 수확한 금년의 신곡을 교체하는 것이 이 행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터줏단지에 안치하는 곡물의 종류는 중·남부의 논농사지대의 경우는 벼가 많다. 이와 더불어 벼의 그루갈이로 재배한 맥류(麥類)를 집어넣는 사례도 많다. 즉 음력 시월의 상달고사 때 나락, 현미, 백미 등을 터줏단지 안에 봉안하고 그것을 음력 유월의 유두고사 때 겉보리, 쌀보리, 밀 등과 교체한다. 또 제주도를 비롯한 중·남부의 밭농사 탁월지대 및 동·북부의 화전지대에서는 조, 기장, 수수, 메밀, 콩 등 밭작물을 터줏단지에 안치하여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뒤꼍 당산 장독대의 볏짚과 칠성단지**
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2005.11.23, 강성복



터주신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신성한 터줏단지를 둘러싼 신옥(神屋)의 교체이다. 이 신령의 집은 원추·원통형이라는 형태면에서 노적과 매우 유사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선부분의 '터줏가리', '유두지', '유두저리', '주제비', '칠성눌' 등(이하 터줏가리로 통칭함)이 나타내듯이 호칭 면에서도 노적이나 노적의 최상부에 씌우는 지붕의 호칭과 일치한다. 이러한 형태상의 유사 및 호칭상의 일치는 터줏단지를 둘러싼 터줏가리가 노적 그 자체의 축소판임을 잘 보여준다.

이 터줏가리는 터줏단지에 봉안되는 곡물을 떨어낸 볏짚이나 보릿짚, 조짚 등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새로 거둬들인 곡물종자를 터줏단지 안에 안치하고, 그 모태라 할 수 있는 새 짚으로 터줏가리를 만들어 그것을 둘러싸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구성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터주신제는 곡령의 새로운 출탄을 바라는 재생의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사례에 보이는 곡물종자를 안치한 암키와와 수키와 및 이에 따른 어미뱀[母蛇], 막내딸뱀[娘蛇] 전승은 곡모(穀母)와 곡부(穀父)가 결합하여 그 결과로 곡동(穀童)이 태어난다는 재생 모티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성스러운 곡물종자를 둘러싼 원추형의 터줏가리는 이듬해 활약할 곡령을 품어서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새로운 곡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출산의례의 경우 안방을 주 무대로 많이 삼으며 이때 짚과 곡물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송석하가 보고한 조선의 산육의례에는 출산 때의 특이한 습속으로 짚을 많이 사용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짚을 깔고 그 위에서 분만을 하며, 태반을 짚으로 싸서 사흘 뒤에 짚불이나 왕겨불에 태우거나 개울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또 부산시 동래지역에서는 짚을 까는 대신 짚 한 다발을 산실 구석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두 개만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는 아기를 낳은 날 바로 외인(外人)의 출입을 금하는 '검줄(금줄)'을 치고 집안에는 '문전지앙'을 모신다. 추한 사람이 검줄을 보지 못하고 산가(産家)에 들어올 경우 눈에 잘 띄는 문전지앙을 보면 놀라서 나가게 된다. 문전지앙의 형태는 짚뭇(짚단)을 토방 위의 마루기둥에 기대어놓은 것이다. 이곳에 이레 때마다 부모나 형제들이 밥, 미역국, 물을 소쿠리에 담아놓고 지앙할매에게 "앉을줄, 설줄 모르는 개 같은 아이 잘못하드라도 잘 보아 달라."라고 빈다. 문전지앙도 검줄과 같이 세이레나 망중이레가 지나면 치운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서는 산신(産神)을 '제왕할매'라 칭한다. 그 수는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있는 방의 손 없는 위치에 삼신상(제왕판)을 놓고 그 위에 첫이레 때는 가위, 실, 쌀, 미역, 정화수, 고춧가루, 고추장, 달걀, 소금 등을 얹어놓고 제왕님에게 비손한다. 제왕 모시기는 일곱이레 동안 하며, 부정을 막기 위해 부정한 인물이나 사물의 출입을 일절 금지시킨다. 그리고 첫이레 사이에는 매일 아침 짚(이 짚은 사용하고는 제왕판 뒤에 세워 둠)을 펴고 그 위에 산모가 먹을 밥과 미역국을 차린 다음 아기의 무병장수를 비손한 뒤에 먹는다. 첫이레가 지나면 제왕판에 가위, 실과 제왕판 옆의 짚만 남겨두고 나머지 물건은 죄다 치운다. 쌀과 미역은 각각 밥과 국으로 만들어 제왕님에게 비손하고 산모가 먹는다. 그 뒤로는 이레마다 아침식사 때 산모가 제왕판 옆에 세워둔 짚을 펴고 그 위에 미역국을 차려 제왕님에게 비손하고 먹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방에 짚을 깔고 그 위에서 출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물론 출산 즈음에 볏짚이 단순히 산욕(産褥)의 깔개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다. 앞의 사례처럼 볏짚을 한 주먹 묶어 안방구석에 걸어놓거나, 또는 산실 구석 또는 문밖에 볏단을 세워놓고 이를 출산과 육아의 신으로 모신다든지, 혹은 삼신상 위에 짚과 쌀을 올려놓고 순산을 기원하는 습속들을 보면, 볏짚이나 짚단은 그저 단순한 깔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길러주는 영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육의례에는 이처럼 아이를 낳아주는 모체로서의 짚뿐만 아니라 그 짚에서 산출되는 곡물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습속도 빈출한다. 이를테면 바가지나 주머니 등에 곡물을 안치하고 이를 아이를 태워주고 길러주는 삼신으로 모시며 순산을 위해 쌀되나 콩자루 위에서 아이를 낳고, 배내 베개 안의 좁쌀을 꺼내 뿌려 그 발아와 성장 상태로써 아이의 장래를 점치며, 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해 갓난아이를 오쟁이 속에 집어넣고, 기타 백일이나 돌의 수수팥떡과 관련된 속

신 등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태어나는 아이가 짚의 자실(子實)로 산출되는 곡물의 유추로 인식된다. 따라서 산육의례에서 주술적으로 사용되는 볏짚과 곡물의 관계는 인간의 모자관계, 즉 새 생명의 탄생은 곡물의 수확으로 그리고 그 '아이=곡물'을 낳아 기르는 산모는 곡물을 산출하는 모체로서의 '볏짚=곡모'로 비정(比定)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택규는 가정신앙에서 주부의 위치는 '무(巫)=신모(神母)=곡신(穀神)'의 위치에 있는 것이며, 호주는 '곡령=곡동'의 위치에 선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부언하면 인간의 '씨'의 상속자이자 곡물의 '씨'를 안치한 성주와도 동일시되는 호주를 곡동, 그 '씨'를 낳아 기르고 봉사하는 여성(주부)을 곡모로 각각 자리매김한 것이다.

세계의 농경민족 사이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의인화(擬人化)된 곡령신앙, 특히 곡모가 곡동을 낳아 기른다는 관념이나 이를 구상화한 신앙행사를 한국의 수확의례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수확의례라 할 수 있는 출산습속에는 산모와 아이가 짚과 곡물의 유추로 간주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인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산모(주부)=짚=곡모', '아이(호주)=곡물=곡동'이라는 관계도식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면 '○○단지, ○○상자, ○○바가지'를 안방에 안치하고 이를 주부가 봉사하는 가신제의 원의(原義)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 즉 풍작과 행복의 원천으로서 일 년동안의 소임을 다한 곡물종자를 새 생명의 탄생공간인 안방에 안치하고 이를 곡모적 성격을 지닌 주부가 겨우내 봉사함으로써 이듬해 활약할 새로운 곡령의 부활과 탄생을 기원하는 '씨'의 재생의례, 바로 이것이 '○○단지, ○○상자, ○○바가지'를 대상으로 한 가신제의 본질이다.

**참고문헌** **古代祭政と穀靈信仰**(三品彰英, 平凡社, 1973), **朝鮮巫俗の現地研究**(秋葉隆, 養德社, 1940), **出産と蘆の關係**(송석하, 旅と傳說 6·7, 三元社, 1933), **가덕도의 기층문화**(김승찬,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곡령숭배사상**(남근우,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안좌도지역의 민속지**(이종철, 도서문화 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6),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5–제주도**(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7–충북**(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 짚 문화**(국립민속박물관, 1991).

**필자** **남근우(南根祐)**

## 병경(病經)

**정의** 병의 원인을 사물(邪物)의 침범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퇴치함으로써 치병의 효과를 거두는 주술 행위.

**역사** 병경의 주체는 경객(經客, 현재는 '법사'로 통용)이다. 경객은 병인(病因)이나 병몰(病沒)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점복(占卜)을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병인과 성향을 달리하는 초자연적, 초인격적 존재와 접촉하는 방법으로 병몰을 극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병이 망자의 한에 기인한다면 망자의 한풀이, 잡귀나 잡신의 침범에 기인한다면 양재(禳災), 금기의 위반에 기인한다면 고백과 기원이 각각 치료 방법이 된다. 즉 병인과 상응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술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병경은 일종의 처방이며, 처방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병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점복을 통해 병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퇴치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주술적 치병 행위는 이미 고려시대 왕실에서 공공연히 행해진 것이었다.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에 따르면 인종(仁宗) 24년 1월 신묘일에 왕이 위독하자 점복을 통해 병인을 '20년 전에 죽은 이자겸의 망혼'으로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이자겸의 처자를 인주(仁州)로 이주시켰다. 고려 930년(태조 13)에는 서경(西京)에 학교를 창설하여 의학(醫學)과 복학(卜學)을 가르쳤다. 인종 연간에는 상약국(尙藥局)과 같은 국립기관에서 의업(醫業)과 주금업(呪禁業)을 전문으로 하는 의관을 배출했다. 이러한 의술의 발달과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이나 간섭을 병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치유의 효과를 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병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망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불태우는 염승(厭勝)이나 망자의 해골을 성역에 묻는 양재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다른 생명체에게 병인을 전이시키는 대수대명(代壽代命)도 궁궐에서나 민간에서나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오늘날에도 염승, 양재, 대수대명뿐만 아니라 목인(木人,木偶)·제웅·사귀대로 환자 또는 병인을 표상하는 흉물을 만들어 태우거나 매장하는 등 다양한 주술 행위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내용** 일종의 병굿으로 볼 수 있는 병경은 보통 2~3일을 기본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병경은 일반적인 굿과 달리 제물이 풍성하지 않다. 백설기, 백미 한 말, 정화수 등 최소한의 제물을 진설한다. 신을 먹이고 달래기보다 오히려 위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날은 안택굿을 연행한다. 안택굿은 ①조왕굿, ②터주굿, ③성조굿, ④제석굿, ⑤조상굿 등 다섯 석(席;거리)을 기본으로 한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우선 가택신에게 고하고, 집안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받기 위한 혼란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병경은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연행하는데 ①신장(神將)을 불러들이는 청배(請陪), ②신장의 힘을 빌려 사물을 퇴치하는 축사(逐邪), ③신장을 되돌려 보내는 송신(送神)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축사는 환자의 상태나 현장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다.

**지역사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염의춘(남, 1932년생)씨가 주재한 '병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도에 사흘 동안 임시적으로 연행했으며 병경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병인을 죽은 전처의 한이 서린 사물로 간주하고 이를 퇴치하여 치유의 효과를 거두었다.

**제차 1일** 안택굿을 연행한다. 4~5개의 작은 석들을 연행한다. 석마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조왕(竈王), 제석(帝釋), 터주[土主], 삼신(三神), 조상(祖上) 등을 청배하여 축원한다.

**제차 2일** 사물의 퇴치를 목적으로 한 주술 행위가 연행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석마다 경문의 구송과 주술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제1석 : 경객은 우선 〈태을보신경(太乙保神經)〉을 구송한다. 경객 자신을 위해 스스로 최면에 돌입하려는 의식이다. 사설에서 경객 자신은 황천(皇天)과 황지(皇地)로부터 생겨났고, 일월성신(日月星神)을 비롯한 모든 신의 보호를 받는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太上曰 皇天生我 黃地載我 日月助我 星辰映我 諸神擧我 司命與我 太乙臨我 玉神導我 三官保我五帝佑我北辰相我南斗佑我金童侍我玉女陪我……) 이는 앞으로 부리게 될 신장과 축사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후 연속하여 〈청신편(請神篇)〉과 〈사십팔신장청(四十八神將請)〉을 구송한다. 〈청신편〉은 가택신, 〈사십팔신장청〉은 사물을 몰아낼 신장을 청배하기 위해 구송하는 것이다.

제2석 : 이미 청배한 신장을 신장대로 받아들이는 '신장내림'과 청배한 신장으로 하여금 사물 주위를 둘러싸게 만드는 이른바 '진을 친다'는 진법(陣法)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신장대는 50㎝가량 되는 대나무로 주위를 창호지로 둘렀으며, 맨 위에는 수술을 매달아 놓은 형태이다. 신장대에 신이 내리면 신장대잡이는 자신도 모르게 집 안 구석이나 환자 주위, 때로는 마을 주위를 맴돌기도 한다. 이때 경객은 〈팔문대진경(八門大陣經)〉을 구송하여 신장으로 하여금 사물을 포위하고, 이어 진(陣)을 치도록 명령한다. 사설에서 병법(兵法)을 연상할 수 있다. 이 경문을 구송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을 퇴치하는 신장의 역할이 본격화된다.(五部에 侍衛하라 羅列行伍하고 至敎將箭하여 放砲鳴나

**병경**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0.3.15, 안상경



귀신착수



백살풀이

어든 各兵이 陣하고 五行旗幟를具起하고 一字로 左右에 行列하여 …… 天土大王은 八億萬千 百名官과 各諸將軍兵을 令하여 五行陣을 定하고 比和雁行을 總執點定하여라 漢用元帥는 三億萬千百名官과 各諸將兵을令하여 戰場陣을 定하고 各有傷殺을 總執處置하여라.)

제3석 : 병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인의 퇴치에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병인을 퇴치하는 경문을 구송한다. 사물에 대한 위협은 〈옥추경(玉樞經)〉과 〈옥갑경(玉甲經)〉, 잡아가두는 것은 〈철망경(鐵網經)〉과〈해살경(解煞經)〉, 퇴치하는 것은 〈백화경(白化經)〉과 〈대축사(大逐邪)〉를 각각 통해 성취한다. 더욱이 수차례 반복해 구송함으로써 효과는 배가된다.〈철망경〉의 일부 내용을 보면 우선 신장의 이름을 호명하여 그들을 제장으로 불러들인다.(中央大陣軍雷神將 千派總軍後繼神將 千軍萬軍總兵神將 各硝軍兵號令神將 鐵網神將 一時에 下降感應하소사 …… 此網知耶不知耶 欲生者는 避去하고 欲死者는 入鐵網 自滅이라 天天大大地地平平 人人生生 鬼鬼滅滅 諸惡鬼消滅 急急如律令) 신장의 명칭에서 사물과 대적할 제신(諸神)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경객은 역신잡이를 한다. 환자를 문턱에 눕히고 좁쌀, 수수 등 오곡잡곡을 뿌리면서 복숭아나무 가지로 환자의 몸을 내리친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신장칼을 환자의 등에 X자 형식으로 두르고 나서 허리 밑에서부터 돌려 뺀다. 그 칼을 던져 칼날이 앞쪽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면 일단 사물이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본다. 이를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의 주술력과 옥황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칠성검(七星劍)으로서의 자격인 신장칼이 어우러져 발현되는 주술이라고 믿는다. 다시 경객은 〈백화경〉과 〈박살경〉을 반복적으로 구송한다. 〈백화경〉의 일부를 보면 인간의 고귀함을 역설하는 반면 사물을 강하게 협박하고 있다.(夫 人者는 萬物之最靈이라 人之生도 在天이요 人之死도 亦 在天이어든 有命이면 生하고 非命이라도 鬼神之中에 不死니라 …… 轉誦此經하면 너의 妖鬼邪鬼는 頭于破作 七片하여 數千萬年이라도 永不出世하리라 ……) 이때 다른 경객은 손에 창호지로 감싼 팥 세 알을 올려놓고 움직임을 관찰한다. 가끔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를 사물의 몸부림이라고 간주한다. 이것을 사귀통(邪鬼桶)에 담아 찰흙으로 뚜껑을 막은 뒤 마을 서낭당 밑에 석자 깊이의 땅을 파고 묻는다. 이를 귀신착수(鬼神捉囚)라고 한다. 이로써 사물을 퇴치했다고 여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오방기(五方旗)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빨간색 기를 꼽으면 사물이 물러갔다고 여기지만 다른 색의 기를 선택하면 이 석의 절차를 다시 연행한다.

제4석 : 대수대명을 연행한다. 재액을 전이시키는 주술 행위이다. 환자를 구상화(具象化)한 대신(代身)으로서 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닭의 입에 환자의 나이 수대로 쌀알을 집어넣고 명주실로 동여맨다. 그리고 환자의 속옷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붉은색으로 쓴 다음 그것으로 닭을 에운다. 곧 닭의 목을 친 뒤 사람이 죽었을 때 염하는 방식과 같이 열두 장의 염장을 맨다. 이로써 환자의 재액이 닭에게 전이되었다고 믿는다.

제5석 : 백살풀이를 연행한다. 백여 가지 살(煞)을 풀어내는 과정은 병경의 전개 과정에서 주술 행위가 가장 두드러진다. 활, 살, 박을 준비한다. 살 윗부분에는 '새알시미'가 박혀 있으며, 주위에는 창호지를 둘러놓는다. 창호지에는 1백여 가지 살(煞)인 '정칠월원진살(正七月怨嗔煞), 이팔월팔란살(二八月八難煞), 삼구월천라살(三九月天羅煞), 사시월지망살(四十月地網煞), …… 시비살(是非煞), 전재포백도적살(錢財布帛盜賊煞)'이 적혀 있다. 우선 환자의 머리에 박을 뒤집어 씌워서 살로 박을 두드린 뒤 가능한한 멀리 날려 버린다. 이는 환자의 재액은 이미 제거되었지만 삶의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살(煞)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6석 : 송신의 단계이다. 대상 신격은 신장이다. 경객은 대문 밖에서 〈신장퇴문경(神將退門經)〉을 구송한다. 사설에서 제장으로 청배된 신장의 이름과 본래 좌정하고 있던 곳이 함께 나열된다.(五道八方神安寧 靑龍之神還東方 白虎之神歸西方 朱雀之神定南方 玄武之神置北方 句陳騰 蛇陰陽神 保佑中央護人道 陽神上昇陰神下 晝神夜神歸日月 泥丸明堂神常寧 五華五臟神守靜動神靜神遵法度各率神兵安方位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律令) 병경의 연행에서 대문은 인간계(人間界)와 신계(神界)의 경계로 설정된다. 대문 밖과 대문 안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이승과 저승으로 장치하여 대문 밖으로 신장을 배송하는 것이다.

제차 3일 제차 1일과 동일하게 안택굿을 연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차 1일에 연행한 안택굿과 달리 산귀신, 들귀신 등 여러 잡귀, 잡신을 잘 풀어먹이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제물을 풍성하게 진설한다. 이는 가택신에게 병경이 끝났음을 고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재액이 없기를 바라는 축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앉은굿 무경(안상경, 민속원, 2009), 제천지역 병굿 연구(안상경, 지역문화 1,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2),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안상경(安相敬)

## 보름고사

상호참조 안택(441쪽), 오곡밥(486쪽), 정월떡(561쪽)

정의 농군들의 명절인 음력 정월대보름날을 기해서 각 가정에서 절식(節食)을 마련해 집안의 신령과 조상께 올리는 고사. 음력 정월 열나흗날부터 보름날까지 집안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고사를 드린다. 열흘날에는 고사떡을 마련하여 집안 신령에게 치성을 드려 집안의 화평을 보장받고, 보름날에는 약밥이나 오곡밥 등을 준비해서 조상과 집안의 신령을 대접한다. 이미 설날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농군의 명절인 대보름을 맞아 다시 한 번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베푸는 의례들이다. 풍년을 상징하는 대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과 밥을 넉넉하게 마련해서 차례도 지내고 이웃과 나눈다.

역사 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사금갑(射琴匣)조에 신라 소지왕의 목숨을 구한 까마귀와 쥐에게 보답하기 위해 찰밥[糯飯]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고려시대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점반(粘飯)」에는 대보름 즈음에 찰밥을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두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보름 절식은 약밥이 아니라 찰밥으로 볼 수 있다. 『목은집』에 이색에게 남산 무당집에서 약밥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에 약밥과 찰밥 두 종류가 식용되고 있었지만 대보름 절식은 약밥이 아니라 찰밥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찰밥과 약밥이 모두 대보름 절식으로 등장한다. 찰밥과 관련한 내용은 『동안선생속집』에서 "찰밥[糯飯]을 얻으러 오는 이 있으면 어디

보름고사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 2005.1.15(음), 김효경



부엌에 정월떡 올리기



장광(장독대)에 정월떡 올리기



성주 앞에서 정월 치성드리기

보름고사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소라실, 2010.1.15(음), 김효경


마당에 차린 제물


마당에서 비손하기


비손하기


성주상 차리기

에 쓰려는지 아는가? 찰밥의 유래는 신라에서 비롯된 것인데, 병자가 스물 한 집의 찰밥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찰밥은 오늘날처럼 민간에서 나누어 먹던 음식 가운데 하나였다.

약밥은 찰밥의 일종이지만 다양한 것을 곁들인 좀 더 고급화된 음식이다. 『상원리곡(上元俚曲)』에 "곶감과 대추살 찹쌀과 섞어 밥 짓고, 하얀 잣알에 기름 같은 꿀을 버무리네, 집집마다 약밥 짓는 일 풍속을 이루어, 까마귀의 제사 대신 조상사당에 제사 지내네."라는 기록이 있다. 약밥으로 까마귀 제사 대신 조상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대보름 제사는 유자들 사이에서 까마귀 제사라는 의미가 약화되고 조상에 대한 명절차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해동죽지(海東竹枝)』에서는 "찹쌀밥으로 까마귀에게 제사한 고사가 있지만 그것이 와전되어 제사음식이 되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조상 제사와의 연관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택당선생별집(澤堂先生別集)』에서는 사대부가에서 사당에 상원 속절일(俗節日)에 올리는 대표적인 절식으로 약반을 꼽았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보름 절식이 찰밥과 약밥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실제 조선시대에 약밥을 표현하는 용어는 약밥[藥飯], 삶은밥[煮飯], 종밀(粽蜜), 찰밥[糯飯], 꿀음식[蜜餌], 찰밥[秫飯], 향반(香飯)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대보름 절식이 약밥과 찰밥으로 구분됨을 보여 준다. 찰밥은 민간에서 나누어 먹는 음식을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고, 약밥은 조상 제사의 제물로 언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계층에 따라 절식의 종류를 달리했음을 의미한다.

약밥[藥飯]은 보름날의 절식이기는 했지만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세시잡영(歲時雜詠)』에 "수많은 단사 알갱이 하나로 모은 듯, 가난한 사람들은 맛보기 어렵다네, 어찌 알랴 언제나 먹는 부호한 자녀들,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네."라고 표현하였다.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에도 "새봄에 벌써 상원이 되었네, 집이 빈한하여 약밥이 없고, 모아둔 것도 없어 풀뿌리나 먹네."라는 내용이 있다. 절식이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하는 힘든 날이 대보름이기 때문에 비싼 약밥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대보름의 힘든 상황은 『덕양유고(德陽遺稿)』에 "정월 15일 저녁에 늙은 농부들이 성가퀴에 모이네, 농사일을 이야기 하면서 달이 뜨는 것을 기다리네. …… 어른들은 농기구를 손보고 어린이는 소의 여물을 준비하네, 전 해의 가을에 장마가 길어서 밭마다 소출이 적었네, 솥을 팔아서 기장 죽이라도 마련하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낼 것이네, 봄이 돌아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처자식은 울음소리를 낼 것이네……"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정월대보름이라 해도 대다수 농민은 굶주림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식은 사치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민간적인 방법으로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찰밥과 약으로 먹던 묵은 나물이었다.

대보름은 고려시대 9대 속절에 해당되는 큰 명절이었다. 명절 절식은 명절을 기리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이다. 비록 소찬인 나물이지만 그것에도 특별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는 "묵은 나물(호박이나 무 등의 껍질)을 먹으면 더위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세시잡영』에는 호박고지, 박고지, 무말랭이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해동죽지』에는 "옛 풍속에 정월대보름날이면 집집마다 지난해에 마련해 둔 나물을 먹어 일 년 동안의 질병을 없앴으니, 이를 묵은 나물이라고 한다. …… 그 중에서도 검푸른 무시래기, 온갖 병 없애는 최고의 약방문이라네."라는 기록이 주목된다. 이처럼 찰밥과 묵은 나물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보름을 건디도록 하는 주요한 약방문이었다. 특별하게 만든 별식이자 보약을 마련했으니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비록 기록을 통해 민간에서 차례를 지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대부가의 사당차례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찰밥과 묵은 나물로 보름차례를 지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음력 정월대보름날은 일 년 중 가장 좋은 날로 가절(佳節)이다. 보름달을 처음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보름달의 넉넉함처럼 생활도 넉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고사를 지낸다. 보름이라 할 때 그 전날인 열 나흗날부터 대보름날까지를 일컫는다. 이날 민간에서는 '농군의 명절'이라고 한다. 농사준비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풍년을 희구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정성을 기울인다. 이러한 보름에 특별한 절식을 마련해서 집안의 신령을 비롯하여 조상께 고사를 올린다. 열나흗날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고 나누기도 하며, 액막이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오곡밥은 수수, 팥, 조, 찹쌀 등을 넣고 마련한다.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밥을 풍년을 기원하며 먹는다. 그러나 전남 전 지역과 충남의 아산시에서는 집 안에 끼어 있는 액을 막기 위해 먹기보다 집 안 곳곳에 뿌린다. 전라도에서는 이 밥을 '잡귀밥', '거릿밥', '물애밥', '허튼밥', '진대밥', '텃밥'이라고 한다. 특히 집터가 센 집에서는 반드시 마련한다. 아산지역에서는 특별히 부르는 명칭은 없으며 부정을 막기 위해 오곡밥을 뿌린다.

열나흗날 저녁에는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

보름고사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소라실, 2010. 1.15(음), 김효경


장광에 올려둔 정월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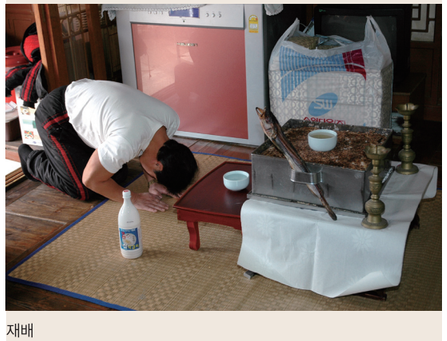

장광에 비손하기

에서 고사떡을 마련한다. '정월떡', '농사시루'라 할 정도로 풍년을 희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때 드리는 고사를 '정월고사'라 한다. 10월에 추수하여 떡을 쪄서 집안 신령을 위하는 것보다 소략하게 행하지만 농사의 첫 시간을 농사시루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깊다. 보통 대보름 이전에 안택을 했기에 정월고사는 안택에 흡수되기도 한다. 그러나 굿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행하기도 하였다.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떡 한 시루를 놓고 집안의 신령께 한 해의 풍년을 희구하였다.

보름고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3리, 2007.1.15(음), 김효경



마루에 정월떡 차리기



재배

대보름날 아침에는 전날 마련한 오곡밥이 아니라 새로 밥을 짓는다. 찹쌀밥이나 흰쌀밥을 짓는다. 이 밥은 풍년을 희구하는 마음에서 짓기 때문에 '농사밥'이라고 부른다. 대보름날 먹는 밥이라 하여 '보름밥'이라고도 한다. 이 밥은 묵은 나물과 김을 반찬 삼아 먹는다. 이들 절식은 명절을 맞아 준비한 것이지만 집 안에 모신 조상과 신령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정성껏 대접한다. 유교 예제에는 없는 전통적인 관행이어서 차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행한다. 전라도,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조상 차례를 올리기 이전에 집안의 여러 신령에게 음식을 올린다.

**지역사례** 대보름의 절식으로 민간에서 대표적인 것은 오곡밥이다. 오곡밥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찰밥과 맥을 함께 한다. 오곡밥이란 명칭은 후대에 붙여졌다. 수수, 조, 찹쌀, 콩, 팥 등을 섞어서 찐다. 이 밥은 열나흗날 저녁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느 날과 달리 일찍 지어 먹어야 농사에서 장원을 한다고 하여 서두른다. 오곡밥은 여러 번 먹어야 좋다고 하여 아홉 번 또는 일곱 번을 먹는다. 남의 집에서 얻어먹어야 좋다고 하여 세 집을 돌며 얻기도 하고 훔쳐 먹기도 한다. 특히 오곡밥은 아이들이 얻어먹으러 다녔다. 버짐이 없어진다고 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이 먹으려 하였다. 버짐이 영양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오곡밥을 얻어먹는 것은 영양보충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오곡밥으로 액을 물리치기도 한다.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서는 '허튼밥'이라 하여 대보름날 아침에 수수, 팥, 조, 찹쌀 등을 섞어서 밥을 지어 먹지 않고 새벽에 집 안 곳곳에 가져다 놓는다. 경남지역에서는 오곡밥 대신 잡곡을 집 주변에 뿌리기도 한다. 집터가 센 것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 한다.

열나흗날 저녁에는 집 안의 장독대에서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고사를 지낸다. 가을시루와 달리 정월시루는 양을 적게 한다. 장광에 놓고 비손한 뒤에 방안의 성주께 가져다 둔다. 한동안 두었다가 떡은 나누어 먹는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소라실에서는 집안 식구를 위해 장광(장독대)에서 치성을 드리고 마당에서 추가로 치성을 드렸다. 사업하는 아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을 위해 마당제를 추가한 것이다. 이처럼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소





보름고사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2007.3.4, 배영동



찬이지만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리고 다양한 의미를 추가하였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는 열나흗날 밤에 새해를 맞아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고사를 지낸다. 이는 '정월고사'로, 팥 시루떡 한 시루를 쪄서 성주와 터주에게 올린다. 제석과 칠성에는 흰 무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쌀가루만을 부어서 찐다. 떡이 쪄지면 제석과 칠성을 위한다. 성주(마루)에 떡 시루를 놓고 대주가 헌작하고 재배한다. 식구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 뒤 떡을 떼어내 집 안 곳곳에 가져다 놓는다. 제석(안방), 대감(마루), 터주(뒤란), 대문간, 외양간, 굴뚝 등에 세 쪽씩 떼어내 접시에 담아서 둔다. 변소에는 떡을 조금 떼어내 던져 넣는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는 열나흗날에 보름떡을 쪄서 나누어 먹는다. 떡을 찔 때 층층마다 식구의 이름을 써놓는다. 떡이 잘 쪄진 층에 이름을 써놓은 사람은 그해에 운수가 좋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층의 사람은 액운이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훗날 심방을 불러 굿을 해준다.

넉넉하게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작게라도 보름떡을 쪄서 고사를 지내는 것에는 농민의 소박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통해 식구의 운을 점치기도 하고 가장 큰 소망인 가정의 안과태평과 풍농을 기원하기도 한다. 집 안의 여러 신령에게 조금씩이나마 떡을 돌림으로써 그들을 든든한 울타리 삼아 생활하고자 한 농민의 소박함이 깃들어 있다.

대보름날 아침밥은 전날 지어 놓은 오곡밥을 먹기도 하지만 찰밥 또는 쌀밥으로 새로 짓는 경우가 더 많다. 대보름 명절이어서 찰밥으로 차례를 지내지만 경기도와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충청도 이남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보름차례'라 하여 조상과 집안 신령께 정성을 올린다. 이때 조상보다는 집안 신령을 위한 상을 먼저 차린다. 조상보다 신령을 우위로 관념하기 때문이다. 함께 상을 마련할 때도 조상보다 성주상에 먼저 음식을 올린다. 지역마다 보름차례의 방식은 다소 다르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서는 성주상은 크기를 작게 할 뿐 조상상과 동일한 제물을 올린다. 비린 것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산적이나 생선 등은 마련하지 않는다. 또 조상상에는 고깃국을 올려도 나머지 신령을 위하는 상에는 멸치로 국물을 내어 국을 마련한다. 성주상에는 밥만 한 그릇 올릴 뿐 수저는 올리는 않는다. 신령은 냄새로 운감하므로 수저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조상상은 모시는 조상의 수대로 밥을 마련해 올린다. 이때 밥그릇 중앙에 숟가락을 꽂아 둔다. 잔을 올리고 단배를 하기도 하고 절을 하지 않기도 한다. 성주상 이외에 장광의 터주께도 동일하게 제물을 마련해 올리기도 하지만 거의 드물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에서는 일 년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벽 3시에 찰밥, 국, 탕을 각기 솥째 준비한다. 일찍 준비하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준비한 음식은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서는 찰밥을 큰 양푼에 가득 담아서 방안의 윗목 방바닥에 놓는다. 밥 위에는 숟가락을 있는 대로 모두 꽂고 전날 지은 오곡밥도 남아 있으면 한 그릇 퍼다 놓는다. 상만 차려 둘 뿐 절은 하지 않는다.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에서는 방 안에 선영상, 성주상, 지앙상을 차린다. 조상상 아래에는 존자리를 깐다. 이 자리는 조상과 삼신을 위할 때만 깐다. 오른쪽에 성주상, 왼쪽에 선영상을 놓는다. 상 사

이의 빈 공간에는 짚을 깔고 삼신상을 올린다. 산모가 있다면 미역국을 끓여 올린다. 상 위에는 조상 수대로 밥과 국을 올린다. 성주상에는 밥과 국을 각기 한 그릇씩 올린다. 조상상 앞쪽에는 오곡밥과 쌀밥을 큰 양푼에 각기 가득 담아 놓고 집에 있는 숟가락을 모두 꺼내서 꽂아 둔다. 이것은 조상과 함께 다니러 온 잡귀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에 올리지 않고 땅에 놓는다. 그런 다음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조상상과 더불어 성주상을 마련한다. 집 안에 시준을 모시고 있다면 시준상도 함께 마련한다. 부엌에는 조왕을 위해서도 별도의 상을 차린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래리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보름밥'을 짓는다. 메밥과 찰밥을 각기 지어 한 그릇씩 올린다. 부엌의 조왕에서 밥을 짓기 때문에 조왕께 먼저 제물을 올린다. 조왕소지를 올린 뒤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그러고 나서 방 안에 조상상을 올린다. 양푼에 밥을 가득 담고 숟가락을 꽂아 둔다. 이 밥은 마당에서는 놓지 않는다.

**의의** 대보름날에는 만월(滿月)이 상징하는 풍요함을 통해 농사의 풍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염원이 어우러져 많은 의례로 표출되었다. 만월의 충만함을 통해 자신들의 삶도 풍만하고 여유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군들은 보름을 자신의 명절로 관념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해의 시작이므로 열나흗날부터 만전을 기해 준비한다. 보름고사를 통해 집 안에 복을 초치하고,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마련해 나누어 먹으면서 한 해의 건강을 확보하고 풍요로움을 만끽한다. 보름날 아침에는 찰밥을 마련해 차례를 모신다. 조상뿐만 아니라 집안의 성주, 삼신께도 상을 올린다. 전통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유교식으로 거행하지 않는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또 한 번 집안의 신령께 정성껏 의례를 베푸는 것이어서 격식은 무관하다. 푸짐하게 마련한 밥을 잡귀잡신에게까지 풀어먹이는 넉넉함 속에서 새로운 한 해의 넉넉함을 준비하는 셈이다.

**참고문헌** **牧隱集, 보름차례**(김호태, 한국의 세시풍속사전-정월, 2005), **음력 정월 세시풍속과 가정주부**(김효경, 샤머니즘연구 5, 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조선대세시기 1**(국립민속박물관, 2003), **충남가정신앙의 유형**(이필영, 샤머니즘연구 3, 2000), **한국세시풍속 1**(김명자, 민속원, 2005),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5~2008).

**필자** **김효경(金孝慶)**

## 복대

상호참조 농신제(101쪽)

**정의** 복제(伏祭)를 지낼 때 논밭에 꽂는 제구. 강원도 복제에서 주로 사용되며, 다른 지역의 농신제(農神祭)에서도 사용된다. 복대는 위목의 일종으로, 깃대 끝에 매단 한지나 무명천 등에서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신을 표시하는 신표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신이 좌정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논밭에서 복대를 먼저 꽂은 다음에 그 앞에다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내는 사례가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논이나 밭에 꽂혀있는 복대는 복제를 지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형태** 복대는 나무 막대와 한지로 만든다. 나무 막대의 재료로는 대나무, 삼대, 수숫대, 미루나무, 버드나무, 뽕나무대, 솔가지, 싸리나무 등 다양하다. 재료가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깃발로는 주로 한지를 많이 사용하며 흰 무명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깃대는 논에 있는 벼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전체 길이는 보통 1m 안팎이다. 깃대에 꽂는 종이는 좁고 길게 오려서 나무 막대 끝이나 나뭇가지에 묶어 놓는다. 길이는 일정하지 않다. 복대는 깃대로 사용하며, 제물을 바칠 때는 제단 역할도 한다. 즉 세 개의 대를 삼발이처럼 묶어서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치기도 하며, 나무 막대 끝에 떡이나 전을 끼워서 세우기도 한다.

**내용**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에서는 복제를 지낼 때 싱싱한 뽕나무 가지를 베어서 여기에 소지(한지)를 묶어 복대를 만든다. 이 복대는 복제를 지낼 때 논두렁에 깊이 꽂아 둔다.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에서는 집에서 부치는 밭 가운데 가장 큰 밭으로 나가 귀퉁이에 싸릿대로 만든 복대를 꽂고 복제를 지냈다. 복대는 주로 싸리나무로 만든다.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리나무를 1m 정도 크기로 잘라 깃대를 만들고, 한지를 성인 남자 두 뼘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깃대 끝에 묶어 매달았다. 복제를 지내러 갈 때 주로 아이들이 따라 갔으며, 복대의 길이는 어린아이의 키와 비슷했다. 밭에 꽂혀 있는 복대는 복제를 지냈다는 표시라고 한다. 복대는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고 비바람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그냥 두었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는 초복에 노티를 구워 복제를 지낸다. 노티는 뒤집은 솥뚜껑 위에 기름을 바른 뒤 수수쌀 등의 찰곡가루 반죽을 조금 떼어 얇고 넓게 펴서 구운 떡이다. 깃대는 한지를 길쭉하게 오려서 나무 막대에 매달아 만든다. 복제는 논이나 밭에 깃대를 꽂은 다음 노티를 놓고 "논에는 국가용신, 밭에는 사신용신 그저 이 떡을 받아 잡숫고 그저 나락이 한 가지에 천천만 가지 열게 해 주시오. 국가용신이오." 하면서 빈다.

초복뿐만 아니라 중복, 말복에도 복제를 지낸다. 종이를 대꼬챙이나 싸리꼬챙이에 매어서 깃대를 만들어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가져다 꽂고, 떡을 뜯어 바치며 지낸다. 금년에 농사를 대풍장으로 이루게 해 달라든지 나락이 아주 잘 여물게 해 달라면서 축원하고 빈다. 복제를 잘 지내면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와 "야, 이 집이 제사를 잘 지냈구나." 하고 물을 잘 내려주고 복을 내려줘서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유월유두에도 복제를 지낸다. 먼저 집안의 세존단지 앞에서 백설기를 시루째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그 떡을 썰어서 논이나 밭에 가져가 깃대를 꽂고 떡을 조금씩 뜯어서 논밭에 둔다.

세존은 농사신으로서 집안의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예부터 유월유두에는 세존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복제는 논이나 밭에 깃대를 꽂고 들신에게 지내는 것이다. 복제이기 때문에 초복에 지내는 사람도 있다. 깃대는 논과 밭마다 꽂아 놓는다. 축원은 금년에 행운을 주고, 대주 생기를 주고,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한다. 세존은 도장이나 윗방의 살강 위에다 항아리에 벼 또는 곡식을 가득 넣어서 모신다. '세존할미'라고 하는 것을 보아 여신일 가능성이 크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세존단지에 햇벼를 가득 채운다. 이 벼는 유월유두날 꺼내 찧어서 복제를 지낸다.

강원도나 경상도지역의 경우 복제를 지낼 때 삼대나 수숫대, 미루나무대, 버드나무대를 삼발이처럼 묶어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거나 막대기에 떡을 꿰어 두기도 한다. 이 대에는 흰 종이나 천을 매달아서 제사를 마친 뒤에도 치우지 않고 논 가운데나 물꼬 앞에 꽂아 두어 제사 지냈음을 표시한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1리 새터에서는 용제에서 솔가지를 꺾어다가 종이를 붙여서 논 가운데나 두렁에 꽂고 그 위에 제물을 마련한다. 울진군 울진읍 온양2리에서는 특별히 '노티'라는 전을 부쳐 제사를 지낸다. 꼬챙이에 종이를 달아 논 가운데 꽂아 두고 그 아래에 구멍을 파서 종이에 싼 노티(전)를 묻는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지역에서는 초복을 맞아 농신제 또는 복제라 하여 기름 냄새가 나는 떡을 만들어 가장 큰 논(밭) 중앙에 1m 정도의 버드나무대를 삼발로 묶어세운 뒤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흰 천을 매달아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날 하루는 일꾼들을 잘 대접했다고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집안의 남자 어른이 대나무를 잘라 다듬어 소지나 무명천을 감아 복대를 만든다. 복제를 지낼 때 논밭의 중간이나 물꼬에 복대를 꽂는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 복대 앞에 두거나 땅에 묻는다.

**참고문헌** **삼척민속지 1~7**(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8),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김진순(金鎭順)**

## 복물뜨기

표제어 용알뜨기(519쪽)

## 복숭아나무

**정의** 주술적인 기운이 있다고 여겨 나뭇가지 등으로 도구를 만들어 나쁜 귀신과 재앙을 쫓는 데 사용하는 나무.

**유래** 복숭아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인 과수로, 악귀를 쫓을 뿐만 아니라 열매는 신선이 먹는 불로장생의 선과(仙果)라 하여 고대 중국에서부터 주술적인 나무로 신성시해 왔다.

기원전 4세기쯤에 지은 『산해경(山海經)』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동해에 떠 있는 도삭산(度朔山)에 사방 3천리에 걸쳐 가지와 잎이 퍼진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낮게 드리운 가지에는 귀신이 드나드는 귀문(鬼門)이 있고 두 신이 그 문을 지켰다. 그 신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귀가 있으면 갈대로 끈을 묶어 복숭아나무로 만든 활을 쏜 뒤 호랑이에게 먹히게 했다. 이에 나라에서는 연말에 액을 모두 물리친 뒤 문 앞에 복숭아나무를 세워서 문에 두 신과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갈대로 만든 끈을 걸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또한 기원전 2세기쯤의 문헌인 『회남자(淮南子)』에 보면 하(夏)나라에 천자 자리를 빼앗고 악정을 펼쳐 백성의 원망을 산 인물이 있었다. 어떤 이가 복숭아나무로 만든 큰 방망이로 그를 후려쳐 죽게 하였는데, 이 일이 있은 뒤로 귀신은 복숭아나무를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도교에서는 복숭아를 신선이 먹는 불사(不死)의 과일이라 하여 천도(天桃), 선도(仙桃) 등으로 불렀다. 이로 인해 "복숭아나무에서 나는 진을 뽕나무 재의 즙에 절여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포박자(抱朴子)』), "고구공(高丘公)이 복숭아나무 진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열선전(列仙傳)』)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특히 복숭아가 지닌 불로장생의 상징은 서왕모와 동방삭의 전설로 유명하다. 중국 상상의 산인 곤륜산(崑崙山) 서쪽에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불사의 명약으로 3천 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는 복숭아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신선술을 좋아한 한 무제(漢武帝)는 그녀를 만나 복숭아를 얻어먹지만 살생을 많이 하고 수행이 부족하여 신선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제의 부하인 동방삭(東方朔)은 서왕모의 천도를 훔쳐 먹고 삼천갑자를 살아 장수의 상징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복숭아나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초기 기록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들 수 있다. 이 책 권5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조의 신라 건국신화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불로장생의 복숭아가 열리는 선도산의 선도성모 사소(娑蘇)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시조를 출산하고 나라를 창건하게 한 성모의 신성한 힘에 복숭아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권2 가락국기(駕洛國記)조에는 가야의 왕비가 된 허황옥(許皇玉)이 하늘의 계시에 따라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바다에서 증조(蒸棗, 대추)를 구하고 하늘에서 반도(蟠桃, 복숭아)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후손 번창을 의미하는 대추와 함께 복숭아가 국모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징표로 등장한다.

복숭아나무가 축귀(逐鬼)와 불로장생이라는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니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즉 복숭아는 오목(五木) 가운데 가장 정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찬 기운이 남아 있는 이른 시기에 봄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양기 충만한 나무이기 때문에 귀신과 같은 음기를 쫓는 힘이 강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양목(陽木)의 속성과 더불어 복숭아의 생김새가 여근(女根), 여체를 연상케 하고 열매가 많아 강한 생산력과 생명력을 지닌 여성성을 상징하게 되어 불로장생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쪽으로 뻗은 가지[東桃枝]는 축귀의 힘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 해가 뜨는 동쪽은 만물이 소생하는 근원이어서 양의 기운과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내용** 복숭아나무는 대부분 민속신앙에서 삿된 기운과 귀신을 쫓기 위한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귀신에 복숭아나무 방망이'라는 속담이 전승되고, 홍만선(洪萬選)이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복숭아나무는 백귀(百鬼)를 제압하니 선목(仙木)이라 부른다."라고 했듯이, 복숭아나무가 각종 잡귀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되었다. 복숭아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부적 · 도장과 각종 공예품 등으로 만들어 이를 호신용으로 지니거나 주변에 붙임으로써 귀신의 근접을 막는 방법, 빗자루 · 활 · 칼 등으로 만들어 직접 귀신을 몰아내는 행위를 하는 적극적인 퇴치 방법이 있다. 복숭아나무는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가 효험이 크다고 하여 동도지(東桃枝)를 쓰는 것이 관례이다.

복숭아나무로 만든 부적을 '도부(桃符)'라고 한다. 부적 자체를 복숭아나무로 만들기도 하지만 부적을 새길 때도 복숭아나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육갑부적(六甲符籍)은 복숭아나무로 만든 도목검(桃木劍)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나무를 깎아 검을 만든 다음 참기름과 결명주사[丹砂]를 여러 번 바르면 윤기가 나면서 진검 못지않은 기운이 돌게 된다. 이 칼로 부적을 그리면 주술적인 힘을 얻는다고 보았다.

무속의 굿판에서도 잡귀를 물리칠 때 복숭아나무 가지가 중요한 무구(巫具)로 등장한다. 부정 · 동토 · 삼재 등 각종 풀이나 푸닥거리, 비손 등에서 무당이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고 부정이 발생한 곳으로 여기는 공간의 곳곳을 쳐내거나 귀신에 씌었다고 여기는 환자를 나뭇가지로 때리면 잡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점복에 사용하는 윷[擲栖]이나 무당이 물에 빠진 사람의 넋을 건지는 데 쓰는 넋대 등 각종 무구도 복숭아나무로 만들었다. 재앙을 쫓는 데 복숭아나무가 영험하다는 속신은 보편적이어서 무속인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복숭아나무를 사용하는 주술이 각종 세시풍속과 통과의례 등에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세시풍속** 세시풍속에서는 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연말연초에 삿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도구로 복숭아나무를 많이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수세(守歲)〉라는 시에는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꽂음이 얼마나 기이한가(門上插桃何詭誕)"라는 구절이 나온다. 수세는 섣달그믐날 밤을 새우는 것으로, 해가 뜨는 시점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대문 위에 꽂아 재앙을 물리친 당시의 풍습을 담고 있다. 이때 대문 위에 꽂은 복숭아나무 가지는 부적으로 만든 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중국에서는 섣달그믐날에 복숭아나무로 만든 판자에다 갈대로 꼰 새끼줄을 든 두 신상(神像)과 호랑이를 그려서 대문에 붙이고 잡귀를 막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은 도삭산의 복숭아나무 관련 전설을 반영한 것이다. 이 도부가 점차 종이에 그림과 글씨를 담는 것으로 변하여 입춘 때 입춘부(立春符), 입춘방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민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려사(高麗史)』 권63 제17 길례 소사(小祀) 사한(司寒)조에 따르면 "맹동과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거나 꺼낼 때 제사를 올린다. 제사하는 날에 상림령(上林令)이 복숭아나무로 만든 활과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을 빙실(氷室) 문 안 오른쪽에 마련해놓고 제사가 끝나도록 그대로 둔다."라고 하였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대에 얼음은 부패를 막아 건강을 지켜 주는 소중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얼음을 빙실에 저장하거나 꺼낼 때 북방의 신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사한제(司寒祭)를 올렸는데, 이때 복숭아나무 활과 가시나무 화살인 도호극시(桃弧棘矢)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복숭아나무의 벽사력과 가시나무의 날카로운 침이 악귀를 쫓는 무기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연말연시에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복숭아나무로 비를 만들어 잡귀를 축출하고 신년을 맞는 민간 풍습이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다. 대궐에서도 세모(歲暮)가 되면 역귀와 악귀를 쫓기 위해 구나희(驅儺戲)라는 축귀의식을 행했다. 이때 복숭아나무가 중요한 축귀 도구로 사용되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기록된 구나희의 풍습을 살펴보면 섣달그믐날 10여 명의 어린아이들로 진자무리[侲子群]를 조직하여 홍의홍포(紅衣紅布)를 입힌 뒤 궁중에 들여보내 역귀와 잡귀를 쫓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아이들은 푸른 댓가지, 싸릿대, 익모초 줄기, 복숭아나무 가지를 모아 만든 빗자루를 들고 발을 구르며 문짝마다 쓸고 다니면서 악귀를 문 밖으로 쫓았다. 이러한 풍습을 방매귀(放枚鬼)라고 불렀다.

정월대보름날에는 가축의 질병과 더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 돼지, 개 등의 목에 왼새끼줄이나 복숭아나무 가지로 둥글게 목서리(목도리)를 만들어 걸어 주었다. 벽사(辟邪)의 주술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긴 복숭아나무와 왼새끼를 활용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더위와 각종 재액도 예방한 것이다. 또한 삼월삼짇날에 복숭아꽃 한 말 한 되를 따서 도화주(桃花酒)를 빚어 마시거나 복숭아잎을 삶은 물인 도화탕(桃花湯)에 목욕하면 악귀와 만병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이는 삼짇날(음력 3월 3일)이 양수(陽數)인 3이 겹쳐 양의 기운이 충만하고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어서 그 기운을 빌려 음기를 물리치고자 한 것이다. 바깥에서 소를 몰고 올 때 복숭아나무 가지로 때리면서 집에 들어오는 칠월칠석날 풍습 역시 강한 양기로 음기를 쫓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 백중(百中)인 칠월 보름(7월 15일) 저녁에는 복숭아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이날 복숭아를 먹으면 집 안에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잇병 예방뿐만 아니라 인물이 좋아진다는 속설 때문이다.

**통과의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치르

는 통과의례에서도 복숭아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복숭아나무는 벽사와 축귀는 물론 봄의 생명력과 장수를 상징하여 복숭아 문양의 공예품이나 그림 등이 돌이나 혼례부터 수연(壽宴)에 이르기까지 즐겨 사용되었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갓 낳은 아기에게 복숭아꽃과 흰 눈으로 세수를 시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돌잔치를 할 때 아기의 액운을 막기 위해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한 '수수살맥이'를 하였다. 즉 수수로 붉은 단자(團子)를 만들어 복숭아나무 화살에 꿴 뒤 동서남북으로 쏘아 날리면 병마와 잡귀가 멀리 달아나 아이가 무병장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복숭아나무로 자물쇠 모양을 만들거나 복숭아 문양의 돌반지를 만들어 악귀의 침범을 막기도 하였다.

혼례에서는 신행(新行)을 갈 때 신부가 탄 가마가 시집 대문 앞에 다다르면 복숭아나무 가지를 쥐고 기다리던 무당이 달려들어 가마를 마구 때려 잡귀를 쫓아낸다. 그러고 나서 신부는 대문 앞에 피워 놓은 불을 뛰어 넘음으로써 정화의식을 거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풍습을 '행차물림'이라고 한다. 특히 복숭아는 장생불사를 상징하는 선과(仙果)라 하여 수연에 장수를 기원하는 수복(壽福)의 각종 장식물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또한 상(喪)이 났을 때도 방에서 시신을 밖으로 옮기는 출상을 하기 직전에 복숭아나무 가지로 관을 두드리고 방 안의 네 구석을 휘저어 잡귀를 몰아낸 다음 관을 옮겼다. 망자의 생년과 죽은 날의 일진(日辰)이 겹치는 중복에 걸려 있으면 경쟁이를 불러 중복경을 읽어 풀어 주는데, 이때도 복숭아나무 가지로 두드리며 경을 읽어야 효험이 있다고 보았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도 임금이 상가를 방문할 때 복숭아나무와 갈대 이삭으로 잡귀를 쫓았다는 기록이 있다.

**치병** 복숭아나무는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쓰였는데 특히 귀신이 들었다고 여긴 정신병에 이용되었다. 병의 치료에는 주로 무당이나 맹인이 동원되었다. 병이 가벼우면 복숭아나무 가지로 머리나 얼굴을 쓰다듬었고, 정신병자의 경우처럼 병이 심하면 며칠 동안 독경이나 기도를 한 다음 "귀신은 썩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복숭아나무 가지로 환자를 때려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치렀다. 이로 인해 간혹 맞아 죽는 예도 있어 '복숭아 몽둥이로 미친 놈 때리듯 한다.'는 속담은 사정없이 심하게 때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때로는 복숭아나무로 칼을 만들어 귀신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질에 걸리면 아침 일찍 환자를 동향으로 앉히고 복숭아나무 가지로 등을 때리면서 "초학귀신아! 학질귀신아! 어서 썩 물러가라." 하며 쫓았다. 이를 '초학뱅이'라고 한다. 전염병이 돌 때는 복숭아나무로 만든 화살 모양의 부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거나 방 안에 걸어두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민속도 있다. 이러한 풍습과 관련하여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마을에 한 청년이 귀신에 씌어 밤낮으로 미치광이처럼 쏘다니자 청년의 장인이 복숭아나무 가지를 잘라 장도(長刀) 모양으로 만들어 청년의 목을 베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청년이 땅에 쓰러져 사흘 동안 혼수상태가 되었다가 살아나더니 광태(狂態)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 밖에도 복숭아나무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여러 속설이 민간에 전한다. 복숭아잎에 '하늘 천(天)'자를 쓴 뒤 종이에 싸서 버리면 주운 사람이 병을 가져간다고 보았다. 또 나뭇가지를 꺾어 해 뜨는 방향에 꽂아 두면 학질이 없어지고, 나뭇가지로 환자를 때려 신체에 상처를 내면 장질부사(장티푸스)에 효험이 있다고 보았다. 냉병(冷病)에는 복숭아나무의 진을 내어 먹거나 복숭아나무를 사타구니에 끼고 앉아 하룻밤을 새우면 낫게 된다고 한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탕액편(湯液篇)」에도 이러한 벽사 · 축귀의 기능이 강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복숭아꽃은 귀신에 씌었거나 다른 혼이 빙의된 시주(尸疰)와 악귀를 죽이고, 나무에 달린 채 마른 복숭아는 온갖 헛것에 들린 것을 없앤다고 한다. 또 복숭아털은 악귀와 사기(邪氣), 복숭아나무 벌레는 귀신, 속껍질은 사귀(邪鬼)를 없앤다고 함으로써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데 복숭아나무가 효과를 지녔음을 적고 있다.

치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숭아나무가 미와 건강을 유지해 주고 정력과 생식력을 강화해 주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처녀가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예뻐지고 속살(음부의 살)이 찌며, 삼짇날 복숭아꽃을 따서 음지에 말려 복용하면 안색이 좋아져서 세 그루의 꽃을 다 먹으면 얼굴빛이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고 생기가 돌게 된다고 한다. 복숭아잎 삶은 물로 뒷물을 하면 음력이 강해지고, 복숭아나무를 사타구니에 끼고 앉아 밤을 새우면 정력이 강해지며, 자일(子日)에 복숭아 속씨를 한 알씩 먹거나 정해일(丁亥日)에 딴 복숭아꽃을 음지에 말려 가루를 낸 뒤 무자일(戊子日)에 샘물에 타서 마시면 아들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모두 복숭아나무가 양기와 생명력이 충만하고 과일의 형상이 여성의 성적 상징을 닮은 데서 비롯된 속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금기**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귀신을 쫓아서는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금기의 민속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는다. 이는 조상신이 찾아왔을 때 복숭아나무가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소설 〈흥부전〉에는 놀부 부부의 극에 달한 심술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이 제사상에 숯불을 피우고 복숭아를 괴어 놓는 장면이 등장한다. 숯불과 복숭아는 혼백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어서 제사상에 혼백을 쫓는 복숭아를 올려놓았으니 불효 또한 막심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한 복숭아의 형상과 연분홍 색깔이 성적 상징을 연상케 하여 도색(桃色)이라는 말로 남녀 간의 색정을 나타낸다. 제사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과 집 안에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에는 복숭아의 이러한 특성도 작용하고 있다. 담장 밖에 복숭아나무를 심을 때도 금기가 있다. 서쪽이나 북쪽에는 함부로 심지 않고 주로 동쪽에 심었으며, 나무가 지붕보다 높아지는 것을 꺼렸다. 이와 더불어 방위에 따라서 태방(兌方)인 서북쪽에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흉하고, 손방(巽方)인 동남쪽에 심으면 길하며, 감방(坎方)인 북쪽에 심으면 여난(女難)의 재앙이 생긴다는 속설이 전한다. 또한 축귀나 치병 외에는 복숭아나무 가지로 매질하는 것을 금하였고 서당에서는 복숭아나무 회초리로 매질을 하면 학동들의 재주가 달아난다고 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遺事,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2 · 3(이상희, 넥서스, 2004),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복숭아나무의 민간신앙 연구**(안병국, 온지논총 15, 온지학회, 2006), **충남 태안지역의 안택과 병경**(임승범,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한국문화상징사전**(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식물**(최영전, 아카데미서적, 1997),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구미래(具美來)



## 복제

표제어 농신제(101쪽)

## 부루단지

**정의** 가정에서 곡식을 담아 집안에 정해진 위치에다 모셔두고 조상신으로 여기는 단지.

**내용** 부루단지는 부리단지, 부리동우, 부릿동우, 부룻단지, 부루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조상신을 모시는 항아리라는 뜻으로 조상단지, 신줏단지라 부르기도 한다. 불교와 연관이 있을법한 명칭으로 세존(世尊)단지, 시준단지, 제석(帝釋)단지, 제석오가리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단지 안에 곡식을 담아 주로 대청(大廳)에 모신다. 대청이 없는 집에서는 안방의 농 위에 모시기도 하고 선반을 따로 만들거나 시렁 위에 올



**부루그릇**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정동마을, 1999.7, 서해숙

부루단지(조상단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기마을, 2005.9.24, 박성석



경남 진주시 문산면 소문리 서정마을, 2005.9.13, 박성석



경남 고성군 대가읍 유흥리, 2005.9.11, 박성석

려놓기도 한다. 특별히 두서 말들이 큰 독에다 모시는 경우에는 부엌에 모신다.

일반적으로는 조상단지와 부루단지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 쓰는 곳이 많다. 일부 영남지방에서는 조상단지와 부루단지를 구분하여 조상단지는 윗대 조상신을 모시는 것으로 종가(宗家)나 장남의 집에서 모시고, 부루단지는 각 가정에서 부모 중심의 조상신을 모시는 소규모 조상단지의 개념으로 모시는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제석항아리, 업항아리, 대감항아리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이때 모시는 신은 특정한 조상신이라기보다 막연히 윗대 조상신을 모신 항아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부루단지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까닭에 훼손 없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모시던 것을 며느리가 대를 이어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루단지는 곡식이 한 되도 채 들어가지 않는 작은 단지부터 서너 말들이의 큰 독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부루단지에 사용되는 단지를 특별히 따로 제작하지는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독(단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평범한 옹기를 부루단지로 쓴다. 부루단지의 형태는 간단하게 단지 뚜껑만 덮기도 하지만 단지의 주둥이를 깨끗한 한지로 덮고 오색실로 묶은 뒤에 뚜껑을 덮어 놓은 형태가 많다. 정성을 들여 부루단지 뚜껑 위에 다시 고깔을 만들어 씌우고, 고깔 위에다 오색실이나 염주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두서 말들이의 큰 독을 부루독으로 신앙하는 경우에는 하얀 천으로 항아리의 입구를 덮은 뒤에 왼새끼 줄로 묶어 봉하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다.

부루단지는 민간신앙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역사적 근원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민속사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집안의 부녀자를 중심으로 부루단지를 모시고 있다. 부루단지가 파손되거나 집안에 부정(不淨)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가시기'라고 할 수 있는 굿을 하고 나서 부루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부루단지를 위한 의례(儀禮)는 집안마다 다르지만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햅쌀을 정성스럽게 갈아 담는 점은 공통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리농사가 끝나면 묵은 쌀을 들어내고 햇보리로 갈아 넣는 경우도 있어서 1년에 두 번 단지 안의 곡식을 바꾸기도 한다. 곡식을 바꾸어 넣을 때는 무속인을 불러 비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부루단지를 모시는 부녀자가 직접 내용물을 바꾸어 담는다. 이때 부루단지에서 꺼낸 곡식은 밥을 지어먹는다. 이 밥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 복이 나간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때때로 부루단지 앞이나 뚜껑 위에 조과(造菓), 과일 등을 차려 놓기도 하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별미(別味)가 생기면 먼저 부루단지에 천신(薦新)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명절에는 메, 갱, 떡도 한 접시 차린다. 이와 같은 곡물과 음식 중심의 부루단지 신앙은 귀한 것을 조상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조령(祖靈)숭배정신과 농경민족의 속성을 반영하는 곡령(穀靈)숭배신앙의 복합적인 신앙형태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한국민속의 이해**(박성석, 경상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1978),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박성석(朴性錫)**

## 부적(符籍)

상호참조 삼재부적(274쪽)

**정의** 종교 이전부터 존재한 신통력 있는 주물. 흉신(凶神), 사귀(邪鬼)를 쫓고 재액(災厄)을 예방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말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부(呪符) 또는 부주(符呪)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부적(符籍)이라고 한다. '부신 부(符)'자와 '서적 적(籍)'자로 무엇인가로 표시한 문서나 물건이라는 뜻이다. 부적은 천상(天上)의 원적을 이승의 현세에 맞추어 바꾸려는 장치로도 이해된다. 일부에서는 부작(符作)이라고도 한다. 이는 부적을 비롯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입체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둑방지 부적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숯둔골
2003.5.27
코리아루트

**역사**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면서 간절한 염원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生命)유지 욕구와 의지가 하나의 상징적 도상(圖像, 이미지)으로 표출된 것이 부적이다. 부적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상과 종교적인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부적의 태동기 – 상고시대(上古時代), 고조선

울주 반구대 암각화나 견갑형 동기에 묘사된 작살에 찔린 고래와 창에 찔린 사슴이 부적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어로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소망의 부적으로 판단된다.

고조선의 부적으로는 천부인(天符印)과 도부(桃符)가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紀異)」의 첫 머리에는 고조선 단군(檀君)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천부인'은 경(鏡, 공명), 검(劍, 정의), 영(鈴, 사랑)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국가를 세우는 데 기본이 되는 사상을 상징한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지니는 물건인 천부인은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의 특성상 종교적인 도구이자 정치적인 상징물로서 부적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오늘날 무속제의인 굿에서는 방울, 칼, 명두(거울)가 무구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도부가 고조선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기원을 밝히고 있다. 도부는 말 그대로 복숭아 부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복숭아가 지닌 주력을 이용하려는 의지의 투영으로 해석된다. 복숭아는 대표적인 축귀(逐鬼) 주술도구로, 복숭아의 축귀력에 대해서는 여러 고전(古典)에서도 나타나 있다. 홍만선(洪萬選)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도(桃)는 백귀(百鬼)를 제압하니 선목(仙木)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궁중에서 세말(歲末)에 행하는 악귀 퇴치인 구나희(驅儺戱)를 행할 때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로 비를 만들어 귀신을 때려 쫓아내는 행위를 한

다."라고 기록하였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임금이 상가를 방문할 때 도열(桃茢, 복숭아나무 가지와 갈대이삭)로 잡귀를 쫓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 여성종합백과사전인 『규합총서(閨閤叢書)』의 「소국주방」문에도 술을 담근 뒤 동도지(東桃枝)로 저어 술맛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고 기록하고 동토를 잡을 때도 동도지를 잘라서 동토귀를 축출하였다고 한다.

**부적의 구체화 시기 –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시작된 처용의 화상(畫像)은 자생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적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엄밀히 말해 벽병부(辟病符)라 할 수 있는 처용의 화상은 부적 기원으로 삼을 수 있다.

『삼국유사』 권1 처용랑 망해사조에 역신을 물리치는 처용부와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신라 49대 헌강왕(875~886 재위) 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 그의 부인을 범한 역신을 가무(歌舞)로 용서하자 이에 감복한 역신이 처용의 형용만 보아도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처용의 화상은 훗날 널리 사용된 천중적부(天中赤符), 단오부(端午符)의 기원이 된다. 역병(疫病)이라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안해낸 처용은 질병부(疾病符)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용 화상은 오늘날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염병불입부나 백살동토부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 건축물이나 공예품에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귀면문은 벽사부이다. 귀면문은 중국의 은나라 이후 청동기 문양으로 된 도철문(饕餮紋, 두 개의 눈을 주체로 한 중국 고대의 기이한 무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귀면(鬼面)의 모습은 흔히 치우(蚩尤)로 표현되는 신인(神人)과 흡사하다. 치우는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황제 시대의 무장으로, 그의 용맹성 때문에 벽사의 신으로 모신다. 귀면문 와당은 삼국에서 모두 보이지만 그 가운데 신라의 귀면문 와당이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주문부적이 있다. 신라시대의 주문부적으로 『삼국유사』에 제26대 진평왕(579~632 재위) 대에는 전 대왕인 진지왕의 혼백과 도화녀 사이에서 출생한 비형랑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비형랑과 연관되어 대문에 붙여져서 귀신을 물리친 문자부가 귀신 불침부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때의 주문부적으로는 『구루신서(岣嶁神書)』(구루는 고구려의 성(城)을 지칭)의 '귀신 울음소리를 쫓는 방법'이 남아 있다. 부지깽이 한쪽을 깎아 신장이 귀신을 때리고 죽여서 쫓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문을 주사(朱砂)로 써서 상 밑에 넣어 두는 것이다. 신라 말엽에 밀교와 함께 밀교부적이 전래되었다. 대표적인 밀교부적으로는 석가탑 사리함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옴마니밧메훔 부적', 즉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 있다.

이 밖에도 백제 때 저승으로 간 혼백을 이승으로 부르기 위해 지전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있다. 지전은 종이돈을 말하며, 혼을 부르는 데 이용되는 주물로서 부적의 일종이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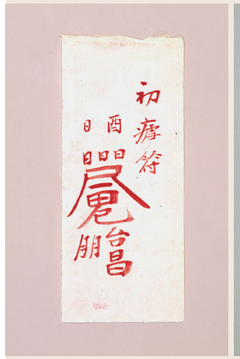
변소짓기 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붙인 부적 경북 영주시 순흥면, 2005.7.10, 김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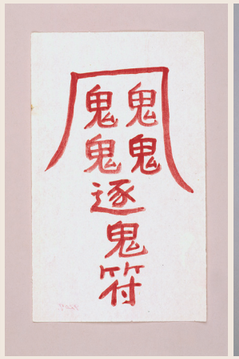
부적 국립민속박물관



초학부



백사동토부



축귀부



염병불입부



유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한시 〈곡자(哭子)〉에서도 나타난다. 또 통일신라 때의 분묘에서는 호석(護石)의 벽사부 기능을 볼 수 있다. 김유신묘와 성덕왕릉에서의 십이지신상 및 호석이 그 예이다.

**부적의 정형화, 융성기 – 고려시대**

호국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부적과 용주사탑에서 나온 부적들을 통해 외침(外侵)의 극복과 개인의 발원이 부적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쇄물의 발달로 오늘날 널리 알려진 종이부적이 등장하였으며, 종이부적의 가시화는 부적의 변화에 큰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고려는 호국 불교를 국교로 삼고 국가를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 재액소멸, 질병제거의 염원을 불법에 호소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과 불설팔만대장경목록판에 수록된 부적이다. 또한 12월이 되면 국가적으로 나례(儺禮)를 베풀었다. 섣달그믐을 기해 궁궐에서 베풀어진 대나의(大儺儀)는 연극적인 요소가 추가된 축귀 의례이다. 이때 액을 막는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방상시[方相氏]이다. 방상시는 잡귀 구축을 하는 주인공이다.

불가살이(不可殺伊) 부적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격변기와 관련된 부적이다. 죽일 수 없다고 하여 '불가살(不可殺)이'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다. 이 동물 부적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사(不死)의 상징으로 쓰인다. 벽사(辟邪)의 동물로 알려져 벽병부로 쓰였다. 고려 18대 의종(1146~1170 재위) 대에 닭 그림 부적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에 남아 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사내아이를 낳으려면 수탉 꽁지 3개를 뽑아 몰래 부인의 자리 속에 넣어 두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닭은 태양을 상징하여 밝음을 알려주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음귀를 쫓아내는 벽사력이 있는 동물로 여긴 것이다.

**부적의 저변기, 확산기 –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에도 불구하고 왕실부터 사대부를 비롯하여 서민에 이르기까지 부적을 이용하였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각종 종교에서도 다양하게 부적을 이용했다. 이전 시기와 달리 부적이 특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등장한다.

세시풍속(歲時風俗)과 관련하여 세화(歲畫)와 문배(門排), 입춘첩(立春帖)과 단오첩이 있다. 세화가 한 해를 축하하기 위한 성향이 강하다면 문배는 액막이의 기능이 강하다. 설날에는 항간에서 벽 위에 닭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비는 세화풍습을 행하였다. 도화서에서는 수성, 선녀, 직일신장 등의 그림을 임금에게 드리거나 서로 선물했다. 이것을 세화라고 하였다. 문배로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처용과 중국의 축귀신인 종규, 중국의 문신인 울루와 신도가 대표적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매년 단오에 관상감에서 주사로 쓴 붉은 부적, 천중적부를 궁궐에 바치

면 대내(大內)에서는 문 윗중방에 붙여 살(煞)을 없애고 상서로운 일이 있기를 바랐다는 기록이 있다. 단오부적, 즉 천중적부는 입춘첩으로도 쓰인다. 출산(出産) 부적으로는 산모의 순산을 위한 조치로 『동의보감』에 실린 안산방위도, 최생부, 차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초기 망자복식에 나타난 불교 관련 부적들은 망자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추도의 염원에 의한 불교신앙의 산물이다. 망자와 함께 관 안에 넣어주는 탑다라니는 저승길을 열어 준다고 믿는다.

### 근·현대 시대의 부적

근대 시대는 구체적인 실물이 확인된 시기로, 부적의 실체에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일부 책자에는 다양한 부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부적은 대부분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천도교의 「영부」나 증산교의 「현무경」에서 보듯 신흥종교에서는 부적을 포교의 수단이자 경전의 한 유형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고령 알터암각화에서 보이는 동심원이 도식화된 소용돌이 무늬는 소도와 영(靈)을 상징하며, 성역을 의미한다. 천도교와 증산교는 이 소용돌이 무늬를 중심무늬로 하여 부적을 제작하였다. 요즘에는 이 무늬 안에 원하는 글자를 넣어 구체적으로 소원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용** 부적은 복을 기원하는 길상(吉祥)부적과 사악한 기운을 막고자 하는 벽사부적으로 나뉜다. 길상과 벽사는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아 더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벽사부로는 귀신불침부, 질병부, 삼재부가 있다.

귀신불침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악한 귀신을 쫓는 부적이다. 수원 용주사탑에서 나온 부적, 만연사(萬淵寺)에서 간행된 용암 스님 진언집(1777년), 망월사에서 간행된 진언집(1800년)을 비롯하여 연화탑상다라니부에서 발견된 부적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적을 통해 귀신에 대한 민간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백귀불침부(百鬼不侵符), 악귀불침부(惡鬼不侵符), 악귀불입부(惡鬼不入符), 축귀부(逐鬼符), 면고난재환부(免苦難災患符), 귀명부(鬼鳴符)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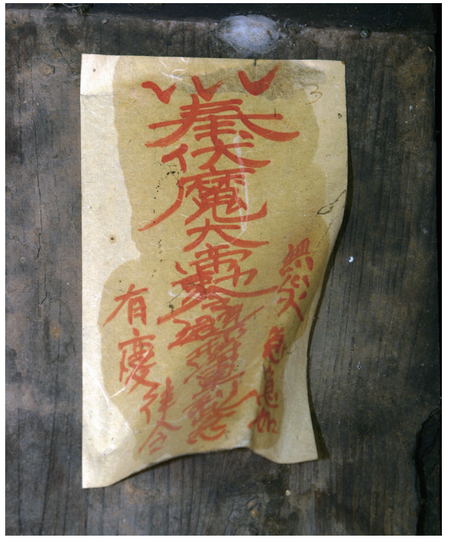
질병부는 질병을 악귀가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병을 막기 위해 사용했다. 약효를 보지 못할 때 약과 관련된 부적을 주사로 써서 불태워 마신 뒤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효과를 본다. 부적은 약의 효능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며, 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부로는 백약무효퇴병부(百藥無效退病符), 복약효력부(服藥效力符), 백병치료부(百病治療符), 백병불입부(百病不入符) 등이 있다. 병이 발생한 날의 일진(日辰)을 보아 사용하는 부적으로는 10일진 천간부적, 12일진 지지부적, 30일진 부적 등이 있다.

질병총부(疾病總符)는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며, 일일이 만병을 열거하지 않고 질병을 퇴치하기를 바라는 부적이다. 질병소제증보수부(疾病消除增補壽符), 질병소멸부(疾病消滅符), 질병퇴치부(疾病退治符), 만병통치부(萬病統治符), 퇴병부(退病符) 등이 있다.

삼재부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적이다. 삼재는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로, 병난(兵難)·역질(疫疾)·기근(飢饉) 또는 수재(水災)·화재(火災)·풍재(風災)를 말한다. 삼재부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두일족응부(三頭一足鷹符)이다. 머리가 셋 달린 매 그림은 조선시대 전기에 회화로 성립되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적그림으로 변형되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청대 실학자 왕사정(王士楨)의 『지북우담(池北偶談)』에 실린 우화를 인용하면서 "옛날 중국 무창 장씨(武昌 張氏)의 며느리가 휘종황제(徽宋皇帝)의 친필 매 그림을 보고 마당에 나둥그러지면서 여우의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매 그림이 액막이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진삼살(鎭三殺), 삼재소멸제살부(三災消滅除殺符), 삼재소멸부(三災消滅符), 삼재팔난소멸부(三災八難消滅符), 자연원이삼재부(自然遠邇三災符), 해오행구요부(解五行九曜符) 등이 있다.

길상부로는 불교진언집에 있는 소원성취부, 금은자래부귀부, 부부자손화합장수부, 선신수호부가 대표적이다.



부엌에 붙인 부적
전북 남원시 주촌면 덕치리, 2002.10.10
코리아루트

**의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부적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다양화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는 가상적 조작물을 몸에 지니면 그 염원이 현실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부적의 근원적 의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부적에 거는 기대가 치유, 즉 카타르시스(catharsis)적 효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만다라**(윤열수, 대원사, 1992), **역사민속학연구**(손진태, 민속원, 2003),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김융희, 책세상, 2000), **한국의 벽사부적**(김영자, 대원사, 2008), **한국의 부적**(김민기, 보림사, 1987), **한국회화사**(안휘준, 일지사, 1980).

**필자** **김영자(金英子)**







안택 후 안방에 걸어둔 북어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2001.1.14(음), 강성복

## 북어

**정의** 명태를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물로서 일반 제례나 고사 등에서 사용되는 제물. 북쪽 바다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북어라고 불리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말린 명태를 의미한다.

**역사** 민속신앙과 관련하여 예부터 우리 민족은 육지생물로는 돼지, 바다생물로는 북어를 통해 천신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돼지와 북어는 인간세상의 재액을 소멸시켜 주며, 개인의 안녕을 지속시켜 주는 상징물인 동시에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특히 북어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물로 널리 애용된 까닭에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일반 제례나 고사 등에 빠지지 않는 제물로 올려져 왔다.

그 유래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문헌상으로 명태라는 명칭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효종 3년(1652) 기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에 "명태를 말린 건제품이 전국에 유통되는데, 매일의 반찬으로 삼고 여염뿐만 아니라 유가(儒家)에서도 이를 제사에 쓴다."라는 기록에서 조선 후기에는 전 계층에서 북어를 제사상에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희귀한 것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북어는 일상적인 음식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동기유(日東記游)』에 "자양(慈養)이 적어 공후귀족(公侯貴族)에게는 접대할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이 많이 나고 그 값이 싼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은 심산궁곡(深山窮谷)의 노인과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도 북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과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 "명태를 겨우내 말린 것이 동해안 원산에 집하됐다가 배나 말에 실려 각지로 운반되는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 원산에는 밤낮으로 인마(人馬)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조선 후기에는 명태의 어획량이 증가했고, 그 가공법의 발달과 함께 편리한 수송과 장기간의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방방곡곡

으로 북어가 유통되었다. 따라서 조선 팔도 도처에서 모든 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던 북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민속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제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내용**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신성함이 우선이다. 특히 건조된 명태인 북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건조 후에도 눈과 머리가 뚜렷해서 제 모습을 잃지 않기 때문에 관혼상제, 일반 제례, 고사 등에 빠지지 않고 올려진다. 또한 천지신명에게 바치는 음식은 어느 한군데도 버려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명태는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라는 점이 이를 충족시킨다. 게다가 머리가 크고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훌륭한 자손을 많이 두고, 많은 알처럼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을 수 있는 대상도 될 수 있다. 무속에서 말하는 대수대명(代壽代命), 즉 자신이 받을 재액을 남에게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북어는 건조된 모습이 마치 미라와 비슷해서 인간의 대용으로도 자주 쓰인다.

우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속성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식 제사상 차림에는 주로 대구포, 북어포 등을 올린다. 대구포가 북어포보다는 정성을 표하는 제물이다. 무속식 상차림에는 통북어가 오른다. 특히 굿상에서 적(炙)이나 생(牲)이 상위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면 북어는 하위의 신에게 바쳐진다. 이때 통북어는 반드시 눈알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는 예부터 빛을 무서워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항상 눈을 밝게 떠서 수행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긴 사찰의 풍경(風磬)도 그러한 예이다. 전통가구인 괘, 반닫이, 뒤주 등의 자물통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것도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기 때문에 귀중품을 잘 지킨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북어와 관련된 민속신앙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장개업한 가게에서는 고사가 끝나면 제물로 올린 북어를 실타래에 매달아 문 위에 올려둔다. 특히 북어의 밝고 큰 눈과 쫙 벌어진 큰 입에는 가게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이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의례와 관련하여 전통가옥을 지을 때 중요한 통과의례인 상량식에서 진설한 북어를 마룻대를 올릴 때 실



**탑의 머릿돌에 매단 북어**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1999.1.14(음)
강성복

타래와 함께 묶어 올린다. 또 새로 구입한 집터에 기가 세다고 하면 마당에 북어를 묻는다. 묘 자리를 잡은 후 가묘(假墓)를 할 때에도 북어를 묻는 풍습이 있다. 전염병이 돌 때는 북어 세 마리를 삼줄로 일곱 번 묶어 상갓집의 추녀 밑에 묻었다고도 한다. 성주신과 관련해 서울지역에서는 시렁 위 항아리에 쌀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그 아래에 북어를 매어두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고사는 자동차를 앞에 두고 치르는 고사라는 측면에서 민속신앙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고사에서는 차 앞에 제물로 돼지고기, 떡, 과일, 술, 북어 등을 진설한다. 고사 끝 무렵에는 북어, 소금, 팥 등으로 차체를 두드리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바가지, 계란, 북어 등을 바퀴 앞에 놓고 차를 움직여 깨는 사람도 있다. 차 앞에 제물로 북어를 바치는 것은 하늘과 인간의 매개물인 북어의 신성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차체를 두드리거나 북어를 밟는 행위는 운전자가 혹시나 받을지 모를 재액을 사전에 북어가 대신 받기를 바라는 액막이 행위가 된다. 고사가 끝나고 나면 북어를 명주실이나 무명실타래로 감아 차안에 매달거나 넣어둔다. 여기서 북어는 액막이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건조된 상태로 오랫동안 보존되는 성질로 인해 무명실타래와 함께 영원히 변치 않는 안녕을 바라는 관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의 사례로는 "혼례 때 신부 집에서 함을 들일 때 부정을 가시기 위해 떡시루나 붉은 천 위에 함을 올린 뒤 북어로 함을 두드린다.", "삼재인 사람은 자기가 입던 적삼에 마른 명태 한 마리와 달걀 한 알을 싸서 네거리 길에 버린다.", "그해 신수를 보아 좋지 않으면 이튿날 새벽에 마른명태에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쓴 종이를 짚으로 묶어 네거리에 묻거나 버린다." 등이 있다. 북어는 인간의 대용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의 대용물로 이용된다. 그 가운데에서 나무를 벌채할 때 산신과 나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의 한 과정인 소지매기라는 민속에서도 나타난다. 이 행위는 벌채하는 나무가 쓰러질 때 옆 나무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주변 나무에다 흰 실타래나 한지로 북어를 매단다.

**지역사례** 특징적인 지역사례로는 과거 명태 어획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강원도 지역을 들 수 있다. 화천지역의 세시풍속 가운데 어부식(魚鳧食)이 있다. 어부식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물가에서 행해지는 액막이 민속이다. 이때 행해지는 액막이와 관련된 민속은 명칭이나 방법이 지역마다 다양하다. 어부식의 행사 가운데에서도 '제웅치기'라는 것이 있다. 흔히 '허수아비 버리기'라고도 한다. 이것은 정초에 점을 봐서 그해 죽을 운이 있는 사람을 위한 액막이이다.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묶고 그것에 성명, 생일, 주소를 써서 밖에서 빌면서 태우는 것이다. 그러나 화천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허수아비 대신 북어에 오색천을 묶어 태운다고 한다.

'제웅치기'의 유래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후직성이 되는 사람은 짚으로 추영(방언으로 處容)을 만들어 머리 속에 동전을 집어넣고 보름날 전날 밤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을 막는다. 이때에 아이들은 문 밖으로 나와 추영을 달라고 한다. 그것을 얻으면 머리 부분을 파헤쳐 다투어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 버린다. 이것을 타추희라 한다." '나후직성'은 9년마다 돌아오는 나쁜 운을 가진 해를 말한다. 이때 짚으로 사람형상을 만든 것을 '처용'이라고 하였다. 9세기 신라 헌강왕대에 액막이 역할을 한 처용의 형상이 이후 허수아비로 변하고, 화천지역에서는 북어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어를 사용한 것은 지방적인 특색과도 연관이 되지만 결국에는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북어의 신성함에 주술적인 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 강원도지역에서 지내는 배고사에는 북어포를 올리고 나서 선원 수대로 북어포를 바다에 던져 액막이로 띄우고 풍어를 기원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제물로 바친 북어를 인간을 대신할 액막이로 이용한 사례이다.

고성지역에서는 해마다 2월이 되면 동해바다 고기의 상징인 명태를 위한 '명태축제'가 열린다. 이때 북어를 제사상에 올려놓고 모시는 '수성제'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의 명태축제가 펼쳐진다. 어부들은 바다와 인간과 명태의 연결고리가 튼튼하고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명태가 좀 더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삼척지역에는 상갓집에 문상을 다녀와서 살을 맞아 몸이 아프면 종이로 사람 모양을 일곱 장 만들어서 술 일곱 잔과 좁쌀로 지은 밥을 일곱 접시에 나누어 무연고자의 묘에서 무당이 독경을 한다. 이때 그 앞에 환자의 옷으로 북어 한 마리를 싸서 이를 대수대명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



**왼새끼로 묶은 북어**
충남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1999.1.14(음)
강성복

**의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액막이라는 주술적인 관념

에 북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에서 다산과 풍요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함의 상징이었고, 그러한 신성함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동시에 인간의 액을 막아 줄 수 있는 주술적인 의미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산간벽촌에 사는 사람이나 각지의 농민들이 여름철 경작기에 명태 몇 마리를 먹지 못하면 반드시 그해 여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간주할 정도로 북어는 서민적이면서도 신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큰 머리와 입, 밝은 눈, 많은 알, 떼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는 북어(명태)는 그 신성함의 상징으로 인해 예부터 사람들에게 천신과 교감할 수 있는 제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承政院日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日東記游, 才物譜, **강원도 민속제의의 제물에 관한 연구**(윤덕인,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강원전통문화총서**(김의숙 외, 국학자료원, 1997), **고기잡이 여행**(정기태, 바보새, 2004),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민속원, 2001), **명태와 관련된 민속과 속담**(전지혜,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국학자료원, 2009), **속담 속 바다이야기**(국립수산과학원, 2007), **수변정담**(국립수산과학원, 2005), **어류의 생태**(김무상, 아카데미서적, 2003),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자동차고사와 속신**(황경숙,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한국 민속제의 전승과 현장**(김의숙, 새미, 2009), **한국수산발달사**(수협중앙회어촌지도과, 1966),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화천의 세시풍속 어부식에 대한 고찰**(이학주,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2007), **황태 덕장 연구**(김의숙, 강원문화연구 17,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8).

**필자** 전지혜(全持慧)

## 불막이

표제어 화재막이(735쪽)

## 불밝히기

**정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섣달그믐에 행하는 제의. 일명 잔등(盞燈)이라고 한다. 섣달 그믐날밤 온 집안에 불을 밝히는 것을 수세(守歲)라고도 한다.

**내용** 한 해를 마감하는 섣달그믐에는 수세(守歲)를 비롯하여 묵은해 세배, 그믐 차례, 청단(靑壇), 연종포(年終砲), 등잔 팔기[賣燈盞], 대나(大儺) 등 여러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민간에서는 섣달그믐이 지나면 새해의 신인 세신(歲神)이 하늘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믐날과 정월 초하룻날에는 조상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들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불을 밝혀둔다고 믿는 속신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세신을 맞이하는 제의적 장치가 수세나 불밝히기이다.

수세 풍속이나 불밝히기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 풍속은 도교적인 경신신앙(庚申信仰)의 경신수야(庚申守夜) 유습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설이 있다. 즉 60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경신일이 되면 형체 없이 사람의 몸에 기생하고 있다는 삼시(三尸) 또는 삼시충(三尸蟲)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상제(上帝)께 그동안의 죄과를 낱낱이 고해 바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를 막고 천수(天壽)를 다하려고 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운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교적 장생법인 경신수야 풍속은 『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 나타나 있다. 최고의 기록으로는 고려 1265년(원종 6) 4월 경신일에 태자가 밤새워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자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연회를 베풀고 이런 의식이 성행되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 수경신(守庚申)은 미신이며 삼척설(三尺設)은 황당무계하다 하여 유신(儒臣)들의 반대가 있었다. 1759년(영조 35)부터는 연회도 없어지고 대신 불을 밝히고 근신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고 한다. 1486년 11월 19일 성종은 종친과 여러 신하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음식과 주악을 갖추어 경신수야를 하였다. 연산군도 경신이 든 11월에 경신수야를 하면서 이날 밤낮으로 악공과 기녀들을 불러 노래와 춤으로 즐기고 음식과 술로 밤을 새웠다고 한다.

흔히 민간에서는 풍류객이나 난봉꾼들이 경신수야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천기대요(天機大要)』 세관교승(歲官交承)조에 따르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신구세관(新舊歲官)이 뒤바뀌는 때이다."라고 하였다. 즉 한 해를 관장할 세신의 군림(君臨)을 인간이 즐겁게 맞이한다는 뜻이다.

섣달그믐에서 설로 이행되는 순간이 설이다. 설은 다름 아닌 속세(俗世)의 공간과 시간에서 신성(神聖)의 공간과 시간대로 이행되는 환세일(換歲日)인 셈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을 '신구간(新舊間)'이라고 한다. 이때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사를 수호·관장하던 신들은 한 해의 임무를 다하고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로 모두 올라가 신들이 지상에는 없다고 믿고 있어 이때 이사도 하고 변소(측간)도 고치고 집 거래도 이루어진다.

고대사회로부터 우리 민족은 해와 달을 민족신으로 선택하였다. 7세기 문헌인 『수서(隋書)』에는 신라인들은 매년 정월 초 아침에 서로 경하하고, 왕이 연희를 베풀어 손님과 관원들이 모여서 일월신(日月神)을 배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한가위에도 똑같았다고 한다. 우리 선인들은 하늘의 해와 달을 신격(神格)의 위상(位相)으로까지 끌어올렸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158년(아사달왕 5) 동해변에 사는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烏女)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 이들은 해와 달의 정(精, 精氣)이었기 때문에 신라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그리하여 신라의 왕은 사신을 보내어 그들을 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고 세오녀가 짠 비단을 주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그대로 했더니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

이 신화에서 달의 정기인 세오녀가 여성이고 달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상징하는 가진 속성 때문에 달은 농업과 관련된 풍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시 행사 가운데 용알뜨기, 다리 밟기, 강강술래, 좀생이 별보기 등을 살펴보면 달은 물이나 여성과 연관된 풍요로운 생산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강술래는 달의 흥망성쇠와 재생을 상징한 원무(圓舞)이다. 춤사위를 살펴보면 달의 차고 기움을 재현하고 있어 부활의 의지까지 표상하고 있다. 달이 만월인 때에 민속축제는 절정에 이른다. 만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달신(月神)이 숨긴 그의 신체(神體)를 모두 드러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름달은 완성, 완전무구, 힘, 영력(靈力)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월 초의 윷점도 정월대보름날밤에 해야 효험을 얻는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변 조선족은 둥근 멍석을 마당에 깐 다음 그 위에 둥근 두레반을 놓고 옆에 물동이도 함께 올려놓는다. 달신이 물동이 안의 물에 들어 있을 때 세 번 장작윷을 던져 윷괘를 얻어 그해 운수와 풍농점을 친다. 이처럼 만월인 때에 주술적(呪術的) 힘이 크게 발동된다는 뜻이다.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때 집단적 무의식이 끊임없이 촉발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한가윗날 조상을 위하는 것을 '송편제의'라고 일컫는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지역에서는 그해 흉작이 들었을 때 '보리송편'이라도 만들어 조상께 천신한다. 차례상에 올리는 떡이나 음식 가운데 달의 상징성이 은유화된 것이 많다. 〈농가월령가〉 8월령에는 "북어쾌 젓조기로 추석명절 쉬어보세 신도주 올여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웃집 나눠먹세."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때의 송편은 달을 상징한 떡이다. 일반적 통념으로 백설기는 땅, 절편은 해, 기름떡(우찍)은 별을 각각 상징한다. 이처럼 우주론적 음식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인들의 음식철학관은 놀라울 정도이다. 한가위에는 토란국을 해 먹는다. 이때의 토란도 달을 상징한다. 강원도 강릉지역에는 토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고지박국과 지박나물을 해 먹는다. 달을 먹는 행위는 성체(聖體)를 먹는 행위인 유감주술(類感呪術)에 해당한다. 술도 올벼로 신청주(新淸酒·新稻酒)를 빚어 조상님께 올린다. 이를 '백주(白酒)'라고 한다. 이때의 백(白)도 알고 보면 일월신(日月神)이 밝히고 있는 광명의 색이이다. 이에 따라 백주는 곧 '신주(神酒)'라는 뜻이다. 백색은 신성하고 깨끗한 신으로 인식한다. 신의 옷인 백의(白衣)를 입고 신주(神酒)인 백주(白酒)를 마시고 신의 성체(聖體)인 해와 달(토란과 고지박)을 먹는 제의 공간이 설이나 한가위 명절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 '좁쌀 한 알이 귀신 천(千)을 쫓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곡식알에도 주술적 힘과 신령(神靈)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곡령숭배사상(穀靈崇拜思想)에서 나왔다. 농민들의 정신세계에서의 곡식이나 씨는 동물세계에서의 알(卵)에 해당한다. 알은 태양이나 달의 변신적(變身的) 모습이기 때문에 불멸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구멍이 숭숭 뚫린 깡통

에 황과 고무를 넣고 휘휘 돌려 달 모양을 만들면서 "오늘밤엔 달 끄실려(그슬러) 먹을까?" 하고 외친다. 달은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임신 못하는 궁중의 비빈(妃嬪)들도 먹었다. 정월대보름 달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켜길 아홉 번씩 아홉 차례, 곧 81번 기통(氣通)시키는 달의 정기를 빨아먹는 풍속인 '흡월정민속(吸月精民俗)'까지 있었다. 이 또한 슬기롭기만 하다.

태양의 정기를 흡입하는 풍속인 흡일정민속(吸日精民俗)도 많다. 한국인은 유독 '해맞이'를 즐긴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을 굳이 찾아가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는 광화문 네거리부터 정(正)동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한국인은 해를 맞이할 때 북을 치고 새해맞이굿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부여의 영고(迎鼓)이다. 그 당시 부여민들은 황홀경을 느끼는 제의와 축제를 벌였을 것이다. 태양은 병도 치유한다.

강릉시 강문동 해안가에서는 삼눈을 앓고 있는 이를 새벽에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 주문을 외면서 환자로 하여금 해를 먹게 한다. 이때 환자는 입을 크게 벌여 해를 먹는 시늉을 한다. 해의 기를 먹게 하고 그 기를 쏘이게 하여 병을 치료하겠다는 원시적 유감주술인 것이다.

우리 선인들은 작은 곡식알, 동물의 알, 옥돌, 차돌 등에도 해와 달을 유감시켜 가며 기(氣)철학을 생활에 실천하고 원용해 온 것이다. 이같이 인간에게 모든 은혜와 덕을 베풀어 주는 신을 맞이하는 의례나 의식의 하나가 불밝히기와 수세이다. 제석(除夕)에는 민가와 궁중에서 묵은해의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나례(儺禮)를 행하였다. 민간에서는 수세(守歲)라 하여 문 위에 도지(桃枝)를 꽂고, 집안 곳곳에 등불을 밝히고,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려 귀신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다.

궁중의 나례는 중국에서 유래된 의식이다. 『후한서(後漢書)』 나례지(儺禮志)에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정종(靖宗) 6년에 기록이 나타난다. 궁중에서는 대나(大儺)라 하여 12세 이상 16세 이하의 소년들이 진자(侲子)와 황금사목(黃金四目)의 가면(假面)을 쓰고 현의(玄衣), 주상(朱裳)에 웅피(熊皮)를 무릅쓴 방상시(方相氏)의 축귀의식(逐鬼儀式)이 있었다. 이 의식에서 사용되는 가면, 붉은 옷, 방상씨, 가무악(歌舞樂) 등은 모두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희생(犧牲)으로는 닭 다섯 마리를 잡아 역기(疫氣)를 쫓았다. 정종이 이를 애통하게 여기고 닭 대신 다른 물건으로 하도록 하여 황토우(黃土牛) 네 마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나례 때에는 벽사의식(辟邪儀式)으로 처용무(處容舞) 등 여러 잡희(雜戲)가 베풀어졌다. 이를 나희(儺戲)라고 하였다. 나희는 나례 이외에도 왕의 행차 때 주연(酒宴)이나 사신의 위로연 등 의식적인 성격을 떠나 오락적인 연희로 전용되기도 하였다.

음력 12월 30일은 일 년의 마지막 날로서 섣달그믐, 제야(除夜), 제석(除夕) 등으로 부른다. 이날은 우선 일 년 동안 있은 거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빚이 있는 사람은 갚을 것을 다 갚고, 받을 것도 미리미리 다 받아 둬야 한다. 이날 자정까지 받지 못하면 정월대보름까지는 빚을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섣달그믐날 한밤중에 생대[靑竹] 마디들을 불에 태운다. 그러면 대 마디들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터진다. 이것을 폭죽, 대총, 대불이라고 불러왔다. 이렇게 하면 집 안에 숨어 있는 악귀들이 놀라서 멀리 달아나기 때문에 집 안이 깨끗하고 무사태평한 한 해를 맞게 된다고 믿었다. 구한말에는 관가에서나 세도가에서 총을 쏘았다는 보고도 있다. 지금은 시들해졌만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대궐 안에서는 제석 전날부터 대포를 쏘는데 이를 연종포(年終砲)라 한다. 화전(火箭)을 쏘고 징과 북을 울리는 것은 대나(大儺)의 역질귀신 쫓는 행사의 남은 제도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포를 쏘는 벽사행위는 설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를 세포(歲砲)라고 하였다. 포는 세 번 쏜다. 같은 책에서 이를 제석이나 설날에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모방한 제도라 하였다. 이로 보면 연말 연초에 행한 민간의 폭죽이나 궁중의 연종포나 불밝히기는 모두 다 벽사진경(辟邪進慶)의 행사였다는 점에서 근본성격이 같다. 대개 세찬 준비가 끝나면 수세로 들어간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민가에서는 다락, 마루, 방, 부엌에 모두 등잔을 밝혀 놓는다. 흰 사기접시 하나에 실을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 환하게 밝혀놓으니 마치 대낮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다. 이것을 수세라고 한다. 또 속담에 제야 때 잠을 자면 눈썹이 모두 세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대개 속아 잠을 자지 않는다. 자는 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분을 재어 눈썹에 바르고, 깨워서 거울을 보게 하며 놀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락방, 마루, 부엌 외에도 별채, 마당, 광, 샘, 외양간, 장독간, 대문 등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야와 원단에 윷을 던져 괘를 보아 새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이날 밤을 새우기 위해 흔히 윷놀이나 화투치기를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놀이 외에 술래잡기, 풍장치기, 달 넘세 놀이를 하거나 유식한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날을 새우기도 했다. 부인들은 세찬 준비에도 바쁠 뿐만 아니라 초롱불을 들고 왕래하는 묵은 세배꾼들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세가 자연적으로 되는 셈이다.

『동국세시기』에서는 각 지방의 빙등(氷燈)과 연말 놀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함경도와 평안도 풍속에는 설치해 놓는 등이 있다. 그것은 마치 원주(圓柱) 안에 기름 심지를 해 박은 것과 같다. 그것을 밝혀 놓고 밤을 새워 징과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나희(儺戲)를 했다. 이것을 '청단(靑壇)'이라고 한다. 지금도 섣달그믐날에 매구치기를 한다는 보고도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농악대가 마당, 부엌, 장광들을 돈다. 이때 상쇠가 덕담도 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 나온다. 섣달그믐날에 불을 밝히는 이유를 민간에서는 설을 밝게 맞으면 복된 신년을 맞는다고도 하고 잡귀가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가운이 트인다고 한다. 이는 광명의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오후부터는 세찬을 준비하느라고 집 안은 분주해진다. 아이들은 벌써 설 치장을 하고 나선다. 이 때문에 이날을 '작은 설날'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서울민속대관–세시풍속과 놀이**(서울특별시,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임기중 역, 집문당, 199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중구의 세시풍속**(김선풍, 서울중구문화원, 2007),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85),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필자** **김선풍(金善豊)**





## 비손

**정의** 병을 낫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게 할 목적으로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비는 일.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그 앞에서 양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통해 신을 섬기는 의례의 일종.

**내용** '비손'의 '비-'는 '빌다'에서 파생된 말로 '비(-는) 손' 혹은 '비(-ㄹ)손'이란 의미에서 왔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비념'이라고 하며, '손으로 빌다'라는 뜻에서 '손빔'이라 하는 곳도 있다.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신성한 무엇엔가 의존하여 인간의 약함을 하소연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이루려 한 데서 비손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구·북·징·피리 등의 악기와 노래·춤·공수 등의 복잡한 형식이 뒤따르는 의례로 발전한 것이 굿이고, 복잡한 절차 없이 손을 비비는 간단한 정성만 올리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 비손이다.



**비손**
경남 산청군 삼장면, 2001.11.13, 코리아루트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정초의 안택(安宅), 농사의 풍년을 감사하기 위해 집안의 여러 가신(家神)에게 햇곡식과 햇과일을 천신(薦新)하는 음력 시월의 상달고사 등에서 비손을 한다. 그 밖에도 가족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경우, 가족 중에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관재수(官災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부의 불화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도 비손을 한다. 상차림은 매우 간소한데, 해당되는 가신 앞에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거나 시루떡을 조금 준비하여 빈다. 또 안방의 윗목에다 떡, 나물, 과일 등을 간소하게 차리고 손으로 빌면서 가끔 신에게 고하는 소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비손은 악기 반주 없이 빌기만 하기 때문에 입담 좋고 경험 많은 마을의 할머니나 해당 가정의 주부가 직접 행하기도 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중탑)의 경우 터줏가리를 모실 때, 집안의 여자들이 고사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들이 터줏가리를 새로 단장한다. 이때 터줏가리를 모시는 제의의 주체는 주부이다. 즉 집안의 여성으로 가장 어른인 시어머니가 비손을 하면서 기원의 말을 읊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사례** 경북 청도지역에서는 시월상달이나 11월과 정월 사이,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안택을 한다. 의례 절차는 먼저 조왕의 거처인 부뚜막에 짚을 깔고 조왕에게 비손을 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조상과 시준, 성주, 골맥이 순으로 비손을 한다. 의례의 수행 과정은 일정한 형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축(讀祝)도 없다. 제의를 진행하는 주부가 청수 한 그릇과 밥(혹은 쌀)을 해당되는 가신 앞에 놓고 술을 부은 다음 비손을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전남 영암 신북면 유곡리 원유곡 마을에서는 철륭을 모실 때 비손을 한다. 이 지방에서는 집 뒤란을 철륭으로 인식하고 있다. 철륭에는 많은 금기가 따르는데, 새 것을 짓거나 있던 것을 쉽게 없애거나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에는 방위를 보고 가려서 해야 한다. 이 마을의 이점심 씨 댁 뒤란에는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 옆에서 비손을 한다. 원래는 남편의 전 부인이 명절마다 오가리를 놓고 비손을 했었다. 그러나 이점심씨는 오가리는 놓지 않고 명절이나 보름날 저녁에 팽나무 앞에서 인사만 하는 식으로 비손을 한다고 한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 갑동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렛날이나 백일날 당골을 불러 비손을 했다고 한다. 옹기 자배기(옹구너벅지)에다 물을 부어 채운 후 거기에다 박바가지를 엎어 놓고는 그것을 두드리며 아기가 잘 되기를 빌어주었다고 한다. 이런 비손을 청하는 집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고, 가난한 집에서는 아예 비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무속연구서설 2**(임석재, 아세아여성연구 10,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70),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류종목(柳鍾穆)**



# ㅅ


사신
사신대감
산
산돗이
산멕이
산바람막기
산소탈막기
산신멩감
산치성
살고사
삼신
삼신단지
삼신대
삼신모시기
삼신바가지
삼신받기
삼신밥
삼신짚
삼잡기
삼재
삼재부적
삼재풀이
삼짇고사
삼칠일
상달고사
상량문
상량제
상문풀기
새알뜨기
새옹
서낭신
서낭제
석전 · 기우 · 안택
선왕
선왕제
섬떡
성주
성주고사
성주매기
성줏단지
성줏대
세이레
세존
세존단지
소금
소삼신
소삼신모시기
손
솔가지
송경
솥
쇠코뚜레
수세
수양부모삼기
수지
숯
시루
시루떡
시매
신구간
신수보기
신줏단지
신충애기
실타래
쌀
쌈





**제의**
산멕이
산바람막기
산소탈막기
산신멩감
산치성
살고사
삼신모시기
삼신받기
삼잡기
삼재풀이
삼짇고사
상달고사
상량제
상문풀기
새알뜨기
서낭제
선왕제
성주고사
성주매기
소삼신모시기
송경
수세
수양부모삼기
신충애기

**신격**
사신
사신대감
삼신
서낭신
선왕
성주
세존
소삼신

**신체**
산
산돗이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성줏단지
세존단지
신줏단지

**제구**
삼신대
삼신짚
삼재부적
상량문
새옹
성줏대
솔가지
솥
쇠코뚜레
숯
시루
시매

**제물**
삼신밥
섬떡
소금
시루떡
실타래
쌀
쌈

**자료**
석전 · 기우 · 안택

**용어**
삼재
삼칠일
세이레
손
수지
신구간
신수보기

## 사신(四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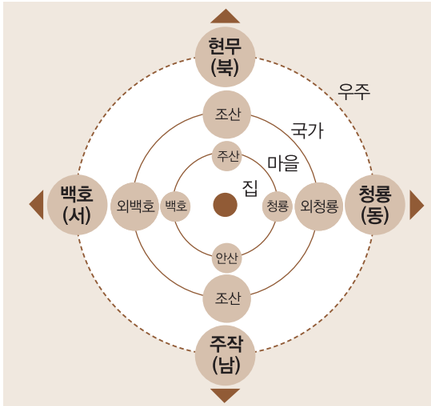
정의 우주의 네 방위를 담당한다고 여기는 상징적인 동물. 동쪽의 청룡(靑龍), 남쪽의 주작(朱雀), 서쪽의 백호(白虎), 북쪽의 현무(玄武)를 말한다. 고대 중국의 우주관에서 비롯한다. 가정신앙에서는 담장, 즉 '울'에 머무른다고 본다.

내용 사신은 본래 중국 고대사회에서 우주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관념에서 출발한다. 현무는 황도상의 북방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뱀과 거북의 합체로 표현된다. 백호는 황도상의 서방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호랑이로 표현된다. 청룡은 동방의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주작은 남방의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봉황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각기 네 방위에서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동물로서 사령(四靈) 또는 사수(四獸)로 불리기도 한다.

이후 사신은 무덤이나 건축과 같이 특정한 장소를 수호하는 사방수호신 개념으로 발전한다. 우주의 질서를 재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가 성화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에 따라 무덤과 같이 죽은 자의 귀천을 기원하는 장소는 하늘세계의 질서를 갖도록 구축되어야 했다. 이때 그 상징으로서 사신도가 그려진 것이다.

사신도는 중국의 전한시대 말부터 분묘를 장식하는 데 많이 나타난다. 묘실 사방 벽에 그려진 벽화나 화상석, 화상전, 와당의 문양 등에서 사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수법은 한반도에 전래되어 고구려 고분에서도 나타난다.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하여 사신총이라고 불리는 분묘도 있다. 사신도는 무덤 속에 잠든 이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사방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

풍수신앙이 발전하면서 사신은 신성한 장소를 에워싸는 지형적 요소로 대응된다. 풍수는 땅의 생기를 받아 피흉발복(避凶發福)할 수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땅속을 흘러 다니는 생기가 모여 있는 곳을 혈(穴)이라고 불렀다. 땅의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모인다고 생각하여 바람을 막고[藏風] 물을 얻을 수 있는[得水] 장소라는 의미에서 풍수라는 용어가 기원한다.



영역인식의 동심원적 전개

이때 사신사(四神砂)는 혈을 둘러싸는 네 방향의 산이나 언덕을 의미한다. 혈의 뒤쪽에 있는 것은 현무, 앞쪽에 있는 것은 주작, 왼쪽에 있는 것은 청룡,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호라고 한다. 이러한 지형 요소들은 혈의 생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적 요소로 인식된 것이다.

사신에 해당하는 지형의 모습으로 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이때 네 방향의 이상적인 지형의 모습은 사신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곽박(郭璞)의 『장경(葬經)』에 따르면 뒷산은 현무처럼 머리를 드리운 모습, 앞산은 주작처럼 날아갈 듯 춤추는 모습, 왼쪽 산은 청룡처럼 길게 꿈틀거리는 모습, 오른쪽산은 백호처럼 웅크려 앉은 모습이 좋다고 했다. 이 역시 신적 존재가 사방을 호위함으로써 그 장소가 성화될 수 있다는 관념을 풍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의 '국(局)'은 우주적 조화와 질서를 갖춘 거룩한 땅을 의미한다. 사신은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수구(水口)는 그 경계를 출입하는 입구이고, 주산(主山)은 천지를 연결하는 우주의 축(cosmic axis)으로 해석된다. 그 중심의 혈과 명당은 세계의 중심(center of the world)이 되어 소우주(microcosm)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세계의 구조를 땅에 재현한 우주의 축소모형으로서 동심원적 구조로 반복되면서 중심을 성화(聖化)시키는 모습을 갖는다. 무한한 대우주의 사신을 최외곽의 껍질로 하여 외청룡·외백호와 조산(祖山)·조산(朝山)은 마을의 바깥 껍질을 이루며, 다시 내청룡·내백호와 주산·안산은 안 껍질을 만들게 된다.



주택건물의 풍수적 상징

주택 주변의 지형지물도 사신과 대응하여 택지를 성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상택지(相宅志)」에는 "주택의 왼편으로 흐르는 물을 청룡, 오른편에 큰길이 나 있는 것을 백호, 집 앞에 연못이 있는 것을 주작, 집 뒤에 구릉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하여 이러한 지형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만약 땅에 이러한 상이 없으면 흉하다."라고 하였다.

가정신앙에서는 주택의 영역을 두르는 담장, 즉 '울'도 사신의 의미를 지닌다. 주택의 중심에 혈과 명당이 있고, 울은 이것을 보호하는 인공적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울이 자연계의 바람을 막아주듯 집터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임원경제지』에서도 담장의 형태에 대한 길흉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토담의 형상이 시위를 당긴 활과 같으면 주인이 부유해진다. 토담은 한 곳을 중후하게 쌓으면 한 곳을 봉우리처럼 올리며, 두 곳을 중후하게 쌓으면 두 곳을 봉우리처럼 올린다. 이렇게 하면 곡식이 많이 수확된다. 만약 담장이 나지막하게 빙 에두르고 있으면 길하지 않다."

주택 안에 있는 건물도 각기 사신의 의미를 지닌다. 살림채는 현무, 좌우의 부속채는 각각 청룡과 백호, 대문채는 주작에 해당한다. 이로써 마당 안의 혈과 명당이 생기를 얻게 된다. 『임원경제지』에 "살림채의 좌향은 남향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양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동쪽에 건물이 들어차고 서쪽에 건물이 비어 있는 집은 집안에 늙은 부인이 없어진다. 서쪽에는 건물이 있으나 동쪽에는 건물이 없는 집은 늙은 남자가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사신의 배치처럼 건물 네 동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미음(ㅁ)자 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참고문헌** **母空間의 原型-산과 천**(임충신,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8, 울산대학교, 1977), **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라**(전호태, 사계절, 2004),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02), **조선의 풍수**(村山智順, 최길성 역, 민음사, 1990),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혈과 명당과의 관계를 통해 본 한국전통공간의 중심개념에 관한 연구**(유재현,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10, 울산대학교, 1979).

**필자** **강영환(姜榮煥)**

## 사신대감(使臣大監)

상호참조 대감(121쪽)

정의 사신(使臣)으로 왕래하던 대감신 또는 여자가 시집갈 때 신부를 따라 친정에서 시댁으로 옮겨 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에서 믿어지는 가정신.

형태 신체(神體)로 남색쾌자나 벙거지를 쓰며, 이를 한지에 싸서 모신다. 봉안하는 장소는 광의 선반, 건넌방의 선반, 대청 위 등 제각각이다.

특징 사신대감은 대감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대감과 달리 이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집가는 신부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특수한 신격의 가정신이다. 대감은 일반적으로 집안의 운수와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지는데 사신대감 역시 이런 측면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매우 무서운 신으로 인식되거나 며느리와 시부모의 불화를 막아주는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긍정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을 숭신하는 집과는 혼인을 꺼리기도 한다. 고사를 지낼 때 친정에서 따라온 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음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다른 가정신과 구별된다.

지역사례 사신대감은 인천시 강화도지역에서 전승되는

가정신이며, 사례도 많지 않아 세 곳에서 확인된다. 주로 강화군 교동도에서 전승된다. 사신대감처럼 시댁으로 이동하는 신격이 강화도에서 전승되고 있다. 신격은 말명, 식신대감, 천신대감, 친정별상, 친정귀신, 오씨할머니, 호서낭 등이다. 말명은 만신이 죽어서 된 신격, 식신대감은 집안의 복을 관장하는 대감이다. '친정귀신'은 내력을 알 수 없지만 친정에서 숭신되는 신격으로 보인다. '오씨할머니'는 무당이었던 친정의 고조모를 가리킨다. 이로 보아 이들 신격은 친정과 관련된 특정인이 신으로 좌정한 사례로 판단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신대감과 유사하게 이동하는 신격을 찾을 수 있다. 강원도의 산멕이와 경기도 시흥시 군자봉 성황당의 신격을 들 수 있다.

**의의** 사신대감은 강화도에 전승되는 가정신앙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사신대감은 비록 모시는 사례가 적지만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신대감은 통혼(通婚)과 관련하여 이동하는 신격이라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통혼을 통해 양가의 신격이 접촉하고, 특정한 관계를 통해 화해를 이루고 믿어진다는 점에서 가정사를 반영한다.

**참고문헌** **강화 가정신앙과 무속의 관련성**(홍태한, 강화가정신앙연구, 민속원, 2011), **강화 민속과 강화 가정신앙**(장장식, 강화가정신앙연구, 민속원, 2011),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장장식, 시흥군자봉성황제, 시흥문화원, 2005), **산메기의 특징과 가정신앙적 성격**(장장식,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친정에서 따라온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강화도의 사례를 중심으로**(홍태한, 남도민속 20, 남도민속학회, 2010).

**필자** **장장식(張長植)**

## 산

상호참조 산멕이(244쪽)

**정의** 강원도 산간마을에서 산멕이(산메기) 제사 때 신으로 인식되는 금줄.

**형태** '산'은 대부분 가정주부가 중심이 되어 부엌에 처음 모시며, 금줄에 닭발이나 생선 등을 꽂는다. 이는 그해 처음 먹은 것 가운데 고기나 닭발을 달거나 반농반어(半農半漁)의 가정에서는 처음 바다에 가서 잡은 물고기를 매단다. 대부분 새끼줄로 엮어서 만들며, 일부 지역에서는 삼베를 길게 찢어서 약 1m 길이로 만든다.

**내용** '산'은 산멕이 제사 때 나무에 거는 금줄의 한 형태로서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행하는 혈연중심의 집안제사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산을 끼고 살아가는 마을에서 행하며, 주로 봄철 3월부터 5월 사이에 산에 가서 건다.

'산'은 부정을 막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산'을 거는 행위가 이른바 '산멕이'라는 제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산멕이는 '산멕이기'라고도 한다. 이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서 '호랑이에게 제물을 먹인다'는 뜻을 담는다. 한편 '산맥이'라고 하여 마을신앙인 골매기(골막이, 谷防)와 같은 뜻으로, 산으로부터 닥쳐올 수 있는 각종 재앙을 막는 방어적 의미도 갖는다. 아울러 호랑이를 지칭하는 산군(山君)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속신앙적으로 "산을 매어 놓는다."라는 뜻으로 '산메기'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산멕이의 '산'은 재액방지라는 금줄의 신앙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이라는 신앙체가 상징하는 제의는 '먹는다[食]', '막는다[防]', '맨다(묶는다)[結]'의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먹고', '막고' 하는 것은 신적 대상이 하는 행위이고 '매고', '묶고' 하는 것은 주제자(主祭者)의 신앙적 행위다. 현행 산멕이는 '산멕이기'라 하여 막는다는 의미보다 '먹인다(대접한다)'는 의미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산'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산멕이 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로 불릴 뿐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산'이 '호랑이'를 상징하여 소가 호랑이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뜻으로 산멕이줄을 걸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호랑이가 멸종된 상태에서 백두대간에 호랑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소를 키우는 가정도 줄어들었으므로 산멕이 신앙의 본질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조상신, 삼신, 군웅신, 용신에게 자손의 번창과 가축의 성장 및 곡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다양한 가정신앙으로 바뀌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가정에서는 정월이 되면 집안의 대주(大主)인 남성이 짚으로 이른바 '산'을 1m 정도로 만들어서 왼새끼로 꼬아 부엌에 걸어놓는다. 이것을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오월단옷날 등 길일이 되면 가정주부가 '산'을 벗겨서 마을 앞산에 올라간다. 각자 정해진 소나무 등 집안나무 양쪽에 '산'을 옆으로 길게 걸치거나 나무의 하부에 돌돌 감고 나서 그 앞에 주과포 등 제물을 차려놓고 집안 대주의 평안, 가정의 안녕과 자손의 출세, 소의 번식 등을 빈다. 집안나무는 소나무의 경우 여러 가지로 뻗었으면 일가친척이 각자 한 가지에 '산'을 묶고 제를 지낸다. 대체로 대대로 정해진 나무 앞에 '산'을 걸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사를 마치면 가지고 간 칼을 던져서 신이 흠향했는지 확인한다. 던진 칼끝이 자신과 반대쪽으로 향하면 모든 재액이 물러가고 신이 잘 받아먹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삼척지역에서는 집안의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산멕이기를 하고 나서 가지고 간 음식을 나누어 음복(飮福)을 하기 때문에 마치 봄철의 일가친척 야유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대부분 산멕이 제사 때 가지고 간 '산'은 그대로 나무에 걸어두며, 이듬해 다시 가서 새것으로 바꾸어서 단다.

산멕이는 용어상 '산을 멕(먹)인다', '산을 맨다' '산을 막는다'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방어기제인 '산'으로 무엇을 막는다는 형태의 '산맥이', '산매기' 등으로도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 삼척지역 41개 자연마을에 전승되던 산멕이는 대체로 '산을 먹인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것은 호랑이를 받드는 것으로, '호랑이에게 제물을 차려 먹인다.'는 뜻이다. 다음은 '산'을 매어 놓는다는 뜻이다. 이 역시 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줄 형태로 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을 막는 것은 산으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신앙적 의미이다. 산멕이는 대부분 산을 끼고 있는 삼척, 강릉, 속초, 양양, 태백, 정선 등 강원지방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독특한 신앙이다. 이는 산신제와 다르다. 산멕이는 그 제사양식이 집안신앙이 외부인 산으로 옮겨진 제의 형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상신 나들이'라고도 말한다. 이처럼 강원지방 산멕이에서 '산'의 기능이나 목적, 형태 등이 다양하고 그것이 시기가 지나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의미나 대상 또한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그 특징은 첫째로 소가 안전하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비는 군웅신앙적 요소가 있다. 대부분 가구(家口)로서 한 식구로 취급하는 소를 키우는 가정에서 산멕이를 잘 지킨다. 호랑이로 상징되는 '산'을 잘 풀어먹이고 대접하여 집에서 키우는 소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산멕이에서는 소가 다치지 않고 짐승들로부터의 피해를 막으며 농사도 잘되기를 소원한다. 요컨대 산멕이는 신에게 가정에서 소중한 가축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조상을 잘 모셔서 집안이 안과태평하고 자식들이 잘되게 해 달라는 목적이 있다. 산멕이를 갈 때는 조상 수대로 메를 지어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불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모시고 가서 경을 읽는다. 이때 조상거리가 가장 성대하게 진행된다. 즉 산멕이의 중심이 조상신 모시기로 파악된다. 이때 처음에는 간단하게 산멕이를 알리는 것으로 끝내고 이어서 조상축원이 길게 이어진다. 조상축원에서는 축원과 소지올림, 삼베를 찢어서 조상옷을 해 입히는 절차 등이 있다. 따라서 집안 조상을 봄철에 화전(花煎)놀이, 꽃놀이 삼아 바깥나들이를 시켜드리면서 잘 모시는 집안의례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산멕이터에 삼신당을 마련해두고 여성들의 출산이나 집안 자녀들이 별 탈 없이 무고하기를 빈다. 아기를 못 낳는 여성들이 산제불공이라 하여 이곳에 모셔온 삼신에게 기원하는 등 집안의 삼신과 달리 산멕이에서는 주로 자손의 건강,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한다.



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2004.1.24
윤동환

**지역사례** 산멕이는 지금까지 강원도 영동지역과 정선, 영월 등 영서지역에서도 보고되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삼척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강릉 일대에서는 현재도 그 전승이 확인된다. 강릉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나 집안 일가친척이 함께 집안의 '산'을 가지고 가서 걸어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와 달리 삼척지역의 산멕이는 자연마을 단위의 동족 또는 문중집단이 무당이 경을 읽는 독경자 복자(卜者)와 함께 산에 가서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삼척지역의 산멕이는 신앙의례 행사와 함께 봄철을 맞이하여 마을단위나 문중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 가지고 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새봄 나들이와 신춘모임을 하는 성격도 갖는다. 이러한 성격 탓에 일찍이 조선총독부에서 출간한 향토오락 조사자료집 삼척지방편에서는 "산제(山祭) 시기:봄, 형태:각 문중별, 놀이법:문중별로 모여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무당과 함께 산속으로 가서 산제를 올린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산제는 산신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제와 산신제는 제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산제는 곧 '산에서 제를 지낸다'는 장소적 의미이고, 산신제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대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근래에 행해지는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의 경우 여성이 중심이 되어 남성도 참여하며 먼산맞이, 산맞이, 조상맞이, 군웅맞이, 삼신맞이, 용신맞이 등 여섯 마당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산멕이기에 등장하는 신격은 산신, 조상신뿐만 아니라 삼신, 군웅신, 용신 등으로 파악된다.

삼척지역 산멕이가 집단적, 혈연적, 남성적, 공동체적이라면 강릉지역은 개인적, 여성적, 개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도 삼척지역이 무당이 굿을 하거나 복자가 독경으로 진행하는 형태라면 강릉지역은 개인이 비의적 형태의 비손으로 진행한다. 제의를 주관하는 유형으로는 무당주도 굿형, 복자주도 독경형, 여성 개인 비손형이 있다. 참가범위는 부녀자 단독형, 부녀자의 며느리 동반형, 부녀자와 가족동반형 등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산멕이의 신체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왼새끼를 꼰 금줄을 가지고 산에 가서 미리 정해놓은 나무에 빙빙 감아놓는 형태, 둘째는 금줄이나 삼베줄을 가지고 산에 올라 양쪽의 나무에 길이 1m 정도로 옆으로 길게 거는 형태, 셋째는 명주 실타래를 네 번 접은 한지에 묶어서 자기가 정한 나무의 중턱에 걸어 놓는 형태, 넷째는 아무것도 걸지 않고 큰 나무나 바위 밑에 제물을 진설하고 산에다 비는 형태, 마지막으로는 산에 가지 않고 집안의 부엌 입구에 한지와 명주실을 매달고 주부가 제를 지내는 형태로 세분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산멕이는 시대와 가정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태수의 연구에 의하면 주관자가 여성에서 부부 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한집안 사람들에서 한마을 여러 집안사람이 나고 개인으로 바뀌기도 한다. 사제자 및 의례방식도 무당(굿), 복자(독경), 빌 줄 아는 주민(무당 또는 복자 흉내), 개인(치성)으로 바뀌고 장소도 산 정상에서 중턱이나 중도 또는 집안의 망제로 바뀌고 있다. 제사 시기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서 1년에 한 번 봄철 또는 가을철로 줄다가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 지내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산멕이는 집성촌의 집단적 제의로 행해지던 마을도 각성바지로 들어와 살면서 달라졌고 같은 향리, 같은 집안의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지내던 지연혈연공동체적 제의에서 자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축제형태로 바뀌어 산멕이는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산멕이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다보니 현지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마다 발음상 다소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산멕이, 산메기, 산멕이, 산맥이 등 다양한 용어 가운데 혼란이 적고 그 의미가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산멕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산메기는 살아 있는 '메기', 산맥이는 '산맥'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의 중심어는 '산'이다. '산'이라는 금줄을 걸고 행하는 집안신앙은 가정마다 달라지는 가가례(家家禮)와 같이 자신들의 현실적 상황과 신앙심에 맞추어 신앙적 대상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의** '산'은 산멕이의 신체로서 봄철을 맞이하여 나무에 새싹이 돋으면 산에 올라가 집안의 무사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이것을 건다. 따라서 '산'은 금승(禁繩) 문화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 '산'의 주관자(主管者)가 남성이 아닌 여성중심이므로 생명의 확대재생산의례로 보기도 한다. '산'은 가정과 문중의 신앙심을 상징하고 재액을 막는 방어기제로 파악되는 중요한 금줄문화다. 또한 '산'은 집과 산을 상징적으로 연결하는 신앙적 매개체로서 집안신앙이 중심으로 되고 강조되고 있다. '산멕이'가 집안의 번창과 가정의 안녕을 여러 신에게 기원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집안신앙적 다신관(多神觀)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앙대상도 호환방지, 재난예방 등에서 번영, 안녕, 출산 등 여성과 가정사 중심의 신앙대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산멕이제는 동족마을의 친목소풍, 집안잔치적 성격, 혈연중심의 공동체적 의례, 군웅신 및 조상신 등을 위하는 여성중심의 가정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걸게 되는 '산'은 바로 다양한 가정신앙의 신격이 깃드는 신앙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다.

**참고문헌** **강원지역 산맥이신앙고찰**(장정룡,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산메기 현지연구**(김진순, 역사민속학 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산멕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김태수,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삼척지방의 마을신앙**(장정룡, 삼척문화원, 1993), **신리화전부락**(장주근 · 맹인재, 민속자료보호구역조사보고서 4, 문화재관리국, 1973), **심곡마을 산맥이**(장정룡, 행복이 가득한집 5월호, 디자인하우스, 1990), **조선의 향토오락**(村山智順, 박전열 역, 집문당, 1992), **화전촌의 산멕이기**(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필자** **장정룡(張正龍)**

## 산동이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산간지역에서 전승되는 가정신앙의 하나로 집안의 태평과 소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신격.

**내용** 일반적인 단지에 쌀을 넣어두고 나무관자를 덮어놓은 방식으로서 '산단지'라고도 부른다.

산동이, 또는 산단지로 부르는 신앙형태는 주로 집안의 평안함을 기원하며 소를 키우는 집에서 소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은 강원도의 산맥이기와 유사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앙체가 울진지역에 변화되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산신령이 태백산 산신령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제의가 소와 집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가 아프거나 새끼를 낳을 때 산동이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하는 사례가 조사된 예로 보아 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앙체로 볼 수 있다.

산동이는 대개 구들이 있는 윗목의 시렁이나 마루의 위쪽 시렁, 부엌의 시렁 등에 놓인다. 이들 산동이에는 주로 쌀을 담아두며, 사월초파일에 단지의 쌀로 떡을 해서 산에 올라가 고사를 지낸다. 이때는 산맥이기처럼 자기 집안의 소나무가 있으면 이 소나무에 떡을 차려놓고 비손한다. 동이 안의 쌀을 추수 후에 교환하는데, 묵은쌀로는 대개 밥을 해먹는다.

**지역사례** 주로 울진지역에서도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쪽에 위치한 산간마을에서 전승된다. 울진군 북면 주인3리, 서면 소광리 등지에서 조사되었다. 주인3리의 경우 태백산과 물두산 등 산동이에 산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다. 이들 단지 안에는 쌀을 가득 담아 놓았다. 1990년대에는 쌀의 수확이 시원찮다고 하여 반 정도만 담아 두기도 하였다.

제사는 사월초파일에 지낸다. 쌀을 한 줌 정도 남겨놓고 모두 퍼낸 뒤에 햅쌀이 나면 다시 채우는 방식이다. 퍼낸 쌀로는 떡과 밥을 한다. 어느 집에서는 콩으로 빈 단지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

제물로는 떡과 밥, 고기, 채소와 과일 등으로 정성껏 준비한다. 비손 때 축원 내용으로는 "산신령님 착실히 운감하시고 명과 복을 많이 점지해 주십사."라는 정도이다. 특히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산동이를 잘 모셔야 한다. 소가 병에 걸리거나 하면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런 경우에는 점치는 사람에게 택일을 받아 다시 모셔야 한다.

**의의** 산동이, 또는 산단지는 강원도 삼척지역의 산맥이기와 유사한 가정신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대개 건궁으로 표현된다. 이 지역에서 쌀을 넣은 단지로 신체 표현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들 신앙의 목적이 소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앙체이다.

**참고문헌**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김종대(金宗大)**

# 산멕이

참조참조 산(240쪽)

**정의** 강원도 영동지역 주민들이 봄철에 좋은 날을 받아 조상신을 모시고 집안 대대로 정해 놓은 산에 올라가 산신, 삼신, 조상신, 군웅신, 용신에게 가족과 가축의 무사안녕 및 번창 그리고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신앙.

**역사** 산멕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승집단 구성원들은 마을의 입향시조(入鄕始祖)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민속인 만큼 수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기록은 빈약하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영동 민속에는 매년 3·4·5월 중에 택일하여 무당을 맞이하고, 산해진미를 극진히 장만하여 산신에게 제를 지낸다. 부유한 자는 말에 싣고 가난한 자는 짊어지고 가서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생황을 불고 북을 치며 거문고를 뜯는 등 연 사흘 동안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고 논 연후에 집으로 내려 온다."라는 기록이 있다. 구체적인 제의 내용이 없어 단순한 산신제인지 집단적인 산멕이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자료가 조선 전기의 산멕이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자료로는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소개된 충북 진천지역의 풍속으로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인들이 무당을 초빙하여 용왕당과 삼신당에서 제를 올린다."라는 내용이다. 두 사례가 오늘날까지 영동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멕이와 같은 유형의 산제(山祭)라고 보면 그 역사가 조선 전기로 소급되고 전승 범위도 넓어진다.

영동지역 산멕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펴낸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서 볼 수 있다. 삼척지역의 봄철 놀이로 "문중별로 모여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무당과 함께 산 속으로 가서 산제를 올린다."라는 내용이다. 삼척지역의 민속 조사 자료에서도 산멕이는 삼월삼짇날이나 사월초파일 또는 음력 삼월에 택일하는 봄철의 세시풍속이고, 문중(씨족) 단위로 무당을 대동하는 집단적인 민속신앙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산멕이의 초기 형태는 한 마을에 사는 문중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민속이었다. 그러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을 내의 씨족구성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와 같이 마을 단위의 행사로 변한 곳도 있고 강릉지역의 사례처럼 각자 가정에서 날을 잡고 행하는 가정 단위의 산멕이로 변한 곳도 있다. 또한 초기에는 여성(시어머니와 며느리 등)이 의례의 주관자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부 또는 가족 모두로 변화되었다. 사제자 및 의례 방식도 여러 명의 무당을 대동하는 굿놀이에서 독경쟁이 또는 개인 치성으로 바뀌었다.

**내용** 산멕이는 산에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산멕이기, 산메기, 산멕이 등으로 불린다. 마을을 지키는 신앙을 '골맥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 또는 산군(山君)으로 불리는 호랑이로부터의 피해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산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멕이의 의례 절차나 내용, 그리고 농사 풍년을 위해 논에서 지내는 고사를 '논멕이', 제사 음식을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마실멕이'라고 하는 등의 언어용례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산 또는 신을 대접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산을 대접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산멕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산메기'는 산에 사는 메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산멕이기'는 산멕이하는 행위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멕이'가 합당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멕이는 마을 단위의 집단적인 형태와 가정 단위의 개인적인 형태가 있다. 집단적인 산멕이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로 음력 3월이나 4월 중 날을 잡는다. 날을 잡는 사람인 당주를 정하고, 당주가 날을 잡아 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함께 갈 사람들을 확인한다. 이때 동행할 무당(또는 독경쟁이)도 결정한다. 당일 새벽 4시에 산멕이 갈 집에서는 제사상을 차려 조상님께 산멕이 행사를 고하고, 마을 어귀에 모여 함께 산을 오른다. 모든 의례는 무당이 주관한다. 산을 오르기 전에 부정풀이를 한다. 산 정상에 도착하면 태백산신께 올리는 먼산맞이와 산멕이를 하러 온 산신을 위한 산신제를 올린다. 그리고 각 가정의 조상당으로 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진설한 뒤 절을 하고 나면 무당은 각 가정의 제단으로 와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축원해 준다. 제물은 가정에서의 기제사 때와 같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제물 가운데 모든 가정에서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동돌개비떡'이다. 동돌개비떡은 쌀가루나 찹쌀가루를 쪄서 둥근 모양으로 빚어 속을 넣지 않고 만드는 떡이다. 이것은 오직 산멕이의 제물로만 쓰인다.

조상당에서의 의례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몸만 돌려 군웅신께 기원하는 의식을 행한다. 군웅의 신체는 소나무에 오방천을 매단 곳도 있고, 별도의 신체 없이 빌기도 한다. 군웅신에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 특히 소의 무사안녕과 번창을 기원한 뒤 삼신당으로 간다. 삼신의 신체는 20~30㎝ 크기의 돌에다 한지를 감싸 실로 묶어 세워 둔 형태이다. 삼신당에서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빌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기원 대상은 열 살까지의 아동이다. 마지막으로 용신당으로 간다. 용신당은 큰 바위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간단히 제물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린 뒤 마치 씨를 뿌리듯 쌀을 던지며 농사 풍년을 기원한다. 그리고 조상님께 새 옷을 입혀 드린다는 의미의 '조상길갈라주기'로 의례를 모두 마친다. 조상길갈라주기는 삼베조각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좌우로 찢은 다음 나뭇가지에 걸어 두는 의식이다. 제를 마치면 무당은 칼을 던져 신의 감응을 확인한다. 주민들은 상에 놓은 제물을 거둬들여서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갖다가 오후 2~3시쯤 산에서 내려온다.

개인적인 산멕이는 주로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단오 가운데 하루를 택해 지낸다. 새벽 4시쯤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엌에서 집안의 남자가 만들어준 왼새끼줄에 꿩이나 닭, 한지, 바다에서 처음 잡은 생선 등을 끼워 놓은 '산'과 다른 제물을 놓고 산멕이가는 것을 고한 후 제물을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 조상 대대로 사용하는 신목(神木)이 있는 산으로 향한다. 산에 올라 제단에 도착하면 먼저 자신의 나무(신목, 주로 소나무)에 금줄을 친 다음 가지고 온 제물을 놓고 제를 지낸다. 집안의 대주인 남편과 가족의 생년월일을 대면서 산신령께 빌고 가축도 탈이 없기를 기원한다. 제물은 메 두 그릇, 무탕, 생선, 두부, 시루떡, 과일, 술 등으로 간결하다. 제사가 모두 끝나면 절을 두 번 하고 가지고 온 칼을 동쪽으로 던진다. 이때 칼끝이 자신과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면 신이 반갑게 흠향했다는 뜻으로 믿으며 액이 물러났다고 여긴다.

집단적인 산멕이와 개인적인 산멕이의 공통점은 ①'산멕이'라는 제의 명칭 ②동 트기 전 새벽에 시작하는 제의 시간 ③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집안에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리고,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적어 축원하며, 끝났을 때 칼을 던져 신의 반응을 확인하는 제의진행 형식 ④제의 장소가 산이라는 점 ⑤집안 단위로 한 제단을 사용하는 점 ⑥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대물림의 법칙이 작용하는 점 ⑦제의의 목적이 가족 및 가축의 무사안녕과 번창 그리고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점 등이다.

두 사례에서 모습을 달리하는 것은 제의 주관자, 모시는 신격, 의례형식 등이다. 개인적인 산멕이에서는 제의 주관자가 여성(시어머니와 며느리), 모시는 신격은 산신과 조상신, 의례 형식은 비손이다. 집단적인 산멕이에서는 제의 주관자가 부부 또는 가족이고, 모시는 신격은 산신과 조상신 외에 삼신·군웅신·용신이 추가되며, 의례 형식은 무당에 의한 굿이나 독경쟁이에 의한 독경으로 진행된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집단적인 산멕이를 이어 왔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급격히 사라졌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곳은 도계읍 점리와 미로면 내미로리 정도이다. 내미로리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산멕이를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봄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음력 3월 중 좋은 날을 택하여 산멕이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로 인해 음력 사월로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다. 점리에서는 3년에 한 번 4월에 날을 잡아 산멕이를 하고 있다. 이 두 마을의 경우도 한 마을에 사는 같은 씨족끼리 산멕이를 하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을 단위의 산멕이로 변했다. 마을의 당주가 날을 잡으면 주민 모두가 함께 가는 형태이다. 마을에서 집단적인 산멕이의 전통이 사라지면서 하지 않는 집이 많지만 삼척지역에서는 아직도 개별적으로 마을마다 몇 집 정도는 산멕이를 행하고 있다.

개인적인 산멕이는 강릉이 주요 전승지이다. 옥계면 심곡리와 도직리 등 바다에 접한 마을에서 산멕이

**산멕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쉰움산, 2007, 김태수


1. 조상신 상차림


2. 조상신께 고하기


3. 부정풀이


4. 먼산맞이


5. 산멕이 조상당


6. 조상당 축원문쓰기


7. 조상당 상차림


8. 동돌개비떡


9. 조상맞이의례


10. 조상당 신수풀이


11. 조상당 소지올리기


12. 삼신당 상차리기


13. 삼신당 축원


14. 용신제


15. 조상길갈라주기


16. 객귀물리기

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음력 5월 4일 밤 12시에 성황제를 지내고 5일 새벽 4시쯤에 산멕이를 지낸다. 남자들이 보면 부정 탄다고 하여 남편들은 부인이 산멕이 가는 것을 알아도 모른 척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제물을 이고 산으로 가서 각 가정의 신목에 금줄을 치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를 지내고 내려와 강릉단오장으로 놀러간다고 한다.

강원도 영동지역 이외에 산멕이와 유사성을 보이는 사례로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모산마을의 산제를 들 수 있다. 종가에서는 3년마다 산제를 지낸다. 가문마다 산제를 지내는 장소가 따로 있다. 제사는 맏며느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산제를 가기 전에 먼저 성주와 조상에게 고한 뒤 음식을 준비해서 산제를 지내는 곳의 튼 나무를 찾아간다. 제사를 지내고 산에서 내려와 대문에 맞작대기를 사흘 동안 걸며, 이 기간에는 집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삼척지역의 산멕이도 『조선의 향토오락』에 '산제'로 기록되었고, 제사 참여 범위가 집안 단위이며, 제의 주관자가 여성(맏며느리)이고, 제의 절차와 신체까지 산멕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학가산 자락의 신전2리와 석탑리의 동제(洞祭)도 산멕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두 마을은 김용(金涌)이라는 경주 김씨 입향시조를 기점으로 하여 개척된 동성마을이며, 두 마을 사이에 선산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 있다. 산줄기 정점인 삿갓봉에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경주 김씨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모시는 '신구할매'가 좌정한 까닭에 매년 봄가을로 공동제사를 올린다. 이 마을에서 전승되는 신화는 대부분 신구할매에 집중되어 있다. 입향시조는 10월 시사(時祀)에 국한되지만 신구할매는 4월과 10월에 가족 단위로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 제를 올리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집안 단위의

**산멕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쉰움산, 2011.5.9, 김도현



산멕이줄



새로 만든 산멕이줄



산멕이 제물진설



산멕이



공동체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문헌 자료로는 홍성모의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충북 진천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천 땅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인들이 무당을 초빙하여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龍王堂)과 삼신당(三神堂)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정성을 올린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행렬이 끊어지지 않으며, 사방에서 여인들이 모여들어 기원을 하고 있어 연중 시장을 이룬 것같이 들끓었다는 내용이다.

**의의** 산멕이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한 마을에 사는 문중 사람들이 생기 좋은 날을 택해 집 안에서 모시는 조상신과 함께 정해진 문중 산에 올라 생식의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 모두의 무사안녕과 자손 번창, 가축의 번창,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생명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정신앙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산간민속을 중심으로**(김진순,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장정룡,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산메기의 특징과 가정신앙적 성격**(장장식,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산메기 현지 연구–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김진순, 역사민속학 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산멕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김태수,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산에다 복을 비는 민간신앙, 산메기**(황루시, 실직문화 5, 삼척문화원, 1994), **삼척지방의 마을신앙**(장정룡, 삼척군·삼척문화원, 1993), **삼척지역의 민속문화**(이창식, 삼척문화원, 2000), **영동지역 산멕이연구**(김경남, 임영문화 16, 강릉문화원, 1992), **조선의 향토오락**(村山智順, 박전열 역, 집문당, 1992),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집문당, 1995),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태수(金泰水)**

## 산바람막기

**정의** 산소에 손을 댄 결과 집안에 우환에 생겼다고 믿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제의. 산바람막기는 산신바람막기, 산소탈막기, 산탈막기, 산소동토막기 등으로 불린다.

**내용** 산바람이 난 것은 그냥 두어야 될 해에 산일을 한 경우 자손에게 큰 탈이 나는 것을 말한다. 산소를 없애거나 이장하는 일, 석물이나 축대를 세우는 일, 산소 주변의 나무를 베거나 떼를 입히는 일, 산소 주변에 길을 내는 행위도 산바람에 해당한다.

산소 주위의 토지 개발로 산소를 옮겨야 하거나 집안에 우환이나 풍파가 일어난 경우에는 지관이나 무속인에게 묏자리에 이상이 있는지를 물어서 산소를 옮긴다. 조상이 꿈에 자주 나타나거나 가족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도 무속인을 찾아가 이장을 한다.

무당이 집안에 어떠한 연고가 있는지 신령에게 물어 보아 산바람이 원인이라는 점괘가 나오면 산소에 가서 왜 이런 탈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하고 나서 굿당에 와서 굿을 한다. 또는 산신에게 산신제를 올린다. 집에서 굿을 할 경우에는 부정거리-조상거리-서낭거리-해원거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신명대로 모든 신을 불러 조상신들이 노한 것을 풀어준다. 후손이 산소를 잘못 만져서 탈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조상들을 잘 놀려야 한다. 조상들의 한을 이렇게 풀어 주는 것을 '산바람 막는다'라고 한다.

**지역사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김진환 법사는 묘의 좌향과 조상의 운 및 자손의 운이 닿지 않았을 때 묘를 손보면 산소탈이 난다고 한다. 산소탈도 산소에 동토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싫은 물건을 함부로 산소에 놓아 두어서 그 자손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여긴다. 특히 시신을 이장하거나 석물의 좌향을 옮기거나 새 석물을 옮겨다 놓았을 경우에도 탈이 난다. 이때에는 동토경을 읽지 않고 조상축원을 해서 탈난 것을 풀어준다. 산소탈이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탈을 잡아야 한다.

묘 앞에서 조상 축원을 하기에 앞서 묘도 산의 일부이므로 산제를 지내야 한다. 산제에는 산신께 묘에 가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의미가 있다. 제물로는 산신시루, 삼색실과, 술 등을 마련한다. 제물의 종류는 법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산신 앞에서 산신경을 잃고 난 뒤에 탈이 난 조상의 묘로 향한다. 산소 앞에 성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물을 올리고 조상 축원을 한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산소탈이 났다고 표현한다. 묘에 말썽이 생겨서 집안이 좋지 않을 경우 묘에 가서 고를 풀고 굿을 한다. 점사(占事)를 봐서 산에 탈이 난

사람이면 보살 눈에 산이 보인다고 한다. 즉 산소가 잘못됐다고 나온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에 묘소를 쓰면 자손이 미치거나 죽는 등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곳은 피해야 하며 묘를 쓴 경우 옮겨야 된다고 한다. 묘를 옮길 때는 산신에게 음식을 차려서 잘못을 고한다.

충남 공주지역에서는 산화바람막기, 산소탈, 산신동토라고 하면서 조상의 묘소를 새로 만들거나 수리를 한 뒤에 탈이 난다고 믿는다. 이를 '산화(山禍)바람', 흔히 '묘탈'이라고도 한다. 묘소의 주인인 조상이 탈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대개 새로 묘를 썼거나 밀례[緬禮]를 했거나 석물(石物)을 세웠거나 학이나 꿩 혈에 무거운 석물을 놓은 경우에 발생한다. 학이나 꿩은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그 날개를 무겁게 눌렀으니 탈이 나는 것이다.

병굿을 하면서 댓공사를 할 때 산화바람인가를 물어서 그렇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묘소 뒤편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삼색실과, 시루떡, 불고기 한 그릇, 옥수, 술 등을 바친다. 그 앞에서 부정을 치고 육개주를 열며 〈태을보신경〉과 〈산왕대신경〉을 왼다. 산왕대신경은 흔히 산신경, 산왕경이라고 부른다. 조상의 탈을 다스리려면 묘소의 주인인 사신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

산신제를 마친 뒤에는 조상의 묘소 앞으로 가서 조상상을 마련한다. 기제사를 지내듯이 떡, 불고기, 나물, 과일, 조기 등을 올린다. 묘소가 쌍분이라면 두 분을 위하고, 단묘라면 한 분만을 위해 상차림을 한다. 이때 상 옆에는 그날 치성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옷을 가지런히 펼쳐 둔다. 그 앞에서는 부정경-육개주-태을보신경을 외고 이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선망조상과 후망조상을 위해 조상해원(조상축원)을 곁들인다. 마지막에는 〈명당경〉을 왼다. 치성을 마친 뒤에는 제물을 산신당과 묘소 주변에 조금씩 떼어 놓고, 남은 것은 모두 땅에 묻는다. 일반적인 산치성과 달리 산화바람으로 산신제를 지낸 경우에는 제물을 다시 집 안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황경순(黃慶順)**

## 산소탈막기

표제어 산바람막기(249쪽)

## 산신멩감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수렵이나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집안이나 그것을 생업으로 한 조상을 모신 집안에서 음력 정월에 들판에 나가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고 조상을 대접하는 제의. 멩감제의 하나이다.

**내용** 〈사만이본풀이〉에 따르면 멩감은 목숨이 다한 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차사와 같은 신격이다. 멩감을 잘 대접하면 수명을 늘리고 액을 막고 복을 받는다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동·서·남·북·중앙에 멩감이 각각 따로 있다고 믿는다. 생업에 따라서는 산신멩감, 세경멩감, 요왕멩강, 선왕멩감 등이 있다고 믿는다. 이 가운데 산신멩감은 수렵, 목축과 관련된 신이다. 제의명으로 '산신멩감코스', '드릇멩감', '산신제', '멩감제'라고도 한다.

산신멩감을 하기 위해 정월에 식구들의 생년월일을 살펴 생기복덕이 맞는 날을 택일하여 한밤중에 집이나 산에 가서 제의를 행한다. 산신멩감 고사를 집에서 큰굿으로 행할 때는 도진(굿을 끝맺는 마지막 거리에서 굿을 노는 일) 직전에 심방이 닭의 코를 꿰어 이끌고 담 위를 돌아다니면 소미가 총을 들어 쏘는 시늉을 한참 한 뒤에 닭을 잡아서 칼끝에 꿰어 산신군졸을 사귀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역사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는 조선시대 때 말을 나라에 바쳐 관직을 하사받은 집안으로서 큰굿을 하기 전에 산신제를 하였다. 굿의 차례는 베포도업침-날과 국 섬김-연유 닦음-젯도리(신의 위계를 차례로 말하는 것)를 하고 산신질침을 한다. 다음으로 산신멩감으로 분장한 심방이 들어와 난무(亂舞)를 한다. 이때 소미가 쌀부대를 들고 도망을 가면서 술과 떡을 주위에 뿌리고 쌀을 뿌리면 산신멩감이 쫓아가 총으로 죽이는 장면을 재연한다. 길게 깐 빨간색 천을 잘라 내어 다른 천으로 추낌(천을 어깨 너머로 계속 넘기는 것)을 하고 산판점을 한 뒤에 산신기를 병풍에다 꽂는다. 이어서 분부사룀을 하고 다시 영가질침을 한다. 이 질침에서 특이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큰심방과 소미가 막대기로 총을 만들어 서로 싸우는 장면을 재연하는 것이다. 다음엔 영가울림이 있고 산신놀이가 이어진다. 산신놀이는 소미 둘이서 사냥꾼으로 분장하여 노루 사냥을 나선다. 미리 준비한 닭을 숨겨 놓으면 둘은 서로 그 닭을 먼저 찾으러 공터를 돌아다니다가 찾아서 제상 앞으로 와 서로 자기가 잡았다고 싸움을 하면 심방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닭을 잡아서 점을 친다. 이어서 본주를 제상 앞에 앉혀서 푸다시(푸닥거리)를 한 다음 공시풀이(심방의 조상들을 모셔놓고 술 한 잔씩을 권함)를 하고 굿을 끝낸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강권용(康權用)**

## 산치성(山致誠)

**정의** 산에 치성을 드려 자손발복, 가족의 건강과 화목, 생업의 번창 등을 비는 의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간지역에서 전승된다. 산제, 산기도라고도 한다. 산제당, 또는 산당이라고 부르는 당이나 특정 장소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행한다.

**내용** 산치성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산제당이나 산당으로 가는 경우와 집안에서 내려온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산제당은 집, 나무, 바위로 존재한다. 당집을 지은 경우에는 당 안에 산신도를 모시거나 한지와 실을 매달아 신위로 모신다. 산신도에는 '태백산 산신령'처럼 주변의 아무개 산신령이라고 적어 놓은 경우가 많다. 이 밖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특정 장소에 대를 이어 찾아가 치성을 드린다. 이때 다른 집안에서는 그 장소에 가지 않는다.

산치성을 가는 날짜는 지역, 집안에 따라 정해진다. 정월이나 시월, 동짓달에 날을 받아서 가거나 삼월 삼짇날, 사월초파일에 가는 사람이 많다. 호랑이날에 산에 가는 사람도 있다. 호랑이가 산신의 사자이면서 영물이기 때문이다.

**산치성** 충남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연암산, 2008.2.21, 박종익



헌작



재배



산치성 제물

산치성은 부정을 몹시 가린다. 치성을 드리러 가기 전에는 초상집이나 해산한 곳을 가지 않으며 몸가짐을 정하게 한다. 치성을 드리러 오는 길에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되돌아오기도 한다.

제물은 간단하게 준비한다. 특히 비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육고기는 물론 어물도 마른 포를 올린다. 메는 집에서 지어가거나 산에서 새옹에 짓는다. 떡, 과일, 술을 올리면서 술 대신 청수를 바치기도 한다. 먼저 당 안이나 나무에 백지 한 장을 걸어 놓고 제물을 진설한 뒤에 비손을 한다. 비손을 마치면 제물을 조금씩 덜어 바치고 음복한 뒤에 내려온다. 무당을 데려가 독경을 하거나 본격적인 비손으로 치성을 올리기도 한다.

산치성은 산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신앙이다. 치성의 목적은 자손발복, 특히 기자신앙과 관련이 깊다. 이는 삼신을 산에서 타온다는 민간신앙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사를 가거나 사정이 생겨 산치성을 갈 수 없으면 반드시 산신에게 사유를 고한다. 평소처럼 제물을 진설하여 더 이상 올 수 없는 사유를 고한 뒤에 비손을 마치면 제기를 모두 엎어 놓고 내려온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간태산 산제당은 3백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주로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삼신에게 빌러 삼월삼짇날이나 사월초파일에 이곳에 많이 온다. 산메기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지만 산제당의 산제, 산치성은 자손 발복을 비는 것이다. 산제당에서 치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영험담이 많다. 산제는 단출하게 부부가 가거나 부인이 혼자 간다. 부정한 사람은 가지 못한다. 제물도 비린내 나는 음식은 산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포를 놓고 떡, 술, 밥, 과일을 함께 놓는다. 떡은 백설기나 팥시루떡을 한다. 대기리 절골의 산제당 안에는 산신도가 걸려 있다.

**참고문헌** 오십천 사람들(김진순, 삼척문화원, 2002).

**필자** 황루시(黃縷詩)

## 살고사

**정의** 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독살이나 어살[漁箭]에 고기가 많이 들기를 기원하는 어로신앙의 하나. 살고사는 살의 종류와 대상신의 신격에 따라 독살고사, 함정고사, 유왕고사, 참봉고사, 덤장고사 등으로 불린다.

**역사** 살고사의 역사를 기록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살을 놓아 고기를 잡는 방식이 가장 원시적인 어로기술의 하나임을 상기할 때 살고사는 어살의 역사와 더불어 유래된 어로신앙의 하나로 이해된다.

어살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어법이다. 조류를 따라 내유하는 조기, 청어, 민어, 갈치, 숭어, 대하, 전어 등 거의 모든 어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어살은 충청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라도, 황해도 등의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이는 지난날 살고사의 전승지역과 일치한다.

어살은 처음에 하천에서 시작되었다. 즉 하천을 토석, 대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가로막고 그 일부만 틔어 물이 흐르게 한 다음 그곳에 발이나 통발을 설치하여 물의 흐름에 따라 내려오는 고기를 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의 중하류인 백마강 연안에서는 마을마다 으레 한두 곳에 살을 설치하는 '살자리'가 있었다. 주로 강폭이 좁고 물살이 빠른 여울목에 살을 놓은 뒤 고기가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포획하는 방식이다. 백마강에서 특산물로 유명한 숭어를 낚는데 이용되었다. 근래까지도 살자리에는 관의 입찰을 거쳐 '전취특권(全取特權)'을 획득한 '살주'만이 어살을 놓을 권리가 부여되었다.

하천에서 유래된 어살은 바다에서 발을 설치하는 해면어량어법으로 발전하였고, 이미 고려시대에도 중요한 어로방법의 하나였다. 규모가 큰 어살은 주로 권문세가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국가에서도 왕자에게는 어살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궁원(宮院)이나 불사의 소유 대상이었다. 이는 어살어업이 많은 수익을 냈음을 방증한다. 어살은 조선시대에도 널리 성행한 어법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빈민에게 사용수익권을 주고 3년마다 교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서해안 일대의 어살과 어족 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청도지역의 경우 태안이 46곳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홍주 33곳, 서천 17곳, 서산 10곳 등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끼고 있는 태안, 홍주, 서산을 비롯하여 비인만 주변의 서천 등지는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심해 어살의 입지조건으로 매우 유리하였다.

어살의 일종인 독살은 어살과 동일한 원리로 바다 쪽을 향해 말굽(U) 모양으로 쌓은 함정어구(陷穽漁具, Trap)이다. 즉 밀물과 함께 바닷가로 밀려온 어류들은 썰물 때 자연스레 돌담 가운데의 '불뚝'에 갇히게 되고, 살주는 독 안에 든 고기를 건져 올리는 단순한 어법이다. 살을 설치하는 재료가 돌인 까닭에 충청도 방언으로 '돌로 막은 살'이란 뜻의 '독살'로 불린다. 남해안지역에서는 '돌발', 제주도지역에서는 '원'이라고 한다.

독살은 주로 충남 서해안에서 나타난다. 이 밖에 전라도,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등에서 전승되던 어법이다. 그러나 경기도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졌고, 대나무가 풍부한 전라도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대를 이용한 어살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반면에 용암이 흔한 제주도지역에서는 독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독살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은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라고 할 수 있다.

어살이나 독살은 지난날 어촌에서 널리 이용된 전래어법이었고, 갯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이때문에 살을 소유한 주인은 고기가 많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기적인 의례를 베풀었다. 그것이 바로 살고사이다.

**내용**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남아 있던 어살과 독살은 소유권이 있는 살주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살고사는 전적으로 살주가 제수를 준비하여 고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 절차는 독살이나 어살의 정면에 제물을 차린 뒤 어로를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용왕이나 물참봉(도깨비)에게 간단하게 비손을 한다. 그리고 회식을 한다. 회식은 살고사에 올린 제물을 사방에 뿌리며 고기가 많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규모가 큰 덤장고사의 경우 단골을 부르고 푸짐하게 제수를 준비하여 지내기도 했다.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개미목에는 무려 24개의 독살이 있었다. 모두 개인이 소유한 것이었다. 이들 독살은 집안마다 대물림을 하면서 누대를 이어오다가 1960년대 이후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독살은 사람을 사서 고기를 잡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면서 서로 고기를 나누는 관행도 있었다. 독살의 주인은 매년 정초에 수문 앞에 떡, 과일, 포 등을 차려 놓고 고기가 많이 들기를 비는 독살고사를 지냈다. 대상신은 용왕과 물참봉(도깨비)이었다.

비인만 일대의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와 서면 도둔리 · 마량리를 비롯해 보령군 오천면의 원산도 · 효자도 · 장고도, 태안군 근흥면의 신진도 · 마도 등지에는 각각 여러 개의 독살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육지와 연륙된 신진도와 마도의 독살이 서해안 최대의 독살로 손꼽힌다. 이들 독살 역시 모두 개인이 운영했다. 마을 사람들은 독살을 쌓는 것을 돕는 대신 반찬거리를 얻었다. 독살이 한창일 때는 농어 · 조기 · 갈치 · 멸치 · 주꾸미 · 숭어 같은 어종이 들었다. 이들 어종은 지게로 피 날랐다. 회유성 어족이 사라지고부터는 숭어같이 고작 근해에 사는 고기만 잡다가 근래에 독살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매년 정초가 되면 독살에 '함정고사' 또는 '유왕고사'로도 불리는 살고사를 지냈다. 물참봉을 달래는 고사이다. 물참봉은 도깨비를 뜻한다. 이때 독살의 주인은 수문 바로 앞에 떡, 과일, 포 등을 차려놓고 고기가 많이 들기를 기원했다.

가로림만을 끼고 있는 서산시 팔봉면 일대의 포구 마을에서는 1960년대만 해도 뱅어로 널리 알려진 실치잡이가 성업을 이루었다. 실치가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고파도, 우도 등지에서는 중선으로 조업을 하였다. 이들 연안에 위치한 호리, 어송리, 덕송리 등지에서는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 살을 설치하여 실치를 잡았다. 실치잡이 어살은 큰살과 온둘살 두 가지가 있었다. 큰살은 '살자리'를 소유한 개인이 매는 살이었다. 온둘살은 몇 집이 공동으로 살을 엮어서 설치했다.

살고사는 주로 큰살을 소유한 살주만 지냈다. 실치잡이가 시작되는 매년 음력 3월에 정기적인 의례를 베풀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제일은 조수가 점점 불어나는 서무날이나 열무날이었다. 바닷물이 빠지는 낮에 제물을 지

게에 짊어지고 살을 매어 놓은 곳으로 간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오는 살통 안에 범벅과 술, 떡 등 제물을 차린다. 절차는 무릎을 꿇고 재배한 다음 고사를 지낸 제물을 살통 사방에 뿌리며 희식을 한다. 이때 살주는 "물 위 참봉 물 아래 참봉 / 오는 재물 가는 재물 / 전부 우리 살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한다. 고사를 지낸 술과 음식은 살을 매는 데 도움을 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는 덤장고사를 지냈다. 덤장은 말장(긴 장대)을 박고 새끼줄을 촘촘하게 엮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살의 일종이다. 곡우 이전에 덤장을 매어 음력 6월까지 조업을 하였다. 예전에는 갈치, 민어, 뱅어 등을 많이 잡았다. 정기적인 고사는 섣달그믐날에 이루어졌다. 해마다 봄에 덤장을 매거나 간혹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에는 길일을 택하여 고사를 지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고사는 덤장을 처음 맬 때이다. 덤장의 주인은 돼지머리, 제숙(덤장에서 잡은 고기), 명태, 삼색실과, 술 등을 갖추어서 일꾼들과 배를 타고 덤장으로 나아가 뱃머리에 제수를 차려서 고사를 지낸다. 이때 부잣집은 단골을 불러서 비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덤장의 주인은 간단하게 떡, 제숙, 명태, 범벅, 술을 놓고 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모두 세 그릇씩을 차린다. 이는 각각 중서낭, 남서낭, 여서낭의 몫이다. 제물을 차린 뒤에는 재배를 한다. 이어서 "비늘 크고 꼬리 크고 머리 큰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 주십시오. 물 묻은 박쪽에 깨 들러붙듯이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축원한다. 범벅을 제외한 제물은 조금씩 떼어내 그릇에 담아 사방에 던진다. 이때 "이 놈을 잡수시고 벌이를 많이 하게 해 주십사." 라고 기원을 한다. 희식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온다.

독살과 어살은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슬기로운 어법이다. 어살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바다를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온 어민들에게 내린 마르지 않는 어류의 곳간이었다. 이러한 전래어법은 20세기 이후에 급속히 사라져 갔다. 어족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동력선 등장 등으로 더 이상 고기가 들지 않는 탓이다. 어살의 소멸은 1970년대 이후에 가속화되었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간석지 개발과 무차별한 저인망식 어획 등 급속한 어업환경의 변화는 연안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는 전래어법이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와 더불어 독살과 어살에서 이루어진 소박한 살고사의 전통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湖山錄, **서해안 독살보고서**(주강현, 주강현의 우리문화 기행, 해냄, 1997), **충남 서해안의 독살 분포와 특징**(주강현, 고고와 민속 1, 한남대학교박물관, 1998), **충남 서해안의 어로민속**(강성복, 충남의 민속문화, 충남 · 국립민속박물관, 2010), **태안 개미목마을**(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대원사, 2006),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현지조사자료**(임기향, 남, 1936년생,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윤덕용, 남, 1931년생, 충남 서천군 마량리).

**필자** 강성복(姜成福)

## 삼신

상호참조 삼신단지(257쪽), 삼신대(258쪽), 삼신모시기(261쪽), 삼신바가지(265쪽), 삼신받기(266쪽), 삼신밥(268쪽), 삼신짚(269쪽)

**정의** 출산 전 기자(祈子)의 대상으로 아이를 점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산모 및 태어난 아이의 출산과 건강을 관장하는 신. 삼신의 고유한 기능은 아이를 점지해 주는 일이지만 아이의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며, 출산 후 산모의 건강도 지켜준다. 그리고 각 가정의 제액초복(除厄招福)도 관장한다.

**역사** 삼신의 연원을 밝히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고대 부족국가의 종교행사에 관한 언급은 일찍부터 기록에 나오지만 가신(家神)의 역사적 근거를 밝힐 만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가정신앙과 무속신앙의 연원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무속에서 위하는 무속신과 가정에서 위하는 가신이 혼합되어 가정신앙과 무속신앙이 근원적으로 같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속의 굿거리에 등장하는 삼신은 아이를 점지해 주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가신인 삼신과 상통한다. 이처럼 무신과 가신이 혼합되어 연원이 같은 것으로 보면 무속의 시원(始原)과 마찬가지로 가신도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삼신은 삼신(三神), 산신(産神)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삼신은 한 분이라고도 하고 삼신할아버지와 함께







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삼신의 삼을 숫자 삼(三)으로 해석하여 세 분이라고도 한다. 이런 이유로 밥 세 그릇, 국 세 그릇, 정화수 세 그릇을 제물로 올리기도 한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를 통해 가정신앙을 논의하면서 삼신의 삼을 '삼(三)'으로 표기하였지만 숫자 삼의 의미로 보지 않고 태(胎)를 보호해준다는 생명의 탄생과 연관 지어 삼신의 성격을 단편적으로나마 드러내주고 있다. 최남선(崔南善) 또한 인간의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을 '삼'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삼신이 관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삼신은 세 명의 신을 모아 놓았다고 보아 삼신(三神)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생과 관련한 신의 기능을 부각시켜 산신(産神)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환인, 환웅, 단군의 삼신을 지칭한다는 설과 산신(山神)이 삼신으로 음운변화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삼신과 산신의 표기는 삼신을 무리하게 한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설 가운데 '삼'을 순수한 우리말로 보아 '태'를 의미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삼신의 '삼'이 우리말 동사 '삼기다' 또는 '삼다'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한다. 상징적으로 보아 탯줄(삼줄)을 꼬아 생명을 만들어 내는 신이라는 의미로 삼신을 해석할 수 있다. 삼신의 '삼'은 '태'의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며, 아이의 출산을 돌보아주는 신으로서 생명의 탄생과 연관시켜 삼신을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삼신은 출산 전 기자의 대상이 되며,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현재는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보살펴주는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삼신은 생명의 탄생과 아이의 수명, 가족의 건강까지 보살펴주는 신으로서 한 가정 내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삼신은 주로 여신으로 상징되어 가정에 따라 집안의 돌아가신 여자 조상을 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일부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서는 '삼신할머니', '삼신할아버지' 두 분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삼신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삼신할머니, 삼신할매, 지앙할미,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주머니, 삼신동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신할머니 · 삼신할매처럼 인격성을 부여하여 삼신을 부르기도 하며, 삼신의 신격에 신체의 형태를 붙여서 명명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제석과 세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고려 왕실의 제석신앙이 불교적 신앙으로 출발하여 민속신앙으로 수용되고, 이 과정에서 가정신앙과도 접맥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신앙에서 제석은 후손을 보살펴주는 조상신이나 아이를 갖게 하는 삼신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불교의 제석과 가신의 삼신 간 만남으로 외래 종교와의 융합을 통해 삼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신에 관한 제의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행해진다. 주로 아이의 출산과 관련하여 행한다. 이 밖에 설, 추석, 정월대보름, 동짓날 등 명절에 제의를 올리거나 신체 안의 햇곡식을 갈아 줄 때 간단히 치성을 드린다. 이러한 특정한 날과 상관없이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등 삼신의 힘을 빌릴 일이 있으면 주재자가 수시로 삼신을 위한다.

아이가 태어난 날에는 삼신상에 미역, 미역국, 밥, 정화수를 올린다. 백일이나 돌과 같이 아이의 기념일에는 실타래, 고추 등도 함께 올린다. 수시로 삼신을 위할 때는 주로 정화수만 올린다. 설에는 떡국,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동짓날에는 팥죽을 올리기도 한다.

삼신의 신체는 지역에 따라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편고리, 지앙동우 등 형태가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 신체 없이 건궁 삼신, 공중 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신체를 상정하는 경우 대개 신체 안에 햇곡식, 한지, 실타래 등을 봉안한 뒤 안방 한쪽에 시렁을 만들어 모시거나 안방 장롱 위에 모신다.

삼신이 주로 '삼신할머니', '삼신할매'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다른 가정신에 비해 신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부분 삼신에게 치성을 드릴 때 "삼신할머

님요"라고 고하고 나서 자녀들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삼신은 아이를 점지해 주고 육아와 건강을 담당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을 삼신으로 좌정시킨다는 것은 아이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 삼신의 힘에 많이 의존한다.

삼신의 여성적인 성격은 삼신이 좌정하고 있는 자리와도 연관이 있다. 삼신의 자리는 주로 안방으로 관념화되어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삼신은 안방 윗목이나 아랫목에 좌정한다. 이것은 여성의 생활공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대부분 안방에서 이루어진다. 삼신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이기 때문에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안방에 좌정해 있는 것이다.

삼신은 여성신이며 깨끗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삼신상에는 다양한 제물보다 간단하면서도 정갈한 음식을 올린다. 어떤 가정에서는 삼신이 비린 음식을 싫어한다고 여겨 육류, 생선 등을 올리지 않는다.

삼신을 돌아가신 여자 조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모시던 시할머니를 내보내고 시어머니를 삼신으로 새로 앉힌다. 그리고 유교제사에서 모셔지는 조상 외에 집안의 조상을 삼신으로 앉히기도 한다. 유교제사의 조상이 되는 대상은 정확하게 서열이 있지만 삼신으로 좌정되는 조상은 서열 없이 조상신의 자리에 앉는다. 유교제사에서 모시는 조상이 구체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삼신으로 좌정해 있는 조상은 추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죽은 조상 가운데 가족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 모셔진다. 가족의 현몽이나 점쟁이의 점괘에 의해 삼신이 모셔지는 경우에는 집안의 돌아가신 큰형님(큰며느리), 시숙모, 그 집안에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재취부인 등으로 조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

삼신상을 차리는 장소에 대한 금기를 통해서도 삼신이 조상신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삼신은 가정마다 한 분이 있다고 관념한다. 부계혈족(父系血族)을 중심으로 같은 성씨(姓氏)는 동일한 삼신이 돌본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삼신**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1리, 2007
백민영

출산해도 상관없지만 며느리와 딸은 함께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며느리와 딸은 다른 집안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삼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친정에서 딸이 아이를 낳아도 친정어머니는 삼신상을 따로 차리지 않는다. 친정에서 삼신상을 차릴 경우 '삼신다툼'이라고 하여 친정댁 삼신과 시댁의 삼신이 서로 다툰다고 한다. 이것은 그 집안의 자손은 그 집안의 삼신이 돌본다는 의미이다.

삼신의 신체에 봉안되어 있는 곡물은 삼신의 재물을 관장하는 농경신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는 물론 삼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시월상달이 되면 묵은 곡식을 꺼내고 햇곡식으로 갈아준다. 이때 간단하게 치성을 드린다. 신체에 봉안되어 있는 곡물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떡이나 밥을 해서 집안 식구끼리만 나누어 먹어야 한다. 곡물의 씨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집안의 재복이 나가는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경남지역에서는 삼신을 주로 지앙, 지앙할미로 부른다. 거제도 일대에서는 자식이 귀한 집에서 아이의 점지를 위해 '지앙탄다'고 하여 점쟁이에게 좋은 날을 받아 쌀과 미역을 준비하여 안방 아랫목에 삼신상을 차린다. 점쟁이는 삼신상 앞에서 아이를 점지해 달라는 내용의 축문을 읽는다. 그런 다음 임신을 원하는 당사자와 시어머니가 삼신상 앞에 재배를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에게 아이의 명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 지앙상을 차린다. 상에는 쌀과 물을 떠 놓고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비손한다. 상은 짧게는 이레, 길게는 일곱이레까지 차린다. 평소에는 물만 떠 놓으며, 이레마다 미역국과 밥을 해서 상에 올린다. 삼신상에 올린 미역국과 밥은 산모가 먹어야 산모와 아이가 건강해



진다고 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주로 삼신할머니, 삼신할매로 지칭한다. 안동시 풍산읍 서미마을에서는 마을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상에 올려진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삼신 앞에 갖다 놓으면 삼신할매가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속설이 전해져 온다. 영천지역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삼신을 탄다. 시어머니나 점쟁이가 실타래, 백설기, 정화수를 준비하여 깨끗한 냇물이나 계곡에 가서 삼신에게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축원한 뒤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 삼신상을 차려서 삼신을 모신다.

안동시 풍산읍 서미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며느리의 돌아가신 큰형님을 삼신으로 모시고 있다. 돌아가신 큰형님이 꿈에 며칠 동안 나타난 이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특별한 병명을 알 수 없었다. 그 뒤로도 회복이 되지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 물으니 돌아가신 큰형님이 동서 집에 삼신으로 위해 달라는 점괘가 나온다고 하였다. 큰형님은 시아주버니의 전처로 후사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 동서 집에 삼신으로 좌정하여 조상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1리 안말에서는 건궁으로 삼신을 모신다. 삼신을 아이의 출산과 성장을 관여하는 할머니 신으로 여긴다. 아이가 백일이 될 때까지 성장을 관장한다고 하여 아이가 태어난 지 삼일, 첫이레, 두이레, 세이레, 백일 때까지 위한다. 밥과 미역국을 제물로 준비하여 안방의 아랫목에 짚을 추려놓고 그 위에 진설한다. 백일이 지나면 제물을 깔아 놓은 짚을 깨끗한 아궁에 넣어 태워 버린다. 태우지 않고 거름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이가 부정을



**삼신**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선2리, 2005.12.16
코리아루트

탄다고 믿는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서는 자손을 점지해 주는 신이 삼신이라고 믿으며, 여자에게는 각자 자신의 삼신이 있다고 여긴다. 시집을 때 장롱을 해 오는 풍습이 있으며, 장롱에 삼신을 모신다고 하여 '장롱삼신'이라고도 부른다. 한 집안에서 동서 간에 출산을 하게 되면 각자가 자신의 방에서 아기를 낳거나 한 사람을 친정으로 보낸다. 각각 자신의 삼신이 관장하기 때문에 삼신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원주시 부론면에서는 집안을 돕고 재복을 불려 주는 신으로 삼신을 생각하여 삼신단지를 모신다. 보리가 나는 여름철에는 보리를 봉안하고 쌀을 수확하는 가을철에는 쌀을 넣어 일 년에 두 번 곡식을 갈아준다. 신체에 있던 묵은 곡식은 밥을 하거나 떡을 만들어 가족끼리 먹는다. 이웃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으면 집안의 복이 밖으로 나간다고 여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삼신을 '삼승할망'이라고 한다. 삼승할망은 자식을 원하는 이가 포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출산 뒤에는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신이다. 반면에 '구삼승할망'이라는 신도 있다. 이 신은 아이에게 범접하여 해(害)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가신신앙과 외래종교의 만남**(김명자, 실천민속학 4, 실천민속학회, 2003), **남도민속학 개설**(지춘상, 태학사, 1998), **민속신앙, 그 믿음과 섬김의 세계**(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삼신신앙에 나타난 생명 이해에 관한 연구**(박일영, 한국민속학보 10, 한국민속학회, 2004), **삼신할머니의 기원과 성격**(최광식,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2), **서미마을 삼신신앙의 위상과 강한 전승력**(백민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사입문**(임재해 · 한양명, 지식산업사, 1996),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인의 일생의례-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필자** **백민영(白旻永)**

## 삼신단지

상호참조 삼신(254쪽)

**정의**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을 관장하는 가정신(家庭

神)인 삼신의 신체를 모셔 두는 단지.

**형태** 삼신단지의 형태는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다르다. 중부지방에서는 전대(纏帶)모양의 주머니에 쌀을 넣고 한지 고깔을 씌워 안방구석에 매달았다. 호남지역에서는 단지나 바가지에 쌀을 넣어서 모시고 백지로 덮은 다음 왼새끼로 동여맨다. 영남지방에서는 바가지에 쌀을 담고 백지로 덮은 다음 묶어 안방 시렁 위에 모셔 놓고 위에 흰 타래실을 감아주기도 했다.

**내용** 삼신은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는 산신(産神)이다. 삼신신앙은 가정신앙의 한 형태이다. 삼신은 아기의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15세까지의 양육을 관장한다고 믿었으며, 신체는 아기를 낳는 방의 아랫목 시렁 구석이나 부정이 없는 곳을 골라 모셨다. 삼신은 한 가정의 대를 잇는 자식 점지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과 건강까지 관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가정신의 으뜸 신인 성주신(城主神)과 오누이 관계라고 믿기도 한다.

삼신의 신체는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한다. 전북에서는 지앙단지 또는 삼시랑단지, 경북에서는 삼신바가지 또는 삼신할매단지, 충북에서는 삼신주머니, 강원도에서는 삼신할머니 또는 세준할머니, 제주도에서는 삼승할망 등으로 불렸다. 집안에 따라서는 삼신할머니와 삼신할아버지를 부부로 여기기도 하였고, 삼신단지를 조상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지역사례** 충남 논산지역에서는 삼신을 '삼신할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백발의 인자한 할머니 모습의 여신으로 여긴다. 삼신을 모시는 장소는 안방 윗목의 모서리이며, 논산지역에서는 흔히 이 장소를 '삼신께'라고 한다. 이곳에 햅쌀을 넣은 '삼신단지'나 '삼신주머니'를 봉안하기도 한다. 이때는 특별한 신체 없이 단지 바닥에 짚을 깔고 삼신을 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북 칠곡지역에서는 삼신을 '삼신할매' 또는 '웃줄할매'라고 한다. 삼신할매는 조상할머니가 좌정한다고 믿으며, '웃줄할매'라는 용어에서 웃줄은 윗대부터 내려오는 신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신체는 주로 바가지나 단지가 되며, 안에 쌀을 넣어 안방구석에 모셔 놓았다. 보통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며느리가 물려받는다. 성주지역에서는 삼신을 단지 안에 쌀을 채워 모시면서 매년 가을에 처음 수확한 쌀로 갈아준다. 쌀을 갈아주는 날은 시월 초이레나 초아흐레에 손 없는 날을 택일한다. 시월 안으로 갈지 못하면 동짓달의 손 없는 날에 갈아준다. 삼신단지는 보통 윗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단지 안의 쌀로 밥을 하면 남에게는 주지 않고 식구끼리만 먹는다.

경남 진주지역에서는 삼신을 '삼신할미'라고 부른다. 큰 바가지에 쌀을 담고 한지로 덮어 묶고 안방 시렁 위에 모셔 놓은 것을 '삼신바가지'라고 부른다. 수명장수의 상징으로 타래실을 놓는 경우도 있으며, 바가지가 단지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앙단지나 삼시랑단지가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신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건궁 삼신'이라고 한다. 전남에서는 '지앙할매'를 모시는 단지를 '지앙동우'라고 한다. 진도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쓰던 동이를 깨끗하게 씻고 그 안에 쌀을 넣고 위에는 미역을 걸친다. 그 앞에 상을 하나 놓고 위에 물을 한 그릇 떠 놓는다. 이는 지앙할미를 위한 것이다. 쌀과 미역은 산모가 먹는다. 산모는 하루에 여섯 끼까지 먹는다. 특히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에 산모는 반드시 이 쌀과 미역을 먹는다.

**참고문헌** **청주시지**(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청주시, 1997),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 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균옥(李均玉)**

## 삼신대

상호참조 삼신(254쪽), 삼신받기(266쪽)

**정의** 남녀가 결혼 후 자식이 없을 때 삼신을 받는 기자신앙 의례에서 사용되는 삼신을 받는 대.

**역사** 기자신앙은 멀리 고대에서 근원한다.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자식을 기원하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때부터 삼신대를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신단수를 삼신을 받는 신대로 볼 수 있다. 신단수가 간략화 상징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삼신대로 이어져 존속한다는 해석에는 개연성이 있다.

**형태** 삼신대는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서 잘 알려진 신대나 성줏대와 유사한 형태이다. 규모가 작고, 주로 소나무나 대나무를 꺾어 만든다. 삼신대의 모양과 기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내용** 집안에 후사가 없거나 결혼 후 3~4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면 삼신을 받아 모신다. 이를 '삼신받기'라고 한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삼신대이다. 이것은 성줏대나 신대와 유사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다. 삼신대는 이런 유형 외에 삼신바가지, 삼신시루, 삼신청수받이 같은 삼신받이 또는 삼신신체와 혼용되기도 한다. 삼신받이의 양상이 다른 만큼 삼신대가 사용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삼신대는 다양한 방법의 기자치성과 연관된다.

삼신제와 관련한 자료에서도 삼신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삼신을 받을 때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앉은 삼신굿'의 경우에는 삼신을 바가지에 받아서 앉힌다. '삼신바가지' 외에 '삼신청수받이', '삼신시루내림' 등이 있다. '삼신바가지'의 경우 바가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것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그해 거둔 햅쌀을 담아 둔다. 삼신바가지는 진설된 상에 놓아두었다가 부부합숙거리 때 당주가 방 안 삼신자리에 옮겨 봉안한다. 이때 삼신을 받는 과정에서 삼신대를 사용하기도 한다. 삼신대는 소나무 가지 등을 꺾어 손잡이를 한지로 싸 옷을 입힌 뒤 바가지 쌀에 꽂아 놓는다. 삼신대 없이 삼신바가지만 진설할 경우 그 자체가 삼신대 역할을 한다.

법사나 무당이 경을 외면 이 삼신대가 흔들린다. 이 의미는 삼신을 받았다는 표시이다. 삼신대를 잡고 경을 욀 때 법사나 무당의 손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삼신을 받는 방법은 이 밖에도 다양하다. 삼신대가 가리키는 물건을 아무것이나 주워 삼신으로 위하기도 하고 삼신경문으로만 받기도 한다. 삼신대 대신 오방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아예 없이 삼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삼신대는 나무의 맨 윗가지를 잘라 사용한다. 크지 않게 하며, 한지를 잎에 매달기도 한다. 보통굿에서 사용하는 신대보다 크기가 작고 형태가 단순하다.

옥외의 산천에서 굿을 할 때 삼신을 받아 부부의 몸에 앉히는 굿을 '뜬 삼신굿'이라 한다. 이 경우 소나무나 들쭉나무로 만든 삼신대를 잡고 경을 외면 삼신대가 이끄는 곳으로 가서 삼신을 받는다.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나 대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삼신 앞에 놓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삼신, 삼신받이, 삼신대의 경계가 모호하다.

무당이나 법사가 주관하는 옥외 삼신받이 치성을 드릴 때 무당은 칠성, 용궁, 산 또는 산의 용궁에 가서 삼신을 받는다. 산신이나 산신용왕에서 삼신을 받을 때는 미리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삼신을 받는다. 용왕에서 삼신을 받을 때는 미리 장소를 정갈하게 한다. 쌀, 바가지, 과일, 삼신 시루, 산신 시루, 초, 무명실, 향, 물, 마른 미역 등을 마련하고 쌀을 바가지에 담아 삼신대를 꽂아 둔다.

용왕 앞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다. 법사는 부정경을 외고, 육개주를 열고, 역대축원을 하고, 용왕경을 외고 나서 삼신경을 욘다. 삼신경을 외면 삼신대가 흔들린다. 삼신을 삼신대에 안정시키고 난 뒤 퇴송을 한다. 이때 용왕을 보좌하는 용왕수비를 위해 상을 따로 차리기도 한다. 이렇게 제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다. 받은 삼신은 당사자가 기거하는 방 윗목에 모신다. 삼신께 따로 밥을 지어 미역국과 함께 정성스레 올린다. 비손을 하고 난 뒤에 부부는 그 밥을 나누어 먹는다. 부부는 이후 사흘 동안 부정한 것을 보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굿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무당이 직접 삼신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무당은 용왕에게 가서 삼신을 받는다. 무당과 함께 예비 산모가 깨끗한 샘이나 깊은 산속의 샘으로 간다. 물이 합수하는 곳을 택하기도 한다. 향을 피우고 소금으로 부정을 친 뒤 보살이 축원을 한다. 조상의 한을 풀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산신소지-용왕소지-식구소지 등 순으로 한다. 샘에 갈 때는 물병을 하나 준비한다. 그리고 그 병에 물을 담고 솔가지를 꽂아 거꾸로 들고 온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산모가 되어 젖이 잘 나오라는 의미이다. 솔가지를 꽂지 않고 그냥 물만 받아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고 오면 사람들은 삼신을 받아 오는 줄로 알고 말을 걸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 밥, 미역국, 떠 온 물을 삼

신에게 바치고 기원한다. 삼신에게 바친 제물은 삼신을 받은 사람만 먹는다. 샘이나 우물 외에 서낭나무에서 삼신을 받기도 한다. 서낭나무 가지를 조금 꺾어서 짚을 깔고 삼신 앞에 놓고 위한다. 이 경우 병, 솔가지, 서낭나무 등은 삼신대의 한 변이형이다.

가정 내에서 행하는 굿의 형태가 아니라 안택으로 삼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느 안택과 같이 집안의 신령들에게 치성을 드리고 대를 잡아 집안의 대소사를 묻는다. 이때 마지막으로 "삼신이 떠 있는가?"라고 묻는다. 삼신이 떠 있다고 하면 대잡이가 삼신이 내린 집 주변의 나무로 나가 삼신을 모셔 온다. 이 경우 사용된 대를 삼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삼신대는 성줏대와 유사하다.

무당의 지시에 따르기도 한다. 즉 무당에게 가서 좋은 날을 정하고 택일한 날 저녁에 떡 한 시루, 메 한 그릇, 나물 세 가지 등을 마련하여 깊은 산중으로 간다. 산에 올라 신령이 내릴 만한 장소를 골라 짚을 깔고 제물 진설을 한 다음 비손을 한다. 대개는 큰 바위 앞에서 한다. 치성을 드린 뒤에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주로 소나무나 대나무 등이다. 오는 도중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주로 인적이 끊어진 시간에 이동한다. 꺾어온 나뭇가지는 삼신대로 집에 모신다. 이 경우 삼신대는 삼신 신체(神體) 역할을 한다.

절로 삼신을 받으러 가는 경우는 주로 삼일 기도를 올린다. 쌀, 미역, 삼색실과, 오이 등을 준비해 가거나 쌀, 미역, 실타래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오이는 남자 아이를 상징한다. 스님은 불공을 드리고 나서 삼신을 받아 준다. 삼신을 받으면 삼신의 신체로 삼신바가지를 만들어 놓는다. 바가지 안에는 쌀을 넣어 놓고, 명이 길어지라는 의미로 실을 올려놓은 다음 백지로 씌워 보관한다. 돌아오는 길에 쉬지도 말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삼신을 받은 뒤 사흘 동안은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다. 이때는 별도로 삼신대가 등장하지 않지만 스님이 지정한 삼신바가지에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 안과 밖에서 하는 개인굿 또는 개인치성 외에 삼신굿을 마을굿 단위로 하는 지역이 더러 있다. 조사된 전국의 동제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중동 앵산공원,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2동 운정마을,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대전시 동구 하소동 복재마을,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김신마을 등 다섯 개 마을이 해당된다.

삼신제와 관련한 자료는 공주시 중동에 소략하게 남아 있지만 그 실상을 여실히 알기는 어렵다. 중동의 삼신굿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신제라 일컬어지는 굿은 공주시 중동 앵산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삼신상을 차리고 무당은 삼신대를 준비한다. 삼신상에는 메 한 그릇, 맑은 물과 미역국 각각 한 그릇, 삼신 시루(백설기)를 차린다. 삼신제는 부정경-태을보신경-축원문-삼신경-삼신받이-내전푸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삼신제에서는 '귀딩이 덕담'이라는 축문 성격의 소리가 있다. 귀딩이는 아이를 일컫는다.

> "오색채운(五色彩雲) 가득하고/ 서기생기(瑞氣生氣) 충만한 날/ 천지생동(天地生動) 깨우는 탄명성(誕鳴聲)/ 옥동자의 순산이라/ 어허 둥둥 옥동자요 어허 둥둥 금동자요/ 귀한 자식 얻었으니 없던 춤이 절로 나네/ 귀한 자식 얻어 놓고 소지(燒紙) 한 장 없을쏘냐/ 삼신당(三神堂)에 꿇어앉아 두 손 모고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전에 비나이다/ 입은 덕도 많거니와 새론 원을 발원하오니 (후략)"

마을 사람들은 삼신제를 통해 받은 삼신을 각 가정에 모신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집은 대문에 금줄을 친다. 산모는 미역국과 쌀밥을 먹는다. 이때 삼신제에서 받은 삼신에게 먼저 올린 다음에 먹었다. 집안 윗목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밥상을 놓는 형식이다. 또한 돌잔치에는 풍물패가 찾아가 대문이나 바깥마당에서 고사상을 차려 놓고 '귀딩이 덕담'을 불러 축원한다.

**의의** 삼신대는 다양한 형식의 기자치성과 관련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삼신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특수한 도구이다. 충청도, 전라도지역에는 비교적 근래까지 삼신대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삼신대는 삼신을 받을 때 필요한 신대로, 신받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삼신대의 기능 · 의미 · 역할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 삼신, 삼신받이, 삼신바가지, 삼신대가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은 삼신신앙이 쇠퇴함에 따라 삼신굿과 기자치성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삼신대의 존재 또한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곳이나 나무 또는 바위를 통해 신을 받는다는 사고는 삼신대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형식으로 잔존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공주의 소리**(이걸재, 공주문화원, 1999), **공주지명지**(공주시 ·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7), **전라민속논고**(이규창, 집문당, 1994),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충청도 무가**(김영진, 형설출판사, 1976),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정재(李丁宰)**

## 삼신모시기

상호참조 삼신(254쪽)

**정의** 자식을 점지해 주고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삼신에게 지내는 제의. 아이의 출산과 연관하여 주로 행해지지만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역사** 삼신은 삼신(三神)으로 표기하여 삼신의 삼을 숫자 '삼(三)'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삼신을 세 분이라고도 한다. 환인 · 환웅 · 단군의 삼신(三神)과 동일하다는 설도 있고, 산신(山神)이 삼신으로 음운변화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삼신(三神)'과 '산신(山神)'의 표기는 한자의 영향을 받아 그릇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에 태(胎)를 가리켜 '삼'이라 하고, 탯줄을 자르는 것을 '삼 가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삼신은 태신(胎神)으로, 우리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설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삼신모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적 근원을 찾기는 어렵다. 가정신앙의 역사적인 연원을 밝힐 만한 기록물이나 유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무속의 굿거리에 삼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신앙인 삼신신앙을 무속신앙과 연원이 같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무속에서의 가신(家神)과 가신에서의 삼신이 혼합되어 그 연원이 같다고 본다면 삼신모시기는 무속의 시원(始原)과 마찬가지로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삼신은 아이를 점지해 주고 건강을 보살펴 주는 신으로서 한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의 탄생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삼신의 역사적 연원은 선사시대부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의학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과거에는 아이와 산모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삼신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부계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에 해당되어 자식을 낳기 위해 기자의 대상인 삼신에게 치성을 드렸다.

**내용** 자손이 없는 집에서는 아이 갖기를, 딸만 있는 경우 아들을 원하여 삼신을 모시게 된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무당이나 점쟁이의 점괘에 의해 삼신을 모시기도 한다.

삼신은 주부, 산모, 아이의 할머니 등 집안의 여성에 의해 모셔진다. 경우에 따라 동네에서 잘 비는 할머니나 점쟁이, 무당 등을 모셔다 빌기도 한다.

삼신은 자녀의 출생 · 육아 · 성장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자손을 바라는 마음에 삼신을 모시는 것은 삼신신앙의 근본적인 성격에 가장 가까운 행위이다. 의학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과거에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아 주는 삼신이 생명의 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는 집에서 아이의 출산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 시할머니는 직접 손자의 탄생을 맞이하며 삼신모시기를 통해 자녀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가거나 약을 지을 수가 없어서 삼신에게 아이가 아



**삼신에게 비손하기**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993.2.6
배도식

프지 않게 도와 달라고 비손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삼신에 대한 제의는 지역과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이의 출산과 관련하여 행해진다. 설, 추석, 정월대보름, 동지 등 명절에 제의를 올리거나 신체 안의 햇곡식을 갈아 줄 때 간단히 삼신에게 치성을 드린다. 또한 특정한 날과 상관없이 아이가 아플 때, 집안에 우환이 생겨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제의 주재자가 삼신의 힘을 빌릴 일이 생길 때면 수시로 삼신을 위한다.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아이를 낳기 전에 짚을 깔고 삼신상을 차려서 순산을 빈다. 출산을 하면 삼신밥이라고 하여 첫 국밥을 삼신에게 바친다. 삼신상은 아이의 출산 전날부터 산날과 삼일, 초이레, 두이레, 삼칠일, 길게는 일곱이레까지 차린다. 일반적으로는 두이레까지 상을 차린다. 산날과 초이레까지는 대개 미역 또는 미역국, 밥, 정화수 등을 올린다. 그 후에는 정화수 정도만 떠다 놓는다. 삼신상에 올린 제물은 산모가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고 산모의 젖이 잘 나온다고 한다. 돌과 백일에도 미역국, 밥, 백설기, 실타래 등을 준비하여 삼신에게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이날 음식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다. 삼신을 위할 때 미역은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충청도지역에서는 이 미역을 '산각'이라고 한다. 산모의 출산 전에 집안의 남자어른은 산각을 준비하여 산모의 방에 걸어 둔다. 산각의 길이를 보고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예측하기도 한다.

명절에 삼신을 위할 때는 설에는 떡국,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동짓날에는 팥죽을 올린다. 명절에는 성주나 조상에게 먼저 상을 차려 위한 다음 삼신에게 치성을 드린다.

삼신의 신체는 지역에 따라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주머니, 지앙동우, 삼신편고리 등 형태가 다양하다. 신체 없이 특정 자리를 삼신이 있다고 인지하고 모시는 경우에는 '건궁삼신', '허궁삼신', '공중삼신' 등으로 불린다. 삼신의 신체 안에는 그해 수확한 햇곡식을 봉안해 두면서 일 년에 한 번 갈아 준다. 대개 시월상달에 손 없는 날을 택해 묵은 곡식을 덜어내고 햇곡식을 넣어 준다. 햇곡식을 갈아 주는 날에는 간단하게 정화수만 떠 놓기도 하며, 팥 시루떡이나 백설기를 쪄서 삼신에게 빈다. 신체 안의 묵은 곡식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가족끼리 먹어야 복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삼신의 자리는 주로 안방 아랫목이나 윗목 등 집안의 여성이 상주하는 공간이다. 삼신을 새로 모실 때 자신이 직접 삼신을 앉히거나 무당의 도움으로 삼신을 앉힌다. 이 때 '삼신이 드는 자리'에 모셔야 한다. 삼신이 드는 자리는 대부분 안방이다. 가정신앙은 주부의 생활권과 연관되어 신의 자리가 상정된다. 이것은 생활공간과 신앙공간이 분리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신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인 만큼 여성과 관계가 깊은 신으로서 안방에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

삼신을 모시게 된 배경은 윗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물림을 받아 제의를 행하는 경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삼신을 모시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물림에 의한 전통문화의 전승은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삼신모시기도 예외는 아니다. 윗대에서부터 대물림을 받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삼신을 여자 조상으로 생각하여 시어머니를 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모시던 삼신은 곧 시할머니로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삼신도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신의 신체를 없애고 새로 모신다. 그러나 그 뒤로 별 탈이 없다면 새로 모시지 않기도 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윗대에서 삼신을 모셨다고 해서 그대로 물려받아 삼신을 모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이 나가면서 신이 몸담고 있던 신체도 함께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삼신의 신체를 없앤다. 당연히 삼신도 그대로 물려받지 않는다.

**삼신상 제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008.2.6(음)
윤동환







**삼신에게 소지 올리기**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1996, 코리아루트



삼신을 새로 모시는 경우에는 이전 세대의 삼신은 내보내고 필요에 의해 삼신을 다시 받아 모신다. 자손이 없는 집에서는 아이 갖기를 원해서 딸만 있는 집에서는 아들을 원해서 삼신을 모시게 된다. 삼신을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가족이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거나 우환이 생기거나, 꿈에 돌아가신 조상이 나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짐이 생기면 주부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보게 된다. 점괘에 삼신을 모시라고 나오면 무당이나 점쟁이 등을 불러 삼신을 좌정시키거나 당사자가 손 없는 깨끗한 날을 받아 바가지, 쌀 등을 준비하여 삼신을 앉힌다. 삼신을 모셔야 하다는 점괘에는 주로 집안의 여자 조상이 삼신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비체험에 의한 삼신모시기는 삼신신앙의 지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삼신이 화가 나면 집을 나간다고 한다. 이를 '삼신 탈났다'라고 한다. 삼신을 잘못 모시거나 신체를 함부로 했을 때 일어난다. 삼신이 화가 나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해서 표시를 한다. 이 때문에 집안의 주부는 삼신을 다시 불러서 위해야 한다. 주부는 삼신의 신체가 있는 곳이나 장롱 앞에 삼신상을 차리고 비손한다. 경우에 따라서 무당을 불러 삼신을 다시 앉히기도 한다.

삼신모시기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경우 모시던 신체를 없애야 한다. 이때 신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한다. 원래 상정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 신체에 봉안된 것을 꺼낸 뒤 손이 없고 깨끗한 장소에 묻거나 개울이나 강에 띄워 보낸다. 신체를 버리지 않고 신체 안의 내용물을 비워 집 안 한 쪽에 두거나 실생활에서 곡물을 담아 두는 용기(用器)로 사용하기도 한다. 삼신의 신체는 대부분 자신이 길일을 택해 직접 없애기도 한다. 신이 깃들어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무당이나 마을에 잘 비는 사람을 불러 길일을 택하여 미역국, 밥, 떡 등을 차려 제사를 지낸 뒤 신체를 없애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상도지역에서는 삼신을 주로 '삼신', '삼신할매'라고 부른다. 안동시 풍산읍 서미마을에서는 안방 한 쪽 벽면이나 시렁 · 장롱 위에 올려져 있는 쌀이 담긴 단지 또는 바가지를 신체로 삼거나 신체 없이 공중

(건궁)으로 삼신을 위하기도 한다. 대물림이나 자식 기원의 목적으로 삼신을 위하기도 하지만 마을과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무당의 점괘로 삼신모시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 주민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도 별 증상이 없고 차도가 없자 무당을 찾아가 안택고사를 하고 삼신단지를 안방에 앉혔다. 그 뒤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특별히 날을 잡아서 제의를 드리지는 않지만 설, 추석,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간단히 비손한다.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삼신판을 차려 놓고 삼신할머니에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빈다. 삼신판에 차려 놓은 쌀은 동네에 초상이나 좋지 않은 일이 없는 깨끗한 때에 먹어야 한다. 대개 삼신판을 차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밥과 미역국을 해서 식구들이 먹는다. 삼신상은 이레마다 방 윗목의 손 없는 방향에 차린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서지마을에서는 태기가 있으면 베로 삼신주머니를 만든다. 주머니 안에 쌀을 넣어서 시렁에 걸어 둔다. 쌀은 매년 칠월칠석 때 갈아주며, 묵은쌀로 백설기를 만들어 집안 식구끼리 나누어 먹는다. 인제군 기린면 북리 토현마을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삼신할머니를 위한다. 자식이 귀하거나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광목을 끊어서 만든 삼신주머니를 걸어 두고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삼신주머니는 한 발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양쪽에다 쌀을 한 되씩 넣어서 방 구석의 못에 걸어 둔다. 삼신할머니는 아이가 열 살 때까지 도와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열 살 맞을 때까지 수수팥떡을 생일마다 해 준다. 태백시 구문소동 동점마을에서는 자식이 귀하거나 아들이 없는 집에서 삼신을 받아 모신다. 주부가 직접 받기도 하며 무당이나 점쟁이를 불러다가 삼신을 받기도 한다. 삼신은 산신령의 제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쌀, 실타래, 무명천, 미역 등을 준비하여 산에 가서 삼신을 받는다. 제물로 고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 상예곡마을에서도 자식이 귀한 집에서는 삼신주머니를 만들어 위하였다. 무명베로 길쭉하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쌀을 넣고 안방에 걸어 놓는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삼신주머니에 쌀을 갈아 넣는다. 이때 주머니 앞에 짚을 깔고 메, 미역국, 청수를 한 그릇씩 올린다. 삼신 앞에 짚을 깔면 자손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속신이 있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주로 삼신을 '지앙', '삼시랑'이라고 칭한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산마을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 일곱이레 동안 산실 윗목에 '지앙상'을 차려 놓고 위한다. 이레마다 미역국과 밥을 지어 지앙상에 올려놓았다가 산모가 먹는다. 이때 떡을 올리기도 한다. 이를 '이레떡'이라고 한다. 곡성군 오곡면 압록마을에서는 삼신을 삼시랑이라 하면서 산실(産室) 윗목 방바닥에 짚을 깔고 미역국, 쌀, 정화수를 준비하여 '삼시랑상'을 차린다. 출산 날 외에도 명절마다 미역국, 밥, 정화수를 차려서 삼시랑을 위한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 내창마을에서는 집안 식구들 생일 때 지앙을 성주와 함께 모신다. '지앙상'이라고 하여 성주상 밑바닥에 차려 놓는다. 완주군 구이면 대덕마을에서는 신체 없이 '허궁'으로 삼신을 위한다. 아이의 백일이나 돌, 이 밖에 명절이나 올벼심리를 할 적에도 삼신을 위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주관하는 신으로 '삼승할망', '삼승할망님'이라고도 부른다. 자식이 귀하거나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산모방에 할망상을 차려놓고 삼승할망을 위하였다. 아이가 놀라거나 아프면 치병의례로 넋들임을 한다. 이때에도 삼승할망을 모셔 위하기도 한다.

**의의** 삼신은 아이를 점지해 주고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까지 보살펴 주는 신이다. 특히 출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다. 아이의 출산과 건강한 성장은 가족 형성의 근본이며, 자손의 번창은 집안의 번창일 뿐만 아니라 종족을 보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관장하는 삼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신으로 인식되었으며, 삼신모시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김형주, 민속원, 20002), **삼신신앙에 나타난 생명 이해에 관한 연구**(박일영, 한국민속학보 10, 한국민속학회, 2004), **삼신할머니의 기원과 성격**(최광식,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2), **서미마을의 삼신신앙의 위상과 강한 전승력**(백민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김명자, 비교민속학 32, 비교민속학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임재해, 지식산업사, 1996), **한국민속 사입문**(임재해 외, 지식산업사, 1996), **한국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백민영(白旻永)





## 삼신바가지

상호참조 삼신(254쪽)

**정의** 자녀의 출산, 육아, 건강을 관장하는 삼신의 신체로 인식되는 바가지.

**형태** 삼신의 신체는 상징물의 형태에 따라 삼신바가지, 삼신자루, 삼신단지, 삼신고리, 삼신토방구리 등으로 불린다.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석과 삼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석바가지를 삼신바가지라고도 한다. 반면에 신체가 없는 삼신을 지칭할 때는 건궁삼신, 허공삼신, 뜬 삼신이라고 한다.

삼신바가지는 일반적으로 박 바가지로 만들며,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삼신바가지 안의 구체적인 내용물은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바가지에 쌀만 넣고 한지나 고깔로 그 위를 덮은 형태, 바가지에 쌀을 넣고 그 위에 한지로 덮은 다음 실로 묶은 형태, 바가지에 쌀을 넣고 그 위에 실타래를 걸친 형태, 바가지에 쌀을 넣고 그 위에 미역으로 걸친 형태, 바가지 안에 실타래만 넣은 형태, 바가지에 실타래와 한지를 넣은 형태, 바가지에 한지만 접어서 넣은 형태, 바가지에 천 조각만 넣은 형태, 바가지에 천 조각과 실타래를 넣은 형태 등 다양하다. 아울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에서는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첫아이를 낳고 아기에게 입힌 배냇저고리를 깨끗하게 빨아서 삼신바가지에 넣어 막내를 낳을 때까지 둔다고 한다.



**삼신바가지**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2002.10.20
강성복

**삼신바가지**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김명자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동, 황헌만

**내용** 삼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 삼신받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삼신을 앉히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한다. 삼신은 흔히 시할머니라고 한다. 아이들이 까닭 없이 아플 때 물으면 "시할머니가 앉으려고 아프다"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삼신을 앉혀놓으면 아프던 아이가 금방 나았다고 한다. 그러나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삼신의 신체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때 무속인은 신체를 삼신바가지, 삼신자루, 삼신단지, 삼신고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삼신바가지는 보통 안방 시렁 위에 모신다. 가정에 따라서는 안방의 한쪽 구석에 나무 선반을 만들어 모시거나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방 벽장, 광, 도장방 등에 모시기도 한다.

삼신바가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1996, 코리아루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1998, 코리아루트

삼신의 신격이 흔히 '삼신할머니'로 지칭되는 것처럼 삼신바가지 또한 여신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까닭에 조모가 돌아가시면 삼신할머니를 윗대 어른과 바꾸어 놓는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를 삼신으로 앉힌다. 한편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2리의 조봉순 씨의 경우처럼 여신이 아닌 남신을 모시는 사례도 있다. 시어머니의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자꾸 나타나 "아이들을 더 낳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시아버지를 삼신으로 앉히라고 했다. 이런 사연으로 현재 삼신으로 사랑채어른(시아버지)을 모시고 있다.

삼신에 대한 의례는 정월초하루와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동지, 안택이나 명절을 비롯하여 자식의 점지를 바라면서, 출산한 후 이레(7일)마다 세이레, 백일, 돌, 아기가 아플 때 등에 삼신을 모신다. 삼신을 모실 때는 삼신바가지 앞에 상을 차려놓고 축원을 한다. 이때 삼신이 비린내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에는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

삼신바가지 내용물은 주로 쌀이다. 매년 가을에 햅쌀을 수확하면 삼신바가지의 쌀도 갈아준다. 이때는 손이 없는 좋은 날을 택해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비손하면서 바꾼다. 햅쌀을 갈아 넣고 그 안에 있던 쌀은 밥이나 떡을 해서 식구들끼리 먹는다. 그리고 삼신바가지에 쓰운 고깔이 더러워지면 빨지 않고 새로 갈아주며, 헌것은 안마당에서 태운다.

인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은 삼신할머니고, 잘 삐치는 신도 삼신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밖에서 음식이나 옷감이 들어오면 조금씩이라도 잘라 삼신바가지 앞에 놓고 먼저 보인 뒤 먹거나 옷을 해 입어야 탈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삼신이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기 전까지 삼신할망에게 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막내가 태어나 열 살이 되면 더 이상 삼신바가지를 모시지 않는다. 이때는 신체를 불에 태워 없앤다. 그리고 삼신바가지를 모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여가 나갈 때 삼신바가지도 함께 버린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이영식(李英植)**

## 삼신받기

상호참조 삼신(254쪽), 삼신대(258쪽)

**정의** 불임(不姙)의 원인을 삼신의 부재(不在) 또는 이탈로 여겨서 삼신을 '집'이나 '임신을 원하는 불임녀'에게로 받아 모셔와 수태(受胎)를 유도하는 의례. 넓은 뜻으로는 어떤 외부의 현상과 사물로부터 생명력이나 생산력을 불임녀에게 전이(轉移)시키는 일체의 의례도 일컫는다.

**내용** 삼신받기는 삼신들이기, 삼신모시기, 삼신타기, 지앙맞이라고도 한다. 삼신 또는 지앙이란 신령의 명칭에 '받기', '들이기', '맞이', '타기', '모시기' 등 낱말이 결합되어 있다. 이는 삼신을 외부로부터 맞아들인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집 안에 있어야 할 삼신이 제 구실을 못하거나 아예 없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삼신은 아이를 점지하고, 태아를 기르며, 순산을 돕고, 태어난 아이를 잘 자라도록 돌보는 신령이다. 가임 여성과 그녀의 식구들은 삼신과 정상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와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조상 탈, 해산귀(解産鬼), 객귀(客鬼), 살(煞), 부정(不淨) 등의 원인으로 삼신이 집을 떠났거나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임신 · 출산 · 육아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서도 임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은 가장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불임녀에게 수태를 돕거나 몸을 보호하는 약 또는 음식 등을 먹이는 등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이러한 수단을 쓸 형편이 못 되거나 약 처방을 했음에도 수태가 되지 않는다면 민속적 방법이 동원된다. 산, 나무, 바위 등과 같은 일정한 대상에 치성을 드리거나 주술적 기자(祈子) 의례를 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원인을 삼신이 현재 집을 떠나서 없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이 때문에 삼신을 집안이나 불임녀에게로 모셔 들이는 의례를 행한다.

딸만 낳은 경우, 아우를 보지 못하는 경우, 유산이 자주 되는 경 우에도 삼신을 받는다.

삼신받기는 수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기자신앙과 그 의례에 포함된다. 일반적 의미의 기자와 구별하면, 삼신받기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능동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삼신받기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 산 또는 물에서 각각 산신과 용왕의 도움으로 삼신을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둘째 어떤 자연물이나 동식물, 인간이 지닌 생산력(生産力)을 상징하여 불임녀와 그녀의 가정으로 전이(轉移)시켜 수태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불임녀는 삼신을 받기 위해 사람의 흔적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간다. 이곳은 신령이 내릴 만한 장소이다. 이 주변에는 고목(古木), 기이하게 생긴 바위, 바위그늘 등이 있기도 하다. 특히 산속의 샘이나 계곡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불임녀는 간절히 비손한다. 이렇게 하여 임신한 경우 산신이 아이를 점지해 준 것이라고 믿는다. 산신은 아이를 점지하는 직접적인 능력이 없다. 무당과 불임녀는 본질적으로 산신에게 직접 기자를 하지 않고 산신에게 기도하여 삼신을 받아간다. 즉 아이를 점지해 주는 능력이 있는 삼신을 산신에게서 받아가는 것이다.

신성(神性)과 생명력을 지닌 물이 있는 곳에서도 삼신받기가 많이 행해진다. 물과 관련한 곳에서 삼신을 받을 때는 샘, 우물, 냇물, 계곡 등이 대상이 된다. 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 설정된다.

첫째 삼신은 '고인 물'에서는 받지 않는다. 항상 물이 솟아나거나 흐르는 곳에서 받는다.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생명이 정지되거나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물이 솟거나 흐르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이 분출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 조금 전에 흘러간 물은 과거의 물, 지금 흐르는 물은 현재의 물, 앞으로 흐를 물은 미래의 물이다. 같은 냇물이라 하더라도 단 한 순간조차 같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처럼 솟거나 흐르는 물이 지닌 영원한 생명력에서 삼신을 받아 온다는 관념은 매우 자연스럽다.

둘째 물이 있는 공간 가운데 계곡은 특히 무당 주재로 용왕에게서 삼신을 받을 경우에 선호된다. 계곡에는 수신(水神)인 용왕(龍王)과 산의 주인인 산신(山神)이 함께 좌정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산중에 있는 계곡은 산이 지닌 신성과 물이 지닌 생명력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때문에 계곡은 산이나 물이 별도로 각각 존재하는 곳보다는 더욱 신성하게 인식한다. 또한 계곡의 물은 더욱 깨끗하다고 관념한다.

계곡물은 '수원지(水源池)' 또는 '물의 근원(根源)'이라는 실제성과 그에 따른 상징성도 지닌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내[川]가 되고, 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계곡의 물은 모든 물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물의 주인은 용왕으로 간주된다. 물에서 삼신을 받는 것은 용왕에게서 삼신을 받는 것과 동일시된다. 용왕은 일반적으로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활동하며, 물을 다스리는 수신이다. 물은 생명, 창조, 풍요, 정화 등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물을 지배하는 용신에게도 그러한 종교적 상징성은 그대로 전이된다.

그러나 산신과 삼신의 관계에서처럼 용왕이 아이

를 직접 점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이는 삼신만이 점지한다. 용왕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삼신을 아이를 원하는 집이나 불임녀에게 가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 용왕에게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삼신이 불임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원(請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물, 산가(産家), 동식물의 생산력으로부터 삼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연물에서 삼신받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달[月]이다. 달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달은 27.3일 동안 차고 기우는 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기적 재생성을 지니고 있다. 가임기(可姙期)의 여성도 약 28일의 월경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달의 주기적 재생과 여성의 월경주기는 상징적 관련을 맺는다. 이런 이유로 달의 기운을 받아 수태를 쉽게 하도록 노력한다.

나무로부터도 생산력을 받고자 한다. 은행나무에서 삼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열매를 맺는 다산(多産)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밤나무 및 감나무와 같은 유실수(有實樹)에서도 삼신을 받는다. 흔하지는 않지만 꽃나무에서 삼신을 받기도 한다. 대나무 밭이나 느티나무에서도 삼신을 받는다. 이는 대나무의 생장력과 느티나무의 유구성(悠久性)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모시밭에서 삼신받기를 하기도 한다. 모시는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다. 땅 속에서 줄기가 나와 한 그루에서 열 개 이상의 줄기가 생성된다.

산가(産家)와 가축(家畜)의 생산력을 불임녀에게 전이시켜 수태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산가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시공간으로서 생산력이 충만하다. 이 생산력을 삼신받기를 통하여 불임녀에게로 옮긴다면 그녀의 수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산가의 모든 사물에는 생산력이 가득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사물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첫국밥, 속옷, 삼신짚, 금줄, 태(胎) 등이 대표적인 사물들이다. 산가의 생산력을 이전시키기 위해 이 사물들을 불임녀에게로 가져다 주거나 접촉시키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가축이 새끼를 출산하는 곳에서도 삼신을 받아 온다. 이 장소에도 출산력이 가득하다. 산가에서 삼신밥을 얻어먹거나 속옷, 금줄, 태 등을 얻어 오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도 찾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개삼신이다. 개는 임신기간이 약 60일로 짧은 편이며, 더욱이 한 태에 여러 마리를 낳기 때문이다. 개가 새끼를 낳을 때 그 장소에 치마를 깔아 놓고, 출산 때 나온 혈액과 분비물 등을 묻힌 치마를 불임녀가 착용한다. 소 삼신받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민속상에서 소삼신과 사람삼신은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불임녀가 삼신받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삼신을 받아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팔자(八字)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삼신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간혹 불임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보이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원인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타고난 운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둘 팔자를 타고나야 한다. 여기에 삼신받기 등의 노력을 곁들이면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삼신받기 연구**(정래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삼신받기의 제 유형과 의미-충남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정래진, 역사민속학 2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필자** 정래진(丁來振)

## 삼신밥

상호참조 삼신(254쪽)

**정의** 아기가 태어나면 삼신상 위에 차려 놓던 밥. 백미로 밥을 짓고 해산미역으로 국을 끓여서 먼저 삼신할미 앞에 차린다. 이때 삼신상 위에 올린 밥을 '삼신밥'이라고 한다.

**내용** 민속에서 성주신과 더불어 중요한 가신으로 모셔지는 삼신은 아이의 잉태와 해산, 일정 나이(대개 7세 이전)까지의 성장을 돌봐주는 아동보호신(兒童保護神)의 기능을 한다. 지역에 따라서 '삼승할미, 삼신지왕, 지왕할매, 제왕할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때문에 삼신밥도 신체의 명칭에 따라 삼승밥, 지왕밥, 제왕밥 등으로 불린다. 민간신앙에서는 한 가정에 자손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어린 시절을 무사히 넘기는 것은 오로지 삼신할미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삼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 집안의 주부들이 삼신을 경외하는 풍습은 비교적 오랫동안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산속(産俗)에서는 아기가 들면 산실 바닥에 짚을 깔거나 산실(産室) 모퉁이에 짚단을 세워서 생산신인 곡령(穀靈)의 도움으로 순산을 기원하는 한편 산실의 윗목에 해산미역, 백미, 정화수, 실타래 등으로 삼신상을 차린다. 산모는 삼신밥을 삼신상에 차린 미역국에다 말아서 먹는다. 이를 '첫국밥'이라고 한다. 산모는 첫국밥을 먹어야만 젖이 많이 나오고 산후의 기력회복도 빠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첫국밥을 반드시 남김없이 먹었다.

삼신밥은 잡곡이 섞이지 않은 하얀 멥쌀밥이다. 대개는 산후에 한 번 지어서 삼신할미에게 차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이레까지 이레마다 지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또 딸을 낳으면 삼칠일 동안, 아들을 낳으면 칠칠일 동안 매 이레 지어 올리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된다. 이처럼 삼신신앙이 각각인 까닭은 삼신신앙 자체가 집안의 주부에 의해 개인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신상은 산모가 직접 차리지 않고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차렸다. 요즘은 친정어머니가 와서 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속(時俗)의 변화에 따라 산후 수발을 친정어머니가 담당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첫국밥은 산모만 먹었고, 삼신밥은 가족이 먹기도 하였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삼신밥을 먹으면 집안의 자손복(子孫福)이 나간다고 생각해 식구끼리만 먹었다.

삼신밥을 차리는 삼신신앙은 해산신앙의 형태였다. 그러나 점점 그 뜻이 확대되어 생일과 명절에도 삼신할미에게 올리는 의례로 발전하였다. 생일 아침이 되면 생일상을 차려서 먼저 삼신 앞에 올리고, 집안의 원로주부가 삼신에게 생일을 맞이한 사람의 명(命)과 복(福)을 축원하였다. 이때 삼신상에 차리는 밥은 해산할 때와 같은 멥쌀밥이 아니라 붉은 팥을 넣은 찰밥이다. 이때 미역국, 생선, 나물 등 간단한 제물과 함께 상을 차린다. 삼신 앞에 차린 생일상은 그대로 물려서 생일 당사자의 생일상이 되고, 그 음식들을 그대로 먹어야만 수명장수와 복록(福祿)을 누린다고 믿었다.

생일상은 주로 안방구석에 차렸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짚을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고(세 개 또는 다섯 개) 그 위에다 상을 차려 놓는다. 이 풍습은 해산 풍속에서 방바닥에 짚을 까는 것과 같은 이치로 곡신의 도움을 바라는 유감사고(類感思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남 남해지역에서는 명절 때면 흰쌀밥과 국을 성주와 지왕(삼신할미의 지역어)에게 올린다. 성주에게는 성주독 뚜껑 위나 성주독 앞의 대청마루에 차린다. 지왕밥(삼신밥)은 안방구석에 차린다. 지왕 앞에는 주로 미역국을 차리지만 명절 때는 탕국을 차린다. 떡을 더 차리는 경우에는 떡 접시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밥 위에다 그냥 얹어 놓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한국민속의 이해**(박성석, 경상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19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박성석(朴性錫)

## 삼신짚

상호참조 삼신(254쪽)

**정의** 삼신을 위할 때 제물 밑에 깔거나 방에 매달아 두는 짚.



**삼시랑짚**
전남 구례군, 2000, 서해숙

내용 예전에 임부가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방바닥에 짚을 깔았다. 그 가운데 피가 묻지 않은 짚을 한 주먹 추려서 '삼신짚'이라고 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삼신에게 밥, 미역국, 맑은 물을 올렸다. 이때 이삭이 달린 부분이 동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짚을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차린다. 각각 한 그릇을 마련하여 올리거나 세 그릇씩 올렸다.

아이를 낳은 지 삼일째 되는 날을 '삼날', 칠일째는 '첫이레'라고 한다. 삼날에는 처음으로 삼신을 위하고, 첫이레에는 산모가 처음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 이때도 밥과 미역국을 올린다. 삼신짚은 미리 깨끗한 것으로 추려 세 이레 까지 방의 한쪽 구석에 세워 놓았다. 세이레가 지나면 마당 한곳에서 깨끗하게 태워 없앴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유나(李泑娜)

## 삼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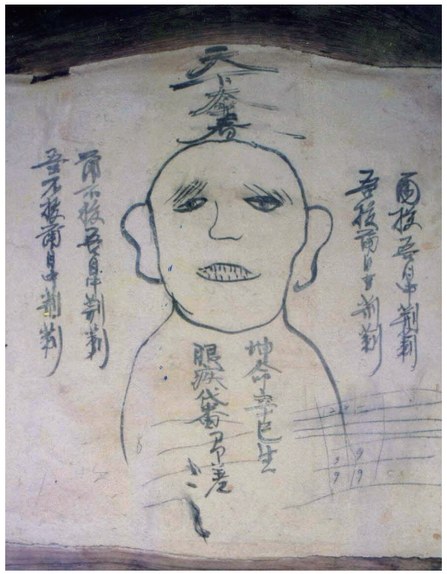
정의 눈에 생긴 삼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 주술적 의식. 삼은 눈동자에 생긴 희거나 붉은 좁쌀만한 점, 삼눈은 눈망울에 삼이 생겨 몹시 쑤시고 눈알이 붉어지는 병을 각각 일컫는다. 지역에 따라 '삼눈잡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의료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는 민간 차원의 전승적 의료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의사의 진료 기회가 없었거나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상의 경험이나 속설에 의한 처방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객관적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과 증상에 대해 그들의 세계관에 기초한 주술 종교적 신앙 차원의 치료행위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술을 크게 방어주술과 대항주술로 나누면 삼잡기는 임의적 발생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대항주술의 성격을 지닌다. 대항주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항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주술을 의미한다. 일단 삼이라는 장애가 생겨나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기술로서 채택된 주술이다.

전통사회에서 안과 질환은 특히 알려진 지식이 많지 않고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났다. 옛날에는 못만 박아도 삼이 섰다는 말이 있다.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치병의례로는 객귀물리기, 동토잡기 등을 제외하면 두드러기, 다래끼 치료와 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일반적이다. 삼은 안과질환에서 플릭텐(phlycten)을 이른다. 안구결막이나 각막에 발생하는 좁쌀 크기의 희백색 반점이다. 삼이 서면 환한 곳에서는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눈이 부시고, 눈에 핏발이 서며, 눈곱이 끼는 증상이 나타난다.

삼눈 치료 유형을 정리하면 첫째, 팥을 사용하는 형식이 있다. 팥은 붉은색으로 인한 벽사의 기능과 함께 삼 자체를 표상한다. 팥을 반드시 물속에 떨어뜨리는 것은 곧 삼이 가라앉는 것을 행위로써 가시화하여 결과를 확실히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해가 뜰 때라는 시간적 배경은 삼이 서면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유형은 얼굴 그림에서 해당 부위에 바늘, 가시, 부엌칼 등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방식이다. 이것은 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하는 방식이다. 민간신앙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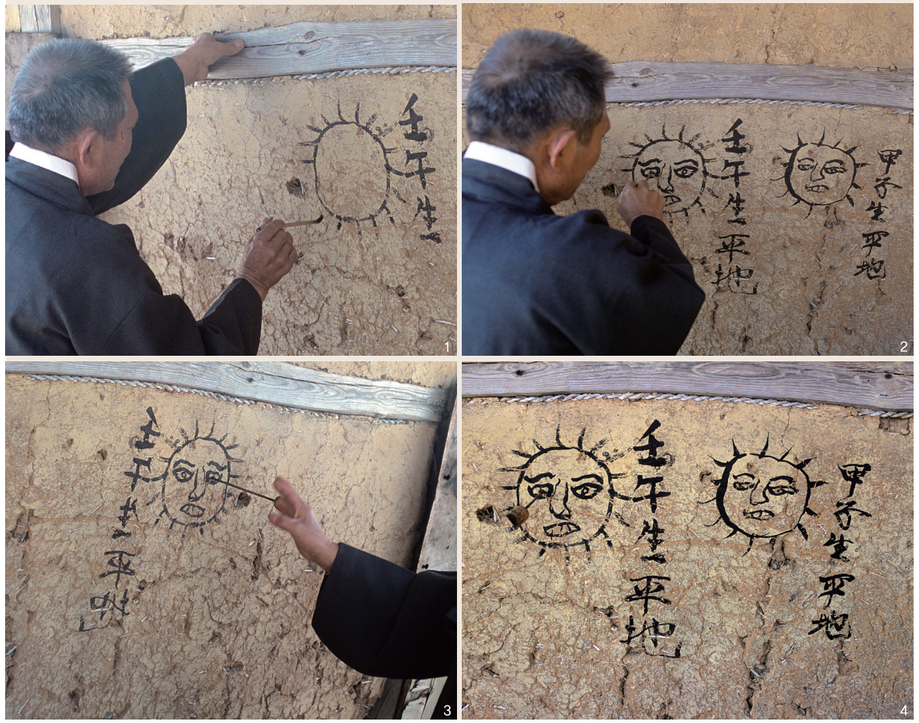


삼잡기
충남 당진군 우강면 원치리, 1997.1.14
이인화





삼잡기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2002.2.11, 국립민속박물관



'해물리기' 방법과 통한다. 이 밖에 조왕 앞에 팥을 떨어뜨린 물그릇을 가져다 둔다거나 주술적 방식에 축원의 말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삼잡기는 치병굿처럼 의례를 통해 신에게 기원을 올림으로써 원하는 건강을 얻고자 하기보다 특정의 주술적 의식을 행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얻으려는 관념적 행위이다. 다시 말해 삼잡기는 주술적 논리구조의 치료 원리가 작용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삼눈 치료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유사한 유형이 나타나지만 집안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대항적 성격의 주술의식과 삼눈의 증상이 관련되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햇빛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 때문인지 삼잡기 의식은 주로 해가 뜰 때 행해진다.

경기도 화성지역의 경우 눈에 삼이 나면 해가 돋을 때 문간에 물을 떠 놓고 빨간 팥을 머리 위에서 떨어뜨려 물이 동그라미를 그리면 삼이 잡힌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물그릇에 수수깡을 세 갈래로 세우고 그 사이에 빨간 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때 팥은 삼, 물은 눈을 각각 표상한다. 물에 팥이 가라앉는 것은 삼이 가라앉는, 즉 소멸하는 상태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발생시키고 결과는 원인과 유사하다는 원리에 의한 유감 주술적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병 주둥이를 솔잎으로 막아 대문 곁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여 비가 오는 시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안동에서는 다래끼 치료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눈에 다래끼가 나면 동쪽으로 해가 돋을 때 바늘을 동쪽 기둥에 꽂아 두면 낫는다고 한다. 또 물두멍을 들여다보고 눈을 깜빡이면 다래끼가 물두멍에 빠져서 낫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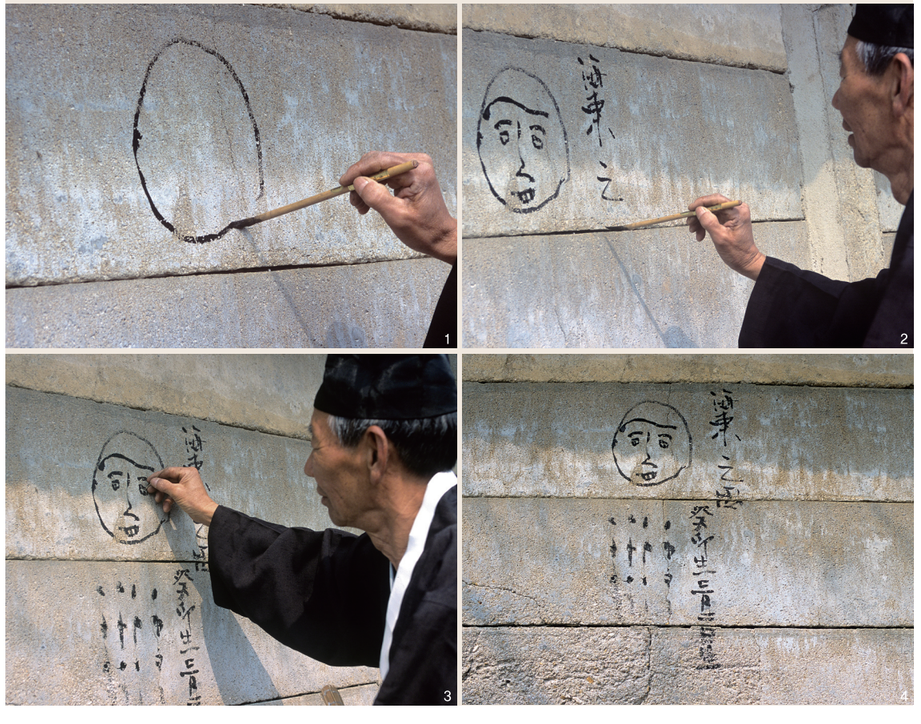
비슷한 방법으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물을 떠다 놓고 붉은 팥을 물에 떨어뜨린 다음 팥이 불면 땅에다 묻고 그 위에 칼로 열십(十)자를 긋는 방법이 있다. 물

에 비친 눈동자에 나이 수대로 팥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는 팥 서너 알을 눈에 비비고 나서 물이 담긴 그릇에 떨어뜨린 뒤 조왕 앞에 가져다 놓으면 삼이 잡힌다고 한다. 이 경우는 주술적 의식과 함께 조왕이라는 가신(家神)의 힘에 의지하는 종교 신앙적 의식이 뒤섞여 나타난 변형적 양상이다. 또 아침에 해 뜨는 동쪽을 향해 팥 몇 개와 물 대접을 들고 서서 해를 보고 "몇 살 먹은 ○○가 눈에 열삼, 피삼이 섰으니 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팥을 눈에 대고 대접 안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여 물방울이 하얗게 튀어 오르면 삼이 삭는다고 한다. 이 사례 역시 구체적 신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주술적 의식과 함께 신격에 대한 축원이라는 신앙적 의례가 동반된 경우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이중의 의례장치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성격의 주술적 의식으로는 삼을 공격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주는 방식이 있다. 공격의 일반적 방법은 얼굴을 그려 놓고 바늘과 같은 뾰족한 것으로 삼이 난 눈을 찌르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환자가 벽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은 다음 "눈도 삼이 서느냐"를 세 번 읊으면서 뾰족한 것으로 그림에서 삼이 선 눈을 콕콕 찌른다. 그렇게 하면 삼이 낫는다는 것이다. 종이에 사람 얼굴을 그려서 해를 마주보는 나무에 붙인 다음 바늘로 그림의 눈을 찌르고 침을 세 번 뱉는 방식도 있다. 얼굴 옆에 나이와 생일을 적고 삼이 든 눈을 찌른다. 이때 주문을 적어 넣기도 한다.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수수깡 같은 것을 열십자로 물에 띄운 다음 물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수수깡 십자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바늘로 찍는 방법도 있다.

강원도 양양지역에서는 삼이 선 눈의 반대편 눈으로 삼을 잡는다. 벽에 얼굴을 대고 붓을 들어 얼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다. 삼이 서지 않은 쪽 눈이 그려진 그림 위에 바늘을 꽂아 놓는다. 그러고 나서 약 사흘 뒤면 삼이 잡힌다고 한다. 바늘은 눈병이 다 나으면 빼낸다. 이 때 그림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으로 손 없는 방향의 벽에 그려 놓는다. 이러한 방식은 제웅을 버릴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등지에 묻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액을 떼어낸 삿된 물건은 많은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처리함으로써 그 기운으로 액을 누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 액이 옮겨가기를 원하는 심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삼잡기**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2002.2.11, 국립민속박물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는 삼눈이 서면 해가 뜰 무렵 마당에 사람 형상을 그려 놓고 삼이 선 쪽의 눈과 같은 방향에 칼을 꽂아 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삼눈 선 것을 낫게 해 달라고 축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흘이 지나면 환자에게 차도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변소에 사람 형상을 그려 놓고 마당에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엌칼을 눈이 그려진 부분에 꽂는다.

바늘 대신 가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사례에도 약간씩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의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떼어낸 다음 눈에 대면서 "내 눈의 가시 과내 줘야 네 눈에 가시 과내준다"라면서 원래 떼어낸 부분에 거꾸로 다시 꽂아 둔다. 또는 눈앞에 댔다 뗐다 하면서 "삼눈 가시자. 삼눈 가시자."라는 주문을 읊기도 한다. 속초에서는 동쪽으로 난 찔레나무 가지를 베다가 가시를 뽑으며 "내 눈 낫게 해 주시오." 라면서 다시 제자리에 꽂는다. 가시를 이용하는 것은 경북 영덕과 영양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영덕지역에서는 해가 솟아오르는 시각에 동쪽으로 뻗은 찔레나무 가지의 가시를 떼어내 눈에 견주면서 "해 돋을 일월님네요 몇 살 먹은 ○○이 눈 녹듯이 삼 녹게 해 주세요."라고 빈다. 찔레 가시를 딴 자리에 소금을 발라 놓고 가시를 소금 발라 둔 곳에 다시 꽂아 둔다. 영양지역에서도 떠오르는 해를 보며 찔레나무를 하나 꺾어 쓰다듬으면서 "해 돋을 일월님네요. ○성바지 내 시름을 얻어다오."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틀만 지나면 삼눈이 낫는다고 한다. 이들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의 신격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술적 의식 외에도 축원의 말이 들어감으로써, 종교적 기원의 형식이 가미된 복합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내륙인 영월지역에서는 엄지손톱에 열십자를 그어서 삼을 잡기도 한다. 왼쪽 눈에 삼이 서면 오른쪽 손톱, 오른쪽 눈에 생기면 왼쪽 손톱에 긋는다. 정선지역에서는 아침에 환자를 마당 한가운데에 세우고 환자 발 주위로 땅바닥에 동그랗게 원을 그린 다음 동그라미 안에 눈, 코, 입, 귀를 그려서 얼굴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삼이 선 눈의 반대편 눈 그림 부분을 판다. 땅을 파다 보면 그 안에서 숯이 나오는 수가 있다. 이렇게 숯이 나오면 삼이 잡힌다고 한다. 또 아침에 벽에 얼굴을 그려서 삼이 선 쪽 눈 그림에 바늘을 꽂아 두는 것이 있다. 양양지역에서 수집된 사례 중에는 손 있는 날 물건이 들어와서 삼이 선 때에는 그 물건을 돌려 놓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삼이 선 원인을 동토(動土)로 인한 액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치료법 역시 동토잡기 방식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참고문헌**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원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안혜경(安惠敬)

## 삼재(三災)

상호참조 삼재부적(274쪽), 삼재풀이(276쪽)

**정의** 사람의 태어난 해에 따라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세 가지 나쁜 운수. 세 가지 재난인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 혹은 도병재(刀兵災), 역려재(疫癘災), 기근재(饑饉災) 등을 말한다.

**역사** 삼재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속요인 〈처용가〉에 '삼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고려시대 용주사의 탑 속에서 삼재부적이 나온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부터 삼재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나이가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설주에 매 세 마리를 그려서 붙인다."라고 하였고, 『면암집(勉菴集)』에는 "민간에서 닭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삼재를 막았다."라고 적고 있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삼재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삼재는 일반적으로 물, 불, 바람에 의한 재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인 도병재, 전염병에 걸리는 역려재, 굶주리는 재난인 기근재를 뜻하기도 한다.

동토, 살, 삼재 등은 모두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나쁜 기운은 뭔가를 잘못 만졌을 때나 초상집 혹은 잔칫집 등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침범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사람에게 무서운 질병이나 사고가 나도록 만든다. 반면 삼재는 특정의 물건이나 공간과는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악한 기운으로, 3년 동안 불운이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재운이 든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 한다. 또는 '입삼재, 중삼재, 출삼재' 라고도 한다. 그런데 삼재가 드는 순서대로 나쁜 운수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로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믿기도 한다.

9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삼재 드는 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사주와 운세의 흐름에 따라 복삼재가 될 수 있으며 복삼재가 들면 아무 탈이 없고 오히려 복이 온다고 한다.

고려속요인 〈처용가〉에 사용된 '삼재'는 국가에 미치는 나쁜 재앙을 의미한다. 반면에 신재효의 판소리 〈흥보가〉에 있는 '삼재든 데 혼인하기'라는 구절이 있다. 삼재가 든 사람은 혼인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놀부의 심술이 심하여 삼재든 해에 혼인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에게 찾아드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나 공동체 사회에 끼치는 재앙을 '대삼재', 개인에게 미치는 세 가지 재앙을 '소삼재'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삼재라 하면 개인에게 미치는 재앙을 주로 의미한다.

삼재가 들면 삼재부적을 쓰거나 절이나 무당을 찾아가 삼재풀이 혹은 삼재경을 하기도 하고, 삼재가 드는 사람의 옷을 태워서 그 재를 삼거리에 묻는 등의 양법(良法)을 사용하여 삼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김민기,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부적 속에 반영된 민화에 관한 연구**(엄난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삼재와 厄年에 의한 재앙인식과 대응방식**(노성환, 비교민속학 20, 비교민속학회, 2001), **우리 민속 들여다보기**(김창일 외,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초자연적 존재와 부적**(김준권, 익살과 재치, 경기도박물관, 2004), **한국의 벽사부적**(김영자, 대원사, 2008).

**필자** **김창일(金昌一)**

## 삼재부적(三災符籍)

상호참조 부적(223쪽), 삼재(273쪽), 삼재풀이(276쪽)

정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9년마다 주기적으로 겪게 된다는 세 가지 재난인 삼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

역사 삼재부적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용주사 탑에서 삼재부적이 나왔다. 1268년에 시주 진성군(晉城君)이 용주사 탑 안에 금강경과 다라니주문 및 다양한 부적을 넣었다. 그 가운데 소삼재부(消三災符)가 있었다.

삼재부에 관한 조선시대 기록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나타난다. 『동국세시기』에는 "나이가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설주에 매 세 마리를 그려서 붙인다."라고 적혀 있다. 매를 액막이 그림에 사용하게 된 것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옛날 중국 무창(武昌) 장씨집 며느리가 휘종 황제의 친필 매 그림을 보고 마당에 나둥그러지면서 여우의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면암집(勉菴集)』에는 민간에서 닭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삼재를 막았다고 적고 있다.

삼재부적 가운데 대표적인 삼두일족부(三頭一足符)는 조선시대 전기 회화에서 발견된다. 삼재부적은 이처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적그림으로 변형되었고, 수요 충족을 위해 후대에 목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형태 삼재부적의 형태는 크게 목판부와 문자부로 나눈다.

목판부는 주로 매의 머리가 셋이고 몸통과 다리는 각각 하나로 형상된 삼두일족 형상을 하고 있다. 삼두일족 부적은 머리의 방향을 각기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삼재가 오는 방향을 즉시 알아채고 막게 하기 위함이다.

용맹스러운 성격, 하늘을 빠르게 나는 민첩함, 멀리서도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눈,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 등 매의 특징은 충분히 삼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매의 매서운 눈은 삼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더욱이 세 개의 머리를 지닌 매라면 어느 방향이든 삼재가 있는 곳을 훤히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첩하게 하늘을 나는 매의 날갯짓은 영공(領空)의 수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접근하는 삼재를 막을 수 있으며, 용맹스러운 성격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닌 매는 삼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간혹 매 대신 독수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매와 함께 호랑이가 등장하기도 한다. 독수리는 매와 함께 하늘을 지배하는 맹금류이고, 호랑이는 땅을 지배하는 맹수의 강인한 힘이 있는 데다 매와 달리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삼재부적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삼재가 언제, 어디에서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삼재부



**삼재부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읍지리, 1999.11.16
강성복

삼두일족응부 국립민속박물관



에 매와 호랑이를 함께 등장시켜 하늘과 땅,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삼재로부터 보호받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문자부는 삼재소멸부(三災消滅符), 옥추삼재부(玉樞三災符), 자연원리삼재부(自然遠離三災符), 입삼재부(入三災符), 중삼재부(中三災符), 출삼재부(出三災符)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문자부는 한자만으로 된 것도 있고, 한자에 파자(破字)가 합쳐진 것도 있다.

내용 사람은 살아가면서 9년마다 한 번 삼재가 든다. 삼재가 들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여긴다. 삼재는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 혹은 도병재(刀兵災), 역려재(疫癘災), 기근재(饑饉災) 등 세 가지 재난을 일컫는다.

삼재운이 든 첫해를 '들삼재', 이듬해를 '누울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삼재가 드는 순서대로 나쁜 운수라고 여긴다. 즉 첫해인 '들삼재'가 가장 나쁘고, 이듬해에 드는 '누울삼재'가 두 번째로 나쁘며, 마지막 해에 드는 '날삼재'는 상대적으로 액운이 가볍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로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사람의 운수는 해마다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정초가 되면 그해의 운세를 본다. 특히 삼재가 드는 해는 그 어떤 재액보다 두려움을 준다. 물론 삼재 드는 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사주와 운세의 흐름에 따라 복삼재가 될 수도 있다. 복삼재가 들면 아무 탈이 없으며 오히려 복이 온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타의 재액은 잠시 머물다 가거나 일 년 단위인 데 반해 삼재는 삼 년 동안 불운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

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삼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삼재부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문설주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삼재의 접근을 막고자 하였다.

부적은 크게 길상(吉祥)과 벽사(辟邪), 즉 복을 불러오는 부적과 사귀나 액 또는 나쁜 운수 등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나뉜다. 복을 불러들이는 부적으로는 소망성취부(所望成就符), 관직부(官職符), 재수대길부(財數大吉符) 등이 대표적이다. 좋지 않은 것을 물리치는 부적으로는 삼재부(三災符), 벽사부(辟邪符) 등이 있다. 삼재부는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이기 때문에 침범하는 대상이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먹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삼두일족부가 삼재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삼재는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액운이다. 이러한 개인의 액운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부적 목판이다. 마을에서 부적 목판을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찍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염병이 돌 때 많은 양의 부적을 찍어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액운을 공동으로 대처한 것으로, 삼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람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대문 위에 걸린 호랑이**(김종대, 다른세상, 1999),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김민기,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부적 속에 반영된 민화에 관한 연구**(엄난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부적의 기능론 序說**(김종대, 한국민속학 20, 한국민속학회, 1987), **삼재와 厄年에 의한 재앙인식과 대응방식**(노성환, 비교민속학 20, 비교민속학회, 2001), **우리 민속 들여다보기**(김창일 외,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초자연적 존재와 부적**(김준권, 익살과 재치, 경기도박물관, 2004), **한국의 벽사부적**(김영자, 대원사, 2008).

**필자** **김창일(金昌一)**

## 삼재풀이

상호참조 삼재(273쪽), 삼재부적(274쪽)

**정의**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에 의해 사람의 운명과 길흉을 점쳐서 삼재라는 액운을 풀어내는 종교적 방법의 하나.

**역사** 중국의 역법(曆法)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주기법이 십간십이지 주기법이다. 일명 천간지지(天干地支)라 하여 음양의 설로 풀이한다. 십간십이지의 간지법은 전국시대에 목성의 천구상 운행이 12년을 걸려서 1주 한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의 역법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활용을 거치면서 민간의 주술적인 종교원리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한 개인의 태어난 해[年], 달[月], 날[日]에 각기 간지를 배당하여 그에 따라 사람의 운명과 길흉을 점치는 간지법이 그것이다. 간지법 가운데 하나가 삼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2년마다 되풀이되는 삶의 주기인 12지에 근거할 때 9년마다 되풀이되어 3년 동안 액운이 닥친다는 관념이다. 삼재에 대한 믿음은 오랜 기간 있어 왔겠지만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45년에 장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옹립하기 위해 중전을 해하는 방재를 행하였다. 이것이 발각되어 추국을 당하게 되면서 무당이 그해인 기해년이 장희빈에게 삼재가 드는 해이므로 신사를 행하지 않아야 했다고 하였다. 장희빈을 중전으로 복위시키기 위해 방재를 행하면서도 기해생인 장희빈이 삼재임을 고려하여 신사를 행하지 않아야 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삼재가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무당이며, 삼재가 드는 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신사조차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삼재가 실제 개인의 운명에 악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록 궁궐의 이야기이지만 무당이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에 의해 삼재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의 삼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정월편에는 삼재법이 수록되어 있다. "남녀 모두 나이가 삼재(三災)에 든 자는 매 세 마리를 그려 문 상방에 붙인다. 삼재법이란 사(巳)·유(酉)·축(丑)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亥)·자(子)·축(丑)이 든 해에 신(申)·자(子)·진(辰)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인(寅)·묘(卯)·진(辰)이 든 해에 해(亥)·묘(卯)·미(未)가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사(巳)·오(午)·미(未)가 든 해에 인(寅)·오(午)·술(戌)이 든 해 태어난 사람은 신(申)·유(酉)·술(戌)이 되는 해에 각기 삼재가 든다는 것이다. 세속에서는 이 복설(卜說)을 믿고 매 그림을 사용하여 액을 예방한다. 태어난 해로부터 9년만에 삼재가 들기 때문에 이 삼재의 해에 해당하는 3년 안에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삼가고 꺼리는 일이 많다."

매 그림 부적은 신년 초두에 붙였다.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 정월편에 "문 위에 그려 놓은 반폭의 금계그림, 머리 셋인 매 그림도 삼재를 물리친다네."라는 기록이 있다. 금계그림은 새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배(門排)이고, 삼재는 특별한 경우에만 붙인다. 이 둘 모두 정초에 액막이를 위해 대문에 붙였다.

삼재를 막는 방법으로는 매 그림이 대표적이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풍속조의 매[鷹]를 그려서 방문 위에 붙이는 데 대한 변증설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규경은 삼재를 막는 데 더 힘이 센 호랑이가 아니라 왜 매를 이용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증하였다. "매는 사나운 새 가운데에서도 후려치기를 잘하고 위세 있게 허공을 날기 때문에 주(周)의 태공(太公)을 나는 매에 비유한 것도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이다. 지금 재앙을 물리치는 데 으레 매를 그려 붙이고 액막이를 한다. 범이 언제 허공을 날고 가느다란 털[秋毫]을 관찰한 적이 있던가. 옛적의 이름난 그림이 가끔 영험을 보였다는 말은 이전의 기록에 흔히 보이고 있으니 도군(道君, 송 휘종을 이름)의 매 그림도 그런 영험이 있게 마련이다. 어찌 그런지의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삼재를 잡는 데 강력한 힘의 소유자인 호랑이보다 매가 민간에서는 영험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삼재는 액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한 해를 잘 살아내기 위해 정초에 매 그림 부적을 대문에 붙여 삼재를 막고자 하였다. 삼재의 재난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공간인 허공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매야말로 강인한 삼재 예방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형태** 삼재는 간지기년법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태어난 해의 간지가 그 기준이 된다. 일단 삼재가 들면, 3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 삼재의 그 첫해는 '들삼재', 둘째 해는 '묵삼재(또는 눌삼재)', 셋째 해는 '날삼재'라 한다. 3년 동안 어려움을 심하게 겪기도 하고, 어느 한 해가 어려웠다면 다른 해에는 조금 낫다고도 한다. 보편적으로는 3년 중에 들삼재가 가장 무섭다. 그다음으로 눌삼재가 불길하다. 날삼재에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근신하면 되듯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재난의 정도가 약해진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삼재가 가장 위험하다고도 하고, 둘째 해인 묵삼재를 '악삼재'라 하여 특히 꺼리기도 한다. 충청도지역의 옛말에 "들삼재는 몰라 보더라도 날삼재는 안다."라고 한다. 이는 날삼재가 더욱 위험함을 뜻한다. 이 때문에 삼재가 들면 날 때까지 일단 3년 동안 조심한다.

한편 삼재가 든 나이에 '3'이나 '7'의 숫자가 들면 복삼재, '4·5·7'의 숫자가 들면 파산삼재라 하여 흉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신수가 생기복덕 등의 길한 운수라면 조금 편할 것으로 여긴다. 유명·절체 등의 흉한 운수라면 위험할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다양한 민속관념이 삼재와 관련해 존재한다. 들삼재에는 마음이 심란하고, 묵삼재에는 집안에 우환이 들고, 날삼재에는 대체로 좋지 않다. 연령대에 따라 삼재를 달리 부르기도 한다. 0~15세는 애기삼재, 16~25세는 청년삼재, 26~55세는 중년삼재, 55세 이상은 노삼재라고 각각 일컫는다. 애기삼재에는 낙상(落傷)이 잦고, 청년삼재에는 구설(口舌)이 빈번하고, 중년삼재에는 재산이 줄고, 노삼재에는 낙상과 구설이 많다고도 한다.

어느 한 해가 비교적 쉽게 넘어갔다면 다른 해의 삼재에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혹은 식구 중에 삼재가 든 사람이 세 명이 있다면 한 명이 앞에서 잘 극복해 나가면 나머지 두 명은 그 뒤를 좇아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다. 반면에 삼재가 든 사람이 두 명이라면 서로 삼재가 싸워서 풍파를 심하게 겪는다. 이처럼 삼재가 들면 3년 동안은 삼재 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우환을 겪게 되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삼재는 다음의 간지가 기년에 해당될 때에 든다.

> 사·유·축(巳·酉·丑)생은 해(亥)에 들어와 자(子)에 묵고 축(丑)에 나간다.
> 신·자·진(申·子·辰)생은 인(寅)에 들어와 묘(卯)에 묵고 진(辰)에 나간다.
> 해·묘·미(亥·卯·未)생은 사(巳)에 들어와 오(午)에 묵

**삼재풀이**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2005.1.15(음), 김효경



1. 대수대명용 북어



2. 일곱 매로 묶어 둔 북어



3. 대수대명용 북어 태우기



4. 북어를 던지는 만신



5. 북어로 삼재 거두기



6. 정성들이기



고 미(未)에 나간다.
인 · 오 · 술(寅 · 午 · 戌)생은 신(申)에 들어와 유(酉)에 묵고 술(戌)에 나간다.

삼재가 들면 3년 동안 액운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조심해야 한다. 12년을 단위로 3년 동안 삶을 교란시키는 삼재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앙으로 대삼재와 소삼재로 구분하였다. 대삼재는 수재(水災) · 화재(火災) · 풍재(風災), 소삼재는 도병재(刀兵災, 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 · 역려재(疫癘災,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 · 기근재(飢饉災, 굶주리는 재난) 등을 각각 뜻한다. 대삼재는 인간에게 닥치는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크다. 소삼재는 인간이 견뎌야 하는 가장 어려운 재난을 뜻한다. 개인이 겪어야 하는 자그마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인간사에서 인간의 능력 밖에서 발생하는 최고의 재난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계산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 세월인 겁(劫)의 말(末)에 일어나는 재해를 삼재라고 한다. 우리 몸[身], 말[口], 생각[意]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이 삼재이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위해(危害)한 세 가지 재앙의 대표명사로서 삼재는 삶의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에서는 삼재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재앙으로 관념한다. 삼재가 드는 사람의 운과 관련하여 미치는 여덟 가지 재앙이라는 의미에서 '삼재팔난(三災八難)'으로 간주한다. 여덟 가지 재난은 ①손재(損財), ②주색(酒色), ③질병(疾病), ④부모(父母), ⑤형제(兄弟), ⑥부부(夫婦), ⑦관재(官災), ⑧학업(學業)이다. 이들 재난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다. 삼재가 들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그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삼재풀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은 것이다.

음력 정월이 되면 새해를 안정되게 이끌기 위해 각 가정의 주부는 식구들의 운수를 본다. 이때 대표적인 액운으로 지목되는 것이 삼재이다. 조선시대의 세시기류에는 직성(直星), 즉 구성(九星)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직성보다는 삼재 비중이 높아졌다. 지금도 정월에 신수를 볼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삼재 유무이다. 직성은 별로 중시되지 않는다. 간혹 직성을 막는 방법이 삼재풀이로 와전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삼재의 유무는 간지법만 알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는 간지법이 식자(識者)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 내의 한학자나 무당, 법사, 스님 등 전문 사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삼재는 역법에 준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내용** 삼재는 태어난 해의 간지에 따라 9년마다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르는 액운이다. '삼재팔난'이라 하여 인간에게 닥치는 온갖 재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해[年]에 드는 간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인하는 간지기년법 예방이 가능하고, 삼재에 의한 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풀이도 가능하다. 삼재가 들면 '되는 일은 없고 안 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여 예방하고, 삼가고,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삼재풀이', '삼재막이', '삼재맥이', '삼재내기', '삼재막지'라 부른다.

인간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 예방법과 더불어 살다가 탈이 났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치유법이 있다. 간지기년법에 따라 9년마다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해 치유법보다는 예방법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예방법은 부적법(符籍法)이다. 삼재부(三災符) 또는 삼재소멸부라고 칭하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두일족응부(三頭一足鷹符)이다. 노란색의 괴황지에 붉은색의 경명주사로 몸통과 다리가 하나에 머리가 셋인 매를 그린 부적이다. 매의 강력한 힘으로 세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부적은 방문 위에 붙여 둔다. 이것은 절기상 동지가 지나면 효험이 없기 때문에 동지 즈음에 떼어서 이듬해에 다시 붙인다. 삼재부적은 삼재가 든 사람이 직접 몸에 지니기도 하고, 자신의 몸과 접촉하는 물건에 숨겨 넣기도 하며, 태워서 물과 함께 마시기도 한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가정에서는 삼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어 부적과 함께 두기도 한다. 빈 병 세 개를 묶고 그 안에 삼재귀를 각기 잡아넣는다. 삼재가 든 사람의 나이 수대로 쌀알을 세어 부적과 함께 넣고, 복숭아나무를 깎아 병마개를 만들어 끼운다. 이 병은 거꾸로 해서 방문 위의 삼재부적 옆에 매달아 둔다.

또 다른 예방법은 미리 삼재가 든 사람을 위해 삼재풀이를 하는 것이다. 삼재풀이는 무당집이나 절에서 한다. 시기는 음력 정초나 열나흗날이 주를 이룬다. '열나흗날은 액막이날이다.'라는 관념처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대보름 이전에 모든 액을 막고자 했다. 대보름이 지나도 절기상 입춘을 넘기지는 않는다. 입춘 역시 보름과 마찬가지로 한 해의 새로운 출발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액막음을 하여 평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늦어도 음력 3월을 넘기지는 않는다. 이는 3월이 지나면 봄이 다해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삼재풀이는 집에서 가정주부가 주도적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당이나 법사가 주관한다. 삼재가 들면 그 한 해 내내 운수가 좋지 않다. 그 사람의 신수를 보아 특별히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풀이방법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수재(水災)의 운이 있으면 용왕제로 풀이를 한다. 거리에서 액이 든다면 거리제, 화재(火災)를 당할 운수라면 화재막이로 각각 푼다. 죽을 운수라면 닭이나 명태 등을 활용하여 대수대명(代壽代命)을 위한 풀이를 한다.

삼재풀이 방법은 삼재가 든 사람의 운수에 따라 다르다. 수재를 면하기 위해 용왕공을 드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새 박바가지, 쌀, 초를 준비한다. 바가지 안에 기름불이나 촛불을 밝혀서 물에 띄운다. 그런 다음 대수대명하라는 의미에서 산닭의 머리를 잘라 땅에 묻거나 물에 띄우기도 한다.

거리에서 든 액이라면 제물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 풀이를 한다. 이를 '길산제'라고 칭한다. 정월에 치성을 드릴 때는 운이 나쁜 사람의 윗도리(웃옷), 삼월에는 하의를 각각 가져간다.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제물을 가지고 세 갈래 길로 나간다. 짚을 이용하여 엑스(X)자로 놓고, 그 중앙에 기름불을 밝힌 다음 제물을 진설한다. 먼저 칠성님을 부르고 이어서 사방의 질대장군님을 불러 "사방의 질대장군님! 부탁합니다! 동두질대장금! 서두질대장군님! 남두질대장군님! 서두질대장군님! 부탁드립니다."라고 축언한다. 이때 "몇 살 먹은 애가 삼재가 들었으니 도와주십사!"라고 추가로 비손한다. 그 사람을 위해 소지 한 장을 올리고, 가져간 옷으로 북어를 싸서 삼재가 든 사람의 몸 둘레를 세 번 돌린 뒤 땅에 묻는다. 이것을 삼년 동안 반복한다. 길산제를 드리고는 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온다.

가장 흔한 삼재풀이 방식은 법사가 주관하는 대수대명을 위한 풀이이다. 대수대명물은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에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은 것이다. 속옷은 입던 것을 빨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의 체취가 남아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삼재가 든 사람의 손·발톱이나 삼재가 든 사람의 나이 수대로 고추나 동전을 사용하기도 한다. 달걀 세 개에 이름과 생년월일시 등을 적은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삼재든 사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셈이다. 간혹은 동전으로 3,800원을 마련해 가기도 한다. 이는 삼재팔난을 의미한다. 마른 명태를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으로 싸고, 삼베로 일곱 매듭을 지어 묶는다. 머리 쪽을 표시하기 위해 오색천을 묶기도 한다. 삼거리로 나가 상을 놓고 밥, 물, 나물을 세 그릇씩 올린다. 징을 치면서 비손을 한 뒤에 삼베로 묶어 둔 명태를 거리 바깥쪽으로 내던진다. 명태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삼재가 풀린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다음 오방기를 뽑아 그 사람의 운수를 점친다. 이때 파란색이나 녹색기가 나오면 소금을 끼얹고 다시 한 번 뽑도록 한다. 좋은 색의 기를 뽑으면 밤과 대추 등을 짚는다. 그런 뒤 명태는 동서남북으로 각기 일곱 걸음을 하여 땅을 파서 묻거나 불을 놓고 태운다. 마지막으로 소금, 메밀, 볶은 팥 등을 섞어 들고 삼재가 든 사람을 향해 던진다. 이때 "삼재 풀어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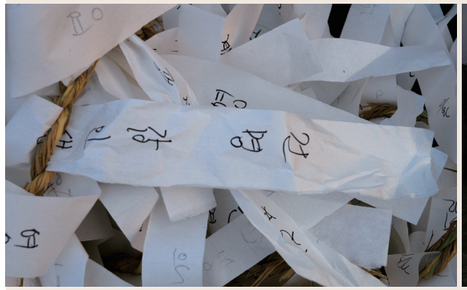
계란을 이용한 대수대명법도 있다. 계란에 각기 삼재가 든 사람의 이름, 귀신 귀(鬼)자, 임금 왕(王)자를 써 넣는다. 조밥과 오곡 볶은 것을 짚으로 만든 종그랭이(종지)에 모두 담는다. 이것을 오색천으로 일곱 장을 묶는다. 별도로 동전 일곱 개와 막걸리 한 통도 가져간다. 세 갈래로 갈라진 길에서 제물을 놓고 비손한다. 동전 일곱 개는 신작로 사방에 던지고 막걸리는 사방에 뿌린다. 그러고 나서 계란을 땅에 파묻는다.

요즘에는 무당집이나 만신, 법사에게 삼재풀이를 하기보다는 절기상 동지나 입춘에 사찰에서 하는 대규모 삼재풀이에 참석하는 경향이 짙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풀이를 하기보다는 삼재가 든 사람 모두 함께 참석하여 집단적으로 한다. 법당에서 정월 열나흗날이나 입춘맞이 치성을 드린 뒤에 삼재막이를 한다. 삼재가 든 사람들은 미리 가져온 속옷을 가지고 삼재막





**삼재풀이** 경기도 평택시 서천사, 2007.1.15(음), 김효경


삼재든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


삼재든 사람 나이 수대로 서낭당에 동전 놓기


삼재풀이를 위해 마련한 부적


삼재부적과 이름 쓴 종이 태우기


스님 주재로 행하는 삼재풀이


잡곡을 뿌려 삼재막기


오곡밥을 뿌려 삼재막기

이 장소로 간다. 삼재가 든 사람의 나이 수대로 동전을 준비한다.

경기도 평택시의 서천사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절 뒤의 서낭당에서 서낭고사와 함께 삼재막이를 한다. 미리 법당에서 대보름 불공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 절차로 삼재를 막는다. 작고 흰 종이에 삼재가 든 사람의 이름과 고향을 적어서 준비된 새끼줄에 끼워 둔다. 절 뒤에 있는 서낭당에는 작은 동자상과 서낭나무가 있다. 스님이 천수경을 낭송하고 먼저 서낭고사를 지낸 다음 삼재 소멸을 위한 축문을 구송한다. 그러면 각자 준비해 간 촛불을 밝혀서 간단히 비손한다. 잡곡을 사방에 뿌리고는 마지막으로 절에서 구입한 삼재부적을 태운다. 이때 가지고 간 속옷도 함께 불에 넣어 태운다. 부적과 속옷이 모두 탈 때까지 그 곁에 서서 비손한다.

삼재풀이를 위해 특별한 존재에게 공을 들이기도 한다. 전남 여수시의 한 보살은 일 년 동안 칠성공을 들이면 삼재막이가 된다고 하여 신자들에게 칠성공을 권유한다. 칠성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시루떡을 쪄 올리고 치성을 드린다. 이 밖에도 집안의 변소신인 측신에게 삼재를 막아 달라고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안택(安宅)을 행할 때 법사가 내전을 하기 이전에 삼재가 든 식구를 위해 특별히 삼재풀이를 베풀기도 한다. 안택에 초빙된 집안의 신령을 위한 축언을 모두 마치고 나서 삼재풀이를 한다. 식구들의 안녕을 위한 배려인 셈이다. 법사가 삼재경을 읊고 칼을 던져서 삼재가 나갔는지를 확인한다. 삼재를 풀면 집에 초청한 모든 신령을 돌려보내는 내전을 한다.

**지역사례** 이러한 형태의 의례들은 전국에서 골고루 나타난다. 지역적인 특색이라면 해안과 내륙 산악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전남의 해안가에서는 삼재가 들면 용왕공을 들이는 사례가 좀 더 많다. 띠배를 띄우듯 바가지에 불을 밝혀서 바다로 떠내려 보낸다. 해안가는 수재를 입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건너 먼 곳으로 수재를 보내고자 한 것이다. 충남의 내륙지역에서는 길산제 형태로 삼재풀이를 한다. 세 갈래로 갈라진 길에서 거리제 또는 산제를 지내면서 마지막에 삼재풀이를 추가한다. 대수대명을 위해 북어를 일곱 매듭으로 묶어 던져서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면 삼재가 나갔다고 여긴다. 북어는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내륙에서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면 불사르거나 땅에 묻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언급한 형태를 상황에 따라 각기 베푼다.

간혹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어 점을 쳐서 삼재가 들었다고 하면 맥이를 한다. 이때는 그 사실을 안 시점에 곧바로 행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법인 셈이다. 그러나 삼재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정초에 예방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이다.

**의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 가능한 시간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주술적인 의례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태어난 해의 간지에 따라 9년마다 액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순환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삼재맞이**(이필영,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삼재맥이**(김종대, 한국의 세시풍속–정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김효경(金孝慶)**

## 삼짇고사

**정의** 삼월삼짇날에 가정 단위가 중심이지만 문중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지내는 고사.

**역사** 신라시대부터 양(陽)의 수가 두 번 겹치는 날을 길일로 여겨 각종 의례를 치렀다. 삼짇날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온달조에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가락국기」에 "3월 계욕일에 가야의 구지봉으로 여섯 개 황금알이 담긴 금합이 내려왔다."라는 기록과 『삼국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에 중삼(重三)일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의례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계욕(禊浴)은 3월 상사일(上巳日)에 액을 쫓을 목적으로 물가에서 회음(會飮)하는 의례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3월 상사일이 9대 속절의 하나였다. 이날을 기해 봉은사의 태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에서 계음(禊飮) 행사를 치렀다.

상사일은 이후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삼월삼짇날로 변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기로회(耆老會)를 널리 베풀었다. 민간에서는 화전, 화면, 수면 같은 음식으로 조상에게 제를 올렸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조선시대 때 강릉지역 풍속으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명승지로 초청하여 위로하는 청춘경로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의 삼짇날조에 "봄의 삼짇날과 가을의 중양절에 시제를 지낸다."라는 기록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삼짇날조에 "진천 풍속에 삼월삼짇날부터 사월초파일까지 여성들이 무당과 함께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 및 삼신당에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삼짇날 고사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양식이나 목적이 상이하지만 삼국시대부터 면면히 전승되고 있는 한민족의 전통적인 세시의례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삼짇고사는 1년을 기본 주기로 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삼기도 한다. 가정이나 문중 단위에서 지내는 의례의 경우, 제물은 일반 기제사 상차림 또는 시제 상차림과 비슷하다. 가정 단위의 의례는 보통 부녀자의 비손으로 진행되며, 문중 단위의 의례는 유교식 제차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마을 단위에서 지내는 의례의 경우, 제물은 동제 차림과 비슷하며, 의례는 일반적인 동제 형태나 무당에 의한 무당굿으로 진행된다. 의례의 목적은 아들 점지를 비롯하여 가정이나 집안의 안녕, 마을의 번영에 있다.

**지역사례** 삼짇날에는 각 가정에서 고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시제를 지내는가 하면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 고사를 지내는 지역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성주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부녀자가 주체가 되어 떡과 북어포를 진설하고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충북 영동군지역에서는 부녀자가 주체가 되어 삼색실과나 포를 진설하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한다. 한편 아들 점지를 목적으로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례가 흔하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2리의 경우 사찰에 가서 아들 점지를 발원한다. 고령군에서는 산이나 물, 바위와 나무 아래, 삼신당 · 용왕당 · 칠성당 등에 정화수 및 술과 떡 등을 진설하여 비손 형태로 아들 점지를 발원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대를 잡고 삼신을 타서 아들 점지를 발원하기도 한다. 『동국세시기』에서 이날을 기해 아들 점지를 발원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전통이 여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중에서 시제를 올리는 지역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의 경우 청주 양씨 서원백파(西原伯派)의 사당인 충헌사(忠憲祠, 1626년 건립)에서 100여 명의 후손들이 모여 제향을 올린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에서는 대가 끊어진 박첨지 묘에서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올린다. 성산리의 성북골은 "전라 경상 두얼품에 팔량재가 있었는디"로 시작되는 〈흥부전(興夫傳)〉의 발상지로, 흥부전의 모태가 되는 형제애가 돈독한 〈박첨지 이야기〉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열양세시기』에서 중양절과 더불어 이날을 기해 시제를 지낸다는 내용을 미루어 이 전통 또한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에서 동제를 올리는 지역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3년에 한 번 무당을 불러 봉화산 정상에 있는 삼신할미당에서 열두거리 굿을 한다. 이를 흔히 '봉화산도당굿' 또는 '치성굿'이라고 한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에서는 도당우물제를 지낸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암리에서는 서낭제를 지낸다. 긴 대에 실과 문종이를 매달고 정월 초이튿날부터 각 집을 돌며 쌀을 걸립하고, 삼짇날에 서낭제를 지낸다. 현재는 사월초파일과 시월 보름에 메만 진설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정마을 · 남면 나발마을 · 화정면 자봉마을과 제도 마을의 경우, 당제를 지낸다. 당제의 제차는 비슷하며 제의를 마치면 지신밟기 등으로 매구를 치며 하루를 즐긴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서는 용샘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정제(龍井祭)를 지낸다. 경남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동전마을에서는 면 단위에서 동제를 지낸다. 이를 흔히 '운돌제사'라고 한다. '운돌'은 '우는 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언제부터인지

'나라를 위해 운 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나라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면 단위의 동제로 변모했다.

울릉도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삼짇날을 '바다 사람들의 날'이라고 여겨 일 년 동안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하게 해 달라며 해신당(海神堂)에서 제를 지낸다. 해신제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 배고사를 지내고, 마을회관이나 어촌계 사무실에 모여 음복하며 한 해를 결산한다. 태하마을에서는 2000년 전까지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동제를 지냈다. 그러다가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주민들의 노령화로 삼짇날 해신제와 함께 동제를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東國歲時記,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세시풍속(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이창식(李昌植)

## 삼칠일(三七日)

**정의** 중요한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을 세 번 지낼 때까지 금기(禁忌)를 지키거나 특별한 의미를 두어 대응하는 기간.

**유래** 삼칠일은 3 · 7일로도 표기한다. 날짜로는 21일에 해당하지만 7일을 3번 거듭하는 기간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삼칠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3과 7이라는 수 관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숫자 7은 북두칠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은 1년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북두칠성이 곧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섬기면서 점차 칠성신앙(七星信仰)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망원경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은 하늘에 별과 지구를 제외하고 해 · 달 · 수성 · 금성 · 화성 · 목성 · 토성이라는 7개의 '천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주일의 기준으로 삼고 각 천체의 이름을 대입하였다. 음양오행사상으로 천지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해명한 동양에서도 일곱 천체와 7요일의 이름을 음양에 해당하는 일월(日月)과 오행〔火水木金土〕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숫자 7은 동서양을 넘나들며 하늘을 이루는 근원적인 수로 여기게 되었고, 나아가 우주의 의미를 해명하는 신성한 수이자 음양오행의 동양사상을 담고 있는 수로 파악하였다.

숫자 3은 예부터 한자문화권에서 길수(吉數) · 신성수(神聖數)라 하여 최상의 수로 여겨왔다. 3은 최초의 양수인 1과 최초의 음수인 2가 결합하여 생겨난 변화수로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이다. 짝수인 2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고 원수(原數)인 1의 신성함을 파괴하지 않은 채 변화하여 '완성된 하나'라는 상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원적인 구조와 신성함을 드러낼 때 숫자 3은 어김없이 등장하게 된다. 예컨대 세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천 · 지 · 인 삼재(三才)이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과거 · 현재 · 미래 또는 천계(天界) · 지계(地界) · 명계(冥界)의 삼계(三界)로 구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조신인 환인(桓因) · 환웅(桓雄) · 단군(檀君)이 셋이면서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삼일신(三一神)적 인식은 인간 필연의 종교의식을 담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불 · 법 · 승의 삼보(三寶)가 모일 때 비로소 불교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숫자 3으로 표현되는 상징성과 문화양상은 사상에서 속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7은 3과 4를 합한 숫자로 그 속에 3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삼계를 뜻하는 성스러운 수 3과, 인간이 사는 세계[四方]를 뜻하는 세속적인 수 4가 결합되어 있어 숫자 7을 신과 인간, 성과 속, 하늘과 땅,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수로 보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7년을 주기로 변화를 거듭한다고 보는 이론이 일찍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7이라는 주기성이 여성과 깊이 관련되어 열네살(2×7)에 초경을 시작해 여성으로 거듭나며 마흔아홉살(7×7)에 폐경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달의 주기와 여성의 생리주기가 일치하듯이 음의 원리를 지닌 달과 여성이 7의 4배수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도 통한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중유(中有)의 존재로 머문다고 보는데, 그 기간을 7 · 7일(49일)로 본 것도 이러한 맥락과 함께하고 있다. 불







금줄
국립민속박물관

교의 중유기간이 본래부터 7 · 7일이 아니라 7일을 단위로 한 여러 설이 공존하는 가운데 7 · 7일로 정착되었고, 이때 3 · 7일 또한 중요한 날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숫자 7은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시간 리듬이었고 거기에 신성한 3의 수가 배수로 결합됨으로써, 삼칠일은 중요한 변화를 맞아 금기가 따르는 신성한 시간으로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삼칠일에 대한 언급은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처음 등장한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桓雄)을 찾아와 사람 되기를 간청하자, 환웅은 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으며 백일간 인내하면[百日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이에 둘은 굴속에 들어갔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중도에 뛰쳐나오지만 곰은 백일이 채 되기 전인 삼칠일만에 여자의 몸을 받아 웅녀(熊女)가 되었고, 잠시 사람으로 변한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 단군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군신화에 언급된 삼칠일이 금기의 신성기간으로 주술 ·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민간에서는 출산과 같이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부정을 몰아내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기간으로 삼칠일을 지켜왔다.

**내용** 삼칠일은 주로 출산 후의 금기기간으로 널리 반영되어 아기가 태어나면 삼칠일 동안 대문에 금줄을 쳐서 새 생명이 탄생한 공간과 외부세계를 격리시켰다. 갓 태어난 아기는 외부세계의 부정(不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 산모와 함께 오염된 일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며, 다른 가족들도 삼칠일이 지나 산모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여러 가지 금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금줄은 출산을 널리 알리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는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금줄이 걸린 집에는 상가를 방문하거나 흉사에 관여한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금하였으며, 가족들도 문상을 가지 않고 동물이 죽는 것을 보았을 경우 산모 방에 들어가지 않는 등 몸가짐을 조심하여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하였다.

금줄에는 고추 · 솔가지 · 숯 · 백지 등을 매달았는데, 이것은 본래 신성과 금기의 공간을 드러내고자 금줄을 칠 때 오행의 기운을 갖추어 그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출산뿐만 아니라 장독이나 상량식 등과 같이 중요한 일에 삿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때 오방색을 사용해왔다. 곧 솔가지는 생명력, 백지는 신성, 숯은 정화, 고추는 축귀의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새끼줄의 황색, 솔가지의 청색, 고추의 적색, 백지의 백색, 숯의 흑색은 오방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러한 오행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부정을 물리치면서 남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자유롭게 표현 · 해석하면서 금줄에 미역을 거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추는 붉은색이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녀 금줄에 즐겨 등장하는데, 출산 후에 치는 금줄에서는 점차 '고추=아들'의 상징이 부각됨에 따라 색깔의 짝을 맞추기 위해 푸른 솔가지를 정절의 의미로 해석하여 딸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청색은 남성, 적색은 여성을 뜻하지만, 고추가 지닌 성적 상징이 색깔의 상징을 넘어선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금줄은 일상과 반대되는 왼새끼를 사용하여 부정을 쫓았으며, 양끝을 자르지 않고 둠으로써 아기와 산모의 수명이 끝없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삼칠일에 행하는 주요한 의례내용은 초이레(초칠), 두이레(이칠), 세이레(삼칠) 때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는 삼신에게 상을 올리며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빌게 된다. 삼신은 태(胎)의 우리말이 '삼'이기 때문에 탯줄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를 여성이라 보아 '삼신할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산 전에는 임산부가 있는 방의 윗목에 짚을 깔고 삼신에게 쌀 · 생미역 · 정화수를 올리며 순산을 기원하였으며, 출산 후에는 쌀로 밥을 짓고 미역으로 국을 끓여 매 7일째 되는 날마다 삼신에게 올리고 감사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바랐던 것이다. 삼칠일은 산모의 기력을 북돋우고 수유능력을 배양하는 시기이기도 하

여 산모의 몸을 보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정성을 들이게 된다. 아울러 삼칠일과 관련된 속신으로 '삼칠일 안에 집에 못을 박으면 삼신이 노한다', '삼칠일 동안에 달걀을 깨뜨리면 불길하다', '삼칠일에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으면 아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각종 행동을 조심하는 금기의 기간으로 여겼다.

출산한 지 사흘째 되는 초삼일 또한 삼칠일과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아기와 산모는 출산 후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쑥을 달인 물 등으로 씻을 수 있었고, 이후 세이레마다 목욕을 하였다. 이처럼 특정한 날에만 목욕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된 신체를 정화하는 의미를 담는 동시에 외기에 노출되어도 삿된 기운이 침범할 수 없다고 여겼다. 또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른 탯줄은 바로 처리하지 않고 짚으로 싸서 방 윗목에 두었다가 3일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묻거나 태웠으며, 태운 재는 물에 띄워 보냈다. 이는 탯줄이 태아의 삶을 유지시켜준 생명의 근원이자 태중과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소중한 것이므로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여겨, 중요한 일을 할 때 날을 받듯이 '3'의 수가 지닌 길상과 신성의 의미를 취해 초삼일에 이를 묻거나 태운 것이다.

초이레가 되면 새벽에 삼신상을 올린 후 산모가 그 상에 올려놓았던 밥과 미역국을 먹는다. 아기의 옷차림은 초이레 때 비로소 쌀깃(강보)을 벗기고 깃 없는 배냇저고리를 입히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매었던 양팔 중 한쪽을 풀어주었다. 이때 아기에게 실꾸리를 채우거나 곁에 놓아두면서 장수를 기원하기도 한다. 아울러 초이레가 되어야 조부가 아기를 볼 수 있다 하여, 아기와 직계가족 간에 첫 대면이 이루어지거나 초이레를 맞아 이웃과 친지에게 떡과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두이레에도 새벽에 밥과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올렸다가 산모가 그것을 내려 먹는다. 이때 아기의 옷은 깃이 달린 윗옷에 아래를 감싸는 두렁이를 입히고 나머지 한쪽 팔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활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외조부모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

세이레는 삼칠일을 마감하는 날로서 가장 성대하게 의례를 치른다. 이 날을 기점으로 금줄을 걷고 모든 금기를 해제하며, 산실도 개방하여 친지 · 이웃을 청해 아이를 보게 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집안에 따라 수수경단, 백설기 및 소를 넣지 않은 만두 등을 만들어 접대하는데, 속이 빈 만두는 아기의 도량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실타래나 건강하게 자란 아이 옷, 미역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삼신에게 밥과 미역국을 올려 감사드린 뒤 삼신상을 접게 되며 산모도 일상생활로 돌아와 바깥출입을 할 수 있다. 이 날 아기에게는 저고리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하의도 갖추어 처음으로 바지저고리를 입히게 된다. 출산과 관련된 삼칠일의 풍습은 이러한 기본구조를 갖춘 가운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기에 있어서도 초칠일만 지내거나 칠칠일(49일)까지 금기의 기간을 확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삼칠일은 출산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의미 있는 기간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예컨대 아기점지를 기원하는 기자치성(祈子致誠)을 할 때도 치성의 기간을 백일부터 칠칠일, 삼칠일, 칠일, 삼일 등으로 정하여 3과 7의 조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삼국유사』 권4 진표전간(眞表傳簡)조에는 진표율사가 3년 동안 도를 구해도 소식을 얻지 못해 몸을 바위 아래로 던졌는데, 홀연히 한 동자가 나타나 율사를 구해 바위 위에 올려놓았고, 이에 율사가 다시 염원하여 삼칠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도를 닦아 천안(天眼)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이룬 후 삼칠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였고, 고려시대의 승려 균여는 귀법사(歸法寺)에 벼락이 떨어지는 천재지변을 풀기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삼칠일간 법회를 열고 설법했다. 남효온(南孝溫)의 기행문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에 나오는 의신암(義神庵)의 전설에 따르면 의신조사가 수리새로 변한 천왕에게 "이곳에서 며칠이면 도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삼칠일이면 되리라."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죽기 전에 삼칠일동안 번과 등을 달고 승려들을 청해 경을 읽으며 공덕을 닦으면 죄업이 소멸된다는 정토경전의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날짜개념만이 아니라 숫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의 요지를 게송으로 압축해 놓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系圖)』는 총 210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학(東學)을 창시한 최제우(崔濟愚)는 21자로 된 '삼칠자 주문'에 시천주사상의 핵심을 담아 이 주문 속에 천도에 이르는 바른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의의 삼칠일은 중요한 일을 치르기에 적합한 주술 · 종교적인 기간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생명의 탄생을 맞아 행하는 출산 후의 삼칠일 풍습은 광범위한 수용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갓 태어나 외부세계에 노출된 아기와 오랜 산고를 거쳐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물리적 · 관념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무사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와 분리되어 일정한 금기를 지키는 전이(轉移)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탄생과 죽음은 인간의 통과의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이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 격리되었던 동굴과 삼칠일이 각각 전이를 위한 공간과 시간이었듯이, 외부세계와 격리된 산가(産家)와 삼칠일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종교적 시공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삼칠일은 중요한 변화의 과도기를 맞아 3과 7이라는 길수이자 신성수를 대입한 상징적 시간으로써 대상을 보호하고 무사히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기제라 하겠다.

또한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로 거듭되는 단계는 아기가 새로운 세계로 통합됨에 있어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즉 아기는 초이레에 가족과 공식적으로 대면하고 두이레에는 외가와, 세이레에는 친지와 대면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완의 존재를 보다 완전한 생명체로 인준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여, 이레마다 깃이 없는 옷에서 깃이 있는 옷으로, 몸을 감싸는 강보에서 저고리로, 저고리에서 바지저고리로 변해가는 옷차림은 아이의 성장에 따른 실제적 대응이자 온전한 생명체로 진전되는 단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산모도 마찬가지로 해산과 함께 완전히 일상에서 분리되었다가 초삼일에 첫 목욕으로써 정화의 과정을 거친 뒤 초이레에 공식적으로 가족과 대면하고, 삼칠일을 기점으로 가족의 성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복귀하였다.

이처럼 삼칠일은 한 생명이 태어나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변화 속에서 삿된 기운이 침범하기 쉽다고 보아, 혈연 · 사회 공동체의 세심한 금기와 배려 속에 점진적인 전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무사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 삶의 대응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동학에 함유된 고유사상의 탐구**(김대훈,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사십구재**(구미래, 민족사, 2010), **첫돌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 민간신앙과 문학연구**(오출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4 · 25**(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 1994),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한양명, 비교민속학 16,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인의 상징세계**(구미래, 교보문고, 1992).

**필자** **구미래(具美來)**



## 상달고사

표제어 가을고사(22쪽)

## 상량문(上樑文)

상호참조 상량제(292쪽), 성주(307쪽)

정의 목조 건물 건축 과정에서 최상부 부재인 종도리(마룻대, 마룻도리)를 올리는 상량제(上樑祭) 때 사용하는 축문(祝文).

역사 상량제는 전통사회의 건축 조영 과정에서 행해지는 공정이자 제의로 텃고사[開基祭]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때 쓰는 축문인 상량문(上樑文)은 중국 육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에는 『문체명변(文體明辯)』의 상량문 개론을 요약한 내용이 나온다. 비록 중국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와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상량문이란 공사(工師)가 종도리를 올릴 때 하는 말이다. 세속에서 궁실을 지을 때면 반드시 길한 날을 받아서 상량을 한다. 이때 친지와 손님들이 요즘 만두(饅頭)라고 부르는 면(麵)에 싼 음식을 다른 음식물과 함께 올리며 경사를 축하하고, 장인(匠人)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었다. 그

러면 장인의 우두머리가 면을 종도리에 던지면서 이 글을 외우며 축원한다.
상량문의 첫머리와 끝 부분은 모두 변려문을 사용하고 중간에는 각각 3구씩으로 된 시 여섯 수를 써서 사방(四方)과 상하에 배당하니, 이것은 대개 속례(俗禮)인 듯하다. 이제 그 법을 논하여 하나의 문체 유형으로 구비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원나라 진역증(陳繹曾)의 『문전(文筌)』에 실린 보병문(寶甁文)에 "미장이가 용마루[棟脊]를 칠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하였는데, 여러 문집에는 이런 글이 없으므로 정식을 삼을 수가 없다. 삼가 생각건대, 그 글은 대략 상량문과 같고 끝 부분에 시를 열거한 것은 약어(樂語)의 구호(口號)에 비견되는데, 다만 사방과 상하에 배당되는 글이 없을 뿐이다.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으나, 우선 그 말을 여기에다 붙여두기도 한다. 송인(宋人)이 또 상패문(上牌文)을 두었는데, 이것은 대개 편액(扁額)을 올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역시 상량문으로 인하여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는 '상량문'에 대해 문체의 명칭이며, 상량제 때 쓰는 축문으로 육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문(文)은 나란히 쓰며, 마지막에 시를 덧붙인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상량문은 상하동서남북 모두 6장(章)으로 구성되며, 문의 처음과 장(章)마다 들어가는 시의 첫 부분에 '아랑위(兒郎偉)'라는 3자(字)를 수식으로 붙인다고 적고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309년(충선왕 원년) 연경궁 상량 때 관리들이 원나라 제도를 본떠서 은, 명주, 모시를 예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상량제가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상량문은 기록상 이보다 앞서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잡저(雜著)」'을유년대창니고상량문(乙酉年大倉泥庫上梁文)'에 나온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는 사헌부에서 전사 관관(典祀判官) 박윤영이 누문 상량제(樓門上樑祭)에 향탄(香炭)을 바치는 것을 빠뜨려 그의 죄를 청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상량문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례로는 『선조실록(宣祖實錄)』의 태묘(太廟) 상량문이 있다. 태묘 상량 때 선조와 신하들이 상량문을 의논하면서 "상량문은 당초부터 예의(禮儀)에 관계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중고(中古)에 나온 듯하니 송도(頌禱,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의 뜻을 따르는 것이므로 예에 있고 없는 것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전부터 시작되어 송(宋)나라 예가 분명히 있는 만큼 몽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태묘 상량의 축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까치집 상량문[鵲巢上樑文]〉에는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짓다가 중단하고 돌아오지 않자 외삼촌이 조카에게 "상량문을 지으면 까치가 집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일렀고, 이에 조카가 상량문을 짓자 까치가 비로소 집을 완성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처럼 상량문을 지어야 집이 완성된다고 믿을 만큼 상량문은 건물 건축 과정에 꼭 필요하였다.

상량문은 건축 내력과 동기, '아랑위포량동(兒郎偉抛樑東)'이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서 · 남 · 북 · 상 · 하(또는 동남서북상하) 순으로 된 사(詞), 기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길고 난해한 형식의 글이 쓰인 상량문 문서는 점차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상량문이라 하면 대개 종도리나 장여에 직접 쓰인 묵서명(墨書銘) 형식을 지칭한다. 그리고 목구조 건물을 짓는 일이 거의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상량문을 짓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비록 상량문을 짓는다고 해도 간략하게 짓거나 한자 대신 한글로 짓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형태** 상량문은 본래 긴 글을 네모 형태의 종이나 비단 같은 천에 먹으로 적으며, 이를 접어 종도리나 종도리를 받치는 부재인 장여에 홈을 파고 넣는다. 이런 상량문은 주로 반가(班家)에서 쓰였으며, 민가(民家)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이 밖에 짧은 글로 된 묵서명 또는 상량기(上樑記)라고 부르는 상량문도 있다. 이것은 종도리나 장여에 글씨를 직접 쓰는 형태로 반가와 민가에서 두루 사용되었다. 상량문이 직접 쓰인 종도리는 '상량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량문은 대부분 종도리나 장여에 글이 적힌 묵서명 형태이다. 그러나 이것도 상량문을 적지 않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글자를 해독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내용** 종도리를 올려놓는 과정인 상량은 건물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이자 가신(家神)인 성주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 작업은 건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량문으로써 건물 완성을 돕는다는 송축의 의미와 함께 축복의 노래로 종도리 올리는 일을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상량문은 문장의 길이와 형식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건물을 짓게 된 동기와 내력, 종도리를 올린 시간인 상량 시간, 여섯 방위에 대한 사, 기원문으로 구성된다. 상량 시간 외에도 터파기 날짜를 비롯해 주춧돌 놓는 날짜와 입주(立柱) 날짜 등처럼 상징적이면서 중요한 조영(造營) 일자, 가주와 건축에 참여한 목수 이름 등을 적기도 한다. 긴 글로 된 상량문의 사에는 동서남북상하 각 방위 앞에 '아랑위포량동'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상량문을 아랑사(兒郎詞), 육위(六偉), 아랑지송(兒郎之頌), 아랑지문(兒郎之文)이라고 부르며 양송(樑頌)으로 부르기도 한다.

**긴 상량문** 긴 문장으로 된 상량문은 집을 짓게 된 내력과 동기, 동서남북상하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사(詞) 18수,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伏願上梁之後]'으로 시작하는 기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에 들어가는 동서남북상하 6장 사의 첫 부분에는 '아랑위포량동(兒郎偉抛樑東)' 따위처럼 아랑위를 수식으로 붙인다. 아랑위는 상량할 때 기운을 돋우기 위해 지르는 소리인 '이영차'나 '어기여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랑은 원래 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상량문에서는 도목수가 장인들을 싸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이로 해석하기도 한다. 경북 영주시 일대에서 상량제에 허수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랑위를 허수아비로 해석하기도 한다.

**짧은 상량문** 짧은 문장으로 된 상량문은 긴 상량문 형식에서 많이 축약되고 변형된 재액방지문자, 상량시(연월일시), 가주(家主) 생년, 건물 좌향, 기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이 짧다고 해도 상량문은 어렵기 때문에 한학(漢學)에 밝은 사람이 지으며, 간혹 목수가 짓기도 한다. 짧은 상량문은 긴 상량문처럼 정해진 형식을 따르기보다 가주나 상량문을 쓴 사람에 따라 가감이 이루어져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재액방지문자와 상량시를 적으며, 가주 생년과 건물 좌향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재액방지문자를 비롯한 요소가 두루 나타나는 상량문 예는 아래 표와 같다.

짧은 상량문을 쓰는 위치는 종도리 바닥이다. 종도리에 쓰는 것은 이 부재가 집안의 중심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도리 아래에 장여가 있으면 장여에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여 바닥이나 종도리 · 장여 측면에 쓰기도 한다. 쓰는 방식은 대개 횡서(橫書)보다 종서(縱書)로 쓴다. 순서는 안방 쪽에서 시작해 건넌방 쪽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안방이 집의 중심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 재액방지문자(동물 문자) 짧은 상량문의 맨 처음과 끝에는 동물 문자를 서로 마주 보게 적는다. 문자로는 용(龍)과 거북[龜]이 가장 많이 쓰인다. 간혹 호랑이[虎], 봉(鳳), 기린(麒麟)도 쓰인다. 용은 일반적으로 '용(龍)'만 적지만 용용용(龍龍龍), 용반(龍盤), 해룡

| 재액방지문자 | 상량시(연월일시) | 가주 생년 | 건물 좌향 | 기원문 | 재액방지문자 |
|---|---|---|---|---|---|
| 山龜 | 昭和三年陰戊辰潤二月初四日卯時立柱上樑 | 家主壬戌生 | 申坐<br>乙向 | 應天上之三光<br>備人間之五福 | 海龍 |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 | | | | |
| 龜 | 歲在乙卯正月貳拾七日巳時立柱上樑家主癸未生 | | 應天上之三光 子孫昌盛<br>備人間之五福 富貴繁榮 | | 龍 |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 | | | | |
| 洛龜 | 乙亥三月二十日辰時竪柱上樑 | | 壬坐丙向 | 甲午生成造運 | 河龍 |
|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 | | | | |

(海龍), 활룡해룡(活龍 海龍), 구룡(龜龍)으로 적기도 한다. '구(龜)'*도 대개 구(龜)만 적지만 구구구(龜龜龜), 낙구(洛龜), 수구(水龜), 산구(山龜), 하구(河龜)로 적기도 한다. 때로 상형문자나 그림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상량문에 '용'과 '거북'을 적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그 가운데 용과 거북이 물과 관련된 동물이라는 점에서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에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홍식(金鴻植)은 『한국의 민가』에서 "용(龍)·구(龜)자를 쓰는 것은 거북과 용이 물 속에서 사는 신령한 동물로서 불을 이긴다는 화재 방지의 오행사상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하였으며, 김광언(金光彦)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상량고사」에서 "상량문 좌우 양 끝에는 용(龍)과 구(龜)자를 서로 마주 대하도록 쓰는데, 이는 용과 거북이 물의 신[水神]이므로 이렇게 적어두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물은 아니지만 해(海), 수(水), 하(河) 등의 문자도 쓴다. 이 역시 물을 상징하는 문자로, 화재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채원병(蔡元秉) 씨 가옥 상량문의 '묘(淼)'자나 경복궁 근정전 종도리 아래 장여에서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육각형 은관의 '묘(淼)', 1000여 자의 '용(龍)'자로 메워 쓴 '수(水)' 모두 화재 방지와 연관된다.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허삼돌 씨 가옥의 사랑채 상량문에는 '용(龍)'자 주위에 '해(海)'자, '호(虎)'자 주위에 '풍(風)'자를 각각 적기도 했다.

거북은 수신으로서 화재 방지의 의미가 있지만 장수 동물이나 길상 동물로도 인식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상량문 맨 처음과 끝에 '龍虎' 또는 '龍龜'라고 쓰는데 용은 높이 존중하는 동물, 호랑이는 짐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동물, 거북은 오래 사는 동물을 각각 의미한다고 한다. 호랑이는 가장 위대한 동물로서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니며, 기린(麒麟)·봉(鳳)과 같은 길상 동물을 쓰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서는 '하룡(河龍)'과 '낙구(洛龜)'를 화재 및 재액을 방지하는 의미로 썼다고 한다. 맨 처음과 끝에 문자를 쓴 예는 다음과 같다.

龜-龍, 淌龍祥, 洛龜-龍海, 洛龜-河龍, 山龜-海龍, 水龜(맨 처음만), 龜(맨 끝만), 龍-龜, 龍-鳳, 龍-龍, 龍-海, 龍盤-虎踞, 龍龍龍-龍龜, 龍龍龍-龜龜龜, 龍河-龜洛, 祝-禱, 河龍-洛龜, 海-龍, 海-龍-龜, 海龜-龜龍, 海龍-海-山龜, 海龍-龜龍, 海龍-洛龜, 海龍-水龜, 海龍-河龜, 海海海-龍龍龍, 虎-海

② 상량시(上樑時) 상량문에는 종도리를 올린 시간인 상량시를 적는다. 상량시는 긴 상량문에 간혹 적는 것과 달리 짧은 상량문에 대부분 적으며,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 또는 숫자로 쓴다.

간지는 '갑자(甲子)'처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이웅재 씨 가옥처럼 계(癸)와 해(亥)를 대신하여 흑(黑)이나 저(猪)를 쓴 예도 있다.

상량이라는 것은 비록 건물이지만 마치 사람의 탄생처럼 탄생일인 연월일시가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상량일을 상량문 안에 사주(四柱)로 기록하기도 한다. 그 예로 경북 성주군 한개마을 한주종택 사당 상량문에서는 '사과 정미 갑인 갑진 신미(四課 丁未 甲寅 甲辰 辛未)'로 썼다.

연도를 적는 방법은 ①연도(또는 年號)+간지(십간십이지), ②연도, ③간지 등이다. '광무칠년갑진(光武七年甲辰)'처럼 연도+간지로 표기한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재(歲在)' 또는 '태세(太歲)'라고 적고 간지 또는 연도를 적기도 하며, '상지'(上之, 현 임금 즉위년 기준)를 쓰기도 한다. 연호는 집주인과 글쓴이의 세계관이 반영되기도 한다. 청나라 연호인 '동치(同治)', '광서(光緖)', '함풍(咸豐)', '가경(嘉慶)'과 명나라 연호인 '숭정(崇禎)'은 집주인의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다. 대한제국기에 지어진 민가 상량문에는 '광무(光武)' 연호가 많이 등장한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민가 가운데에는 일제 연호인 소화(昭和)가 대부분이지만 단기(檀紀)나 개국 528년(開國五百二十八年)처럼 소화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예도 있다. 서원과 같은 유교 건물인 경우 공부자탄강(孔夫子誕降), 사찰 건물은 불기(佛紀)나 세존응화(世尊應化)로 각각 쓰는 등 건물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구력(舊曆)'이나 '주후(主後, 예수 탄생 이후인 서기를 가리킴)'를 쓰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 지어진 가옥은 서기(西紀)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연호 없이 '무자(戊子)'나 '기미(己未)' 등 간지만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십간십이지로 쓰지만 전북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이웅재 씨 가옥 상량문처럼 '임자구월 이십팔일병술'을 고갑자(古甲子)인 '玄默[임]困敦[자]玄[구]月二十八日柔兆[병]閹茂[술]'로 기록하기도 한다.

연도 다음에는 월일시를 적는다. 따라서 ○월○일○시로 적고 그 뒤에 상량 또는 입주상량(立柱上樑)이라고 쓴다. 시간을 적는 방법은 대개 간지로 표기하여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처럼 적는다. 최근에는 '오전십시(午前十時)'처럼 오전·오후로 적는 사례가 점차 많아진다. '시(時)'를 적을 때 고자(古字)인 '시(㫆)'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량을 올린 시간 외에 간혹 개기(開基)나 정초(定礎)의 날짜, 시간을 적기도 한다. '수주상량(竪柱上樑)'이나 '입주상량성조(立柱上樑成造)'로 적기도 한다.

③ 좌향(坐向) 상량문에 건물 좌향을 적는다. 방식은 간지로 방향을 기록하여 '자좌오향(子坐午向)'처럼 좌와 향을 적는다. '유좌(酉坐)'와 같이 좌만 쓰기도 한다. 이는 좌만 기록하더라도 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좌향을 기록한 것과 같다. 또 괘에 따라 건좌손향(乾坐巽向), 간좌(艮坐), 간좌곤향(艮坐坤向)처럼 쓰기도 한다.

④ 가주(家主) 상량문에 가주를 적는다. 이름은 적지 않고 가주 생년을 간지로 적어 '가주○○生'이라고 적는다. 가주 대신 택주(宅主)로 적거나 '成造運○○生'이라고 적기도 한다.

⑤ 기원문(祈願文) 짧은 상량문은 기원문도 간략하다. 기원문 가운데에는 '응천상지삼광 비인간지오복(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이 가장 많이 쓰인다. 삼광(三光)은 일(日)·월(月)·성(星), 오복(五福)은 수(壽)·부(富)·다남(多男)·위(位)·건강(健康)을 각각 이른다. '하늘의 해님·달님·별님은 감응하시어 인간의 오복을 내려주소서.'라는 뜻이다. 이 밖에 부귀영화 자손창성(富貴榮華子孫昌盛) 등도 쓰인다. 입춘첩에 많이 쓰이는 글귀인 '부모천년수 자손만세영(父母千年壽子孫萬世榮)'도 가끔 쓰인다. 쓰는 방식은 기원문의 글자가 많아서 대개 두 줄로 쓰며,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씨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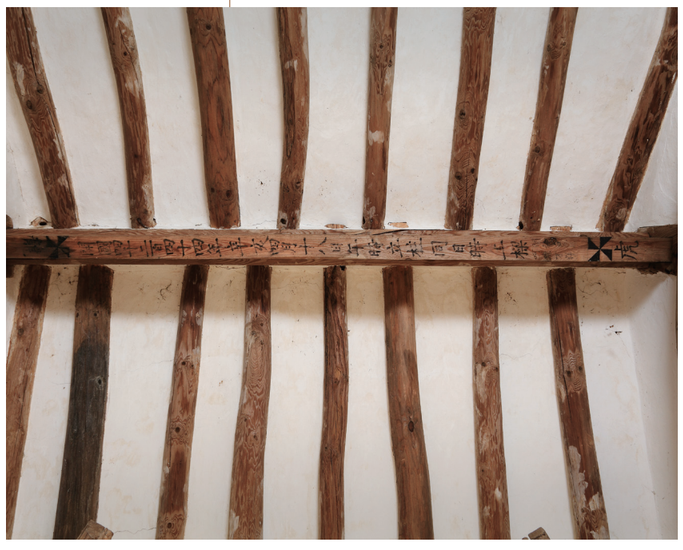
⑥ 기타 내용 상량문에는 공사에 참여한 목수의 이름을 적기도 한다. 채원병 씨 가옥 안채 상량문에는 '경신목경진금경인목경진금(庚申木庚辰金庚寅木庚辰金)'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오행이나 집이 영원히 존속하라는 경신신앙(庚申信仰)의 의미로 해석된다.

의의 상량제는 전통사회의 건축 조영 과정에서 텃고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공정이자 제의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종도리가 올려지는 순간인 상량 때 목조 건물의 구조체가 완성되면서 집도 다 지어지고 동시에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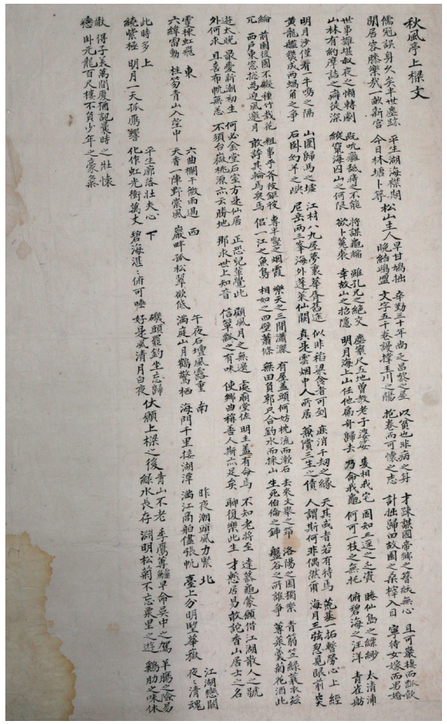
* 본래 '龜'는 '땅이름 구, 거북 귀, 터질 균'으로 뜻과 음이 각각이다. 여기서는 '거북'이란 의미로 쓰였으므로 그 독음이 마땅히 '귀'여야 하겠지만, 민가에서는 흔히 '구'로 읽으므로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에 따라 '구'로 음을 통일함을 밝혀둔다.

| | | | | | |
|---|---|---|---|---|---|
| 海 | 海 | 戊午木 | | 風 | 風 |
| 龍 | 訣 | 壬戌金<br>丙午火 | 歲在戊午九月二十二日丙午午時立柱仝日亥時上樑 | 虎 | |
| 海 | 海 | 己亥土 | | 風 | 風 |

허삼돌 씨 가옥 사랑채 상량문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달성 삼가헌(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대문간채 상량문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2008.10.13 서헌강



추풍정상량문
국립민속박물관

주가 탄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집의 생일(生日)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길일을 택하고, 집을 짓는 과정을 그 공정에 맞게 진행하였다. 상량을 통해 집이 지어지고 가옥 생일인 상량시가 정해지면 집도 마치 사람처럼 태어난 날, 즉 연월일시 사주(四柱)가 생긴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는 상량을 통해 집은 물론 가족의 운명 또한 좌우된다고 믿어서 상량제와 상량문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 상량문은 그 속에 담긴 재액방지문자나 기원문을 통해 가옥 건축 과정에서 집이 사람만의 정주처(定住處)가 아니라 성주신을 비롯한 여러 가신의 정주처이기도 하다는 인식 체계를 보여준다. 오늘날 남아 있는 여러 상량문 문서나 묵서형 상량문은 전통사회에서 상량제와 상량문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긴 글로 된 상량문의 건축 내력과 동기, 대지 형국(形局)은 집과 집을 둘러싼 당시 사람들의 인식 체계를 보여준다. 또한 마지막에 적힌 기원문을 통해 가옥 주인과 주변 사람들의 소원을 짐작할 수 있다.

짧은 글로 된 상량문의 상량시는 건축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며, 가주 생년과 상량시는 집을 지을 당시의 건립 동기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물문자를 이용한 재액방지문자나 연호 표기 방식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식 체계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大漢和辭典**(諸橋轍次, 昭和43年), **宣祖實錄**, **林下筆記**, **경기도 민가 상량문 고찰**(기량, 생활문물연구 9, 국립민속박물관 2003), **경기도민속지 4**(경기도박물관, 2001), **상량문집**(이정섭 역, 문화재관리국, 1991), **중 · 한 · 일, 세 나라의 주거민속연구**(김광언, 민속학연구 7,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고건물상량기문집**(고고미술동인회, 1964),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기량(奇亮)**

## 상량제(上樑祭)

상호참조 상량문(287쪽), 성주(307쪽)

**정의**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최상부 부재인 종도리(마룻대, 마룻도리)를 올리며 축원하는 제의.

**역사** 집을 완성하고 나서 이를 성화시키고 축원하는 의식은 상고시대부터 토속신앙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상량제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문헌에는 다수의 상량문이 나타나고 상량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의식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상량문은 보통 노동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랑위(兒郞偉)'라는 어구로 시작한다. 아랑은 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상량문에서는 도목수가 장인들을 싸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이다. 이를 보아 목수들이 주관하는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건축의 의의와 배경, 건축과정, 형상, 축원 등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제의에 따라 형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박윤영이 누문 상량제에 향탄 바치는 것을 궐하였다."라고 사헌부에서 죄를 청하는 내용을 보면 의례가 규범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건축에 이르기까지 상량제가 널리 보편화되면서 그 의식 절차는 간소화, 지역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량문도 개기나 상량의 시기, 건물의 좌향, 기타 재난을 피하고 복을 비는 내용으로 간소화된다. 의례 형식도 경제력이나 지역의 관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용** 상량(上樑)은 전통목 구조에서 종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를 말한다. 종도리는 목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주요 구조재로서, 종도리를 설치하면 건물의 구조체가 완성된 것으로 여긴다. 상량제는 종도리를 설치하면서 구조체의 완성을 축하하고 축원하는 의식이다. 가정신앙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은 거주자를 위한 소우주로서 신격화되었으며, 건축과정은 집이 신격체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상량은 구조체의 완성인 동시에 성주신의 탄생으로 이해되었다.

상량제는 미리 택일을 받은 날에 시행된다. 의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상량문이 작성된다. 상량문의 앞뒤에는 구(龜)와 용(龍), 또는 청룡과 백호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때 거북과 용은 수신(水神)으로서 화재를 피하는 의미로 설명된다. '강태공이 만든 곳(姜太公造作處)'이라는 글귀를 넣기도 한다. 강태공은 700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700년을 부귀하게 살았다는 전설상의 인물로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늘의 해, 달, 별님은 감응하시어 인간의 오복을 내려 주소서(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라는 축원문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물이 신의 가호로 축성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큰 건물에서는 공사에 참여한 도목수의 이름까지 기록되기도 한다. 상량을 성주의 탄생으로 본다면 목수들은 그 출산을 도와준 산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상량문은 마룻대나 마룻대를 받치는 장혀에 먹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큰 건물에서는 장혀에 구멍을 파내어 한지에 쓴 상량문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상량문은 성주신의 호적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상량문에는 살림채의 좌향과 상량의 시기, 축원문이 기록된다. 상량문에 기록되는 상량의 시기에는 인격체의 사주와 같은 의미가 있다. 사람이 탄생한 해와 달, 일, 시가 그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듯이 상량의 시기로서 이루어진 성주의 사주는 그의 운명을 예시하며, 가족과 가문으로서의 집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량문에는 사람의 호적처럼 그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고 사주(四柱)가 명기되며, '그'의 앞날이 무궁히 발전하라는 축원이 담긴다. 말하자면 상량일은 인격체로서 성주의 탄생일이며, 상량제는 탄생에 대한 통과의례적 성격을 띤다.

의례는 대략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제물을 진설하고 배례를 드리는 과정과 마룻대를 설치하기 전에 유희로서 상량채를 걷는 과정, 마룻대를 설치하면서 축원이나 점복하는 과정이다. 제물의 내용이나 양은 주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제상 앞에는 마룻대를 놓고 이를 향해 배례한다. 대목들은 마룻대에 성주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마룻대는 무명천으로 양쪽을 묶어 지붕 위로 올린다. 대공 좌우 양쪽에 올라앉은 목수 두 사람이 무명 끈을 나누어 쥐고 들어 올린다. 마룻대를 제자리에 설치하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상량하였소."라고 외친다.

의식이 끝나면 사용된 제물이나 돈은 건축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풍부한 부수입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목들은 상량고사를 "목수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량은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다.

**지역사례** 상량제(또는 상량고사)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제물의 종류는 건축주의 경제력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충청도 내륙지방에서는 술이나 대추, 곶감, 배 등 보편적인 제수 외에 팥죽이 반드시 포함되고 경기도에서는 시루떡이 놓이는 것처럼 지역적 차이도 있다. 제상 앞에 마룻대를 놓고 집주인이 잔을 올리며 배례하는 의식은 거의 유사하다. 집이 완성될 때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집을 짓고 나서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 달라는 축원을 올리며 집의 네 귀퉁이에 술을 조금씩 붓는다. 친척이나 축하객들도 절을 올리며 제상 위에 돈을 낸다. 대목들은 마룻대에 상량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마룻대가 제자리에 설치됨으로써 성주신으로 변한다고 한다.

고사가 끝나면 내륙에서는 주인을 마룻대에 태우고 흔드는, 이른바 그네 태우기로 주인과 축하객들에게 상량채(上梁債)를 요구한다. 마룻대에 포 한 필로 양 끝을 묶어 보에 걸고 세 척 정도 들어 올려 그네를 만든다. 그네를 매는 포 역시 경제력에 따라 광목이나

백목, 베 등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대목들은 집주인이나 하객들을 그네에 태우고 부귀공명이나 자손번창을 축원하는 덕담으로 상량채를 요구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그네 태우기 없이 마룻대를 올리면서 돈을 걷는다고 한다. 마룻대에 걸터앉은 목수는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상량채를 요구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축원이나 덕담으로 집주인의 발전과 복을 빌어 준다. 마룻대를 설치한 뒤 노끈으로 코를 꿴 장닭을 올린다. 닭이 마룻대 위로 올라오면 목수는 "아무날 아무 시에 상량 하였소"라고 외치고 나서 자귀로 닭의 목을 친다. 마룻대를 설치한 뒤 그 위에서 닭의 목을 쳐서 닭목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동쪽으로 떨어지면 부자가 되고, 남쪽은 장수하며, 서쪽은 가난해지고, 북쪽은 단명한다고 한다.

영남지방의 목수들은 상량제를 "성주를 맨다"라고 말한다. 성주는 한지를 세 번 접어서 명주실로 묶은 것으로 건물 중앙에 있는 대공에 맨다. 지역에 따라서는 베 헝겊이나 쌀이 담긴 단지를 성주로 모시기도 한다. 성주의 위치도 대들보, 기둥 상부 등 집안의 높은 곳이거나 대청 또는 안방과 같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전남 거금도에서는 입택 후에 상량 일 주년 되는 날 성주 생일제를 지낸다고 한다. 마루의 성주동이 앞에 제상을 차리고 주인이 삼배(三拜)한 다음 목수와 토역 등 건축에 관여한 사람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눈다. 말하자면 성주신의 돌잔치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집의 사회사**(강영환, 응진출판, 1992),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진보제, 198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 상문풀기

**정의** 상사로 일어난 부정을 풀어내는 의례. 상갓집에 다녀오고 나서 몸이 아프면 '상문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의례이다. 민간요법과 무속의례가 있다.

**내용** 상가에 다녀와 상문이 들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 이때에는 약을 먹어도 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상문풀기를 해야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상문이 몸 앞쪽으로 오거나 가슴으로 파고들면 죽는다고 믿어 무서워한다. 민간요법으로 풀기도 하지만 상문이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당이나 경객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민간요법은 축귀와 죽음을 모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김치와 쌀로 죽을 쑤어 손 없는 방향으로 내던진다. 그리고 칼을 던지며, 이때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귀신이 나간 것으로 여긴다. "이거 먹고 퇴청하라"라고 외치고 칼을 멀리 던진다.

또는 팥을 맷돌에 타서 쌀을 한 움큼 넣고 죽을 쑤어 성주와 아픈 사람 머리맡에 한 그릇씩 퍼다 놓는다. 손 없는 쪽으로 세 걸음을 걸어 나가 칼을 던지면서 "물 좋고 경치 좋은 데로 썩 물러가라. 안 가면 옥추경을 읽을 것이다."라고 소리친 뒤 머리맡에 둔 팥죽은 끼얹고 성주에 놓은 팥죽은 환자에게 먹인다.

죽음을 모의하여 상문을 제거할 때는 상문이 든 사람을 마당에 내놓고 거적으로 둘러서 각성바지 세 사람이 달구질 소리를 세 번씩 낸다. 상문이 든 사람은 나간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앞문으로 나갔으면 뒷문으로 들어온다. 이로써 상문이 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상문은 나간다.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지역에서 무당이 상문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곡 볶은 것, 북어 세 마리, 날고기(쇠고기나 돼지고기), 계란 세 개, 아픈 사람의 속옷, 오색천, 소창 한 자, 베 한 자, 잡밥 등을 준비한다. 상문을 풀 때는 꼭 날고기가 필요하다. 날고기를 북어 세 마리의 입에 물리고 계란 세 개에는 아픈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쓰면서 '대수대명'이라고 적는다. 원래 산 닭을 사서 파묻어야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계란을 대신 쓰는 것이다. 잡밥은 아픈 사람의 나이대로 숟가락으로 떠서 밥을 하고, 이 밥에 막걸리 한 병과 엿기름을 부은 것이다. 본격적인 상문풀기는 뒷전에서 한다. 마당에 차린 뒷전상에 밥 세 공기와 한 접시에 밥 세 무더기를 놓고 술 석 잔을 붓는다. 아픈 사람을 마당에 내다 놓고 천으로 두른 다음 잡밥을 끼얹고 칼로 둘러낸다. 그리고 북어로도 둘러낸 다음 계란을 깨뜨려서 오곡 볶은 것을 끼얹는다.

경기도 양주지역에서는 상가에 다녀오자마자 곧 병이 났을 때 군웅상문이 따라온 것으로 믿고, 퇴치 방법도 다르게 한다. 군웅은 이승에서 다 못 살고 죽은 한 많은 젊은 사람이 된다. 이때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서 살을 쳐내야 한다. 왼새끼를 꼬아서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살을 매어 화살을 일곱 개 내지 아홉 개 만든다. 군웅상문이 든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아 상문을 쳐낸다. 상문이 든 사람을 마당에 앉혀 놓고 오방기를 씌우고, 그 위에 베 무명 청색무색 속옷을 씌운다. 등 위로 조밥을 던져 쳐낸 뒤 활로 쏜다.

독경이 활발한 충북지역에서는 상문이 들면 경객을 부르거나 이를 잘 푸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 의례를 거리제라고도 한다. 청원지역에서는 쌀과 된장으로 죽을 쑤어 바가지에 담고 소금을 넣는다. 식칼로 아픈 사람의 머리카락을 빡빡 긁고 머리카락을 끊어서 바가지에 담고 침을 뱉는다. 이것을 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잡신이 붙었으니 물러가라."라고 진언하면서 "이것 실컷 먹고 나가라."라며 죽 쑨 것을 던지고 칼을 던진다. 칼끝이 밖으로 나가면 귀신이 나간 것이다. 집에 들어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서 들어온다.

서울이나 황해도 무당이 진오기굿을 할 때도 마지막에 상문을 푼다. 상주들과 임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문을 풀어 주는 것이다. 무당은 베 조각을 상주의 목에 묶듯이 걸고 칼을 머리 위에 휘두르면서 세 번 자른 뒤 칼산을 던진다.

상문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문은 누구나 다 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수가 나쁜 사람에게 든다고 믿는다. 또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믿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소금으로 부정을 가시는 것이다. 운세가 안 좋은 사람이 상가에 갈 때에는 문간에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간다.

운수가 좋지 않음에도 문상을 가야 하는 경우, 경기도 동두천지역에서는 '게장' 국물을 몸에 찍고 간다. 게장을 조금 먹거나 국물을 찍어 정수리에 바르고 가면 상문이 예방된다고 한다. 성남지역에서는 게장 안에 들어 있는 게 다리(집게발)를 싸서 보내기도 한다. 게의 집게발이 꽉 집는 성질이 있어 나쁜 기운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지역에서는 문상을 다녀온 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변소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뒷간에 들러 지붕 네 귀퉁이에서 짚을 빼내어 불을 피우고 그 불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소에 고추와 통후추를 세 개씩 변기 안에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추와 후추의 매운 맛이 잡귀를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상집에서 얻어온 음식이나 물건은 먼저 변소 지붕에 꽂아 두었다가 집 안으로 들인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황루시(黃縷詩)**

## 새알뜨기

표제어 용알뜨기(519쪽)

## 새옹

**정의** 산간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례용 제구. 적은 양의 밥이나 죽을 지을 때 사용하는 놋쇠로 만든 작은 솥이다. 일명 노구솥이라고도 한다. 어원은 사용, 새용 등에서 옛말로 표기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방언으로는 새용, 쇠용, 생우, 반짐이 등이 있다.

**형태** 새옹은 배가 부르지 않고 바닥이 편평하며 전(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과 뚜껑이 있다. 새옹은 일반 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닥과 배가 평편한 편이다. 즉 형태는 솥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말한다. 새옹은 대부분 놋쇠로 만들었으

며, 크기는 다양하다. 보통 쌀 반 되로 밥을 지을 수 있는 것과 한 되로 지을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모양도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테두리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산치성 등에서 많은 양의 메밥을 지어야 할 경우에는 작은 것을 이용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밥을 짓는다고 한다.

**내용** 새옹은 중요한 제물 가운데 하나인 메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특히 금기를 중요시하는 의례에서 새옹메를 짓는 경우가 많다. 밥을 지을 때 솥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제물로 바칠 때도 솥째 올린다. 새옹은 급하게 밥을 지을 경우 간편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산촌지역의 의례나 불교에서 사용하는데 밥을 지어서 솥째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원도 산간지역의 산제, 산멕이, 산치성, 서낭고사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산삼 같은 희귀한 약초를 캐는 일을 업으로 삼는 심마니들은 입산에 앞서 산신제를 지내면서 메를 지을 때 사용한다. 당제나 굿 등의 제사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새옹메를 지어 올리기도 한다. 새옹메는 부정을 염려하여 쌀을 씻을 때부터 손을 사용하지 않고 나뭇가지나 숟가락을 이용하며, 밥을 짓는 동안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새옹메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지내야 할 의례에 잘 맞고, 큰솥에 밥을 지어 그릇에 옮겨 담는 메보다 더욱 정성이 담긴 깨끗한 제물이라고 인식한다.

강원도 정선지역 고양산 산멕이에서는 새옹메를 지어서 제물로 바쳤다. 이때 새옹 대신 냄비를 사용했다. 노란색 새옹이 있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냄비를 사용한 것이다. 이 냄비는 물을 뜨는 바가지와 함께 산멕이에서만 사용하고 집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메를 지을 쌀은 새 부대에서 가져오며, 쌀을 씻을 때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나뭇가지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한다. 제당 근처의 샘에서 바가지로 물을 뜰 때도 바가지를 뒤집지 않고 세워서 떠 올리며, 그것으로 쌀을 세 번 씻는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밥을 짓는다. 밥은 다 되도록 절대로 열어보지 않는다. 뚜껑을 열면 잡신이 먼저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옹을 사용하지 않고 냄비를 사용하면서도 생우메(새옹메)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놋쇠로 만든 새옹이 그만큼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새옹의 유래를 설명하는 제보자
충북 음성군 병진리
2009.7.1
강성복

**지역사례** 강원도지역의 의례에서 새옹을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새옹메의 성격과 특징이 잘 드러난다. 삼척지역에서는 한밤중에 산속의 이름 있는 바위 앞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릴 때도 새옹메를 지어서 올린다. 이때 새옹메의 밥이 곤두서면 자손을 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월대보름날 서낭고사를 지낼 때 새옹메를 짓는다. 예전에는 놋그릇으로 된 새옹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공출로 빼앗겼다. 지금은 식기에다 쌀을 담아 새옹메를 지어서 가져간다.

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쌀, 초, 종이, 실, 술을 가져가서 새옹메를 지어 놓고 잔을 부은 다음 치성을 드린다. 산멕이는 산에 쌀을 가져가서 새옹메만 짓고 수저 하나를 꽂아 지낸다. 오월단옷날에는 서낭당 앞에서 깨끗한 물로 새옹메를 지어서 쓴다. 정월대보름날에는 집에서 지어 가지고 나간다. 이때도 메는 한 그릇이다. 정월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새옹메를 짓지 못하지만 오월 단오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정성껏 새옹메를 지어서 올린다.

삼척시 근덕면지역에서는 복날 저녁에 농사를 지을 때 벌레가 없도록 해 달라고 산에 올라가 고청제를 지낸다. 쌀과 새옹만 가지고 가서 메를 지어 제물로 바친다. 새옹에 밥을 할 때는 뚜껑을 열어서 보지 못하며, 숟가락을 대어 익은 정도를 짐작한다. 새옹에다 숟가락을 대어서 밥이 끓는 걸 보고 판단한다. 나중에 밥을 떠 보고 누런 게 없이 지어졌으면 제사를 잘 지낸 것으로 여긴다.

춘천지역에서는 삼월에 날을 받아 수리봉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린다. 이때 방아를 찧어 다섯 번을 쓸어 낸 쌀과 물을 갖고 산에 올라가 치성을 드렸다. 쌀을 일 때 쓰는 도구 세 개, 청초, 황초, 쌀을 담을 그릇 세 개, 쌀을 담아서 촛불을 밝힐 그릇, 밥물을 부을 바가지와 물바가지를 준비한다. 치성을 드리기 전날에는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우물을 파 놓는다. 다음날 부정을 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 첫새벽에 올라간다. 수리봉에 도착하기 전 중간쯤에 맑은 물로 부정을 가신다. 큰 바위 밑에서 메를 지어 올라가 촛불을 밝히고 네 번 절한 다음 소지를 올린다. 산신령, 칠성, 삼불부처 순으로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술이나 과일 등은 준비하지 않고 오직 노구메(새옹메)만 올린다. 가족의 건강과 집안 번창을 위해 정성을 들인다. 치성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메를 올리는 새옹으로는 놋그릇을 썼다. 이때 쓰는 그릇들은 일 년에 한 번 산에서 치성을 드릴 때만 쓴다.

**참고문헌** **삼척민속지** 1~7(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8), **우리의 부엌살림**(윤숙자 · 박록담, 삶과 꿈, 1999),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부엌**(김광언, 대원사, 1998), **한약자원식물**(김영희, 경춘사, 1998).

**필자** 김진순(金鎭順)

## 서낭신

상호참조 서낭제(300쪽)

**정의**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는 신. 서낭신은 마을 어귀의 노거수(老巨樹), 고갯마루의 돌무더기, 제당 등 마을에 따라 좌정한 곳이 다르다.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과 풍어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배에 서낭신을 모시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낭은 마을 간의 경계신, 풍요신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날을 잡거나 특정일에 서낭신이 좌정한 곳에서 서낭제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가정에서는 특정한 날은 물론 무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내용** 서낭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학자들은 음운변화 현상에 주목하여 산신인 '산왕(山王)'에서 유래한다는 설, 중국에서 들어온 '성황(城隍)'에서 유래한다는 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낭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지켜주는 가정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서낭신은 지역 및 성별 그리고 노소에 따라 서낭, 골매기서낭, 국사서낭, 진대서낭, 무진생서낭, 임자생서낭, 남서낭, 여서낭, 할아버지서낭, 할머니서낭, 각시서낭, 애기서낭이라고 한다. 신을 모신 장소와 형태에 따라 배서낭, 돌서낭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서낭신을 한 분만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서낭과 여서낭을 함께 모시는 곳도 있다.

서낭신의 신체(神體)는 돌무더기, 신수(神樹), 솟대, 위패, 화분(그림), 신석(神石), 한지, 통북어에 한지, 통북어에 실타래, 삼색천, 삼색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서낭신으로 호랑이, 뱀, 임경업 장군 등을 믿기도 한다.

마을제의가 대부분 유교식으로 진행되듯이 마을 서낭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가정에서 서낭제를 치를 때는 축문을 고하지 않는 등 동제보다 제의 절차가 간편하다. 제물 또한 간소하게 차려놓고 축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사례**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북, 충북 등에서는 가정과 마을에서 서낭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배에다 서낭신을 모시는 일은 전국적이다. 마을제의 막바지에는 서낭소지, 마을소지, 이장소지, 가축소지 등을 올린다. 이때 각 가정의 어른인 대주소지도 함께 올려 그 집의 안녕을 축원한다. 심지어 군대 간 마을 구성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는 소지도 올린다. 지역에 따라 마을제의의 제일, 절차, 제물 등이 다르듯이 가정에서 진행하는 서낭제 또한 차이가 있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서지마을에서는 정월 초정일(初丁日)에 서낭제를 지낸다. 이 마을의 김쌍기 씨 댁에서는 안택 때 별도로 서낭신을 받든다. 안택은 정월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안방에 모신 성주상 앞에서 먼저 부정을 치고 성주를 모신다. 그런 다음 뒤뜰에 나가서 오방지신을 모신 뒤 남자는 조왕을 모신다. 그 사이에 여자는 도장과 곳간에서 기원한다. 외양간에 가

서 군왕을 모신 뒤 한밤중에 서낭당에 가서 서낭을 모시면 안택의 모든 절차는 끝난다.

서낭에 갈 때는 성주시루에 있는 떡을 떼어내 한 쟁반에 담아 가져가며, 길게 깎은 한 면에 '서낭지신'이라고 쓴 나무를 땅에 꽂고 재배(再拜)한다. 서낭당에 가면 먼저 앞에 황토 일곱 무더기를 뿌린다. 서낭에서 놋쇠나 무쇠로 만든 작은 솥에 밥을 지어 솥째로 제단에 올리는 새옹메를 짓는다. 제물로는 생 쇠고기, 북어포, 생포, 삶은 계란, 감주, 수저 한 벌을 가져간다. 생고기를 쓰는 이유는 위하는 서낭이 호랑이이기 때문이다. 제물을 모두 진설하면 대주가 절한 뒤 소지를 올리고 폐백 종이를 서낭당에 걸어놓는다. 최근에는 서낭당에 가지 않고 사랑마당에서 망제사로 지낸다.

동해시 만우동에서는 서낭고사를 정월 초정일에 지낸다. 마을의 박형자 씨 댁에서는 주로 정월에 안택을 지낸다. 안택을 할 때는 먼저 서낭에 빈다. 서낭신이 동네 어른이기 때문이다. 서낭은 집 밖의 마당에서 모신다. 이때 상은 제사를 모실 때와 반대 방향으로 남쪽을 향해 놓는다. 제물로는 백시루, 메 한 그릇, 채소, 삼탕, 고기, 강정, 사과, 배, 곶감, 밤, 대추, 포를 올린다. 채소는 무채 하나만 쓴다. 제물을 진설한 뒤 먼저 부정을 물리친다. 부정은 바가지에 맑은 물을 붓고 그 안에 숯을 띄웠으나, 요즘은 숯 대신 성냥개비 3개를 반씩 태워 띄운다. 그런 다음에 "365일 험한 부정 걷어 두십시오."라고 하면서 상에 돌려서 붓는다. 이어 맑은 물을 바가지에 붓고 "365일 우리 가정이 이 물처럼 맑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뒤 다시 상에 돌려서 붓는다. 그리고 잔을 올린 뒤 절을 하며, 소지를 올리고 나서 다시 절을 하고 마친다. 서낭을 모신 뒤 안방에 들어와서 토지신과 성주를 함께 모신다. 이때 먼저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메만 두 그릇을 뜨고 떡은 시루의 것을 나누어서 접시 두 개에 담아 놓는다. 그 외 제물은 서낭신과 같다. 차례는 서낭신에게 하듯 상마다 부정을 걷어낸 뒤 잔을 올리고 모신다.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가서 용왕[조왕]을 모신다. 용왕상에는 채소, 메, 포, 떡, 채국을 비롯하여 술도 올린다. 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양구군 방산면 현리의 손윤수 씨 댁에서는 단옷날 아침에 취떡을 해서 서낭나무 앞에 가져가 둔다. 정선군 남면 무릉2리 싸리실마을에는 여서낭과 남서낭 두 서낭이 있었다. 지금은 남서낭만 남아 있다. 마을에서는 이 남서낭을 임자생서낭이라고 부른다. 임자생인 임씨를 서낭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이홍의 씨에 따르면 임자생서낭인 임씨는 원래 충북 충주에서 살면서 신통력으로 마을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이처럼 존경을 받으며 산 까닭에 마을 사람들이 서낭처럼 모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죽자 싸리실에 살던 자손들이 모시고와서 현재의 남서낭을 짓고 위한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기존의 여서낭과 같은 날에 서낭고사를 지냈다. 제의는 먼저 여서낭에서 지낸 다음 남서낭에서 지냈다. 제물은 따로 준비했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이 서낭에 와서 메를 한 그릇 지어놓고 정성을 들이면 금방 나았다고 한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서낭에 빌러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은 황씨가 개척하였으며, 예전에도 임씨가 마을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 여서낭은 관리하지 않아 허물어져 없어졌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에는 장학골고개 너머에 서낭당이 있다. 서낭당에는 당집이 없고 오래된 참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이 마을 주부들은 정월대보름 이전에 서낭에서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린다. 제물은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종이, 밥, 나물, 북어 등을 준비한다. 서낭에 도착하면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여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은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마을은 섬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떡을 쪄서 서낭제를 지낸다. 이곳은 서낭제를 지내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그때그때 마음에 닿는 곳에서 치성을 드린다. 제물로는 무나물, 청수, 삼실과 등을 마련한다. 늦은 밤에 치성을 드리는 까닭에 서낭제를 지낼 때면 식구가 동행한다. 정해 놓은 제장(祭場)에 이르면 짚을 깔고 제물을 올린다. 비손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돌며 재배를 하면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빈다. 치성을 드린 후 식구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며 소지를 올린다. 이때 서낭소지를 시작으로 집안의 어른부터 차례차례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은 그 자리에 조금씩 떼어두고 나머지는 가져와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1리 안말에는 광촌리로 가는 길목과 소계리로 가는 길목 두 곳에 서낭당이 있었다가 도로를 내기 위해 길을 닦는 과정에 없어졌다. 예전에 서낭당을 지날 때는 모두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돌이라도 하나 집어서 쌓고 갔다. 해마다 정월 열나흗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서낭에 와서 서낭제를 지냈다. 제물은 팥 시루떡, 밥, 탕, 삼실과, 나물 등이었다. 제물이 준비되면 저녁을 먹고 나서 인기척이 없을 때 서낭당으로 간다. 서낭당 앞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진설한 다음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동서남북으로 두 번씩 또는 세 번씩 절을 한다. 그리고 소지를 올린다. 이때 서낭소지를 먼저 올리고 나서 식구소지를 차례로 올린다. 치성이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두고 돌아온다.




**임자생서낭**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2리 싸리실마을
2009.3.1
이영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샛뿔마을에서는 배를 처음 구입하면 배서낭을 모신다. 서낭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양옥길 씨의 경우 한지 두 장을 접어서 배 방장에 걸어두었다. 이를 '서낭님 옷'이라고 여기며 배를 구입한 후부터 걸어둔다. 이 신체는 매년 다시 갈아주거나 처음 것을 그대로 두기도 한다. 고깃배에는 한지에 북어를 묶어 서낭으로 모시기도 한다. 배서낭을 위하여 지내는 고사를 '배고사', '서낭님 고사', '배서낭 고사'라고도 한다. 고사는 선주의 성의로 한 달에 한두 번 날을 잡아 지낸다. 고사의 목적은 풍어, 사업 번창, 선원의 무사 평온이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에서는 섣달그믐날 배에 기를 꽂고 배고사를 지낸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떡, 나물, 술, 과일 등을 차린다. 배서낭의 신격에 따라 제물은 달라진다. 뱀신인 진대서낭을 모신 경우에는 돼지머리를 올리지만 각시서낭을 모신 경우에는 돼지머리를 쓰지 않는다. 배서낭은 보통 선주의 선몽에 의해 판별된다. 배서낭 가운데 각시서낭이 가장 얌전하고 까다롭지 않은 신이라고 한다. 각시서낭 앞에는 여자 화장품이나 여자 옷을 놓는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조업에 큰 문제가 있어서 고기가 안 잡히면 나무로 남근을 깎아서 각시서낭 앞에 놓고 고기가 잘 잡히게 해달라고 빈다. 새해 첫 출어를 할 때도 배고사를 지낸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6리 용주리는 어촌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월 초하룻날 배에 기를 꽂고 음식을 차려놓는다. 초사흘이나 초아흐렛날에는 바다에 배만 띄우고 서낭고사를 지낸다. 이날에는 뱃기를 모두 꺼내어 달아매고 서낭고사를 지낸다. 배서낭의 성별은 서낭을 받을 때 선주의 꿈에 나타난다. 실 한 타래로 북어 한 마리를 서낭 위하는 자리에 미리 묶어놓으면 그날 저녁 선주의 꿈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의 성별을 보아 서낭의 성별을 판단한다. 즉 여자가 나타나면 여서낭이고 남자가 나타나면 남서낭이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4리 대무마을의 임동원 씨 댁에서는 배서낭을 모신다. 배서낭은 처음 배를 진수할 때 모신다. 배 안쪽인 이물 밑에 선반을 만들어 거기에 삼색실 한 타래씩 모두 세 타래와 삼색 헝겊을 백지로 싸서 모셔둔다. 서낭고사를 지낼 때 걸어두는 오색기도 접어서 함께 둔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하옹마을의 배서낭 신격으로는 각시서낭, 애기서낭, 임경업 장군 등이 있다. 백남철 씨는 과거에 상선(商船)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 모신 배서낭은 임경업 장군이었다. 배서낭은 선장실에 모신다. 평소에는 당함 안에 넣어둔다. 당함 안에는 배를 만들 때 목수들이 글을 써 준 종이가 함께 있다. 배서낭은 평소에 따로 모시지 않지만 배고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위한다.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배서낭은 배를 산 사람에게 그대로 따라간다.

현재 가정신앙 대상으로서의 서낭신은 마을제의의 서낭신에 비하면 전승이 활발하지 않다. 고갯마루

의 돌무더기에 돌을 하나 던져놓고 침을 세 번 뱉으며 기원하던 서낭 또한 흔치 않다. 이는 사람들이 고갯마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서낭 신격은 진대서낭, 각시서낭, 애기서낭, 임경업 장군 등과 같이 농촌지역의 서낭신 신격보다 다양하고 더 구체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배서낭을 모시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다른 배서낭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의 변화에는 무속인의 영향력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서낭당**(이종철 · 박호원, 대원사, 1994),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의 세시풍속 1**(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세시풍속 2**(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보고서–상 · 하**(국립민속박물관, 2007), **횡성의 서낭당**(이영식, 횡성문화원, 2008).

**필자** **이영식(李英植)**



**돌서낭 서낭제**
대전시 동구 대청동
바깥아감, 1999.1.14(음)
강성북

## 서낭제

상호참조 서낭신(297쪽)

**정의** 고갯마루나 마을 어귀에 좌정한 서낭신을 대상으로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는 제의. 좁은 의미에서 서낭제는 매년 음력 정월이나 특정 기일(期日)에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행인들이 평소 서낭당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베푸는 일련의 주술적인 행위와 속신을 포함한다.

**역사** 서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중부지방에서는 대체로 서낭이란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위시하여 인접한 경북 · 충북 산간지역에서는 '서낭'과 '성황'이 혼효되어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서낭제(성황제)의 축문, 당집에 봉안된 위패, 옛 문헌에는 성황(城隍) · 선왕(仙王)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천왕당, 국시당, 국사서낭, 서낭산신, 골매기성황(서황), 서낭탑 등의 명칭도 산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낭의 고유한 명칭이라기보다 서낭신앙이 산신, 국사신, 골매기, 탑 등과 습합되면서 파생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서낭이란 어원은 분명치 않다. 다만 '서낭'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이고, '성황'은 중국에서 전래된 이름으로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서낭신앙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돌무더기의 형태와 명칭에 주목하여 고대인들의 원시경계표에서 발생했다는 설을 비롯해 석전(石戰)설, 몽골의 오보 전래설, 중국 성황의 유입설, 강태공의 처 마씨(馬氏)를 위해 만든 돌무덤이 서낭당이 되었다는 민간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정설은 없는 형편이다.

한편 서낭당과 유사한 돌무더기신앙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기원전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원시신앙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목과 돌무더기를 기본으로 하는 서낭당은 고대의 수목숭배 및 누석신앙(累石信仰)과 그 기원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날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낭제는 조선시대 후기 민간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산물로 이해된다.

서낭당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히 소멸의 과정을 겪어 왔다. 특히 새로운 길을 내고 좁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무수한 서낭당 돌무더기는 헐리고 신목은 베어졌다. 이로 인해 가정신앙 범주의 서낭제는 대부분 소멸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형태** 서낭당은 신목(神木)으로 치성을 받는 서낭나무와 잡석 형태의 돌무더기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신목과 돌무더기의 결합은 충남을 위시한 중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서낭당 형태이다. 여기에서 돌무더기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행인들이 던져 놓은 돌이 쌓여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서낭당에 대한 제의 역시 동제로 치성을 받기보다 가정신앙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유로 중부지방의 서낭당은 으레 마을마다 몇 개의 서낭이 복수로 존재하였다. 한 예로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에는 지난날 마을 주변에 여덟 개의 서낭당이 있었다. 이른바 사룡동 서낭, 보신이골 서낭, 무재 서낭, 신하고개 서낭, 굴티고개 서낭, 멍덕고개 서낭, 짝바우 서낭, 묘재 서낭이다. 이들 서낭은 한결같이 해묵은 신목과 돌무더기가 짝을 이루고 있었다. 이로써 외부로 통하는 고개와 길목마다 빠짐없이 서낭신을 좌정시켜 경계표로 삼은 셈이다.

서낭당의 형태와 서낭제는 전승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다. 강원도 및 충북 · 경북 산간지역에서 동제로 전승되는 서낭제(성황제)가 좋은 예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낭당의 형태도 신목과 더불어 당집형 제당(祭堂)이 등장하고 있다. 당의 내부에는 서낭신[城隍神]의 위패나 초상 또는 철마 따위가 봉안되기도 한다. 특히 강원도지역에서 나타나는 당집형 서낭당은 성황신위를 주벽으로 모시고 그 좌우에 여역지신(癘疫之神)과 토지지신(土地之神)의 위패를 함께 봉안한 곳이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 · 충북 산간지역의 서낭은 중부지방과는 달리 자연촌 단위의 '마을 서낭당'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까지 화전촌이던 충북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에는 자연마을별로 다섯 개의 서낭당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음력 7월 초에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을 택하여 대동으로 산제를 지내지만, 서낭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자연마을 단위로 각 서낭당에서 베풀어진다. 또 그해 집안에 액운이 든 사람은 정월대보름 이전에 길일을 택하여 개별적으로 서낭제를 지낸다.

이와 같이 서낭당과 서낭제는 지역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지만, 서낭신앙의 흔적이 거의 포착되지 않는 곳도 있다. 당산제가 주류를 이루는 호남지역에서는 마을 차원은 물론 개별적으로 서낭제를 지내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낭당이 존재하는 마을도 드물 뿐만 아니라 서낭신의 관념 역시 희미하다. 그 대신 전북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과 전라남도 곡성 등지를 중심으로 서낭당과 차별되는 신앙 대상물로 풍수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된 탑(조탑)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내용** 서낭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서낭을 위하는 가정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치성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낭당을 지나는 행인들이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거나 기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의례를 베푸는 경우이다. 전자는 주로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서낭제(서낭고사)가 그 중심에 있다면, 후자는 서낭당에 얽힌 다양한 속신이나 금기, 민간전설에 따른 주술적인 행위가 주류를 이룬다.

충청도지역에서 전승되는 서낭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정초의 말날[午日]에 거행된다. 말날



**서낭나무에 바친 폐백**
충남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2001.1.15(음), 강성북

에 서낭을 위하는 까닭은 서낭신의 직성(直星)이 말[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낭제의 과정은 비교적 단출한 편이다. 서낭을 위하는 집에서는 당일 아침 대문 앞에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편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서낭당으로 나가 열십자로 짚을 깔고 그 위에 떡, 나물, 메, 통북어, 과일 등을 진설하여 고사를 지낸다. 그다음 동서남북 사방에 절을 올리고 나서 고사덕담으로 서낭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대주부터 차례로 가족의 소지를 불사르며 새해의 소망을 축원해 준다. 간혹 정초에 신수점을 보아서 삼재(三災)가 끼었거나 죽을 운이 든 가족이 있으면 '삼재뱅이'나 '홍수[橫手]매기'를 겸하여 서낭제를 지낸다. 이때에는 무당을 따로 불러 액(厄)을 풀어 주는 부정풀이를 하기도 한다. 또 횡수가 있는 아이의 동정을 떼어내 서낭나무에 불태우거나 그 자리에서 불살라 없앤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는 안택과 산신제를 마친 뒤에 개별적으로 서낭을 모신다. 이때 서낭제를 주관하는 주체는 남성인 대주이다. 대주는 산제당에 다녀온 뒤 집에서 미리 지어놓은 메를 가지고 혼자 서낭당에 간다. 서낭당에 도착하면 문종이를 접어서 당집 안에 폐백으로 걸고 제를 지낸다. 마을의 서낭당에는 숱한 사람들이 와서 과일이나 술을 붓고 절하면서 치성을 드린다. 이뿐만 아니라 간혹 외지에서 와서 치성을 드리며, 마을에서 살다가 이사한 주민들의 후손들도 서낭당에 온다. 서낭을 위하는 시기는 보통 봄과 가을 두 차례이다. 봄에는 삼짇날, 가을에는 중구일(음력 9월 9일)로 날을 정해 놓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낭당에는 어물과 메만 가져가고 술은 올리지 않는다. 또한 소지는 올리지 않고 단지 비손만 한다.

원주지역에서는 집안의 가족 가운데 위독한 환자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 이때 "서낭이 노해서 병을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처방으로 서낭에 가서 고사를 지내라고 일러주면 환자의 부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서낭제를 지낸다. 삼척지역에서는 안택(安宅)을 하기 전에 집안의 대주가 먼저 마을의 서낭당으로 올라가서 치성을 드리고 내려온다. 또는 서낭당을 향해 절을 하고 나서 안택을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는 서낭나무로 위함을 받는 '할아버지서낭'과 '할머니서낭'이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칠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룻날 각각 서낭고사를 지낸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서낭을 위하는 몇몇 가정에서는 정월 초삼일에 할아버지서낭에 고사를 지낸다. 이 가정에서는 당일 새벽에 팥 시루떡과 북어, 술 등을 가져가서 서낭나무에 정성을 들인다. 이를 정월고사라고 한다. 정월고사는 서낭나무 아래에 떡시루와 제물을 진설한 다음 헌작하고 삼배를 올린다. 할아버지서낭은 인근의 만신들이 영험굿을 하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다. 그러나 큰 무당들이 들어왔다가도 "말문이 막혀 못 불러 먹고 나갔다."라는 속설이 전한다. 이는 서낭님의 영검에 눌려 무당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돈을 벌지 못했다는 뜻이다.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는 1960년대까지 '송파서낭당'과 '논배서낭당' 두 곳이 있었다. 서낭당에는 커다란 나무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정월대보름날 각 가정의 주부는 서낭당으로 간다. 제물은 밥 세 그릇, 무나물 세 그릇을 준비하여 제단에 진설하고 고사덕담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수를 기원하였다. 비손이 끝나면 제물은 서낭당에 엎어 놓고 돌아온다. 또 예전에 메주를 띄울 때 가늘고 긴 곰팡이가 나오면 이를 먹지 않고 서낭당에 놓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

한편 서낭제를 지낼 때는 제물 외에 서낭신을 위하여 별도의 폐백이 준비되기도 한다. 폐백으로 짚신, 동전, 철마, 현납속, 오곡주머니, 길지, 실타래 등이 있다. 짚신은 흔히 '고개의 신', '경계의 신', '거리의 신' 등으로 인식되는 서낭신이 신고 다닐 신발이고 동전은 노자인 셈이다. 오곡주머니는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이며, 실타래는 가족의 수명장수를 비는 것이다. 현납속(縣納俗)은 오색천이나 비단조각, 길지 따위를 서낭목이나 돌무더기에 걸어 두는 풍습을 일컫는다. 이는 서낭신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공헌물이다.

서낭당에 쇠말[鐵馬]이나 사기마 · 옹기마 등이 안치된 것은 서낭신의 신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즉 서낭신의 직성이 말이므로 그 신승물(神乘物)로서 쇠말 따위를 바치는 것이다. 이처럼 서낭신을 위한 공헌물로 쇠말 등을 바치는 사례는 강원도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충남 일부 마을에서도 말이 안치된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결국 서낭당에 바치는 폐백은 서낭신을 잘 위함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가정에서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평소 서낭당을 왕래하는 길손들에게 여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징물이 된다.

서낭당에 수반되는 금기와 속신은 서낭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를테면 예전에 신부를 태운 가마가 서낭당을 지날 때는 반드시 간단한 고사를 지내거나 동전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티가 나서 가마가 뒤집어지거나 혼례를 치를 신부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상여와 같이 부정한 대상은 서낭당 앞을 지나지 못하도록 한다. 역시 이를 무시하면 마을에 궂은일이 발생하거나 상여를 멘 담여꾼들이 주당살을 맞아 시름시름 앓아 눕는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말을 타고 가는 벼슬아치도 서낭당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 길을 갈 정도로 서낭신에 대한 믿음은 민간신앙의 기저에 광범위하게 녹아 있다.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는 마을 북쪽에 서낭당이 있다. 예전에는 서낭당을 매우 경외시하여 상여가 지나갈 수 없음은 물론 혼인을 하는 새색시와 신랑은 지름길인 서낭고개를 피해 먼 길로 돌아갔다. 또 아이가 서낭고개를 넘으면 동티가 나서 앓아 눕는다고 하여 가능한 한 접근하기를 꺼렸다.

예산군 광시면에는 마살티란 고개가 있다. 이곳의 서낭은 매우 엄해서 옛날에 그 앞을 지나가려면 저절로 말이 멈추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고관대작이 탄 말이라 하더라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재를 넘어 갔다. 그런데 임진왜란 무렵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박홍이란 장군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마살티를 지날 때 갑자기 말이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장군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말의 두 다리를 찢어서 죽였다. 또 홧김에 서낭당 돌무더기를 파헤쳤다. 그러자 파헤쳐진 돌무더기에서 하얀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뒤로 서낭당은 없어지고 후세 사람들은 말이 살 처분된 고개라 하여 마살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지난날 서낭당에 대한 민간의 금기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여기에 등장하는 박홍(1534~1593) 장군은 임진왜란 때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실존인물이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장의 위세를 빌려 서낭신의 영검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해 유포된 전설일 뿐이다. 박홍 장군이 마살티와 인접한 마을에서 출생한 장수인 만큼 마살티에 얽힌 전설이 인구(人口)에 회자되면서 서낭당에 대한 외경심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마다 서낭당에 대한 속신과 금기는 다양하다. 비슷한 예로 "서낭당을 지나는 사람은 돌멩이 세 개를 얹어 놓고 절을 해야 아무런 탈이 없다."라든가 "서낭당 돌무더기에 돌을 던져서 꼭대기에 올라앉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등의 속신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술적인 의례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낭당을 지나면서 침을 세 번 뱉고 가는 속신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 이규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 도처의 고갯마루에는 서낭당[仙王堂]이 있다. (중략) 사당은 집을 지어 만들기도 하고 잔돌을 쌓기도 한다. 수풀의 고목 아래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사당으로 삼기도 한다. 행인은 반드시 이곳에 절을 하고 침을 뱉은 뒤 지나간다. 간혹 실을 걸어 놓기도 하고 종이를 군데군데 걸기도 한다.

이 기록에는 서낭당의 형태와 서낭신에 대한 습속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민간전설에 따르면 서낭당에 침을 뱉는 습속은 강태공의 처 마씨의 불쌍한 죽음을 위로하려는 행위로 구전된다. 이에 따르면 주나라의 강태공이 곤궁한 시절에 도를 닦느라 집안을 돌보지 않으매 그의 처 마씨가 집을 나간다. 세월은 흘러 고을의 수령으로 입신한 강태공이 처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씨가 다시 맺어지기를 청한다. 그러자 강태공은 물 한 사발을 땅에 엎지르면서 그릇에 담으면 허락하겠노라고 면박을 준다. 이에 마씨는 물은 없고 마음은 급하여 여러 사람의 침을 구하러 다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비탄에 잠겨 죽었다. 사람들이 여인의 죽음을 가엾게 여겨 시신을 돌로 덮어 무덤을 만들어 주니 서낭당이 되었다. 또 사발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마씨의 혼을 달래기 위해 무덤 곁을 지나는 행인들이 침을 세 번씩 뱉게 되었다는 게 그 요지이다.

서낭당의 유래담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전설은 후대에 형성된 견강부회(牽强附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전설이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서낭당에 침을 뱉는 행위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소진랑 전설〉과 〈등금장수(소금장수)

전설〉 역시 이와 연계된 대표적인 구전설화이다. 〈소진랑 전설〉은 〈성조본가(成造本歌)〉에 나오는 설화이다. 황우양이 천상(天上)의 공사로 출타한 사이 간악한 소진랑이 그의 처를 범하려다가 실패한다. 그러자 소진랑은 처를 가두고 갖은 고초를 다 준다. 마침 황우양이 돌아와 처를 되찾고 소진랑을 길가의 서낭신으로 만들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더러운 침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등금장수 전설〉은 옛날에 소금을 팔아 겨우 연명하던 소금장수가 딸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다가 몸이 곤해 쉬면서 딸과 죽은 곳이 서낭당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불쌍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대나무에 백지와 비단 등을 걸어 주었고, 등금장수 딸을 위로하기 위하여 추운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 주는 격으로 무덤에 돌을 얹어 주고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침을 세 번 뱉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五洲衍文長箋散稿,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누석단 · 신수 · 당집신앙 연구**(조지훈, 문리대논총, 고려대학교, 1963), **상여소리와 쑥불동화의 고장 봉현리**(강성복, 공주시, 2011), **서낭당**(이종철 · 박호원, 대원사, 1994),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민속원, 1998), **예산 동서 · 상중리-하**(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민속원, 2009), **제천시 화전촌 동제의 전승양상과 특징**(강성복, 충북학 9, 충북발전연구원, 2007),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탑신앙에 관한 연구**(강성복, 마을신앙, 민속원,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 석전·기우·안택(釋奠·祈雨·安宅)

**정의**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식민지 조선의 향토신사(鄕土神祀) 관련 자료집. 조선총독부는 전국에서 올라온 조사 보고를 토대로 1937년에 조선의 향토신사 제1부 『부락제(部落祭)』를 엮어내었다. 본서는 '부락제' 이외의 향토신사에 대한 조사 보고를 정리하여 이듬해 조선의 향토신사 제2부로 편찬한 것이다. 본서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관련 문헌자료들이 시대별과 지지별(地誌別)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역사**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중반에 식민지 조선의 전도(道) 각 부군(府郡)을 대상으로 향토신사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광역적인 조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서에는 1936년 5월 현재 각 도에서 올린 전국의 조사 보고가 망라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촉탁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정리했으며 1938년 3월 30일에 발행되었다.

**내용** 본서의 본론은 총 2편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전제나 기우제와 같은 '공동제(共同祭)'에 관한 기술이 1편의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제(個人祭)'에 관한 기술이 2편의 7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진다. 이 중에서 가정신앙과 관련한 것은 후자의 개인제로 유교식의 조상제사는 제외된다. 부연하면 가묘(家廟)나 사당, 묘지에서 거행되는 조상제사, 즉 예속(禮俗)으로 제도화한 조상제사 이외의 가정 단위 제사가 무라야마가 말하는 개인제이다.

이 개인제는 전국 191개 부군(府郡)에서 513개의 사례가 조사 ·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그 명칭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40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고사나 안택제와 같은 이른바 가신을 대상으로 한 '가신제류(家神祭類)'가 20종, 이 가신제류 이외의 개인제 중에서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행하는 '주요한 개인제'가 7종, 그 분포 범위가 넓지 않은 '기타 개인제'가 13종이다.

이 세 유형에 대해서는 제2편에서 서술되어 있다. 우선 7장 「개인제의 개관」에서는 개인제의 목적과 제신, 제주, 제장과 제물, 제의, 제기(祭期)와 제비(祭費)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8장 「가신제의 여러 가지」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신제류'를 두 가지로 나눈다. 즉 안택이나 고사와 같이 제의의 명칭에서 말미암은 것과 지신제, 성주제, 조왕제 등과 같이 제신의 명칭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전자가 여러 가신들을 제신으로 위하는 데 비해, 후자는 가신 중의 어떤 특정 신령을 주로 위하거나 독립적으로 위한다. 무라야마가 전자를 '총체제(總體祭)', 후자를 '개별제(個別祭)'라고 각각 부르는 까닭이다. 조사 보고된 전국의 가신제 자료 중에서 총체제가 약 82%, 개별제가 약 18%를 차지하며 전자의 대부분은 안택이나 고사로 불린다.

9장 「안택과 고사」에서는 가신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서술과 함께 총체제와 개별제의 보기들을 들고 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안택과 고사는 거의 동일한 제신들을 위한다. 제사 방식이나 제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양자를 동일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무라야마에 따르면 안택과 고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의의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고사가 가을걷이 후 가장 많이 치러지는 데 비해 안택은 춘정월에 가장 많이 행해진다. 게다가 고사가 정기적으로 행하며 수시로 혹은 임시로 거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안택은 수시 · 임시로 거행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 대개 주택의 신축이나 개축, 이전할 때 가내 불안이나 병환, 기타 재화(災禍)가 있을 때로 국한된다. 이를 거행하는 목적은 오로지 제액방재와 병마퇴치, 곧 액막이에 있다. 이 때문에 악귀나 병마 퇴치에 영험이 있다는 주역 서문이나 안택경의 독송(讀誦)이 안택제에서는 중요하다. 또 점세(占歲)로 그해 길흉화복을 점치는 연초에 제액을 주로 하는 안택제가 많이 거행된다. 요컨대 안택은 액막이[除厄]를 본디의 뜻으로 하는 가신제, 고사는 가신에게 햇곡을 바쳐 수확의 즐거움을 감사드리고 이듬해의 풍년과 안태를 기원하는 가신제이다.

10장의 「주요한 개인제」에서는 앞에서 본 가신제 이외의 가정 단위 제사 중에서 비교적 분포 범위가 넓은 개인제를 일곱 가지 서술하고, 보기를 몇 가지씩 들고 있다. 즉 용왕제와 풍신제, 농신제, 산신제, 성황제, 국사제, 제액제(除厄祭)이다. 이 '주요한 개인제' 중에서 수난(水難)을 면하고 집안사람의 호운을 기원하기 위한 용왕제가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 이어 풍해를 면하고 일가의 안태를 목적으로 하는 풍신제와 농작의 무재풍양(無災豊穰)을 바라는 농신제가 넓게 분포한다. 그다음으로 집안사람의 무병 및 기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신제, 성황제, 국사제가 뒤를 잇는다. 마지막으로 제액제는 안택처럼 가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신(厲神), 신장(神將), 국사천왕 등을 제사하여 역병의 제액을 바라는 행사이다.

11장의 「기타 개인제」에서는 개인제 중에서 한 지방에 국한되거나 제사가 아주 드물게, 대개의 경우 한두 건 보고된 경우를 서술하고 있다. 가령 단군의 탄생을 기리고 일가의 제액과 안태를 바라는 개인제로 함경도에만 존재하는 향산제(香山祭), 주로 사월초파일에 산간의 청결한 암석이나 석불을 위해 기자를 바라는 평안도의 성공제(誠貢祭) 등과 같은 행사이다. 이외에도 '기타 개인제'로 칠성제, 노신제(路神祭), 영산제(靈山祭), 백일기도, 목신제(木神祭), 석신제(石神祭), 마을제(馬乙祭), 미륵제, 군웅제(群雄祭), 일제(日祭), 독치성(獨致誠)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7~11장의 개인제 서술에 이어 각 도에서 조사 보고된 자료를 도표화한 「각 도의 개인제 개황」을 부록으로 덧붙인다. 그리고 본서 편찬 과정에서 강하게 인상을 받은 세 가지 점을 들어 「결어」를 갈음한다. 첫째는 개인제이건 공동제이건 제사의 목적이 한 개인의 제액초복보다 사회를 본위로 한다는 점이다. 곧 가신제의 대부분이 일가일족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것으로, 사회적 성질에서 벗어난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개인제의 대부분이 주부에 의해 주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들 향토제사의 형식과 내용 중에는 조선 고래의 문화도 존재하지만 일본 '내지'나 지나(支那), 만주에서 전래된 문화나 그 지역들과 공통적인 혹은 과거에 공통적이었던 문화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선 향토 제사상의 고유문화, 외래문화, 공통문화의 음미는 조선문화사 나아가 극동문화권을 고찰하는 데 적지 않은 문화적 공헌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조선의 문화발달 경향을 엿보아 장래의 조선 문화를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되고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끝으로 무라야마는 조선 향토제사의 장래를 전망하면서 '건전한' 전통 선도론(善導論)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조선의 향토제사 특히 가신제의 경우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원은 생활상의 의욕, 곧 보다 좋은 생활을 추구하는 바람에 있다. 이 생활의욕에서 출발하는 전통은 의욕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 달리 말하면 목적적 요소와 방법적 요소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표현적 또는 방법적 요소는 의욕이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손쉽게 개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반해 의욕적 또는 목적적 요소는 의욕을 포기하든지 목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변화의 여지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처럼 전통에는 변화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하며, 조선의 향토제사 역시 이러한 전통의 일반적 특징이 있다. 이런 까닭에 제사의 방식이나 행사 내용과 같은 표현적 요소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행사가 고루한 미신행위로 인식되는 오늘날, 적당한 지도(指導)를 펼친다면 오늘의 합리적 상식으로 긍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의 선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향토제사가 생활상의 목적과 의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쓸데없이 고루한 미신으로 배척하거나 탄압만을 일삼게 되면 많은 귀중한 문화를 포함하는 향토제사는 점차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다. 동시에 생활상의 의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점차 사라지거나 그 표현을 향토제사에서 추구하지 않고 한층 더 미신적 방면에서 찾으려 들 것이다.

요컨대 향토제사에서 엿볼 수 있는 생활의욕을 소멸시키거나 포기시키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가족의 안태를 바라고 자손의 번영을 구하는 것은 건전한 생활의욕이다. 또 생산의 풍양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온을 바라며, 나아가 고을이 합심하여 비를 구하는 것은 경제의 확보 내지 사회의 협동을 바라는 생활목적의 발현과 같다. 집안을 보호하고 마을과 고을을 사랑하고 경제를 확립하려는 의욕은 향토 생활자에게 가장 존중하고 조장해야 하는 건전 사상이다. 적당한 연구와 지도를 통해 향토제사를 활용한다면 결국 그것은 신생활을 펼쳐 나가는 데 기초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신생활 전개를 원활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무라야마는 전망하였다.

**의의** 본서를 비롯한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의 의의에 대해 한국의 민속학계에는 두 가지 평가가 있다. 하나는 식민지 조선의 지배를 위한 사정자료라는 정치적 목적과 식민지 행정기관을 활용한 강압적 조사, 비전문가에 의한 간접 조사와 현장성의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 민속 관련 자료가 태부족한 현실에서 전국적, 망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당시의 조선 민속을 포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후자 역시 활용에 앞서 철저한 자료 비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 제45집으로 출간된 본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 앞서 정치권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석전 · 기우 · 안택』에서 다룬 가정신앙의 정치권력성과 관련하여, 무라야마가 왜 가정 단위의 향토제사를 '가족제'라고 하지 않고 '개인제'로 명명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민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은 '개인-가족-향토-국가'라는 연계성이 있고 조선인은 가족 중심의 혈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연계 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제란 말 대신 개인제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고 결국 식민지 통치자의 입장에서 국민정신의 작흥에 방해가 되는 가족 중심의 혈연주의, 곧 조선의 가족주의 전통을 비판하기 위해 개인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 다른 견해에서 보면 무라야마가 말하는 '개인제'는 유교식의 조상제사를 제외한 가정 단위 제사를 이르며, 어디까지나 경학원의 석전제나 마을, 고을 단위의 기우제와 같은 '공동제'에 대비하여 명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개인제이건 공동제이건 제사의 목적이 한 개인의 제액초복보다 사회를 본위로 한다는 점을 무라야마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성의 강조는 1930년대 초반에 무라야마가 민간신앙 4부작에서 줄곧 강변한 조선의 가족주의 전통론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제가 1935년부터 본격화한 심전개발운동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심전개발운동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국체(國體) 관념을 명징(明徵)할 것,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과 신앙심을 함양할 것, 보은 · 감사 · 자립정신을 양성할 것 등이다.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이 1936년에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며, 그에 의한 단말마적인 조선인의 일본인화 공작이 이른바 내선일체로 상징되는 황민화정책이다. 무라야마의 조선 향토신사 2부작은 이러한 동화주의 정책의 문맥에서 읽을 때 비로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김희영, 일본문화학보 43, 일본문화학회, 2009),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주영하 · 임경택 · 남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남근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필자** **남근우(南根祐)**



## 선왕

표제어 배서낭(201쪽)

## 선왕제

표제어 출어고사(668쪽)

## 섬떡

상호참조 영등고사(477쪽)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식구들이 자신의 나이 수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떡을 빚고, 나이 수만큼 먹는 떡.

**내용** 섬떡은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뜻으로 음력 이월 초하루에 머슴이나 가족들이 나이 수대로 먹는 떡이다. 지역에 따라 나이떡, 나이송편, 노비송편, 머슴송편, 솔떡, 세병(歲餠), 수복병(壽福餠), 송병, 송엽병, 두지떡으로 부르기도 한다. 음력 이월 초하루는 나이떡을 먹는 날이기에 '나이떡날'이라고도 한다. 『경도잡지(京都雜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대보름에 세워 놓은 볏가릿대(화간, 禾竿)를 내려서 그 속에 넣어 둔 곡식으로 송편 같은 떡을 만들어 이월 초하루에 머슴들로 하여금 나이 수대로 먹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액을 막고 힘을 내라는 위로의 뜻과 가내무병, 소원성취, 만사형통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섬떡을 먹는 풍습은 전국에 고루 전해지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경북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에게 올리는 제물 가운데 떡을 가장 정성스럽게 장만한다. 이 떡을 섬떡이라 한다. 멥쌀과 찹쌀을 반반 섞어서 일반적인 절편보다 세 배 정도 크게 빚은 절편 모양의 쑥떡이다. 이 떡을 섬떡이라 부르는 이유는 작게 빚은 소를 떡 안에 여러 개 넣어서 만들기 때문이다. 섬떡에서 '섬'은 나락을 넣어두는 짚으로 짠 용기, 떡 안에 넣은 소는 곡식, 겉은 섬으로 여겨 이 섬 안에 곡식이 가득하라는 의미이다. 포항을 비롯한 일부 경북 바닷가 지역에서는 섬떡을 두지떡(뒤주떡)이라고 한다. '두지' 역시 섬처럼 곡식을 저장해두는 기구여서 두지에 곡식이 가득 차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강원도지역에서도 가족의 나이 수만큼 숟가락으로 흰쌀을 떠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 떡을 빚지 못할 경우에는 설날의 가래떡을 남겨두었다가 먹거나 경단처럼 빚어 먹기도 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노다리', 즉 노는 날이 마지막 간다 하여 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을 '머슴날' 또는 '나이떡날'이라고 한다. 떡쌀은 가족의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떠서 준비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조금씩 뜨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한 숟가락씩 수북하게 뜬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뜬 쌀 이외에는 떡쌀을 더하지 않는다. 나이떡은 반달 모양으로 빚은 송편이며, 소로는 팥을 넣었다. 떡이 크지는 않지만 노인들은 나이 수만큼 먹을 수 없었다. 이 떡은 고사떡이 아니므로 이웃과 나누어 먹지 않고 식구끼리만 먹었다. 이렇게 먹어야 일 년 내내 굶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경기민속지** 3(경기도박물관, 2000),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서울민속대관** 3(서울특별시, 1993), **한국 민속의 세계** 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세시풍속** 1(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이균옥(李均玉)**

## 성주(城主)

상호참조 상량문(287쪽), 상량제(292쪽), 성주고사(313쪽), 성주매기(317쪽), 성줏단지(319쪽), 성줏대(320쪽), 종이성주(619쪽)

**정의** 집을 짓고 지키며 집안의 모든 일이 잘되도록 관장하는 집안의 최고 신. 집을 짓거나 이사할 때, 대주 사망 후 새로운 대주가 생겨났을 때 탄생하는 등 대주와 운명을 함께 한다. 보편적으로 '성주(城主)', '성조(成造)', '성주신' 등으로 불린다.

**내용**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

성주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010.1.16
윤동환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2010.1.16
윤동환



충북 충주시 산척면 합천리, 2001.2.6
김태우

'성주'를 "가사를 조성한다는 뜻(蓋有成造家舍之意)"으로 보아 한자어 '成造'를 그대로 성주의 명칭으로 보고 그 직능을 '집을 짓는 신'으로 보았다. 조선시대 세시를 기록한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민가에서는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무당을 데려다가 성조신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차려 놓고 기도함으로써 집안을 편안히 하였다(人家以十月上月激巫迎成造之神 設餠果祈禱以安宅兆)."라고 하여 성주신을 '成造'로 기록하고 있다. 19세기의 기록인 난곡(蘭谷)의 『무당내력(巫堂來歷)』에도 "단군 시절에 매해 시월에 무녀로 하여금 가옥을 지은 것을 축하하도록 하였는데, 그 뜻은 인민이 그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함이다. 치성 시에는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 속칭 셩쥬푸리라고 한다."라고 하여 일반인들이 '성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과 성주신의 직능이 가옥을 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종교편(大倧敎編) 『신단실기(神檀實記)』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문헌들을 통해 민간에서는 성주신을 성주로 부르고, 기록은 '成造'로 하며, 그 직능은 '가옥을 조성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 준 성주신의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음력 시월에 성주신에게 제를 올린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성주굿에서 불리는 성주신에 대한 신화인 성주신가나 성주의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주신의 직능과 상통한다.

성주신에 관한 신화인 신가에는 성주신의 내력이 잘 나타난다. 〈성주신가〉에서 나오는 명칭은 셩조축원(成造祝願), 황제푸리(黃帝讚歌), 성주거리, 성주본가, 성주풀이, 성주축원, 성주굿, 마지뜨는 말[成造祝詞] 등이다. 성주신 명칭에 성주 · 황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황제'는 서울 · 경기 지방과 경상도 · 강원도의 동해안별신굿 무가에서 사용한다. 성주신이 황제라면 이것은 옥황상제의 준말이거나 현실세계의 황제로서 '집안의 제일 신'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 서울새남굿의 〈황제풀이 무가〉에 따르면 '가중황제'라는 말이 나와 집안의 제일 신인 성주신을 황제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성주왕신'이라는 용어를 통해 집안의 제일 신인 성주를 황제나 왕신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주신가〉는 크게 성주신의 본을 천상계로 보는 신가와 안동 제비원으로 보는 신가로 구분된다. 천상계 성주신가는 성주신의 내력을 본풀이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안동제비원본 성주신가는 성주신의 내력을 안동 제비원으로 간단히 밝히고 집 짓는 과정을 자세히 나열하는 형식이다. 이 두 가지 형식이 합쳐져서 성주신의 본풀이가 자세히 진행된 뒤에 집 짓는 과정이 상세히 나오는 신가도 있다.

본풀이 형태의 성주신가와 본풀이 형태 및 집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성주신가는 대부분 성주신의 본을 천신과 연결시킨다. 본풀이 형태의 성주신가에서 성주신의 본을 천계와 연결시켜 보면 성주신의 본은 천계로 볼 수 있다. 성주신의 본을 천계로 보는 성주신가는 경기도 일대와 경상도, 강원도지역에서 나타난다.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究)』에 실린 경기도 고양군 용인면 아현리(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성주본가〉에 따르면 성주님의 본은 천하궁, 지신님의 본은 지하국이다. 천하국땅 천대목신과 지하궁땅 지탈부인의 결혼으로 성주신(황우양 씨)은 탄생한다. 성주신은 천하궁이 본으로 천신계열, 지신은 지하국이 본으로 대지계열이다. 그러나 천하궁이 본인 성주신도 그 모계는 지신과 연결된다. 성주신은 나중에 거리 성황이 되는 소진랑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집을 완성한다. 그리고 황우양 씨 부부는 성주와 지신이 된다.

경기도 안성굿에서는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듸메오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러라/ 가지고 나오실 보물이 없어 솔씨 서말서되서홉을 받아내어 만조선 다 띄우고 석 되 서 홉 남었구나/ 동편서편 던져놓아 그 솔이 점점 자라날 적에/ 천하궁의 천대장군 지하궁의 하별왕씨 하우황을 낳다."라고 하여 성주 본을 먼저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으로 잡아 놓고, 다시 성주신의 탄생을 천계와 지계로 연결시킨다.



성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황헌만

성주신의 본을 안동 제비원과 연결시키는 대부분의 신가에서는 안동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 성주목이 될 소나무를 길러 그 나무를 베어와 집을 짓고, 온갖 세간치장 다 하는 과정이 상세히 나온다. 이를 통해 볼 때 성주의 본을 안동 제비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건축의 주요 재료인 소나무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나무의 탄생과 함께 성주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경북 안동시 인근의 산줄기인 태백산에서는 양질의 소나무가 많이 난다. 대표적인 것이 봉화지역의 춘양목이다. 또 제비는 〈흥부전〉에서 박씨를 물어다 주듯 솔씨를 각 가정에 가져다 뿌려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성주신은 새집을 짓거나 새로운 가장이 탄생하여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었을 때 탄생한다. 성주신을 받는 날짜는 대주의 생기복덕을 가려잡는다. 보통 1·3·5·7·9 홀수 해에 하지만 생기복덕을 가려봐서 아주 나쁘지 않으면 홀수나 짝수 해를 가리지 않고 하기도 한다. 대주의 나이가 서른일곱이면 초년 꽃성주, 쉰일곱이면 대성주, 육십하나이면 노성주라고 한다. 27세나 33세면 애기성주, 37세에서 57세까지는 대성주, 60세가 넘으면 남의 성주라고 하기도 한다. 대주와 성주가 운이 맞는지를 보는 과정은 '성주운보기'라고도 한다. 성주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다.

성주를 새로 모실 때는 성줏대를 만들어 여기에 성주신을 받아 집 안에 좌정시킨다. 성줏대는 흰 창호지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대에 붙여 만든다. 대는 늘 푸르다고 하여 대나무를 쓴다. 대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 열매도 나쁜 짐승들이 먹지 않는다 하여 참나무를 쓴다고 한다. 여기에 쌀을 넣은 종이봉투와 성주신을 상징하는 백지를 오려 붙여서 성줏대를 완성한다.

성줏대가 완성되면 백미 위에 세워두고 살아 있는 나무에서 성주신을 받아온다. 예전에는 뒷산의 소나무에서 받아왔지만 요즘은 집 마당의 과일나무에서 많이 받는다. 과일나무가 없으면 문간의 상기둥이나 곳간 등에서 받아오기도 한다. 허궁성주로 소지 한 장을 올리는 수도 있지만 절대로 남의 집에서는 성주를

**성주**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1리, 김명자



경북 문경시, 1999.8.15, 김명자

받아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주신을 받는 과정을 '대가림', '대갈림'이라고 한다. 이때 대잡이가 성주신을 받아와 대가 가서 붙는 자리에 신의 좌정처를 잡아 성주를 모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 집안의 성주신이 탄생한다. 대주가 사망하면 날을 잡아 새 성주신을 모신다. 새 성주신을 모실 때는 전에 있던 성주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 성주를 매기도 하지만 태우거나 살아있는 나무(특히 소나무)에 갖다 매 놓는 경우가 많다.

성주신에 대한 의례는 신을 봉안할 때나 결혼 등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하는 수시 의례(비정기 의례)와 각 세시나 정월, 음력 시월 상달고사, 안택고사 등 정기적으로 지내는 의례가 있다.

경기도 안성지역에서는 이사했을 때나 며느리를 얻어서 새 식구가 들어왔을 때 이사 후 또는 결혼식 후에 무고하게 해달라고 성주굿을 하기도 한다. 집안이 편안할 때도 자손이 잘되라고 자손운맞이굿을 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우환이 있을 때에는 귀신들이 못 다 먹어 더 받고 싶어한다고 해서 성주굿을 한다. 제의 절차는 부정굿(부정물림)-산발원-군웅발원신장거리-조왕굿-안당불사제석굿-별상굿-조상굿-성주굿-대감굿-터주굿-선황굿-걸립굿-창부거리-뒷전굿(내전굿)-맹인굿 순으로 진행된다. 수시 의례를 지내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해마다 지내는 정기적인 제는 대략 일 년에 두 번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 음력 정월에서 삼월까지 한 번 하고 시월상달 추수 후에 한 번 더한다. 이를 '재수굿', '안택굿' 등으로 부른다. 안성의 경우 정월이나 이월에 드리는 것은 '세배살이 문안정성'이라 하여 한 해의 안녕을 비는 굿, 삼월에 드리는 것은 '꽃맞이정성', '화단맞이굿'이라 하여 자손들이 꽃과 같이 잘 피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굿이다. 시월 제는 동짓달까지 지내며, 신곡을 해서 추수감사제적 성격으로 하는 굿이다.

집안에서 대주나 안주인이 각 세시에 성주신과 집안의 가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의례는 설, 정월대보름, 추석, 시월상달, 동지 등에 행한다. 명절 음식이 들어오는 명절 하루나 이틀 전에 성주 등 가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고양지역에서는 집 뒤의 산신-부처님-성주신-대감·몸주대감-터주대감-수문장군 순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성주에는 막걸리, 돼지고기, 사과, 배 등을 놓고 "성주님 안중에 많이 운감하시고 재수 열어서 다 자손들 하는 것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무사히 해 달라."라고 빈다.

성주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 '집을 짓는 신', '만드는 신'이라는 것이다. '집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성주가 있어 집에는 대주가 성주이고 고을에는 원님이 성주이고 나라에는 임금님이 성주'라 하여 어느 특정 영역의 최고 어른을 '성주'라고 일컫는다.

〈성주신화〉에서 성주신은 장난을 할 때도 집 짓는 장난을 치는, 집을 짓는 신이다. 성주신은 단순히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는 것이 아니다. 집을 다 짓고 온갖 세간과 살림살이를 최고로 마련해 주는 과정까지가 해야 할 일이다. 집의 뒤주며 화초장 등 대청세간을 마련하고, 대청세간이 마련되면 안방세간도 마련하고, 방세간을 마련하면 부엌세간까지 구비한다. 온갖 가축과 곡식, 전답과 비단옷감까지 다 마련한 뒤에 부모의 수명장수와 효자충신 자식을 점지하여 자손 번창도 도와주고, 벼슬에도 나아가고 농사도 번창하게 하는 것이 모두 성주신이 할 일이다. 성주신은 집을 짓는 것을 가장 큰 직능으로 하고, 온갖 세간과 살림살이를 최고로 마련해 주며, 가정의 안녕과 온갖 재수를 관장하고, 한 집안의 인간사 모든 일을 굽어 살펴주는 집안의 최고 신이다.

**지역사례** 성주신 명칭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성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주'라는 용어에 성주 신체(神體)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 쓴다. 경기도 화성시의 '성줏대', 강원도 강릉시의 '성줏단지', 충청도의 '성조목(成造木)', 전남 여수시의 '성주독'과 진도의 '성주동우' 및 신안군 안좌도의 '성주동오'·'성주항아리'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주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성주'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성주'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예도 있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성주조상',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도에서는 '조상하나씨', 신안군 지도에서는 '조상단지'·'조상독'·'불그릇', 장산도에서는 '성주귀신', 경북 안동시에서는 '성주할배'라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성주신을 '성주(城主)'라고 한다. 신체는 백지에 쌀을 싸서 마루 위 대들보에 북어와 함께 매다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경기도에서도 보인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성주신을 '성주대감'·'성주'·'성줏대' 등으로 부르며, 대나무에 한지를 오려 붙인 신체를 '성주대감'·'성줏대'라고 한다. 성줏대의 윗부분을 막걸리에 적신 뒤 한지를 사각형으로 접어 막걸리에 적셔서 쌀을 뿌려 붙인다. 대 없이 종이성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무성주'라고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성주신을 '성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체의 형태에 따라 '성줏단지'와 '종이성주'로 부른다. 종이성주는 상량대 밑 동자기둥에 매달아 둔다. 성줏단지는 추수 후 맨 처음 방아 찧은 쌀이나 동전을 두서너 말들이 단지에 넣어 상량대 위에 널빤지를 건너지르고 올려놓는다. 또 성주와 조왕을 합쳐서 '성주조왕'이라 하여 부엌에 모신다. 성주신은 남자조상, 조왕신은 여자조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성주신을 '성주', '성주대감', '성주조상', '조상신'이라 부르면서 안방 문 위나 들보에 모신다. 신체는 종이를 흰실로 감아 매다는 형태와 단지에 쌀을 넣어 마루나 성주나무에 모시는 형태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성주가 조상신으로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관장한다고 믿기도 한다.

**성주**



경북 상주시 하동면 판교1리
2002.3.28, 코리아루트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2리
2002.6.1, 코리아루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황헌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황헌만

**성주**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4리, 2004.11.24, 김태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산골, 황헌만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006.7.10, 황헌만

충남 서산지역에서는 성주신을 모실 때 흰 종이에 쌀이나 떡을 참나무 가지와 함께 넣고 돌돌 말아 법사가 물이나 술에 적셔서 대들보 밑에 휙 던져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다.

전북지역에서는 신체가 없는 건궁성주 또는 쌀과 동전을 종이 안에 가득 넣어서 봉한 뒤 연꽃을 오려 붙여 천장에 매달거나 성줏단지, 조상단지라 하여 농사지어 찧은 쌀을 작은 단지에 담아 안방 윗목 선반에 올려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성주신을 모셔서 성주신을 집안의 제일 높은 신이자 집을 맡은 신으로 인식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성주신을 '성주', '성주동우', '성줏독', '성줏단지', '조상하나씨', '성주귀신' 등으로 부르면서 집주인이자 집을 지키는 귀신으로 모신다. 성주신을 '조상하나씨'로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에서도 성주신이 조상신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는 한지에 '성주'라고 적어 상량에 끼우는 형태와 큰 항아리에 쌀을 담아 모시는 형태가 있다.

경상도지역의 성주신 명칭은 '성주', '성주기둥', '제왕단지', '성주동우', '성줏단지', '부룻단지', '성주조왕' 등이다. 성주기둥은 마루의 기둥을 성주신으로 모시는 형태, 제왕단지는 성주와 조왕을 부엌에 있는 하나의 신격으로 보아 모신 형태이다. 부루단지는 성주에만 국한된 지칭이 아니라 조상신을 일컫기도 한다. 성주를 윗대의 조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시준단지를 모시고 있어 성주를 그 아래 있는 신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신체는 종이신체와 단지신체가 공존하며, '성주가마(성주섬)'라 하여 단지형태 외에 나락이 담긴 가마 자체를 모시기도 한다.

제주도지역은 '성주'가 일반적인 명칭이다. 새집을 짓고 성주를 모시는 '성주풀이' 의례를 하지 않으면 조상신을 제사 지낼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성주신을 위해 주지 않으면 조상신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주를 모시는 의례를 할 때 중을 불러 경을 읽는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

전국적인 사례를 통해 집의 상부에 붙이는 종이신체와 단지에 쌀을 담아 땅에 두는 형태가 공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성주신의 신체는 종이에 쌀이나 실 또는 대나무 · 소나무 등 나뭇가지를 결합하거나 그냥 한지만 접어서 만드는 종이신체(베의 형태로 하기도 함)와 단지에 쌀이나 동전을 넣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또 봉안 장소는 대청마루 대들보나 상량대 근처 또는 안방 쪽 가장 높은 벽 등 집 안에서 하늘과 가까운 곳을 택하는 경우와 쌀을 담은 성줏단지를 둘 수 있는 땅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주신이 천계 및 지계와 연관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집의 상부에 매달린 종이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널리 분포하는 것을 보여준다. 성주신이 천신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주신의 가장 보편적인 명칭은 '성주'이지만 '성주조상', '조상하나씨'와 같이 조상신의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조상신의 성격은 명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주민들은 성주신을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보살펴주는 조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주신은 인간에게 집 짓는 법을 마련하여 준 신으로, 집의 건축을 관장하고 집안의 평안과 재수를 담당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상신의 성격도 있으며, 집이 있는 곳이면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이다.

**참고문헌** **경기도의 굿**(하주성, 경기문화재단, 1999), **고양 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임근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2007), **송천동의 가신신앙과 세시풍속**(김명자, 안동문화 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8), **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의 신앙민속**(이종철, 도서문화 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5), **악사의 동제와 가신신앙**(김명자, 안동문화 8,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7), **안성굿의 성주신**(임근혜,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안성무가**(서대석 · 박경신, 집문당, 1990), **안좌도지역의 민속지**(이종철, 도서문화 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6),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지도지역의 신앙민속**(이종철, 도서문화 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7), **한국민속대관-민속신앙 · 종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문화재관리국, 197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임근혜(任槿惠)**

## 성주고사(城主告祀)

상호참조 성주(307쪽)

**정의** 집안의 마루에 좌정하여 그 집 건물과 가정을 수호하는 성주신에게 올리는 제의. 주로 그 집안의 부녀자가 성주신을 대상으로 집안의 길흉화복, 풍요다산, 안전과 안녕,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역사** 성주는 성주(城主, 星主), 성조(成造)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성주조상, 성주대감, 상량신이라고도 한다. 성주의 유래는 고대문헌에서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부여의 영고(迎鼓) 등 고대 추수감사의 의미를 내포하는 제천의식이 이미 있었다. 『후한서(後漢書)』 및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에서 10월에 제천(祭天) 행사를 했는데 이를 동맹(東盟)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고대 때부터 음력 10월에 추수감사제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성주고사도 비록 국가적 차원의 의례는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천신의례(薦新儀禮)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천행사와 맥이 닿아 있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10월에 집집마다 무당을 데려다 성조신(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빌어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상달은 10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일



**성주고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007.10, 임근혜



**성주고사 상차림**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2005.10.3(음), 강성복

년의 농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이다. 따라서 10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달로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시월상달은 수확에 대한 감사와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기이다. 이때 의례의 대상신 가운데 하나가 성주신이다. 따라서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고사는 곧 가정의 평안과 복을 관장하는 안택신으로도 인식된다. 현재 정월에 지내는 성주고사는 한 해 동안 무탈하기를 기원하는 고사이다. 또 시월 안택고사로서의 성주고사는 성주신에게 햇곡으로 만든 술과 떡, 북어 등을 바치며 농사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는 성격이 있다.

**형태** 성주고사는 그야말로 가가례(家家禮)라 할 수 있어 그 특징을 일별하여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붉은 팥을 얹은 시루떡을 사용하는 것만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붉은색이 양기를 상징하고 잡귀의 침입을 예방하는 상서로운 색이기 때문이다.

성주고사는 원래 가옥신의 성격이 강하다. 무가 〈성주풀이〉에서는 성주의 본향을 안동땅 제비원으로 설명한다. 건축의 주재료인 소나무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옥신으로서의 성주신은 새집을 지어 이사할 때 또는 가정에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를 갈아 주는 과정에서 모셔진다. 그래서 집을 지켜 주고 그 집안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 권능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주는 집안의 가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주 신체의 봉안 장소는 대들보, 마루, 가옥의 중심기둥 등 집안에서 가장 중심 되는 곳이다. 성주의 신체를 나타내는 용어도 지역마다 다양하다. 경기도 화성지역에서는 성줏대, 강원도 명주지역은 성줏단지, 충청도는 성주목, 전남 여천지역은 성줏독, 진도는 성주동우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성주 신체의 재료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밖에 성주의 성격과 관련되는 신체 용어도 있다. 성주조상, 조상단지, 조성하나씨, 성주귀신, 불그릇, 성주할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북지역의 경우 성줏단지를 '성주옷'으로 여기기도 한다.

**성주고사**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2010.2.10, 윤동환








성주의 신체는 크게 단지와 한지(韓紙) 형태로 구분된다. 단지의 경우 50~60㎝ 의 단지에 그해 농사지은 햅쌀이나 정미하지 않은 보리를 넣고 목판이나 옹기 뚜껑으로 덮어 놓는다. 강원도와 전라도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성주물그릇이라 하여 작은 종지를 놓고 거기에 정화수를 떠 놓기도 한다. 충청도지역의 경우 대청마루 한 구석에 동이를 놓고 거기에 쌀을 담아 성주로 모시는 곳도 있다. 이러한 단지를 '부르단지' 혹은 '부르독'(경남)이라고 한다. 신체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대청의 대들보 밑에 백지를 반구형으로 만들어 붙인 것, ②상기둥에 백지를 장방형으로 접어 붙인 것, ③성줏단지 형태, ④성주 맨 것, ⑤성주동이 등이 그것이다.

경북 문경시에는 대들보 또는 마루의 벽에 한지를 맨 형태, 벽에 맨 한지와 함께 성주섬 또는 성줏단지를 모신 형태가 있다. 집에 따라 한지를 접어 양쪽에 수숫대로 꽂아 고정시킨 다음 가운데에 솔가지를 꽂고 실타래를 묶은 형태, 마른 북어에 실타래를 묶은 형태가 있다. 성주의 신체 위치는 대개 마루, 대들보 아래 또는 주변, 개조한 집의 경우 현관이다.

**내용** 성주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의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성주신을 처음 봉안하는 의례가 있고 집안의 안녕과 재복을 비는 의례가 있다. 앞의 경우를 성주받이 또는 성주맞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주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그 집의 가장인 대주의 나이 끝자리가 1, 3, 5, 7, 9세가 되는 해에 헌 성주 위에 새 성주를 덧붙여 모시거나 대주가 바뀌었을 때, 즉 세대교체가 되었을 때 헌 성주를 떼어내고 새 성주를 모신다. 후자의 경우 성주고사나 성주굿을 통하여 행해진다. 집안이 화평하고 질병이 없이 모두 잘 유지되기를 비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재수굿 성격을 띤다.

성주고사의 절차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반에 제물을 간단히 차린다. 제물로는 시루떡, 술, 북어, 과일, 나물 등이 주로 사용된다. 성주고사를 지내기 위한 상차림은 성주굿만큼 성대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간편하게 차릴 때는 시루떡과 물(청수)을 떠 놓는다. 이때 시루떡 중앙에 촛불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해진 격식 없이 정성껏 세 번 절을 하고 기원한다. 비손 형태의 기원 내용은 가정의 안녕과 제액초복, 무병장수, 풍요다산이다. 비손이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첫 번째 올리는 소지는 성주의 것이다. 소지는 식구 순과 남녀 순으로 올린다. 고사가 끝나면 가족끼리 음복한다. 이는 소원성취, 건강,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집터를 다지고 집의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상량식을 할 때도 제물을 차려 놓고 성주고사를 지낸다. 집을 다 지으면 무당을 불러 성주굿을 한다. 생소나무를 성줏대로 쓰고 성주신이 강림하도록 한 다음 집의 마루기둥에 신목에 매어 둔 백지를 붙여 놓는다. 이 자리가 바로 성주신이 좌정하는 자리로, 그 집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 된다. 상량식 때의 성주신은 가옥 건물을 수호하는 신의 성격이 강하고, 입주한 뒤의 성주신은 대주 또는 그 집의 가장을 지키는 수호신의 성격이 강하다. 안방에 모셔진 성주신은 대부분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의 수호신 성격이 짙다.

성주신의 역할도 시기마다 조금씩 변해 왔다. 성주는 원래 건축과 관련되는 신이다.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집을 크게 중수했을 때, 상량을 올릴 때에 성주고사나 성주굿을 한다. 집을 지어 상량을 올린 날을 성주생일이라 하여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후 그 집 가장인 대주의 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성주생일은 곧 그 집의 가장(대주)의 생기에 맞추어 날을 받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다. 그리고 가장이 죽으면 3년간 성주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는 가장을 위한 신이 성주신임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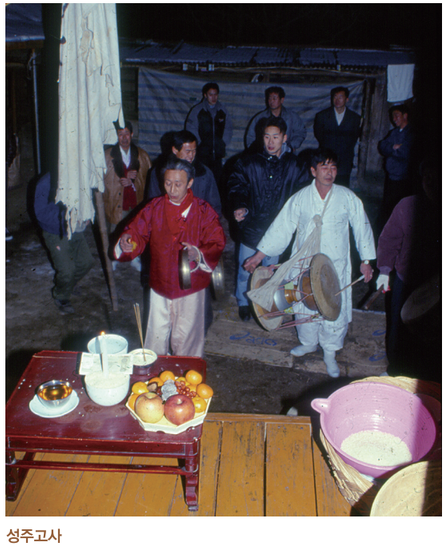
성주신은 이후 차츰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의 기능까지 지니게 되었다. 성줏단지에 벼를 넣어 두거나 새 곡식을 수확할 때마다 벼나 보리를 바꾸어 넣어 두는 행위가 이를 반영한다. 성주신이 가옥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게 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해 주는 신으로도 기능한다. 강원도 삼척시 산간지역에서는 삼신처럼 성주신이 '탈'에 의하여 집을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성주가 탈이 나면 집안일이 안 풀리거나 병이 생긴다고 믿는다. 탈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①성주를 위하지 않았을 경우, ②성주 모신 곳을 잘못 건드렸거나 옮긴 경우, ③성주의 영역을 다른 귀신이 침입했을 경우, 즉 부정탔을 경우, ④성주 모시는 날을 잘못 골랐을 경우이다. 이런 탈을 풀기 위해 성주를 다시 모

시는 의례를 행한다. 성주는 잡귀와 부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탈이 나게 되고, 가족 가운데 일원에게 병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성주신은 질병을 치료해 주는 신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특징** 가정신앙은 의례행위 자체가 다양하다. 집집마다 신앙의 목적과 신 체계가 다르고 주부의 관습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성주고사는 안택고사라 하기도 하여 집안의 길흉화복과 연관성이 깊다. 한편 이러한 신능은 조상신이나 업신, 토주신, 조왕신과 같은 신의 권능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착현상 역시 그 집안의 부녀자에 의해 가정신앙 의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겹칠 수 있다.

성주굿의 과정에서 불려지는 무가가 〈성주풀이〉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중부지역의 〈성주본가풀이〉 무가를 보면 황에양 씨(황우양 씨)의 부인이 정절도 잘 지키고 총명하여 지아비를 잘 보호하고 지켜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주고사가 주로 가정의 부인에 의해 의례화되는 사실과 밀접한 의미가 있다.

남성신으로서의 성주신과 여성신으로서의 조왕신 또는 삼신은 가정 내에서의 부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재할 만큼 중요시된다. 집안의 질서와 안녕,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자연히 숭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



**성주고사**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1998.1.14(음), 강성복

**지역사례** 성주고사의 사례는 지역마다 다양하다. 경북 문경지역에서는 팥 시루떡을 찐다. 시루떡은 쌀과 팥을 시루에 켜켜이 안쳐서 떡을 찐다. 그리고 성주 앞에 시루째 놓고 떡시루에 술을 담은 술잔을 놓는다. 다음으로 대주가 절을 하고 가족 소지를 올린다. 차례대로 농사소지, 가축소지, 차소지를 올린다. 그런 뒤 떡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충북 제천시 오티마을에서는 성주의 신체는 마루 위쪽 또는 시렁 위에 성줏단지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고 방문 위에 짚으로 사람 모양을 작게 만들어 올려놓기도 한다. 안택굿을 할 때 성주를 모시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안성지역의 성주굿은 규모가 크게 진행된다. 집의 신축, 또는 대주의 사망으로 성주를 새로 맞이할 때, 이사할 때, 가족이 아플 때, 심지어는 집안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굿이 이루어진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재수굿도 있다.

강화도에서 상량식 때 행해지는 성주고사를 보면, 마을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지경돌로 집터를 다진 뒤 기둥을 세우고 나서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입주상량의식(立柱上梁儀式)을 거행한다. 이때 대들보에 입주(立柱) 연월일과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이라 쓰고 화재 예방을 위해 양 끝에 해(海)·용(龍)·구(龜) 등을 쓴 백지를 붙인 다음 제물을 놓고 고사를 지낸다. 집을 완성한 뒤에는 주부가 의뢰한 만신이 와서 대주에게 생소나무 가지의 중간에 백지를 맨 성줏대를 잡게 하여 신을 내리게 한 다음 성주신을 대청에 좌정시킨다. 가옥을 완성한 후에는 대청마루의 안방 입구 기둥에 백지를 붙여 성주신을 좌정시킨다. 경기도지역에서는 대청에 굿상을 차리고 주당살을 가린 뒤 부정거리-가망거리-상산거리-성주맞이의 순서로 거행한다. 홍철릭에 홍갓을 쓰고 생솔가지에 백지를 맨 성줏대를 잡고 뜰에서 맞아 놀린다. 성줏대가 좌정처를 가리키면 대에 매단 백지를 풀어서 동전을 넣고 접어 청수에 적신 다음 상량대 밑 벽이나 기둥의 상부에 붙인다. 그러면 무당이 손으로 쌀 한 줌을 집어 세 번 뿌리면서 "천석 만석 불려 줍소사." 라고 축원한다.





**성주고사 상차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008.2.6(음) 윤동환

**의의** 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주신은 그러한 가옥 자체의 신격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무탈함을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은 집안의 가장의 몫이기도 하여 성주신은 가장을 위한 신이기도 하다. 또한 대부분의 가정신앙의 대상은 여성 중심이며 개인적이다. 그러나 성주신은 남성성을 지니며 가신의 대주로 자리한다. 따라서 성주신의 위상은 다른 가정신앙에 비하여 품격이 높고 존귀하게 다루어진다.

가옥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는 일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가신 가운데 으뜸인 성주신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의례인 성주고사는 가신의례 가운데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지고 갈무리되어야 할 문화요소이다. 특히 핵가족화되는 산업정보화 사회에서 가정의 소중함과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중요한 문화 항목에 해당한다. 성주고사는 이러한 문화의례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농악대 고사(告祀)소리의 지역별 특성과 변천 양상**(최자운,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출판사, 1994), **문경민속지-민속신앙**(문경새재박물관, 민속원, 2007),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김종대, 민속원, 1999),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임재해, 지식산업사, 1994),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한국민속대관 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민속학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일조각, 2001), **한국의 가정신앙-상**(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민속문학과 전통문화**(김승찬 외, 삼영사, 2001).

**필자** 권오경(權五慶)

## 성주매기

상호참조 성주(307쪽), 성줏대(320쪽)

**정의** 가옥의 신인 성주를 받아 모시는 의례.

**내용** 성주는 가신(家神) 가운데 가왕(家王)격의 신령이다. 성주는 집안의 가장인 대주(大主)와 밀접하다. 이 때문에 흔히 '대주는 성주를 믿고, 성주는 대주를 믿는다.'라고 한다.

집을 처음 지을 때 상량을 올리면서 성주를 모시며, 이사를 한 경우에도 성주를 받는다. 새집이 마련되면 다른 가신들은 자연스럽게 가내의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는다. 성주는 상량식이나 안택의 한 절차로써 정식으로 초빙되어 앉혀진다. 이렇게 좌정시킨 성주는 그 집안의 가장의 운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우환이 발생하면 성주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탈을 일으키거나 집을 떠난다. 이를 두고 '성주가 떴다.'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가정에서는 무당 또는 법사를 초빙하여 새롭게 성주를 받거나 제 위치에 좌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성주운이 닿아야 성주를 받을 수가 있다. 성주운은 대체로 대주의 나이가 홀수일 때 해당된다.

가옥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량은 성주의 좌정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성주를 받는 의례를 '상량고사'라고 부른다.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면 새로운 성주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성주 생일'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성주를 봉안하는 방식에 따라 '성주 맨다', '성주 올린다', '성주 옷 해 입힌다', '성주 앉힌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집을 짓고 나서 성주를 모시는 것을 '성주 풀이'라고 부른다.

성주를 받기 위해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느 날 성주를 매는 것이 좋은지 묻는다. 집을 새

로 짓고 나서 성주를 받는다면 상량을 올리는 날이 바로 성주를 받는 날이다. 이와 달리 이사를 했거나 집안의 우환 등으로 성주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에는 대주의 나이를 고려한다. 대주의 나이 끝자리가 홀수일 때 성주를 모셔야 좋다. 다만 끝자리가 9인 경우에는 아홉수라 하여 꺼린다.

성주를 받을 때에는 미리 성줏대를 마련해 둔다. 성줏대는 대개 대나무나 소나무로 만든다. 법사나 보살이 대잡이를 앞에 앉히고 성주를 받기 위하여 축원하면 대가 떨리면서 접신(接神)하게 된다. 대잡이는 떨리는 대를 부여잡고 바깥으로 나가서 소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에 좌정하고 있는 성주신을 모시고 들어온다. 성주신은 자신이 좌정할 자리를 직접 가리키면 법사 또는 무당은 그 자리에 성주 신체를 좌정시킨다.

성주 신체는 법사나 무당이 만들어 준다. 지역에 따라 형태는 다소 다르다. 다만 어떤 성주이든 종이를 접어서 신체로 삼을 경우 그 안에 성주목, 동전, 쌀, 성주떡 등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좌정한 성주 신체는 지역에 따라 대주가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모셔 두거나 매년 성주를 새로 매 주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는 성주 신체를 베로 돌돌 말아서 한지로 감싼다. 집안에 따라 베 안에 돈을 넣어 두기도 한다. 베는 대주의 나이에 따라 그 길이를 달리한다. 초년에는 세 마 세 치, 중년에는 다섯 마 다섯 치, 노년에는 일곱 마 일곱 치의 길이로 한다. 성주를 받으려면 대주에게 '성주운'이 들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주의 나이는 짝수인 경우 성주운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성주를 받지 못한다. 홀수인 경우에만 성주를 받을 수 있다. 대개 대주의 나이 끝수가 3, 5, 7일 때 성주를 많이 받으며, 9는 아홉수라 하여 꺼린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짓거나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면 성주를 새로 맨다. 안택을 하게 되면 매번 성주를 새로 받아 주기 때문에 성주 신체로 모신 한지가 겹겹으로 쌓이기도 한다.

다음은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봉순 만신이 소개하는 성주받기 사례이다. 성주를 받는 것은 계절과 대주의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주로 음력 10월에 받는다. 여름이나 봄에 성주를 받으면 대주가 바람난다고 하여 꺼린다. 성주는 대주의 나이가 홀수일 때 받는다. 9로 끝나는 해는 아홉수이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들끓는다 하여 이 역시 가린다. 성주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는 성주가 나갔을 때이다. 성주가 밖으로 나가면 대주가 밖으로 나돌기 때문에 대주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대주가 죽으면 그 전의 성주는 떼어내고 큰아들로 성주를 받는다. 성주 신체는 고사를 하면서 떼어낸다. 이때 성주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면 좋다. 이는 집안이 불처럼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 밖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성주를 다시 받는다. 집을 다 짓고 이사를 다한 뒤 고사를 하면서 성주를 받는다. 성주는 만신이 축원한 뒤 마을 사람 중에서 대를 잡게 하여 대를 내려서 받아온다. 성줏대는 주로 소나무 상가지를 꺾어서 삼는다. 성주는 주로 대추나무, 밤나무, 은행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사용한다. 제물로는 팥 시루, 막걸리, 나물, 과일 등을 차린다. 성주 신체 안에는 대주 밥그릇에 담긴 쌀을 대주의 나이 수대로 대주의 숟가락으로 떠서 담는다. 그리고 대로 잡은 소나무의 솔잎 세 개를 뽑고, 돈을 사고지에 싸서 접는다. 이를 막걸리에 적셔서 대들보나 안방 위에 붙여 놓는다. 성주 신체를 좌정시키면 그곳에 쌀을 세 번 던진다. 이때 "천석, 만석, 수만 석!"이라고 외친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서는 집을 처음 지을 때 대주의 생기복덕을 맞추어서 상량 올리는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이때 상량 앞에 시루떡을 해 놓고 고사를 지낸 뒤 상량 기둥에 성주를 맨다. 성주는 흰 종이를 실타래로 묶은 것이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1리 월운동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면 새로 성주를 받아 모신다. 이때 종이를 접어서 만든 성주를 물에 적셔서 성주가 모셔지는 자리에 붙여 놓는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에서는 새로 집을 짓고 상량을 올릴 때 성주를 받는다. 이때 창호지를 직사각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접어서 실로 엑스(X)자가 되게 접은 다음 마루 위 대들보 아래에 붙여 둔다. 성주 안에는 반지를 넣기도 한다. 이는 재수가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 성줏단지

상호참조 성주(307쪽)

**정의** 성주신의 신체로 쌀이나 나락을 넣은 단지.

**역사** 언제부터 성줏단지를 성주의 신체로 모셨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벼농사의 시기와 결부시킬 수 있다. 성줏단지에는 반드시 쌀이나 나락을 넣어둔다. 단지에 들어있는 곡식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 년 동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다. 가을에 햅쌀이 나면 좋은 날을 골라서 성줏단지의 곡식을 교체한다. 단지에 들어 있던 묵은쌀은 모두 비워서 떡이나 밥을 해 먹는다. 성줏단지에 들어있던 쌀은 절대 집 밖으로 내지 않으며, 밥을 해서도 식구끼리 먹는 것이 보편적인 관념이다. 밥이 남더라도 개나 다른 짐승에게 주지 않는다. 성줏단지의 쌀은 신성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는 성주신이 농사의 성공을 관장한다고 믿는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형태** 성줏단지는 동우형과 단지형이 있으며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우형은 큰 항아리(독)로, 대체로 쌀 너 말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이다. 입구 지름 90㎝, 높이 50㎝, 너비 지름 120㎝ 정도이다. 부잣집에서는 쌀 한가마니 분량의 쌀을 담아두는 큰 독을 성주동우로 모시기도 한다. 성주동우는 대체로 집의 마루(마래, 말래)에 놓인다. 뚜껑으로는 돌이나 나무판자 등을 사용한다. 단지형은 쌀 한 말 정도 들어가는 중간 크기의 항아리나 쌀 두석 되 정도 들어가는 작은 항아리를 사용한다. 성줏단지는 대체로 안방의 선반 위에 모셔둔다. 성줏단지의 뚜껑은 항아리 뚜껑이나 나무판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지로 덮고 실로 감아두는 경우가 많다.

**내용** 성주는 가옥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며, 새로 집을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모시는 신격이다. 가신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전국적으로 신앙이 분포한다. 성주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단지형, 한지형, 성줏대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에는 성줏단지, 성주동우, 성줏독, 성주



**성주오가리**
전남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 2007.1.5, 이옥희

**성줏단지**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갈산마을
2007.1.5, 이옥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2011.5.3, 김기설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2009.5, 박종익

오가리, 부룻단지, 제왕단지 등이 포함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의 가정신앙』 전국편을 통해 단지형이 발견되는 지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경기도 | 가평군, 양평군 |
| 강원도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정선군, 영월군, 춘천시 |
| 충남 | 서천군 |
| 충북 | 제천시, 단양군 |
| 경남 | 창녕군,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거제시 |
| 경북 |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청도군, 영천시, 의성군, 경주시 |
| 전남 | 광양시, 화순군, 보성군, 영암군, 강진군, 목포시,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장흥군 |
| 전북 | 무주군,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
| 대구 | 대구시 |
| 울산 | 울산시 |

표에서 확인되듯이 성줏단지는 소백산맥과 금강 이남지역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성줏단지 안에는 쌀이나 나락을 넣어두었다가 이듬해 햇곡식이 나면 새로 갈아넣고 절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주를 위하는 것으로 신앙이 표현된다. 명절이나 집안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성주상을 차리고 성주를 위한다. 정월대보름에는 찰밥과 묵은 나물을 성줏단지 위에 올리고 비손하며, 동지에는 팥죽을 올린다. 안택고사를 할 때에도 반드시 성주를 위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도 먼저 성주 앞에 올렸다가 먹는 가정도 있다. 혼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성주에게 혼인을 고하고 성줏단지 위에 심지 불을 밝혀서 불의 크기나 상태로 혼인생활의 지속여부를 점치기도 한다. 집의 가장이나 자식이 군대를 가거나 먼 길을 떠나면 성주공을 드리는 부녀자들도 있다. 전남 해남지역에서는 성주동우 안에 남편의 전처를 위한 적삼을 넣어두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는 조상단지와 혼효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부녀자들은 성주모시기를 그만두거나 성줏단지를 치울 때에도 매우 조심한다. 성주모시기를 그만둘 때에는 제물을 올리고 성주에게 그 사실을 고한다. 성줏단지를 치울 때에는 좋은 날을 받아 몸과 의복을 정결히 한 후 성주동우를 들고 가서 깨끗한 강물에 버리거나 산에 묻는다.

성주동우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마을 1996.7, 서해숙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치마을 2005.7.2, 서해숙

**참고문헌** **성주신앙의 지역별 양상과 그 의의**(임승범,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충남 지역 성주신앙의 존재 양상**(이필영, 문화변동과 한국 민속학의 대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0),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가정신앙-상**(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이옥희(李玉姬)**

## 성줏대

상호참조 성주(307쪽), 성주매기(317쪽)

**정의** 성주신의 봉안의식을 할 때 성주를 받는 도구.

**형태** 성줏대는 주로 작은 소나무의 상순이나 가지를 세 척 정도 길이로 잘라내어 중간에 한지를 매달아 사용한다. 대나무를 꺾어 성줏대를 만들기도 한다.

**내용** 가옥을 신축했거나 이사를 하여 성주신이 필요할 때 성주신 봉안의식을 한다. 또 대주(大主, 집주인)의 나이에 따라 성주의 운이 들면 성줏대를 만들어서 성주를 받는다. 대주의 나이는 일곱 수가 드는 해인 27, 37, 47, 57, 67세 등이다. 의식은 그해 시월에 택일(擇日)하여 행한다. 안택을 할 때 성주가 뜬 경우에도 성주를 받기도 한다. 성줏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 주변의 대나무를 꺾어 성줏대를 만든다. 법사나 무녀가 성주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묻고 성줏대가 이끄는 곳으로 나가 성주를 집 안으로 모셔 들인다.

**지역사례** 서울지역의 경우 성주 봉안은 성주받이 굿거리에서 행한다. 무녀가 홍철릭[紅天翼]에 홍갓을 쓰고 세척 안팎의 생솔가지 중간에 백지 한 장을 잡아맨 성줏대를 잡고 뜰에 나가 성주신을 맞아들인다. 이때 성줏대는 집주인인 대주가 잡는다. 대주가 성줏대를 잡으면 무녀는 성주신의 하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축원한다. 성주신이 내리면 경우에 따라 대주가 성줏대를 잡고 춤을 추어 성주신을 놀리기도 한다. 또 무녀는 성주신의 좌정처를 물어서 성줏대가 지적하면 성줏대에 매단 백지를 풀어서 동전을 넣고 장방형으로 접어 청수(淸水)에 적신 다음 성줏대가 알려준 상량대 밑의 벽이나 상량의 상부에다 붙인다. 그러고는 쌀을 손으로 한 줌 집어 세 번을 뿌리면서 "천석만석 불려줍소사." 하고 축원하며 재복을 많이 점지해 달라고 기원한다.

황해도 해주 등지에서는 성주맞이를 할 때 소나무의 상순을 베어다 그 중등에 백지 한 장을 실로 잡아매어 성줏대를 만든다. 집주인인 대주가 이 성줏대를 붙잡으면 무녀가 성주신의 하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축원을 하고, 그러면 대주가 성주신이 내린 성줏대를 손에 잡고 춤을 추어 성주를 놀리기도 한다. 그 다음 무녀가 성주신께 좌정처를 물어 봉안하게 되는데, 그 위치는 대개 양주(梁柱)의 상부가 된다. 이렇게 좌정처가 결정되면 백지 석 장을 포개어 쌀을 넣고 접어 싸면서 "천석만석"하고 주언(呪言)을 한다. 그런 뒤 이것을 술에 적시어 뭉쳐서 좌정처에 던져 붙이고 성줏대에 매달았던 백지 한 장을 풀어서 실로 묶어 봉안된 성주신체 밑에 걸어 둔다.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는 대주의 나이가 7의 수가 되는 해 가을(음력 10월) 중에 택일하여 성주받이를 행한다. 그 절차는 우선 성주풀이를 구송(口誦)한 다음 생소나무 가지에 백지 한 장을 매단 성줏대에 성주를 받아 놀리고, 성줏대의 백지를 풀어 쌀을 넣고 장방형으로 접어 가옥의 중심이 되는 곳의 기둥 상부에 물을 적시어 붙이고 나서 쌀을 한 줌 집어 뿌리며 무녀가 "천석이요, 만석이요."라고 주언을 한다. 이 지방에서 이렇게 봉안되는 성주 신체는 성줏대에 매달았던 백지를 장방형으로 쌀을 넣고 접어서 물에 적시어 기둥에 붙이는 것과 성줏대에 매달았던 백지를 쌀을 넣고 접어서 실로 그 한 허리를 매어 역시 가옥의 중심이 되는 기둥의 상부에 매다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체로 전자의 형태를 많이 취한다.

양구에서는 성주받이를 할 때 생소나무 가지에 백지 한 장을 매단 성줏대에 성주신을 받는다. 성줏대가 가리키는 곳에 신이 좌정하는데 그 위치는 대들보 밑이나 상기둥의 상부가 된다. 그런 뒤 성줏대의 백지를 풀어서 물에 적시어 장방형으로 접어 좌정처에 붙이며 무녀가 쌀을 한 줌 집어 뿌리면서 "천석이요, 만석이요."라고 주언을 한다. 이 지방 역시 대주의 나이가 7의 수가 되는 해 가을 시월 중에 택일해서 밤에 행한다.

고성군 등지에서는 성주굿을 할 때 방바닥에 말을 놓고 쌀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홍두깨를 세워 꽂는다. 그리고 백지 한 장을 차곡차곡 길게 접어 말굽형으로 쐬워 무명 실타래로 동여매어 세워진 홍두깨 위에 성주상을 올린다. 무녀가 가무로 성주신을 놀리고 난 다음 대주를 앞에 세워놓고 공수를 주어 예언을 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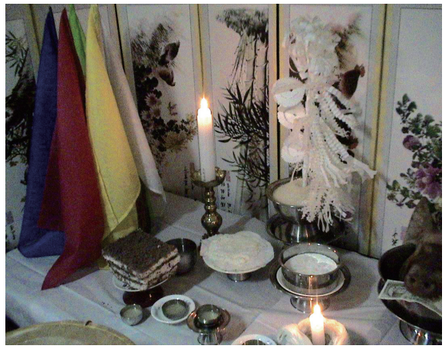
성줏대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치마을 , 2005.7.2, 서해숙



전남 신안군 장산도, 1995, 서해숙



성줏대
경기도 안성시, 2004.10, 임근혜

러고 홍두깨의 상두부에 묶여있는 백지를 무녀가 풀어서 실타래로 그 백지의 한 허리를 가로 떠 묶은 것을 대주에게 들려서 대들보 밑이나 부엌의 용마루 밑, 또는 가옥의 중심이 되는 기둥의 상부에 걸어 매달게 한다. 이것이 성주신체가 되는데, 이 백지 속에 쌀을 넣기도 한다.

이외에도 각 지방의 독경자(구송 또는 경꾼)에 의해서도 독경 절차를 밟아 신대로서의 성줏대를 잡고 성주를 받아 성주신을 봉안하고 성주 봉안경을 읽는데, 이 때도 대주의 나이가 7의 수가 되는 해 가을 시월 중에 택일하여 밤에 행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의례 전 부정을 가리기 위해 대문 밖 좌우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매기도 한다.

이처럼 성줏대는 성주신이 좌정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중간 공간이며, 일종의 신간대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경남(金京南)

## 세이레

표제어 삼칠일(284쪽)

## 세존(世尊)

상호참조 세존단지(323쪽)

**정의** 불교에서 유래한 신으로 가정에서 시준, 시주 등으로 불리며 모셔지는 신. 특히 '세존'이라는 명칭과 세존신앙은 경상도지역에 강하게 남아 있다.

**내용** 세존은 본래 불교의 신이다. 세존은 불법(佛法)을 보존하며, 불법에 귀의하는 구도자를 인도하는 제석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속에서도 세존굿(또는 제석거리)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제석신과는 달리 생산신의 성격을 띤다. 가신(家神)으로 섬겨지는 세존은 대체로 조상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존은 성주와 더불어 집안을 다스리는 신, 가정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세존은 삼신과 조상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불교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세존에게 올리는 제물에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세존은 불교의 신이기 때문에 생선과 육류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지켜지고 있다.

**지역사례** 전라도지역에서는 세존을 흔히 '제석'으로 일컫는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세존의 와음(訛音)인 '시준'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작은 단지 안에 곡물을 넣고 한지로 입구를 봉한 후 안방 시렁 위에 모셔놓으며, 집안의 주부가 매년 10월 무렵에 간단히 제물을 장만하여 제사를 올린다. 가정에 세존단지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면 평안하다고 여긴다. 단지 형태로 모셔지는 시준은 조상이라는 상징물이다.

경북 경주지역에서는 세존이 조상신과 삼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주시 성동동의 한 가정에서는 시아버지가 딸만 일곱을 두고 아들을 보지 못하자 백일기도를 해 아들 두 형제를 낳은 후 세존단지를 모시게 되었다. 그 후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가 세존단지를 없앴다가 손자들이 자주 아파 다시 모셨다. 천군동의 한 가정에서도 세존단지는 자식을 불려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세존에는 자식을 불려주고 육아를 관장하는 삼신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존단지의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성심성의껏 모시는 석가세존님'이기 때문이라는 까닭에서이다. 세존단지를 모시는 여성들이 인식하는 신앙의 비의성(秘儀性)과 신성성을 볼 수 있다.

세존은 명칭에서 불교의 제석신을 일컫고 있지만 실제 성격은 조상신과 삼신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무속의 제석굿거리에서 기원 내용이 자식발원과 수명장수인 것처럼 가신으로서 제석의 기능 역시 같다. 이러한 기능적 요소로 인해 제석신(조상신)과 삼신이 동일시되어 모셔지고 있다.

**의의**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이래 불교와 민속신앙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세존은 본래 불교에서 섬기는 신이지만 민속신앙과 불교의 융화로 가신의 대상이 되었다. 제석신앙은 불교 전래 이후에 재래의 천신신앙(天神信仰)과 혼합되어, 현재 가신신앙에서와 같이 명칭은 세존이지만 기능과 성격은 조상신과 산신(産神)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경주지역의 세존신앙(황경순, 불교고고학 3,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3),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황경순(黃慶順)

시준단지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993.2.6, 배도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989.5.18, 배도식

## 세존단지

상호참조 세존(322쪽)

**정의** 작은 단지 안에 곡물을 넣고 한지로 입구를 봉한 뒤 안방 시렁 위에 모셔놓는 세존의 신체.

**내용** 세존단지는 시준단지, 시주단지, 세존단지, 세존, 조상단지, 부루단지 등으로도 불린다. 세존은 성주와 더불어 집안을 다스리는 신이며,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기도 하다. 세존단지에 쌀을 갈아 넣는 날에는 밖에서 죽은 귀신[客死]도 이 날 제사상에 모여서 먹고 간다고 한다. 이것은 곧 시준이 조상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세존의 성격은 삼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불교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세존에 올리는 제상에는 밥, 콩나물, 두부, 과일, 정화수 등을 차린다. 생선을 포함해 육류는 올리지 않는다. 불교의 신인 부처님이므로 고기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 때문이다.

세존단지는 꼭 모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모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세존단지를 잘못 모시면 집안이 편안하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모시고 있다.

**지역사례** 경북에서는 세존이 대부분 단지 형태로 모셔진다. 세존단지 안에는 찐쌀을 넣으며,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하면 단지 안의 쌀을 햅쌀로 갈아준다. 세존에게 올리는 상은 방바닥에 차린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간단히 비손하고, 설을 비롯한 명절 때에는 밥을 올린다. 단지 안의 묵은쌀은 밥을 지어 남을 주지 않고 가족끼리 먹는다. 단지 안의 쌀을 갈아줄 때에는 상을 차리고 간단히 비손을 하기도 하지만 쌀만 갈아주고 비손만 하는 가정도 있다.

시주할매가 자손들에게 돈이나 재물을 주는데도 자손들이 이를 몰라서 사고가 나거나 아픈 사람이 생겨 재물이 나간다든지 하면 시주할매를 모셔서 앉힌

다. 시주할매는 보통 안택을 할 때 앉힌다. 이때 의례를 하는 집에서는 부정이 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전에는 일주일 정도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에서보다 굿당에서 안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주할매를 모시러 오는 당일에 부정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정도로 정성을 들인다.

경주지역에서는 세존이 삼신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불교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방아에 절구를 사용하여 쌀을 찧었으나 지금은 집집마다 간이 방아가 있어서 편리해졌다. 세존단지에 갈아 넣을 쌀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딜방아가 없는 가정에서는 절구에 찧어서 쌀을 갈아 넣었다. 쌀은 음력 시월의 손 없는 날을 택하여 갈아 넣는다. 구월 구일 중구제사를 지낼 때에 세존단지의 쌀을 갈아 넣기도 한다.

세준(시준)은 집안의 조상으로서 윗대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하며 몇 대 조상인지 모를 만큼 오래된 조상이라고 한다. 조상신령이기 때문에 큰집에서 모시며, 신체는 쌀을 채운 단지이다. 그러나 단지를 모시지 않더라도 '공중시준'이라 하여 시준이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단지 안의 쌀은 10월에 일 년 농사를 지어 깨끗하게 정성을 들이고 햅쌀로 갈아준다. 그리고 묵은쌀은 밥을 해서 먹는다.

설에는 세배를 받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몸을 정갈히 한 뒤 세존에게도 떡국과 반찬을 장만하여 놓는다. 그런 다음 자손들에게도 절을 시킨다. 이는 제사를 모시기 전에 시준을 먼저 위하는 것이다. 추석에는 떡을 장만해서 시준 앞에 놓는다. 그러나 기제사 때에는 별도로 음식을 차리지 않는다. 최태조 씨 댁에서는 시준단지의 쌀을 갈아주면 묵은쌀을 햅쌀과 섞어서 밥을 해먹는다고 한다. 이때는 국과 찌개도 하지 않고 다른 반찬도 하지 않으며, 오직 나무새(나물)만 해서 먹는다.

한 가정에서는 세존단지의 쌀을 갈고 묵은쌀로 밥을 해서 나무새와 물을 올리고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으나 지금은 쌀을 갈아주고 나서 밥을 하지 않고 물만 떠놓는다고 한다. 평소 외부에서 떡이나 음식이 들어오면 시준에게 먼저 갖다 놓았다가 먹는다.

청도지역에서는 세존을 시준단지라고 한다. 박영희 씨 댁에서는 작은방 구석에 선반을 달고 단지를 올려놓았다. 단지는 한지로 피봉을 하고 실타래를 올려놓았다. 이 실타래는 자손의 수명을 의미한다고 여기며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모시고 있다. 도중에 한 번 실타래를 바꾸어 주었다. 너무 오래되어 실타래가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헌 실타래는 옷을 짓거나 이불을 꿰매는데 사용했다.



시준단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김명자

세준의 신령으로 죽은 남편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세준을 모시지 않았다. 세준은 큰집에서만 모시다가 큰집의 형님이 죽으면서 더 이상 세준을 모시지 않게 되어 형님의 옷가지 등을 태울 때 세준단지를 던져서 깨뜨렸고 그 안의 쌀도 태웠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로 몸이 계속 아파서 '할배(백태순 보살)'가 세준을 모시면 좋다고 하여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세준을 모시면서 굿을 하지는 않았다. 시장에서 단지를 사와서 쌀을 넣었다. 처음에는 안방에 세준을 모셨으나 집을 고치면서 아들 내외에게 안방물림을 하고 건넌방으로 옮기면서 세준도 함께 옮겼다.

성주군 벽진면 수촌2리의 한 가정에서는 현재 안방에 단지를 모시고 있다. 이를 시준단지라고 한다. 이 댁에서는 설에 떡국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별도로 단지 앞에 떡국을 올리지는 않는다. 제보자의 친정에서는 삼신단지를 모셨다. 단지에는 실타래를 두르고 고깔을 씌웠다고 한다. 시집을 왔을 때 시댁의 단지도 고깔을 씌웠기에 제보자는 삼신단지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살이 시주할매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보살을 초빙할 적에는 고깔을 접어서 씌우지만 보살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쌀만 갈아주고 피봉만 새로 한다.

보살에 따르면 시주할매는 여씨 집안의 윗대 어른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시주할매를 시증조모라고 여기고 있었다. 일 년에 한 번 신수를 보러 가면 시주할매에 대해 "시주할매는 시집을 와서 자녀를 두지 못하고 남편이 후처를 두었는데 자기가 낳은 자손이 없으니까 제삿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웃줄에 앉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웃줄에 앉고 싶다는 것은 가정의 제일 위에 앉아서 혼이나마 어른 노릇을 해야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제보자가 시집을 왔을 때부터 모시던 단지가 시주할매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당시는 큰방 구석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단지를 모셨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짓고 이사하면서 단지를 치웠다가 그 후 집안에 우환이 생기자 예전에 위하던 것을 다시 모시면 좋겠다 싶어 새로 모셨기 때문이다. 단지는 관음사 보살이 새로 모셔주었으며 이때 단지를 시주할매라고 일러주었다.

청도지역의 한 가정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세존단지를 모시고 있으며 그 전에 모시던 단지를 없앴다가 다시 모시기 시작했다. 세존을 다시 모시게 된 것은 조상을 모시면 좋다는 무당의 권유를 받아들여서이다. 단지 안에는 쌀이 들어 있으며, 여느 집들과는 달리 단지에 고깔을 씌워놓았다. 세존은 옛날 조상할매라고 하며 이 댁의 시준은 여느 집들과는 달리 신격이 구체적이다. 현재 모시는 시준은 4대할매라고 한다. 할매가 자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드리고, 후손들이 잘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세존을 '부루단지', '시준단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존단지의 쌀은 일 년에 한 번 갈아 넣는다. 쌀을 갈아 넣을 때는 밥, 과일, 나물 등을 준비해서 성주와 조왕 앞에도 바친다. 주로 음력 구월 구일에 갈아 넣지만 좋은 날을 잡아서 할 때도 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을 잡아 쌀을 새로 사서 한다.

세존단지에 넣는 쌀은 매우 정성스럽게 만든다. 먼저 논에 가서 벼를 훑어와 바싹 말린 다음 쌀을 찧어내고, 이 쌀을 다시 볶는다. 쌀이 덜 마른 상태에서 단지에 넣으면 점이 생기는 등 변질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쌀을 볶아서 넣어두면 일 년 열두 달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조상단지라고 한다. 집안에서 부녀자들이 조상을 모신다. 이 마을에서는 '지앙님네', '지앙 모신다'고 부른다. 조상단지는 모시는 집이 따로 있다. 주로 장남 집에서 모시며, 간혹 점을 봐서 모시라고 하면 점쟁이의 말에 따라 집안에서 모시기도 한다.

조상단지는 작은 단지에 쌀을 담아 안방 시렁 위에 올려두는 형태로 모신다. 단지 안에는 쌀을 넣어둔 뒤 그 위를 한지로 덮고 다시 단지 뚜껑을 덮는다. 단지 안의 쌀은 매년 깨끗한 날을 받아 그해 수확한 첫 쌀로 가장 먼저 갈아놓는다. 쌀을 갈기 전에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안방 시렁 위에 단지를 올려두고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점쟁이가 단지를 모시면 집안이 좋다 해서 모시는 경우도 많다. 단지 안에는 쌀, 삼색실, 글씨가 적힌 한지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단지 입구를 백지로 덮고 그 위로 단지 뚜껑을 덮어 두었다.

조상단지는 집안 남자들이 만질 수 없고 어머니나 할머니만 다룰 수 있다. 조상단지는 한 개 내지 집안에 따라 두 개를 모시기도 한다.

단지는 매년 그해 올벼심리(올배심리)한 쌀을 넣어두고, 이어서 그해 처음 수확한 쌀을 넣어둔다. 쌀은 일 년에 한 번 갈아놓는다. 갈 때 단지 안의 쌀을 모두 털어내지 않고 그 위에 쌀을 조금 얹어놓는 식이다.

전남 구례지역에서는 조상단지를 보통 재취로 들어가는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다. 남편의 전 부인을 위하는 것이다. 재취로 오는 여자는 시집오면서 작은 동우나 항아리에 쌀을 담아 안방구석이나 시렁에 얹어 놓고 "나 재취로 왔지만 나 잘 봐주쇼."라고 빈다. 동우에는 쌀을 가득 담고 깨끗한 베로 덮어둔다. 쌀은 일 년에 한 번, 보통 새 쌀이 나오는 시기인 추석 무렵에 갈아준다. 대개는 올벼심리를 할 때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모시는 조상단지는 자기 대에서만 모시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조상단지를 모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혼자서만 몰래 모신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세존단지를 모실 때 방의 한쪽 구석에 선반을 들여서 모신다. 조그마한 단지에 고깔 세 개를 접어서 씌워놓는다. 단지 안에는 쌀, 실을 넣어둔다. 단지 안에 넣어둔 쌀은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갈아주며, 그 안에 들어있는 쌀로 떡을 해먹는다. 시준단지만을 따로 위하지는 않으며, 안택할 때 한꺼번에 빌면서 위한다.

의의 세존은 가정마다 모시게 되는 배경이나 모시는 대상이 다르다. 세존을 모시게 되는 계기는 여성이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점이나 굿을 통해 모셔오는 경우도 많다. 세존은 조상신이라고도 하며, 집안의 조상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성격도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조상신과 같은 신격으로 보기도 하고, 조상신과 다른 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세존으로 모셔지는 신은 대부분 젊어서 죽은 사람이 많다. 따라서 조상단지, 즉 세존단지를 모시면서 죽은 조상을 위로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황경순(黃慶順)**

## 소금

정의 제액 · 정화 · 축귀의 주술성을 띠는 것으로 용왕먹이기, 객귀물리기 등 가정신앙의 각종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물.

내용 소금은 가정신을 모시는 정기의례 또는 집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부정기의례에서 제물과 주물(呪物)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금을 사용하여 액을 물리치고 장소를 정화하는 행위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남 가덕도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산모방의 손 없는 곳에 제왕님을 모시는 삼신상을 차린다. 아이를 낳은 지 첫이레가 되면 삼신상에 쌀, 미역, 정화수 외에도 소금과 고춧가루 등을 얹어 놓고 "제왕님네, 제왕님네, 어진 제왕님네, 이런 것을 다루고 먹는다 하더라도 탈 잡지 말고, 미련한 인간들을 해치지 말고, 잘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비손을 하였다. 양산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 아침에 용왕먹이기를 할 때에 소금을 제물로 사용한다. 제터에서 소금, 쌀, 마른 명태, 팥 등을 차려놓고 용왕님께 비손을 한다. 제의가 끝나면 쌀과 밥은 종이에 싸서 용왕님 흠향하라고 물에 던지고, 소금과 팥은 사방에 뿌린다. 이때 소금은 용왕에게 바치는 제물인 동시에 제터를 정화하는 주물이다. 소금의 주술성을 통하여 용왕신이 살고 있는 제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다.

객귀물리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치병의례이다. 객귀물리기를 할 때에도 소금이 제물로 사용된다. 전북 부안지역에서는 객귀를 물릴 때 밥을 담은 접시 세 개, 소금을 담은 접시 세 개, 된장을 담은 접시 한 개를 제물로 차린다. 객귀가 들린 방향으로 이 그릇을 놓은 뒤에 점쟁이가 객귀를 물리치는 의식을 한다. 이튿날 아침 접시에 담은 밥, 소금, 된장을 싹 비우고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 객귀가 물러간다고 여겼다. 무안지역에서는 바가지에 소금, 된장, 밥을 물에 섞어서 객귀 들린 사람 옆에 둔다. 그러고 나서 "헛세, 헛세"라고 외치면서 칼로 객귀 들린 사람의 머리를 위협하다가 대문 쪽으로 던진다. 객귀를 물릴 때 소금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소금이 귀신을 쫓는 축귀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처녀귀신과 총각귀신이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부모를 괴롭힐 때 주문을 왼다. 주문의 내용 가운데에는 '나가지 않으면 무쇠구멍에다 넣어 소금 염떡으로 아가리를 꽉 찧어서'라는 구절이 있다. 무쇠구멍에 넣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잡귀의 입에다 소금으로 만든 염떡까지 넣어서 귀신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는 주문이다. 염떡은 잡귀를 위협하여 도망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소금은 집안의 화재를 예방하는 의식, 즉 화재막이를 할 때도 사용된다. 전북 정읍지역에서는 대보름날 새벽에 쌀을 씻을 때 쌀뜨물을 받아둔다. 여기에 식구들이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숯불의 재와 소금을 떠서 세 번씩 넣고, 고추도 세 개 넣는다. 다음에는 가족 모두 화재 없이 무사태평하게 해달라고 빌고나서 "화재뱅이 하자, 화재뱅이 하자."라고 하면서 소금이 들어간 쌀뜨물을 집안 곳곳에 뿌린다. 전주지역에서는 대보름 전날인 열나흗날 저녁에 집에 불이 나지 말라고 지붕에 소금물을 뿌린다. 이것을 '불맥이'라고 부른다. 소금은 바닷물을 상징하며, 불을 제압하는 용신의 뜻도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화재를 막는 의식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금은 정월에 안택을 할 때 부정을 치는 의식에서 이용된다. 경남 남해지역에서는 안택을 하는 날 아침에 잡귀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사립문 밖에 황토를 뿌린다. 안택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명당이 터전에 모든 아귀는 쫓아내고 재수 대통 안아 주이소."라고 하면서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린다. 소금을 뿌려서 액을 제거하고 부정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을 물리치는 주술적 행위에서도 소금을 뿌린다. 소금이 일정한 장소에 뿌려져 부딪침으로써 그 장소가 정화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신성함을 유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소금의 흰색깔은 부정을 물리치는 순백을 뜻한다. 소금은 장소를 정화하는 청정의 주물인 것이다.

가메이찌호꼬(龜井千步子)에 따르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바닷물에 몸을 씻어 부정을 없애는 목욕재계 행사에서 기원한다. 축귀와 제액을 위한 소금뿌리기 관습이 목욕재계의 대용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바닷물은 모든 물질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태초의 모성(母性)을 상징한다. 따라서 해수 목욕에는 부정을 없애는 행위인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도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을 소량의 물과 함께 자신에게 뿌리는 관습이 있다. 장례식 부정을 없애기 위해 바닷물을 자신의 신체에 뿌려서 정화하고 집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염수(鹽水)와 해수(海水)에 몸을 담그고 소금 또는 소금물을 뿌리는 일은 원래 바닷물에 목욕을 하던 관습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본래는 소금이 아닌 해수를 사용하였지만 점차 해수의 표상으로서 소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독립되어 보편화되면서 무엇보다 이것이 제액, 정화, 축귀를 위한 주술적 의식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참고문헌** **가덕도의 기층문화**(김승찬, 한국문화연구소, 1993), **鹽の民俗學**(龜井千步子, 東京書籍, 1980),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유승훈, 민속원, 2008),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8**(문화공보부, 1977),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유승훈(柳承勳)**



## 소삼신

상호참조 군웅(61쪽), 소삼신모시기(328쪽)

정의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도와주는 신.

내용 소삼신은 대부분 신체(神體)가 없는 건궁이다. 소삼신은 평상시에는 모셔지지 않다가 새끼를 낳기 전후 사흘 정도 일시적으로 모신다. 소가 새끼를 낳을 기미가 있거나 난산인 경우 외양간 앞에 상을 차리고 깨끗한 물을 올려놓은 뒤 아무 탈 없이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빈다. 소가 새끼를 낳는 데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는 밥을 해놓고 소삼신에게 빌고 나서 그 밥을 소에게 주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가 새끼를 낳거나 아플 때 밥과 반찬을 차려서 구정물을 떠 놓고 소삼신에게 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금줄에 백지를 매달아 외양간이나 대문에 금줄을 치고 사흘 동안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특히 상갓집을 다녀온 사람이 부정하다고 한다. 송아지를 낳을 때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송아지가 젖을 빨지 못한다. 송아지를 낳은 뒤에도 주인이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무언가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외양간에 들어오면 어미 소가 알아채고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다. 또한 송아지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소가 금방 알아채고 주인을 내친다. 낳은 송아지가 이상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우마대장경을 읽히기도 한다. 구유가 들어오거나 외양간을 고칠 때 길일을 택하여 소와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

**소삼신**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황헌만





새끼 낳은 소
천진기

을 '소삼신 동정한다.'라고 말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산' 또는 '군웅'이 집안에서 소를 위해 모시는 가신(家神)이다. 이 지역 군웅의 신격은 일반적으로 소삼신 정도이다. 산과 군웅은 대부분 소가 있는 마구간 앞에 모시고 있으며, 소가 탈이 나거나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 산이나 군웅 앞에서 빈다. 산은 외양간 주변에 한지를 접어서 매달아놓고 소가 새끼를 낳거나 병이 났을 때 그 앞에서 물을 떠 놓고 빈다. 신체는 보통 한지를 접어서 모시거나 왼새끼를 꼬아서 둥글게 묶어 걸어둔다. 평소에 삼베를 짜면 그 수지(첫 생산물)천을 끊어서 걸었다. 밖에서 새로운 천이 들어오거나 육고기를 집 안으로 가져왔을 때도 조금씩 떼어서 이 새끼줄에 끼워둔다.

**참고문헌** **산메기 현지연구**(김진순, 역사민속학 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한국민속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문화재관리국, 1976).

**필자** **천진기(千鎭基)**

## 소삼신모시기

상호참조 소삼신(327쪽)

**정의** 아기의 출산과 성장을 주관하는 삼신이 있듯이 소에게도 소삼신이 있다고 여겨 생육을 담당하는 소삼신에게 행하는 제의.

**내용** 소를 키운다고 하여도 모든 집에서 소삼신을 모시지는 않는다. 비정기적 제의과 정기적인 제의가 있다. 정기적으로 정월대보름이나 가을고사 때 다른 가신과 함께 밥이나 떡을 올리는 경우이다. 비정기적인 제의는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난산의 기미가 보이면 외양간 앞에 밥과 나물을 장만하여 차려 놓는다.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금줄에 소깐(솔방울)만 꽂아서 마구간에 사흘 동안 쳐 놓기도 한다. 소가 새끼를 순산하지 못하면 외양간 앞에 물을 떠다 놓고 빈다. 소도 사람처럼 삼신이 있어서 삼신에게 비는 것이다. 빌 때는 소 여물통 위에 물 한 동이를 올려놓고 비손한다. 특별히 날을 정해 모시지는 않지만 해물이나 육붙이를 오랜만에 사 오거나 외부에서 얻어 오면 먼저 소삼신에게 올렸다가 내려서 먹는다. 소삼신은 송아지를 가지게 하거나 빨리 자라게 한다고 믿는다. 소삼신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면 송아지를 낳아도 금방 죽는다고 여긴다.

소 구영(구유) 앞에다가 문어를 삶아 놓거나 쇠고기를 사다 놓고 대접하기도 한다. 소귀신이 문어를 좋아해서 "문어 장사가 그 집에 들어왔다가는 문어를 팔고 가야지, 못 팔고는 못 간다."라는 말도 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소외양간에서 굿을 하여 잘못을 빌고 다시 모시기도 한다. 강원도지역에서 소삼신은 '소귀신', '군웅', '소군웅', '소왕신' 등으로도 불리는 등 혼재되어 있다.

**지역사례** 제주도지역에서는 쇠막(외양간) 액막이로 부적을 붙이기도 하였다. 소가 아프면 스님이 청해서 빌어주기도 한다. 이때 쇠막ᄀᆞᄉᆞ는 없다. 송아지를 기를 때 갑자기 송아지가 뒤로 자빠져서 뻣뻣해질 경우 스님에게 경을 읽게 하여 풀어내기도 한다. 이때 쇠막을 새로 지으면서 못질을 하였을 경우 동티(동토)가 나서 송아지에게 탈이 난다고 여긴다. 송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잘 먹지 못하거나 배설하지 못할 때도 동티가 났다고 여겨 쌀뜨물을 뿌려서 비손하여 낫게 한다. 쇠막을 함부로 고치고 동티나 나면 소가 아프거나 죽기도 한다. 이 경우 주로 산에 가서 빌어준 뒤 시렁목 석 자 정도를 말아서 태워 준다.

제주도지역에서 정월에 하는 올레대워 때 심방을 청해 밥 한두 숟가락, 쌀 한 숟가락, 제물 하나를 종이에 싸서 마구간 위의 공간에 끼워 두도록 하였다. 집안에 여느 신들과 달리 마귀신에게는 제물을 싸 가지고 올리면서 위하도록 하였다.

강원도지역에서는 대체로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산'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신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을 받는다.'라며 외양간에 흰 종이를 걸어서 산의 신체(神體)로 삼고 소의 건강을 빈다. 특히 산메기를 하러 산에 다녀오면 외양간에 걸린 흰 종이를 교체해서 걸어 두거나 또는 베 한 조각을 걸어 놓기도 한다. 소는 산에 풀어 놓고 먹이기 때문에 산신이 잘 보살펴 주어야 탈 없이 잘 자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정에 따라서는 집안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고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마구에 놓았다가 먹어야 탈이 없고, 그냥 고기를 먹었다간 배앓이를 한다는 말이 있다. 소가 새끼를 가지지 못하면 외양간 앞에 물 한 동이를 놓고 빌면 소가 수태를 한다는 말도 있다.

소가 잘 먹지 않고 며칠씩 병을 앓게 되어 점을 보아 액이 끼었거나 하면 밥을 냄비에 지어서 소 머리맡에 놓고 빈다. 이때 "밥을 해 놨으니까 반가이 먹고 소가 빨리 낫도록 해 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소가 여물 잘 먹고 죽 잘 먹게 해 달라."라고 빌고 나서 칼등을 들어서 돌려 던진다. 무당을 불러다가 빌기도 한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왼새끼로 만든 금줄을 외양간 앞이나 대문에 사흘 동안 쳤다. 송아지를 낳았을 때도 상주나 부정한 사람이 오면 탈이 나기 때문에 잘 가려야 한다고 여겼다. 주부들은 마구간 앞에 물을 떠 놓고 소삼신에게 송아지가 탈 없이 잘 크도록 빌고, 송아지가 아플 때에도 물을 떠 놓고 빌었다.

송아지를 낳으면 마구에 물을 한 버치 떠 놓고 소삼신에게 "소삼신, 어진 삼신"이라고 하면서 송아지가 젖을 잘 먹고 병 없이 크도록 빈다. 송아지가 젖을 잘 안 먹을 때에도 물을 떠 놓고 빈다. 그러나 송아지를 낳았을 때 금줄은 치지 않는다.

소삼신과 사람삼신이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가 새끼를 낳은 뒤 송아지가 젖을 잘 물지 못하면 물을 떠 놓고 빈다. "사람삼신이나 소삼신이나 영험하시니 새끼소 젖 좀 잘 먹게 해 주소."라고 빈다.

소도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출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 주인이 장사(葬事)에 가면 송아지의 눈이 빨개진다고 한다. 또한 새끼를 낳고 사흘까지는 마당도 쓸지 않아야 한다. 이 기간에 물을 떠 놓고 관을 차린다. 소는 '삼일칠'을 한다고 한다. 송아지를 낳고 사흘째 되는 날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레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정에 따라서는 사람처럼 삼칠일 동안 외양간 앞에 금줄을 드리우기도 하였다.

소가 새끼를 낳은 뒤 돌보지 않으면 주인이 소삼신에게 빌어야 한다. 물 한 그릇을 외양간 구석에 떠 놓고 소삼신께 빌면 어미 소가 새끼를 돌본다고 한다. 소가 아프거나 잘 다니다가 다리를 다치는 수가 있다. 이때에는 소에게 물 한 그릇을 떠 주고 '마구주당'이라고 빈다.

충남지역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왼새끼를 꼬아서 대문에 드리운다. 금줄은 사흘이 지난 뒤에 거둔다. 이것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해 두는 것이다. 소가 부정을 타면 소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고 새끼를 발로 찬다. 이런 경우에는 상에 물을 떠서 외양간 구유 앞에 놓고 "미련한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소삼신이나 사람삼신이나 똑같은데 잘못했습니다."라고 빈다. 아침마다 두세 차례를 반복하여 정성을 들이면 낫는다.

사람이 죽어서 죽은 부정이 들면 소가 송아지를 발로 차고 젖을 주지 않는다. 이때 외양간 옆에 부정상을 차려서 소 부정을 풀어 주어야 한다. 부정상 위에는 미역을 넣어 소죽을 한 바가지 쑤어 놓고, 청수에 고추를 세 개 잘라 넣어 부정물도 올린다. 그리고 된장 한 접시, 파란색 · 빨간색 등 무색 헝겊도 상 위에 함께 놓아

소삼신모시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황헌만



둔다. 부정상은 주인이 차리지만 비손은 무당이 와서 해주어야 잘 듣는다. 비손을 하고 나서 소죽은 소에게 먹이고 상 위에 올린 나머지 제물은 대문 밖에 버린다.

송아지를 낳을 조짐이 보이면 물을 담은 그릇에 재를 세 번 집어넣어 상에 받쳐서 외양간 앞에 가져다 둔다. 송아지를 낳은 뒤에는 그 물을 대문 밖으로 버린다. 부정이 타지 말라는 의미이다.

외양간에 키를 거꾸로 세워 놓고 그 앞에 미역국, 밥, 물을 한 사발씩 올리면서 소금도 한 접시 놓는다. 부정이 가시기를 빈 다음 소금을 제외한 제물은 모두 섞어 소에게 먹인다. 소금은 사흘 동안 그대로 둔다. 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순산하라는 의미에서 외양간 앞에 물과 콩을 한 그릇씩 가져다 놓는다.

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콩, 팥, 청수를 상 위에 받쳐 외양간 앞에 가져다 놓는다. 소삼신이 삐뚤어지면 어미가 새끼에게 젖도 주지 않고 매우 까다롭게 군다. 가정에 따라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도 사람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미역국을 올리기도 한다. 부정이 타지 않도록 금줄에 흰 종이를 끼워 드리우기도 한다. 외양간 앞에 숯, 콩, 베를 놓아둔다. 송아지 출산 후 사흘 동안 초상집에 가지 않는 등 부정을 가린다.

상주가 새끼 낳은 것을 보았을 때 부정이 잘 든다고 여긴다. 집 주인이 행할 때는 밥, 미역국, 물, 된장, 누런 콩 등을 상 위에 받쳐서 외양간 앞에 놓고, 물이 담긴 그릇에 고추와 숯검정(숯) 세 개씩을 넣어서 함께 놓고 비손을 한다. 이렇게 부정풀이를 하고 난 뒤 미역국과 밥은 어미 소에게 준다. 사흘 동안 반복하면 부정이 가신다. 독경을 할 줄 아는 이를 불러서 할 때에는 외양간 앞에 밥, 미역국, 된장을 놓고, 함지박에 물을 담는다. 그 안에 바가지를 엎어 놓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경문을 읽는다.

소도 새끼를 낳으면 부정을 가려 주어야 한다. 소가 새끼를 낳을 즈음이 되면 외양간 앞을 천으로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한다. 소가 새끼를 잘 낳도록 하기 위해 물이 들어 있는 바가지에 고추를 넣어서 재 한 접시와 함께 외양간 앞에 놓은 다음 "우수님 새끼를 선선히 잘 낳게 해 달라."라고 한다. 새끼를 낳으면 재는 아무 곳에나 버리고 물은 구유에 부어 준다.

부정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 소가 새끼 낳는 것을 보면 어미소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고 발로 찬다. 이런 경우 부정풀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집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선거리를 부른다. 밥과 물을 상 위에 받쳐 외양간 앞에 놓는다. "인간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소삼신할머니가 소젖도 잘 먹이고 잘 키우게 해 주십사."라고 축원하면서 비손한다. 비손을 하고는 밥과 물을 소구수(구유)에 부어 주어 어미가 먹게 한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대문 앞에 열십(十)자로 짚을 깔고 사기그릇에 물을 떠다가 재를 세 번 집어넣어 가져다 준다. 이웃에서는 이렇게 하면 소 산가(産家)임을 알고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다. 대문 앞에 떠 놓은 물은 이레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버린다. 가정에 따라서는 대문 양쪽에 황토를 세 무더기씩 놓기도 한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가을고사 때 팥 시루를 시루째로 외양간에 옮겨 놓았다. 소나 말이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신인 외양간 구영에게 가을고사 때 콩떡, 팥떡을 반반씩 접시에 담아 가져다 놓는 정도이다.

**삼신돌**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1998, 코리아루트









**기타** 외양간에 돌을 걸기도 한다. 이는 암소를 낳으라고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울에 구멍 뚫린 동그란 돌을 실에 꿰어 외양간에 걸어 둔다. 향후 소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원하며 걸어 두는 것이다. 이 돌을 '소왕신'이라고도 한다. 소가 아프면 소왕신에게 물을 떠 놓고 빌면서 빨리 낫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밖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소왕신에게 먼저 올렸다가 가족이 먹는다. 그러지 않고 바로 먹게 되면 소나 가족이 앓게 된다고 한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대문에 대나무 가지를 걸어 둔다. 이를 '금석'이라고 불렀다. 흉사를 치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다.

**의의** 농가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자 노동력이고 식구였다. 소가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삼신이 발달되었다. 소는 집안의 큰 재산이며 사람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가 반살림'이라 하여 가족처럼 여겼다. 이것은 소가 농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늠하게 해 준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황경순(黃慶順)

## 손

**정의** 방위와 날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귀신.

**역사** 손이란 용어가 손님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손님을 공경하고 접대의 두려움과 관련된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술서나 팔괘(八卦)의 손괘(巽卦)에서 왔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손은 피해를 주는 바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민속에 유착되어 여러 흔적을 남기고 있다.

**내용** 손은 크게 방위와 시간에 따라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위는 중국술서에 따른 일정한 방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을 의미한다. 즉 바람은 농경시대 때 농사에 좋지 않은 의미로 인식되어 부정적이고 폐해적으로 작용했다.

손은 팔괘로는 여섯 번째 괘(卦)로 괘의 맨 아래 효(爻)만 둘로 나눠진 모양이다. 상형은 ☴로 바람을 상징하며 손하절(巽下絕)이라고도 한다. 64괘의 57번째 괘가 손이다. 바람을 나타내는 ☴이 위아래로 이어진 것으로 중풍손(重風巽)이라고도 한다. 바람과 다름없는 상징이다. 24방위의 하나인 남동을 중심으로 한 115도 이내의 방위로서 진방(辰方)과 사방(巳方)의 사이를 가리킨다. 또한 팔방의 하나인 남동을 중심으로 한 45도 이내의 방위를 이르기도 한다. 24시의 열째 시로, 오전 여덟시 반부터 오전 아홉시 반까지이다.

또한 손방위와는 달리 손은 일정한 금기의 날을 지칭한다. 민간에서 '손 없는 날'로 널리 알려졌으며 '손 있는 날'은 꺼리는 날이다. 다음의 일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신라 때 박찬이라는 관리가 아버지 제사에 가다가 도중에 도적을 만나 의복과 돈을 모두 탈취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 묘법스님을 만나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묘법은 "어제가 3월 초 이틀인데 동쪽으로 갔으니 이는 반드시 손의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손이 든 방위는 날 수에 따라 네 방위로 정해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기도 하다. 음력으로 1일과 2일은 동쪽, 3일과 4일은 남쪽, 5일과 6일은 서쪽, 7일과 8일은 북쪽에 각각 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손이 없는 날로 믿고 있다. 혼삿날을 잡거나 집안의 신주나 가정 신체를 모실 때 그 방위를 가려 손 없는 날이나 방위에 모신다. 오늘날에는 주로 이삿날을 손 없는 날로 잡는 민풍이 따른다. 아직도 시골에서는 손 있는 날 수조하거나 못을 박거나 출행을 하면 병이 나거나 손해를 본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왕궁이 있는 도성은 모든 살이 작용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티가 났을 때는 왕(王)자 셋을 쓰고 저승세계의 귀신을 제거하기 위해 거꾸로 붙여서 액막이를 한다.

손은 중국술서에 나타나는 태백살과도 연관이 있

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하면 사방의 금기를 받아 우주의 숙살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살은 죽이는 기운이나 신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을 맞으면 급사한다고 한다. 살은 종류가 다양하다. 모든 방위에 머무르지 않고 태세(太歲)와 월건(月建)에 따라 각 방위를 다니면서 그 방위의 흉사를 맡고 있다. 방위는 사람이 태어난 연명에 따라 길방과 흉방이 있고, 태세의 운행에 따라 길방과 흉방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손은 해나 달과는 무관하다. 문헌에 의하면 태백살의 기원은 인도의 밀교에서 만든 숙요경(宿曜經)에 근거한다.

손과 방위에 따른 부정적 의미는 인간을 해치고 병들게 하는 신이나 귀신의 형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이 귀신은 그 출처와 방위를 알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손님신, 손각시, 손돌바람 등을 들 수 있다. 손님신은 천연두를 마마 혹은 손님으로 보고 손님신에 의례를 하는 것으로 손님굿에서 확인된다. 손님의 의미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부정적 신의 의미와 여러 측면에서 상응된다. 또한 손각시는 처녀에게 붙은 귀신으로 대단히 금기시되고 있다. 손각시에게 죽은 처녀는 특별한 장례 속에 따라 취급된다. 강화도의 손돌바람도 이와 관련이 있다.

손님은 천연두인 마마를 주관하는 신으로, 손님굿은 손님신에 대한 굿거리로서 무속제의의 한 명칭이다. 손님굿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별상거리, 호구거리, 손굿, 마누라 배송굿 등으로 불린다. 의술이 미진했던 과거에 천연두를 일으키는 손님은 대단히 위험한 신으로 간주되어 무속굿에서 제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래까지 손님굿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동해안일대와 호남지역이고 각각 별신굿, 씻김굿, 세습무들이 주관한다. 손님굿은 무속신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신을 대접하는 정도에 따라 신의 태도가 결정된다. 신을 정성으로 모시면 병을 곱게 앓게 하고 섭섭하게 대하거나 홀대하면 벌을 내린다. 손님굿 무가에 따르면 각시손님을 희롱한 사공은 사부자가 몰살을 했고, 손님을 홀대한 김장자는 외아들 김철웅이를 잃었다가 살렸다. 이는 손님굿을 지성으로 위하면 죽었던 아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위력을 보여준다.

손님의 본은 중국 남부의 강남 대왕국인데 강남국에서 대접이 소홀하여 대한국으로 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 손님신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홀대하면 벌이나 병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한다. 손님신은 압록강을 건너온다고 믿어졌으며 조선반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돌아갈 때는 말을 타고 가므로 말과 양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말은 싸리나무로 만들고 여기에 오쟁이를 실어 보내는 상징적 의례를 한다. 이때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마부타령을 부른다. 손님무가가 끝나면 손님신에 대한 축원이 이루어지고 마을의 안녕과 어린이의 무병을 빈다. 바람처럼 떠도는 손님신은 흉방위 및 날을 따라 움직이는 손귀신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손각시도 같은 종류의 귀신이다. 혼기가 찬 처녀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한이 되어 주로 자기 또래의 혼기 찬 처녀를 괴롭히는 악귀, 손말명, 왕신, 처녀귀신이라고도 한다. 처녀에게 손각시가 붙으면 처녀는 병이 들거나 시달림을 당하다가 시집을 가지 못한다. 설화에 따르면 손씨가(孫氏家)의 규녀가 출가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씨는 규녀를 칭하며 손은 곧 손님이란 뜻에서 침해나 폐해를 말한다.

손각시 귀신을 방지하거나 퇴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먼저 처녀가 죽으면 손각시가 될 것을 두려워해 남성의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짚으로 만들어서 관에 넣거나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묻는다. 또는 관 주위에 가시나무를 넣고 묻기도 한다.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넣는 것은 죽어서나마 남성과 접촉한 것을 위안 삼으라는 의미이고, 거꾸로 묻거나 가시나무를 넣는 것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사거리의 길목에 묻기도 한다. 이때 머리 위에 체를 덮어씌워서 묻는다. 이유는 손각시가 체의 구멍을 헤아리던 중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처다보다 구멍 수를 잊고 다시 헤아리게 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주위에서 젊은 남자가 죽으면 허혼례(許婚禮)를 치러주기도 한다.

**의의** 손은 중국의 술서나 주역의 손괘에서 규정했던 바람이나 폐해의 의미가 확장되어 방위나 날짜에 따른 귀신으로 인식되었고, 나아가 무속, 민간, 설화 등에서 그 부정적 흔적을 남겼다. 오늘날까지도 손의 부정적이고 금기적인 의미는 살아있다. 손 없는 날과 방위를 가려 큰일(이삿날, 혼례날 등)을 수행하는 풍속과 무속의 손님신, 각종 살은 여전히 그 의미가 살아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공간과 문화**(이영진, 민속원, 2007), **동해안무가**(최정녀 · 서대석, 형설출판사, 1974), **영동지방의 가신설화와 주술가고**(김선풍, 관동어문학 1, 관동대학교 관동어문학회, 1978),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한국무가집**(김태곤, 집문당, 1980),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의 세계 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이정재(李丁宰)**

## 솔가지

**정의** 소나무 가지를 말하며 소나무가 지닌 상징성을 취해 그 가지로 부정을 쫓고 공간을 정화하며 생명력을 북돋우는 데 사용하는 제구. 주로 솔가지를 특정한 곳에 걸어 두거나 솔가지에 물이나 팥죽 등을 적셔 뿌린다. 이 밖에도 솔가지를 태우거나 던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내용** 솔가지를 벽사기복의 제구로 삼게 된 것은 나무가 지닌 특성에서 비롯된다. 소나무의 상징성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소나무는 수명이 길어 장생(長生)을 상징한다. 소나무는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의 십장생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나무이자 장생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송수천년(松樹千年) · 송백불로(松柏不老)라는 말은 각기 '천년을 사는 소나무', '늙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의미로, 장수하기를 기원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다. 도교에서는 소나무를 장생불사의 신선이 되기 위한 선식(仙食)의 대상으로 삼아 뿌리에 생기는 복령이나 솔잎, 솔방울, 솔씨 등을 즐겨 복용하였다. 강희안(姜希顔)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천 년이 지난 소나무는 그 정기가 청우(靑牛)가 되고 복귀(伏龜)가 된다."라고 하였듯이 수명이 오래된 소나무는 신령한 기운을 지녔다고 여겼다. 이처럼 거대한 노송(老松)의 위엄과 품격은 보는 이에게 신성성을 느끼게 하여 예부터 소나무를 '백목(百木)의 수장'이자 영수(靈樹), 신수(神樹), 상서목(祥瑞木) 등으로 숭배하였다. 소나무가 영의정의 품계를 부여받거나 각 마을의 신목(神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신령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래된 소나무는 마을을 지켜 준다고 믿어 그 앞에 가서 소원을 정성껏 비는 민속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나무는 사철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어 생명력과 절개를 상징한다. 사시사철 푸른 모습이 장생의 덕목과 더불어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로 여겨져 길상(吉祥)과 벽사(辟邪)를 기원하는 주된 매개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집 주변에 송죽을 심으면 생기가 돌고 속기(俗氣)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은 이러한 소나무의 상징성을 말해준다. 이와 아울러 추위와 눈보라에도 변함없이 늘 푸른 소나무의 기상이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아 '초목의 군자', '송죽과 같은 절개' 등의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고려시대의 보우 국사는 "소나무는 초목 가운데 군자이고 이를 사랑하는 이는 사람 가운데 군자"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선비들이 소나무를 시의 소재로 읊으면서 그 기상을 본받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소나무는 인간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신성한 나무라고 생각하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 곳에 즐겨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는 특히 소나무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소나무 아래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세상에 태어나 삼칠일(21일) 동안 솔가지를 끼운 금줄 속에서 보



**솔가지**
전북 무주군 적산면 북창리 내창마을, 2007
국립민속박물관

호를 받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다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삶을 마감한 것이다.

소나무의 상징성을 집약해 주는 것으로 성주신의 내력을 들 수 있다. 성주신은 가신(家神)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이 근원을 밝히는 〈성주풀이〉를 보면 성주신은 소나무의 신에 해당한다. 즉 성주는 본래 천궁에 있었는데,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강남에서 오는 제비를 따라 안동 제비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성주는 집짓기를 원하여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 산천에 뿌렸고, 그 솔이 점점 자라 재목감이 되자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며 자손번창과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 줄 반듯한 소나무를 가려 성주목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을 짓거나 이사한 뒤 성주신을 받아들이는 굿을 할 때도 가장에게 솔가지로 만든 성줏대를 잡게 하여 성주를 좌정시킨다. 이는 소나무가 곧 집의 근원이자 가정을 지키는 신의 근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나무의 신령함이 길조와 번성함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여겨 세시풍속, 통과의례, 제의 등 중요한 날에 다양한 벽사기복을 위한 주술적 방편으로 솔가지를 즐겨 사용하였다.

먼저 세시풍속에서 솔가지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설에서 대보름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시작할 때면 대문 앞에 솔가지를 세우거나 걸어 두거나 문 안팎에 뿌려 잡귀와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사기(史記)』에 "송백(松柏)은 백목지장(百木之長)이라 문려(門閭)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였고, 『당서(唐書)』에도 "정월 초하룻날 솔가지를 대문에 높이 걸어 둔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풍습은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평북 강계지역에는 정월 열나흗날 이른 아침에 솔방울을 사용하여 가축 번성을 비는 풍습이 전한다. 주부가 닭 부르는 소리를 내고 "이 집에 닭 잘 친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동(50마리), 두 동, 세 동, 백 동이나 쳤구나."라고 외치면서 마당에 솔방울을 뿌리면 그해는 닭이 잘된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노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달집태우기를 할 때도 솔가지가 공동체의 소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 구실을 하였다. 달집은 주로 솔가지, 대나무, 짚, 나뭇잎 등을 사용하여 원추형으로 만든다. 달이 떠오르면 달집에 불을 붙였고, 달집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 사람들은 농악이 울리는 가운데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이때 달집이 잘 타고 불빛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탈이 없을 것이라 믿었으며, 대나무와 솔가지가 타면서 내는 요란한 소리가 마을의 액을 쫓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보름의 달집태우기는 새해의 첫 보름날을 맞아 달을 향해 불을 피움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소망하고, 삿된 것을 정화하여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솔가지는 그러한 소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상징성을 발휘하는 셈이다.

음력 이월이 되면 바람신인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하여 이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영등할머니가 하강하여 승천할 때까지 한 달 내내 집 안에 장대를 세우고 정화수를 올린다. 이때의 장대는 신체(神體)인 동시에 영등할머니가 지상으로 하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장대는 주부가 직접 소나무나 대나무를 꺾어 만들어 세우게 된다.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월 초하루면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가정이 있다. 이때 솔잎이 붙어있는 솔가지를 잘라 부엌 선반이나 장독대 앞에 세워 두었다가 고사가 끝난 뒤 집 근처의 나무에 끼워 넣는다.

또한 이월 초하룻날은 '노래기날'이라 하여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날로 삼았다. 노래기를 없애는 방법은 집안 대청소와 함께 솔가지를 꺾어 지붕에 던지거나 콩을 볶으면서 주문을 외는 것이다. 이 풍습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솔가지를 사용할 때는 '노래기 침주기'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노래기 침준다, 노래기 침준다."라고 외치며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거나 처마 끝에 빙 둘러 꽂고, 주변의 검불을 모아서 태우기도 한다. 이때의 솔가지는 침을 뜻하여 노래기가 바늘처럼 뾰족한 솔잎에 찔려 도망간다고 본 것이다. 『사시찬요(四時纂要)』에는 "이월 초하룻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인 사경(四更)에 솔잎을 집 안팎에 뿌린다. 이를 급침(給針)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을 화조(花朝)라 하여 이른 새벽에 솔잎을 문간에 뿌린다. 속언(俗言)에 따르면 냄새나는 벌레가 싫어서 솔잎으로 찔러 사(邪)를 없애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음력 3월쯤의 곡우 때면 벼의 종자를 그릇에 담고 솔가지를 그 위에 덮어 놓는 풍습이 있다. 이는 상가(喪家) 등 궂은일에 다녀오거나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부정을 막아 소중한 씻나락을 잘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모심기를 끝낸 뒤 세 개로 뻗은 솔가지 위에 떡을 놓거나 솔가지에 작은 떡을 꿰어서 논 한가운데나 논둑에 세워 모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였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소나무 세 가지를 묶은 다음 그 위에 채반을 얹고 떡을 얹어 바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모두 소나무의 강한 생명력이 벼농사의 풍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행해진다.

조선시대에는 사월초파일이 다가오면 민가에서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꿩 깃털과 깃발을 만들어 달았으며,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집에서는 장대 꼭대기에 솔가지를 매달았다는 기록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전한다. 이때의 장대는 신이 지상에 강림하는 통로를 상징하며, 장대에 매다는 솔가지와 꿩의 깃털 등은 모두 신의 강림을 구체화하는 믿음의 산물인 셈이다.

강원도 등 지역에서는 음력 5월 초닷새 단옷날이 되면 부녀자들이 산에 올라 '산멕이'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엌에 매달아 둔 '산'을 각자의 신목으로 정해 놓은 소나무에 묶어 놓고 제물을 올려서 소원을 빌었다. '산'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있을 때 먼저 신에게 바치기 위해 새끼줄에 음식물의 일부를 꽂아 둔 것이다. 이때 각 집안의 신목으로 정해 놓은 소나무는 집의 수호신이자 산신의 신격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금줄에 끼운 솔가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992.2.13
강성복

음력 11월의 동지가 되면 동지고사를 올린다. 일년 가운데 해가 가장 짧아 음(陰)이 극에 달하는 시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붉은 곡식인 팥죽을 쑤어 양(陽)으로써 음기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이때 팥죽을 그릇에 담아 집 안 곳곳을 다니면서 솔가지에 묻혀 뿌린다. 이때의 솔가지는 팥죽과 동일한 의미를 띤다.

다음으로, 통과의례에서 솔가지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아기가 태어난 뒤 삼칠일 동안 대문에 금줄을 치고 새 생명이 탄생한 공간과 외부세계를 격리시켜 외부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금줄에는 오행의 기운을 갖추고자 왼새끼[黃]에 고추[赤], 솔가지[靑], 숯[黑], 백지[白] 등을 달았다. 이 가운데 솔가지는 청색인 동시에 생명력을 상징한다. 고추는 붉은색이 지닌 축귀의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민간에서는 남녀의 구분을 우선시하여 '고추=아들'의 상징이 부각되었고, 색깔의 짝을 맞추기 위해 푸른 솔가지는 정절의 의미로 해석하여 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오행의 기운을 갖춘 금줄은 장독 등에 치는 금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금줄의 솔가지는 왕성한 생명력이 잡귀와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가축이 새끼를 낳았을 때도 솔가지를 대문에 걸어 두는 지역이 있다. 아기가 아플 때 바가지에 맑은 물을 담아 솔가지에 적셔서 방 안 네 귀퉁이에 뿌리는 것도 부정을 씻어내기 위한 방편이다.

혼인을 할 때는 초례상에 소나무와 대나무 가지를 꽂은 한 쌍의 꽃병을 놓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는 신랑·신부가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굳은 절개를 지키기를 바라는 동시에 소나무가 지닌 장수와 길상의 상징으로써 행복한 혼인생활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나무는 잎이 모두 짝으로 되어 있어 음양수(陰陽樹)라고 부르면서 부부의 금실과 백년해로를 상징하기도 한다. 소나무는 하나의 잎자루 안에서 두 개의 잎이 나고, 그 안에 '사이눈'이라는 작은 생명체를 지니고 있으며, 잎이 늙어 떨어질 때도 하나인 채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완전한 백년해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죽은 뒤에도 '묘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믿음을 즐겨 실천하였다. 무덤가에 죽 둘러선 소나

무를 '도래솔'이라고 한다. 이는 소나무의 위엄과 신성함이 선조의 무덤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한 벽사와 정화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기인 1428년(세종 10) 세종이 건원릉에 행차하여 동제를 지낸 뒤 "능침에는 예부터 송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쓸모없는 나무를 뽑고 송백을 심도록 하라."라고 말한 기록 역시 이러한 도래솔의 역사를 말해준다. 특히 무덤 주변에 심은 도래솔은 죽은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마지막으로 제의에서 솔가지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솔가지는 각종 제의에서 부정을 제거하여 제의 공간을 정화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 먼저 제사를 지낼 때면 향을 피워 하늘로 올라간 혼(魂)을 모시고 모사기에 술을 부어 땅으로 내려간 백(魄)을 모신다. 이때 모래를 담은 모사기에 솔가지를 꽂음으로써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청정하게 정화하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동제를 지낼 때도 제사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제당과 제관의 집은 물론 제수를 준비하는 건물, 공동 우물, 마을 어귀 등지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이때 왼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에는 주로 솔가지와 백지를 끼워 둔다. 이는 제의와 관련된 장소임을 알려 신성화하고 잡귀와 부정의 침입을 막는 등 제의 공간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의 크고 작은 제의나 안택기도, 비손 등 개인을 위한 작은 굿을 할 때도 금줄을 치고 굿을 하는 집의 길 양쪽에 황토를 깐 뒤 솔가지를 세워 부정을 막았다. 서낭당을 지날 때 솔가지나 돌을 놓으면 부정을 타지 않고 길하다는 속신도 전한다.

소나무는 특히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과 함께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목(洞神木)이자 당산나무로 삼는 대표적인 나무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가 섬기는 나무로 정해지면 하늘과 지상을 잇는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 함부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그 앞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면 재앙을 입게 된다고 믿었다. 신목으로 지정된 소나무는 정기적인 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상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치병(治病)에도 솔가지를 사용하였다. 천연두와 같은 병이 유행할 때 싸리바구니를 처마에 매달고 바구니 안에 솔잎을 넣어두면 마마귀신이 얼씬도 못한다고 믿었으며, 환자의 문 앞이나 방안에 솔가지를 세워놓고 병마가 물러가기를 빌었다. 특히 귀신에 씌었다고 본 정신병에는 굿을 많이 하였는데, 이때 무당은 물이 담긴 사발을 들고 솔가지에 물을 찍어 환자와 환자가 있는 방에 뿌리기도 하였다. 가뭄이 심할 때 병에 솔가지를 꽂아 걸어두거나 솔가지로 마개를 한 물병을 처마 끝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비가 내린다는 속신도 전한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四時纂要, 養花小錄, 慵齋叢話,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이상희, 넥서스, 2004),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영등할머니 신앙 연구**(남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초파일 민속론**(편무영, 민속원, 2002), **한국문화상징사전**(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식물**(최영전, 아카데미서적, 1997),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4~2006), **한국인의 상징세계**(구미래, 교보문고, 1992).

**필자** **구미래(具美來)**

## 송경

표제어 귀신가두기(69쪽)

## 솥

상호참조 조왕(605쪽)

**정의** 날것을 익힐 때 사용하는 주방용구. 밥을 짓거나 국 또는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한다. 주로 무쇠로 만들어 '무쇠솥'이라 하고, 부엌에서 가장 큰솥을 '조왕솥'이라고 부른다. 솥은 한자로 '정(鼎)'이나 '부(釜)'로 표기한다. 『우공(禹貢)』에 따르면 솥은 하(夏)의 우왕(禹王)이 주조한 아홉 개의 정(鼎)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鼎)은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왕권, 국가, 제업(帝業)의 뜻을 지님으로써 신성시하였다.

**역사** 고대 사회에서 솥은 단순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물리적인 용기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서 왕권, 힘, 국가, 제업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공신들의 공적을 기록하거나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는 형구, 종교적 의기(儀器)나 죽은 자의 식량을 담아 놓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주(東周) 이래 술잔[爵], 술그릇[尊], 청동솥[鼎]이 왕권의 상징이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효무본기」를 보면 "삼황오제의 한 사람인 복희가 만든 신정(神鼎)은 통일과 천지 만물의 귀결을 의미하였고, 황제가 만든 보정 세 개는 천·지·인을 상징하였다. 하의 우왕은 전국 구주(九州, 9부족)의 금속을 모아서 구정(九鼎)을 주조하게 하였다. 이를 소유하는 자는 곧 천자로 여겼다."라고 하였다. 좌구명(左丘明)의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보면 "기원전 606년에 초(楚)의 장왕(莊王)은 주나라 국경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면서 천자가 보낸 대부 왕손만에게 천자가 가지고 있는 솥의 크기를 물어보았다. 이에 왕손만은 임금의 덕이 아름답고 밝으면 솥이 비록 작을지라도 무거워 옮기기 어렵고, 그 덕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으면 비록 크다 해도 가벼워서 옮기기 쉽다고 하였으며, 주나라의 천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솥의 무게를 물어 천자의 자리를 엿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나라에는 구정(九鼎)이 있어서 초나라에서 감히 북방(北方)을 엿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의 덕을 솥의 크기와 비교하고 왕권의 강대함을 솥의 무게로 표현함으로써 솥을 왕권의 상징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힘이 장사인 진나라 무왕은 기원전 307년 8월 맹설(孟說)이라는 장사와 솥을 들어올려 서로 힘을 겨루었다. 그러나 이를 들어 올리던 무왕은 경골(정강이뼈)이 부러져 이로 인해 얼마 후 죽게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 대무신왕조를 보면 "42년 겨울 12월에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부여를 치러 가다가 비류수 옆에 이르러 물가를 바라보니 마치 어떤 여인이 솥을 들고 노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가서 보니 여인은 없고 솥만 있었다. 그 솥에 밥을 짓게 하였더니 불을 때기 전에 저절로 열이 나서 밥이 다 되어 군사 전체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다. 이때 갑자기 웬 건장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이 솥은 우리집 물건으로 나의 누이가 잃었는데 지금 왕께서 얻었으니 청컨대 제가 솥을 지고 왕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므로 그에게 부정(負鼎)이라는 성(姓)을 주었다. …(중략)… 밤에 탈출하다가 골구천에서 얻은 신비로운 말과 비류수 상류에서 얻은 큰솥을 잃었다. 이물림에 이르러 군사들이 굶주려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들짐승을 잡아서 군사들을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사례를 통해 솥이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솥의 소유 여부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어 한 나라의 군사력, 힘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고국천왕조에서는 "왕의 신장은 9척이고, 자태와 표정이 씩씩하고 뛰어나며, 힘이 능히 솥을 들 만하였고(上王身長九尺姿表雄偉力能扛鼎蓋事聽斷寬猛得中)"라고 하여 고국천왕이 힘이 세다는 내용을 솥을 들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보장왕 2년에는 개금이라는 사람이 솥의 다리가 세 개인 것처럼 나라에는 세 가지의 종교, 즉 유교·불교·도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이기도 한다. 또한 『삼국유사(三國遺事)』「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에서는 "어떤 스님이 절을 지을 철물을 구하자 어머니는 철솥으로 시주하였다. 이 일을 진정에게 알리자 진정은 기뻐하며 질그릇 동이로 솥을 삼아서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솥이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조」 1권



**조왕의 무쇠솥**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지리, 1999.12.23, 강성복

총서(總序) 30번째 기사를 보면 "8월에 수양대군의 잠저(潛邸) 가마솥이 스스로 소리 내어 울었다. 잠저의 사람들이 모두 이를 의혹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옛글에도 있으니 이는 잔치를 베풀 징조이다.'라고 하였다. 무당 가운데 비파(琵琶)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다. 그가 급히 달려와서 청하여 대왕대비(大王大妃)를 알현하고 '이는 대군(大君)께서 39세에 등극(登極)하실 징조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대비가 놀라서 물으려고 할 때 무당은 더 고하지 않고 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솥은 왕의 계승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라의 건국이나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치적을 솥과 종에 새겨 후대에 기리게 하였다. 이 밖에 솥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를 처벌하는 형구, 사찰에서는 불사리를 넣어두는 도구 등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서도 솥을 드는 것을 삼군 갑사를 뽑는 기준으로 삼아서 힘의 경중을 비교하였다.

경복궁 근정전은 커대란 월대 위에 앉혀져 있다. 월대는 국가의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상하 두 단으로 된 월대에 난간을 두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계단을 두었다. 여기에 왕권을 상징하는 솥[鼎]이 있다. 이 솥은 배가 둥글고, 다리가 셋이며, 귀가 둘이다. 솥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상징물로도 쓰였다.

**형태** 솥은 음식물을 조리하는 도구로서 시대에 따라 돌, 토기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주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청동솥, 무쇠솥 등이 만들어지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솥은 냄비와 달리 밑의 두께가 두꺼워서 음식이 잘 타지 않으며, 부엌의 부뚜막에 걸고 음식을 조리하게 만들어졌다. 솥의 밑은 그다지 우묵하지 않고 약간 편평한 편이다.

솥은 크게 정(鼎), 부(釜), 노구(鑪口) 세 가지로 나뉜다. 부는 큰 가마이다. 다리가 없고 밑이 약간 둥글되 옆은 편평하고 나무로 만든 뚜껑을 덮었다. 정은 다리가 달려 있고, 대 · 중 · 소 세 가지로 구분하며, 옆이 넓고, 밑과 뚜껑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둥글다. 노구는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솥으로, 자유로이 걸었다가 떼었다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밖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섬용지(贍用志)」 취류팽약지기편(炊餾烹瀹諸器篇)에는 "옛날에는 다리가 있으면 기(錡)라 하고 없으면 부(釜)라 하였다. 대구(大口)는 부(釜), 소구(小口)는 복(鍑)이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정과 기는 세 발[다리]이 있는 솥이며, 부와 복은 다리가 없다. 또한 솥의 크기에 따라 '서말치' · '두말치' · '외말치', 기능에 따라 '밥솥' · '국솥' · '찬솥'으로 각각 구분한다.

**내용** 전근대사회의 일반 서민들에게 솥은 가족의 안녕과 가정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불씨와 동일시되었다. 불씨가 담긴 화로를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물려주듯, 부뚜막에 걸린 세 개의 솥 가운데 중앙에 있는 밥솥은 언제나 맏며느리가 관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솥단지를 뗀다'고 하면 그 집안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감을 의미한다.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할 때에도 가장 먼저 서두르는 일이 '솥을 거는 일'이었다. 길일을 택하여 솥을 걸고 그날 밤 그 집에서 자고 나면 설령 살림살이를 옮겨가지 않아도 이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최근까지도 남아 있다.

솥에 대한 관념은 전근대사회로 갈수록 더욱 강하다. 신혼 초에 새댁이 음식을 조리하다가 솥뚜껑을 깨면 소박을 놓아 친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아기를 낳아 처음으로 바깥에 나갈 때 솥을 쓰고 나가면 나쁜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솥을 장[市場]이나 대장간 등에서 사와 부뚜막에 설치할 때에는 길한 날과 시간을 보고 손 없는 날에 걸어야 한다. 길일에 솥을 걸지 않으면 동티가 나서 집안 식구가 아프다고 한다. 손 있는 날은 1일과 2일은 동쪽, 3일과 4일은 서쪽, 5일과 6일은 남쪽, 7일과 8일은 북쪽이다. 손 없는 날은 9일과 10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솥은 조왕신앙과 관련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많은 금기가 따른다. 이러한 금기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솥은 중요한 조리도구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둥인 주인 남자와 자식의 신변, 집안의 경제, 가족의 질병 등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다루게 하였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 관이나 시신이 있는 장소에 두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전근대사회 사람들의 위생관념을 엿볼 수 있다.

**지역사례** 전통사회에서 일반 서민들은 솥을 재신(財神)으로 모시고 솥씀과 소댕(솥뚜껑)꼭지 밟기, 솥점질, 예언, 풍농 점치기 등과 같이 솥과 관련한 다양한 풍습이 행해졌다.

**솥신앙** 일반 서민들은 솥을 가족의 안녕이나 가정의 운명과 관련이 깊은 재물신으로 모셨다. 그러나 그 사례를 전국에서 발견할 수는 없다. 제주도지역에서만 사례가 발견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이 신이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송씨 집안에서는 집안 할머니가 물질[潛水作業]을 매우 잘했다. 하루는 바다에 갔다가 뚜껑이 없는 솥을 주워와 집에 와서 물을 끓였다. 그러나 종일 불을 땠음에도 물은 끓지 않았다. 그날 밤 꿈에 솥 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자기를 잘 위하면 자손들 벼슬도 시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뒤 그 귀신을 잘 위했더니 자손들이 서귀진조방장, 명월만호 시의원, 대정원(大靜院) 등을 지내고 부자로 잘살았다. 그 후로 솥할머니를 고팡(곳간)에 안칠성으로 모시고 명절 제사 때마다 메를 올리게 되었다. 송씨와 그 집안 딸들이 시집가면서 솥신앙이 번졌다.

표선면 성읍리 강씨 집안의 강선달네가 옛날 솥할망이 도와서 부자가 되어 잘살았다고 한다. 하루는 강선달이 바다에 갔다가 큰 무쇠솥 하나가 개맡(포구)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였다. 강선달은 그것을 주워와서 밥을 하고자 검불로 불을 땠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물은 끓지 않았다. 화가 난 강선달은 고팡으로 솥을 내동댕이쳤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난 솥할머니이니 나를 잘 위하면 말로 섬으로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 뒤 제사 때마다 부엌에 밥 한 그릇을 차려 위하였더니 강선달은 삽시간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 후에는 굿을 할 때 '솥할망 군웅'으로 놀리고, 딸들이 시집을 가면 이 신이 좇아간다고 한다.

이 두 집안의 솥신앙을 살펴보면 솥신과 솥귀신할망은 제주도 송씨와 강씨 집안에서만 모셔졌다. 그러다가 두 집안의 딸들이 다른 지역으로 시집가면서 전파된 것이다. 육지부에서는 제주도와 같이 독립된 신령으로 솥신을 모시지는 않지만 조왕신이나 조왕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섬기고 있다. 솥신이 제주도에서 재물신으로 모셔지는 것은 육지부와 달리 제주도 같은 섬지역에서는 솥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으로 인식되어 솥을 '부의 상징'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과 관련하여 '평소에 밥솥에 물을 부어놓지 않으면 재물이 마른다.'라는 속담도 전하고 있다.

**솥씀과 소댕(솥뚜껑)꼭지 밟기** 제주도지역에서는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바깥에 나갈 때 솥을 쓰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솥씀' 풍속을 의미한다. 솥씀 풍속은 아기를 낳은 지 3~4개월 되어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가게 될 때 부정을 탈까 봐 뱅이(액막이)하는 것을 말한다. 솥을 쓴다는 것은 아기의 이마와 콧등에 솥밑 검댕을 바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들이 할 때 솥밑 검댕을 바르고 나가면 솥밑 검댕에 관심이 쏠려 다른 사람들이 아기에게 부정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솥밑 검댕을 바르는 풍습은 함을 팔 때도 이루어진다. 혼례 전 함진아비가 함을 팔기 위해 정방을 나설 때 얼굴에 솥밑 검댕을 칠한다. 이것은 불에 의해 만들어진 검댕과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솥에 불[火]과 같은 제액초복의 기능이 있어 재앙과 액운을 막아 주고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부는 혼례식 후 신행길에 오르기 전에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세 번 들썩거려 소리를 낸다. 이는 새로운 삶과 신행길에 있을 액을 막아 달라는 의미이다. 솥은 여성의 주된 생활도구이기 때문에 솥과의 혜어짐은 그 집안 전체와의 분리(分離)를 뜻한다. 신부는 처음으로 시댁[媤家]에 들어갈 때 출입문 문지방 앞에 솥뚜껑을 놓아 밟고 들어가거나 안방 문턱 앞에 솥뚜껑을 엎어 놓고 가마채를 그 앞에 이르게 한 다음 신부가 내리면서 왼발로 솥뚜껑을 디디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간택(揀擇)할 때 궁 안쪽 문지방 바로 앞에 큼직한 가마솥 뚜껑을 엎어놓고 처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솥뚜껑 꼭지를 딛고 대궐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문지방은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나타낸다. 문지방 앞에 솥뚜껑을 놓고 밟게 하는 것은 신행길에 따라왔을지도 모를 잡귀와 액을 정화시켜 새로 시작하는 삶이 복되기를 비는 것이다. 이는 신부가 시댁에 들어갈 때 대문 양옆에 짚불을 놓아 신부에게 붙어서 왔을지도 모를 액을 정화시키고 복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왜 왼발로 솥뚜껑을 디디게 하고 소댕의 꼭지를 밟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밖에 환갑이 든 해에는 생일날 부엌의 솥 앞뒤

를 돌려놓고 밥을 해 먹으면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한다.

**솥찜질** 솥찜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한제국 말까지 각 지방의 큰 네거리에는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는 형구로써 솥과 부뚜막이 있었다고 한다. 솥찜질은 사람을 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시늉만 하는 공개처벌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에게 솥을 이용하여 벌을 주는 것을 '솥찜질'이라고 한다. 대한제국 말까지 이따금 서울 종로 네거리에 큰 솥을 걸어 놓고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솥 안에 들어가게 하였다. 죄인이 솥에서 나올 때 그는 주검 시늉을 하며, 형관에게 다른 이름을 받는다. 가족들은 살아 있는 시신을 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 그러는 동안 살아있는 시신은 진짜 시신처럼 취급되어 평생 동안 격리된 채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금지되고,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된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 주모는 망인에게 술을 판 것으로 여겼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면 과부가 애를 가졌다고 비웃었다. 큰 고을마다 솥찜질의 형벌을 시행하기 위해 큰 부뚜막과 솥이 네거리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솥찜질은 나라에서 사람을 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시행하다가 사회가 명분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변화되면서 팽형을 다른 형태의 형벌로 변경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솥찜질은 죄인을 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시늉만 하여 목숨은 살려 주되 그의 인격과 사회성을 박탈하는 명예형의 형벌이었다. 그런 이후에 이 형벌은 팽형이 아닌 우리말인 '솥찜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부정부패한 관리에게 가하는 불문율의 제재관습형(制裁慣習刑)으로 전해진 듯하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관리를 처벌하는 관습이 어떠한 연유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솥찜질이라는 불문율의 제재관습형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다만 대한제국 말까지 이루어졌다는 솥찜질은 팽형이 이루어진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솥 울음** 솥에 음식물을 찌거나 삶을 때 솥이 '부웅부웅' 하고 울거나 소댕(솥뚜껑)이 들썩거려 김이 새어나오거나 솥이 깨지는 꿈을 꾸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여겼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밥솥이 울면 주인 남자가 부엌 안으로 들어가 앉고 아내가 남편에게 절을 하였고, 국솥이 울면 남편이 아내에게 절을 하면서 울음멎기를 바랐다고 한다. 또한 꿈에 솥이 깨지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한다. '매일 정성 들여 밥하고 기일제사 때 메를 하여 조상을 위하는 솥이 깨졌으니 나쁘다.'라는 제주도의 말이 이를 반영해 준다. 또한 『천문지(天文志)』의 맨 앞에는 솥별[鼎星]이 나온다. 이 별의 동태를 살펴서 이 별이 흔들려 보이면 나라가 불안하다고 한다. 솥을 나라의 신기(神器)로 여기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조에서 수양대군이 잠저에 있을 때 잠저의 가마솥이 스스로 울어 '이는 잔치를 베풀 징조이다.'라 하고 비파라는 무당이 대왕대비에게 "대군이 서른아홉 살에 등극하실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홍만선(洪萬選) 역시 『산림경제(山林經濟)』 권1 「복거」편에서 "솥이 우는 것은 시루[甑]가 비어 있어 기운이 차면 우는데 괴이할 것은 없으나 덮개를 열어 놓으면 즉시 그친다. 이것은 재앙이 되지 않으나 모름지기 남자가 여자 절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 절을 하면 즉시 그친다. 또는 귀신의 이름인 파녀(婆女)만을 불러도 재앙이 되지 않고 문득 이로운 실익[吉利]을 초래한다."라고 하였다. 솥이 우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나쁜 일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솥은 신성(神聖)을 지닌 신기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나라, 마을 공동체, 개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해 예언적 기능을 한다고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믿었다.

**솥 기우제** 날이 가물면 솥뚜껑을 이용하여 기우제를 지내면서 아들을 많이 낳은 맏며느리를 불에 달군 소댕(솥뚜껑) 위에 세워 놓고 키에 담은 물을 끼얹으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이때 사용하는 소댕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솥의 소댕, 즉 조왕솥의 뚜껑이다. 기우제 때 조왕솥의 뚜껑 위에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을 많이 낳은 맏며느리를 세워놓는 것은 조왕신의 힘을 빌려서 비를 내리게 하려는 것이다.

**철확**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고려 초 국찰인 개태사(開泰寺)에는 스님들의 식사 마련에 사용된 철확(鐵鑊, 쇠솥)이 있다. 이 철확은 큰 홍수 때 개태사에 모신 불상을 구하였고, 이 철확과 함께 제방을 쌓으면 그 제방이 튼튼하여 수해를 막아주었고 풍년이 들게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이 솥으로 지은 밥을 먹은 군사들이 모두 잘 싸워 왜군들을 물리쳤다. 이 솥에 원한이 맺힌 왜군들이 솥을 옮겨 가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이때에 천둥과 번개가 쳐서 옮겨 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철확은 대홍수 때 떠내려가서 연산면 고양리 다리 근처에 묻혀 있었다. 그 후로 승려들에게 원성살 일이 생기고 마을에도 흉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이 철확을 발굴하여 연산공원에 옮겨 놓았다가 다시 개태사 경내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이 철확의 솥뚜껑 역시 홍수 때 떠내려가 논배미에 묻혔다. 그 후로 고을 원님이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무고한 백성을 문초하면 웅덩이에서 소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한다. 솥뚜껑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땅을 파 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금산사 미륵불이 왕의 상징인 솥 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의의** 솥은 단순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용기의 기능을 뛰어넘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였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종교적 의기나 죽은 자의 식량을 담아 놓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서민들 사이에서 솥은 집안의 재물을 솥 신앙 또는 조왕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모셔졌다. 솥 역시 조왕신처럼 제액초복, 정화력 등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솥은 집안의 우환을 제거하거나 좋은 일에 생길지도 모를 액을 막는 데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솥은 부엌에서 사용되는 다른 용구들과 달리 설치할 때도 길한 날짜를 선택했다. 또 시체 등 부정한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솥뚜껑 위에 밥주걱이나 칼 등을 올려놓으면 조왕신이 노한다 하여 금기시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겨레과학기술조사연구11(국립중앙과학관, 2003), **삼국~고려시대 솥[釜]의 전개양상**(정종태, 금강고고,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솥과 민속**(신영순, 생활용구 6 · 7, 민속원, 1998), **조왕신앙연구**(신영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필자** 신영순(申永順)

## 쇠코뚜레

**정의** 소를 순조롭게 잘 다루기 위해 소의 코를 뚫어 끼우는 둥근 나무 테. 소는 힘이 세고 고집이 세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코뚜레를 꿰어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다. 코뚜레 사람이 소를 쉽게 다루고자 고안한 통제 도구이다. 소는 사람과 공존의 관계에 있어서 쇠코뚜레를 매개로 사람과 소가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로도 볼 수 있다.

**형태** 코뚜레는 굵기가 직경 2~3㎝ 되는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내고 원형으로 모양을 잡아 끈으로 묶어 만든 틀이다. 원형의 크기는 지름 15~20㎝가 적당하다고 한다. 송아지 때에는 좀 작은 것으로 하여 클수록 점차 큰 것을 채운다. 코뚜레는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른다. 경남의 동부지역에서는 '코꾼지', 서부지역에서는 '코빼이'라고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군들레'라고 부른다.

쇠코뚜레는 노간주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다래나무, 소태나무 등으로 만든다. 이 나무들은 껍질을 벗길 때 물기가 적당하여 잘 벗겨지며, 껍질을 제거한 나무 표면이 매끈하여 소의 콧구멍에 댈 때 마찰이 적고 고통을 덜 주는 것이 특징이다. 나무를 휠 때 목질이 강하여 부러질 염려가 있으면 불에 구워서 휘고, 박달나무처럼 견고한 것은 아예 삶아서 목질을 유연하게 만들어 휘어잡는다. 코뚜레를 오래 쓰기 위해 표면



**쇠코뚜레**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 2011.4.6, 배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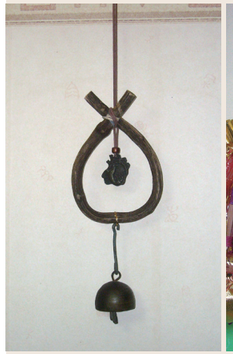
쇠코뚜레 배도식



경남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2011.4.30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2011.4.30



경남 의령군 정곡면, 2011.5.9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부리, 2011.4.30

에 들기름이나 면실유 같은 연한 기름을 먹이기도 한다. 이러면 소의 코에 꿸 때도 한결 부드러워 소에게 고통을 덜 주게 된다고 한다.

소에게 코뚜레를 채우는 시기는 태어난 지 5, 6개월 무렵이며, 늦어도 한 살 미만이어야 한다.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 좋다고 한다. 소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힘이 무척 세어져서 제압하기도 힘들고 소도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대개 음력 5월에 많이 한다. 그 가운데에도 양기가 세고 잡귀의 범접이 없는 단옷날에 행한다. 코뚜레를 할 때는 소가 몸부림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두고 경험자가 먼저 나무송곳으로 코 사이를 뚫은 뒤에 준비해 둔 코뚜레를 끼우면 끝난다. 상처는 일주일쯤 지나면 아문다.

코뚜레가 너무 작거나 금이 가면 갈아 채운다. 그동안 사용하던 코뚜레는 버리지 않는다. 그 상징성과 주술성 때문에 다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악귀의 침범을 막기 위해, 들어온 복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코뚜레를 대문간이나 방문 위에 걸어 두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의 건강을 빌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양간 처마에 꽂아 두기도 했다.

**내용** 인간이 소를 부리면서 소에게 코뚜레를 걸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춘추시대에 이미 코뚜레를 했음이 나타난다. 당시에는 코뚜레를 '권(棬)'으로 기록한 자료가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소를 농사에 이용한 시기가 중국과 비슷해 코뚜레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는 몸집이 크고 힘이 세지만 코뚜레를 하게 되면 고통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하고 인간에게 속박된 채 한평생을 살아간다. 쇠코뚜레는 한 번 채우면 벗어날 수 없는 상징성이 큰 도구여서 대단히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소가 오랫동안 사용한 코뚜레는 상당한 주력(呪力)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대문이나 집 안에 걸어두고 침범해 올지도 모르는 잡귀잡신이나 악귀를 막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힘센 소가 코뚜레에 꿰여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있듯 집안에 들어온 복이나 부(富)가 폐쇄성을 띠는 코뚜레에 갇혀 다시 나가지 못하고 이 집 안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 두는 힘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는 정초에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불러들이고자 대문에나 방문 위에 쇠코뚜레를 걸어두는 예가 많았다.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운조루에는 대문 가운데에 짐승의 뼈와 함께 쇠코뚜레가 걸려 있다. 주인 류홍수(남, 1954년생)씨에 따르면 이 코뚜레는 약 50년이 됐다고 한다. 자기 집에서 부리던 소의 코뚜레를 잡귀의 범접을 막고 복을 붙잡아 두기 위해 걸었다고 한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에서는 대문에 쇠코뚜레와 워낭을 매달아 놓았다. 악귀의 침입을 막고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같은 동네의 어떤 집에서는 방문 위에 입춘첩을 써 붙이고 쇠코뚜레를 걸어두었다. 이 역시 악귀의 침입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며, 이미 들어온 복은 코뚜레에 갇혀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한다. 인근의 단장면 법흥리에서는 소의 질병을 막기





쇠코뚜레
전남 구례군 운조루
2011.4.4
배도식



위해서 쇠코뚜레를 외양간에 꽂아두었다. 멍에와 써레 역시 외양간에 매달아 두어 악귀나 역귀를 막고자 했다. 경남 창녕군 영산면지역에서도 외양간에 쇠코뚜레와 엄나무 가지를 매단 곳이 있다. 이곳의 한 식당에서는 악귀는 쫓고 복은 받아들이고자 정월대보름날 복조리와 코뚜레를 매달아 두었다.

이 밖에 여러 지역에서 집이 팔리지 않을 때 코뚜레를 구해다 팔 집의 대문 앞에 걸면 금방 팔리고 장삿집의 벽에다 코뚜레를 걸어두면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또 병자가 있는 집에서도 대문에 코뚜레를 구해다 걸거나 엄나무 가지 일곱 개를 걸어두면 쾌차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중앙시장 고물품 가게에서는 쇠코뚜레와 워낭을 매달아 두고 팔고 있었다.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주로 장사하는 사람이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선호하여 산다고 한다. 소의 코에 오래 꿰어 닳아진 코뚜레는 비싼 값을 치러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코뚜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인기 품목이 되어 거래의 대상물이 된 지 오래이다. 코뚜레를 걸어 행운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코뚜레 매달기 행사도 있었다. 2010년 7~8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 눈꽃마을에서는 행운의 코뚜레 만들기 행사를 벌였다. 많은 사람이 모여 우리나라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코뚜레 걸기를 했다. 이 행사에서 사람들은 동계올림픽 유치뿐만 아니라 가정의 번영과 개인의 소원을 비는 기원문까지 적어 코뚜레탑에다 걸었으니,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복합적 신앙심을 보여준다. 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복을 불러들이고자 코뚜레 문패달기 행사도 벌였다. 박재동 씨는 2018년의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2018개의 코뚜레를 만들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코뚜레의 주력을 한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삿집의 상호에도 코뚜레라는 명칭이 많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쇠고기를 재료로 하는 식당에 붙여진 이름이 그러했다. 코뚜레의 속성처럼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진짜 코뚜레는 아니지만 사람들도 코뚜레의 주력을 빌리기 위해 장식품 코뚜레를 단 적이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경기 때 우리나라의 일부 열성 응원단원들은 코뚜

쇠코뚜레 배도식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2011.4.1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꽃마을, 2011.4.30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2011.4.18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2011.4.15, 배도식



써레와 멍에



외양간의 약쑥

레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를 코에 걸고 응원했다.

2004년 국립민속박물관이 간행한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의 '엄나무 걸기' 항목에는 "아산에서는 정초에 제마초복을 위해 소의 코뚜레, 엄나무, 복조리를 함께 걸기도 했다.", 『여름편』에는 "강원도 삼척에서는 단옷날 소군들레(코뚜레)를 끼우고, 약쑥을 매단다. 홍천 삼척 고성 등지에서는 정초에 안방 위에 코뚜레를 걸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지역사례** 쇠코뚜레를 매단 사례는 전국에 산재한다. 코뚜레와 엄나무 가지를 매단 여러 지역의 사례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도별 『세시풍속』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것은 모두 전국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이다.

먼저 악귀의 범접을 막기 위해 건 사례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벌응절리에서는 정초에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쇠코뚜레와 가시가 많은 엄나무 가지를 대문에 걸어둔다. 군포시 대야동 속달마을 납덕골에서는 정초에 노간주나무로 만든 쇠코뚜레를 대문에 달고, 귀신날이라고 여기는 정월 열나흗날에는 노간주나무로 밥을 지으며 소리를 내어 귀신을 쫓기도 했다.

복을 붙잡아 두기 위해 걸어둔 예로는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원기마을을 들 수 있다. 정초에 대문이나 방문 위에 엄나무와 코뚜레를 매단다. 특히 코뚜레를 걸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이곳에 와서 코뚜레를 사가기도 했다고 한다.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에서도 엄나무를 걸고 코뚜레를 서랍 안에 넣어두면 그해에는 집안에 탈이 없다고 한다. 단, 코뚜레는 반드시 나무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실제 소의 코에 걸었던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용동마을의 사례도 위와 같다. 정초에 집에 매다는 코뚜레는 새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특히 소를 잡는 사람이 만든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는 동네에 열병이 돌 때 역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 위에 엄나무 가지를 왼새끼로 묶어 걸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의상마을에서도 정초에 액막이용으로 집의 대문에 엄나무를 걸어둔다. 특히 옛날에는 전염병(장질부사)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엄나무와 무쇠솥을 왼새끼로 연결하여 대문 가운데에 매달아 둔다. 이는 병마가 접근하면 가시로 막고, 그것도 안 되면 솥에 달구어 죽이겠다는 엄포의 뜻이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사래울마을에서는 정초에 마마를 예방하기 위해 엄나무 가지를 매단다. 이 지역에서는 이를 '뱅이'한다고 한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내화촌에서도 엄나무를 매달아 천연두나 홍역 등을 예방한다고 한다.

이사한 뒤에 새집에 코뚜레를 걸어 두는 예로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상구산마을을 들 수 있다. 소를 지배하는 무서운 주력이 있는 코뚜레가 먼저 들어가서 잡귀를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알미마을에서는 이사 갈 때 그날 일진이 좋지 않으면 쇠코뚜레를 이사 간 집의 안방에 걸어둔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강성마을에서는 이사 가서 잡귀의 집 안 침범을 막으려고 걸어두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덕곡마을에서는 이사 가서 금줄을 치고 코뚜레를 건다고 한다.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기정마을에서는 장삿집이나 살림집에 재수가 좋으라고 쇠코뚜레를 건다. 이때 반드시 소의 코에 걸었던 것이어야 한다. 광양시 황길동 통사마을에서는 엄나무와 코뚜레를 걸면 장사가 잘된다고 여겼다. 경남 사천시 동서동과 신수동에서도 엄나무를 걸고, 장삿집에서 코뚜레를 건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알미마을의 장삿집에서는 손님이 많이 오라고 가게 벽에 코뚜레를 걸어놓았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양촌에서도 집에 코뚜레를 걸면 차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집이 팔리지 않아서 걸어둔 예는 다음과 같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원항마을에서는 팔려고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으면 코뚜레를 대문에다 걸어둔다. 이렇게 하면 금방 팔린다고 한다.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선창마을에서는 정초 첫날 소의 병을 막기 위해 코뚜레를 건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하위마을에서는 소에게 잔병이 없어지라고 코뚜레를 건다.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도 병이 없고 재수가 좋다고 한다.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용호마을에서도 정초에 외양간에서 쇠코뚜레를 건다. 이렇게 하면 소가 건강하다고 한다.

경남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 문산마을에서도 엄나무와 코뚜레를 걸면 재수가 좋다고 한다. 전국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코뚜레를 허리에 차면 득남한다고 한다. 이때는 진짜 소의 코에 걸었던 것이라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코뚜레나 엄나무 가지는 모두 악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데 도구로 쓰였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채집되는 가정신앙이다. 엄나무를 매달 때는 옆으로 가지런히 하여 묶어 달기도 하지만 가지를 흩뜨려 가시가 여러 방향으로 돌출하게 함으로써 잡귀가 잘 걸리도록 매달기도 한다. 대문의 구조에 따라 엄나무 가지를 대부분 엑스(X)형태, 열십(十)자 모양으로 배치한다. 엄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두릅나무나 탱자나무를 대신 매달았다.

이 밖에 집으로 침입하는 잡귀잡신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서는 정초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대문에 꽂아 둔다. 또 단옷날 채취한 쑥 묶음을 매달아 두는 데도 많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서 보인다. 잡귀나 역질을 막기 위해 헌 짚신을 대문에 매달기도 했으며, 고추씨나 목화씨를 태워 매운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용(龍)'과 '호(虎)' 글자를 써 붙여 잡귀나 사악한 기운을 막으려고 한 예도 있다.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설날 대청마루나 방문 위에 복조리나 복주머니를 매달기도 하고, 입춘날 춘첩을 써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도 코뚜레를 매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참고문헌**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소에 얽힌 민속**(배도식, 민속학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1995) **소 우경에 나타난 민속학적 의미와 상징**(정연학,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소의 민속**(배도식, 한국민속의 원형, 집문당, 1995),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배도식(裵桃植)**

## 수세

표제어 불밝히기(230쪽)

## 수양부모삼기

표제어 아이팔기(438쪽)

## 수지

상호참조 햇곡식갈기(726쪽)

**정의** '첫'의 의미가 강하며 보통 곡식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것' 또는 수확한 것이고, 삼베와 같은 직물제조에서는 '가장 먼저 짠 것' 등을 의미.

**내용** 수지는 주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가령 제물로 바치는 나락이나 쌀, 삼베, 음식 등에서 '수지쌀', '수지천', '수지톱(삼베)' 등으로 사용된다. 수지쌀은 최초로 거둔 정결하고 신성한 쌀이고, 수지천은 직물제조에서 최초로 얻은 천이다. 수지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사용된다. 수지는 주로 강원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경북·충청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음식을 만들어 가장 먼저 나온 것도 수지라고 한다. 가령 전을 부칠 때 처음 만든 것을 수지라 하여 어른이 먼저 드시기도 하고, 산에서 고수레를 할 때도 처음에 행하는 것을 수지라고 한다. 동해안 어촌의 경우 그해 처음 잡은 고기를 신의 제물로 바치는데 이때도 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새로 만들어지거나 얻은 것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탑안이마을에서는 '첫 쌀밥(올벼천신)'이라는 의례가 있다. 이때 처음 타작한 쌀을 '수티쌀'이라 하며, 이 쌀로 밥을 지어 집안의 신령들에게 천신하는 것을 '첫쌀밥'이라고 한다. 추석 전에 벼를 지게로 한 짐 정도 베어다가 탈곡을 하면 두 말 정도 나온다. 이것을 멍석에 널어 말린 다음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으면 수티쌀로는 방아의 삯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에 타작을 하여 함께 지불한다.

경북 안동의 가정신앙에는 용단지가 있는데, 단지 안에는 쌀이나 나락을 넣는다. 용단지 안에 들어있는 쌀이나 나락은 일 년에 한 번씩 햅쌀이 날 때 처음 나온 수지쌀로 갈아준다.

강원도의 경우 수지쌀, 수지천, 수지모 등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① 본격적으로 모를 심기 전에 날을 받아서 수지모를 심는다. 이를 '이종'이라고 하는데, 좋은 날을 받아서 먼저 가장 작은 논에다 수지모를 심는 것을 말한다. 자기 농사에서 가장 먼저 모를 내는 날을 받는 것이다. 돼지날, 쥐날, 소날, 개날 등을 택해서 이종을 한다. 이종은 작은 배미를 선택해서 다 심을 수도 있고 큰 배미의 한쪽 구석에 조금 심기도 한다. 모 심는 흉내만 내어도 된다.

② 집안에 모시는 산은 지푸라기(새끼줄)를 매단다. 여기에다 육고기가 들어오면 조금 떼어서 매달아 놓고, 베를 짜도 수지톱을 끊어서 매달아 놓는다.

③ 집안에 모시는 산은 주로 마구간 주변에다 모신다. 예전에는 삼베를 짜면 그 수지천을 끊어서 모셨는데 닥나무 밭이 생기고 한지가 흔해진 이후로는 한지를 접어서 모신다.

④ 베를 짜면 수지를 조금 베어서 걸어 놓기도 한다

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세준단지에 수지쌀을 서너 말 넣어 둔다. 그리고 그 쌀로 메도 짓고 떡도 한다.

⑥ 삼신토방구리에는 삼베조각 수지를 끊어서 넣고 실을 넣었다.

⑦ 신줏단지에는 가을에 첫 곡식을 수확하면 집안의 디딜방아에 찧어서 수지쌀을 넣는다. 따로 찧지는 않고 한꺼번에 찧을 수지를 넣는다. 벌레가 생기므로 많이 넣지는 않고 한 되 정도 넣었다가, 가을에 김장할 때 꺼내서 풀을 쑤어서 김치를 담근다.

⑧ 큰 방에서 조상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안반에다 떡시루와 채소, 고기 전 것을 놓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영등제사를 지낸다. 올라가는 영등에는 초하룻날을 지낸 그 음식으로 지내는데, 먼저 초하룻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올라가는 영등을 위해 떡 한 쫄기, 고기 한 쫄기를 놔뒀다가 보름날 그걸 쪄서 같이 올려 보낸다. 장소는 그대로 안방에서 지낸다. 영등날 제사를 지내면 항상 올라가는 영등을 위해 위에 있는 수지를 따로 놔둔다.

⑨ 산메기를 하러 갈 때는 말명단지의 쌀을 쓴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수지쌀로 단지를 채워두었다가 산메기러 갈 때 그걸 꺼내서 떡을 한다. 그해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다시 넣어둔다. 산을 메긴 다음에는 베쪼가리를 끊어서 말명단지에 넣어둔다. 수지쌀을 가장 먼저 입에 대지도 않고 넣어둔다. 단지에 한 네 되 정도 들어간다.

⑩ 벼를 추수하여 타작할 때 가장 먼저 탈곡한 수지벼(햇벼)를 한 가마를 성주 앞에 갖다 놓고 맑은 술을 올린다. 대부분 주인이 지고 들어오지만 남이 지고 들어오면 맑은 술을 한 주전자 대접한다. 맑은 술은 누룩, 밀, 쌀이나 옥수수 등으로 아주 맑게 만들었다.

⑪ 10월에 첫 방아를 찧은 수지쌀로 바꿔준다.

⑫ 텃고사는 일 년에 한 번 봄이나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수지라고 하여 먹지 않고 처음 떠 놓은 것으로 제를 지낸다.

**참고문헌** **삼척민속지 1~7**(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8), **안동지역의 용단지**(김명자, 문화재 26, 문화재관리국, 1993),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진순(金鎭順)**



## 숯

**정의**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얻게 되는 다공성 탄화물질. 주로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며, 사기(邪氣)를 막는 힘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물질에 대한 강한 흡착력과 정화력이 있어 약으로도 사용한다.

**형태** 숯은 공기가 차단된 가마 안에서 나무를 구워 만든다. 재료로는 비교적 조직이 단단한 참나무류 목재를 사용한다. 참나무류를 구워 만든 숯을 참숯이라고 한다. 만드는 과정에 따라 검탄(黔炭)과 백탄(白炭)으로 나눈다. 섭씨 400~700도의 온도에서 구워 낸 일반적인 숯이 검탄이다. 이 두 배의 온도에서 구운 뒤 흙과 재를 섞은 가루를 덮어 급속하게 식혀 만드는 것이 백탄이다. 백탄이 검탄에 비해 질이 좋은 숯으로 알려져 있다.

숯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마를 쌓고 그 안에 나무를 넣어 굽는 축요제탄법(築窯製炭法)이 일반적이다.

**내용** 숯은 기본적으로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지만 연소할 때 연기가 나지 않아 방 안에서 화로에 담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다. 또한 다공성 탄화조직으로 외부의 이물질에 대한 흡착력이 있어 우물을 파거나 장을 담글 때 함께 넣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강한 제습기능이 있어 전통 건축물 내부나 기단을 다질 때 숯을 섞어 습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숯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여 분(墳)을 조성할 때도 사용되었다. 중국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벌레가 들어가거나 나무뿌리가 무덤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숯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 권4 「상례(喪禮)」에는 "숯은 땅으로 들어가도 천 년 동안 변치 않으며(炭入地千年不變) …… 숯은 나무뿌리를 막으며 물과 개미를 피하게 한다.(炭禦木根 辟水蟻)"라고 기록되어 있다.

숯은 전통적으로 재액(災厄)과 사기를 막는 물건이었다. 한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태어나면 왼새끼에 숯을 꽂아 부정한 사람과 액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새로이 장을 담가 항아리에서 숙성할 때도 금줄과 함께 숯을 사용하였다. 부엌에 모신 조왕신에게 고사를 지낼 때도 제물과 함께 숯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설날 이전에 어른에게 귀한 음식이나 물건을 보내는 풍속인 세찬(歲饌)은 주로 귀한 음식물과 담배, 옷감 등이 주종이었지만 숯도 그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것을 보면 숯은 실생활에 매우 요긴한 물건이거니와 잘 구워진 숯은 매우 귀한 물건으로도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숯은 그 기능이 과학으로 입증되면서 여러 용도로 가공·활용되고 있다. 숯을 주재료로 한 탈취제나 활성탄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本草綱目**, **朱子家禮**, **조왕의 성격과 전승양상**(최숙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2~2006).

**필자** **김창호(金昌鎬)**

## 시루

**정의** 증기를 이용하여 곡물을 찌는 조리 용구이자 의례용구. 쌀이나 잡곡 등을 가루 내어 떡을 찌는 조리 용구이며, 증기가 곡물에 닿기 쉽도록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신에게 치성을 드릴 때는 떡을 쪄서 시루째 올리기도 한다. 이는 시루가 조리 용구이자 의례용구였음을 보여준다.

**역사** 우리 민족의 식생활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음식물이 농경을 통해 획득되고, 이와 함께 조리 용구도 자연스럽게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곡물을 가루 내어 찌는 시루 또한 예외가 아니며, 농경생활과 더불어 시루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보면 시루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나진 초도 패총과 기원전 5세기쯤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북창군 대평리 유적에서 시루가

시루 국립민속박물관


시루바닥


다두테기시리


약시루

출토됐다. 청동기시대 시루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삼국시대 시루는 한반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북부지역에는 낙랑, 북창 대평리, 시중 노남리 등이 있다. 중부지역에는 포천 영송리, 파주 주월리, 가평 마장리 등이 있다. 남부지역으로는 완주 반교리, 전주 여의동, 남원 세전리, 군산 남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삼국시대 이후 시루가 한반도 전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형태** 시루는 손잡이, 몸체, 바닥, 구멍으로 구성된다. 직접 열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조리 용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즉 물을 끓일 수 있는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시루솥'이라고 한다.

선사시대 시루는 평편한 바닥에 몸체로 올라가다가 발라지며, 입술 주위에서 점차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높이에 비해 입지름이 그리 넓지 않고 내부가 깊은 특징을 보인다. 손잡이는 쇠뿔 모양으로 몸체 윗부분 양쪽에 부착되어 있다. 바닥의 구멍은 원형만 취하는 형태, 원형 · 선형 · 타원형 · 삼각형 · 다각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등이 있다. 바닥의 구멍이 원형인 것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바닥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뚫은 것으로, 구멍의 배치가 매우 조밀하고 불규칙하다. 복합형인 것은 바닥면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큰 원형을 두고 그 주위로 선형 · 타원형 등 구멍을 냈다.

삼국시대 시루는 선사시대 시루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시루의 바닥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몸체가 구형이나 원형을 이루고 입술 아래에 짧은 목이 있거나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시루는 바닥이 반구형의 뾰족한 형태이다. 바닥면 중앙에 서너 개의 직사각형 구멍과 함께 그 주위로 직사각형 구멍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손잡이는 반고리형이다. 몸체와 손잡이 사이에 손을 넣어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고려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시루는 입지름이 넓은 동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손잡이는 삼국시대의 시루와 같이 반고리이다. 바닥의 구멍은 이전 시기의 시루보다 큰 원형이거나 큰 원형을 두고 주변에 삼각형, 직사각형, 다각형 등을 배치한 형태이다.

시루 형태를 살펴보면, 몸체는 원형 또는 구형에서 동이형, 손잡이는 쇠뿔형에서 반고리형, 바닥의 구멍은 미세한 원형이나 복합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원형의 일정한 배치구도로 각각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원삼국시대 시루**
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옹기시루와 양은시루**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5.12.5
강성복



**내용** 시루는 떡을 찌고 솥은 밥을 짓는 용구이다. 선사시대에서 잡곡을 가루 내어 시루에 찌는 형태인 떡이 주식이었다면 삼국시대 이후에는 잡곡을 솥에 넣어 익히는 형태인 밥이 주식이었다. 주식이 밥으로 정착되면서 의례문화의 발달과 함께 떡은 일상식에서 비일상식인 별식 또는 의례 음식으로 용도가 변화하였다. 시루떡은 오랜 세월 동안 의례 음식으로 활용되었다. 신에게 인간의 소망이나 기원을 바라는 고사음식,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제사음식, 세시에 따른 계절음식으로, 잡귀의 접근을 막아주는 벽사음식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 민족의 풍속에 '칠석고사'와 '상달고사'가 있다. 칠석고사는 음력 칠월 초이렛날 조상신을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에게 행하는 의례이다. 지역에 따라서 칠성제 또는 칠석제라고도 한다. 충북 괴산지역에서는 집 안에 상을 준비하여 흰 종이를 깔고 백설기 한 시루, 청수 한 그릇, 통북어 한 마리를 놓고 칠성제를 지낸다. 충남 공주지역에서는 초엿샛날 저녁에 시루를 마련하여 메, 미역국, 청수를 함께 장독대에 올려 사방에 절을 한 뒤 칠성소지를 올린다. 상달고사는 음력 시월에 행하는 의례이다. 이때 붉은 팥 시루떡을 쪄서 성주를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에게 올린다. 이때 이용되는 시루떡은 시루째로 대문이나 장독대 등에 놓는다. 이를 '치성시루'라고 한다. 이러한 고사에는 가내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혼례를 올리는 과정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보내는 절차가 있다. 이때 신부집에서 의례 음식으로 봉치떡을 준비한다. 봉치떡은 찹쌀가루와 붉은 팥을 이용하여 만든다. 붉은 팥에는 액을 피하고 잡귀의 접근을 막아내는 뜻이 담겨 있다. 이때 붉은 팥과 같은 의미에서 붉은 오지시루를 사용한다. 이것을 '봉치시루'라고 한다.

무속의 신에게 올리는 제물에도 시루떡이 등장한다. 경기도 도당굿에 행해지는 굿 절차 가운데 '시루말'이 있다. 시루말은 창세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무가로서, 시루를 앞에 놓고 굿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무속굿에 등장하는 신령인 대감신을 위해 차리는 제물에도 시루가 등장한다. 이때 대감신의 몫으로 차리는 대감시루의 떡은 대개 팥 시루떡이다. 굿에 따라서는 다양한 대감신이 모셔지며 대감신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시루를 장만한다.

시루는 매일 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례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 용구이자 의례 용구이다. 떡은 주식인 밥과 달리 비일상적인 의례 음식으로서 술과 함께 신에게 올리는 가장 중요한 제물로 인식된다. 이런 이유로 굿을 할 때는 떡을 쪄서 시루째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떡을 시루째 올리는 것은 시루가 신성한 그릇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시루의 형태와 이용양상**(장상교, 생활문물연구 9, 국립민속박물관, 2003), **우리나라 시루의 고고학적 연구**(오후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주거지출토 토기의 기능에 관한 시론**(김건수, 호남고고학보 5, 호남고고학회, 1997), **한국민속대관 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반도 선사시대 출토 곡류와 농구**(지건길 · 안승모, 한국의 농경문화 특집, 경기대학교출판부, 1983).

**필자** **장상교(張庠敎)**

## 시루떡

**정의** 쌀을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찐 떡으로, 가신에게 올리는 제물.

**역사** 옛 문헌인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가을 햇과일을 섞어 만든 신과병(新果餠), 석이버섯을 가루로



시루떡
국립민속박물관

내어 섞어서 만든 석이병(石栮餠), 감자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섞은 남방감저병(南方甘藷餠), 쑥을 섞어서 만드는 쑥떡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시루떡은 잔치, 제사, 시속음식(時俗飮食)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내용** 시루떡은 떡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섞어 시루에 켜켜이 안치고 찐 떡으로, 각종 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국 전통의 고유음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떡가루에 섞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백설기, 콩 시루떡, 대추 시루떡, 석이 시루떡, 갖은시루떡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는 각기 재료의 이름을 따서 콩 시루떡, 대추 시루떡, 팥 시루떡, 호박고지 시루떡, 무채 시루떡, 곶감 시루떡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시루떡은 가정신앙에서 성주, 삼신, 조상, 철륭, 터주, 조왕 등 가신에게 제물을 차려놓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올리는 제물이다. 크기가 작은 시루에 쌀가루를 넣고 찐 떡을 시루째로 올리거나 큰 시루에 떡을 쪄서 이를 사각형으로 잘라 일부만을 올리기도 한다. 시루떡은 여느 음식에 비해 정성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제의를 앞두고 시루떡이 잘 익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제물로 올린 시루떡이 설익어 있으면 부정을 탔다고 믿고서 스스로 경계하고 근신하기도 했다.

전남 보성지역에서는 안택을 할 때 성주지앙상을 걸게 차렸다. 이때 떡을 시루째 놓고 시루 안에다 참기름을 바른 종이를 꼬아서 기름불을 밝혔다. 시루떡을 찔 때도 정성을 들인다. 떡을 치다가 소변을 보면 떡이 설익는다고 하여 떡을 시루에 안치기 전에 미리 소변을 보고, 떡을 안친 뒤에는 떡이 익기까지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영광지역에서는 떡을 찔 때 머리를 감는 등 깨끗하게 준비한 뒤에 찌며, 찌는 동안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도 찌는 동안 화장실을 다녀오면 떡이 설익는다는 말이 있다. 또 임신부가 시루 안치는 것을 보면 떡이 익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시루에 불을 지필 때는 가랑이를 오므리고 앉아야 한다.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불을 지피면 시루번이 터지고, 푹푹 불어서 헛김이 나며, 떡이 잘 익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들이 불을 지피면 시루떡이 빨리 익는다는 말도 전한다.

이러한 시루떡은 안택할 때 팥 시루떡과 백무리떡(백설기)으로 준비한다. 팥 시루떡은 조왕, 성주, 터주 등에 둔다. 백무리떡은 장독대의 칠성에게 올린다. 가을에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나면 '농사가 잘됐다'고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햅쌀을 가지고 떡을 쪄서 '집안떡'을 한다. 떡은 팥으로 켜를 넣은 시루떡을 찌며, 시루떡은 정화수와 함께 성주를 모셔둔 곳과 장독대에 가져다 둔다. 또한 명절에 성주상을 차릴 때 성주 앞에 시루떡와 촛불을 밝혀놓고 한 해 동안의 가족의 무사안일을 기원한다. 그리고 의례 주관자에 따라 성주상과 함께 바닥에 삼신상을 차릴 때 떡시루를 삼신상에 올린다. 이때 시루떡을 조금 떼어서 성주상 밥 위에 얹어놓기도 한다. 생일 때 올리는 성주상에서는 팥 시루떡을 비롯해 밥, 미역국, 나물을 차려놓고 촛불을 밝혀놓는다. 특히 자녀의 생일에는 성주상을 차리면서 올해 일 년 동안 재수있고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비손한다.



시루떡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2004.1.3(음)
강성복

성주 외에 철륭을 모시는 집에서는 설, 보름, 추석 때가 되면 철륭단지 앞에 상을 차린다. 이때 차례상 못지않은 시루떡을 비롯하여 준비한 음식 모두를 차려놓는다. 또한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촛불, 시루떡, 밥, 나물 등의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모시기도 한다. 아이를 낳을 때면 아이 낳을 방의 윗목이나 임부 머리 위에 삼신상을 차린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일곱이레를 모시면서 이레마다 밥, 미역국, 나물, 팥 시루떡, 정화수를 차려놓고 촛불 하나를 밝혀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축원한다. 이레마다 밥, 떡, 국, 음식을 차려놓고 젖이 많이 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이레마다 올리는 시루떡을 '이레떡', '삼신떡'이라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 시루떡은 주재료 외에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고, 모양과 맛 또한 다양해졌다. 그러나 제물로 올리는 시루떡은 어떠한 재료도 넣지 않고 쌀가루만으로 찐 백설기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당산제를 모시는 마을에서는 여느 재료도 섞지 않은 백설기를 시루째로 올린다. 이는 순백색의 떡이 깨끗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일이나 제사 때는 팥, 콩 등을 넣은 시루떡을 성주, 삼신, 철륭에게 바치기도 한다. 특히 액막이를 할 때는 주로 팥 시루떡을 한다. 이렇듯 우리 문화에서 시루떡은 쌀과 함께 상징적인 문화양식이라 할 수 있다. 제물의 성격을 지니는 음식문화 이외에 시루에서 보여주는 옹기문화, 끓이고 삶는 조리가 아닌 증기로 떡을 쪄내는 고난도의 조리법 등은 전통적인 음식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한국적인 맛과 이미지와 역사가 함축적으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지역민속의 전승체계와 활용**(서해숙, 민속원, 2007),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필자** **서해숙(徐海淑)**





## 시매

**정의**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에서 당제나 배고사 등을 지내러 갈 때 부정을 막고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연기를 피우는 홰. 시매의 어원은 '섶'을 뜻하는 '시(柴)'와 막대기나 방망이를 지칭하는 '매'가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매는 '섶막대기' 또는 '짚방망이'를 뜻한다.

**형태** 시매는 횃불과 유사하게 짚이나 억새 따위로 엮는다. 크기는 길이 약 1m, 둘레 30㎝ 안팎이다. 엮는 방법은 짚을 방망이 모양으로 길게 뭉친 다음 일곱 마디가 되도록 묶는다. 이때 너무 세게 묶으면 불이 잘 붙지 않고, 느슨하게 묶으면 금세 타기 때문에 적절하게 힘을 조절한다. 묶는 줄은 짚이나 왼새끼로 꼰 새끼줄을 사용한다. 매듭 사이사이에는 고추, 숯, 솔가지 등을 끼운다.

**내용** 시매는 충남 서해안지역에서 전승되는 당제, 배고사, 선창고사, 용왕제 등에 사용된다. 즉 제관의 집에서 제장(祭場)에 이르는 길목에 깃들어 있는 부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시매를 만들어서 연기를 피운다. 예를 들어 섣달그믐날 배고사를 지내는 선주는 당일 낮에 미리 시매를 매어 두었다가 대문을 나서면서 불을 붙인다. 시매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면서 매운 냄새가 진동한다. 이 연기와 냄새로 인해 잡귀와 부정한 존재가 범접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시매를 든 제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제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다음 바닥에 시매를 눕혀 놓고 제사를 지낸다. 액(厄)을 실어 보내는 '발심지'나 '띠배'처럼 시매를 물에 띄워 보내기도 한다.

서천군 서면 월호리 월하성마을에서는 당제를 지내러 갈 때 당주가 시매를 들고 행렬의 선두에 선다. 시매는 볏짚을 길게 추려서 왼새끼로 꼬아 일곱 마디로 묶고 매듭도 왼쪽으로 가게 한다. 각 마디에는 솔가지, 고추 등을 끼운다. 솔가지를 넣는 이유는 연기가 많이 나고 시매가 천천히 타도록 하기 위함이고, 붉은 고추는 부정을 쫓기 위해서다.

음력 섣달그믐날 당제를 지내는 서천군 서면 마량

시매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월하성마을, 국립민속박물관







리에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화주가 맨 앞에 서서 시매를 들고 연기를 피우며 선창으로 향한다. 이날 당제를 마친 뒤 배고사를 지내는 선주들도 시매를 가져간다. 조업을 시작하는 2월이나 3월, 가을어장이 시작되는 9월에도 배고사를 지낸다. 이때 선주는 대문을 나서며 시매에 불을 붙여 어선이 정박한 포구로 간다. 길을 가는 도중에 잘 타지 않으면 허공을 향해 이리저리 시매를 내두른다. 어선에 도착하면 배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부정풀이를 한 다음 바닷물에 시매를 띄운다. 배고사를 지내는 날 성주와 용왕을 치제할 때에도 시매가 사용된다. 선주가 배고사를 지내기 위해 집을 나서면 주부는 성주에게 먼저 치성을 드린 뒤 시매에 불을 붙여 용왕제를 지내러 바닷가로 간다.

**의의** 시매는 단순히 불을 밝히기 위한 횃불이 아니라 독한 연기를 피워 부정을 쫓는 제구(祭具)이다. 시매의 매듭마다 고추, 숯, 솔가지 등을 끼우는 것은 금줄과 동일한 의미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고추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 벽사(辟邪)의 상징물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동티를 잡을 때 고추를 불에 태워 매운 냄새로 잡귀를 쫓아내기도 한다. 또한 숯과 솔가지는 그것이 지닌 정화력으로 액운을 막고 부정을 해소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일곱 마디로 시매를 묶는 까닭은 망자의 시신을 일곱 매듭으로 묶어서 염을 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이는 통북어의 배를 갈라 죽을 운이 낀 사람의 사주를 넣고 일곱 마디로 묶어서 땅에 묻거나 시냇물에 흘려보내는 '홍수[橫數]매기'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달빛 아래 신선이 노는, 월하성 마을**(충청남도 · 국립민속박물관, 2010), **서천의 당제–서면을 중심으로**(이필영, 서천문화원, 2004),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현지조사자료**(윤덕용, 남, 1931년생,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필자** **강성복(姜成福)**

## 신구간(新舊間)

**정의** 대한(大寒) 후 5일째부터 입춘(立春)이 되기 3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인간이 사는 지상에 하늘의 신들이 없는 기간.

**유래** 신구간이라는 용어는 고대로부터 전해온 풍속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1737년(영조 13)에 지백원(池百源)이 지은 『천기대요(天機大要)』에서 유래한다. 『천기대요』에 「세관교승(歲官交承)」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까지 신구세관이 교대하는 때이다.(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新舊歲官交令之際)"라고 하였다. 오문복의 『풍천약사(豊川略史)』에도 "『천기대요』「세관교승」에 따르면, 대한 후 5일에서부터 입춘 전 2일은 '신구세관(新舊歲官)을 교체하는 때'라 하고, 이어서 먼저 선조의 신주를 길 한쪽으로 내어 모신다. 다만 날을 잘 가려서 출운하여 상극을 입음과 여러 가지 흉상을 꺼리지 말고 기조(起造) 장매를 마음대로 하여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송상조의 『제주말 큰 사전』에는 신구간에 대해 조금 다른 기록이 보인다. "신구간은 절기상으로도 대한 후 7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6일 동안의 기간이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손이 없다고 믿고 주로 이사를 가고, 집안에서 '동티'가 두려워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집안을 뜯고 고치고 하는 기간"이라 하였다.

**내용** 제주 사람들은 해마다 하늘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관장하다가 신구간에 임무를 다하여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새해에 새로 부임하는 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새해의 직책을 맡고 지상에 내려오기 전, 하늘로 올라간 신들이 내려오기 전에 지상에는 신들이 부재(不在)하는 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때는 그해의 운수가 불길하거나 길일(吉日)이 없어 채 이루지 못한 건축·수리·면례(緬禮)·이사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날을 가리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이때는 집안의 모든 신, 심지어는 측간(厠間,변소)의 신까지 지상에 없기 때문에, 변소를 고쳐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간이다. 이때는 헌집을 고치고 새집을 짓고 변소를 고치고 부정한 일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워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 신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들이 부재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은 새로 부임하는 신들에게 모두 용납된다. 신구간이 지나면 추위가 가고 새날 입춘을 맞이하는 것이니, 신구간은 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겨울나기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한 집안 손질은 언제나 이 '신구간'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모든 지상의 일을 신적 조화로 믿고 평소에 꺼리는 일들을 손보아도 무탈하다고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가는 동티가 나서 그 집에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신구간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조왕, 물류[門戶], 통시(변소), 쇠막(외양간), 집중창(집의 일부분을 고침), 울타리 안에서의 흙 파는 일, 울타리 수리, 나무 자르기 따위의 일을 하면, 동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티로 아프게 되는 증상으로는 다리아피[脚疾], 눈아피[眼疾], 머리아피[頭痛], 목아피[喉痛], 가슴아피[胸痛], 전신불수 등이 있다. 이러한 아픈 증상이 한결같지 않게 나타나고, 급한 동티가 생겼을 때는 심방을 청해다가 빌 사이도 없이 죽는다고 한다. 특히 조왕, 칠성, 변소 등의 동티는 대개 눈아피[眼病]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하여 이사나 집수리를 할 때 반드시 이 신구간을 찾게 되며, 평상시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구간'이라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이사 갈 곳의 방위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 이사에 중심이 되는 긴요한 물품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사 갈 때 빼 놓을 수 없는 요긴한 물품은 체와 푸는체(키)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개 이사할 때에는 체와 푸는체만을 먼저 옮기면 이사는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나머지 살림들은 나중에 옮기거나 옮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한편 이사에 수반되는 긴요한 물품을 솥, 단지(요강), 체, 푸는체라고 하며 여기에 화로 한 개를 추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대주(大主)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이도 있으며, 여기에 다시 부부를 같이 말하는 이도 있다. 이상에서 보면 이사 갈 때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는 체, 푸는체, 솥, 단지(요강), 화로를 사람으로는 대주와 부인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끝, 상사 끝'이라는 속담에서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듯이, 이사할 때의 잘못으로 생기는 흉험조화(凶險造化) 역시 체와 키에서 생긴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속신은 농어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신구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아야 할 방위로는 '명삼살이 방위'와 '해삼살이 방위'가 있다. 이러한 방위는 집안 식구마다 다 보지 않고, 그 집의 대주 한 사

람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삼살이는 종신 막혀있는 방위를 가리킨다. 해삼살이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한 해만 지내면 트이게 된다. 명삼살이에 걸려 있는 방위에는 한 울타리 속에서도 못짓게 된다고 하거니와, 다만 이사 가야 할 곳이 먼 곳이면 명삼살이는 무시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해삼살이에 걸렸어도 그 곳으로 꼭 이사를 가야 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다. 돌아서 가는 방법이란, 가령 대주가 현재 북쪽에 살고 있고, 그 해의 해삼살이가 남쪽에 있어, 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경우라면 대주가 서쪽 또는 동쪽에 가서 2~3주 가량 묵고 그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삼살이인 경우는 돌아서 가는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부분 도시생활을 하게 되었다. 도시라는 곳이 본래 주택난이 심한 곳이므로 이 신구간이 이사하는 기간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폐단도 생겨났다. 한꺼번에 이사를 하려니 집세가 올라가고, 이사한 쓰레기가 산적하게 되어 청소부들이 밤을 새워야 하고, 전화·컴퓨터 등을 한꺼번에 옮겨야 하니 관계기관이 특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풍속은 유지되고 있다.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보면 불편하지만 집을 빌려주는 주인 입장에서는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 임대기간에 따른 사용료를 정할 수 있고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어 매우 편리하다. 따라서 신구간이라는 세시풍속은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근래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의 제주의 기온이 섭씨 5도 정도이니 모든 병균이 기를 쓰지 못하고, 또 농한기여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다른 지방에서는 겨울에 추워서 이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천기대요』에는 대한 후 5일에서부터 입춘 전 2일이라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입춘 전 3일로 되어있는 것은 기후로 본 민속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윤용택은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에서 신구간의 뿌리를 위의 선학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관청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했던 도참서인 『천기대요』와 실학자 홍만선(洪萬選)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찾아 정리했다.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동티'의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계절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일평균 기온이 5~20℃이면 봄·가을, 20℃ 이상이면 여름, 5℃ 미만이면 겨울이라는 계절 분류를 가지고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신구간 동안 우리나라의 위, 중간, 아래인 서울, 광주, 제주의 기온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제주에는 일평균 기온 5℃ 이하인 날이 한 해 8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신구간과 거의 일치하는 8일이었다. 여기서 윤용택은 "기온이 5℃ 밑으로 내려가면 세균들이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5℃ 이상이면 세균이 활개를 펴 사람들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앓게 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앗아간다."라고 하였고, 거기에서 동티의 정체를 찾아낼 수 있다 하였다. 그는 제주 사람들이 『천기대요』나 『산림경제』를 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구간의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옛사람들이 겨울에 이사하면서 동티가 나지 않고 무사히 이사를 마친 경험과 지혜가 후세에 전해지면서 신구간이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옛사람들에게 신구간은 '미신'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꽤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하였다.

즉 제주에만 신구간이 있는 이유를 이 지역의 독특한 풍습과 환경적 영향에서 찾아냈다. 제주는 여느 지역과 달리 유난히 섬기는 신이 많고, 세균의 활동이 뜸한 5℃ 미만의 날씨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天機大要, 공자왈·맹자왈**(현용준, 민속원, 2007), **南國의 民俗-제주도 무속**(진성기, 교학사, 1975), **내고장 傳統文化**(북제주군, 일신옵셋, 198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한국문화사, 2007), **제주문화상징**(제주특별자치도, 2008), **臺川略史**(오문복, 풍천초등학교, 1987),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 1991).

**필자** **문무병(文武秉)**

## 신수보기

**정의** 음력 정월에 일 년 동안의 길흉(吉凶) 운세를 점치는 것.

**역사** 신수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는 인간의 길흉을 알아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오래된 풍속 중의 하나이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쌀점을 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삼재(三災)가 든 집안에 매 세 마리를 그려서 문 상방에 붙인다거나, 미래의 조짐을 미리 듣는 청참(廳讖), 오행점(五行占)을 쳐서 새해의 신수 점치기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신수보기의 연원은 적어도 조선 후기까지로 소급할 수 있다.

**내용** 신수보기는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아보고, 이를 판단하여 경계하고 예방하는 피흉취길(避凶趣吉)을 위한 것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정월에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정월 초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점을 치는데 가족 구성원의 일 년 동안의 악운, 대운, 재물운 등에서 중요한 운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토정비결(土亭祕訣), 산통점(算筒占), 오행점(五行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타로카드(taro card)점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신년운세 보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신수보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토정비결(土亭祕訣)과 사주(四柱)이다. 그 외에 신점(神占), 척미점(擲米占), 전점(錢占), 육효점(六爻占), 오행점(五行占), 새점 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주나 토정비결의 보조적인 풀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윷점, 청참(廳讖) 등도 민간에서 손쉽게 점치는 방식이다. 즉 전문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방식과 민간의 가정 내에서 점을 치는 방식들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대개 점받이, 명도점쟁이, 무당 등 전문적인 복술가를 찾아가서 그해 신수를 묻기도 한다. 점쟁이들은 으레 신수가 나쁘다고 하면서 액막이굿을 해야 하느니 부적을 지녀야 하느니 하는 경우가 많다. 처방에는 크게 굿에서부터 치성·예방 등의 방식이 있으며, 민간에서도 다양한 처방법이 속신의 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수점을 보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토정비결, 산통점, 육효점, 오행점, 팔랑개비점, 윷점, 청참, 집불이, 얼음점, 식구불켜기가 있다.

**토정비결(土亭祕訣)** 새해에 신수보기 중 가장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토정비결'이다. 토정비결은 가족 구성원의 일 년 운세를 일 년 전체의 운과 월별 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악운·대운·재물운 등의 특징적인 분면을 알아보는 방식이다.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명종 때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지은 책으로 그해의 신수를 보는데 쓰였다. 이지함은 포천 현감과 아산 현감을 지냈는데 궁핍한 백성들의 생활을 보고 항상 가슴 아프게 여겨 선정을 베풀었으며, 구제 대책을 왕에게 상소하여 반영시키기도 하였다. 아산 현감으로 있을 때 걸인청(乞人廳)을 설치하여 흉년에 극빈자를 수용하는 등 기민(飢民) 구제 정책에 전력하였다. 청렴한 생활을 미루어 보면 이 책의 저작 동기와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지함과는 관계없이 그의 이름을 가탁한 책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예전에는 한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토정비결 책을 사다가 직접 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문을 공부하거나 토정비결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신수



신수보기
국립민속박물관

를 보았다. 근래에는 전문적인 직업인들을 찾아가서 토정비결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토정비결과 함께 사주 외의 다양한 보조적 풀이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토정비결 운세 보기 등도 유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괘로 풀이한 것으로, 작괘법(作卦法)을 보면 백 단위(상괘), 십 단위(중괘), 일 단위(하괘)가 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괘가 이루어진다.

백 단위는 나이와 해당 년의 태세수(太歲數)를 합한 수를 8로 나눈 나머지 숫자이다. 이 때 만약 나머지가 없으면 8이 된다. 십 단위는 해당 년의 생월(生月) 날자수(큰달이면 30, 작은달이면 29)와 월건수(月建數)를 합한 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 수(6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일 단위는 생일수와 일진수(日辰數)를 합한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수(3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된다. 이렇게 얻은 세 단위의 숫자대로 책에서 찾으면 맨 처음에는 괘상이라 하여 그해 전체의 운수를 개설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월별 풀이가 나온다.

이러한 괘풀이 과정에서 나타난 토정비결의 결과물은 대개 사언시구(四言詩句)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한 줄로 번역되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다른 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와 상징적인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 목성을 가진 귀인이 와서 도와주리라",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니 귀한 아들을 낳으리라."는 희망적인 구절이 많다. 좋지 않은 내용도 "이달은 실물수(失物數)가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화재수가 있으니 불을 조심하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도 희망을 갖게 한다. 이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통점(算筒占)** 산통점은 여덟 개의 산가지가 들어 있는 산통을 흔들면서 한 개씩 뽑아낸 뒤 그 산가지 몸에 새겨진 눈금의 수로 괘를 만들어 치는 점을 말한다.

점치는 사람은 문복인(問卜人)의 생년월일, 성명 등을 물어서, 찾아온 사람의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달라는 축원을 외며 산통을 흔들다가 산통 머리에 뚫어진 작은 구멍을 통하여 한 개씩 무작위로 뽑아내 새겨진 눈금에 따라서 괘를 만든다.

산통이나 산가지는 목재나 금속으로 되었는데, 둘 중 한 가지는 대개 금속이어서 흔들 때 짤랑짤랑 소리가 요란하다. 복채(卜債)가 적게 놓이면 정성이 부족해서 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흔들기를 계속하는 풍경도 보게 된다.

산통의 크기는 손으로 잡기 알맞을 정도이며, 점의 내용은 주로 병점(病占), 실물점(失物占), 일 년의 운수를 보는 신수점(身數占)이 많다. 음력 초순이면 일 년 열두 달의 신수를 보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것도 6·25전쟁 이전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세시풍습이었다.

**육효점(六爻占)** 산통점과 함께 조선시대에도 많이 행해진 점법의 하나로, 산통점의 방식과 전점(錢占)의 방식을 합하여 괘를 살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식이다. 대개 엽전 세 개를 여섯 번 던져서 그 표리(表裏)를 살펴, 여섯 개의 양효(陽爻)와 음효(陰爻)를 구해서 각각 하나의 괘를 만들고, 이 괘를 기초로 점을 치거나, 산통의 산가지를 뽑아서 괘를 만드는 것을 여섯 번 반복해서 그 괘로 풀이하여 점을 치기도 한다. 솔잎을 뽑아 여섯개의 효를 구해서 점을 치는 송엽점(松葉占) 또한 이러한 육효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행점(五行占)**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오행(五行)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음양설에 근거를 둔 점술이다.

오행점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바둑돌 만하게 깎아서 점을 친다. 또는 콩 다섯 알을 가지고 하기도 한다. 동쪽으로 뻗은 대추나무나 복숭아나무 가지를 지름 2㎝, 길이 3㎝로 잘라서 이를 세로로 이등분하여 그 평면에 금·목·수·화·토의 글자를 각각 쓴다. 이 다섯 개를 손에 모아 쥐고 섞으면서 신에게 기원한다. "하늘의 말씀이 있으면 땅에도 말씀이 있을 것이요, 감응하시면 순통하시오. 지금 어디서 사는 아무개 모년 모월 모일생이 점을 치니 신령께서는 거역치 마시고 잘 점지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세 차례 외운 다음, 땅에 던져 나타난 오행의 글자에 의하여 상괘·중괘·하괘를 정하고 길흉을 알아보는 것이다.

괘는 모두 31괘인데 오행의 상생 상극의 이치를 적용시켜 해석한다. 점목으로 대추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쓰는 것은 대추나무의 단단함이 약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믿음과 복숭아나무는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에서이다. 그리고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것은 해가 솟는 동쪽의 양기가 악귀를 물리친다는 생각 때문이다.

**팔랑개비점** 팔랑개비를 만들어 달고 그 도는 정도에 따라 한 해 신수의 길흉을 점치는 방식이다.

종이를 접어 만든 팔랑개비를 나뭇가지에 꽂아서 지붕이나 낟가릿대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꽂아 두고, 팔랑개비가 도는 정도를 보아 신수를 점친다. 잘 돌면 길하고 잘 돌지 않으면 흉하다. 팔랑개비가 쉴 새 없이 돌면 솔개·까마귀·박쥐 같은 흉조조(凶兆鳥)가 날아들지 못하며, 귀신도 들지 못한다고 믿는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수동·행동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식구 중 신수가 좋지 않게 나온 사람이 팔랑개비를 접어 사립문에 꽂아 두고 팔랑개비가 저절로 없어지면 운이 좋아지는 것으로 믿었다.

**윷점** 설날에 윷을 던져 길흉을 점치는데, 대개 윷을 세 번 던지는 것으로 괘(卦)를 만들어 운수를 본다.

**청참(聽讖)** 청참이란 예부터 민간에서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밖으로 나가 거리를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처음 들리는 소리로 그해 일 년의 신수를 점치는 풍속을 말한다.

이날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행운이 오며, 참새 소리나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흉년이 들거나 불행이 올 조짐이라고 믿었다. 이는 민간신앙에서 조류 중 까치는 길조에 속하며, 까마귀는 흉조에 속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정월 초하룻날이 아니라도 이른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며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로 여겨 왔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날짐승이건 길짐승이건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 길조라고 여기는 곳도 있다. 특히 첫날 까치 소리나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또 먼 곳에서 나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닌 평년작이 들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한 해를 무난하게 지낸다고 믿었다.

조선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동국세시기』에는 중국에도 한국의 청참과 같은 풍속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옛날 중국의 연경(燕京)에는 섣달 그믐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조왕신에게 방향을 일러 달라고 비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문 밖으로 나가서 조왕신이 일러주는 방향을 따라 거리를 거닐다가 처음 들리는 소리를 듣고 새해의 길흉을 점쳤다.

**집불이** 정월 열나흗날에 콩이 불은 정도를 보고 그해 신수를 점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한자로 '호자(戶滋)'라고 한다.

『동국세시기』 정월 상원조(上元條)에는 집불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다. "동네 안의 호수대로 콩을 골라 호주(戶主)를 표시하고 짚으로 묶어 우물 속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어서 징험을 보아 불은 콩의 주인은 그해에 풍년이 들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

달불이[月滋]가 마을 전체의 점복이라면 집불이는 개인의 점복이다. 동네의 호수(戶數)대로 콩에다 호주를 표시하고 짚으로 묶어서 우물에 집어넣었다가 보름날 아침에 꺼낸다. 우물이 없으면 사발이나 종지에 물을 가득 부어 그 속에 콩을 담그는 등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때 콩이 붇고 안 붇는 것으로 그 집안의 수해, 한해, 평년작을 징험한다. 잘 불었으면 그 집 호주의 신수가 좋고 그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겼다.

**얼음점** 정월대보름날 밤에 그릇에 물을 담아 두었다가 얼음이 언 상태를 보고 치는 점이다. 사발에 물을 담아 얼음이 어는 것을 보고 점을 친다고 하여 사발점이라고도 부른다.

그릇에 물을 담아 두고 밤 사이에 얼려서 얼음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보고 점을 치는데, 그릇에 얼음이 많이 부풀었으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동국세시기』 등에도 보이는 오랜 관습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는 정도를 보고 개인이나 가정의 신수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때 몫에 따라 식구 수대로 물을 떠 놓거나 각 가정별로 떠 놓은 물 그릇 여러 개를 큰집·작은집 또는 농사 접시·고기잡이 접시 등으로 정하여 놓기도 한다. 지역차가 있으나 모두 얼음이 그릇보다 위로 부풀어 오르게 언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다.

**식구불 켜기**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식구 수대로 불을 켜서 불의 크기와 밝기 등으로 그해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종지나 접시 같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목화, 창호지, 실 또는 명주실 같은 것으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인다. 식구 수대로 하나씩 만들어 불을 켜는데 불이 타는 모양에 따라 그해 신수를 점친다. 불이 심지에 잘 붙어서 꺼지지 않고 기세 좋게 타올라 깨끗하게 다 타버리면 그해 신수가 좋지만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거나 검댕 같은 것이 남아 있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충남 · 전북 · 전남 등지에서 가장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일대에서는 등잔불 대신 잣을 실이나 바늘 같은 것으로 꿰어 불에 태워 봄으로써 신수를 보는 곳도 있다.

지역사례 민간에서는 구체적인 점을 치는 형태 외에도 정월에는 다가올 지도 모를 액(厄)을 방지하고 복을 빌기 위한 다양한 민속과 기원 의례가 발달하였다. 복조리 걸기, 성주상 차리기, 대문 열기, 토정비결 보기, 액막이, 대장군 방향보기, 입춘첩(立春帖) 붙이기, 산제(山祭) 지내기, 용왕제, 지신밟기, 부럼 깨기, 귀밝이술 마시기, 조리밥 얻어먹기, 엄나무 걸기, 달집태우기 등은 모두 이러한 성격의 민속 행사이다.

대개 민간에서는 운수가 좋지 않은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책들이 사용되고 있다.

**허수아비 버리기**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아 그해 신수가 나쁘다 하면, 정월 열나흗날 짚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는 허수아비를 만들고 그 안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써서 밥, 떡, 돈을 함께 넣어 밤에 삼거리나 사거리에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허수아비 버리기'라고 한다.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곁대마을에서는 열나흗날 밤에 허수아비를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봉고개 서낭당에 버렸다고 한다.

**거리제**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3리에서는 정초에 신수를 보아서 좋지 않으면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세 갈래 길로 나가 거리제를 지낸다. 제물은 바닥에 짚을 깔고 나물 세 가지와 쌀밥 세 접시를 준비하되, 동전 세 개 또는 일곱 개를 함께 가져간다. 이는 귀신들이 돌아갈 때 사용하는 노잣돈으로서 제물 옆에 놓아둔다. 그리고 액땜을 위한 비손을 한 다음 제물은 모두 엎어 놓는다. 거리제를 지낸 제물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므로, 빈 그릇도 대문 앞에 놓았다가 이튿날 가져온다. 이외에도 논산지역에서는 상월면의 상도2리 거리제(음력 정월 열나흗날)와 은진면의 성덕리 거리제(음력 정월 초삼일) 등이 행해지고 있다.

**웃동정 버리기** 웃동정 버리기로 한 해의 신수가 나쁘게 나올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월대보름날에 일종의 액막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고리의 목둘레에 꿰매어 달아 놓은 하얀 동정을 버림으로써 액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해 신수가 나쁜 사람은 보름날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 동쪽을 향하여 나이 수대로 걸어간 후, 자신이 입었던 옷의 동정을 뜯어서 버리고 달을 보며 네 번 절한다. 이렇게 하면 한 해의 신수를 보장받는다고 믿었다.

**적선(積善) 또는 정월 오쟁이 놓기** 정월대보름날에 그해 신수가 불길한 사람이 액땜을 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풍속이다. 다리를 놓거나 다리 대신 가마니나 돌을 넣은 오쟁이 같은 것을 놓음으로써 남을 위해 적선하는 것이다. 이때 놓는 다리를 노디 · 노지 · 노드 · 노들 · 노두 · 노두독 · 노다리 · 띄은다리 · 유둣돌 · 오쟁이 · 오장치 · 오쟁치 · 오쟁이돌 등이라 하는데, 모두 일종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노두는 바윗돌이 겉에 드러난 것이란 뜻으로 노두(露頭)나 노두(路頭)라 풀이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을 노드놓기 · 오쟁이놓기 · 오쟁이액맥이라 한다.

경남 진주시에 전하는 액땜 풍속으로 짚으로 작은 섬을 만들어 마을 냇가 징검다리 사이에 놓는데, 이것을 '노자(路資) 놓는다'라고도 한다. 오쟁이 세 개를 엮어 돌이나 흙을 채운 다음, 엽전 몇 개를 함께 넣고 대보름 전날 밤이나 새벽에 마을 냇가의 징검다리 사이에 놓는다.

적선에 대한 유래는 제웅버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동국세시기』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羅睺直星)을 당하면 짚으로 인형인 추령(芻靈)을 만드는데 사투리로 이를 처용이라 한다. 머리 속에 동전을 넣고 보름 전날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을 없애 버린다. …… 처용의 명칭은 신라 헌강왕 때 동해 용왕 아들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열나흗날 밤에 풀로 허수아비(인형)를 만들어 처용이라 하고 그 머리 속에 동전을 넣었다. …… 처용직성(處容直星)을 가장 꺼려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길에 버려 재액을 막는다."

의의 정월은 그해 처음으로 든 달이므로 이 달에 일 년의 운세를 점치는 여러 방법이 있었다. 이러한 신수보기 방식은 운세를 점쳐서 이를 아는데 그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쁜 일을 미리 알아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식인 동시에 삶에 대한 경계와 삼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논산시지**(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세시풍속-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세시풍속-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민속대관 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민속대사전 2**(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의 세계 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김은희(金銀姬)**

## 신줏단지

상호참조 조상(591쪽)

정의 신주(神主)와 단지[甕]의 합성어이며, 신주는 조상신을 의미하고 단지는 조상신을 상징하는 신체(神體). 곧 조상단지를 뜻한다.

역사 신줏단지는 조상숭배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매우 유구하다. 물론 이것은 신체의 본질인 조상신이라는 신격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김알지신화, 혁거세신화 등 신화에서는 시조의 신성한 탄생을 강조한다. 특히 김알지신화에서 김알지가 알에서 나온 사실이나 '알지'라는 이름이 곡식을 나타내고, 그가 태어난 금궤가 조상신을 모신 상자로 생각한다면 이 또한 신줏단지와 무관치 않다. 삼국시대에 하늘과 산천에 제사하고 시조묘를 세워 시조신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했음을 볼 때 조상신의 역사성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종묘제도의 틀을 갖추어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을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귀족에서 일반에 이르기까지 조상신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의 건립을 강조하고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즉 자손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죽은 뒤에 제사로써 정성껏 받들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농가에서의 신줏단지는 조선시대 이후 사당의 영향을 받아서 위패 대신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농가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자학이 크게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윤회봉사(輪回奉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제사를 주로 사찰에서 지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사찰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것은 고려 말에 논의되기 시작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주자학은 조선 중기까지 그리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17세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양반은 물론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확대 보급되었다. 이 시기에 반친영제도가 정착하고 장자와 장손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장자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18세기 무렵에는 장자 위주의 제사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양반가에서 사당, 농가에서 사당이나 위패 대신 신줏단지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줏단지를 주로 장손의 집에서만 모시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제사습속의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형태 신줏단지는 크게 쌀 등 곡식을 넣은 단지·바가지·주머니형태와 위패를 봉안한 상자·감실형태로 나뉜다.

곡식을 신체로 삼은 것은 곡령숭배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곡령숭배사상은 세계의 여러 농경민족 사이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한민족의 곡령신앙은 가을철에 수확이 끝난 뒤 햇곡식을 담아놓고 명

절에 간단한 제사를 지내는 식이다. 여기서 곡식은 신앙적 차원에서 곡령이 지니고 있는 풍양의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주로 벼농사지역에서는 벼나 쌀을 담아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리를 많이 재배한 영남, 충북,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벼와 더불어 보리를 넣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중남부의 밭농사 중심지대나 동북부 화전지대에서는 조, 기장, 메밀, 콩, 팥 등 밭작물의 곡식을 넣기도 한다.

첫 번째 단지형태는 먼저 단지나 큰 항아리에 쌀을 가득 채워 놓고 한지로 봉한다. 단지의 경우 안방 시렁, 항아리인 경우 안방 한쪽 구석이나 대청에 각각 모셔 둔다. 단지나 항아리의 쌀은 햇곡식이 나면 햇곡식으로 바꾸어 넣고, 묵은쌀은 가족끼리만 밥을 지어 먹는다. 햇곡식으로 갈아 넣을 때는 주부가 목욕재계를 한 다음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서 한다. 이와 같은 단지의 형태는 비교적 널리 분포된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단지 안에 엽전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바가지형태는 바가지에 찐쌀을 넣어 한지로 봉한 다음 시렁에 모셔놓는다. 생쌀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찐쌀을 넣어 둔다. 경상도에서는 가을걷이 후 시준단지의 쌀을 갈아 넣는다. 부정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날을 잡아 생쌀을 솥에서 볶아 넣기도 한다. 세 번째 주머니형태는 곡식 석 되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쌀로 가득 채워 안방에 걸어두는 것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이 주머니를 제석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번째 위패를 모시는 형태로서 전남 담양 일대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석짝(상자) 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명을 기록한 한지를 넣어 안방 시렁에 올려놓는다. 이를 신줏단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4대조의 위패를 모신 감실형태가 있다. 감실은 조선시대 사당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당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는 양반가에서 조상을 모시는 공간이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사당 대신 감실을 사용하였다. 감실은 사당 건축의 축소된 모형으로서 사당의 모습과 유사하다. 감실은 호남의 완도, 진도, 신안 등 해안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단지나 감실형태의 신줏단지가 자취를 감추면서 자연스럽게 조상의 영정사진을 안방 벽에 걸어 놓고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기도 한다. 이는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줏단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1998
코리아루트

**내용** 조상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신줏단지는 일반적으로 장손의 집 안방에 모셔진다. 경기도에서는 제석주머니, 경상도에서는 조상단지·세존단지·부루독·부루단지, 강원도에서는 삼신바가지, 충청도에서는 조상님·제석, 제주도에서는 조령숭배, 전라도에서는 지석오가리·제석단지·세존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농가에서 신줏단지를 모시는 안방은 의례와 신앙의 중심 공간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각종 의례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안방은 중심 역할을 한다. 안방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출산의례, 생일잔치, 죽음의례를 비롯하여 명절마다 거행되는 각종 의례가 거행된다. 안방은 명절에 차례나 4대조 조상까지의 기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 선영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조상신앙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다. 조상에 대한 신앙심은 조상신이 한 가문과 자손들을 돌보고 지켜 주며, 화복(禍福)을 좌우한다고 믿는 데서 기인된다. 이 때문에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자손이 번창하게 되며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화를 미치게 하여 가족들이 불행해진다고 믿는다.

조상신의 신체인 신줏단지는 안방의 시렁 위에 단지형태로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은 4대조까지이며, 5대조 이상은 10월에 무덤에 가서 지내는 묘제(시제)로 통합된다. 조상신에 대한 의례에서 조상신에 대한 제일(祭日)은 전국적으로 일정치 않지만 보통 정월대보름, 유월유두, 칠월칠석, 팔월보름, 식구들의 생일이 된다. 형식은 신체 앞에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이 보통이다. 주로 주부에 의해 진행되고, 가족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정도이다. 호남지역에서는 주로 설과 대보름, 추석에 신체 앞에 촛불을 밝히고 음식을 차려 놓는다. 신체가 감실인 경우는 반드시 감실의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 제물로는 메, 떡, 채소, 과일, 조기, 술 등이 진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수만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독축은 하지 않으며 대신 비손을 한다. 이러한 제의는 모두 주부가 전담한다. 이와 같은 조상신에 대한 의례행위는 원초적인 여신관념, 〈김알지신화〉의 황금궤, 삼국시대 이래의 불교성(세존, 제석 등의 명칭), 조선시대 이후의 4대 봉사성 등 한국의 종교적인 의식이 깊숙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사례** 신줏단지의 곡식을 갈아 넣고 처리하는 과정과 의례적인 내용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남 양산지역에서는 쌀을 갈아 넣는 날 아침 일찍 주부가 목욕재계를 한 뒤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햅쌀로 지은 밥, 나물, 정화수이다. 이때 비린 음식이나 육류와 술은 쓰지 않는다. 제물을 준비한 뒤에는 단지를 내려 묵은쌀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햅쌀로 갈아 넣는다. 햅쌀을 넣은 뒤에는 단지 입을 한지로 덮고 무명실이나 한지를 꼬아 만든 끈으로 테두리를 묶은 뒤 뚜껑을 덮어 봉한다. 단지의 쌀을 교체한 뒤에는 미리 장만한 제물을 진설하고 촛불을 밝힌 뒤 안과태평과 자손들의 운수대통을 기원하며 비손하고 소지를 올린다. 단지 안의 묵은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끼리만 음복을 한다. 이때 비린 반찬이나 고기는 함께 먹지 않는다. 또 단지 안의 쌀을 교체하고 나서 사흘 동안은 설령 외지에 사는 며느리나 딸이 출산했다 해도 출산부정을 탄다 하여 찾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시준단지 안에 담겨 있던 쌀로 집안의 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이때 집안이 맑고 좋으면 쌀이 그대로 잘 있지만 식구 중에 누가 탈이 나거나 우환이 있으면 살이 시커멓게 변색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쌀의 색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을 볶거나 쪄서 넣기도 한다. 또한 모시던 단지가 깨지거나 오래되어 쓸 수 없어서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면 시주단지 앞에 술 한 잔을 놓고 모시지 않게 되었음을 고한 뒤 묵은 단지를 산에 묻거나 물에 띄워 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없앤다고 한다.

전남 강진군 옴천지역에서는 조상을 모신 항아리를 신줏단지 또는 차독그릇(곡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부르며, 말레[마루]의 선반 위에 둔다. 올벼심리를 할 무렵에는 추수를 하고 난 뒤 손 없는 날을 골라 신줏단지에 들어 있는 기존의 쌀을 털고 새 쌀을 넣는다. 과거에는 쌀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단지 안의 쌀은 봄부터 조금씩 꺼내서 밥을 해먹지만 새 쌀이 나와 단지 안의 쌀을 갈기 전까지 한 주먹 정도의 쌀은 절대로 먹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한다. 신줏단지의 쌀을 새 쌀로 간 뒤에 기존의 쌀은 밥을 해서 먹는다. 이때는 반드시 식구끼리만 먹어야 한다. 밥알 하나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가축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신줏단지 안의 쌀을 통해 집안의 평안을 엿볼 수도 있다. 집안이 평안한 것으로 보이면 쌀이 깨끗하고 좋거나 단지 안의 쌀이 불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집안에 궂은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면 쌀에 곰팡이가 핀다고 한다. 신줏단지를 그만 모시고 버릴 때에는 그달 초열흘이나 그믐에 손 없는 날을 받아 깨끗한 물에 띄워 보낸다. 또한 신줏단지를 모시는 집에서는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음식을 하면 항상 신줏단지 앞에 한 접시를 먼저 올린다.

전북지역에서는 신줏단지를 조상단지, 지앙단지, 제석오가리, 시주단지, 대감단지 등으로 부른다. 조상단지는 쌀을 담은 작은 단지를 말하며 안방의 시렁 위에 올려두는 형태로 모신다. 이러한 조상단지는 집안에 따라 한 개 또는 두 개를 모시기도 한다. 단지 안에는 쌀을 넣어둔 뒤 그 위를 한지로 덮고 다시 단지 뚜껑을 덮는다. 단지 안의 쌀은 매년 깨끗한 날을 받아 그해 수확한 햅쌀로 가장 먼저 갈아놓는다. 쌀을 갈기 전에는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올벼심리할 때 단지에 쌀을 넣으면서 쌀의 상태를 보기도 한다. 이렇게 조상단지는 쌀만 담아두고 모시는 것을 말하며 명절 때 딱히 음식을 차려 올리지는 않는다. 남원 조상단지의 경우 그냥 쌀만 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하고 묵을 쒀서 집안의 사방 네 곳에 놓아둔 다음 쌀을 갈았다고 한다. 단지 안에 있던 그 전의 쌀은 버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고 밥을 해서 먹는다. 설령 밥이 남더라도 동냥치나 개에게 주지 않고 오직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충청도지역에서는 신줏단지를 모시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터줏단지를 모시는 경우가 많다. 이 터주가 조상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조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은지역에서는 신줏단지를 조상단지라고 부르며 조상이 죽으면 단지에

앉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어느 집에 딸을 셋 둔 주부가 아들이 없는 것에 화가 나서 조상단지를 마당에 냅다 던졌다고 한다. 자신은 열심히 조상을 위했지만 조상이 자손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뒤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 ○○○로 갈란다"라고 말하고 나서 아들을 낳고 집안도 더욱 화목했다는 구술이 전하기도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신줏단지를 제석이라 부르면서 주로 영서지역의 농촌에서 많이 모시고 있다. 춘천지역에서는 웅방에 커다란 항아리를 놓고 햅쌀을 담아놓는다. 항아리의 크기는 집안 형편에 따라 다르다. 형편이 좋으면 큰 항아리, 형편이 좋지 않으면 작은 항아리를 각각 모신다. 그 쌀은 아무도 주지 않고 있다가 봄에 가족들만 먹는다. 제석항아리를 헐 때에는 쌀을 꺼내 밥을 해서 한 그릇을 앞에 바치고 나서 먹는다.

경기도지역에서 신줏단지의 형태로는 주머니형, 항아리형, 바가지형이 있다. 주머니형은 제석주머니 또는 제석고깔 등, 항아리형은 제석항아리, 바가지형은 제석바가지라고 각각 부른다. 제석은 주머니에 쌀을 담고 고깔을 씌워놓거나 질그릇 항아리에 쌀을 담은 것이며 안방 구석이나 윗목에 모신다. 농사를 짓고 타작해서 방아로 찧어 햅쌀을 얻으면 원래 있던 쌀은 쏟고 새것으로 갈아준다. 이전 쌀은 밥을 해먹는다. 이때에는 제석에 먼저 올려서 위하고 그다음에 식구끼리 먹는다. 제석의 쌀로 밥을 하면 남을 주지 않고 식구끼리만 먹는다.

**참고문헌** **남도민속학**(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민속의 이해**(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92),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3),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집지킴이**(김광언, 다락방, 2000).

**필자** **표인주(表仁柱)**

## 신충애기

표제명 아이팔기(438쪽)

## 실타래

**정의**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데 뭉치거나 감아놓은 타래. 실타래는 가신(家神)이나 마을신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례와 집안의 고사 등에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신령에게 바치는 제물 또는 폐백으로 진설되는 게 일반적이다.

**역사** 실은 인류의 삶과 더불어 출현하였다. 최초의 실은 덩굴이나 나무껍질, 풀 껍질 등을 재료로 하여 서로 이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실은 생활도구를 묶거나 신체의 장식, 옷의 제작 등에 사용되었다. 역사시대에 이르면 목화, 삼베, 누에고치, 동물의 털 등으로 다양한 실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들 실은 재료로 이용되어 옷감을 직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유리왕 때의 가배(嘉俳) 풍속을 통하여 삼베의 직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타래와 관련된 풍속으로 조선시대의 토실치기가 있다. 토실치기는 정월 첫 토끼날[卯日]에 일곱 개의 씨가 든 목화를 자아내어 동쪽을 향해 앉아 실을 뽑아서 어린아이들에게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토실' 또는 '톳실'이라도 한다. 한자로는 이 실을 '장명사(長命絲)'라고 하였다. 이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수명을 길게 해주려는 뜻이 담긴 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아래와 같은 칠언시가 실려 있다.

> 일곱 씨앗 목화를 올올이 자아내어
> 아침 해 밝을 때까지 물레소리 스릉스릉
> 가늘고 가는 장명실을 뽑아내어
> 새 봄 첫 토끼날에 아이에게 채워주네

이와 유사한 조선시대의 풍속으로 '실공드리기'가 있다. 실공드리기는 정월 열나흗날에 하던 풍속의 하나이다. 이날 시루떡을 쪄서 성주께 올리고, 그릇에 쌀을 가득 담아 떡시루 옆에 놓는다. 그러고는 쌀그릇에 숟가락을 꽂은 다음 긴 실을 축원할 사람의 나이만큼 둥글게 감아 서린다. 이처럼 실을 제물로 삼아 공을 드리는 것을 '실(絲)공 들인다.'라고 한다. '명(命)공 들인다.'라고도 한다. 대개 이러한 실공드리기는 정초에 신수점을 보아 가족 가운데 운수가 사나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 행한다. 조선시대의 세시기인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정월대보름에 "상원사(上元絲)를 서로 선사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실공드리기이다.

**형태** 실은 천연섬유(면화, 양모, 생사 등)와 인공섬유(레이온, 합성섬유)를 재료로 가공하여 만든다. 실타래는 이들 섬유를 가공하여 만든 실의 수십 가닥을 타원형으로 감아놓은 실이다. 신앙이나 의례에 사용되는 실타래는 주로 천연섬유를 가공해 만든 면사이다. 곧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실타래는 주로 흰색 면사이다. 동제나 보편적인 고사 때 올리는 실타래 역시 흰색 면사임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혼례식이나 장례 때 사용되는 실타래는 곱게 물을 들인 청홍색이다.

**내용** 실타래는 실생활 외에 출산과 육아, 민간신앙, 무속, 혼례, 상례 등 다양한 의례에 사용된다. 곧 민속에서의 실타래는 제의나 기원과 관련된 행위에 주로 이용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과 관련하여 실타래가 등장하는 것은 삼신상 차림이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이 임박하면 산방(産房)에서 해산을 기다린다. 이때 여성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산방 한쪽에 짚을 깔고 미역, 쌀, 실타래를 놓아둔다. 이들은 모두 임부의 순산을 기원하며 삼신께 올리는 제물이다. 이 실타래에는 태어날 아기의 수명장수를 소망하는 뜻이 담겨 있다.

돌을 기념하기 위한 돌잡이 행사에서도 실타래가 등장한다. 돌잡이 상에 올려놓는 각각의 물건은 그들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 예로 돈이나 쌀은 부(富), 책이나 연필은 학식, 실타래는 장수를 각각 뜻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기가 돌잡이 상의 여러 물건을 선택할 때 실타래를 잡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아기가 실타래를 잡으면 부모는 이것을 아기의 목에 걸어준다. 실타래를 아기의 목에 걸어주는 것은 실타래의 긴 실처럼 아기의 수명이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이다.

신앙의례에 있어서도 실타래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정신앙의 경우 성줏단지에 한지와 실타래를 올려놓는 예를 볼 수 있다. 또는 주택의 상량에 한지를 놓은 뒤 실타래로 감아놓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 밖에 서낭고사나 삼신고사를 지낼 때에도 실타래를 바치는 풍습이 있다. 아울러 안택고사를 지낼 때에도 실타래가 제물로 놓여진다.



**실타래로 북어를 매는 모습**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008.2.1(음), 강성복

이처럼 실타래가 고사에 등장하는 것은 이미 예부터 실타래가 건강과 장수의 의미로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상원사(上元絲)'나 '토실치기'의 실타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실타래는 장수 소망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보편 관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다양한 신앙의례에 실타래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가정신앙이 집안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의라고 하는 점에서 장수의 상징물인 실타래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을신을 제사하는 동제에서도 실타래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때 실타래는 제물과 더불어 제사상에 진설되었다가 제를 마감하면 폐백을 상징하는 신물(神物)로 바친다. 곧 북어나 한지에 실타래를 묶어 제물의 일부로 상 위에 놓고, 제사가 끝나면 이것을 신목

이나 장승·탑·선돌·미륵·서낭당 등에 묶거나 걸어두는 등의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다수가 발견되며, 실타래를 봉안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예로 충남 금산지역에서는 탑제를 지내기 전에 탑의 머릿돌에 한지를 씌우고 실타래를 묶어두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옷을 입힌다'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마을신에게 치성을 드리면서 폐백의 의미로 새옷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실타래에는 개인이 아닌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무속에서 실타래는 중요한 제물의 하나이다. 안택굿이나 재수굿에 으레 실타래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주를 모실 때 실타래는 대주와 그 가족의 수명장수 기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충남지역에서는 성주를 받을 때 실타래가 중요한 제물이다. 무당이 성주를 받기 위해 성주가 앉은 나무를 찾아 나서면 그 가정의 대주가 대추, 밤, 곶감, 술, 실타래를 들고 뒤를 따른다. 무당이 특정 나무 앞에서 멈추면 그 전면에 대주가 가지고 간 제물을 차려놓는다. 그러면 무당이 경 한 석을 베푼다. 독경을 마치고 무당이 나무로부터 성주를 찾아 방으로 되돌아오면 대주가 제물을 거두어 뒤따라 들어온다. 그러고는 꺾어온 나뭇가지와 동전, 쌀 등을 한지에 담아 접은 뒤 가져온 실타래로 묶어 성주목에 달아맨다. 이와 같이 성주받기에 있어서의 실타래는 제물이자 성주에게 올리는 폐백임을 알 수 있다.

어로민속에서도 실타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고사나 풍어제 때 실타래가 제물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배서낭을 모시는 데에 있어서도 실타래가 주요 폐백의 하나로 등장한다. 물론 배서낭에서의 실타래는 여성 배서낭신에게 바느질 도구와 함께 올리는 폐백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배서낭의 실타래 또한 수명장수의 보편적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 예로 북어를 묶은 실타래를 배서낭으로 두는 어선도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거친 바다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어민들에게 실타래의 의미는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례와 상례에서도 실타래가 사용된다. 전통 혼례의 경우 대례상에 송죽 화병이 놓이며 이 화병의 소나무와 대나무에 청홍색의 실타래를 올려놓는 예가 있다. 이처럼 화병 위에 실타래를 올려놓는 것은 가연을 맺은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를 빌어주기 위한 것이다.

상례에서는 폐백으로 실타래가 사용된다. 한 예로 충남 공주에서는 입관을 마친 뒤 상주가 폐백으로 청색 홍색 실타래를 망자에게 올린다. 맏상주가 청홍색 실타래를 받아 망자의 주검 앞에 놓고 재배 함으로써 폐백의식을 마친다.

**지역사례** 비근한 예로 출산 때 삼신에게 치성을 드리며 실타래를 올리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돌잡이 상에 실타래를 놓고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거나 성줏단지 위에 실타래를 올려놓고 봉안하는 예는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전승되는 풍속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지역에서는 성줏단지 안에 돈, 삼베조각, 종이 등과 더불어 실타래를 넣어 놓는다. 이처럼 대청의 성주목에 한지와 실타래를 묶어두는 사례는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도·전라도 등지에서 산견된다.

충남 서해안의 어촌마을에서는 어민이 자신의 거실 벽에 닻줄 일부를 둥그렇게 감아 걸어놓은 뒤 그것을 실타래로 묶어놓은 예가 있다. 이때 닻줄은 어민의 선박을 상징하는 동시에 선주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닻줄에 건 실타래는 선주의 생명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탑의 머릿돌에 묶은 실타래**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1999.2.13
강성복

서낭에서의 실타래 사례도 발견된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돌무더기 서낭당에 간혹 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여 현납속의 일환으로 실타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에서는 서낭당의 신목에 청색 홍색 실을 매달아 놓았다. 정초에 개인이 서낭고사를 지내고 이와 같은 폐백을 올리는 것이다.

한편 성주받기는 무당이나 법사가 의식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때 사용되는 실타래는 대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제물이다.

동제에서의 실타래 사용도 폭넓게 발견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종이골에서는 느티나무고사를 지낼 때 실타래를 사용한다. 곧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 떡시루 안에 넣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북어를 감은 실타래를 신목에 걸쳐 놓는다. 여주군 강천면 적금2리 장승고사에서도 동일한 예가 발견된다.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 떡시루 안에 넣고 제를 지낸 뒤 이 실타래를 장승의 허리에 묶어놓는다. 이천시 율면 오성2리 은행나무제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북어에 실타래를 묶어 제사를 지내고, 제가 끝난 뒤 이 실타래로 묶은 북어를 장승의 입 안에 넣어 놓는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장재터 서낭제에서는 서낭신을 위하여 제당의 천장 가름목에 한지를 대고 실타래로 감아 놓았다. 부연하면 한지 한 권을 천장의 나무에 대고 실타래를 감아 묶어 놓았다. 홍천군 동면 성수리 짓골 당제사에서는 당제 때 떡시루 한가운데에 실타래로 묶은 북어를 올려놓았다.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노고소마을 서낭제에서는 제당 내부에 신의 위패를 모신 단이 있고, 그 단 위의 나무에 한지로 감싼 북어를 실타래로 묶어 걸어놓았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장승제에서는 제사상 위에 떡시루를 놓고 떡시루 양쪽 고리에 실타래로 묶은 북어를 꽂아놓았다. 마찬가지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2구 용산마을 장승제에서도 제사상 위 떡시루에 실타래로 묶은 북어를 떡시루 양 손잡이에 꽂아놓았다. 제관은 제사가 끝난 뒤 한지에 제물을 담아 감싸서 실타래로 묶는다. 그리고 이것을 실타래를 이용해 장승의 양귀에 걸어놓는다.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새재마을의 기고사에서는 떡시루의 양쪽 손잡이에 북어를 꽂아 세운다. 그리고 각각의 북어 입에 실타래 끝을 물려 길게 늘여놓는다. 제사가 끝나면 제에 쓰인 제물을 한지에 담아 싼 뒤 마을회관 앞의 깃대에 실타래로 감아 묶어둔다.

**의의** 실은 피륙의 직조에 가장 근원이 되는 원료이다. 이 때문에 여러 공정을 거쳐서 뽑아낸 실은 의식주에서도 으뜸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나아가 실은 그것이 지닌 속성으로 인해 수명장수를 뜻하는 상징물로 부각되어 각종 신앙의례에 빠지지 않는 제물이자 신령을 위한 폐백으로 바처졌다. 조선시대의 토실치기[장명사]나 실공드리기[상원사], 오늘날의 각종 의례에 제물과 공물로 바치는 실타래와 신체에 거는 현납속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海東竹枝, **공주 상여소리와 쑥불동화의 고향 봉현리**(강성복, 공주시, 2011), **금산의 탑신앙**(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조선대세시기**(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민속대관 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2**(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박종익(朴鍾翼)

## 쌀

**정의** 벼의 알맹이로 성주·조상·터주·철륭 등 가신에게 정기적으로 올리는 제물.

**역사** 쌀의 재배 기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에서는 기원전 7000~5000년에, 중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재배하였다고 전해진다. 한국에는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탄화된 쌀이나 벼의

탄소 동위원소 연대 추정 및 기타 고고학적 증거로 짐작할 수 있다. 1977년에 당시 경기도 여주군 흔암리에서 발굴된 탄화미(炭化米), 그 뒤 평남 평양에서 출토된 탄화미는 그동안 발견된 고대미(古代米) 유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연대는 다같이 3000여 년 전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이미 청동기시대에 이들 지역에서 쌀을 생산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이 두 곳에서 다같이 쌀과 함께 조, 기장, 수수, 보리도 출토된 것을 보면 그 당시 식량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북쪽을 통하여 들어온 쌀 재배는 우리나라 남부로 파급되면서 기후, 지세, 수원의 편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특히 활발하게 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 신라의 쌀 생산이 국가 규모로 장려되었고,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쌀이 주곡 가운데 제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쌀이 들어오면서 분식(粉食) 중심에서 쌀밥 중심의 식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한국에서 쌀이 차지한 정치적, 경제적, 농업기술적 위치는 너무나 뚜렷하다. 쌀은 5~6세기만 해도 귀족식품으로 인식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주식 유형을 보면 북부는 조, 남부는 보리, 귀족층은 쌀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쌀은 물가의 기준이자 봉급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온 뒤부터 쌀의 생산량은 차차 좁쌀보다 많아져서 곡류의 대표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옛날부터 낟알로 밥을 지어 일상식품으로 하였고, 분식으로서는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명절이나 제사 때 별식으로 사용하였다.

**내용** 쌀은 벼의 껍질을 벗겨 낸 식량이다. 도정 정도에 따라 왕겨만 살짝 벗겨내면 현미(매조미쌀, 핍쌀)가 되고, 곱게 쓿으면 흰쌀(아주먹이)이 된다. 밥이나 떡을 해서 먹으며, 식혜 같은 음료나 소주 · 청주 등 술의 원료가 된다. 고추장 등의 장을 담글 때 밥의 형태로 첨가된다. 우리 민족이 벼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쌀은 단순한 먹을거리의 의미를 넘어 우리 민족의 신앙이고 화폐였다.

이러한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먹을거리 이상의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쌀로 시작해서 쌀로 끝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쌀 한 그릇, 미역 한 다발과 더불어 정화수를 떠 놓고 삼신에게 기원하였다. 출산 후에는 쌀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먹었다. 돌상에 쌀을 비롯하여 실, 붓, 책 등을 놓아 아이의 장래를 점친다. 또한 집 안방에 조상단지(지앙단지, 부루단지)와 성줏단지, 집 뒤란에는 철륭단지와 터줏단지 등을 모시고 해마다 햅쌀로 갈아 담아 넣으면서 풍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시신을 염습하기 직전에 버드나무 젓가락으로 쌀을 세 번 떠 먹여서(반함) 배고프지 않고 저승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이 죽은 뒤에 제사를 모실 때 쌀로 지은 밥을 올린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화양상이다.

가신 가운데 조상과 조령(祖靈)을 위한 행위로 쌀을 담은 단지나 주머니를 안방에 놓아둔다. 이 단지는 지역에 따라 조상단지, 지앙단지, 삼신앙단지, 제석오가리, 시주단지, 신줏단지, 대감단지 등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다. 그리고 주머니 형태는 '세존주머니'라고 부른다. 조상단지와 세존주머니 안의 쌀은 일 년을 단위로 그해 수확한 첫 곡식을 찧어서 갈아놓는다. 쌀을 담은 단지는 한지나 흰 종이로 덮어서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둘러 감은 뒤에 안방 선반 위 구석에 모셔놓는다. 이렇게 넣은 쌀은 이듬해까지 손을 대지 않는다. 특히 세존주머니의 쌀은 남의 논에서 거둬들인 나락을 찧어 햅쌀로 갈아놓기도 한다. 쌀은 좋은 날을 받아 목욕재계한 뒤 갈아놓는다. 묵은쌀은 버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다가 밥을 해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이때 밥이 남더라도 동냥치나 개에게 주지 않는다. 명절 때 음식을 차리면서 조상단지의 경우 단지 옆에 떡과 물만 차려놓지만 세존주머니는 준비한 음식 모두를 차려놓는다. 올벼심리할 때에는 단지에 쌀을 넣으면서 쌀의 상태를 보기도 한다. 단지 안의 쌀을 갈 때는 그냥 쌀만 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하고 묵을 쒀서 집안 사방 네 곳에 놓아둔 다음에 햅쌀로 갈았다고 한다.

올벼심리 역시 조상께 햅쌀을 올리는 의례이다. 음력 8월 무렵이 되면 깨끗한 논에서 익은 나락을 베어다가 말려서 솥에 익혀 방아로 찧는다. 이렇게 나락의 껍질을 벗긴 쌀로 밥을 지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조상께 올린다.

또한 조상단지 외에 임부가 아이를 낳을 때 순산을 기원하면서 쌀을 바가지에 담아서 삼신께 바치며, 철



**쌀을 봉안한 조상단지**
전남 신안군 장산도
1996, 서해숙



륭단지에 쌀을 담아서 봉안하는 의례도 있다. 철륭단지는 일 년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면 방아로 찧어서 단지에 쌀을 가득 넣고 한지로 위를 막은 뒤 뚜껑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짚주저리를 얹어서 장독 가운데에 놓아둔다. 오늘날에까지 모시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철륭단지 앞에 명절이면 장만한 음식과 술, 떡을 차려놓았다. 또한 가을 농사가 끝나는 음력 10월이면 도신을 지내면서 철륭을 위하기도 했다. 이렇듯 철륭은 설, 추석, 도신 때까지 일 년에 모두 세 차례 위했다. 새로 철륭단지의 쌀을 바꾼 뒤에 묵은쌀은 밥을 해서 가족들만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한편 집안의 신령들을 정성껏 위하는 집에서는 '성주바탱이쌀'이라 하여 단지 안에 쌀을 한 말 정도 넣어서 윗방의 사람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잘 모셔둔다. 이 성주바탱이쌀은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탈곡하여 첫 햅쌀을 넣어 놓고 묵은쌀은 꺼내어 밥을 지어 먼저 성주께 청수를 떠다가 함께 위하고 식구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때는 특별히 절을 하거나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 해 수확할 시기가 되면 부녀자들은 신체를 모시는 성주, 조령, 삼신, 철륭, 터주 등에게 가장 먼저 햅쌀을 올린다. 이는 농경세시에 따라 일 년을 단위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그 전의 쌀은 남에게 함부로 주지 않고 밥을 해서 집안 식구들만 나누어 먹으며, 밥 한 알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는 엄격하게 지켜진다. 이렇게 매년 햅쌀을 봉안하는 것은 그해 수확한 첫 곡식을 농경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이는 곡식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새로운 한해에도 풍년을 기원하는 심성을 내포한다. 매년 수확한 곡식으로 바꾸는 것은 '낡은 곡령을 죽이고 새로운 곡령으로 바꾸는 송구영신의 재생의례'로서 재생의 순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낡은 곡식을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공물이기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곡물의 발아에서부터 성장 · 결실에 이르기까지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내포한 영적 존재로서 곡령을 봉사하고, 그 영험어린 씨의 분여를 통해 풍양성을 공유함으로써 집안이나 가족들의 풍작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특히 부녀자들은 쌀 그 자체에 대한 영험을 인정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가신에 대한 여성들의 쌀 봉안의례는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는 농경신에게 올리는 농경제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신앙은 근원적으로 농경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고 감사의 뜻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농경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정신과 가정신앙**(서해숙, 화순군, 1998), **가정신앙**(서해숙, 남도민속연구 5, 남도민속학회 1999), **곡령숭배사상**(남근우,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쌀의 인류학**(大貫惠美子, 박동성 역, 소화, 2001), **지역민속의 전승체계와 활용**(서해숙, 민속원, 2007),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필자** **서해숙(徐海淑)**

## 쌈

상호참조 용왕(522쪽)

**정의** 한지를 비롯하여 김, 취나물, 시금치 등 나물에 밥을 싸서 종교적 목적으로 바치는 공물(供物)의 일종. 주로 우물, 강, 바다에 임재한 수신(水神)에게 환심을 사거나 재앙을 구축하기 위해 바친다. 노적을 모방하여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다.

**역사** 쌈을 싸서 먹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용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단기적으로 음식을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고안한 보관법 가운데 하나이다. 둥글게 뭉치면 주먹밥이 되고 나뭇잎이나 종이 등

에 싸면 쌈이 되듯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음식 보관의 방법이다. 가장 원초적이고 간편한 보관법인 쌈이 종교적 목적에서도 활용된다. 신령에게 쌈을 봉헌하는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후기 세시기에서 초견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대보름날 나물잎에 밥을 싸서 먹는다. 이것을 복쌈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상원리곡(上元俚曲)』에는 "곰취에 쌈을 싸고 김으로도 쌈을 싸, 온 집안의 어른 아이 둘러앉아 함께 먹네, 세 쌈을 먹으면 서른 섬이라 부르니, 올 가을엔 작은 밭에도 풍년이 들겠지", "시골집에서는 묵은 나물이나 김 또는 무청, 배추김치에 밥을 싸서 한 입 먹고는 열 섬이라 부르고 두 입 먹고는 스무 섬이라 하고 세 입 먹고는 서른 섬이라 불렀다. 이것을 풍년빌기[祈年]라 한다."라는 기록도 있다. 쌈의 모양이 곡식이 담겨진 섬과 같아서 이를 모방한 것이다. 당시에는 쌈의 재료로 곰취, 무청, 묵은 나물, 김, 배추김치 등을 폭넓게 활용했다.

이와 달리 우물이나 강, 바다의 수신인 용왕에게 헌물(獻物)하기 위해 쌈을 만들기도 했다. 수신에게 밥을 주면서 이때 쌈의 형태로 던져 넣는다. 기록상에는 쌈을 쌌다는 내용이 없지만 오늘날 전승되는 것을 통해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 "조밥을 지어서 강가나 우물 속에 던지니 이를 용밥주기라 한다. 용이 배가 부르면 수해(水害)가 없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옛 풍속에 정월대보름날이면 물고기들이 먹으라는 뜻으로 조밥을 지어 우물에 뿌린다. 이를 어부슴이라 한다.", "집집마다 조밥 지으니 무엇하기 위함인가, 수직성 든 사람 베풀어야 좋기 때문이네, 오래된 우물에 물고기 없어도 밥을 뿌리니, 천하의 방생지를 굳이 팔 필요 있으랴."라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행해진 어부심은 지금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조밥을 흩뿌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김쌈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수직성이 닿아 입게 될 수해를 막기 위해 미리 용왕께 공물을 드린 것이다. 수직성은 남자 나이 12세, 여자 나이 13세에 처음으로 닿는다. 그 후로도 9년에 한 번씩 닿는다. 수해는 인간이 당할 재액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방서를 기준으로 생활하던 시대에 반드시 구축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공물로 쌈을 만드는 행위가 존속될 수 있었다.

**내용** 보름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싸는 것을 노적, 노적쌈, 노적밥, 복쌈, 볏섬, 볏섬끄랭이라고 부른다. 김으로 쌈을 쌌다고 하여 김쌈, 김쌈밥, 짐이라고 부른다. 싸는 행위를 강조할 때는 '봉숭이밥 싼다'라고 한다. 쌈을 받는 신령이 용왕이면 '용왕밥'이라고 부른다. 용왕밥은 냇물이나 바다의 신령인 용왕에게 드리는 공물이라는 뜻이다. 이밖에도 물고기와 오리에게 밥을 먹인다는 뜻에서 어부시(魚鳧施) 또는 어부식(魚鳧食)이라고도 한다. 특별하게 질병 예방을 위해 싸는 밥은 '해이밥'이라고도 부른다.

쌈의 겉재료로는 김이나 한지가 가장 흔하다. 드물게는 신문지나 달력 등 종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지를 사용하더라도 전장의 김을 겹쳐 넣기도 한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김[海藻]이 고려시대부터 백성들이 즐겨먹던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쌈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묵은 나물, 곰취 등 나물로 싸던 쌈은 점차 김이 보편화되면서 김쌈으로 획일화되었다.

속재료는 밥(쌀밥, 오곡밥, 조밥 등)이 일반적이지만 제물로 올린 나물이나 과일 등을 모두 넣기도 한다. 전자는 노적을 싸거나 어부심의 경우, 후자는 여러 가지 종교적 목적으로 액막이나 용왕제를 지낼 때이다. 후자도 김쌈이라 칭하는 것으로 보아 쌈의 주재료는 밥이다.

쌈은 나이 수대로 만들기도 하고 나이만큼 숟가락으로 밥을 떠 넣어 만들기도 하고 세 개 또는 네 개를 만들기도 한다. 액막이를 할 때에는 액이 든 사람의 나이가 중요하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에는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쌈을 작게 한다. 식구 전체를 위해 액막이를 할 경우에는 식구수대로 한 개씩을 싼다. 수액이 든 사람만을 위해 액막이를 해야 하지만 신수가 나쁘지 않아도 액을 예방하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관습적으로 행한다. 네 개는 사해(四海)의 용왕을 상징하며, 세 개는 숫자 '3'이 지닌 상징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월대보름날에 노적으로 쌓은 쌈은 먹거나 집안의 신령께 두루 바친다. 간혹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반면에 액막이나 신령에게 바치는 헌물로 준비한 쌈은 우물, 강, 바다 등 자신의 생활 주변에 있는 물에 모두 던져 넣는다. 수신인 용왕을 대접하는 것이어서 "요왕님네"라고 부르며 던져 넣기도 한다. 이때 쌈밥을 '용왕밥'이라고 부른다. 바다 신령인 용왕이나 고기, 수사(水死)한 혼령에게 밥을 주어 위무함으로써 재액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배의 안전과 풍어를 위하는 가정에서 지내는 배고사에서도 흔하게 쌈밥을 만든다. 배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한 제물이다.

쌈은 물속 깊이 던져 넣는다. 이때 들어간 쌈이 뜨지 않는 것을 길하게 여긴다. 이는 대상신이 수신이나 수사한 혼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천상의 신령에게는 냄새를 피워 흠향하도록 하고, 지신에게는 땅에 묻어 제물을 권한다. 물의 신령에게는 물에 던져 넣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전달 방식인 셈이다.

신령에게 바친 공물이므로 그것을 통해 신의(神意)를 확인하기도 한다. 김쌈이 가라앉거나 뜨거나, 흩어지거나 모이거나, 떠내려가거나 멈추거나를 통해 식구 또는 집안의 안녕을 점친다. 이 방식은 신의를 묻는 지역적인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르다.

쌈 자체를 질병으로 상징하기도 한다. 눈에 난 다래끼를 없애기 위해서나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한 주물(呪物)로 제작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귀신』에서는 "평안북도의 사례로 말라리아에 걸리면 배추에 바다 해(海)자를 묵서하여 밥을 싸서 먹으면 즉시 전치된다."라고 했다. 전라도의 서해 도서지역의 '해의밥빠치기'도 유사하다. 다래끼나 몸에 나는 부스럼을 없애기 위해 김쌈을 싸서 우물이나 바다에 던져 넣는다. 해의밥은 '김쌈=다래끼'로 연관지어 없애고자 하였다.

**지역사례** 쌈을 싸는 행위가 베풀어지는 의례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나 정월 첫 용날[辰日]에 베푸는 액막이로서의 요왕제[용왕제], 대보름날에 베풀어지는 복쌈먹기와 어부심, 섣달그믐날이나 첫 출어 때 행하는 배고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력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식사를 할 때 첫 술은 김으로 싸서 먹는다.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볏섬을 많이 하고자 적어도 세 개를 싸서먹는다. 김쌈을 먹으면서 "열석이요, 백석이요, 천석이요."라고 외치기도 한다.

전남 화순지역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새로 지은 찰밥을 뭉쳐서 김에 싼다. 이 밥을 '해우밥'이라고 한다. 집안 곳곳에 한 개씩 가져다 둔다. 이때 부엌은 제외한다. 집안이 편안하게 해달라는 뜻을 담아서 놓는다.

용왕에게 공물로 쌈을 싸는 의례는 용왕제나 배고사처럼 제사와 쌈 던지기가 결부된 경우와 쌈만을 던지는 어부심이 있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서는 음력 섣달그믐날이나 첫 어장을 시작하는 날에 배고사를 지낸다. 물이 가득 들어찼을 때 바다에 나가서 용왕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팥 시루떡, 제숙, 메 세 그릇, 삼색실과, 막걸리 등을 놓는다. 영신이 그 앞에서 "앞바다 용왕님네, 동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흐를 요왕님네, 솟을 요왕님네, 칠산바다 요왕님네, 뿌리 없는 배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저 탈 없고, 바람도

**쌈**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원해창, 2007, 김효경



강물에 용왕밥 던지기



종이에 싼 오곡밥(용왕밥)

없고, 고기도 남보다 많이 잡고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 비손을 마친 뒤에는 밥 세 그릇과 여러 제물을 넣어 김쌈 세 개를 싼다. 김쌈을 한 개씩 던져 넣으며 "요왕님네!"라고 부른다. 그런 후 바가지에 막걸리와 남은 제물을 섞어서 사방에 뿌린다. 집안에 수사(水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제물을 마련한다. 그 밥도 김쌈을 해서 바다에 던져 넣는다. 김쌈이 떠오르면 좋지 않다고 하여 손으로 꼭꼭 뭉쳐서 넣는다.

우물이나 개울, 바다와 연계된 삶을 살면서 좋지 않은 것을 풀어내기 위해 액막이로 용왕제를 지낸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마을에서는 정월 첫 용날에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에게 드리는 고사이다. 고사를 마친 뒤에는 '짐(김쌈)'을 싸 넣는다. 짐은 보통 짝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세 개 정도를 만든다. 용왕 내외와 수사한 혼들을 위한 것이다. 짐은 종이에 밥, 과일, 떡 등 제물을 조금씩 떼어 넣어 만든다. 짐을 앞에 두고 짐을 잘 받아 달라고 비손한다. 바다에 던져 넣은 짐이 가라앉으면 고사를 잘 받았다고 여긴다. 반면에 짐이 뜨면 불길한 것으로 간주하며, 훗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용왕제 탓으로 간주한다.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는 우물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여타의 절차는 모두 동일하지만 우물에 제물을 넣는 방식이 다르다. 용왕제를 지낸 뒤에 김쌈을 싸서 둥근 우물의 모퉁이 세 곳에 한 개씩을 넣는다. 이것 역시 푹 가라앉아야 그 해에 식구들의 운세가 좋다.

이처럼 용왕제, 배고사 등을 먼저 드린 뒤에 그 제물로 쌈을 싼다. 쌈은 그 자체가 제물이 아니라 용왕제 제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미리 만들어 올리지는 않는다. 제사를 올린 뒤에 다시 한 번 제물을 권하는 절차인 유식(侑食)과 궤를 같이한다. 용왕제의 주신인 용왕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소망을 전달하고, 그 신의(神意)를 살피기 위해 쌈을 싸 던지는 것이다. 쌈밥은 깊이 들어가는 것을 길한 것으로 간주한다. 용왕이 있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떠오르면 용왕이 흠향하지 않았다고 여겨 다시 김쌈을 던져 넣는다. 식구들의 김쌈을 던져 넣고는 대식구로 화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소망을 담아 김쌈이 흩어지지 않기를 고대한다. 김쌈이 뭉치면 화합할 것으로 예견하고, 흩어지면 화합이 깨지는 불길한 것으로 간주한다. 충청지역에서는 쌈밥이 흘러 돌아다니는 것을 흉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강원지역에서는 흘러가야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신의를 확인하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용왕제라 해도 김쌈을 싸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지낸 뒤에 김쌈 대신 바가지에 제물을 담고 촛불을 밝혀 멀리 띄운다. 전북지역에는 용왕제를 모시고 나서 그 제물을 모두 섞어 한꺼번에 물에 쏟아 버린다. 바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면 길한 것으로 간주한다. 쌈을 던지는 것에 비해 신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화되어 있지만 제물을 처리한 뒤 제사를 흠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의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쌈을 던지는 행위만이 강조된 어부심은 경기와 강원지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경기지역의 어부심은 수해(水害)를 예방하기 위해 베푼다. 주로 남한강과 한강 주변지역에서 행한다. 음력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쌈을 싸서 던져 넣기만 할 뿐 다른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보통은 아이들을 위해 행하지만 가족을 위하는 사례도 다수 볼 수 있다.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 가정주부는 아침에 미리 식구들의 밥을 각자의 그릇에 뜬다. 그것으로 해당 주인의 나이 수대로 김쌈을 싼다. 이것을 바가지에 담아 두었다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서 마을 앞의 큰 개울가로 나가 흐르는 냇물에 던져 넣는다.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한다.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에서는 종이에 나이 수대로 밥을 조금씩 떠서 쌈을 싼다. 냇물에 던지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곱게 크게 해 달라."라고 빌거나 "학교로 걸어서 다닐 때 물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라고 빈다.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는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김쌈을 세 개 내지 일곱 개를 만든다. 식구들이 다니는 우물이나 개울에 한 개씩을 던져 넣는다. 이때 "어부심 가져가라!"라고 외치기도 한다. 김쌈을 던질 때는 대주로부터 나이 순으로 던져 넣는다.

강원도의 해안마을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 한 해의 신수가 불길해 이를 좋게 해 달라고 하기 위하거나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행한다. 강릉시 송정동 안복마을에서는 나이가 '9'나 '7'수가 들면 신수가 불길하다고 하여 그 나이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오곡밥을 세 숟가락 떠서 한지에 담고 싼 뒤 바다에 던져 넣고 달에게 무사를 기원한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서는 열나흗날 밤에 한지를 조끼처럼 재단하여 거기에 주소와 이름 및 '금년신수방액(今年身數防厄)'이라고 써서 그것을 입고 하룻밤 잔다. 이튿날인 보름날 밤에 약식을 세 숟가락 떠서 입고 잔 한지를 벗어 밥을 싼다. 달을 향하여 종이에 쓴 글귀를 세 번 외치고 나서 쌈을 바다에 던져 넣는다.

철원읍 화지리에서는 대보름날 본인이 자신의 아침밥을 세 숟가락 떠서 백지에 싼다. 백지에는 '조선군 강원도 철원읍 화지리 아무개'라고 쓴다. 이것을 물에 띄워 보낸다. 이것이 잘 떠내려가면 운수가 대통하고, 쉽게 가라앉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긴다. 강원도 어부심의 특징은 어부심과 보름달이 연계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처럼 김쌈을 던져 넣는 행위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종교의례이다. 비록 간소한 형태이지만 김쌈 던지기만으로도 종교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용왕제보다 간소한 차원의 의례라 할 수 있다.

질병을 상징하는 것을 몸으로부터 떨쳐 버리는 차원에서 쌈을 싸는 의례는 드물다. 전남 도서지역에서만 확인된 해이밥 뿌리기가 그 대상이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눈에 다래끼나 몸에 부스럼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밥을 김으로 조그맣게 싸서 만든 김쌈을 우물에 던진다. 이를 '용왕밥 준다'라고 표현한다. 평북지역에서는 바다 해(海)자를 배추에 묵서 해 그것으로 밥을 싸서 먹으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의의** 밥이나 음식을 다른 물건으로 싸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법이지만 종교생활과 연관될 때는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다. 둥글게 말아 그것에 김이나 한지를 덧씌워 만든 쌈은 제물을 신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의 한 표현이다. 깊은 물에 사는 수신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흩뿌리는 것보다는 정성으로 뭉친 쌈이 더 적합하다. 쌈밥은 신령과 교통하여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의례 행위자의 의지가 투영된 공물로, 그것에 담긴 신의(神意)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다른 의례에 비해 강하다. 액막이를 비롯하여 질병 등 제액과 풍년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절실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천의 당제**(이필영, 서천문화원, 2004),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충남지역의 용왕제연구**(김일훈,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김효경(金孝慶)**



# 이칭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제의 | 가을고사 | 도신 |
| | | 상달고사 |
| | | 시월고사 |
| | 개공제 | 개공고사 |
| | | 모탕고사 |
| | | 밑고사 |
| | 객귀물리기 | 뜬것물리기 |
| | | 뜬귀물리기 |
| | | 푸레박질 |
| | | 해물리기 |
| | 거리제 | 거리맥이 |
| | | 길산제 |
| | | 길제 |
| | 귀신가두기 | 귀신잡이 |
| | | 송경 |
| | 논둑제 | 논두렁고사 |
| | | 둑제 |
| | 농사고사 | 논고사 |
| | | 농사밥먹이기 |
| | | 용제 |
| | 농신제 | 밭고사 |
| | | 복제 |
| | | 복제사 |
| | | 용신제 |
| | 동지고사 | 동지맞이 |
| | | 동지차례 |
| | | 팥죽제 |
| | 마구간고사 | 마제 |
| | 마중시루 | 마짐시루 |
| | | 맞고사 |
| | 문간제 | 문간고사 |
| | 문전제 | 올레대위 |
| | 문전철갈이 | 멩감제 |
| | 배고사 | 배서낭고사 |
| | | 배성주고사 |
| 제의 | 보름고사 | 정월고사 |
| | 불밝히기 | 수세 |
| | 산멕이 | 산메기 |
| | | 산멕이 |
| | | 산멕이기 |
| | 산바람막기 | 산소동토막기 |
| | | 산소탈막기 |
| | 산치성 | 산신제 |
| | 삼신모시기 | 삼신치성 |
| | | 지앙위하기 |
| | 삼신받기 | 삼신타기 |
| | | 지앙맞이 |
| | 삼잡기 | 삼눈잡기 |
| | 삼재풀이 | 삼재막이 |
| | 상량제 | 상량고사 |
| | 상문풀기 | 상문잡기 |
| | 성주매기 | 성주받기 |
| | | 성주옷입히기 |
| | 아이팔기 | 명다리걸기 |
| | | 수양걸기 |
| | | 수양부모삼기 |
| | | 시영어매삼기 |
| | | 신충애기 |
| | | 자식팔기 |
| | 안택 | 가을떡고사 |
| | | 신곡맞이 |
| | | 안택고사 |
| | | 정월떡고사 |
| | | 햇곡맞이 |
| | 액막이 | 액맥이 |
| | 어부심 | 물산제 |
| | | 어부슴 |
| | | 어부식 |
| | | 용궁맞이 |
| | 업맞이 | 업모시기 |
| | | 업잔치 |
| | | 업제 |
| | 염전고사 | 벗고사 |
| | | 소금고사 |
| | 영등고사 | 영등제 |
| | | 이월하기 |
| | | 풍신제 |
| | 올벼심리 | 올개심니 |
| | | 올개심리 |
| | | 올벼차례 |
| | | 올벼천신 |
| | | 풋바심 |
| 제의 | 용알뜨기 | 복물뜨기 |
| | | 새알뜨기 |
| | | 용물뜨기 |
| | 용왕제 | 요왕제 |
| | | 용왕먹이기 |
| | | 용왕공 |
| | | 유왕제 |
| | 우물제 | 샘제 |
| | | 용제 |
| | 유두고사 | 유두제 |
| | | 유두천신 |
| | 입택고사 | 집고사 |
| | | 집들이고사 |
| | 자동차고사 | 굴레고사 |
| | 정초차례 | 정초고사 |
| | 제석할망고사 | 제석할망제 |
| | 제웅버리기 | 제웅치기 |
| | 조기심리 | 조기신미 |
| | 조왕고사 | 조왕제 |
| | 주당풀이 | 주당맥이 |
| | | 주장맥이 |
| | | 주장풀이 |
| | 중구차례 | 구일차례 |
| | 출어고사 | 선왕제 |
| | 칠석고사 | 칠석맞이 |
| | | 칠석제 |
| | 칠성고사 | 칠성공 |
| | | 칠성맞이 |
| | | 칠성제 |
| | 터밟기 | 마당밟기 |
| | | 매구치기 |
| | | 지신밟기 |
| | | 풍장치기 |
| | 터주고사 | 터주제 |
| | | 텃고사 |
| | | 토신제 |
| | 햇곡식갈기 | 제미하기 |
| | | 첫미하기 |
| | 화재막이 | 불막이 |
| | | 화재뱅이 |
| | 횡수막이 | 홍수막이 |
| | | 홍수매기 |
| | | 홍수맥이 |
| 신격 | 곳간신 | 고방신 |
| | | 광대감 |
| | | 도장지신 |
| 신격 | 군웅 | 산 |
| | | 소귀신 |
| | | 쇠구영신 |
| | | 쇠군웅 |
| | | 쇠머리영산 |
| | 굴뚝신 | 구대장군 |
| | | 굴대장군 |
| | 마당신 | 벼락장군 |
| | 문신 | 문간대감 |
| | | 문간신 |
| | | 문장군 |
| | | 문전신 |
| | | 수문신 |
| | 바꾸보살 | 보살할머니 |
| | | 쪽빡할머니 |
| | 방앗간신 | 방아지신 |
| | 배서낭 | 배당 |
| | | 배선영 |
| | | 배성주 |
| | | 선왕 |
| | 사신 | 울타리신 |
| | 삼신 | 삼승할망 |
| | | 지앙 |
| | 성주 | 성조 |
| | 안칠성 | 고팡신 |
| | 야광귀 | 신발귀신 |
| | | 야괴 |
| | | 야귀왕 |
| | | 야묘 |
| | | 야유광 |
| | 업 | 업왕 |
| | | 업왕신 |
| | | 업위신 |
| | 영등 | 바람님 |
| | | 바람제석 |
| | | 바람할매 |
| | | 바람할머니 |
| | | 영두할매 |
| | | 영등할머니 |
| | | 이월손님 |
| | | 이월할맘네 |
| | | 이월할매 |
| | | 이월할머니 |
| | | 풍신 |
| | | 풍신할매 |
| | | 풍신할머니 |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신격 | 올레신 | 정살지신 |
| | | 주목지신 |
| | | 죽산이 |
| | 용왕 | 우물신 |
| | 우마신 | 구신 |
| | | 마귀신 |
| | | 마대장군 |
| | | 마부신 |
| | | 쇠구영신 |
| | | 외양간신 |
| | 제석 | 불사할머니 |
| | 조왕 | 삼덕할망 |
| | | 정지각시 |
| | | 조군 |
| | | 조신 |
| | | 조왕각시 |
| | | 조왕대신 |
| | | 조왕할매 |
| | 철륭 | 뒤꼍각시 |
| | | 천룡신 |
| | | 철륭지신 |
| | | 철령할마이 |
| | 지신 | 토신 |
| | 측신 | 구릉장군 |
| | | 뒷간귀신 |
| | | 똥장군 |
| | | 부출각시 |
| | | 정낭각시 |
| | | 측간신 |
| | | 측도부인 |
| | | 측신각시 |
| | | 치귀 |
| | | 통시각시 |
| | 터주 | 지신 |
| | | 터신 |
| | | 터주할매 |
| | | 텃대감 |
| | | 터줏대감 |
| | | 토신 |
| | | 토주 |
| | 호구신 | 두신 |
| | | 마마 |
| | | 서신국마누라 |
| | | 손님 |
| | | 호구별성 |
| | | 호구마마 |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신체 | 건궁 | 허궁 |
| | 귀신종이 | 거장 |
| | | 조상종이 |
| | 대감벙거지 | 병립 |
| | | 전립 |
| | 미륵바위 | 미륵님 |
| | | 미륵불 |
| | | 선돌 |
| | 산똥이 | 산단지 |
| | 삼신단지 | 삼시랑단지 |
| | | 삼신할매단지 |
| | | 지앙단지 |
| | 삼신바가지 | 삼신고리 |
| | | 삼신단지 |
| | | 삼신자루 |
| | | 삼신토방구리 |
| | 성줏단지 | 성주동우 |
| | | 성주오가리 |
| | | 성줏독 |
| | 세존단지 | 세존단지 |
| | | 시주단지 |
| | | 시준단지 |
| | 신줏단지 | 부루단지 |
| | | 부루독 |
| | | 조상단지 |
| | 업가리 | 업영가리 |
| | 용단지 | 건용 |
| | | 터용 |
| | 제석오가리 | 신줏단지 |
| | | 제석단지 |
| | | 조상단지 |
| | | 지석단지 |
| | | 지석오가리 |
| | 조상단지 | 부루단지 |
| | | 시조단지 |
| | | 신줏단지 |
| | | 조상당세기 |
| | | 토방구리 |
| | 조왕중발 | 조왕단지 |
| | | 조왕물그릇 |
| | | 조왕보시기 |
| 제구 | 새옹 | 노구솥 |
| | | 반짐이 |
| | | 새용 |
| | | 생우 |
| | | 쇠용 |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제구 | 시매 | 섶막대기 |
| | | 짚방망이 |
| | 영등까꾸리 | 영등갈쿠리 |
| | | 영등깔꾸지 |
| | | 정제깔꾸지 |
| | 제웅 | 지웅 |
| | | 허수깨비 |
| | | 허재비 |
| | 춘첩 | 문련 |
| | | 영련 |
| | | 입춘첩 |
| | | 첩자 |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제물 | 객귀밥 | 거리밥 |
| | | 까치밥 |
| | | 뒷밥 |
| | | 뒷전밥 |
| | | 물귀밥 |
| | | 물밥 |
| | | 바가치밥(바가지밥) |
| | | 치밥(키밥) |
| | 밀떡 | 밀부침개 |
| | | 밀전병 |
| | 삼신밥 | 삼승밥 |
| | | 제왕밥 |
| | | 지왕밥 |
| | 섬떡 | 나이떡 |
| | | 나이송편 |
| | | 노비송편 |
| | | 두지떡 |
| | | 머슴송편 |
| | | 세병 |
| | | 솔떡 |
| | | 송엽병 |
| | | 수복병 |
| | 오곡밥 | 오곡잡밥 |
| | | 잡곡밥 |
| | | 찰밥 |
| | 정화수 | 정안수 |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용어 | 삼칠일 | 세이레 |
| | 택일 | 날가림 |
| | | 복일 |
| | | 추길 |
| | | 추일 |
| | 금기 | 구기 |

| 분야 | 표제어 | 이칭 |
|---|---|---|
| 용어 | 옥녀각시 | 옥녀각시살 |
| | | 옥녀살 |
| | 동토 | 동티 |
| | | 지벌 |
| | 양밥 | 방술 |
| | | 술법 |
| | 좀도리 | 절미 |
| | | 종도리 |
| | 주부 | 계주 |
| | | 기주 |
| | 고수레 | 걸명 |
| | | 고스레 |
| | | 고시래 |
| | | 고시레 |
| | | 헌식 |
| | 탈 | 동토 |
| | | 주당 |

# 색인



## ㄱ


가신제 48, 167, 208, 304, 712, 725
가을고사 22, 50, 128, 158, 162, 197, 206, 328, 330, 468, 525, 539,575, 596, 633, 644, 677, 691, 708
가을떡의례 446, 447, 448, 561
가을맞이 440
가을시루 41, 82, 214
감실 53, 60, 203, 359, 361, 572, 595
개공제 25, 169
개기제 25, 27
개맥이고사 133
개삼신 268
개토제 27, 28, 29
객귀물리기 29, 153, 161, 270, 326, 456, 556, 699
객귀밥 31, 32, 33
객귀상 31, 32, 696
거리굿 32, 283
거리맥이 35
거리밥 31, 33, 201
거리제 34, 153, 280, 282, 295, 358, 450, 489, 527, 552, 555, 582, 639, 641, 697, 737
건궁 36, 159, 170, 173, 243, 255, 257, 262, 264, 265, 312, 327, 464, 513, 570, 571, 608, 617, 645, 672, 683, 713
걸교 711
걸궁 631
걸립 38, 39, 121, 126, 158, 160, 283, 310, 441, 504, 531, 577, 609, 632, 683, 731
걸립대감 38, 121
걸립마누라 38
걸립신 38, 39
겨릅대 97, 105, 538
경국대전 252, 595
경도잡지 143,158, 307, 359, 363, 452, 487, 580, 612, 659, 662, 719
경쟁이 34, 69, 220, 448, 510, 520, 636, 699, 715
고깔 39, 180, 196, 222, 258, 265, 324, 362, 571, 575, 645, 685, 690, 692, 723, 732
고려사 58, 75, 151, 196, 208, 219, 225, 230, 288, 520, 537, 595, 611
고사 22, 40, 79, 80, 91, 92, 97, 112, 121, 132, 134,144, 158, 167, 169, 197, 205, 211, 252, 282, 287, 313, 472, 477, 506, 537, 540, 545, 552, 561, 579, 611, 642, 650, 668, 678, 684, 711, 717
고사반 709
고사시루 163, 167
고수레 40, 45, 106, 159, 169, 346, 578, 579, 670, 733
고추 47, 84, 149, 152, 154, 255, 280, 285, 295, 326, 329, 335, 351, 449, 557, 642, 643, 654, 656, 688, 735
고팡신 48
고풀이 671
곡령 48, 51, 57, 88, 207, 208, 223, 231, 269, 360, 367, 690
곡물 48, 72, 74, 76, 82, 90, 113, 127, 158, 169, 196, 206, 223, 240, 256, 263, 322, 347, 367, 440, 465, 470, 490, 513, 519, 555, 599, 696, 698, 708, 711, 715, 717
곳간신 51, 52
광대감 52, 121, 124, 127, 129
광청아기 52, 459
구덕장군 675
구슬할망 57, 59, 60, 459, 598
구슬할망본풀이 57, 58, 59, 60, 61, 598
구일차례 61, 626
군웅 61, 62, 63, 245, 295, 328, 339, 442,
군웅장군 623
굴대장군 63, 64, 172
굴뚝신 63
굴레고사 65
굴부르기제 65, 66, 67
궤눼깃또본풀이 55
귀면와 628, 629
귀신가두기 69
귀신날 344, 454, 463, 660
귀신동이 72, 591, 595, 596
귀신종이 72, 73, 74, 77, 78, 79, 591, 593, 595
귀신종이모시기 75, 76, 78
귀표고사 79, 80, 93
규합총서 130, 224, 349, 701
그물고사 80, 81, 135, 671
금기 41, 50, 51, 76, 81, 85, 142, 143, 147, 152, 153, 204, 208, 221, 234, 256, 284, 296, 301, 303, 322, 331, 338, 367, 481, 486, 508, 513, 524, 548, 587, 613, 654, 670, 676, 678, 699, 701, 726
금줄 22, 24, 44, 48, 50, 82, 84, 85, 115, 139, 152, 158, 171, 174, 180, 206, 240, 241, 245, 248, 260, 268, 285, 302, 322, 327, 334, 344, 347, 352, 439, 442, 475, 479, 490, 524, 535, 561, 565, 600, 615, 621, 632, 638, 641, 669, 671, 683, 686, 689, 715, 726
기자 83, 84, 85, 142, 190, 254, 255, 261, 267, 305, 588, 610, 681, 682
기주 131, 490, 626, 708, 711, 712
길대장군 34, 35, 528, 697
길산제 280, 282
길일 22, 34, 41, 49, 73, 76, 82, 152, 158, 176, 178, 206, 241, 254, 263, 282, 292, 301, 327, 338, 353, 513, 515, 525, 533, 540, 595, 596, 597, 605, 636, 676, 679, 683, 688, 699, 701, 709, 712
까치밥 31, 33
꺼칠용 90, 514, 515, 517, 518, 519, 658, 727
꽃반 703, 706


## ㄴ


나락 25, 49, 50, 88, 98, 103, 137, 169, 206, 217, 307, 312, 319, 345, 366, 471, 479, 490, 505, 511, 514, 517, 538, 633, 644, 646, 658, 678, 686, 707, 712, 726, 727, 728
나무고사 91
나이떡 91, 307, 483
낙인고사 80, 92, 94
날삼재 274, 275, 277
남근석 85, 180, 191
내전 32, 282, 450, 696
넋들임 94, 264
노구솥 97, 295, 538
노래기날 334
논고사 97, 98, 99, 101, 103, 105, 539
논꼬 97, 103, 105
논둑제 97
논멕이기 103
농사고사 98, 99, 100, 101, 103, 106
농사밥 100, 214, 479, 488
농사오가리 571, 572
농신 49, 97, 99, 104, 106, 178, 197, 478, 538, 539, 569, 571
농신제 98, 99, 101, 216, 217, 305, 516, 538, 539
눌굽 108
눌굽지신 107

단군신화 83, 259, 285, 287, 359, 477, 680
단귀 116, 120
단오고사 112, 115
단오장 112, 143
단오차례 112
단잡기 116, 117, 120
달음탈 149
담배고사 121
당산 24, 160, 163, 166, 463, 560, 564, 631, 634, 637, 639, 642, 645, 651, 656, 679, 685, 689, 693
당상관 116, 120
당신본풀이 56, 60
대감 27, 38, 121, 122, 123, 124, 125, 126, 168, 172, 193, 215, 310, 596, 607, 708, 733, 737
대감거리 62, 123, 126
대감단지 127, 361, 366
대감벙거지 127, 128
대감옷 27
대감항아리 22, 222
대구심리 130, 131
대삼재 274, 279
대수대명 35, 208, 210, 228, 280, 282, 294, 583, 739
대신말명 56
대왕단지 1 13
대잡이 71, 116, 260, 310, 318, 450, 688
대주 24, 40, 75, 111, 123, 128, 131, 162, 164, 168, 215, 217, 241, 298, 302, 309, 315, 321, 353, 364, 370, 490, 523, 527, 533, 545, 548, 562, 564, 571, 625, 633, 636, 644, 650, 683, 689, 703, 706, 713, 715, 723
덤장고사 81, 132, 133, 135, 252, 253, 254
도깨비 35, 60, 69, 81, 125, 126, 132, 147, 161, 167, 171, 203, 253, 455, 467, 629, 671
도깨비고사 97, 133, 136, 137
도깨비단지 137
도신 44, 138, 158, 178, 367, 442, 446, 656, 689, 692
도채비 133, 459
독각귀 133, 134
독갑 134
독경 30, 40, 69, 147, 150, 220, 229, 242, 252, 295, 330, 364, 442, 535, 536, 537, 632, 671, 674
독살 252, 253, 254
돌레떡 139, 140, 613, 615
돗제 138, 139, 140, 141
동경잡기 112, 487
동국세시기 40, 83, 141, 144, 145, 158, 163, 170, 172, 225, 229, 232, 244, 249, 273, 274, 283, 307, 313, 335, 355, 357, 368, 453, 474, 477, 487, 520, 530, 537, 580, 584, 612, 620, 630, 660, 662, 711
동국여지승람 141, 143, 283, 474, 477
동국이상국집 115, 288, 737
동돌개비떡 245
동정잽이 148, 150, 632, 633
동지고사 144, 145, 147, 335
동지차례 144, 145, 147, 719
동토 64, 117, 148, 154, 219, 224, 249, 273, 274, 328, 488, 536, 555, 675, 678, 696, 698, 715
동토경 148, 249
동토잡기 117, 148, 161, 270, 273
동토태세경 149
동티 48, 116, 148, 149, 154, 155, 161, 303, 328, 331, 338, 352, 353, 354, 488, 588, 614, 615, 632, 656, 676, 698, 699, 715
돼지코 151
된장 30, 35, 48, 151, 295, 326, 329, 330, 449, 524, 525, 557, 558, 596, 642, 643, 696, 727
둑직이 97
뒷간귀신 672, 675
뒷전 32, 117, 294
뒷전상 31
들삼재 274, 275, 277
떡국천신 650, 653
똥떡먹이기 154
똥장군 672
뜬것 29
뜬귀 29
뜬귀물리기 155
띠배 282, 351, 497

마구간고사 158
마당밟이 160, 161, 631
마당신 36, 41, 159, 160
마당제 160, 162
마대장군 158, 160, 163, 530
마마 332, 344, 442, 455, 585, 729, 731, 732
마부대감 158
마부신 62, 158, 530
마제 158
마중시루 163
마짐시루 164, 165
말명상자 55
맞고사 163, 167
맞시루 163, 166,
매구치기 160, 233, 703
머슴날 205, 307, 479
메밀 81, 113, 133, 136, 146, 167, 206, 280, 495, 577, 654
메밀묵 32, 81, 134, 137, 167, 168
멩감 250
멩감제 168, 250
명다리 439, 440, 462, 573, 575, 678, 685, 687, 691
명절고사 198, 200, 669, 670
모밥내가기 101, 103, 168
모탕고사 25, 27, 169
목신대감 122
목은집 211
몸주대감 121, 124, 126, 310
못자리고사 101, 103, 106, 168, 169
묘제 360
무당내력 31, 130, 308, 494, 690, 730
무성주 311, 725
무주고혼 29, 696
묵삼재 277
문간대감 171, 172
문간신 171, 175
문간제 170, 171
문배 171, 172, 225, 277
문신 36, 41, 45, 130, 142, 143, 170, 171, 178, 225, 442, 500, 611, 661, 665, 672, 673, 674
문장군 171
문전고사 175
문전본풀이 171, 173, 175, 178, 500, 586, 606, 613, 615, 672, 673, 675
문전신 171, 175, 176, 206, 615, 616, 674
문전제 174, 175, 206, 504, 616
문전철갈이 175, 176, 178, 179, 196
물대 179, 180, 475, 510
물애밥 33, 213
미륵바위 180, 181, 182, 192, 638
미륵불 84, 180, 181, 341
미역 58, 67, 69, 84, 154, 182, 207, 255, 256, 258, 259, 260, 262, 264, 265, 285, 286, 326, 363, 366, 475, 480, 524, 525, 527, 571, 653, 689
밀떡 91, 97, 105, 107, 186, 538, 539, 679,

686, 687
밀전병 106, 186, 538, 539, 686
밀천신 650, 653
밑고사 25, 26

## ㅂ

바꾸보살 190
바람신 334, 473, 475, 477, 478, 479, 483, 484
바래기기와 627, 628, 629, 630
바위치성 190
밧칠성 179, 192, 206, 441, 465, 645, 646,
681, 685, 688, 693
방아지신 196
방앗간신 36, 196, 197
방위가리기 197
밭고사 197
배고사 48, 82, 134, 135, 197, 202, 204, 229,
284, 299, 351, 352, 369, 370, 494,
496, 528, 590, 669, 670, 671, 672
배서낭 197, 198, 200, 201, 204, 299, 300,
364, 493, 494, 469, 620, 669, 671, 672
배서낭함 204
배성주 200, 201, 202, 205, 620, 671, 672
백설기 22, 24, 41, 70, 106, 164, 168, 181,
185, 209, 217, 231, 252, 257, 260,
262, 264, 286, 349, 350, 351, 467,
468, 469, 484, 492, 546, 561, 565,
574, 576, 622, 635, 669, 670, 678 678,
679, 683, 687, 688, 689, 690, 691, 738
백중고사 205
뱅이 30, 147, 339, 344, 449
법사 30, 39, 69, 116, 208, 249, 259, 280,
282, 312, 317, 318, 321, 342, 365,
442, 449, 456, 493, 494, 495, 496,
510, 511, 535, 536, 651, 677, 739
벗고사 205, 472
벙거지 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6, 239, 462, 596, 644, 646, 708,
712, 733
벨롱겡이 175, 176, 178, 179, 196
벼슬대감 121, 122, 124, 126, 596
벽사 26, 48, 170, 172, 173, 174, 219, 220,
224, 225, 226, 285, 290, 333, 336,
352, 546, 580, 628, 661, 662
변소귀신 677
별비 126
별상 121, 122, 123, 124, 126, 129, 130
별상대감 121, 122
볏가릿대 307, 496, 497
볏섬 97, 368, 369, 442
볏짚 22, 30, 205, 351, 469, 492, 583, 584,
633, 643, 644, 658, 659, 678, 690, 707
병경 208, 536,
보름고사 98, 211, 216. 488, 565
보리눌 107, 108
보물대감 121, 124, 127
복물뜨기 217, 519
복삼재 274, 275, 277
복숭아나무 106, 117, 149, 150, 151, 154, 210,
217, 223, 224, 279, 295, 330, 345,
356, 357, 454, 496, 722
복제 103, 216, 217, 221
본당 200, 201, 203, 671
부락제 304
부루 599, 690
부루단지 221, 222, 223, 312, 323, 325, 360,
366, 599, 690, 725, 726
부적 84, 112, 135, 143, 149, 151, 170, 172,
218, 219, 220, 223, 274, 276, 277,
279, 282, 328, 355, 456, 488, 533,
546, 548, 552, 555, 608, 617, 735, 736
부정풀이 244, 302, 330, 352, 449, 561
부출각시 672, 675
북어 22, 24, 31, 35, 39, 62, 82, 135, 161,
204, 227, 228, 229, 230, 280, 282,
294, 295, 297, 298, 299, 302, 311,
314, 315, 363, 364, 365, 476, 524,
552, 582, 659, 697, 709, 728, 738
불막이 230, 735
불밝이쌀 24, 163, 533, 540, 636
불밝히기 230, 232
불사거리 126, 129
불사할머니 567
비손 22, 30, 34, 41, 44, 52, 63, 65, 75, 79,
81, 84, 98, 106, 112, 134, 147, 158,
160, 207, 214, 219, 233, 242, 252,
257, 260, 266, 280, 282, 298, 302,
315, 320, 323, 326, 328, 330, 336,
351, 358, 361, 370, 442, 449, 451,
462, 466, 469, 476, 483, 488, 496,
513, 522, 525, 533, 539, 557, 560,
566, 582, 596, 613, 622, 632, 650,
653, 656, 676, 678, 681, 683, 688,
691, 699, 710, 715, 726

## ㅅ

사례편람 28
사만이본풀이 179, 250
사신 121, 125, 192, 194, 231, 238, 441,
729, 730
사신대감 121, 122, 124, 125, 239, 240
사자상 31, 32, 624, 625
산 61, 62, 240, 328, 329, 335, 713
산단지 243
산동이 113, 243
산림경제 115, 152, 218, 223, 333, 340, 354, 606
산멕이 61, 112, 240, 244, 248, 296, 335, 494,
495
산바람 249
산바람막기 249, 250
산부정 22, 24
산소탈막기 249, 250
산신 28, 34, 41, 46, 49, 62, 83, 84, 100,
115, 129, 160, 162, 176, 183, 207,
229, 242, 249, 251, 258, 261, 267,
297, 300, 310, 323, 329, 335, 439,
497, 524, 529, 534, 536, 627, 645,
652, 653, 710, 711, 715, 734
산신대감 129
산신멩감 250
산제 164, 242, 244, 248, 249, 251, 252,
282, 296, 301, 358
산치성 113, 250, 251, 252, 296, 468, 685
살고사 252, 253, 254
삼국사기 75, 83, 151, 170, 282, 337, 486, 516,
520, 531, 544, 565, 595, 700, 737
삼국유사 31, 69, 83, 170, 172, 211, 214, 218,
223, 224, 231, 282, 286, 337, 485,
486, 490, 513, 516, 518, 569, 580,
681, 684, 700, 711
삼날 270
삼눈잡기 161, 270
삼두일족부 274, 276
삼색실과 34, 35, 67, 135, 191, 200, 249, 250,
254, 260, 283, 370, 449, 473, 489,
524, 529, 533, 564, 583, 636, 659,
669, 677, 688, 709, 726, 739
삼승할망 257, 258, 264, 732
삼승할망본풀이 55
삼시랑 264
삼신 25, 39, 50, 61, 64, 71, 82, 84, 145,
147, 158, 183, 207, 209, 215, 240,
244, 252, 254, 262, 283, 285, 286,
315, 316, 322, 328, 350, 363, 366,
438, 442, 449, 469, 472, 486, 505,
511, 517, 519, 536, 543, 557, 559,
564, 567, 571, 574, 576, 577, 579,
592, 594, 607, 613, 620, 623, 633,
650, 651, 678, 686, 690, 709, 725
삼신단지 25, 51, 89, 255, 257, 262, 264, 324,

519, 570, 726
삼신당 83, 115, 142, 241, 244, 249, 260, 283
삼신대 258, 259, 260, 261
삼신떡 351
삼신모시기 261, 266
삼신바가지 49, 88, 255, 258, 265, 266, 360, 442, 514, 727
삼신받기 259, 265, 268, 530
삼신밥 262, 268, 269
삼신제 184, 259, 260
삼신주머니 255, 258, 262, 264, 574, 678, 679, 689
삼신짚 268, 269, 270, 651
삼싱할망 95, 96
삼잡기 270, 271
삼재 142, 219, 226, 229, 273, 279, 302, 355, 461, 492, 665, 666, 677, 701, 736, 738
삼재막이 173, 279, 280, 282, 738
삼재부 226, 274, 279
삼재부적 273, 279, 280, 282
삼재풀이 274, 276, 279, 282
삼짇고사 282, 283
삼칠일 82, 84, 262, 269, 284, 329, 334, 335
상달고사 22, 25, 50, 82, 98, 99, 136, 161, 206, 234, 287, 310, 349, 469, 575, 675, 692, 717
상량고사 25, 290, 293, 317, 545, 548, 621
상량문 287, 548
상량식 131, 132, 228, 285, 315, 545, 570, 571, 621, 723
상량신 25, 293, 313, 723, 724
상량제 25, 27, 287, 307
상문 294, 295
상문풀기 294
새알뜨기 295, 519
새옹 252, 295
새옹메 296
샘제 523, 531, 533
생기복덕 44, 138, 250, 277, 309, 318, 532, 634
서낭당 114, 210, 282, 296, 298, 336, 358, 364, 365, 494, 620, 622, 722
서낭신 163, 204, 297, 365, 495, 523
서낭제 200, 283, 297, 365, 448, 494, 495, 671
서신국마누라 729, 732, 733
석전 · 기우 · 안택 304, 306, 490, 516, 711, 712
석탈해신화 55
선돌 165, 180, 364
선왕 201, 300, 307, 481, 671
선왕제 307
섬떡 307, 483
성주 22, 24, 27, 30, 36, 40, 44, 50, 63, 82, 84, 100, 103, 113, 121, 128, 131, 143, 145, 147, 151, 154, 160, 162, 164, 167, 175, 201, 205, 208, 214, 234, 248, 262, 264, 269, 283, 288, 292, 297, 304, 307, 334, 346, 349, 362, 442, 446, 469, 472, 488, 493, 512, 514, 519, 535, 536, 540, 543, 548, 555, 560, 597, 606, 609, 613, 616, 619, 631, 650, 670, 679, 687, 706, 712, 713, 715, 723, 739
성주고사 24, 100, 313, 562, 565, 636, 670
성주굿 154, 308, 310, 315, 321, 571, 620, 703, 723
성주매기 307, 317, 320
성주받이 132, 315, 321, 545, 548, 571
성주본가풀이 316
성주섬 50, 312, 315, 442, 726, 727
성줏단지 25, 40, 49, 82, 89, 206, 311, 319, 363, 366, 505, 569, 596, 619, 622, 723, 726
성줏대 116, 259, 309, 311, 314, 320, 334, 622
성줏대감 121, 122
성황 297, 300, 309, 488, 495, 585, 602, 687
세시기 143, 172, 279, 363, 368, 452, 580, 659
세시잡영 212, 213, 662
세시풍요 158, 277, 453
세이레 207, 257, 266, 269, 285, 322, 571
세존 39, 104, 217, 255, 322, 326, 361, 571, 594, 726
세존단지 39, 217, 322, 360, 569, 571, 574, 591, 593, 595, 685, 725, 728
세종실록지리지 253
소금 26, 30, 48, 116, 148, 154, 183, 198, 202, 207, 228, 259, 273, 280, 295, 304, 326, 330, 456, 472, 488, 524, 530, 534, 546, 557, 642, 656, 661, 670, 688, 697, 735
소삼신 62, 153, 268, 327
소삼신모시기 28
속신 50, 76, 142, 145, 197, 207, 219, 221, 223, 230, 264, 284, 286, 300, 303, 353, 355, 495, 677, 686, 703, 726, 734
손 331
손각시 332, 511, 624
손님 29, 331, 442, 455, 702, 729
솔가지 44, 99, 169, 216, 259, 285, 315, 321, 333, 351, 483, 518, 644, 719
송경 69, 336
솥 336
솥할망 339, 614
쇠구영신 61, 530
쇠군웅 61, 62, 63
쇠코뚜레 341, 637, 638, 696
수문신 171, 172
수세 143, 219, 230, 232, 345
수양부모 345, 438, 439
수지 89, 113, 328, 345, 346, 514, 725, 726, 727
수지쌀 345, 514
숯 30, 44, 48, 152, 273, 285, 298, 330, 335, 347, 352, 558, 715
시루 22, 24, 37, 41, 52, 82, 97, 106, 113, 130, 135, 153, 162, 163, 171, 175, 200, 206, 214, 217, 259, 298, 316, 318, 330, 340, 347, 351, 442, 449, 456, 468, 470, 493, 496, 536, 565, 575, 636, 677, 679, 683, 713, 717, 732, 735, 739
시루고사 40, 41
시루떡 22, 24, 34, 37, 41, 44, 62, 81, 135, 147, 158, 162, 164, 168, 181, 186, 197, 215, 234, 245, 250, 252, 262, 282, 293, 299, 302, 314, 316, 318, 349, 363, 442, 446, 449, 461, 467, 469, 472, 480, 488, 497, 529, 530, 538, 546, 552, 560, 565, 596, 614, 659, 671, 676, 679, 682, 686, 691, 709, 711, 713, 715, 729, 738
시매 351, 352
시영어매삼기 438
시준단지 76, 78, 221, 312, 323, 360, 572, 574, 653, 726
신과세제 616
신구간 231, 352, 354
신대 259, 260, 322
신수보기 354, 356, 358
신수점 302, 355, 356, 358, 363
신줏단지 39, 50, 82, 89, 221, 346, 359, 366, 516, 569, 571, 574, 593, 598, 619, 725
신증동국여지승람 143, 163
신충애기 362, 438, 440
실타래 26, 40, 112, 228, 242, 255, 257, 260, 262, 264, 269, 286, 297, 302, 315, 322, 324, 362, 439, 519, 552, 573, 595, 597, 619, 672, 685, 706, 724
심방 52, 95, 137, 171, 174, 176, 178, 192, 195, 203, 215, 250, 329, 439, 457, 460, 475, 480, 504, 523, 598, 606, 613, 634, 672, 676, 688
쌀 365
쌀용 89, 514, 517, 519, 658
쌈 367
쌍걸립 38

아이팔기 438, 527, 529
안내상 616
안칠성 139, 194, 206, 339, 440, 681, 684, 689, 693
안택 31, 40, 50, 61, 71, 112, 136, 158, 167, 214, 234, 260, 266, 282, 297, 302, 304, 317, 320, 324, 350, 441, 474, 490, 516, 535, 546, 561, 565, 571, 583, 597, 610, 613, 631, 635, 679, 688, 692, 696, 711, 738
안택경 44, 142, 305
앉은굿 69, 70, 150, 211, 499, 535, 698
애기씨 451
액막이 34, 137, 139, 142, 151, 153, 162, 173, 176, 178, 213, 225, 227, 274, 277, 305, 328, 331, 339, 351, 358, 368, 438, 451, 456, 460, 493, 498, 526, 528, 533, 537, 545, 552, 555, 580, 585, 633, 677, 682, 697, 736
야광귀 452, 463, 659
약밥 211, 487, 521
양귀법 604
양밥 106, 151, 456
양씨아미 457
어부심 368, 460, 520, 526, 528
엄나무 137, 150, 173, 343, 358, 454, 463, 546, 632, 637
업 464
업가리 22, 466, 469, 513, 644, 708
업대감 60, 172, 469
업맞이 469
업왕 465, 518, 541
업제 469, 471
업항아리 81, 222, 467, 544, 643
여서낭 135, 201, 254, 297
여제 627
열양세시기 143, 170, 172, 276, 283, 368, 460, 487, 520, 526, 612
염전고사 472
영등 154, 346, 473
영등고사 477, 494
영등굿 476, 483
영등까꾸리 484
영등할머니 153, 179, 307, 334, 473, 477, 483, 488, 496, 510, 609
예조 28, 485
오곡밥 37, 116, 120, 211, 255, 262, 368, 371, 461, 483, 486, 517, 521, 525, 528, 559, 585, 632, 636, 688, 696
오방신장기 494
오방지신 298, 489, 633
오색천 203, 229, 280, 294, 302, 475, 479, 483, 493
옥갑경 210
옥녀각시 497
옥녀살 497
옥추경 150, 210, 294
올개심니 500
올개심리 504
올레 171, 176, 500, 503
올레대위 176, 328, 500
올레신 500
올레코시 175, 504
올벼심리 99, 264, 325, 361, 366, 504, 588, 590
올벼차례 504
옹기가마고사 506
왕신 308, 332, 499, 509, 544
왕신단지 510, 717
외양간신 530
왼새끼 28, 39, 44, 63, 71, 113, 116, 139, 149, 219, 222, 241, 258, 285, 295, 302, 328, 335, 344, 347, 351, 473, 479, 546, 595, 623, 638, 640, 643, 656, 659, 675, 699, 707, 712, 722
요왕제 34, 369, 523, 525, 528
용궁맞이 461
용단지 25, 36, 88, 100, 145, 159, 206, 346, 442, 513, 535, 542, 633, 658, 659, 725
용단지모시기 516
용신 49, 54, 98, 103, 106, 183, 240, 242, 244, 267, 326, 458, 462, 516, 518, 531, 538, 653, 659, 710, 727
용신제 97, 101, 103, 523, 526, 530, 538
용알뜨기 231, 519
용왕 34, 41, 65, 104, 135, 139, 184, 198, 201, 204, 224, 253, 259, 267, 298, 326, 352, 359, 368, 439, 458, 460, 488, 492, 513, 516, 519, 522, 536, 546, 580, 669
용왕공 280, 282, 526, 530, 534
용왕밥 368, 371, 524
용왕제 280, 305, 351, 358, 368, 461, 486, 520, 523, 526, 538, 641, 659, 670
용재총화 133, 170, 172, 219, 223, 334, 674
용제 97, 103, 186, 217, 531, 538
용지대 100
우란분재 83, 205
우마신 36, 143, 530, 633
우마장군 158
우물제 283, 531, 534
웃줄단지 534, 565
웃줄할매 258, 534, 565
월점 148
위목 70, 216, 512, 535
유감주술 99, 152, 180, 200, 231, 669
유두고사 97, 101, 103, 105, 206, 537
유두제 101, 103, 537
유두천신 537, 650
유지지 496, 645, 655
이레떡 264, 351
이월할매 473, 478, 540
인동토 149
인분대감 675, 677
인삼고사 540
인업 459, 465, 518, 541
임신네 544
임원경제지 28, 239, 338
입주고사 25
입춘첩 225, 291, 342, 358, 661, 664
입택고사 25, 27, 545


## ㅈ


자동차고사 228, 552
자식팔기 438
잔밥각시 555, 643
잔밥먹이기 456, 555, 642
잡귀 25, 29, 31, 48, 70, 117, 120, 133, 139, 145, 150, 158, 160, 170, 173, 176, 186, 208, 211, 218, 224, 232, 295, 314, 316, 326, 334, 339, 342, 344, 349, 351, 463, 476, 489, 524, 529, 536, 555, 559, 608, 610, 621, 627, 631, 636, 638, 643, 698, 715, 719, 736, 739
장독신 558, 560
재복신 38, 517, 541, 544
재수굿 39, 310, 315, 364
절미 561, 618
절미단지 619
정살지신 171, 175, 503, 504
정월고사 213, 302, 525, 561, 565
정월떡 213, 302, 525, 561, 565
정월떡의례 446, 561
정초차례 562, 565
정화 31, 48, 267, 285, 315, 326, 333, 336, 339, 351, 442, 462, 524, 526, 559, 609, 618, 658, 697
정화수 22, 25, 37, 41, 48, 63, 75, 82, 84, 90, 148, 158, 160, 163, 184, 207, 209, 243, 255, 257, 262, 264, 269, 283,

285, 315, 323, 326, 334, 350, 361,
366, 475, 479, 483, 514, 517, 520,
522, 531, 540, 559, 565, 570, 573,
576, 587, 596, 608, 610, 613, 615,
617, 622, 658, 681, 685, 690, 706,
709, 715, 718, 724, 728, 731
제미하기 567, 726
제석 40, 128, 142, 184, 209, 215, 232, 255,
265, 322, 360, 442, 483, 544, 565,
567, 591, 607, 609, 620, 633, 651,
685, 691
제석단지 465, 569, 573, 609, 685, 687, 723
제석오가리 221, 361, 366, 567, 569, 574, 591,
593, 723, 725
제석주머니 22, 186, 360, 362, 467, 567, 571, 591,
593, 725
제석할망 103, 574, 577
제석할망고사 579
제웅 208, 273, 580, 737, 739
제웅버리기 358, 583
조군영적지 586, 588
조기심리 588
조령 49, 51, 72, 223, 366, 572, 591, 594,
597, 724
조상 29, 33, 39, 44, 47, 52, 55, 59, 72, 75,
98, 114, 122, 124, 126, 131, 142, 161,
174, 181, 190, 205, 209, 211, 230,
234, 242, 245, 248, 255, 262, 283,
312, 322, 324, 340, 346, 349, 360,
365, 441, 449, 451, 457, 468, 472,
486, 488, 495, 499, 504, 518, 525,
528, 536, 538, 540, 544, 546, 556,
562, 564, 570, 572, 574, 587, 590,
604, 607, 609, 626, 633, 650, 669,
709, 718, 727, 737
조상단지 39, 82, 88, 221, 311, 314, 320, 323,
325, 359, 366, 486, 505, 535, 564,
569, 591, 609, 619, 653, 724
조상모시기 76, 594
조상신본풀이 52, 56, 60, 457
조상종이 73, 78, 595, 598
조상하나씨 51, 311
조선 75, 115, 143, 207, 228, 244, 253, 305,
354, 355, 357, 359, 438, 452, 491,
497, 499, 537, 540, 586, 595, 598,
611, 626, 631, 708, 711, 719, 731
조선무속고 172, 255, 307, 465, 490, 511, 583,
601, 620, 711, 730
조선왕조실록 115, 151, 230, 338, 340, 611
조선의귀신 603
조왕 25, 30, 36, 40, 44, 63, 84, 108, 145,
147, 158, 168, 171, 175, 196, 206,
209, 216, 234, 271, 298, 311, 325,
339, 341, 350, 353, 442, 446, 449,
469, 487, 491, 496, 500, 504, 515,
517, 536, 562, 566, 572, 586, 599,
605, 633, 636, 650, 672, 676, 679,
692, 706, 715, 728
조왕경 44, 71, 449, 615, 636
조왕고사 611, 614
조왕굿 161, 209, 310, 613, 703
조왕중발 37, 607, 613, 616
조왕할망 616, 673, 676
좀도리 618
종이성주 311, 570, 619, 723
주당 154, 161, 164, 499, 623, 675, 677, 698
주당맥이 150, 623, 625, 675, 699
주당살 154, 303, 316, 623, 677
주당풀이 161, 623
주부 25, 34, 41, 75, 91, 97, 106, 121, 128,
137, 144, 181, 234, 242, 263, 298,
302, 305, 316, 322, 329, 334, 352,
360, 441, 448, 456, 460, 468, 476,
493, 495, 513, 517, 524, 526, 529,
532, 541, 546, 561, 564, 571, 582,
594, 596, 605, 609, 617, 625, 633,
635, 651, 658, 680, 683, 689, 715,
722, 725, 737







죽산이 171, 626
죽은부정 22
중구차례 626
증보산림경제 25
지경다지기 637
지골 624, 625
지붕신 627
지신 25, 38, 39, 89, 125, 160, 161, 196,
283, 309, 369, 488, 518, 558, 560,
563, 564, 614, 620, 629,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53, 657,
658, 672, 698, 703, 704, 710
지신밟기 160, 283, 358, 493, 532, 631, 634,
636, 655, 658, 703, 709
지신제 24, 304, 492, 533, 564, 634, 657, 712,
738
지앙 147, 185, 256, 264, 607, 637, 657
지앙상 215, 256, 264, 488, 656
지앙할미 255, 258
짐승뼈 637
집고사 22, 41, 91, 467, 545
집들이고사 25, 642
집안시루 24
짚신이바지 557, 643
짚주저리 137, 206, 367, 467, 470, 490, 510,
546, 633, 643, 659, 689, 707, 710,
712, 716


## 大


차사본풀이 607
찰밥 31, 37, 51, 100, 169, 211, 269, 320,
369, 483, 486, 517, 519, 522, 528,
533, 613, 650, 697
참봉 81, 133, 203, 254, 614
참봉고사 133, 135, 252, 650
처용가 273, 580, 711
천룡 159, 645, 658
천신 90, 112, 125, 130, 153, 160, 170, 205,
223, 227, 230, 234, 240, 309, 313,
323, 346, 490, 504, 536, 561, 567,
570, 588, 626, 631, 646, 650, 691, 726
천신대감 121, 124, 127, 240, 646, 727
천연두신 729, 731, 733
철륭 65, 88, 89, 90, 153, 159, 206, 234,
350, 365, 367, 442, 472, 488, 558,
631, 635, 643, 645, 653, 710
철륭제 657, 659
첫국밥 268, 269
첫미하기 726, 728
체 659
초감제 96, 139, 476, 480
추렴 480
축귀 29, 142, 218, 223, 225, 285, 294, 326,
327, 335, 558, 628, 660, 661
춘첩 345, 661, 664, 668
출어고사 135, 200, 668
측간고사 677
측도부인 175, 503, 606, 672, 675
측신 24, 36, 41, 113, 151, 153, 282, 442,
491, 606, 613, 620, 672
측신모시기 675
치밥 31, 564
치성 31, 37, 41, 82, 100, 104, 123, 129,
160, 164, 180, 185, 190, 200, 211,
214, 242, 250, 255, 260, 267, 280,
282, 286, 296, 301, 308, 336, 347,
352, 355, 364, 440, 479, 511, 515,
522, 525, 527, 533, 545, 583, 608,
618, 622, 634, 651, 671, 679, 687,
697, 709, 713, 715, 717, 730, 732
칠석고사 103, 186, 349, 678, 683
칠석맞이 439, 678, 684, 691
칠성 24, 41, 82, 84, 123, 126, 128, 153,
159, 162, 168, 176, 186, 192, 215,
259, 297, 350, 353, 438, 441, 459,

488, 500, 544, 558, 566, 574, 633, 646, 652, 674, 678
칠성고사 104, 678, 681, 684, 686, 688, 689, 691
칠성눌 179, 195, 206, 470
칠성단지 206, 680, 684, 688, 690
칠성본풀이 178, 192, 441, 684
칠성판 682, 685, 691

## ㅋ

코시 108
키 696

## ㅌ

탈 69
태세치기 149
태을보신경 209, 250, 260
택일 22, 24, 26, 44, 82, 100, 138, 152, 158, 167, 174, 176, 178, 195, 243, 250, 258, 260, 293, 321, 438, 442, 446, 449, 471, 504, 515, 523, 535, 546, 548, 572, 577, 587, 597, 605, 609, 614, 634, 636, 671, 675, 699, 726, 728
터밟기 703, 706
터주 24, 37, 39, 64, 81, 84, 89, 113, 124, 128, 147, 158, 167, 172, 209, 215, 350, 361, 365, 367, 442, 446, 449, 465, 467, 486, 488, 490, 495, 511, 516, 518, 539, 546, 555, 560, 566, 616, 626, 631,643, 650, 652, 657, 684, 687, 689, 691, 707, 723, 733
터주고사 82, 540, 635, 707, 709, 712, 718
터주시루 41, 82, 164, 442, 467
터주항아리 446, 644, 659, 707, 715
터줏가리 22, 41, 49, 90, 122, 124, 129, 206, 207, 234, 467, 490, 493, 513, 546, 557, 633, 644, 655, 658, 707, 710, 715
터줏대감 27, 90, 121, 124, 129, 172, 206, 468, 490, 631, 635, 646, 658, 707, 717, 733, 737
텃대감 126, 172, 467, 491, 493, 631, 646, 658, 707, 711
테우리 80, 92, 578
토봉고사 717
토신제 176, 614, 634, 710, 718
토정비결 44, 142, 355, 358, 451
통시각시 672, 718
퇴송 200, 259, 450

## ㅍ

팥죽 64, 135, 137, 140, 142, 144, 147, 150, 158, 170, 173, 255, 262, 293, 294, 320, 333, 335, 466, 517, 535, 538, 546, 560, 597, 613, 658, 659, 677, 719, 727
팥죽제 144
표해록 201
푸는체 353
푸닥거리 34, 158, 201, 219, 251, 737
풋바심 505, 651
풍신 442, 473, 478, 481, 484, 719
풍신제 305, 474, 478, 484, 719

## ㅎ

하루걸이 722
학질떼기 161, 722
한양세시기 213, 368, 453, 580
한지 37, 39, 61, 72, 77, 106, 115, 127, 129, 152, 200, 202, 204, 216, 222, 229, 239, 242, 245, 251, 258, 265, 293, 297, 299, 311, 315, 318, 320, 323, 328, 360, 363, 371, 485, 497, 513, 519, 525, 527, 535, 541, 546, 570, 573, 575, 592, 595, 598, 607, 617, 619, 630, 632, 644, 654, 656, 672, 687, 690, 708, 710, 712, 716, 723, 725, 728
해동가요 45
해동농서 696
해동죽지 45, 112, 212, 362, 453, 520, 580, 661
해물리기 153, 271, 697, 726
해채 182
햇곡식 25, 40, 82, 88, 100, 127, 137, 206, 223, 234, 255, 262, 320, 325, 360, 367, 446, 490, 495, 505, 510, 514, 519, 567, 571, 576, 593, 627, 646, 650, 658, 687, 689, 692, 707, 709, 712, 715, 726
햇곡식갈기 345, 567, 726
허궁 36, 264, 729
허수아비 35, 229, 289, 358, 451, 461, 512, 581, 585, 625
허재비 510, 585, 729
헌식 99, 106, 134, 198, 201, 534, 552, 670, 729
현몽 90, 202, 256, 471, 485, 514, 541, 587, 592
형초세시기 143, 170, 662, 719
호구별성 36, 729
호구신 729, 731
호서낭 240, 646, 733
호식장 734
홍수맥이 450, 735, 739
화재막이 230, 280, 326, 735
화재뱅이 326, 735
화주 352
횡수 302, 736, 738
횡수막이 450, 735
후토신 27, 645, 657
희식 253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 필자


**강권용(康權用)** _ 제주해녀박물관

돗제 138
문전철갈이 178
산신멩감 250
제석할망고사 579

**강성복(姜成福)** _ 공주대학교

마중시루 163
모밥내가기 168
살고사 252
서낭제 300
시매 351
지신제 634

**강소전(姜昭全)** _ 제주대학교

귀표고사 79
넋들임 94

**강영환(姜榮煥)** _ 울산대학교

개토제 27
사신 238
상량제 292

**구미래(具美來)** _ 동국대학교

복숭아나무 217
삼칠일 284
솔가지 333

**권오경 (權五慶)** _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주고사 313

**권태효(權泰孝)** _ 국립민속박물관

미륵바위 180
제석 567

**기량(奇亮)** _ 국립민속박물관

상량문 287

**김경남(金京南)** _ 한중대학교

고사 40
성줏대 320

**김기설(金起卨)** _ 강릉민속문화연구소

종이성주 619

**김도현(金起卨)** _ 강원대학교

농신제 101
짚주저리 643

**김동섭(金東燮)** _ 제주도립미술관

놀굽지신 107
밧칠성 192
안칠성 440
올레신 500

**김만태(金萬泰)** _ 서라벌대학교

택일 699

**김명자(金明子)** _ 안동대학교

건궁 36
마당신 159
문신 171
용단지 513
용단지모시기 516
유두고사 537
인삼고사 540
인업 541
측신 672
터주고사 711
횡수막이 736

**김미주(金美珠)** _ 금오민속박물관

영등까꾸리 484

**김상보(金尙寶)** _ 대전보건대학교

미역 182

**김선풍(金善豊)** _ 한중대학교

불밝히기 230

**김승찬(金承璨)** _ 부산대학교

도깨비고사 134
조상모시기 594

**김시덕(金時德)** _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상 591
조상단지 592

**김영자(金英子)** _ 람아트바자

부적 223

**김은희(金銀姬)** _ 경기대학교

신수보기 354

**김재호(金在浩)** _ 안동대학교

나락 88
농사고사 98
체 659

**김종대(金宗大)** _ 중앙대학교

그물고사 80
바위치성 190
산동이 243
업 464

**김준(金準)** _ 전남발전연구원

배고사 197
배서낭함 204

**김준기(金俊基)** _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용알뜨기 519

**김지욱(金志昱)** _ 경기문화재단

굴뚝신 63
금기 81
나무고사 91
미륵불 180
방앗간신 196
애기씨 451
업가리 466
천신 650

**김진순(金鎭順)** _ 코리아루트

군웅 61
복대 216
새옹 295
수지 345
칠석고사 678

**김창일(金昌一)** _ 국립민속박물관

삼재 273
삼재부적 274

**김창호(金昌鎬)** _ 국립민속박물관

숯 347
자동차고사 552

**김태수(金泰水)** _ 삼척시립박물관

산멕이 244

**김태우(金泰佑)** _ 국립민속박물관

객귀밥 31
오색천 493
칠성단지 689

**김헌선(金憲宣)** _ 경기대학교

광청아기 52
구슬할망 57
양씨아미 457
호구신 729

**김효경(金孝慶)** _ 한남대학교

마당제 160
보름고사 211
삼재풀이 276
쌈 367
옥녀각시 497
키 696

**나경수(羅景洙)** _ 전남대학교

동토 148
백중고사 205

액막이 451
주당풀이 623

**남근우(南根祐)** _ 동국대학교

곡물 48
볏짚 205
석전 · 기우 · 안택 304

**류종목(柳鍾穆)** _ 동아대학교

동지고사 144
비손 233
철륭 653

**문무병(文武秉)** _ 제주교육박물관

낙인고사 92
신구간 352

**문순덕(文舜德)** _ 제주발전연구원

문전제 175

**민경은(閔庚恩)** _ 남양주역사박물관

옹기가마고사 506

**민병근(閔丙槿)** _ 전기박물관

제석주머니 573

**박관수(朴官洙)** _ 민족사관고등학교

귀신가두기 69

**박대재(朴大在)** _ 고려대학교

조왕중발 616

**박성석(朴性錫)** _ 경상대학교

부루단지 221
삼신밥 268

**박용식(朴容植)** _ 경상대학교

물대 179

**박종익(朴鍾翼)** _ 충남대학교

실타래 362
제웅 580

**박흥주(朴興柱)** _ 굿연구소

걸립신 38

**배도식(裵桃植)** _ 부산시문화재위원

쇠코뚜레 341
짐승뼈 637

**배영동(裵永東)** _ 안동대학교

된장 151
오곡밥 486

**백민영(白旻永)** _ 국립민속박물관

삼신 254
삼신모시기 261
양밥 456

**상기숙(尙基淑)** _ 한서대학교

동국세시기 141

**서종원(徐鍾源)** _ 단국대학교

제웅버리기 583
조기심리 588

**서해숙(徐海淑)** _ 전남대학교

시루떡 349
쌀 365
업맞이 469
장독신 558
좀도리 618
지신 631

**송화섭(宋華燮)** _ 전주대학교

철륭제 657

**시지은(施知恩)** _ 경기대학교

오방지신 489

**신영순(申永順)** _ 국립중앙과학관

솥 336
조군영적지 586
조왕 605
조왕고사 611

**안상경(安相敬)** _ 충북대학교

방위가리기 197
병경 208

**안태현(安泰賢)** _ 옛길박물관

웃줄할매 535
화재막이 735

**안혜경(安惠敬)** _ 지역문화연구소

대주 131
삼잡기 270
입택고사 545
주부 625

**양종승(梁鍾承)** _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무속고 601
조선의귀신 603

**오문선(吳文仙)** _ 서울시청

단잡기 115
대감단지 127

**오선영(吳仙榮)** _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왕신단지 511

**오선화(吳善花)** _ 수원화성박물관

예조 485
정초차례 562

**오세길(吳世吉)** _ 동의과학대학교

영등 473
용왕 522

**유승훈(柳承勳)** _ 부산박물관

대구심리 130
소금 326
염전고사 472

**유철인(庾喆仁)** _ 제주대학교

굴부르기제 65

**윤동환(尹東煥)** _ 고려대학교

중구차례 626

**이건욱(李健昱)** _ 국립민속박물관

똥떡먹이기 154
엄나무 463

**이경엽(李京燁)** _ 목포대학교

배서낭 201
출어고사 668

**이관호(李官浩)** _ 국립민속박물관

기자 83
영등고사 477
터주 707

**이균옥(李均玉)** _ 안동대학교

삼신단지 258
섬떡 307

**이기태(李淇泰)** _ 고려사이버대학교

안택 441
정월떡 561
터밟기 703

**이명진(李明珍)** _ 국립문화재연구소

곳간신 51
마구간고사 158
올벼심리 504

**이복규(李福揆)** _ 서경대학교

조선 598

**이성희(李聖熙)** _ 경희대학교

어부심 460

**이수자(李秀子)** _ 중앙대학교

야광귀 452
제석할망 577

**이영식(李英植)** _ 강릉원주대학교

삼신바가지 265
서낭신 297

**이영진(李榮鎭)** _ 경북과학대학교

개공제 25
지붕신 627

**이옥희(李玉姬)** _ 목포대학교

성줏단지 319

**이유나(李泑娜)** _ 수원화성사업소

삼신짚 269

**이윤선(李允先)** _ 목포대학교

제석오가리 569
한지 723

**이인화(李仁和)** _ 내포민속문화연구소

못자리고사 169
밀떡 186

**이정재(李丁宰)** _ 경희대학교

삼신대 258
손 331

**이창식(李昌植)** _ 세명대학교

삼짇고사 282
터줏가리 716

**이필영(李弼泳)** _ 한남대학교

객귀물리기 29
바꾸보살 190
왕신 509
임신네 544
잔밥먹이기 555
짚신이바지 642

**이한길(李漢吉)** _ 강릉원주대학교

단오고사 112
칠성고사 684
토봉고사 717

**임근혜(任槿惠)** _ 안성맞춤박물관

성주 307

**임승범(林承範)** _ 문화재청

거리제 34
논둑제 97
담배고사 121
동토잡기 149
성주매기 317
위목 535

**임장혁(任章赫)** _ 중앙대학교

정화수 565

**장상교(張庠敎)** _ 국립민속박물관

시루 347

**장장식(張長植)** _ 국립민속박물관

사신대감 239
호서낭 733

**장정룡(張正龍)** _ 강릉원주대학교

산 240

**전지혜(全持慧)** _ 부경대학교

북어 227

**정래진(丁來振)** 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삼신받기 266

**정연학(鄭然鶴)** _ 국립민속박물관

고추 47
문간제 170
춘첩 661

**조선영(曺善映)** _ 국립민속박물관

우마신 530

**조정현(曺鼎鉉)** _ 안동대학교

햇곡식갈기 726

**주영하(周永河)** _ 한국학중앙연구원

메밀묵 167
팥죽 719

**천진기(千鎭基)** _ 국립민속박물관

돼지코 151
소삼신 327
호식장 734

**천혜숙(千惠淑)** _ 안동대학교

아이팔기 438

**최래옥(崔來沃)** _ 한양대학교

고수레 45

**표인주(表仁柱)** _ 전남대학교

신줏단지 359
우물제 531
칠성 680

**한양명(韓陽明)** _ 안동대학교

용왕제 526
탈 698

**허용호(許龍鎬)** _ 전남대학교

도깨비 132

**홍태한(洪泰漢)** _ 중앙대학교

대감 121
대감벙거지 128

**황경숙(黃京淑)** _ 부경대학교

귀신종이 72
귀신종이모시기 75

**황경순(黃慶順)** _ 국립문화재연구소

가을고사 22
고깔 39

산바람막기 249
세존 322
세존단지 323
소삼신모시기 328
측신모시기 675

**황루시(黃縷詩)** _ 관동대학교

산치성 251
상문풀기 294
학질떼기 722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 통합목차

## ㄱ


| | | |
|---|---|---|
| 가망 | 무속 | 22 |
| 가신위목 | 무속 | 22 |
| 가야진용신제 | 마을 | 22 |
| 가을고사 | 가정 | 22 |
| 가지꽃 | 무속 | 23 |
| 각심절본 | 무속 | 24 |
| 감흥시루 | 무속 | 25 |
| 감흥신령 | 무속 | 26 |
| 감흥화 | 무속 | 27 |
| 강 | 마을 | 25 |
| 강대형 | 무속 | 27 |
| 강릉단오제 | 무속 | 28 |
| 강릉안인진해령사 | 마을 | 25 |
| 강릉행깨마을고청제 | 마을 | 28 |
| 강신 | 마을 | 30 |
| 강신무 | 무속 | 31 |
| 강진사문안석조상 | 마을 | 32 |
| 강화교동도부군당제 | 마을 | 34 |
| 강화교동도자신당 | 마을 | 39 |
| 강화도외포리곶창굿 | 무속 | 33 |
| 개 | 마을 | 40 |
| 개공제 | 가정 | 25 |
|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 무속 | 39 |
| 개양할미 | 마을 | 41 |
| 개토제 | 가정 | 27 |
| 객귀 | 무속 | 39 |
| 객귀물리기 | 가정 | 29 |
| 객귀밥 | 가정 | 31 |
| 거령산 | 무속 | 39 |
| 거리밥 | 무속 | 40 |
| 거리밥 | 가정 | 34 |
| 거리제 | 마을 | 43 |
| 거리제 | 가정 | 34 |
| 거무장단 | 무속 | 41 |
| 거무춤 | 무속 | 41 |
| 거상장단 | 무속 | 42 |
| 거상춤 | 무속 | 43 |
| 거창거기리말무덤 | 마을 | 45 |
|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 마을 | 46 |
| 거창당동당산 | 마을 | 47 |
|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 마을 | 49 |
| 건궁 | 가정 | 36 |
| 걸궁 | 마을 | 51 |
| 걸립 | 마을 | 51 |
| 걸립명두 | 무속 | 44 |
| 걸립상 | 무속 | 44 |
| 걸립신 | 무속 | 45 |
| 걸립신 | 가정 | 38 |
| 걸립패 | 마을 | 54 |
| 걸립화 | 무속 | 46 |
| 겉연 | 무속 | 46 |
| 겜심바침 | 무속 | 48 |
| 겹마치 | 무속 | 48 |
| 경관만신 | 무속 | 48 |
| 경기도굿무복 | 무속 | 49 |
| 경기도도당굿 | 무속 | 51 |
| 경산자인단오제 | 마을 | 59 |
| 경순왕 | 마을 | 64 |
| 계룡산산신제 | 마을 | 64 |
| 계면 | 무속 | 60 |
| 계면떡 | 무속 | 62 |
| 고 | 무속 | 63 |
| 고깔 | 가정 | 39 |
| 고동화 | 무속 | 64 |
| 고드개무당 | 무속 | 65 |
| 고리동반 | 무속 | 65 |
| 고리짝 | 무속 | 66 |
| 고사 | 가정 | 40 |
| 고사반 | 무속 | 67 |
| 고삼 | 무속 | 67 |
| 고성석마리석마 | 마을 | 69 |
| 고수레 | 마을 | 70 |
| 고수레 | 가정 | 45 |
| 고창사내리당산 | 마을 | 70 |
| 고창오거리당산 | 마을 | 71 |
| 고창오거리당산제 | 마을 | 74 |
|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 마을 | 77 |
| 고청제 | 마을 | 81 |
| 고추 | 가정 | 47 |
| 고팡신 | 가정 | 48 |
| 고풀이 | 무속 | 67 |
| 고희정 | 무속 | 68 |
| 곡물 | 가정 | 48 |
|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 마을 | 82 |
| 골맥이 | 마을 | 84 |
| 골맥이 | 무속 | 69 |
| 골맥이제 | 마을 | 86 |
| 곳간신 | 가정 | 51 |
| 공민왕 | 마을 | 88 |
| 공수 | 무속 | 70 |
| 공싯상 | 무속 | 72 |
| 공주고마나루웅진단 | 마을 | 91 |
| 공주동해리산신제 | 마을 | 92 |
|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 마을 | 95 |
| 공주무성산산제당 | 마을 | 97 |
| 공주부전대동계문서 | 마을 | 99 |
| 공주상세동산신도 | 마을 | 102 |
|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 마을 | 104 |
| 공주탄천장승제 | 마을 | 106 |
| 공창무 | 무속 | 72 |
| 공하 | 마을 | 110 |
| 곽머리씻김굿 | 무속 | 73 |
| 관성제군 | 무속 | 74 |
| 광대감 | 가정 | 52 |
| 광대춤 | 무속 | 75 |
| 광양당제 | 무속 | 75 |
| 광인굿 | 무속 | 77 |
| 광주엄미리장승제 | 마을 | 111 |
| 광주칠석동당산제 | 마을 | 112 |
| 광청아기 | 가정 | 52 |
| 광청애기본풀이 | 무속 | 79 |
| 괴산문당리성황단 | 마을 | 114 |
| 구덕북 | 무속 | 81 |
| 구례구산리입석 | 마을 | 115 |
| 구리갈매동도당굿 | 무속 | 81 |
| 구삼싱냄 | 무속 | 83 |
| 구솔할망 | 가정 | 57 |
| 구애비 | 무속 | 84 |
| 구일차례 | 가정 | 61 |
| 구파발본 | 무속 | 85 |
| 국무 | 무속 | 86 |
| 국사당 | 마을 | 116 |
| 국사당무신도 | 무속 | 86 |
| 국사당제 | 마을 | 119 |
| 군문기 | 무속 | 89 |
| 군문춤 | 무속 | 90 |
| 군웅 | 무속 | 92 |
| 군웅 | 가정 | 61 |
| 군웅방울 | 무속 | 93 |
| 군웅본풀이 | 무속 | 93 |
| 군웅상 | 무속 | 96 |
| 군웅춤 | 무속 | 97 |
| 굴대장군 | 가정 | 63 |
| 굴뚝신 | 가정 | 63 |
| 굴레고사 | 가정 | 65 |
| 굴부르기제 | 가정 | 65 |
| 굿 | 무속 | 97 |
| 굿거리장단 | 무속 | 103 |
| 궁상이무가 | 무속 | 103 |
| 권전 | 마을 | 122 |
| 궤눼깃당본풀이 | 무속 | 106 |
| 귀신가두기 | 가정 | 69 |
| 귀신종이 | 가정 | 72 |
| 귀신종이모시기 | 가정 | 75 |
| 귀표고사 | 가정 | 79 |
| 그물고사 | 가정 | 80 |
| 그물코사 | 마을 | 123 |
| 극락문 | 무속 | 109 |
| 금기 | 마을 | 123 |
| 금기 | 가정 | 81 |
| 금산농바우끄시기 | 마을 | 125 |
|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 마을 | 130 |
| 금산천내리용호석 | 마을 | 131 |
| 금산청징연기우제당 | 마을 | 133 |
| 금성당 | 무속 | 109 |
| 금성대왕 | 무속 | 112 |
| 금이신장 | 무속 | 113 |
| 금줄 | 마을 | 135 |
| 금토 | 마을 | 137 |
| 기고사 | 마을 | 137 |
| 기대잽이 | 무속 | 113 |
| 기메 | 무속 | 115 |
| 기밀 | 무속 | 116 |
| 기우제 | 마을 | 138 |
| 기우제등록 | 마을 | 143 |
| 기자 | 가정 | 83 |
| 길대장굿 | 무속 | 116 |
| 길베 | 무속 | 117 |
| 길지 | 마을 | 145 |
| 김광수 | 무속 | 119 |
| 김금화 | 무속 | 119 |
| 김남순 | 무속 | 121 |
| 김대례 | 무속 | 122 |
| 김병옥 | 무속 | 123 |
| 김부대왕 | 마을 | 149 |
| 김석출 | 무속 | 123 |
| 김영희 | 무속 | 125 |
| 김옥렴 | 무속 | 126 |
| 김용택 | 무속 | 126 |
| 김유감 | 무속 | 128 |
| 김유선 | 무속 | 129 |
| 김유신 | 무속 | 130 |
| 김윤수 | 무속 | 131 |
| 김장길 | 무속 | 132 |
| 김제월촌입석 | 마을 | 150 |
| 김찬섭 | 무속 | 133 |
| 김춘강 | 무속 | 134 |
| 꼭두청 | 무속 | 136 |
| 꽃맞이굿 | 무속 | 136 |
| 꽃반세우기 | 무속 | 137 |


## ㄴ


| | | |
|---|---|---|
| 나락 | 가정 | 88 |
| 나무고사 | 가정 | 91 |
| 나이떡 | 가정 | 91 |
| 나주용진당제 | 마을 | 156 |
| 낙인고사 | 가정 | 92 |
| 낙화유수 | 무속 | 142 |
| 날받이씻김굿 | 무속 | 142 |
|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 마을 | 158 |
|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 마을 | 160 |
| 남원삼동굿 | 마을 | 162 |
| 남원서천리당산 | 마을 | 166 |
| 남이 장군 | 무속 | 144 |
| 남이장군사당제 | 무속 | 145 |
| 남해가천암수바위 | 마을 | 167 |
| 남해물건리동제 | 마을 | 168 |
| 남해안세습무무복 | 무속 | 156 |
| 남해안별신굿 | 무속 | 149 |
| 남해안오구굿 | 무속 | 157 |
| 내림굿 | 무속 | 159 |
| 내림춤 | 무속 | 162 |
| 너울 | 무속 | 162 |
| 넋(무구) | 무속 | 163 |
| 넋(용어) | 무속 | 165 |
| 넋노래채 | 무속 | 165 |
| 넋당석 | 무속 | 166 |
| 넋들임 | 가정 | 94 |
| 넋춤 | 무속 | 166 |
| 넋칼 | 무속 | 168 |
| 노고할미 | 마을 | 172 |
| 노구솥 | 가정 | 97 |
| 노누메기 | 무속 | 168 |
| 노들본 | 무속 | 169 |
| 노무편 | 무속 | 170 |
| 노신제 | 마을 | 172 |
| 녹음이시루 | 무속 | 171 |
| 논고사 | 가정 | 97 |
| 논공천왕당 | 마을 | 172 |
| 논둑제 | 가정 | 97 |
| 논산반곡리산신제 | 마을 | 173 |
| 논산부인당산제 | 마을 | 178 |
| 논산양암동계문서 | 마을 | 182 |
| 논산주곡리장승제 | 마을 | 182 |

논산후동동계문서 마을 185
놋동이 무속 171
농기 마을 186
농사고사 가정 98
농신제 가정 101
농포신 마을 190
농포제 마을 190
눈설화 무속 172
눌굽지신 가정 107
느진연물 무속 173


## ㄷ


다리굿 무속 176
다리화 무속 177
다자구할머니 마을 194
단골 무속 178
단군 무속 179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마을 195
단오고사 가정 112
단오맞이굿 무속 181
단잡기 가정 115
단잡이굿 무속 181
단종 무속 183
단풍맞이굿 무속 185
닭 마을 200
담배고사 가정 121
당기 마을 201
당떡 무속 187
당맨심방 무속 188
당산 마을 203
당산나무 마을 203
당산맞이굿상 무속 189
당산옷입히기 마을 205
당산제 마을 209
당신화 마을 212
당진안섬당제 무속 189
당클 무속 192
대감 무속 193
대감 가정 121
대감굿무가 무속 194
대감단지 가정 127
대감벙거지 가정 128
대감시루 무속 194
대관령성황사 및 산신당 무속 196
대구심리 가정 130
대너리 무속 196
대너리춤 무속 197
대덕법동리석장승 마을 214
대동회 마을 215
대령상 무속 197
대명왕사자기 무속 198
대모 무속 198
대사산이 무속 199
대상 무속 199
대수대명 무속 201
대신발 무속 201
대신방울 무속 202
대신상 무속 202
대신칼 무속 203
대안주상 무속 204
대전계족산기우제 마을 217
대전무수동국사봉 마을 219
대전무수동동계문서 마을 220
대전무수동산신제 마을 222
대전외삼동산신제 마을 224
대전의앉은굿 무속 205
대주 가정 131
대철망 무속 207
덤불국화 무속 208
덤장고사 가정 132
도가 마을 226
도깨비 가정 132
도깨비고사 가정 134
도깨비굿 무속 209
도깨비제 마을 227
도당 무속 210
도당상 무속 211
도당신 마을 229
도랑성비 청정각씨 노래 무속 212
도래둘러맴 무속 214
도령돌기 무속 216
도령춤 무속 216
도부 무속 217
도살풀이 무속 218
도살풀이춤 무속 218
도신 가정 138
도채비방쉬 무속 219
도포 무속 219
도황수 무속 221
독경 무속 221
독집 무속 223
돈전개 무속 223
돈전풀이 무속 223
돈지할망 마을 232
돈짓당신 마을 233
돌탑 마을 233
돌하르방 마을 236
돗제 가정 138
동국세시기 가정 141
동다리 무속 227
동답 마을 237
동맹 마을 237
동사 마을 238
동살풀이 무속 228
동이춤 무속 228
동이풀이굿 무속 229
동자대 무속 231
동자상 무속 232
동제계 마을 239
동제홀기 마을 240
동지고사 가정 144
동토 가정 148
동토잡기 가정 149
동티 마을 242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마을 242
동해동호동천제단 마을 244
동해동호동천제단제 마을 247
동해봉정마을고청제 마을 250
동해신흥동도서낭제 마을 252
동해안 세습무 무복 무속 238
동해안별신굿 무속 233
동해안오구굿 무속 239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마을 255
동화대 마을 257
돼지 마을 259
돼지코 가정 151
된장 가정 151
두두리 무속 243
두린굿 무속 243
둑제당 마을 260
뒤주대왕 마을 266
뒷전무당 무속 245
뒷전상 무속 246
드렁갱이 무속 247
디딜방아 마을 261
디딜방아뱅이 마을 264
떡 마을 266
떰쿵장단 무속 248
떵떵이장단 무속 248
똥떡먹이기 가정 154
뜬귀물리기 가정 155
띠배 마을 269
띠배 무속 249


## ㅁ


마고할미 마을 274
마구간고사 가정 158
마당밟이 마을 274
마당신 가정 159
마당제 가정 160
마대장군 가정 163
마련방 마을 274
마마배송굿 무속 254
마마신 무속 255
마불림제 무속 255
마을돌기 마을 275
마제 마을 276
마중시루 마을 278
마중시루 가정 163
막꽃 무속 256
막음쟁이 무속 257
만구대택굿 무속 258
만당제물 무속 260
만성수부채 무속 261
만세바지장단 무속 262
만수대탁굿 무속 263
만신 무속 263
말명 무속 263
말미상 무속 264
말축굿 마을 279
망묵이굿 무속 265
망자상 무속 267
망자혼사굿 무속 268
망제 마을 279
망지 마을 281
맞고사 가정 167
매당왕신 마을 282
매화 무속 270
맴돌이장단 무속 270
맹감본풀이 무속 271
맹인신장 무속 273
메 마을 284
메밀 마을 285
메밀묵 가정 167
멩감제 무속 274
멩감제 가정 168
명다리 무속 276
명도 무속 277
명두굿무가 무속 277
모름채 무속 279
모밥내가기 가정 168
모탕고사 가정 169
모포줄 마을 285
목단꽃 무속 280
목제남근 마을 288
목축신 마을 289
몸기 무속 280
몸주대감 무속 281
몸주신 무속 282
못자리고사 가정 169
몽달귀신 무속 283
몽두리 무속 283
무감 무속 286
무경 무속 287
무고 무속 288
무당 무속 289
무당내력 무속 292
무세 무속 294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마을 289
무조신 무속 295
무주고혼 마을 291
무주내창마을산제 마을 293
무천 마을 296
무후제 마을 296
묵은진오기굿 무속 297
문간제 가정 170
문경성저리동제 마을 296
문경소야리동제 마을 299
문굿무가 무속 299
문신 가정 171
문전본풀이 무속 299
문전제 무속 302
문전제 가정 175
문전철갈이 무속 304
문전철갈이 가정 178
물대 가정 179
물부리굿 무속 306
미닫이 무속 306
미륵당 마을 301
미륵바위 가정 180
미륵불 가정 180
미역 가정 182
미친경 무속 307
밀떡 가정 186


## ㅂ


바꾸보살 가정 190

바라지 무속 312
바라춤 무속 312
바리공주 무속 313
바위치성 가정 190
박경자 무속 315
박꽃 무속 316
박병원 무속 317
박병천 무속 318
박수 무속 319
박용녀 무속 319
반기 마을 306
반야용선 무속 320
발뻐드레 무속 322
밟이춤 무속 322
밤섬부군당도당굿 무속 322
밥무덤 마을 308
밧칠성 가정 192
방망이떡 무속 327
방석화랭이 무속 328
방앗간신 가정 196
방울떡 무속 329
방위가리기 가정 197
밭고사 가정 197
배고사 가정 197
배서낭 가정 201
배서낭함 가정 204
배성주 가정 205
백련화 무속 330
백마장군 무속 331
백중고사 가정 205
백지 마을 313
백학 무속 332
뱃기 마을 313
뱅이 마을 315
벅구춤 무속 332
벅수 마을 315
벅수제 마을 315
범일국사 무속 333
법사 무속 334
법수선원 산신도 무속 335
벗고사 가정 205
벙거지떡 무속 336
베포도업춤 무속 337
별기은 무속 338
별상춤 무속 338
볏가리제 마을 318
볏가릿대 마을 315
볏짚 가정 205
병경 가정 208
병굿 무속 339
보령외연도당제 마을 321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마을 324
보름고사 가정 211
보성당촌별신당 마을 326
보성당촌별신당제 마을 328
복대 가정 216
복물뜨기 가정 217
복숭아나무 가정 217
복제 가정 221
본향 무속 341
본향당굿 무속 342
본향상 무속 342
본향춤 무속 343
봉등채 무속 343
봉죽 무속 344
봉죽기 마을 332
봉지밥 마을 332
봉화산도당굿 무속 345
부군 무속 350
부군당 마을 332
부군당제 마을 336
부락제 마을 340
부루단지 가정 221
부산강선대당산 마을 342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마을 346
부산대리당산 마을 348
부산두호마을당제 마을 351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마을 353
부산수영할매당 마을 354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마을 357
부산청사포당산 마을 360
부안돌모산당산제 마을 363
부안동문안당산 마을 366
부안서문안당산 마을 369
부안죽림리석장승 마을 372
부여괴목마을노신제 마을 375
부여내지리단잡기 마을 377
부여포사마을산신제 마을 380
부적 가정 223
부정 마을 383
부정 무속 352
부정상 무속 352
부정풀이 무속 353
부천깊은구지도당제 마을 386
북어 가정 227
불도맞이 무속 354
불막이 가정 230
불막이제 마을 388
불밝이쌀 마을 390
불밝히기 가정 230
불백기 마을 393
불보살번 무속 357
불사맞이굿 무속 359
불사상 무속 360
불사할머니 무속 361
비래쟁이 무속 362
비보 마을 393
비손 가정 233
빈순애 무속 363
빙의 무속 365
뼈매달기 마을 395


## ㅅ


사귀대 무속 370
사냥타령 무속 371
사도세자 마을 400
사슬세우기 무속 371
사슬타령 무속 372
사신 무속 373
사신 가정 238
사신대감 가정 239
사신반혼굿 무속 374
사신성황당현판 무속 375
사자맥이 무속 377
사자상 무속 379
사천가산리석장승 마을 401
산 가정 240
산동이 가정 243
산막 마을 403
산메기 무속 380
산멕이 가정 244
산바라기상 무속 382
산바람막기 가정 249
산소탈막기 가정 250
산신 마을 403
산신 무속 382
산신당 마을 405
산신멩감 무속 385
산신멩감 가정 250
산신제 마을 408
산씻김굿 무속 386
산오구굿 무속 387
산치성 가정 251
산함박 무속 389
살 무속 390
살고사 가정 252
살맥이 무속 391
살장 무속 393
살잽이꽃 무속 394
살전지 무속 395
살풀이 무속 395
삼공맞이가면 무속 397
삼공본풀이 무속 397
삼공잽이 무속 400
삼국지위서동이전 마을 410
삼두구미본풀이 무속 401
삼멩두 무속 402
삼사자 무속 403
삼산돌기 무속 405
삼성혈 마을 411
삼성혈제 마을 415
삼승할망본풀이 무속 406
삼신 무속 408
삼신 가정 254
삼신단지 가정 257
삼신대 가정 258
삼신모시기 가정 261
삼신바가지 가정 265
삼신받기 가정 266
삼신밥 가정 268
삼신짚 가정 269
삼오장 무속 412
삼잡기 가정 270
삼장개비 무속 414
삼재 가정 273
삼재맞이 무속 414
삼재부적 가정 274
삼재풀이 가정 276
삼지창 무속 418
삼짇고사 가정 282
삼척신남마을해신제 마을 420
삼척한두골용소 마을 427
삼척호산리서낭제 마을 429
삼칠일 가정 284
삼태자풀이 무속 419
삼토신령 무속 421
삼현춤 무속 421
상달고사 가정 287
상량문 가정 287
상량제 가정 292
상문 무속 422
상문풀기 가정 294
상산춤 무속 423
상식상 무속 423
상주천봉산성황제 마을 433
새남굿 무속 425
새미하로산당 무속 440
새발심지 무속 441
새알뜨기 가정 295
새옹 가정 295
새ᄃᆞ림춤 무속 439
샘제 마을 435
샛별굿화 무속 442
생기복덕 마을 438
생떡국 마을 440
생불할망본풀이 무속 443
서낭 무속 443
서낭기 무속 445
서낭당 마을 440
서낭신 마을 445
서낭신 가정 297
서낭제 마을 446
서낭제 가정 300
서빙고동부군당 무속 446
서산옥녀제 마을 451
서산차리산제 마을 454
서산창리영신제 마을 456
서울가양동성황제 마을 459
서울굿무복 무속 448
서울당인동부군당제 마을 461
서울도곡동도당제 마을 463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마을 464
서울부암동산신제 마을 467
서울새남굿 무속 451
서울서빙고동부군당 마을 469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마을 470
서울신기리도당제 마을 473
서울신수동복개당화분 마을 474
서천마량리당제 마을 47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무속 454
석전 · 기우 · 안택 마을 481
석전 · 기우 · 안택 가정 304
석척기우 마을 484
선돌 마을 485
선무당 무속 460
선문대할망 마을 486
선부리장단 무속 461
선왕 가정 307
선왕상 무속 462
선왕제 가정 307
설경 무속 463
설문대할망 마을 486
설쇠 무속 464

| | | |
|---|---|---|
| 설위설경 | 무속 | 465 |
| 섬떡 | 가정 | 307 |
| 성수 | 무속 | 466 |
| 성수청 | 무속 | 467 |
| 성인굿 | 무속 | 468 |
| 성제묘 | 마을 | 487 |
| 성제묘관우제사 | 마을 | 489 |
| 성주 | 가정 | 307 |
| 성주고사 | 가정 | 313 |
| 성주굿 | 무속 | 470 |
| 성주매기 | 가정 | 317 |
| 성주상 | 무속 | 473 |
| 성주풀이 | 무속 | 473 |
| 성줏단지 | 가정 | 319 |
| 성줏대 | 가정 | 320 |
| 성황제 | 마을 | 491 |
| 세경본풀이 | 무속 | 475 |
| 세령무 | 무속 | 479 |
| 세민황제본풀이 | 무속 | 480 |
| 세습무 | 무속 | 481 |
| 세이레 | 가정 | 322 |
| 세존 | 가정 | 322 |
| 세존단지 | 가정 | 323 |
| 셍굿무가 | 무속 | 482 |
| 소 | 마을 | 493 |
| 소가면 | 무속 | 484 |
| 소금 | 가정 | 326 |
| 소금단지 | 마을 | 495 |
| 소도 | 마을 | 497 |
| 소미 | 무속 | 485 |
| 소삼신 | 가정 | 327 |
| 소삼신모시기 | 가정 | 328 |
| 소설경 | 무속 | 486 |
| 소슬굿 | 무속 | 486 |
| 소지 | 마을 | 498 |
| 속연 | 무속 | 490 |
| 손 | 가정 | 331 |
| 손각시 | 무속 | 491 |
| 손님굿 | 무속 | 492 |
| 손님굿무가 | 무속 | 495 |
| 손돌제 | 마을 | 501 |
| 손전 | 무속 | 497 |
| 솔가지 | 가정 | 333 |
| 솟대 | 마을 | 505 |
| 솟대제 | 마을 | 508 |
| 송경 | 가정 | 336 |
| 송당리마을제 | 무속 | 497 |
| 송당본향당 | 무속 | 499 |
| 송동숙 | 무속 | 500 |
| 송선자 | 무속 | 502 |
| 송송개 | 무속 | 503 |
| 송징장군 | 마을 | 511 |
| 송천달집태우기 | 마을 | 513 |
| 솥 | 가정 | 336 |
| 쇠걸립 | 무속 | 503 |
| 쇠말 | 마을 | 517 |
| 쇠코뚜레 | 가정 | 341 |
| 쇠풍장 | 무속 | 504 |
| 수구맥이 | 마을 | 517 |
| 수부채 | 무속 | 505 |
| 수비 | 무속 | 506 |
| 수비장단 | 무속 | 506 |
| 수산본향당 | 무속 | 507 |
| 수성당 | 무속 | 508 |
| 수세 | 가정 | 345 |
| 수양부모삼기 | 가정 | 345 |
| 수원영동거북산당 | 마을 | 520 |
| 수지 | 가정 | 345 |
| 수팔련 | 무속 | 510 |
| 숙영랑앵연랑신가 | 무속 | 513 |
| 순창산동리남근석 | 마을 | 523 |
|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 마을 | 524 |
| 순창성황제 | 마을 | 528 |
| 순창창덕리남근석 | 마을 | 530 |
| 순천구산용수제 | 마을 | 531 |
| 순천삼설양굿 | 무속 | 513 |
| 숯 | 가정 | 347 |
| 쉰대부채 | 무속 | 516 |
| 스승청 | 무속 | 517 |
| 시나위 | 무속 | 518 |
| 시루 | 가정 | 347 |
| 시루떡 | 가정 | 349 |
| 시루말 | 무속 | 518 |
| 시매 | 가정 | 351 |
| 시무굿무가 | 무속 | 520 |
| 시왕기 | 무속 | 524 |
| 시왕도 | 무속 | 524 |
| 시왕맞이 | 무속 | 525 |
| 신과세제 | 무속 | 527 |
| 신광주리춤 | 무속 | 529 |
| 신구간 | 가정 | 352 |
| 신내림 | 무속 | 530 |
| 신대 | 마을 | 532 |
| 신딸 | 무속 | 530 |
| 신만곡대제 | 무속 | 531 |
| 신방 | 무속 | 545 |
| 신벌 | 마을 | 537 |
| 신법 | 무속 | 532 |
| 신병 | 무속 | 533 |
| 신부리 | 무속 | 533 |
| 신석남 | 무속 | 537 |
| 신석봉 | 무속 | 538 |
| 신수보기 | 가정 | 354 |
| 신위 | 마을 | 537 |
| 신위행 | 무속 | 538 |
| 신장대 | 무속 | 539 |
| 신장위목 | 무속 | 540 |
| 신줏단지 | 가정 | 359 |
| 신청궤춤 | 무속 | 540 |
| 신청울림 | 무속 | 541 |
| 신충애기 | 가정 | 362 |
| 신칼 | 무속 | 542 |
| 신태집 | 무속 | 543 |
| 실타래 | 가정 | 362 |
| 심방백중제 | 무속 | 545 |
| 심방청 | 무속 | 546 |
| 심청굿무가 | 무속 | 547 |
| 십대왕 | 무속 | 550 |
| 싹불이가면 | 무속 | 551 |
| 쌀 | 가정 | 365 |
| 쌈 | 가정 | 367 |
| 쑹거장단 | 무속 | 552 |
| 쑹거타령 | 무속 | 553 |






ㅇ


| | | |
|---|---|---|
| 아이팔기 | 가정 | 438 |
| 아흔아홉상쇠방울 | 무속 | 622 |
| 악공청 | 무속 | 622 |
| 안당사경맞이상 | 무속 | 623 |
| 안당제석상 | 무속 | 624 |
| 안동가송리동제 | 마을 | 592 |
| 안동서지리성황당 | 마을 | 596 |
| 안동하회동동제 | 마을 | 597 |
| 안사인 | 무속 | 625 |
| 안산잿머리성황당 | 무속 | 626 |
|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 마을 | 600 |
| 안칠성 | 가정 | 440 |
| 안택 | 가정 | 441 |
| 안택굿 | 무속 | 627 |
| 애기씨 | 가정 | 451 |
| 애기씨·동자꽃 | 무속 | 630 |
| 액 | 마을 | 603 |
| 액막이 | 가정 | 451 |
| 액막이굿 | 무속 | 630 |
| 액막이상 | 무속 | 633 |
| 액매기 | 마을 | 605 |
| 야광귀 | 가정 | 452 |
| 약사불사 | 무속 | 635 |
| 양반 | 가정 | 456 |
| 양산지산리부부상 | 무속 | 635 |
| 양씨아미 | 가정 | 457 |
| 양양동해신묘지 | 마을 | 608 |
| 양양임천리서낭제 | 마을 | 610 |
| 양양죽정자리서낭제 | 마을 | 611 |
| 양주소놀이굿 | 무속 | 636 |
| 어부심 | 가정 | 460 |
| 언월도 | 무속 | 638 |
| 얼새남 | 무속 | 640 |
| 엄나무 | 가정 | 463 |
| 업 | 가정 | 464 |
| 업가리 | 가정 | 466 |
| 업맞이 | 가정 | 469 |
| 여귀 | 마을 | 615 |
| 여수영당지 | 마을 | 616 |
| 여수화산마을당제 | 마을 | 618 |
| 여제 | 마을 | 621 |
| 여제등록 | 마을 | 623 |
| 여탐굿 | 무속 | 640 |
| 역가상 | 무속 | 640 |
|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 마을 | 624 |
| 연기학봉마을기고사 | 마을 | 627 |
| 연양탁상 | 무속 | 641 |
| 연지당상 | 무속 | 642 |
| 연풍대 | 무속 | 642 |
| 염불 | 무속 | 642 |
| 염전고사 | 가정 | 472 |
| 영감가면 | 무속 | 644 |
| 영감놀이 | 무속 | 645 |
| 영감춤 | 무속 | 647 |
| 영게상 | 무속 | 649 |
| 영고 | 마을 | 629 |
| 영광도동리석장승 | 마을 | 631 |
| 영광법성포단오제 | 마을 | 632 |
| 영광안마도당제 | 마을 | 635 |
| 영광우평마을당산제 | 마을 | 638 |
| 영돈 | 무속 | 649 |
|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 마을 | 642 |
| 영등 | 가정 | 473 |
| 영등고사 | 가정 | 477 |
| 영등굿 | 무속 | 650 |
| 영등까꾸리 | 가정 | 484 |
| 영산대감춤 | 무속 | 653 |
| 영암남해당지 | 마을 | 644 |
| 영암정동정호제 | 마을 | 645 |
| 영월영모전 | 마을 | 647 |
| 영장치기 | 무속 | 654 |
| 영주읍내리성황제 | 마을 | 649 |
|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 마을 | 656 |
| 영집 | 무속 | 656 |
| 영천자천리오리장림 | 마을 | 660 |
| 영해별신굿놀이 | 무속 | 657 |
| 영험담 | 마을 | 661 |
| 예산대흥소도독사 | 마을 | 663 |
| 예산운산2리산신제 | 마을 | 665 |
| 예조 | 가정 | 485 |
| 예천작평마을서낭제 | 마을 | 669 |
| 오곡밥 | 가정 | 486 |
| 오방돌리기 | 마을 | 670 |
| 오방신장 | 무속 | 659 |
| 오방신장기 | 무속 | 660 |
| 오방제 | 마을 | 671 |
| 오방지신 | 가정 | 489 |
| 오색천 | 마을 | 673 |
| 오색천 | 가정 | 493 |
| 오수복 | 무속 | 661 |
| 오온신제 | 마을 | 673 |
| 오쟁이 | 마을 | 675 |
| 옥녀각시 | 가정 | 497 |
| 옥녀살 | 가정 | 500 |
| 옥수그릇 | 무속 | 662 |
| 옥천청마리제신탑 | 마을 | 676 |
| 옥황상제 | 무속 | 663 |
| 올개심니 | 가정 | 500 |
| 올레대위 | 가정 | 500 |
| 올레신 | 가정 | 500 |
| 올림채 | 무속 | 664 |
| 올림채춤 | 무속 | 665 |
| 올벼심리 | 가정 | 504 |
| 옹기가마고사 | 가정 | 506 |
| 와룡묘 | 무속 | 665 |
| 와룡선생 | 무속 | 667 |
| 와흘본향당 | 무속 | 667 |
| 완도어두마을갯제 | 마을 | 677 |
| 완도예송리당산 | 마을 | 680 |
| 완도장좌리당제 | 마을 | 681 |
|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 무속 | 668 |
| 완주고당리고당 | 마을 | 686 |
| 왕신 | 가정 | 509 |
| 왕신단지 | 가정 | 511 |
| 왕십리본 | 무속 | 675 |
| 왕십리아기씨당 | 무속 | 676 |
| 요왕차사상 | 무속 | 678 |
| 용기 | 마을 | 688 |
| 용단지 | 가정 | 513 |
| 용단지모시기 | 가정 | 516 |

용수동당산 마을 688
용신 무속 679
용신제 마을 689
용알뜨기 가정 519
용왕 가정 522
용왕기 무속 681
용왕밥 무속 681
용왕상 무속 683
용왕제 마을 689
용왕제 가정 526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마을 691
우마신 가정 530
우물제 마을 693
우물제 가정 531
우불산신사 마을 693
우실 마을 696
울릉해신제 마을 697
울쇠 무속 685
울주방기리알바위 마을 701
울진12령새재성황사 마을 703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마을 707
웃줄할매 가정 534
원귀 마을 712
원미상 무속 686
원삼 무속 687
원주강원감영제 마을 712
원주강원감영지 마을 713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마을 715
원천강본풀이 무속 688
월악산신제 마을 716
월평다라쿳당 무속 689
위도대리마을원당 무속 691
위도띠뱃놀이 무속 692
위목 가정 535
위토 마을 718
위패 마을 718
유가돌기 마을 718
유두고사 가정 537
유천동산신제 마을 718
은산별신제 무속 698
음복 마을 722
음성마송리석장승 마을 723
의무 무속 703
의술가면 무속 704
의원가면 무속 704
이공본풀이 무속 705
이명옥 무속 707
이사제 마을 724
이상순 무속 708
이선비 무속 708
이어인년 무속 710
이월할매 가정 540
이정연 무속 711
이종순 무속 712
이중춘 무속 713
이천정개산산신제 마을 724
인구전 마을 727
인물개 무속 714
인삼고사 가정 540
인업 가정 541
인왕산국사당 무속 716
일뤠또본풀이 무속 717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마을 727
일산동당제 마을 729
일산동당제 무속 719
일월개 무속 721
일월노리푸념 무속 723
임경업장군 무속 725
임신네 가정 544
임실구암리도깨비제 마을 732
임실사곡리남근석 마을 733
입석 마을 734
입춘굿 무속 726
입택고사 가정 545
입향시조 마을 734


## ㅈ


자동차고사 가정 552
자삼 무속 736
자진한잎 무속 736
작두 무속 737
작두장군 무속 738
작두춤 무속 739
잔밥먹이기 가정 555
잡귀 마을 738
잡귀잡신 무속 740
장구떡 무속 742
장군개 무속 743
장군상 무속 743
장독신 가정 558
장동산디마을탑제 마을 740
장말도당굿 무속 744
장발 무속 748
장보배 무속 749
장산마고당 · 천제당 마을 743
장삼 무속 750
장성생촌마을당산제 마을 746
장성영천리방울샘 마을 749
장세일 무속 752
장승 마을 750
장승제 마을 756
장자풀이 무속 753
장흥방촌리석장승 마을 761
장흥호계리동계문서 마을 764
장흥호계리별신제 마을 767
재가집 무속 755
재수굿 무속 756
재인청 무속 762
저승본풀이 무속 763
저승사자 무속 766
전금순 무속 766
전복 무속 767
전북의 앉은굿 무속 770
전북–충남무속음악 무속 771
전안상 무속 773
전횡장군 마을 770
절미 가정 561
점사 무속 773
정모연 무속 773
정숙자 무속 774
정영만 무속 775
정월고사 가정 561
정월떡 가정 561
정읍백암리남근석 마을 772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마을 773
정읍원정마을당산제 마을 776
정정괴 무속 776
정정애 무속 776
정주 무속 777
정초차례 가정 562
정학봉 무속 779
정화 마을 778
정화수 가정 565
제관 마을 781
제금 무속 780
제마수 무속 782
제미하기 가정 567
제석 가정 567
제석노래채 무속 782
제석본풀이 무속 782
제석상 무속 785
제석오가리 가정 569
제석주머니 가정 573
제석춤 무속 786
제석할망 가정 577
제석할망고사 가정 579
제수물목기 마을 781
제웅 마을 784
제웅 가정 580
제웅버리기 가정 583
제주(祭主) 마을 786
제주(祭酒) 마을 786
제주골왓마을방사탑 마을 788
제주굿무복 무속 787
제주납읍리마을제 마을 790
제주납읍리포제단 마을 792
제주도내왓당무신도 무속 789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마을 793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마을 794
제주무릉리방사탑 마을 797
제주복신미륵 마을 800
제주상귀리당제 마을 801
제주성읍리포제 마을 802
제주쇠당의례 마을 804
제주신촌리포제 마을 805
제주신흥리방사탑 마을 808
제주신흥리포제 마을 810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마을 812
제주온평리포제 마을 814
제주용수마을방사탑 마을 816
제주인성리거욱대 마을 817
제주제석제 마을 820
제주제충제 마을 821
제주최영장군사당 마을 822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마을 823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무속 792
제주큰굿 무속 799
제주풍해방지의례 마을 826
제주해신사 마을 828
제주해신제 마을 828
제주행원리포제 마을 832
제주회천동석불제 마을 834
제천면산산신제 마을 835
제천오티별신제 마을 839
제천입석리선돌 마을 844
조군영적지 가정 586
조금례 무속 803
조기심리 가정 588
조너리 무속 804
조라 마을 845
조라술 무속 804
조상 무속 805
조상 가정 591
조상단지 가정 592
조상대 무속 806
조상모시기 가정 594
조상상 무속 807
조상종이 가정 598
조상화 무속 808
조선 가정 598
조선무격의신가 무속 808
조선무속고 무속 809
조선무속고 가정 601
조선무속의연구 무속 810
조선신가유편 무속 811
조선의귀신 가정 603
조선의무격 무속 812
조순자 무속 814
조왕 가정 605
조왕고사 가정 611
조왕중발 가정 616
좀도리 가정 618
종이성주 가정 619
주당풀이 가정 623
주부 마을 845
주부 가정 625
주저리 마을 846
죽령산신 마을 848
죽령산신당 마을 848
죽령산신제 마을 849
죽령산신제문서 마을 851
죽산이 가정 626
중구차례 가정 626
중디밧산 무속 814
증평남차리수살제 마을 852
지리산남악사 마을 855
지리천문신장 무속 814
지벌 마을 856
지붕신 가정 627
지신 가정 631
지신밟기 마을 859
지신밟기 가정 634
지신제 가정 634
지앙 가정 637
지앙밥 무속 815
지장본풀이 무속 815
지전 무속 817
지전춤 무속 820
지하장군 무속 820
진가장무가 무속 821
진도채씨무계 무속 829
진도수역마을충제 마을 863
진도씻김굿 무속 823

진도해창마을당제 마을 865
진쇠 무속 831
진쇠춤 무속 832
진오기굿 무속 832
진적굿 무속 834
진주명석자웅석 마을 867
진진오기굿 무속 839
짐대 마을 869
짐대제 마을 869
짐승뼈 가정 637
집들이고사 가정 642
짚말 마을 869
짚신이바지 가정 642
짚장군 마을 871
짚주저리 가정 643
쪼시개 무속 839


## ㅊ


차사본풀이 무속 844
찰밥 가정 650
참봉고사 가정 650
참신 마을 876
창귀 마을 876
창부씨 무속 844
창호지 마을 877
채계만 무속 846
천군 마을 878
천궁맞이상 무속 847
천근소리 무속 847
천금새남굿 무속 849
천상제 마을 878
천신 가정 650
천왕대 무속 849
천왕메기 마을 879
천왕메기굿 무속 851
천존위목팔부신대 무속 852
천지왕본풀이 무속 853
철륭 가정 653
철륭제 가정 657
철릭 무속 854
철마 마을 881
철망 무속 857
철물이굿 무속 858
철쭉대 무속 861
첨사통 무속 861
청계상 무속 862
청너울 무속 862
청단일 마을 882
청도비동당제 마을 883
청룡도 무속 863
청송무당 무속 864
청양정산동화제 마을 885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마을 891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마을 893
청주선도산장승제 마을 895
체 가정 659
초공본풀이 무속 865
초롱등 무속 868
최갑선 무속 868
최영장군 무속 870
최음전 무속 871
최형근 무속 872
추라 무속 873
축문 마을 898
춘첩 가정 661
출어고사 가정 668
충렬굿무가 무속 874
충제 마을 899
충주목계별신제 마을 901
충청도독경무복 무속 875
취타 무속 876
측신 가정 672
측신굿 무속 877
측신모시기 가정 675
치성비요 마을 905
칠석고사 가정 678
칠성 가정 680
칠성검 무속 879
칠성고사 가정 684
칠성단지 가정 689
칠성방울 무속 880
칠성본풀이 무속 880
칠성새남 무속 882
칠성신 무속 883
칠성풀이 무속 885
칠쇠방울 무속 886
침호두 마을 908


## ㅋ


칼판고사 마을 912
쾌자 무속 890
큰굿상 무속 892
큰대 무속 893
큰머리춤 무속 893
키 마을 912
키 가정 696


## ㅌ


타살칼 무속 896
타승굿무가 무속 896
탁상굿 무속 897
탈 가정 698
탑등 무속 897
탑제 마을 916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마을 918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마을 921
태백산천제 마을 925
태백산천제단 마을 932
태백신사 무속 899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마을 938
태백황연동유령제 마을 941
태안설위설경 무속 900
태주 무속 902
태주무당 무속 903
택일 가정 699
터밟기 가정 703
터벌림 무속 904
터벌림춤 무속 905
터주 가정 707
터주고사 가정 711
터줏가리 마을 943
터줏가리 가정 716
텃대감상 무속 904
테우리신 마을 943
토봉고사 가정 717
토산여드렛당본풀이 무속 906
토신제 가정 718
통기 무속 906
통북어 마을 945
통시각시 가정 718
통영문화동벅수 마을 945
통영삼덕리마을제당 마을 946
통영최영장군사당 마을 950
퇴송 마을 950


## ㅍ


판수 무속 910
팔문금쇄진 무속 911
팥죽 가정 719
편탕 마을 954
평안도무속음악 무속 913
평안도굿무복 무속 911
평진오기굿 무속 915
평창동보현산신각 무속 917
포신 마을 954
포제 마을 954
포제단 마을 957
포항북송리북천수 마을 961
푸너리 무속 918
푸너리춤 무속 919
푸닥거리 무속 919
푸살 무속 920
풍신 가정 719
풍신제 가정 719
피막 마을 961


## ㅎ


하기 마을 964
하로산또 마을 964
하지굿 무속 924
하직굿 무속 926
하진순 무속 927
학질떼기 가정 722
한라산신 마을 966
한라산신제 마을 966
한지 가정 723
한칠동 무속 929
할망상 무속 930
할미가면 무속 930
할배까꾸재 마을 969
함경도무속음악 무속 932
함경도굿무복 무속 931
함평수문리불막이제 마을 971
해남소죽마을중구제 마을 974
해남평암마을도제 마을 977
해동성적지 마을 979
해막 마을 980
해물리기 가정 726
해물리기 마을 981
해미광대탈 무속 933
햇곡식갈기 가정 726
행당동아기씨당굿 무속 934
허개등 무속 940
허궁 가정 729
허수아비 마을 983
허용업 무속 942
허웅애기본풀이 무속 943
허재비 가정 729
허주굿 무속 945
헌관 마을 983
헌식 마을 984
헌식 가정 729
헌작 마을 987
헛배 마을 989
호가 무속 945
호구별성 무속 946
호구별성풀이 무속 947
호구신 가정 729
호남당골굿 무속 951
호남굿무복 무속 948
호살량굿 무속 954
호서낭 가정 733
호식장 가정 734
혼맞이굿 무속 957
혼베 무속 958
혼수맥이 무속 959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마을 989
홍성백월산홍가신제 마을 991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마을 994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마을 996
홍성수룡동당제 마을 998
홍성웅암리당산제 마을 1006
홍성장촌마을산신제 마을 1009
홍수맥이 가정 735
화룡제 마을 1011
화재막이 마을 1012
화재막이 가정 735
황남희 무속 959
황도붕기풍어제 무속 960
황천혼시 무속 962
황토 마을 1012
황하청 무속 965
황해도굿무복 무속 967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무속 971
횡수막이 가정 736
흑산도진리당 마을 1013
희생제물 마을 1016

## 자문위원

김동섭(제주도립미술관)
김지욱(경기문화재단)
김진순(코리아루트)
김효경(한남대학교)
서해숙(전남대학교)
유승훈(부산박물관)
임승범(문화재청)
황경순(국립문화재연구소)

## 감수위원

김명자(안동대학교)
이필영(한남대학교)
나경수(전남대학교)
김헌선(경기대학교)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황루시(관동대학교)
서영대(인하대학교)


ORANGE